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순자

2010년 12월





#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지도교수 강 영 봉

김 순 자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김순자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1952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0년 12월



## 목 차

I. 서 론 .....	9
1. 연구 목적과 방법 .....	9
2. 선행 연구 .....	B
3. 조사 방법과 조사 개요 .....	B
II. 방언 지도와 방언 분포 .....	23
1. 언어지도 작성 .....	23
2. 어휘 해설 .....	24
1) 농사 관련 어휘 .....	24
2) 음식 관련 어휘 .....	30
3) 의복 관련 어휘 .....	40
4) 집 관련 어휘 .....	45
5) 도구 관련 어휘 .....	49
6) 민속 관련 어휘 .....	57
7) 인체 관련 어휘 .....	60
8) 사람 관련 어휘 .....	66
9) 질병 관련 어휘 .....	71
10) 육아 관련 어휘 .....	74
11) 놀이 관련 어휘 .....	76
12) 자연 관련 어휘 .....	79
13) 동물 관련 어휘 .....	84
14) 식물 관련 어휘 .....	102
15) 동사 .....	116
16) 형용사 .....	122
17) 감탄사 .....	124
18) 부사 .....	125
19) 보조동사 .....	125
III. 방언 구획과 방언 분화 .....	127
1. 방언 구획 .....	127
1) 방언 분화의 지리적 유형 .....	127
2) 방언 분화의 양상 .....	131

2. ‘큰섬’과 ‘작은섬’의 방언 분화 .....	133
3. 인상적 방언 분화 .....	137
1) 언중 심리 속에 내재된 방언 구획 .....	138
2) 경계 지점의 언중들의 방언 구획 .....	139
3) 언중 심리 속에 내재된 방언 경계 .....	141
4) 언중 의식 속의 방언 구획과 실제 조사와의 비교 .....	143
IV. 실제 시간에 따른 방언 변화 .....	145
1. 실제 시간 .....	145
2. 변화의 양상과 유형: 현평효(玄平孝) 자료집과의 비교 .....	147
V. 결 론 .....	202
참고 문헌 .....	208
영문 요약 .....	212
부록	
1. 제주도 언어지도 목록 .....	215
2. 제주도 언어지도 .....	217
3. 제주도방언 조사 질문지 .....	299

• 표 목차

<표 1> 조사 지점 .....	19
<표 2> 제보자 현황 .....	21
<표 3> 청미래덩굴의 분화 양상 .....	111
<표 4> 찔레나무의 분화 양상 .....	112
<표 5> 동서형 분화 항목 .....	129
<표 6> 남북형 분화 항목 .....	130
<표 7> 동서 분화형 등어선속 .....	131
<표 8> 남북 분화형 등어선속 .....	132
<표 9> 동서 구간별 등어선속 .....	132
<표 10> ‘큰섬’과 ‘작은섬’의 분화 양상 .....	134
<표 11> 지역별로 본 언중 심리 속의 방언 구획 .....	141
<표 12> 지역별로 본 언중 심리 속의 방언 경계 .....	142
<표 13> 유형별 어휘 목록 .....	201
<표 14> 제주도 언어지도 속의 문헌어 .....	205

• 사진 목차

<사진 1> 허수아비 .....	30
<사진 2> 빙떡 .....	34
<사진 3> 장아찌 .....	37
<사진 4> 밥주걱 .....	38
<사진 5> 도롱이 .....	42
<사진 6> 매듭단추 .....	44
<사진 7> 장독대 .....	48
<사진 8> 고무래 .....	50
<사진 9> 메호미 .....	52
<사진 10> 솔박 .....	54
<사진 11> 화승 .....	55
<사진 12> 벚큰구덕 .....	57
<사진 13> 짚동 .....	58
<사진 14> 깃저고리 .....	75
<사진 15> 들돌 .....	79
<사진 16> 방아깨비 .....	90
<사진 17> 버마채비 .....	91
<사진 18> 민달팽이 .....	93
<사진 19> 거북손 .....	95
<사진 20> 눈알고둥 .....	96
<사진 21> 남방울타리고둥 .....	97

<사진 22> 애기삿갓조개 .....	98
<사진 23> 소라 .....	99
<사진 24> 옥돔 .....	100
<사진 25> 오분자기 .....	102
<사진 26> 개똥참외 .....	103
<사진 27> 구지뽕나무 .....	103
<사진 28> 짜리 .....	104
<사진 29> 냉이 .....	104
<사진 30> 파 .....	105
<사진 31> 새콤 .....	105
<사진 32> 반하 .....	107
<사진 33> 뱀딸기 .....	107
<사진 34> 박 .....	110
<사진 35> 청미래덩굴 .....	110
<사진 36> 찔레나무 순 .....	111
<사진 37> 멸구슬나무 .....	113
<사진 38> 실거리나무 .....	114
<사진 39> 예덕나무 .....	114
<사진 40> 툯 .....	116

• 지도 목차

<지도 1> 제주도 행정구역과 도서 .....	11
<지도 2> 제주삼읍도 .....	12
<지도 3> 조사 지점도 .....	18
<지도 4> 제주도방언 등어선 .....	128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방법

이 연구는 제주도 언어지도 작성하고 실제 시간에 따른 방언형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언어지도 작성함으로써 방언 어휘의 지역적 분화 양상을 고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방언의 하위 방언 구획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언어지도 작성은 각 도 별로 이루어졌으나 유독 제주도만이 언어지도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 연구를 촉발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언어지도란 어떤 언어 현상의, 각 지점에서의 방언형을 보여주는 지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 현상의 여러 방언형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내 주는 지도가 언어지도인 것이다.”<sup>1)</sup>

이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언어지도 작성은 물론 그 지도를 통하여 제주 문화 현상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곧 제주도 방언을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함으로써 ‘산남’, ‘산북’이라는 문화 용어를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하는 문제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선 5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제주목(濟州牧)·대정현(大靜縣)·정의현(旌義縣)이라는 삼읍 체제가 언어 분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또 자연 환경으로 인한 ‘큰섬’인 제주도(濟州島)와 ‘작은섬’인 우도(牛島)·비양도(飛揚島)·마라도(馬羅島)의 언어 현상이나 방언형이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살피게 된다. 또 현지 조사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동네 말은 대정 말허고는 달라”라든가, “대정 말허고 정의 말 허고도 달르주.”라는 언중들의 방언에 대한 인상적 평가가 맞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나아가 조사 지점을 현평효(玄平孝)(1962)의 조사 지점<sup>2)</sup>과 동일하게 선정함으로써 50여 년의 실제적 시간 거리가 방언형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제주도방언은 국어학 내지 국어방언학에서 볼 때 진중한 가치를 지닌다. 아래아(·)를 비롯하여 음운적인 측면을 물론이요, 어휘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제주도방언은 오래전서부터 방언학자와 언어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문헌어에 남아 있는 어휘들이 제주도방언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 하는 점도 확인함으로써 제주도방언이 국어학 내지 국어방언학에서 갖는 중요한 위치도 점검하게 된다.

연구 방법은 제주도 언어지도 작성에 있기 때문에 전통방언학의 방법을 원용할

1)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84, 109쪽.

2) 여기에서 현평효의 조사 지점은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를 위하여 조사한 노형 조천 세화 김녕 어도 조수 서흥 태흥 표선 가시 하원 화순 인성 등 14개 마을이다.



것이다. 제보자는 토박이·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조사는 질문지를 가지고 각 조사 지점별로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는 제주도방언으로 질문하고 그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실물 사진을 보여주어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제보자의 응답은 원칙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발화한 응답형을 취하였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식적인 응답이 될 뿐더러 다른 지역의 방언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방언형이 섞이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집필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전화 통화라는 통신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갔다.

조사 지점은 읍면<sup>3)</sup>에서 각 1지점씩 선정하였는데 현평효의 조사 지점과 대체로 동일한 지점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조사 시간이 50여 년이라는 시간적 거리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다. 현평효에서 조사되지 않은 한림(翰林)과 우도(牛島) 두 지점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그리게 되는 제주도 언어지도는 진열지도다. 방언 구획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해석지도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지점에서 조사된 방언형을 함께 표시하여 제시함으로써 조사 지점에서의 방언형 확인을 쉽게 하려 하였다.

방언 구획과 언어지도 작성은 전통적인 방법인 통계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곧 방언 구획은 등어선에 의해 행해지는데<sup>4)</sup> 방법을 취하였다. 이는 방언 구획을 위한 여러 가지 방언 측정법이나 지도 작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주도 실정에서는 오히려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었다.

I 장은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본 연구에 필요한 조사 과정과 질문지, 제보자 정보, 언어지도 작성에 필요한 방법과 범례 등을 다룬다.

II 장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155개 어휘의 언어지도와 분화양상을 살필 것이다. 어휘 해설은 질문지 순서에 따라 소주제로 나눠 진행하였다. 또 문헌어와의 관계를 통하여 국어학 내지 국어방언학에서의 중요한 위치도 점검하게 된다.

---

3) 여기에서의 ‘읍면’은 현평효 조사 지점 당시의 행정 구조 안의 ‘읍면’이다. 여기에 1986년 면(面)으로 승격 한 우도(牛島)를 포함하여 14개 지점을 조사 지점으로 삼았다. 당시 행정 체제와 현재의 행정 체제가 달라서 편의상 이 논문에서는 ‘구좌읍, 한림읍’ 따위의 ‘읍·면’ 표시를 하지 않고, ‘구좌’·‘한림’처럼 표기할 것이다. 여기에 비양도와 가파도를 추가하여 이번에 제주도 언어지도 작성을 위하여 조사된 지점은 모두 16 군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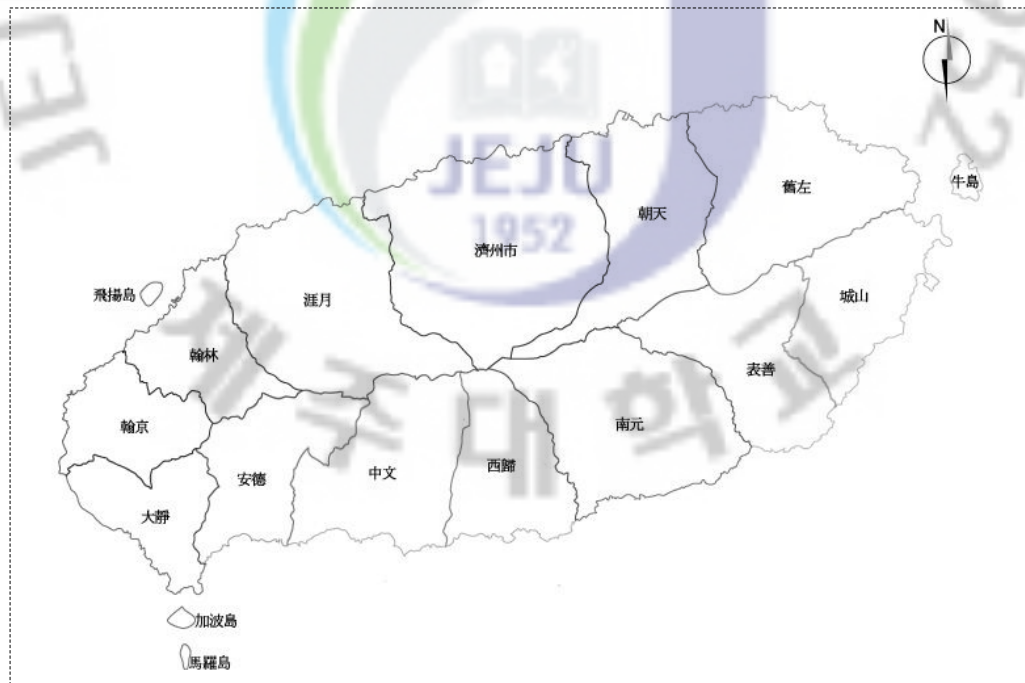
4) 이익섭, 앞의 책, 137쪽.

Ⅲ장은 방언 구획의 방법, 방언 분화의 지리적 유형, 방언 분화의 양상 등을 통하여 제주도방언의 하위 방원권이 확정될 것이다. 방언 분화의 지리적 유형은 동서형·남북형·복합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한편 방언 분화의 지리적 유형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등어선을 확정하고, 그렇게 된 원인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행정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방언을 4개의 하위 방원권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제주도 동북방언(조천·구좌·우도), 제주도 서북방언(제주시·애월·한림·한경), 제주도 동남방언(서귀·남원·표선·성산), 제주도 서남방언(중문·안덕·대정)이라 명명할 것이다. 또 자연 환경으로 인한 제주 본섬인 '큰섬'과 부속 도서인 '작은섬', 즉 우도(牛島)·비양도(飛揚島)·가파도(加波島)의 방언 분화도 알아볼 것이다. 이와 함께 언중들에게 내재된 인상적 방언 분화와 실제 조사를 통하여 얻어낸 연구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도 살펴볼 것이다.

Ⅳ장은 본 연구의 조사 지점이 대체로 현평효의 조사 지점을 따랐기에 현평효 자료집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50여 년 동안의 실제 시간(real time)에 의한 언어 변화 모습도 확인하게 된다.

Ⅴ장은 앞에서 논의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 장으로 결론으로 삼으려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쓰이는 몇몇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지도 1> 제주도 행정구역과 도서

- 제주시: 이 ‘제주시’는 <지도 1>에서 보는 것처럼 고려시대 이래로 대촌현(大村縣)에 해당하는 제주시를 말한다.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로서의 ‘제주시’와는 다르다. 다만 제보자 주소에 쓰인 제주시는 행정시 명칭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해당한다. 이는 서귀포에서도 적용된다.

- 서귀포: 이 ‘서귀포’는 1981년 7월 1일 서귀읍(西歸邑)과 중문면(中文面)을 합한 서귀포시와는 다르다. 서귀포시로 승격되기 이전의 서귀읍(西歸邑)을 말한다.

- 산북(山北): ‘산북’은 한라산의 북쪽이라는 뜻으로, <지도 1>의 제주시를 비롯하여 그 동쪽인 조천읍(朝天邑)과 구좌읍(舊左邑), 서쪽의 애월읍(涯月邑)·한림읍(翰林邑)·한경면(翰京面)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산북은 조선시대의 제주목(濟州牧)과 거의 일치한다.

- 산남(山南): ‘산남’은 앞의 ‘산북’과 대칭되는 명칭으로, 한라산 남쪽이라는 뜻이다. <지도 1>의 서귀읍(西歸邑)을 비롯하여 그 동쪽의 남원읍(南元邑)·표선면(表善面)·성산읍(城山邑)과 서쪽의 중문면(中文面)·안덕면(安德面)·대정읍(大靜邑)을 포함한다.



<지도 2> 제주삼읍도

- 제주목: ‘제주목’(濟州牧)은 <지도 2>에서 보는 것처럼 1416년부터 1914년까지 498년 동안의 삼읍 체제 당시의 제주도 행정 중심지를 말한다. 이 제주목은

앞에서 본 ‘산북’과 거의 일치하는 지역이다.

- 대정(현): ‘대정(현)’(大靜縣)은 앞의 ‘제주목’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 삼읍 체제 당시 제주도 서남 지역의 중문면·안덕면·대정읍을 포함한 지역이다.

- 정의(현): 이 ‘정의(현)’(旌義縣)은 앞의 ‘제주목’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 삼읍 체제 당시 제주도 동남지역으로, 서귀포(西歸浦)를 비롯하여 남원읍(南元邑)·표선면(表善面)·성산읍(城山邑)을 포함한 지역이다.

- 큰섬: ‘큰섬’은 우도 조사에서 제보자가 제주도 본섬을 ‘큰섬’이라 하는 데서 착안한 명칭으로, 이 연구에서 작위적으로 만들어 쓰는 이름이다. ‘큰섬’은 커다란 섬이란 뜻으로, 제주도 본섬을 뜻한다. 우도에서는 제주도 본섬을 ‘큰섬’ 또는 ‘ㄱ시’라고 표현한다. 비양도(飛揚島)에서는 본섬을 ‘ㄱ이, ㄱ디’라고 하고, 가파도에서는 ‘ㄱ디’라고 한다. 즉 ‘큰섬’은 ‘작은섬’과 대칭되는 명칭이다.

- 작은섬: ‘작은섬’은 제주 본섬을 제외한 도서 지역인 우도·비양도·마라도·가파도를 일컫는 이름으로, 이 연구에서 작위적으로 만들어 쓰는 말이다. ‘작은섬’은 앞의 ‘큰섬’과 대칭되는 이름이다. 마라도는 가파도와 인접한 섬이어서, 이 두 섬의 방언형은 거의 같을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 지점에서는 제외하였다.

## 2. 선행 연구

전국적인 언어지도는 대한민국 학술원(1993)의 『한국 언어지도첩』이 있다. 이 지도에는 북한을 포함한 전국의 언어지도 4장이 그려져 있다. 곧 ‘말(言)의 운소 분포·여우(狐)의 어형·새우(蝦)의 어형·듣-(聞)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sup>5)</sup>

남한의 언어지도는 이익섭(2008) 등에 의하여 작성된 『한국언어지도』가 있다. 『한국언어지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이 조사한 내용이 담긴 『한국방언자료집』을 토대로 컬러로 그려진 153장의 언어지도가 담겨 있다. 지도마다 해설이 곁들여져 지도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각 도별 언어지도는 이익섭(李翊燮)·이기갑(李基甲)·소강춘(蘇江春)·김충회(金忠會)·황인권(黃仁權)·박정수(朴貞秀)·김택구(金澤九)·김덕호(金德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5) 이 지도에는 동남방언의 ‘3음절 명사의 성조형’과 ‘사동사와 피동사의 성조형’, 서남방언의 ‘부사형 어미 ‘-이/어’의 교체, 동북방언의 ‘곱-’의 활용, ‘출-’의 형태론 등이 더 있다.

- 이익섭(1981): 강원도 언어지도 52장
- 이기갑(1986): 전라남도 언어지도 77장
- 소강춘(1989): 전라북도 언어지도 76장
- 김충희(1992): 충청북도 언어지도 83장
- 황인권(1999): 충청남도 언어지도 154장
- 박정수(1999): 경상남도 언어지도 49장
- 김택구(1999): 경상남도 언어지도 90장
- 김덕호(1999): 경상북도 언어지도 78장

제주도 언어지도는 현용준(玄容駿)·성낙수(成洛秀)·오창명(吳昌命)에 의한 업적이 있다.

현용준(1972)은 대학생 시절에 전도적으로 조사한 ‘잠자리’의 분화형 14개의 어휘를 ‘벌’계(밤부리, 밤무리, 한다부리), ‘주얼’계(밥주얼, 밥주어리, 밥주리), ‘잘’계(잘, 물자리, 물젤, 응잘), ‘기타’(망이, 산태, 왕놈)로 나누고 연구한 후 각각의 유형을 ABCD로 범례화하여 한 장의 지도에 표시하였다.<sup>6)</sup> 현용준은 이 논문에서 “「벌」系 구역은 濟州市 일대요, 「주얼」系 구역은 涯月面에서 西廻하여 西歸面까지의 일대이며, 「잘」系 구역은 南元面에서 東廻하여 朝天面까지의 일대로 잡을 수 있다. (중략) 이 분포 구획은 舊行政區域인 濟州 大靜 旌義의 구획이나 漢拏山의 山南 山北의 구획과도 다른 구획을 짓고 있다. 크게 보아 주얼系와 잘系가 漢拏山을 중심하여 東西로 구획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sup>7)</sup>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각각 유형에 대한 언중들의 언어 인식으로 ‘벌’계는 ‘벌’(蜂)로, ‘주얼’계는 ‘등에’(虻), ‘잘’계는 ‘매미’(蟬)로 인식한 결과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성낙수(1992)는 현평효(玄平孝)의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가운데서 각 지역<sup>8)</sup>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가끔씩 전 지역에 걸쳐 조사된 제주도방언의 특색이 두드러진 어휘를 선정하여 69개의 방언지도<sup>9)</sup>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교 대상 어휘수와 동일 어휘수의 백분율을 계산하여 통계 처리하고, 결론으로 남·

6) 玄容駿, 「濟州方言의 「잠자리(蜻蛉)」 이름 考」, 『제대학보』 제13집, 제주대학, 1972, 49쪽. 이 지도는 도안형 진열지도 성격을 지닌다.

7) 현용준, 위의 논문, 48~50쪽.

8) 여기에서 각 지역은 제주도를 읍면 지역으로 나눠 조사한 현평효의 조사 지점을 말한다. 구좌면과 표선면은 두 곳이 조사되었고, 한림읍은 미조사 지역이다. 성낙수의 지도에서도 미조사 지역은 해당 방언형이 표시되지 않았다.

9) 이 지도는 음성형 진열지도의 성격을 지닌다. 이 지도의 대상 어휘는 다음과 같다. 갈매기, 거품, 곁, 고누, 그네, 그을음, 논개, 떼(筏), 도마뱀, 도롱이, 도시락, 두레박, (산)마루, 마마, 무릎, 문지도리, 물레, 말미잘, 바랭이, 밥주걱, 방아깨비, (작은)밭, 부끄럼, 불쏘시개, 사례, 서남풍, 소라개, 소리개, 어부, 옆구리, 으름, 이마베기, 잠방이, 잠자리, 가오리연, 까치, 개구리, 개상어, 고무래(곡식용), 고무리(재용), 골짜기, 파리, 굴뚝새, 나무랭이, 달팽이, (닭의)어리, 말미잘, 매미, 메밀, 방귀쟁이, 배꼽, 베갯모, 불똥, 붓두껍, 숯돌, 쇠양간, 앵두나무, 오징어, 울챙이, 왼손잡이, 울무, 장구벌레, 절벽, 종달새, 중대가리, 지네, 참새, 콩나물, 탕자, 툇밥.



북 간의 차이보다 동·서 간의 차이가 월등히 높고,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흥과 태흥, 태흥과 표선, 제주와 조천은 차이가 심하고, ‘제주·어도·조수·인성·화순·하원·서흥’과 ‘조천·김녕·수산·표선·태흥’은 공통적 요소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오창명(2006: 971)은 산북 지역인 북제주군을 조사 지역 대상으로, 10개의 어휘를 조사하여 10장의 지도<sup>10)</sup>를 그리고, “어휘에 따라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뉘는 것도 있지만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눌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좌읍 종달리와 우도면 천진리 어휘들은 대부분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어휘와 일치하는 것이 많아서 다른 지역의 북제주군 언어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밖에도 석주명(石宙明)·현평효(玄平孝)·강정희(康貞姬)·강영봉(姜榮峯) 등도 하위 방언 구획의 개연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석주명(1947: 9)은 『제주도방언집』 ‘일러두기’ 성격의 글에서 “3.濟州島語는 1方言으로 볼 수 있으나 濟州, 旌義, 大靜의 3地方語로 다시 논할 수도 있고, 또 1地方語도 부락마다 다소 相違하니 세분한다면 끝이 없다. 그래서 편의상 上記의 兩君을 통하여 系統的으로 漢拏山을 중심으로 北部語와 南部語로 二分하여 수집하였다.”하여 ‘제주·정의·대정’과 ‘북부어·남부어’로 나눌 수 있는 개연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현평효(1962: 3)는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자서’에서 “일차에는 방언의 특질과 소구획을 정해 보기 위하여 음운상으로나 형태상으로 가장 방언적 특질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어휘 약 2천을 골라 12개 지점에서 조사했고 이차 이후에는 방언으로서의 특질이 있는 어휘들은 물론 표준어와 동계의 어휘들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7개 지점에서 조사하였다.” ‘자서’의 ‘소구획을 정해 보기 위하여’라는 구절로 볼 때 현평효도 하위 방언 구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정희(1988: 22)는 『제주방언연구』에서 “제주도를 세분할 적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남 지방’과 ‘산북 지방’으로 나누기도 한다. 제주방언을 이렇게 나누면 비록 하위 방언권으로 묶을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을지 모르나 작은 특징을 뽑아낼 수는 있다.”라고 하여 남북으로 하위 방언권을 구획할 개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강영봉(1986: 10~14)은 「제주도방언의 식물이름 연구」에서 해촌과 중산간 지역의 차이를 중산간 마을에서는 주로 ‘-쿨’이라는 접사가 붙고, 해안 마을에서는 그

10) 조사 지점은 읍면별로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지점은 한림읍(귀덕2리, 상도리), 애월읍(구암리, 유수암리), 구좌읍(종달리, 송당리), 조천읍(북촌리, 선흥리), 한경면(고산1리, 조수1리), 우도면(천진리) 등이다. 이 지도는 조사된 방언형을 한글로 표시한 진열지도이며, 조사 어휘는 ‘도마뱀, 잠자리, 청미래덩굴, 박, 모자반, 툷, 새총, 태왁, 정미소, 고무래’다.

렇지 않다는 점, 중산간 마을에서는 부분이 전체 곧 열매 이름을 가지고 나무와 열매를 지칭하는 반면 해안 마을에서는 열매와 나무를 구분하는 점, 중산간 마을에서는 유독 '-낭'만 나타나는 반면 해안 마을에서는 '-낭' '-냇' 형태로 나타나는 점, 해안 마을에서는 '꽃'이 연결되는 점을 두어 '표고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계선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곧 해안 마을의 언어를 '향해지역어'(向海地域語), 중산간 마을의 언어를 '향산지역어'(向山地域語)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화 중심으로 '산북'과 '산남', 역사적 관점에서 '모관', '대정', '정의', 지역적으로 '동부', '서부' 그리고 표고 중심으로 '향산지역', '향해지역'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3. 조사 방법과 조사 개요

#### (1) 조사 방법

조사는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는 '제주 지역어 조사'(2005~)와 '민족생활어 조사'(2007~)에 참여하면서 제주도방언이 지역적인 분화를 나타내는 어형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화상이 뚜렷한 어휘 항목들을 하나하나 수집하였다. 두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2009~2010년 약 1년여에 걸쳐 현평호 외(1995) 『제주어사전』을 텍스트로 하여 지역적인 분화가 뚜렷한 어휘 항목을 추출한 후 기본어휘 항목을 21의 소수제로 나눠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기타 분야'로 '우리 고장은 어디하고 다른지, 방언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항목 2개도 삽입하여 언중들의 심리 속에 내재된 방언 구획도 살펴보려고 하였다.

문헌 조사는 앞에서 소개한 『제주어사전』을 사용하였고, 현장조사는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만든 질문지를 가지고 연구자가 직접 조사 지점을 찾아가 제보자와 1 대 1, 또는 1 대 2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해당 지점의 경로당이나 제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사진 자료가 있는 어휘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자가 먼저 해당 항목의 방언형을 예시하여 방언형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제주도 언어지도는 1차 문헌조사와, 2·3차 현지 조사, 4차 현지 추가 조사 등 4차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① 1차 조사

여기서 1차 조사라 함은 질문지 작성에 필요한 어휘 항목을 추출하고 질문지

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조사는 연구자가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지점인 한경면(翰京面) 조수리(造水里)(2005)의 안내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이후 서귀포시(西歸浦市) 호근동(好近洞)(2006), 표선면(表善面) 가시리(加時里)(2007), 구좌읍(舊左邑) 동복리(東福里)(2008), 서귀포시(西歸浦市) 색달동(穢達洞)(2009) 조사의 보조연구자로 참여하면서 어휘 분화 양상을 조사하였고, 그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또 2007년부터 실시한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 제주지역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된 제주도방언의 분화상도 참고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인 제주도방언의 분화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현평효 외 『제주어사전』을 탐독하여 분화상이 뚜렷한 어휘 575개 조사 항목을 뽑았다. 이렇게 뽑은 항목 가운데 방언차가 뚜렷한 310개의 기본 어휘 항목을 가려낸 후 21개 분야로 나눠 언어지도 작성에 필요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 ② 2차 조사

2차 조사는 질문지를 가지고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1~2회의 현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어휘는 수시로 전화 조사로 확인하였다. 전화 조사로도 확인되지 않은 항목들은 지도 작성에서 제외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선정된 310개 기본어휘 항목을 가지고 만든 질문지를 가지고 연구자가 직접 조사 지점을 찾아가 제보자를 1 대 1 또는 1 대 2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자가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언어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하였다. 사진이 있는 경우는 사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에 응당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보기의 예를 들어줌으로써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은 가급적 제주도방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제보자로 하여금 친근감이 들게 하는 한편 제보자가 쉽게 그 지역 방언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다.

### ③ 3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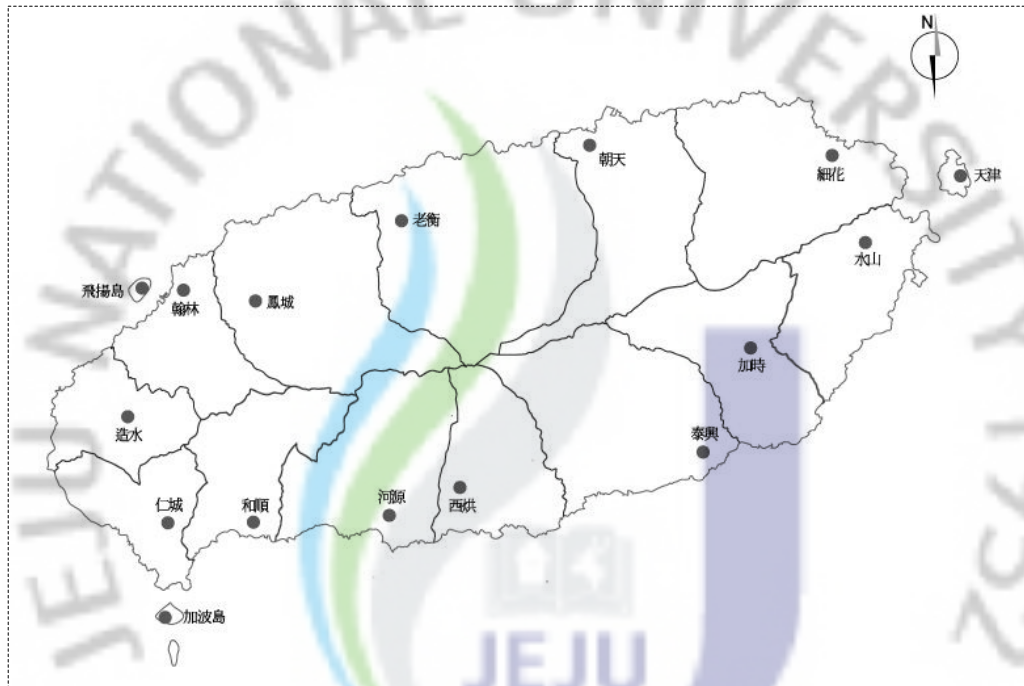
3차 조사는 2010년 8~9월에 이루어졌다. 14개 조사 지점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섬과 인접 지역인 우도의 언어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본섬 이외의 도서 지역인 ‘작은섬’의 언어를 추가하여 조사한 경우다. 제주도에는 본섬 이외에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추자도 등 5개의 유인도가 있다. 이 가운데 추자도의 언어는 전남방언권에 속하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마라도는 가파도 인근 섬이어서 가파도 언어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3차 조사는 비양도와 가파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작은섬’ 조사는 2차 조사 지점인 우도와 3차 조사 지점인 비양도와 가파도 세 곳에서 이루어졌다.



#### ④ 4차 조사

4차 조사는 지도 작성 과정에서 인근 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 재조사 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 자료를 참고하거나 또 다른 제보자를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현평효의 자료집에 제시된 방언 형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재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질문 사항이 많지 않아 제보자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 (2) 조사 지점



<지도 3> 조사 지점도

조사 지점은 제주도가 1도 1시 2군 체제로 이루어질 때의 행정구역 가운데 시·읍·면 지역 각 1곳씩 14개 지점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비양도와 가파도를 추가하여 총 16개 지점에서 조사하였다.

1차 조사 지점은 현평효(1962)의 조사 지점을 따랐다. 현평효의 조사 지점 가운데 읍·면 지역에서 2지점이 조사된 구좌읍 세화와 김녕, 표선면 표선과 가시 가운데는 김녕과 표선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현평효의 조사 지점에서 빠진 우도와 한림을 조사 지점으로 새로 끼워 넣었다. 현평효의 조사 지점을 이어 받은 것은 현평효의 조사 어휘와 50년이 지난 후의 실제 시간(real time)에 따른 변화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또 제주도 ‘본섬’과 부속 도서인 ‘작은섬’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양도와 가파도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조사 지점은 다음과 같다. ( ) 안은 조사 일시다.

- ①제주시 노형(2010. 7. 4./9. 9.)
- ②애월 봉성<sup>11)</sup>(2010. 7. 5.)
- ③한림 한림(2010. 7. 16.)
- ④한경 조수(2010. 7. 2.)
- ⑤대정 인성(2010. 7. 9.)
- ⑥안덕 화순(2010. 7. 7.)
- ⑦중문 하원(2010. 7. 9.)
- ⑧서귀 서홍(2010. 7. 10.)
- ⑨남원 태홍(2010. 6. 23.)
- ⑩표선 가시(2010. 6. 23.~24.)
- ⑪성산 수산(2010. 6. 24.)
- ⑫우도 천진(2010. 7. 17.)
- ⑬구좌 세화(2010. 7. 6.)
- ⑭조천 조천(2010. 7. 7.)
- ⑮한림 비양도(2010. 9. 17.)
- ⑯대정 가파도(2010. 8. 27.)

이를 표로 보이면 <표 1>과 같다.<sup>12)</sup>

<표 1> 조사 지점

한경 조수	한림 한림	애월 봉성	제주 노형	조천 조천	구좌 세화	우도 천진	비양도
☆	★	☆	☆	☆	☆	★	★
대정 인성	안덕 화순	중문 하원	서귀 서홍	남원 태홍	표선 가시	성산 수산	가파도
☆	☆	☆	☆	☆	☆	☆	★

11) 애월읍 봉성을 현평효의 조사 지점에는 '애월면 어도리'로 표현되어 있다. '어도리'는 현재 '애월읍 봉성리'의 옛 이름이다.

12) 조사 지점 가운데 ☆표는 현평효 조사 지점을 이어 받아 조사한 지점이고, ★표는 연구자가 추가로 조사한 지점이다. 조사 지점 배열은 제주도 지도를 표로 보인 것이다.

### (3) 질문지와 제보자

#### ① 질문지

질문지는 약식 질문지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310개의 어휘 항목과 언중의식을 묻는 질문 2개 항목 등 총 312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310개의 어휘 항목을 분야별로 보면, 농사 관련 10개, 음식 관련 25개, 의복 관련 15개, 집 관련 20개, 도구 관련 22개, 민속 관련 5개, 인체 관련 27개, 사람 관련 13개, 질병 관련 9개, 육아 관련 7개, 놀이 관련 8개, 친족 관련 3개, 자연 관련 18개, 동물 관련 38개, 식물 관련 32개, 동사 29개, 형용사 8개, 감탄사 4개, 부사 12개, 문법소와 음운 사항 5개다.

조사 항목은 표준어를 원칙으로 하고, 그 옆으로 분화상을 보이는 어휘들을 배열하였다. <예시>된 어휘 이외의 어휘가 조사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타\_\_\_\_\_’란을 두어, 새로운 어휘가 조사될 경우에 적을 수 있게 대비하였다. 조사 항목 가운데 표준어로 대역하지 못하는 어휘는 ‘083 솔박’처럼 제주도방언을 그대로 살려서 조사 항목으로 삼았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 항목들은 분야별로 유기적으로 배열하였다.

<예시>

#### 01 농사 관련 어휘

001 농사 농스\_\_\_\_\_ 용시\_\_\_\_\_ 농시\_\_\_\_\_ 기타\_\_\_\_\_

#### 05 도구 관련 어휘

083 솔박 속박\_\_\_\_\_ 손박\_\_\_\_\_ 솔박\_\_\_\_\_ 좁박\_\_\_\_\_  
좁박세기\_ 기타\_\_\_\_\_

#### 21 기타

311 우리 고장 말은 어디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질문 방식은 항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택하여 썼다. 현물(現物)이 있거나 인체의 부분 명칭을 물을 때는 “이거 일름 뭐우과?”라고 식으로 직접 묻는 방식을 택하였고, ‘하품’이나 ‘도리도리’ 따위는 시늉과 진술을 동시에 하면서 조사하였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빗름 중에 휘익 돌면서 부는 빗름은 뭐렌 헤마씨?”처럼 제주도방언으로 질문하는 진술 방식을 택하였다. 해당 방언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조사된 어휘 또는 인근 지역의 방언을 제시하여 “여기서는 이런 말 안 써마씨?”라고 물었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해서 제시하여 주었고, 제시된 방언 가운데 없을 경우에는 “없다”는 응답을 이끌어냄으로써 재

조사 어휘로 분류하여 조사를 다시 하였다. 질문을 할 때는 조사자와 제보자간에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호칭을 ‘삼촌’이라고 하였다. 사진 자료가 있는 항목은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였다.

## ② 제보자

제보자는 조사 지역 출신으로서 그 지역에서 멀리 떠나보지 않은 70대 이상 토박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는 조사 마을의 이장이나 노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지역 출신으로, 지역에서 멀리 벗어난 경험이 없고, 방언을 잘 구사하는 사람을 소개 받은 후에 연구자가 조사를 해보면서 제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선정하였다.

제보자는 치아가 고르고, 발음이 정확하며, 교육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을 택하였다. 그러나 대정읍 인성리와 한림읍에서 소개받은 제보자 가운데 몇몇은 고졸 출신자도 있어 제보자 기준에 어긋났지만 제보자들이 제주도방언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제보자로 선정한 경우다. 나머지 제보자들은 대부분 무학이거나, 초졸, 중졸자다. 조사 지점마다 1명의 제보자를 원칙으로 조사하였으나, 2명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 큰 도움을 준 제보자는 모두 35명이다. 제보자 현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제보자 현황

조사 지점	이름	나이	성별	주소	학력
제주 노형	현창용	79	남	제주시 노형동	중학 중퇴
	문 열	85	여	"	무학
애월 봉성	강여길	81	남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간이학교(2년)
	강자숙	80	여	"	무학
한림 한림	김봉효	73	남	제주시 애월읍 한림2리	무학
	채희식	74	남	"	고졸
한경 조수	김성옥	85	남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	서당
	이옥춘	79	여	"	초졸
대정 인성	박태옥	76	남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고졸
	김창선	78	남	"	고졸
안덕 화순	지인홍	93	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무학
	지연백	79	남	"	초등(5년)
	성춘열	78	여	"	무학
	양춘자	83	여	"	무학
중문 하원	김기윤	75	남	서귀포시 중문면 하원리	무학
서귀 서홍	변태문	76	남	서귀포시 서홍동	중졸
	김도현	79	남	"	무학
	김길영	71	남	"	무학
	김윤수	80	남	"	무학
	김태선	75	남	"	무학

남원 태흥1리	김경만	79	남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초졸
	김홍은	74	남	"	무학
표선 가시	오국현	76	남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무학
	정서홍	76	여	"	무학
성산 수산	김한석	86	남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무학
우도 천진	채성기	83	남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무학
	김선옥	81	여	"	무학
	홍한옥	84	여	"	무학
구좌 세화	문제선	85	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무학
	강중화	75	남	"	중졸
조천 조천	한희규	76	남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무학
	김창혜	82	여	"	무학
한림 비양도	차철의	76	남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비양동	무학
	김순선	81	여	"	무학
대정 가파도	김대중	87	남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초졸

#### (4) 전사

전사는 형태 음소로 한글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 논문이 음운론 또는 음성론과 관련한 연구가 아니라 제주도방언의 하위 구획 작성이 목적이기에 ‘제주어 표기법’<sup>13)</sup>에 따라 형태 음소로 전사하였다. 발음이 필요한 경우는 조사 현장에서 한글로 ‘신돌’[신똥], [썰똥], [쓸똥]처럼 발음을 표시하며 조사하여 분화상을 살피려고 하였다.

13) 제주어표기는 현평호 위(2009: 903~914)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에 실린 <부록-제주어표기법>을 참고하였다. 이 표기법은 제주방언연구회가 1991년 제정한 것이다.

## II. 방언지도와 방언 분포

### 1. 언어지도 작성

언어지도(linguistic map)란 어떤 언어 현상의, 각 지점에서의 방언형을 보여주는 지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현상의 여러 방언형의 지리적인 분포를 나타내 주는 지도가 곧 언어지도인 것이다. 언어지도는 한 장 한 장의 지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것들을 전부 묶은 책을 가리킬 수도 있다.<sup>14)</sup>

언어지도는 방언 자료를 기입해 넣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한 분류법은 진열지도(display)<sup>15)</sup>와 해석지도(interpretive)<sup>16)</sup>로 나누는 방식이 있다.<sup>17)</sup>

제주도 언어지도는 언어의 분화상을 한눈에 살필 수 있게 방언형을 도안적인 기호로 바꾸어 기입하는 방식인 도안형지도로 작성한다. 즉 도안형 진열지도인 셈이다. 지도의 범례( $\Delta \nabla \subset \supset \ominus \oplus \boxplus \leq \vee \wedge$  등)는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계열별로 비슷한 모양을 취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조사된 어휘 가운데는 분화상이 뚜렷한 어휘들도 많지만, 기존의 조사 내용과 달리 분화상이 미미한 것들도 있다. 따라서 지도 작성은 비교적 분화상이 뚜렷하고 분계선을 보여주는 어휘 155개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또 그 분화상이 어떠한 등어선(等語線)을 이루며, 어떤 방언 구획을 가능하게 하는지도 살필 것이다. 방언 구획이 나누어지는 곳은 등어선의 두께를 굵게 표시하여 한눈에 방언 분화상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려지는 지도는 ‘제주도 행정구역과 도서’, ‘조사 지점도’, ‘동서도현도’, ‘제주삼읍도’, ‘하위 방언 구획도’, ‘인상적 방언 구획’과 155개의 어휘 분화상을 기호로 표시한 155장의 진열지도까지 모두 161장이다.(<부록 2> 제주도 언어지도 217~298쪽 참조.)

14) 이익섭, 앞의 책, 109~110쪽.

15) 진열지도는 각 조사 지점에 해당 방언형을 기입해 넣는 방식으로 만든 지도를 말한다. 해당 방언형을 음성기호로 직접 지도에 기입해 넣는 ‘음성기호지도’와 방언형을 동그라미, 세모꼴, 네모꼴 따위의 도안을 만들어 지도에 기입하는 방식의 ‘도안형지도’, 색깔을 이용하여 방언형을 구분하는 ‘천연색지도’, 방언형이 쓰이는 지역 전부를 사선 등으로 기입해 넣는 ‘분포도’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책, 110쪽, 115쪽 참조.

16) 해석지도는 진열지도의 바탕 위에서 방언 구획을 한 다음 그 구획을 보임으로써 더 단순화된 방식으로 방언 분포를 보이는 지도다. 방언구획을 보이는 지도이므로 한쪽 구역을 사선으로, 다른 한쪽 구역을 횡선으로 하는 식으로 한 구역 전체를 묶어 어떤 모양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때로는 그 구역에 음성기호를 써 넣는 방식도 쓰인다. 위의 책, 117쪽 참조.

17) 위의 책, 110쪽.



## 2. 어휘 해설

어휘 해설은 제주도 언어지도를 그린 155개의 어휘 항목에 대하여, 질문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상 어휘는 농사 관련 어휘 9개, 음식 관련 어휘 14개, 의복 관련 어휘 9개, 집 관련 어휘 6개, 도구 관련 어휘 10개, 민속 관련 어휘 3개, 인체 관련 어휘 10개, 사람 관련 어휘 6개, 질병 관련 어휘 6개, 육아 관련 어휘 3개, 놀이 관련 어휘 5개, 자연 관련 어휘 8개, 동물 관련 어휘 28개, 식물 관련 어휘 21개, 동사 9개, 형용사 4개, 감탄사 1개, 부사 1개, 문법소와 음운 사항 2개 등이다.

어휘 해설은 각각의 어휘에 대하여 분포상을 보여주는 한편 음운, 형태, 어원 등 생동하는 언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어원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문헌에서 찾아 제시하는 한편 문헌어가 제주도방언에 얼마나 많이 잔존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 문화적인 특성이 드러난 어휘들은 문화적인 요소를 곁들여 해석하였고, 다양한 분포상을 보여주는 방언형은 최대한 살려서 기술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청미래덩굴’과 ‘찔레나무’인 경우는 어휘 분화가 충청에서도 일어나지만, 계열어인 열매와 순 이름에서도 분화하기에 그 분포 양상을 기술하여 생동하는 언어의 모습을 보이려 하였다. 언어의 생동하는 모습을 다채롭게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녹아있는 우리말의 긴 역사를 드러내 주는 한편 각 지역의 독특한 삶의 흔적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18)</sup>

### 1) 농사 관련 어휘

#### ① 농사(언어지도 006)

‘농사’의 방언형은 ‘용시, 농스, 농시’ 등으로 나타난다.

- ㉠ 용시
- ㉡ 농스
- ㉢ 농시

‘농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용시’이며, 다른 하나는 ‘농스, 농시’이다. ‘용시’는 대정(大靜)·안덕(安德)·서귀(西歸)·남원(南元)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면 ‘농스’는 제주 전역에 분포한다.<sup>19)</sup> ‘농스’는 『운음언해』에 “졸양흔 농스는 아오로 험늉흐야 밧는디 드는지라.”에서 확인되듯이 고

18) 이익섭 외,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2008, 5쪽.

19) ‘용시’가 나타나는 지역은 별도로 ‘농스’에 해당하는 범례를 지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어형이 그대로 제주도방언에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경우다. ‘·>ㅣ’의 변화 과정을 거친 ‘농시’는 남원(南元)과 한경(翰京)에서 나타난다. 서북부 끝에 위치한 한경(翰京)에서는 ‘용시’와 ‘농시’가 동시에 나타나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마간이**(언어지도 007)

‘마간이’는 ‘장마가 끝난 다음에 짓는 농사, 특히 조 농사.’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어휘이다. ‘마간이’의 방언형은 ‘마간이, 마깁이, 마결이’로 나타난다.

- ㉠ 마간이
- ㉡ 마깁이
- ㉢ 마결이

‘마간이’는 {마[霖]+간--+이} 구성으로 산북(山北)에 분포하며, ‘마결이’는 {마[霖]+결--+이} 구성으로 산남(山南)에 분포한다. ‘마간이’가 ‘ㅣ’모음 역행동화한 ‘마깁이’는 구좌(舊左)에 분포한다.

‘마가 결히다’는 의미의 제주도방언은 ‘마간다, 마결다’이다. 여기에서 ‘간다, 결다’는 ‘결히다’의 의미로, 문헌어가 제주도방언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다.

- 외로원 城에 도로 비취엿는 히는 불근 비치 將次 간거늘 갓가온 저젯 뜯 너는 프르고 쏘 하도다(두시언해 9:39)
- 구루미 갈고 ㄱ르미 뉘고(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해 4:29)
- 구루미 뵈 머리에 이셔 겨르로이 결지 아니호고(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해 5:32)

이 어휘는 고어형인 ‘간다’(결히다)가 결합하느냐, ‘결다’가 결합하느냐에 따라 분포가 갈리는 경우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를 제외하면 산남(山南)과 산북(山北)을 가르는 전형적인 등어선이다.

③ **매끼**(언어지도 008)

‘매끼’는 ‘곡식 단 따위를 묶는 데 쓰는 새끼나 끈.’을 말한다. 방언형은 ‘끼계열(끼, 꿰미, 께미)과 ‘무생이’형으로 나타난다.

- ㉠ 끼
- ㉡ 꿰미
- ㉢ 께미
- ㉣ 무생이



‘깨’계열의 ‘깨’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와 산남(山南) 지역 등에 꽤 넓게 분포해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깨미’와 ‘깨미’는 서북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 출현한다. 어원을 달리하는 ‘무생이’는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에 국한되어 분포한다. ‘깨’계열의 ‘깨’는 문헌어 ‘꼬다’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뭇[束]+-앵이’ 구성의 ‘무생이’는 ‘뭇’과 관련한 어휘이다. 특히 한경(翰京)은 ‘깨’와 함께 ‘무생이’가 나타나 앞에서 본 ‘농사’의 경우와 같이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방언 ‘깨’와 ‘무생이’는 엄밀히 말해서 표준어 ‘매끼’와는 의미 차이가 있어 보인다. ‘매끼’가 ‘곡식 단 따위를 묶는 데 쓰는 새끼나 끈’을 말한다면 제주도방언 ‘깨’와 ‘무생이’는 짚이나 새를 양손에 조금씩 잡은 후 두 개를 어우러지게 해서 틀어서 만든 묶음 도구다. 즉 짚으로 끈 새끼와는 구분된다.<sup>20)</sup>

#### ④ 발뺨기(언어지도 009)

‘발뺨기’는 ‘하나로 구획지어져 있는 조그마한 발.’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드르, 드르, 드르갱이, 드르갱이, 돌랭이, 돌랭이, 드랭이, 토갱이’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발뺨기’의 방언형은 크게 ‘드르’계열(드르, 드르)과 ‘드르갱이’계열(돌랭이, 돌랭이, 드랭이)로 대별되고, 접미사가 붙은 ‘드르갱이’에서 ‘ㄱ’이 탈락한 ‘돌랭이’계열로 나뉜다.

- ㉠ 드르
- ㉡ 드르
- ㉢ 드르갱이
- ㉣ 드르갱이
- ㉤ 돌랭이
- ㉥ 돌랭이
- ㉦ 드랭이
- ㉧ 토갱이

‘드르’계열은 주로 제주시(濟州市)와 애월(涯月)에 분포하며, 접미사 ‘-갱이’가 붙은 ‘드르갱이’계열은 서북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과 ‘작은섬’인 비양도(飛揚島)와 가파도(加波島)에 분포한다.

한편 ‘돌랭이’계열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와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를 비롯하여 산남 지역의 성산(城山)·남원(南元)·서귀(西歸)·중문(中文)·

20) ‘깨’와 ‘무생이’를 만드는 것을 제주에서는 ‘깨 틀다’(造水), ‘깨 탈다’(西烘), ‘깨 테우다’(朝天), ‘무생이 틀다’(鳳城, 造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틀다, 탈다, 테우다’는 ‘짚 따위를 서로 어우러지게 한 후 비틀면서 끈다.’는 의미다.

안덕(安德)에 분포한다. 어원을 달리하는 ‘토갱이’는 표선(表善) 가지(加時)에서 조사되었다. ‘토갱이’의 ‘토’는 한자어 ‘土’로 보인다.

⑤재(언어지도 010)

‘재’는 ‘불에 타고 남은 가루 모양의 물질.’을 말한다. 방언형은 ‘불치, 불체, 불청, 불깁’ 등으로 나타난다.

- ㉠불치
- ㉡불체
- ㉢불청
- ㉣불깁

‘불치’형은 애월(涯月)·제주시(濟州市)와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 등 동부 지역에 폭넓게 나타나며, ‘불체’형은 서부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가파도(加波島)에 분포한다. ‘불깁’형은 중문(中文)·서귀(西歸)와 동남 지역인 표선(表善)에 분포하는데, 표선(表善)과 중문(中文)에서는 ‘불치’와 ‘불깁’형이 혼효되어 나타난다. 반면 한림(翰林)에서는 ‘불체’와 함께 ‘불치·불청’형이, 애월(涯月)에서는 ‘불치·불체·불깁’이 혼효 양상을 보인다.

어원적으로 불 때 ‘불치’와 ‘불체’, ‘불청’은 『마경언해』(下 27)의 “불지 버린 씨해 갖가이 말라.”의 ‘불지’의 ‘ㅈ’이 ‘ㅊ’으로 자음교체한 경우다. ‘불치’와 ‘불체’는 ‘불지>불치>불척>불치’, ‘불지>불치>불체’의 변화 과정을 거친 셈이다. ‘불깁’은 {불끄(消火)-+-잉} 구성이고, ‘불청’은 {불치+-잉} 구성이다.

⑥새끼(언어지도 011)

이 ‘새끼’[繩]는 주로 ‘벗짚이나 밧벼짚 또는 띠를 꼬거나 드러서 만든 줄.’을 말한다. 방언형은 ‘숫, 스끼, 사끼, 새끼, 새노, 숫노끼, 노, 노끈’ 등 다양한 분화상을 보인다.

- ㉠숫
- ㉡스끼
- ㉢사끼
- ㉣새끼
- ㉤새노
- ㉥숫노끼

㉓노

㉔노끈

새끼의 방언형은 ‘숫’계열(숫, 스끼, 사끼, 새끼)과 ‘숫’과 ‘노’가 결합한 ‘숫노끼’, 그리고 ‘노’계열(노, 노끈) 등 셋으로 나누어진다. ‘숫’계열은 제주도 전역에서 나타나는데, 이 계열의 분화형이 두 개의 등어선을 형성한다. 문헌어인 ‘숫, 숫’은 제주도 중앙 지역인 제주시(濟州市)와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와 성산(城山),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에 분포하며, ‘스끼’는 제주도 중앙 지역인 제주시(濟州市)와 한림(翰林)·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에 나타나고 있다. 개신형인 ‘새끼’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나타난다. 제주시(濟州市)인 경우는 ‘숫, 스끼, 새끼’형이 혼효되어 나타난다. ‘숫>숫>스끼>사끼>새끼’ 변화 과정을 고려한다면 개신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어에 ‘숫, 숫, 숫기’가 보이는데, 제주도방언형에 그 잔형이 남아 있다.

- 비오는 날 일 업술 지 숫 꼬면서 니르리라(고공가)
- 주거를 굴 스초로 밭야 무덤 서리에 굶어다가 두니라(월인석보 9:36)
- 원숫기<sup>21)</sup>를 눈 길게 너숫너숫 꼬와(고시조, 가슴에~, 청구영언)

어원을 달리하는, 실·삼·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 만든 줄인 ‘노’는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안덕(安德)과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우도(牛島)에 산발적으로 분포한다.<sup>22)</sup>

‘스끼’를 중앙에 두고 서부 지역에는 개신형인 ‘새끼’, 동부 지역에는 고행인 ‘숫’이 나타난다.

⑦이랑(언어지도 012)

갈아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함께 아울러 이르는 ‘이랑’의 방언형은 ‘파니, 밧파니, 고지, 밧고지’로 나타난다.

㉕파니

㉖밧파니

㉗고지

21) 문헌어 ‘원숫기’가 제주에서는 ‘웬스끼’ 형태로 나타난다. 물건을 묶는 역할을 하는 ‘새끼’와 달리 금줄을 맬 때는 ‘웬스끼’로 는 금줄을 맬 때 사용하는 새끼를 말한다.

22) 강자숙(1931년생, 여, 애월읍 봉성리) 구술(2010. 7. 5.)에 따르면, ‘노’와 ‘새끼’는 굵기에 따라서 “‘새끼’는 가늘고, ‘노’는 굵은 것”이다.

㉔) 밧고지

이 방언은 ‘파니’계열(파니, 밧파니)과 ‘고지’계열(고지, 밧고지)로 나뉜다. ‘파기’계열은 동북 지역인 구좌(舊左)·우도(牛島)·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에 분포한다. 한편 어원을 달리하는 ‘고지’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과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비양도(飛揚島)·한경(翰京), 동남 지역인 대정(大靜)·가파도(加波島)·안덕(安德)·중문(中文)에서 조사되었다. 따라서 ‘파니’와 ‘고지’는 동쪽과 서쪽으로 경계가 뚜렷이 나뉘지는 등어선이다. {밧+고지} 구성의 ‘밧고지’는 비양도(飛揚島)에서, {밧+파니} 구성의 ‘밧파니’는 우도(牛島)와 성산(城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파니’는 제주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언중들 사이에서는 의미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어휘다. ‘이랑’의 방언으로 ‘고지’를 사용하는 언중들에게 있어서 ‘파니’는 밧이랑을 의미하는 어휘가 아니라 밧 하나 전체를 의미하거나, 고구마 모종을 심기 위해서 밧 이랑을 합쳐서 만든, ‘일정한 범위 안의 편편한 바닥’을 의미하는 ‘판’<sup>23)</sup>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다. ‘파니’는 {판+이} 구성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다.

⑧ 품삯(언어지도 013)

‘품삯’은 ‘품을 판 대가로 받거나, 품을 산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데, 방언형은 ‘쿰, 일쿰, 쿰삭, 품, 일품, 품삭’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㉑) 쿰
- ㉒) 일쿰
- ㉓) 쿰삭
- ㉔) 품
- ㉕) 일품
- ㉖) 품삭

이 방언형들은 ‘쿰’계열(쿰, 일쿰, 쿰삭)과 ‘품’계열(품, 일품, 품삭)로 나뉜다. ‘쿰’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에 분포하며, ‘품’계열의 방언형들은 동북 지역과 동남 지역에 나타난다. 이들 방언형은 ‘ㄱ’과 ‘ㄲ’이 서로 교체함으로써 등어선을 형성하는 경우다. ‘ㄱ’과 ‘ㄲ’의 교체는 ‘천상쿨’, ‘천상풀’ 따위의 식물 이름에 붙는 ‘쿨’과 ‘풀’에서 확인된다. 개신형인 ‘품삭’은 애월(涯月)과 대정(大靜)에 나타나고, ‘일품’은 한림(翰林), ‘품’은 대정(大靜)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23)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판’을 북한어로 등재하고 있다.

⑨ 허수아비(언어지도 014)

‘허수아비’의 방언형은 ‘허제비, 허세비’ 두 가지로 나타난다.



<사진 1> 허수아비

- ㉠ 허제비
- ㉡ 허세비

‘허제비’는 한경(翰京)과 비양도(飛揚島)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한경(翰京)과 비양도(飛揚島)에서는 ‘허세비’가 나타난다. 이 ‘허세비’는 ‘헛(虛)+에비[父]’ 구성으로, 기존 자료집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형으로,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되었다. 허수아비의 방언형 ‘허세비’는 충청·경북·전남 방언에서도 확인되는 어형이다.

2) 음식 관련 어휘

① 가루(언어지도 015)

‘가루’의 방언형은 ‘ㄹ, ㄹ, ㄹ, ㄹ, ㄹ’ 등으로 나타난다.

- ㉠ ㄹ
- ㉡ ㄹ
- ㉢ ㄹ
- ㉣ ㄹ
- ㉤ ㄹ

‘가루’는 ‘ㄹ’계열(ㄹ, ㄹ, ㄹ)과 ‘ㄹ’이 중첩된 ‘ㄹ’로 나뉜다.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북 지역과 산남(山南) 지역은 ‘ㄹ’형인 ‘ㄹ, ㄹ, ㄹ’ 등이 분포하고, 중문(中文)에서는 ‘ㄹ’와 함께 ‘ㄹ’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ㄹ’은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과 한림(翰林)에서 나타난다.

방언형 ‘ㄹ, ㄹ, ㄹ’는 다음의 문헌어 ‘꺄, ㄹ, ㄹ, ㄹ’의 어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다.

- 쪼 꺄꺄 꺄을 꺄 아래 너꺄(구급간이방 1:17)
- 모뎨 벅스며 命을 ㄹ꺄꺄히 꺄야도(표범연화경 1:223)
- 감초 ㄹ로 옛 돈(두창경험방 19)
- 麵猪還愿 ㄹ로 줌싱 민드라 지내는 소꺄(한청문감 3:36)

②간장(언어지도 016)

간장의 방언형은 ‘곤장, 장물, 물장’ 등으로 나타난다.

㉠곤장

㉡장물

㉢물장

중세 어휘 ‘곤장’의 잔여라 할 수 있는 ‘곤장’은 현평효(玄平孝) 자료집에서도 희귀어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 확인되었다.

- 醬油 곤장(훈몽자회 중 21)
- 소곰글 헤아려 섯그먼 곤장이 되느니라(신간구황촬요 9)
- 도흔 곤당을 올히 므츨내 어들 더 업더니(박통사신석언해 2:26)

‘장물’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한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와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과 서부 지역인 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분포한다. 한편 ‘물장’은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과 서남 지역의 중문(中文)·서귀(西歸)와 동남 지역의 표선(表善)·성산(城山)에서 나타난다. 특히 한림(翰林)·애월(涯月)·중문(中文)·성산(城山)에서는 ‘물장’이 도치된 ‘장물’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갱(羹)(언어지도 017)

한자어 ‘갱’(羹)은 ‘신위에게 올리는 국.’으로, ‘국’의 높임말이다. ‘갱’의 방언형은 ‘갱, 갱국, 게영, 게영국’으로 나타난다.

㉠갱

㉡갱국

㉢게영

㉣게영국

‘갱’과 ‘갱국’은 제주시(濟州市)와 서북 지역인 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가파도(加波島), 그리고 동부 지역에 넓게 나타나며, ‘게영’은 서부 지역인 한림(翰林)·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서북 지역인 한경(翰京)에서는 동부 지역에 나타나는 ‘갱’과 함께 ‘국’이 결합된 ‘갱국’이 조사되었다. ‘갱, 갱국’은 “들기민가빃 낚 혼 근을 ㄱ늘에 사흐라 ㄱ국국의 달혀 ㄱ 밍ㄱ라 머그라,”(『구



급간이방』 3:85), “깡과 고기와 두가짓 거슬 ㄱ초아 아니 ㅎ고”(『번역소학』 10:28)) 등의 문헌어 ‘깡’에서 유래한다.

④김치(언어지도 018)

‘김치’의 방언형은 ‘짐치, 짐끼, 징뀌’로 나타난다.

㉠짐치

㉡짐끼

㉢징뀌

‘짐치’는 산북(山北) 지역과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에 분포하며, ‘짐끼’ 지역인 서귀(西歸)와 안덕(安德)에 나타나기도 한다. ‘짐끼’는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서남 지역인 중문(中文)·안덕(安德)·대정(大靜)에 분포한다. 동남 지역의 남원(南元)과 표선(表善)에서는 ‘징뀌’형이 나타난다. 이들 방언형들은 ‘김치’가 자음교체에 의해 ‘짐끼’가 되고, 그후 ‘ㄱ’(ㄱ) 앞에서 ‘ㄹ’이 ‘ㅇ’으로 변하여 ‘징뀌’가 된 경우이다. ‘ㄹ>ㅇ’ 변화는 ‘삼기다>생기다, 습겁다>싱겁다, 잠기>쟁기’ 등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도서 지역인 세 곳에서 개신형인 ‘김치’가 조사되었다.

‘김치’는 중세 어형 ‘딴치’에서 유래한다. 이보다 뒤에 ‘딴치’도 보인다. ‘딴치>김치>짐치>김치’ 과정을 겪어 오늘날의 김치가 되었다. ‘딴치’와 양립해 온 “한자어 ‘沈菜’와 밀접히 연결되어 ‘침치(『同文類解』 上 4(SIC), 『漢清文鑑』 12. 41 등)로 이어졌으나 ‘딴치’는 그렇지 못하여 ‘김치(『痘瘡經驗方』 13)를 거쳐 마침내 ‘김치>김칙’에 도달한 것이다. 현대에 와서 ‘김치’가 일반화”<sup>24)</sup>된 것이다.

• 딴치 조: 菹(訓蒙字會 中 22)

• 딴치 저: 菹(新增類合 上 30)

• 술과 촌들과 대그릇과 나모그릇과 딴치와 저술 드러(小學諺解(선조판) 1:7)

• 땃무우 섯무우 외 김치 연흔 흰밥(痘瘡經驗方 13)

한편 다른 지방에서는 ‘디히’에서 유래한 ‘짚지’가 김치의 뜻으로 쓰이는 것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딴치, 짐치’가 ‘김치>김치, 짐끼, 징뀌’로 음변한 반면, ‘디히’는 ‘지히>지시>지이>지’의 과정을 겪어 ‘장아찌’의 의미로만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24) 이기문, 「‘딴치’와 ‘디히’」,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봄, 국립국어연구원, 1999, 129쪽. 인용문의 「『同文類解』 上 4는 「『同文類解』 下 4의 오기다.

⑤수제비(언어지도 019)

‘수제비’의 방언형은 ‘즈베기’와 ‘저베기’로 나타난다.

㉠즈베기

㉡저베기

제주도의 수제비는 ‘반죽을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 등 세 손가락으로 뜯어내 끓는 물에 집어넣어 익힌 음식.’이다. ‘수저비’가 손[手]의 뜻을 살린 고어 ‘슈집이, 슈저비’에서 온 것과 달리 제주도방언은 수제비를 만들 때의 손의 행위인 ‘줍다’ [攪]를 기본 의미로 한다.

‘수저비’는 또 만드는 방법과 내용물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손으로 집어서(집어서) 넣는 것은 저베기이고, 칼로 썰어서 넣는 것은 칼저베기, 죽과 함께 끓이는 수제비는 국저베기라고 한다.”<sup>25)</sup>

‘즈베기’는 산북(山北)은 물론 동남 지역의 성산(城山)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 등 꽤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반면 ‘즈베기’에서 ‘·>ㄱ’의 변화 과정을 거친 ‘저베기’는 서귀(西歸)와 동남 지역의 남원(南元)·표선(表善)에 분포한다. 예전의 제주(濟州)·대정(大靜)·정의(旌義) 삼현으로 나눌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정의(旌義) 지역보다 제주(濟州)·대정(大靜) 지역이 언어의 보수성을 띠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제비’(즈베기>저베기)는 다음에 제시되는 ‘간지럽다’(즈급다>저급다), ‘겨드랑이’(즈쟁이, 저쟁이), ‘끼이다’(줍지다, 집지다), 부젓가락(불즈분, 불저분), ‘잠방이’(줍벙이, 짐벙이) 등의 이들 방언형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어두에 ‘ㅈ’음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이들 어휘의 분화상을 보면, 산남 지역에서부터 ‘·>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시루떡(언어지도 020)

‘시루떡’의 방언형은 ‘시리떡, 친떡, 침떡’ 등으로 나타난다.

㉠시리떡

㉡친떡

㉢침떡

‘시리떡’은 ‘시루에 쌀가루 따위를 넣어서 찌낸 떡.’을 말한다. 방언형 ‘시리떡’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나타나며, ‘시리’는 표준어 ‘시루’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시리떡’은 또 ‘친떡’과 ‘침떡’형으로 분화된다.<sup>26)</sup> ‘친떡’과 ‘침떡’은 각각 {치

25) 정서홍 구술(1935년생, 여, 표선면 가시리)(2010. 6. 23.).



--L--떡}과 {치--口--떡} 구성으로, ‘찌다[蒸]를 제주에서는 ‘치다’라고 한다. ‘찐떡’은 동부 지역의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에 분포하며, 그 나머지 지역인 제주시(濟州市)와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 지역은 ‘찹떡’이 나타난다. 서부 지역의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와 가파도(加波島)에서도 ‘찹떡’이 분포한다.

⑦ 빙떡(언어지도 021)

‘빙떡’<sup>27)</sup>의 방언형은 ‘빙, 빙떡, 빈, 빈떡, 정기, 정기떡, 쟁기떡, 명석떡, 영빈’ 등으로 나타난다.

- ㉠빙
- ㉡빙떡
- ㉢빈
- ㉣빈떡
- ㉤정기
- ㉥정기떡
- ㉦쟁기떡
- ㉧명석떡
- ㉨영빈



<사진 2> 빙떡

‘빙떡’은 ‘빙’계열(빙, 빙떡)과 ‘빈’계열(빈, 빈떡), 그리고 ‘정기’계열(정기, 정기떡, 쟁기떡)로 나뉜다. ‘빙’계열은 떡을 뜻하는 한자어 ‘병’(餅)에서 온 어휘로, ‘빙, 빙떡’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애월(涯月)과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에 분포하며, 음이 변한 ‘빈, 빈떡’은 서부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안덕(安德)·중문(中文)에 나타난다. 한자어 ‘전자(煎子)에서 유래한 ‘정기, 정기떡’과 ‘ㅣ’모음역행동화한 ‘쟁기떡’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정의(旌義) 지역에 나타난다. 1차 등어선은 동남부와 기타 지역을 가르며, ‘빙’계열과 ‘빈’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한 동북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꽤 선명한 모습을 보여 준다.

특이 어형인 ‘명석떡’은 한림(翰林)에서 나타나며, ‘영빈’은 중문(中文) 색달(穡

26) 제주에서 떡은 찌거나 삶아서 만든다. 찌낸 떡 가운데 유독 시루떡만 ‘찐떡, 찹떡’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좁쌀가루로 만든 시루떡은 ‘조침떡, 조친떡’, 쌀가루에 팥 고물 등을 넣어서 시루에서 찌낸 떡을 ‘무힌찹떡’, 메밀가루로 만든 시루떡을 ‘모멸찹떡’이라고 부른다.

27) ‘빙떡’은 메밀가루를 얇게 반죽하여 번철에서 얇게 지져낸 후 팔소나 무채 등을 넣고 둘둘 말아 길쭉하게 만든 떡이다. 제주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빙, 빙떡, 빈, 빈떡, 정기, 정기, 정기떡, 쟁기떡, 명석떡, 영빈’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빙떡’이 세력화하면서 표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達)에서 조사되었다. ‘명석떡’은 ‘명석처럼 말아서 만든 떡.’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며, ‘영빈’의 ‘빈’은 한자어 ‘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빙떡 지정 제물로 가져가기도 하고”, “식게 때 빙떡 부엌 동네에 놔놓 먹나.” “빈 하나 푸엥 떡게.”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지다, 부끄다, 푸끄다’는 빈철에 기름을 두르고 내용물을 넣고 지지는 것이다. 따라서 ‘빙떡’은 ‘지진떡’<sup>28)</sup>인 전병(煎餅)에 해당되는 떡으로, 육지의 ‘부꾸미’와 비슷한 떡으로 판단된다. 표준어로 해석하면 ‘메밀전병’ 쪽에 해당된다.<sup>29)</sup>

⑧ 경그레(언어지도 022)

‘경그레’는 ‘솔에서 무엇을 찢 때, 찢는 물건이 솔 안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솔 안에 놓는 둥그런 모양의 받침대.’를 말한다. 흔히 뗏조각이나 철사를 엮어서 둥그렇게 만든다. 임시로 나뭇개비를 엮어서 만들기도 한다.

이 ‘경그레’의 방언형은 ‘징, 떡징, 시리징, 바드랭이, 떡바드랭이, ㄱ살, ㄱ소왈’ 등으로 나타난다.

- ㉠ 징
- ㉡ 떡징
- ㉢ 시리징
- ㉣ 바드랭이
- ㉤ 떡바드랭이
- ㉥ ㄱ살
- ㉦ ㄱ소왈

이 방언형인 ‘징’계열(징, 떡징, 시리징)과 ‘바드랭이’계열(바드랭이, 떡바드랭이)이 잘 곁어서 만든 정제된 것이라면, ‘ㄱ살’계열(ㄱ살, ㄱ소왈)은 뗏개비를 임시로 엮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징’계열은 제주도(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조천(朝天)에 분포한다. ‘징’에 ‘떡’이 결합된 ‘떡징’은 한림(翰林)에, 시루가 연결된 ‘시리징’은 제주도(濟州市)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징’은 ‘켜’ 또는 ‘층’의 의미다.

한편 어원을 달리하는 ‘바드랭이’계열은 산남(山南) 지역과 동북 지역인 구좌(舊左)와 우도(牛島)에 분포한다. ‘바드랭이’에 ‘떡’이 연결된 ‘떡바드랭이’는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중문(中文)에 나타난다. ‘바드랭이’ 또는 ‘떡바드랭이’의 ‘바드랭

28) 한복려(1989)의 떡 분류법에 따르면, ‘빙떡’은 ‘지지는 떡’에 해당한다. 한복려는 떡 만드는 법에 따라 ‘시루떡’과 ‘물편’으로 나누고, ‘물편’은 ‘반죽을 익혀서 모양낸 떡, 삶거나 찢떡, 지지는 떡, 부풀려 찢 떡’으로 분류하고 있다.

29) 김순자, 『제주의 떡 이름』, 『영주어문』 제12집, 영주어문학회, 72~73쪽 부분 인용.

이'는 {받+으랭이} 구성으로, '받다'[擎]에서 온 말이다. 댕개비로만 만든 'ㄹ살'은 서귀(西歸)와 이웃한 남원(南元)에 분포하며, 'ㄹ소왓'은 표선(表善)에 분포한다. 서귀(西歸)에서는 '바드랭이'와 'ㄹ살'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남원(南元)과 표선(表善)에서는 “대막댕이로만 한 것을 ㄹ살, 췌로 헤영 정돈헤영 멘든 건 바드랭이”<sup>30)</sup>, “대나뭇가질 으라 밧디 낵 업영 만든 걸 ㄹ소왓”<sup>31)</sup>이라고 해서 'ㄹ살, ㄹ소왓'과 '바드랭이'를 구분하고 있다.

⑨콩나물(언어지도 023)

'콩나물'의 방언형은 '콩지름, 콩질름, 콩주름, 콩늑물, 콩늑물' 등으로 나타난다.

- ㉠콩지름
- ㉡콩질름
- ㉢콩주름
- ㉣콩늑물
- ㉤콩늑물

이 방언형은 '콩지름'계열(콩지름, 콩질름)과 '콩주름', 그리고 '콩늑물'계열(콩늑물, 콩늑물)로 나눌 수 있다. '콩지름'계열의 '콩질름'과 '콩지름'이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를 포함하여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하며, '콩주름'은 산북(山北) 지역에 나타난다. '콩지름'계열은 『한청문감』 등의 '콩기름'이 구개음화한 형태이고, '콩주름'은 'ㅣ>ㅈ'의 변화과정을 거친 경우다.

- 콩기름: 豆芽(한청문감 12)
- 콩기름: 黃卷菹(物譜 飲食)
- 콩기름: 黃卷(柳氏物名三 章)

'콩지름'은 {콩+지름} 구성으로, 여기에서의 '지름'은 '기름'이 구개음화한 형태다. '기름'은 '기르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콩지름'은 '콩을 길러서 얻은 나물'이라는 의미다. '녹두기름'은 '녹디지름, 녹디주름'이라고 말하고, '콩나물을 기르는 자잘한 흰 콩'인 '기름콩'을 제주도방언으로는 '주름콩'이라고 한다. 따라서 『표준 국어 대사전』의 '콩기름'을 '콩나물의 잘못'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반면 '콩늑물', '콩늑물'은 제주시(濟州市)·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성산(城山) 등지에서 고르게 나타난다.<sup>32)</sup> '콩지름·콩질름'과 '콩주름'의 등어선은

30) 김경만 구술(남, 79, 남원읍 태흥1리, 2010. 6. 23. 조사.).

31) 정서홍 구술(2010. 6. 23. 조사.).

남북을 가르는 전형적인 예가 된다.

⑩ 장아찌(언어지도 024)

제주도에서 ‘장아찌’는 ‘마늘대나 달래 따위를 소금이나 간장에 담가서 발효되어 익으면 먹는 음식.’을 말한다. 이 방언형은 ‘지히, 지이, 지, 지시’ 등으로 나타난다.

- ㉠ 지히
- ㉡ 지이
- ㉢ 지
- ㉣ 지시



<사진 3> 장아찌

이 방언형들은 ‘짙’계(지히, 지이, 지)와 ‘짓’계(지시)로 나뉜다. 이는 『석보상절』에 나오는 ‘짙다’(造)와 『월인천강지곡』의 ‘짙다’(造)와 관련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32)</sup>

‘짙’계에서 분화한 ‘지히’는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에서 나타나고, ‘지이’는 한경(翰京)과 비양도(飛揚島)에 분포한다. ‘지’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성산(城山)을 제외한 산남(山南) 지역 전 지역에서 나타난다. 애월(涯月)에서는 ‘지’와 함께 ‘지히’가, 한경(翰京)에서는 ‘지이’와 ‘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지히>지이>지’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長安엿 겨슌 디히는 식오 쏘 프르고”(『초간본 두시언해』 3:5)에서처럼 육지에서는 ‘디히’가 김치의 의미로 쓰이는 것과 달리 제주에서는 ‘장아찌’로만 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翻譯朴通事』(上 55)의 “다몬 도흔 장엿디히 밥흐야 먹다가: 只着些好醬瓜兒就飯喫”의 ‘디히’와 『同文類解』(下 4)의 ‘디이’(장앗디이:醬瓜子), 『漢清文鑑』(12:14)의 ‘지이’(장앗지이:醬瓜), 『蒙語類解』(上 47)의 ‘씨이’(장앗씨이:醬瓜子) 등의 문헌어가 오늘날 제주에 남아 있는 ‘디히>지히>지이>지’로 이어진 것이다.

‘짓’계의 ‘지시’는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와 동남 지역의 성산(城山)에서 나타난다.

⑪ 밥주걱(언어지도 025)

‘밥주걱’은 ‘밥을 푸는 도구.’를 말한다. ‘밥주걱’의 방언형은 ‘밥자, 밥죽, 우굼, 울굼, 밥우굼’ 등으로 나타난다.

32) ‘콩지름, 콩질름, 콩주름’이 조사된 지역에서는 ‘콩늬물, 콩늬물’형이 조사되어도 별도로 지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33) 정승철,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1995, 152~153쪽.

- ㉠밥자
- ㉡밥죽
- ㉢우굼
- ㉣울굼
- ㉤밥우굼



<사진 4> 밥주걱

이 방언형은 ‘밥자’와 ‘밥죽’ 그리고 ‘우굼’계열(우굼, 울굼, 밥우굼)로 대별되는데, ‘밥자’와 ‘밥죽’은 동부 지역에 분포하며 ‘우굼’계열은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에 나타난다. ‘우굼’에서 ‘ㄹ’이 첨가된 ‘울굼’은 제주시(濟州市)와 애월(涯月) 지역에 분포한다.

성산(城山) 수산(水山)에서 조사된 ‘밥자’는 {밥+자} 구성으로, 여기에서 ‘자’는 {국+자} 구성의 ‘국자’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가 아닌가 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자’는 ‘궁중에서 국자를 이르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자의 의미 외에도 ‘음식물 따위를 뜨는 도구’의 의미도 포함된 게 아닌가 한다. 즉 ‘국자’가 ‘국을 뜨는 도구’라면 제주도방언에서 나타나는 ‘밥자’는 ‘밥을 뜨는 도구’인 셈이다. ‘밥자’와 함께 조사된 ‘밥죽’은 {밥+죽} 구성으로, 여기에서 ‘죽’(죽<sup>34</sup>)은 ‘주걱’의 의미다. ‘밥죽’은 『訓蒙字會』(中 19)의 ‘밥죽’과 17세기 문헌인 『가례언해』(2:5~6)의 “이제 비록 親히 시칼이미 밥죽을 잡디 아니흐나”<sup>35</sup>에 나오는 ‘밥죽’의 잔재형이다.

㉡ 죽젓개(언어지도 026)

‘죽젓개’는 ‘죽을 쓸 때 젓는 방망이.’를 말하는데, 방언형은 ‘남죽, 배수기, 배술기’ 등으로 나타난다.

- ㉠남죽
- ㉡배수기
- ㉢배술기

이 방언형은 ‘남죽’과 ‘배수기’계열(배수기, 배술기)로 나타난다. {남+죽} 구성의 ‘남죽’은 ‘나무로 만든 주걱.’이란 뜻으로,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 그리고 중문(中文)에 분포한다. 반면 어원을 달리하는 ‘배수기’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34) ‘주걱’의 의미인 ‘죽’(죽)은 『훈민정음해례본』의 용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5) 『가례언해』의 예문 속의 ‘시칼이미’는 고어사전에 ‘시칼이미’(『우리말큰사전 4-옛말과 이두』, 어문각, 1992)와 ‘시칼이머’(남광우(1997/2009) 편저 『古語辭典』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시칼이머’는 문맥상의 의미를 고려해서 사전 편찬과정에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의 대정(大靜)·안덕(安德)에 분포해 등어선이 동서로 그어진다. 특히 대정(大靜)과 안덕(安德)에서는 ‘르’이 첨가된 ‘배술기’가 나타난다. 제주시(濟州市)에서는 동부 지역에 나타나는 ‘남죽’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⑬ **옹달술**(언어지도 027)

‘옹달술’은 ‘작고 오목한 술.’을 일컫는다. 달리 ‘옹술’이라고 하는데, 방언형은 ‘옹조리, 옹졸레기, 옹지리, 동숯, 죽은숯’이 나타난다.

- ㉠ 옹조리
- ㉡ 옹졸레기
- ㉢ 옹지리
- ㉣ 동숯
- ㉤ 죽은숯

이 방언형은 ‘옹조리’계열(옹조리, 옹지리)과 ‘옹졸레기’, ‘동숯’, ‘죽은숯’으로 나뉜다. ‘옹조리’계열과 ‘옹졸레기’는 15세기 후반의 문헌 『眞言勸供』(49)의 “푼 玉瓶은 茶 다리는 옹지오”의 ‘옹즈’와 관련 있어 보인다. 여기에서 ‘옹’은 ‘옹술, 옹자배기, 옹생원, 옹방구리’에서 보이듯 ‘물건이나 사람이 작고 옹졸하다’는 뜻이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 앞에 붙어 쓰는 접두사다. 문헌어 ‘옹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옹조리’는 서부 지역에서 꽤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옹졸레기’는 남원(南元)과 한경(翰京)에서만 나타난다. ‘옹지리’는 안덕(安德)에서 조사되었다. 어원을 달리하는 ‘동숯’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에 나타나, 등어선을 형성한다. ‘동숯’의 어형은 조선 영조 때 펴낸 최초의 시조집 『靑丘永言』의 “還上에 불기 설흔 맛고 당니 갑세 동숯을 썩 썩여 닐다.”(古時調, 還上에)의 ‘동숯’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양도(飛揚島)에서는 어원을 달리하는 ‘죽은숯’이 나타난다.

⑭ **부젓가락**(언어지도 028)

‘부젓가락’은 ‘화로에 쫓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을 말한다. 이 방언형은 ‘불즈뵈, 불즈뵈, 불저뵈, 불줍게, 불접게, 불집게, 불접, 부제’ 등으로 나타난다.

- ㉠ 불즈뵈
- ㉡ 불즈뵈
- ㉢ 불저뵈



- ㉔ 불줍게
- ㉕ 불집게
- ㉖ 불집게
- ㉗ 불집
- ㉘ 부제

이 방언형은 ‘불즈뵈’계열(불즈뵈, 불즈뵈, 불저뵈)과 ‘불줍게’계열(불줍게, 불집게, 불집게) 그리고 ‘불집’과 ‘부제’형으로 나뉜다.

‘불즈뵈’는 {불+즈뵈}, ‘불줍게’는 {불+줍게} 구성으로, 여기에서 ‘즈뵈’는 ‘젓가락’을, ‘줍게’는 ‘집게’를 가리킨다. 따라서 ‘불즈뵈’계열과 ‘불줍게’계열은 {불+즈뵈, 불+줍게} 구성의 합성어로, ‘불을 집는 젓가락’ 또는 ‘불을 집는 집게’의 의미다.

아래아(·)를 유지하고 있는 어형들은 제주시 서쪽에 위치한 한경(翰京)을 제외한 산북(山北) 지역에 분포하며, 그 나머지 지역은 ‘·>ㅏ’ 변화가 일어나는 어형이 분포한다. 한자어 ‘箸’에서 유래한 ‘부제’는 한경(翰京)에서 조사되었고, 가파도(加波島)에서는 ‘불집’이 나타난다. ‘부젓가락’은 앞에서 살펴본 ‘수제비’와 같이 산남(山南) 지역에서부터 ‘·>ㅏ’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의복 관련 어휘

#### ① 옷감(언어지도 029)

‘옷감’의 제주도방언형은 ‘옷ㄴ슴, 옷ㄴ심, 옷ㄴ음’ 등으로 나타난다.

- ㉑ 옷ㄴ슴
- ㉒ 옷ㄴ심
- ㉓ 옷ㄴ음

‘ㅏ’를 유지하고 있는 어형인 ‘옷ㄴ슴, 옷ㄴ심’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중문(中文)에 분포하며, ‘ㅏ>ㅓ>ㅕ’의 변화 과정을 거친 ‘옷ㄴ음’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과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와 우도(牛島)에서 나타난다. ‘ㅏ>ㅓ>ㅕ’의 변화는 ‘ㄴ슴>ㄴ을’, ‘ㄴ심>ㄴ을’, ‘저슴>저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부 지역에 속하는 한림(翰林)과 대정(大靜)에서는 동부 지역에 나타나는 ‘옷ㄴ심’이 조사되었다. 도서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옷ㄴ슴’이 분포한다.

②골무(언어지도 030)

‘골무’는 ‘바느질을 할 때에 바늘 귀를 눌러 밀기 위하여, 손가락 끝 부분에 씌워 끼는 물건.’으로, 가죽이나 형겔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골무’의 방언형은 ‘골미, 손골미, 골매, 손골매, 손도매, 손꼬매, 골무’ 등으로 나타난다.

- ㉠골미
- ㉡손골미
- ㉢골매
- ㉣손골매
- ㉤손도매
- ㉥손꼬매
- ㉦골무

‘골무’는 ‘골미’계열(골미, 손골미)과 ‘골매’계열(골매, 손골매), 또 ‘손도매’·‘손꼬매’, 그리고 ‘골무’로 나뉜다. 이들은 모음교체에 의한 방언형들이다. ‘골미’는 제주 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제주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과 서귀(西歸), 섬 지역인 우도(牛島)에 나타나는데, 서귀(西歸)와 우도(牛島)에서는 ‘손골미’도 함께 조사되었다. ‘골매’계열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표선(表善)과 중문(中文), 대정(大靜)에서는 ‘골매’에 ‘손-’이 붙은 ‘손골매’형도 나타난다. 또 어원을 달리하는 ‘손도매’와 ‘손꼬매’가 각각 비양도(飛揚島)와 가파도(加波島)에서 나타나고, 남원(南元)에서는 개신형인 ‘골무’가 조사되었다.<sup>36)</sup>

③잠방이(언어지도 031)

‘잠방이’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를 말한다. 방언형은 ‘좁벙이, 점벙이, 정벙이, 반중의’ 등으로 나타난다.

- ㉠좁벙이
- ㉡점벙이
- ㉢정벙이
- ㉣반중의

‘잠방이’의 방언형은 ‘좁벙이’와 ‘점벙이’계열(점벙이, 정벙이)로 구분된다. 아래아

36) ‘골무’는 왼쪽 검지손가락에 끼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제주도(濟州島)에서는 골무를 왼쪽 가운데손가락에 끼어서 바느질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골무를 낀 가운데손가락이 바늘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형을 유지하고 있는 ‘좁뎡이’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과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ㄱ’로 음운변화한 ‘좁뎡이, 정뎡이’는 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우도(牛島)·조천(朝天)에 나타난다. 한편 어원을 달리하는 ‘반중의’는 비양도(飛揚島)에서 조사되었는데, ‘반중의’의 ‘반’은 ‘반바지’와 마찬가지로 ‘중의’가 짧아서 붙은 이름이다.

④도롱이(언어지도 032)

‘도롱이’의 방언형은 ‘좁세기, 접세기, 츠쟁이, 우장’ 등으로 나타난다.

- ㉠좁세기
- ㉡접세기
- ㉢츠쟁이
- ㉣우장



<사진 5> 도롱이

‘좁세기’는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에 분포하며, ‘·>ㄱ’ 변화 과정을 거친 ‘접세기’는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나타난다. 중부 지역인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를 비롯한 동부 지역은 ‘우장’으로 나타난다. 서귀(西歸)에서는 ‘접세기’도 조사되었다.

어원을 달리하는 ‘츠쟁이’는 서부 지역인 한경(翰京)과 ‘접세기’가 조사된 대정(大靜)과 한림(翰林)에 분포한다. 이곳 제보자들에 따르면, ‘접세기’는 길이가 짧고 대강 만든 도롱이를 말하고, ‘츠쟁이’와 ‘우장’은 길이가 길고 정성들여 만든 것이다. “츠쟁이는 새를 접접이 여까서 만든 거고, 접세기는 대강 임시로 만든, 어깨까지 오는 거”<sup>37)</sup>, “접세기는 요즘 말로 망토 형태로 어깨에 걸치게 된 것으로 오월장마에 입는 것이고, 우장은 큰 거”<sup>38)</sup>다.

한편 ‘우장’(雨裝)은 한자어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두루마기(언어지도 033)

‘두루마기’의 방언형은 ‘후리메, 후루메, 두루막, 두루마기, 두루메기’<sup>39)</sup>로 나타난다.

37) 박태욱 구술(76·남·대정읍 인성리, 2010. 7. 9. 조사).

38) 김도연 구술(79·남·서귀포시 서홍동, 2010. 7. 10. 조사).

39) 조사 결과, 인종들은 ‘후리메’와 ‘두루막’을 구별하고 있다. ‘후리메’계열은 홑으로 만든 것을 칭하는 이름이고, ‘두루막’계열은 겹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 ㉠후리메
- ㉡후루메
- ㉢두루막
- ㉣두루마기
- ㉤두루메기

이 방언형들은 ‘후리메’계열(후리메, 후루메)과 개신형인 ‘두루막’계열(두루막, 두루마기, 두루메기)로 나뉜다. 개신형인 ‘두루막’계열은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한다. 반면 ‘후리메’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 그리고 구좌(舊左)에 나타나며, ‘후루메’는 서북 끝인 한경(翰京)과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 서남 지역인 서귀(西歸)와 중문(中文)·안덕(安德)·대정(大靜)에서 나타나 ‘후리메’ 계열 안에서 등어선을 형성한다. 서북 지역에 나타나는 ‘후리메’는 『동문유해』(상: 55)의 “褙子 쿠리매”나 『한청문감』(11:4)의 “補褙 흥비 붓친 쿠리매, 褙 쿠리매”의 ‘쿠리매’가 어두음 ‘ㄱ’이 ‘ㅎ’으로 변한 어형으로, 제주도방언에서 문헌어의 잔재가 확인된다.

⑥대님(언어지도 034)

‘대님’은 ‘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의 끝 쪽을 접어서 발목을 졸라매는 끈.’을 말한다. ‘대님’의 방언형은 ‘다님, 다림, 다름, 대림, 독다림’ 등으로 나타난다.

- ㉠다님
- ㉡다림
- ㉢다름
- ㉣대림
- ㉤독다림

‘다님’은 17~18세기 어형으로, 『譯語類解』(상: 45)의 “小帶子 다님 끈”과 『閑中錄』(110)의 “옷골흙 다님 띠기 쓰지 다흐야 드리니”에 보이는데, 제주 동부에 분포한다. ‘다림’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에 나타난다. ‘다림’ 지역인 한경(翰京)과 중문(中文)에서는 ‘다님’이, ‘다님’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다름’이 나타나 혼호 양상을 보인다. 가파도(加波島)에는 무릎의 방언형 ‘독’이 합성되는 ‘독다림’이 조사되었다.

⑦ 매듭단추(언어지도 035)

‘매듭단추’는 ‘매듭을 지어 만든 단추.’로 방언형은 ‘별ㅁ작, ㅁ작단추, 못인단추, 들마기, 들매기, 속곳궤, 속곳ㅁ작’ 등으로 나타난다.



<사진 6> 매듭단추

- ㉠ 별ㅁ작
- ㉡ ㅁ작단추
- ㉢ 못인단추
- ㉣ 들마기
- ㉤ 들매기
- ㉥ 속곳궤
- ㉦ 속곳ㅁ작

‘별ㅁ작’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분포하며, 어원을 달리하는 ‘들마기’와 ‘들매기’는 서부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안덕(安德)에 나타난다. ‘ㅁ작단추’·‘못인단추’는 중앙인 제주시(濟州市)와 애월(涯月)·조천(朝天)·서귀(西歸)·중문(中文), 그리고 대정(大靜)에 나타난다. 한편 도서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특이 어형으로 ‘속곳궤’와 ‘속곳ㅁ작’이 나타난다.

특히 ‘들마기’는 “紐子 들마기”(『訓蒙字會』(中 23)), “紐 들막이”(『倭語類解』上 46), “또 비단으로 드르 두 녀 가르 빠 들마기 들은 갓애”(『老乞大諺解』下 47))에서 보이는 것인데, 이는 고형인 문헌어가 아직까지 제주도방언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⑧ 멜빵(언어지도 036)

‘멜빵’은 ‘바지, 치마 따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에 걸치는 끈.’을 말한다. 여기에서 ‘멜빵’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천으로 된 물옷의 왼쪽 어깨에 달린 끈.’의 이름을 물었다. 이 방언형은 ‘메친, 미친, 미천, 메끈, 메큰’ 등으로 나타난다.

- ㉠ 메친
- ㉡ 미친
- ㉢ 미천
- ㉣ 메끈
- ㉤ 메큰

이 방언형은 ‘친’계열(메친, 미친, 미천)과 ‘끈’계열(메끈, 메큰)로 구분된다. ‘친’은 문헌어 ‘써’이 거센소리로 변한 형태이며, ‘끈’은 개신형으로 ‘써>끈>끈’의 변화

과정을 거친 형태다. ‘메친’은 제주시(濟州市)를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조천(朝天)과 애월(涯月), 그리고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 분포하며, ‘미친’은 서부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안덕(安德)에 나타난다. ‘미친’은 대정(大靜)에서 조사되었다. 한편 ‘메끈’은 산남(山南)의 서부 지역을 제외한 중문(中文)·서귀(西歸)·남원(南元)·성산(城山)과 동북 지역인 구좌(舊左)에서 조사되었다.

‘떡등구미’의 방언형인 ‘멜망텅이’·‘밀망텅이’에서 확인되듯이, ‘메친’은 {메+친}, ‘미친’은 {미+친}의 구성으로, 여기에서 ‘미-’는 메다의 어간 ‘메->미-’의 변화과정을 거친 것이다.

‘멜빵’과 관련한 문헌어로는 ‘멜끈’과 ‘멜씬’이 각각 시조집 『청구영언』의 “行子치마 멜끈이 제격이로다.”(고시조, 平壤~)와 『해동가요』의 “行子침아 멜씬도 제 색씨로다.”에서 확인된다.

⑨ 물감(언어지도 037)

‘물감’은 ‘옷감 따위에 빛깔을 들이는 염료.’를 말한다. 방언형은 ‘물굼, 물ㄱ음, 물혜, 물레, 물뿔’ 등으로 나타난다.

- ㉠ 물굼
- ㉡ 물ㄱ음
- ㉢ 물혜
- ㉣ 물레
- ㉤ 물뿔

‘물감’의 방언형은 ‘물굼’계열(물굼, 물ㄱ음)과 ‘물혜’계열(물혜, 물레, 물뿔)로 대별된다. ‘물굼’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에 분포하며, ‘물ㄱ음’은 서북 지역의 한경(翰京)과 그 이웃한 안덕(安德)에서 조사되었다. ‘물혜’계열의 ‘물혜’는 서귀(西歸)에서 나타나며, ‘물레’는 한림(翰林)과 대정(大靜)·중문(中文)·남원(南元)·표선(表善)에서 조사되었다. ‘물뿔’은 애월(涯月)과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와 가파도(加波島)에 분포한다.

4) 집 관련 어휘

① 고방(언어지도 038)

‘고방’은 ‘살림집에서 세간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두는 곳.’을 말하는데, 그 방언형은 ‘고팡, 궤팡, 안방, 양팡’ 등으로 나타난다.



- ㉠고팡
- ㉡괘팡
- ㉢안방
- ㉣양팡

‘고방’은 한자어계열인 ‘고팡’과 고유어계열의 ‘안방’으로 나뉜다. ‘고팡’계열(고팡, 괘팡)은 산북(山北) 지역을 비롯하여 산남(山南) 지역에 골고루 나타난다. 그러나 ‘안방’계열(안방, 양팡)은 한경(翰京)·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에서 조사되었다. ‘고방’이 ‘고팡’, ‘안방’이 ‘양팡’에서 ‘방’이 ‘팡’으로 변하는 것은 제주도 방언의 특색 가운데 하나인 ‘ㅎ’첨가 현상으로 설명된다.<sup>40)</sup> ‘고팡’계열과 ‘안방’계열로 나뉘어 들어선을 이루는 경우다.

②대장간(언어지도 039)

‘대장간’은 ‘풀무를 차려 놓고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을 말한다. ‘대장간’의 방언형은 ‘불밧간, 불밧간, 불미왕, 불매왕, 불매황’ 등으로 나타난다.

- ㉠불밧간
- ㉡불밧간
- ㉢불미왕
- ㉣불매왕
- ㉤불매황

이 방언형은 ‘불미+간’(間)계열(불밧간, 불밧간)과 ‘불미+방’(房)계열(불미왕, 불매왕, 불매황)로 나뉜다. ‘간’(間)이 연결된 ‘불밧간’계열의 어휘들은 제주시(濟州市)와 서부 일부 지역인 애월(涯月)과 서남 지역인 가파도(加波島), 그리고 제주시(濟州市)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성산(城山)·남원(南元)·서귀(西歸)에 분포하며, ‘불미왕’계열의 어휘들은 서부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표선(表善) 그리고 우도(牛島)에 나타난다. ‘불미왕’과 ‘불매왕’의 ‘왕’은 ‘방>방>왕’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결과다. ‘-왕’에 ‘ㅎ’이 첨가된 ‘불매황’은 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왕, -황’의 형태는 외양간을 뜻하는 ‘쉐왕’과 ‘쉐황’에서 확인된다.

한편 ‘불미>불매’는 풀무의 방언형이다. ‘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제구.’로서 『圓覺經諺解』(上 1~2:17)의 “微妙한 불무로 한 像을 노기며”의 ‘불무’가 거센소리화한 결과다. ‘풀무’는 ‘불무(𨮒)’(『南明集諺解』下 71)>풀무(『朴通事諺

40) 현용준, 「ㅎ 삼요음에 대하여-제주방언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試考」 『제주문화』 제1호, 문충제주지부, 1957, 86~103쪽. 송상조, 「‘ㅎ’ 개입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2.

解』(下 29)>풀무'의 과정을 거친 어형으로, 방언형 '불미'는 '불무'의 이형태로 15세기 어형을 간직하고 있다.

③마루(언어지도 040)

'마루'는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칸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을 일컫는 말이다. 이 방언형은 '마리, 마레, 상방, 삼방, 상방마리, 대청' 등으로 나타난다.

- ㉠마리
- ㉡마레
- ㉢상방
- ㉣삼방
- ㉤상방마리
- ㉥대청

이 방언형들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각각 다른 어휘들이다. 곧 '마리'는 '마루'의 방언형이며, '상방'은 한자어 '상방'(上房)에 해당하며, '삼방'은 '상방'의 변이형이다. '상방마리'는 '상방'과 '마리'가 합쳐진 것이며, '대청'은 한자어 '대청'(大廳)을 뜻한다. 그러나 이 방언형들은 모두 '마루'의 의미로 사용된다. '마리'는 산북 서쪽 끝인 한경(翰京)을 비롯하여 그와 이웃한 대정(大靜)·안덕(安德)을 거쳐 중문(中文)·서귀(西歸)·남원(南元)에 나타나며, '마레'는 가파도(加波島)에서 보인다. '삼방'은 한경(翰京)을 제외한 산북(山北) 지역과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표선(表善)에 분포한다. '상방'과 '마리'가 결합한 '상방마리'는 제주시(濟州市)에, '대청'은 조천(朝天)에서 나타난다. 한편 '상방'은 '마리' 지역인 안덕(安德)과 서귀(西歸)에서, 서남부에 분포하는 '마리'는 제주시(濟州市)와 조천(朝天)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④벽장(언어지도 041)

'벽장'은 '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두게 만든 장(櫃).'을 말한다. '벽장'의 방언형은 '벽장, 시렁, 스렁'으로 나타나는데, 육지의 '벽장'과 달리 제주도 전통 초가의 '벽장'은 문을 달지 않은 형태였다. 즉 안에 있는 물건을 가리기 위하여 포장을 쳤다가 문을 단 형태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

- ㉠벽장
- ㉡시렁
- ㉢스렁

이 방언형은 ‘백장’과 ‘시렁’계열(시렁, 스렁)로 구분되는데, ‘백장’은 산북(山北) 지역 전체와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어원을 달리하는 ‘시렁’은 서귀(西歸)·남원(南元) 그리고 성산(城山)에 분포하며, ‘스렁’은 표선(表善)에서 조사되었다.

대개 표준어에서는 ‘백장’과 ‘시렁’을 구분한다. 곧 ‘백장’은 ‘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두게 만든 장’을 의미하며, ‘시렁’은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을 말한다. 문이 달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른데 반하여, 제주도방언에서는 ‘백장’과 ‘시렁’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장독대(언어지도 042)

‘장독대’는 ‘장독 따위를 놓아 두는 곳.’을 말한다. 방언형은 ‘장황뒤, 장황놓는다, 장황두에, 장팡, 장팡뒤, 장독간, 안뒤’로 나타난다.

- ㉠ 장황뒤
- ㉡ 장황놓는다
- ㉢ 장황두에
- ㉣ 장팡
- ㉤ 장팡뒤
- ㉥ 장독간
- ㉦ 안뒤



<사진 7> 장독대

‘장독대’는 ‘장황뒤’계열(장황뒤, 장황놓는다, 장황두에)과 ‘장팡뒤’계열(장팡, 장팡뒤)로 구분된다. ‘장황뒤’는 한경(翰京)·남원(南元)·성산(城山)·구좌(舊左)에 나타나며, 제주시(濟州市)와 표선(表善)에서는 구체적으로 ‘장황놓는다’가 조사되었다. 한경(翰京)에서는 ‘장황두에’가 조사되었다. ‘장팡뒤’는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에 분포하며, ‘장팡’은 가파도(加波島)에서 조사되었다. 한편 조천(朝天)에서는 ‘안뒤’(안흥+뒤)가 나타나는데, 이 방언형은 원래 안채가 앉은 자리에서 뒤쪽에 있는 뜰이나 작은 터알 곧 ‘안뒤곶’를 뜻한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표준어에 가까운 ‘장독간’이 조사되었다.

⑥ 정낭(언어지도 043)

‘정낭’은 ‘대문 대신에 집 어귀에 걸치는 나무.’를 말하는데, ‘정낭, 징낭, 정살, 정살낭, 정술낭’으로 나타난다. ‘정낭’은 보통 집으로 들어가는 어귀의 양쪽 돌틈에 끼워서 걸치거나 ‘정주목’<sup>41)</sup>이나 ‘정주석’<sup>42)</sup>을 세운 후에 그 구멍으로 끼워 넣는다.

- ㉠정낭
- ㉡정낭
- ㉢정살
- ㉣정살낭
- ㉤정술낭

‘정낭’은 ‘정낭’계열(정낭, 징낭)과 ‘정살’계열(정살, 정살낭, 정술낭)로 구분된다. ‘정낭’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분포하며,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과 표선(表善)에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시(濟州市)와 애월(涯月)에서는 ‘정낭’의 이형태인 ‘징낭’도 함께 조사되었다.

‘정살’계열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와 중문(中文)·서귀(西歸)·남원(南元)에서 나타난다. 한편 ‘정낭’과 ‘정살’의 ‘정-’은 지역에 따라서 “정낭을 걸치는 공간”(涯月), “문처럼 만든 것”(表善)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 5) 도구 관련 어휘

##### ① 썰개(언어지도 044)

‘썰개’는 ‘밭에 씨앗을 뿌린 다음 씨앗이 흙에 덮이게 바닥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끌어주는, 나무 따위로 만든 부채꼴 모양의 농기구.’를 말한다. 이에 대한 방언형은 ‘섬비, 섬피, 솔피, 끄실퀴, 끄서퀴, 끄설퀴, 푸지게, 솔기, 끄슴솔기’로 나타난다.

- ㉠섬비
- ㉡섬피
- ㉢솔피
- ㉣끄실퀴
- ㉤끄서퀴
- ㉥끄설퀴
- ㉦푸지게
- ㉧솔기
- ㉨끄슴솔기

41) ‘정주목’은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대문 대신 가로 막아 놓는 긴 나무(정낭)를 걸쳐서 의지하게끔 나무로 만들어 세운 기둥.’을 말한다.

42) ‘정주석’은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대문 대신 가로 막아 놓는 긴 나무(정낭)를 걸쳐서 의지하게끔 돌로 만들어 세운 기둥.’을 말한다.

이 방언형들은 ‘꿈게’를 빗자루로 인식하는 ‘섬비’계열(섬비, 섬피, 솔피)과 ‘꿏다’(扱)에서 파생한 ‘끄실퀴’계열(끄실퀴, 끄서퀴, 끄설퀴) 그리고 ‘푸지게’와 ‘솔기’계열(솔기, 끄슴솔기)로 나뉜다. ‘섬비’계열의 ‘섬비’는 제주 서부인 애월(涯月)·한림(翰林)·비양도(飛揚島)·한경(翰京)·대정(大靜)과 서귀(西歸) 지역에 꽤 넓게 분포하며, ‘섬피’는 제주시(濟州市)와 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아래아(·)형이 살아있는 ‘솔피’는 남원(南元)에서 조사되었다.

‘끄실퀴’계열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 그리고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과 표선(表善)에서 나타난다. ‘끄서퀴’는 조천(朝天)·구좌(舊左)·성산(城山) 지역에 분포하는데, 조천에서는 ‘끄실퀴’가 혼효 양상을 보인다. 표선(表善)에서는 ‘크설퀴’가 조사되었다.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어원을 달리하는 ‘솔기’와 ‘끄슴솔기’가 조사되었다.

한편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어원을 달리하는 ‘푸지게’가 나타난다. 이 ‘푸지게’는 『역어유해』(상 22)의 “打靑帳○프지게 티다”의 ‘프지게’ 또는 『물명고』(羽蟲)의 “巖射苑 푸디게”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한다. 표준어 ‘프지게’는 ‘새사냥꾼이 풀이나 나무로 엮어 제 몸을 감추는 기구.’를 말하는데, ‘프지게’가 ‘꿈게’<sup>43)</sup>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②고무래(언어지도 045)

이 ‘고무래’는 ‘곡식을 널거나 굶어 모으는데 쓰는 丁자 모양의 연장.’을 물어 본 것이다. 곡식과 연관된 도구인 ‘고무래’의 방언형은 ‘근데, 군데, 날렛근데, 당그네, 설레’로 나타난다.



<사진 8> 고무래

- ㉠근데
- ㉡군데
- ㉢날렛근데
- ㉣당그네
- ㉤설레

‘고무래’의 방언형은 어원을 달리하는 ‘근데’계열(근데, 군데, 날렛근데)과 ‘당그네’·‘설레’형으로 구분된다. ‘근데’계열은 동부 지역에, ‘당그네’는 서부 지역에 나타나 그 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곧 ‘근데’는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에 나타나며, ‘당그네’는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를 비롯

43) ‘꿈게’는 주로 ‘괭냥’(괭냥나무)이나 ‘누룩냥’(느릅나무)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 쓰는데, 임시로 소나무 따위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여,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조천(朝天)에서는 ‘날렛근데’와 함께 ‘설레’가 조사되었다. ‘근데’는 ‘명석 따위에 넣어놓은 곡식을 이리저리 짓다.’라는 의미의 ‘근다’<sup>44)</sup>에서 유래하며, ‘날렛근데’는 {날레+ㅅ+근데} 구성으로, ‘날레’를 저울 때 사용하는 ‘근데’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날레’는 ‘별에 말리려고 명석 따위에 넣어 놓은 보리와 조, 콩 따위의 곡식’을 말한다. ‘당그네’는 ‘당기다’에서 온 어형들이다. ‘설레’는 고무래의 기능의 하나인 ‘밭을 고르는데 사용하는’ ‘씨레’와 관련된 어휘가 아닌가 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의 ‘고무래’ 의미의 하나인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에 쓰는 丁자 모양의 기구.’를 제주에서는 ‘굴묵근데, 불그네’ 등으로 어형이 분화되어 나타난다. ‘굴묵근데’는 {굴묵+근데} 구성이고, ‘불그네’는 {불+근+에} 구성으로, ‘굴묵근데’는 ‘굴묵’<sup>45)</sup>을 질을 때 까끄라기 따위를 밀어 넣거나 재를 빼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불그네’는 불을 때고 난 후의 재를 꺼낼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의미이다. ‘불그네’는 표준어 ‘불당그래’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한편 곡식을 넣어서 저울 때 사용하는 ‘날렛근데, 당그네’가 끝이 보통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재를 꺼낼 때 사용하는 ‘불그네’는 톱니 없이 미끈하게 만들어진다.

### ③ 망사리(언어지도 046)

‘망사리’는 ‘잡녀’<sup>46)</sup>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 자루.’를 말하는데, 방언형으로 ‘망사리, 망시리’가 있다.

- ㉠ 망사리
- ㉡ 망시리

‘망사리’는 동부 지역에, ‘망시리’는 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서북 지역의 맨 서쪽인 한경(翰京)에서 동부 지역에 분포하는 ‘망사리’가 조사된 게 특이하다. ‘망사리’는 재료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짚’(짚)으로 만든 것을 ‘짚망사리’, ‘참역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인 ‘미’로 만든 망사리를 ‘미망사리’라고 부른다. 나일론으로 만든 것을 ‘나일론망사리’라고 한다. 여기에서 ‘망사리, 망시리’의 ‘망-’(網)은 그물의 뜻을 지닌 한자어다. 이 방언형들은 모음

44) ‘근다’는 ①닭이 발톱으로 땅이나 넣어놓은 물건을 긁어당기다. ②갈퀴 따위로 넣어진 검불을 긁어모으다. ③흙, 재 따위가 묻은 데를 긁어 헤집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45)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공간’을 말한다. 제주도 주거 문화의 독특한 공간의 하나다.

46) 김순자, 「제주학 정립을 위한 기본 용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4, 36~39쪽 참조. 이 논문에 의거하여 여기에서도 제주에서 물질을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해녀’와 ‘잠수’ 대신 ‘잡녀’라고 쓴다.



‘나’와 ‘ㅣ’의 교체에 따라서 등어선을 이룬다.

④ 메호미<sup>47)</sup>(언어지도 047)

‘메호미’는 ‘나무 따위를 찍어서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을 말한다. 방언형으로는 ‘메호미, 미호미, 장호미, 나다, 나대’가 나타난다.

- ㉠ 메호미
- ㉡ 미호미
- ㉢ 장호미
- ㉣ 나다
- ㉤ 나대



<사진 9> 메호미

‘메호미’는 산남(山南) 지역인 중문(中文)·서귀(西歸)·남원(南元)·표선(表善)에 분포하며, ‘미호미’는 중앙인 제주시(濟州市)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나타난다. ‘장호미’는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에 나타난다. 도서 지역은 모두 일본어 ‘나다’가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어 ‘나다(なた[鉞])’<sup>48)</sup>에서 유래하는 ‘나다, 나대’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전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메호미, 미호미’는 {메+호미}, {미+호미} 구성으로, 여기에서 ‘메-, 미-’는 ‘찍다’는 의미인 ‘피다’의 어간 ‘피’에서 온 변이형으로, ‘미-, 메-’에는 ‘자르다’는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등의 북을 피여 스스로 목미야드라 주그니라.(東國新續三綱行實圖(烈 5:46): 찢다
- 或 머리 뉘 居士ㅣ라 호며(『龜鑑諺解』(下 52): 빠지다

‘장호미’는 {장(掌)+호미} 구성으로, ‘날이 손바닥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sup>49)</sup>

제보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다, 나대’는 일제식민지시대 이후에 사용된 어

47) ‘메호미’는 지역에 따라서 ‘미호미, 나대, 나다’로 나타난다. 표준어로 바꿀 마땅한 어휘가 없어 제주도방언 가운데 ‘메호미’를 대표음으로 정하여 글을 전개하였다.

48)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나대’가 표제어로 올라 있고, 『우리말 대사전』에는 ‘나대’와 함께 ‘미호미, 메호미’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 김세택(2010, 기파랑)은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어』에서 일본어 ‘なた[鉞]’는 “한국어의 ‘낫’이 비슷한 용도로 쓰인다. ‘낫’에서 ‘낫-なた’로 이어진다”(611쪽)면서 ‘나다’는 한국에서 건너간 일본어라고 설명해 놓고 있다.

49) 송상조(2007) 엮음 『제주말 큰 사전』에는 ‘나무 따위를 자를 수 있는 긴 낫’이라고 되어 있다. ‘긴 낫’을 제주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장낫’이라고 부르는데, 현평호 외(2009)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에는 ‘①서서 팔 따위를 베는 자루가 긴 연장 ②배 위에서 바다 속 해초를 캐는 자루가 긴 연장’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의 ‘장호미’는 두 사전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회<sup>50</sup>)로 제주도에서 ‘나대, 나다’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아 보인다. ‘나다, 나대’ 두 어휘가 세력화 하면서 고유의 ‘미호미’, ‘메호미’, ‘장호미’를 사용하던 언중들의 언어 습관을 바꾸어 놓았다. ‘미호미’, ‘메호미’, ‘장호미’ 세 어형이 세 개의 등어선을 형성한다.

⑤부시(언어지도 048)

‘부시’는 ‘부싯들을 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쇧조각.’을 말한다. ‘부시’의 방언형은 ‘부시, 부세, 부쇄, 푸쇄’로 나타난다.

- ㉠부시
- ㉡부세
- ㉢부쇄
- ㉣푸쇄

‘부시’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중문(中文)과 서귀(西歸) 그리고 동남 지역인 표선(表善)·성산(城山)에 분포하며, ‘부쇄’는 서부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과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 그리고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 나타난다. 도서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특이한 어형인 ‘푸쇄’가 ‘부쇄’와 함께 조사되었다.

‘부시’는 ‘불[禾]+쇠[鐵]’의 합성어로 ‘ㄹ’이 탈락한 ‘부쇠>부쉬>부시’, ‘부세, 부쇄’는 ‘불+세, 쇠’의 구성으로, ‘부쇠>부쇄>부세’의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 ‘부시, 부세, 부쇄’는 문헌어 ‘火鎌 부쇠’(『역어유해』 하 18, 『동문유해』상 49, 『한청문감』 10:50)의 잔영임을 알 수 있다.

⑥솔박(언어지도 049)

‘솔박<sup>51</sup>’은 ‘나무를 둥그스럼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한다. 주로 ‘곡식 따위를 용기에 담거나 풀 때’, 또는 ‘바람을 이용하여 곡식의 검불이나 쭉정이 따위를 날려 버리는 일’인 ‘불림질’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방언형은 ‘솔박, 솔팍, 손박, 손팍, 줍팍’으로 나타난다.

- ㉠솔박
- ㉡솔팍

50) 제보자 봉성리 강자숙의 “어릴 때 나대라는 말 없었다.”, 조수리 김성욱의 “나대 일본 시대 이후의 말”이라는 구술 자료를 통해서 ‘나대’의 쓰임이 일제식민지시대 이후의 일임을 짐작하게 한다.

51) ‘솔박’은 앞의 ‘메호미’처럼 표준어로 대역할 마땅한 어휘가 없어서 ‘솔박’을 표제어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 ㉠ 손박
- ㉡ 손팍
- ㉢ 줍팍



<사진 10> 솔박

‘솔박’의 방언형들은 ‘솔박’[솔팍]계열(솔박, 솔팍)과 ‘손박’[손팍]계열(손박, 손팍), ‘줍팍’ 등 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솔박’계열은 제주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

구좌(舊左)·우도(牛島)와 산남(山南) 전 지역에 나타나며, ‘손박’계열은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과 가파도(加波島)·안덕(安德)에 분포한다. 대정(大靜)에서는 ‘솔팍’과 ‘손박’이 혼효 양상을 보인다.

‘줍팍’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비양도(飛揚島)·한경(翰京)에 분포한다. ‘솔박’과 ‘솔팍’은 {솔+ㅅ(ㅎ)+박} 구성으로, 바가지의 재료가 ‘솔’(소나무)이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손박’[손팍]과 ‘손팍’은 {손+ㅅ(ㅎ)+박} 구성으로, ‘손’과 관련한 어휘이며, ‘줍팍’은 불림질 할 때 손의 모양이 ‘줍’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줍’은 ‘무엇을 쥐려고 손가락을 오그린 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줍’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sup>52)</sup>

⑦ 췌기(언어지도 050)

‘췌기’는 ‘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들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는 물건.’을 말한다. ‘췌기’의 방언형은 ‘세, 세기, 췌기, 세간, 세감, 세역, 뚝, 고지’로 나타난다.

- ㉠ 세
- ㉡ 세기
- ㉢ 췌기
- ㉣ 세간
- ㉤ 세감
- ㉥ 세역
- ㉦ 뚝
- ㉧ 고지

이 방언형은 ‘세기’계열(세, 세기, 췌기)과 ‘세간’계열(세간, 세감), ‘세역’·‘뚝’·‘고지’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세’는 동부 지역의 구좌(舊左)와 성산(城山)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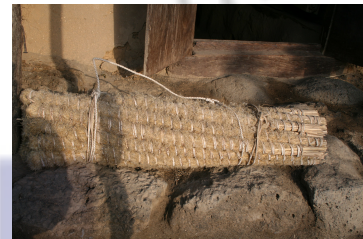
52) 석주명도 ‘손박’의 다양한 어형에 주목하였다. ‘손박’의 특징을 “제일 흔히 곡물용으로 쓰는 타원형의 것은 손으로 다룬다고 해서 ‘손팍’이라 하고 혹은 ‘솔팍’이라고도 한다. 촌락이나 더욱이 대정 지방으로 가면 ‘줍팍’이라고 한다”고 설명해 놓고 있다. 석주명, 앞의 책, 77쪽.

하며, ‘세기’는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 나타난다. 표준어 ‘썰기’의 변이음 ‘썰기’는 조천(朝天)에서만 나타난다. ‘세간’은 안덕(安德)에 분포하고, ‘세간’의 다른 음성형 ‘세감’은 서부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에 나타난다. ‘세역’은 중앙 지점인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애월(涯月)·서귀(西歸)·중문(中文)에 분포하며, 특히 어형인 ‘뚝’은 조천(朝天)에서, ‘고지’는 서북 지역의 도서인 비양도(飛揚島)에서 조사되었다. ‘세기’·‘세간’·‘세역’ 세 어형이 동서로 구분하는 등어선이다.

⑧ 화승(언어지도 051)

‘화승’에 대한 방언형은 ‘화심, 화심, 화승, 화승, 불찍, 미심’으로 나타난다.

- ㉠ 화심
- ㉡ 화심
- ㉢ 화승
- ㉣ 화승
- ㉤ 불찍
- ㉥ 미심



<사진 11> 화승

‘화승’의 방언형은 ‘화승’계열(화승, 화승)과 ‘화심’(화심, 화심), 그리고 ‘불찍’과 ‘미심’으로 나타난다. ‘화승’계열은 산남(山南)에 나타나고 ‘화심’계열은 산북(山北)에 분포한다.

‘화승’(火繩)은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이라는 의미로, 역새의 꽃을 노처럼 꼬아서 만든 데서 연유한 이름이며, ‘화심’[火-]은 ‘불을 붙게 하는 심지’라는 의미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와 제주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에서 보이는 ‘화심’은 불을 뜻하는 ‘화(火)’에 ‘-’모음이 첨가된 ‘화’에 ‘심지’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어휘다. ‘미심’은 애월(涯月)에 분포하는데, 그 재료인 새봄으로 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불찍’은 한림(翰林)에서 조사되었는데 ‘부식깃’의 뜻을 지닌 어휘다.<sup>53)</sup>

⑨ 종다래끼(언어지도 052)

‘종다래끼’는 ‘대나 싸리 따위로 만든 작은 바구니.’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주로 대오리를 가지고 만드는데, ‘종다래끼’의 방언형은 ‘들렁이, 들랑지, 조레기, 송둥

53) 보통 ‘화승’은 역새꽃인 ‘미베쟁이’를 말린 다음 돌돌 말아 길게 한 후 줍줄로 엮어매어 만드는데,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역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짚’을 재료로 ‘화승’을 만들어 썼다. ‘조짚’은 ‘조의 낱알을 떨어낸 줄기.’를 말한다. 우도의 예는, 언어와 문화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송동이, 송동바구리, 옹동바구리, 바구니, 바구리' 등으로 나타난다.

- ㉠ 돌랭이
- ㉡ 돌랑지
- ㉢ 조례기
- ㉣ 송동이
- ㉤ 송동이
- ㉥ 송동바구리
- ㉦ 옹동바구리
- ㉧ 바구니
- ㉨ 바구리

이 방언형은 ‘돌랭이’계열(돌랭이, 돌랑지)과 ‘조례기’, ‘송동이’계열(송동이, 송동이, 송동바구리, 옹동바구리), ‘바구니’계열(바구니, 바구리)로 나눌 수 있다. ‘돌랭이’계열은 제주시(濟州市)와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에 분포하며, ‘조례기’는 산남(山南) 중앙에 해당하는 서귀(西歸)와 중문(中文)·안덕(安德) 등 서남 지역과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에서 조사되었다. 대정(大靜)과 인접한 안덕(安德)에서는 ‘조례기’와 함께 ‘돌랭이’도 혼재되어 나타나 언어접촉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동이’계열은 동부 지역의 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에 나타난다. 한편 제주시(濟州市)에서는 ‘바구니’, 제주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에서는 ‘바구리’가 나타난다. ‘바구리’는 ‘송동바구리’, ‘옹동바구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바구니’의 의미다.

‘돌랭이’와 ‘돌랑지’는 모두 ‘작다’는 의미가 담긴 어휘다. “제주에서 작은 발뺨기를 가리킬 때도 ‘돌랭이’라고 한다. ‘조례기’는 ‘작다’는 의미의 ‘졸다’의 어간 ‘졸’에 작다는 의미의 접미사 ‘-에기’가 붙어서 이루어진 어휘”<sup>54</sup>다. 한편 ‘송동이, 송동이’와 ‘송동바구리’, ‘옹동바구리’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⑩ **벗른구덕**(언어지도 053)

‘벗른구덕’<sup>55</sup>은 ‘오래 써서 헤어진 테를 형겅이나 종이 따위에 풀칠을 하여 바른 바구니.’를 말한다. 이 물건의 방언형은 ‘벗른구덕, 벗른바구리, 풀벗른구덕, 풀벗른바구리, 풀구덕, 풀벗른돌랑지, 풀벗른조례기’로 나타난다.

54) 김순자, 「제주도 ‘구덕’과 ‘차룻’ 이름」, 『영주어문』 제18집, 2009, 22쪽 참조.

55) ‘벗른구덕’은 벗른구덕, 풀벗른구덕 등으로 분화되는데, ‘벗른구덕’을 대표음으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한다.



- ㉠ 비른구덕
- ㉡ 비른바구리
- ㉢ 풀비른구덕
- ㉣ 풀비른바구리
- ㉤ 풀구덕
- ㉥ 풀비른들랑지
- ㉦ 풀비른조레기



<사진 12> 비른구덕

이 방언형들은 {비른+구덕, 비른+바구리, 풀+비른+구덕, 풀+비른+바구리, 풀+구덕, 풀+비른+조레기}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비른-’과 ‘풀비른-, 풀-’은 ‘바구니에 형겅이나 종이 따위를 풀을 바른’이라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즉 이 방언형들은 ‘풀’[膠]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풀’이 연결된 방언형들은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 서쪽 지역에 분포하며, ‘풀’이 연결되지 않은 방언형들은 그 나머지 지역에 분포한다. 바구니에 풀을 바를 때는 “가시리풀(풀가시리풀)과 ‘구두리풀’<sup>56)</sup>을 사용하는데, 가시리풀과 구두리풀은 종이 슬지 않는다.”<sup>57)</sup>

제보자 가운데는 “바구니는 작은 거, 구덕은 큰 거”<sup>58)</sup>, “풀비른조레기는 작은 거, 풀비른구덕은 큰 거”<sup>59)</sup>, “풀비른바구리 작은 거, 풀비른구덕 큰 거”<sup>60)</sup>, “풀비른들랑지는 작은 거, 풀비른구덕은 큰 거”<sup>61)</sup>라고 밝히고 있다. 즉, ‘바구니, 조레기, 들랑지, 바구리’는 작은 바구니를 의미하고, ‘구덕’은 바구니 가운데 크기가 큰 것을 말한다. 한편 풀을 발라서 만든 작은 ‘들랑지’는 반질고리 따위로 쓰고, 풀을 발라서 만든 ‘구덕’은 짚이나 가루 등을 담은 용기로 활용한다.

## 6) 민속 관련 어휘

### ① 짚동(언어지도 054)

‘짚동’<sup>62)</sup>은 ‘상이 낫을 때 상제 앞에 놓는, 상장(喪杖) 길이만큼 길고 굽적하게

56) ‘구두리풀’은 {구두리+풀} 구성으로, ‘구두리’는 납작풀가시리나 털도박 따위를 함께 일컫는 말(『제주말 큰사전』 참조)이다.

57) 조수 이옥춘 구술.

58) 조천 한희규 구술(76, 남, 2010. 7. 7.).

59) 남원 김경만 구술(79, 남, 2010. 6. 23.).

60) 봉성 강자숙 구술(80, 여, 2010. 7. 5.).

61) 조수 이옥춘 구술(79, 여, 2010. 7. 2.).

62)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짚동’은 ‘짚단을 모아 한 덩이로 만든 묶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짚동’은 ‘장례 때 상제들 앞에 놓여 있는 짚 묶음’을 말한다. 마땅한 표준어가 없어서 어형이 같은 ‘짚동’을 표제어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섯 혹은 일곱 마디로 묶은 짚단.’을 말한다. ‘짚동’의 방언형 ‘짹동’은 {짹+동} 구성으로, ‘짹’은 ‘찍’과 함께 ‘짚’을 나타내는 제주도방언이다. ‘동’은 ‘묶어서 한덩어리로 만든 묶음.’을 말한다. 곧 ‘짹동’은 ‘짚’을 적당한 부피로 만들어 묶음을 만든 것으로, 상장(喪杖)<sup>63)</sup>과 함께 상이 났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짹동’과 관련한 문헌어로는 『월인석보』(8:99)의 “딛동 세 무슬 어더 썩로 어울워 띵야”의 ‘딛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인석보』에서의 ‘딛동’은 ‘짚 묶음’이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서의 ‘짚동’은 ‘장례 풍속에 소용되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바뀐 경우다. ‘짚동’의 방언형은 ‘짹동, 짹덩이, 짹동, 북심, 북시미, 부쌌’으로 나타난다.



<사진 13> 짚동

- ㉠ 짹동
- ㉡ 짹덩이
- ㉢ 짹동
- ㉣ 북심
- ㉤ 북시미
- ㉥ 부쌌

이 방언형들은 ‘짹동’계열(짹동, 짹덩이, 짹동)과 ‘북심’계열(북심, 북시미, 부쌌)로 나눌 수 있다. ‘짹동’계열은 산북(山北) 지역을 비롯하여 산남(山南) 서쪽 지역인 대정(大靜)과 안덕(安德)에 분포한다. 어원을 달리하는 ‘북심’계열의 방언형은 그 나머지 지역에 나타난다. 곧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중문(中文)·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에 분포한다. ‘북심, 북시미, 부쌌’은 ‘검불’의 방언형 ‘북시미’와 연관된 어휘가 아닌가 한다.

## ② 조문(언어지도 055)

‘조문’(弔問)은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함. 또는 그 위문.’을 말한다. 요즘은 ‘조문’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었지만, 예전 제주도에서는 ‘조문’이라는 의미로, ‘고견, 궤견, 고렴, 고애’를 사용하였다. ‘궤견’은 ‘고견’의 음이 변한 것이다. 이 방언형들은 다같이 한자어로 각각 ‘顚見’, ‘顚念’, ‘顚哀’이다.

63) ‘상장(喪杖)’을 제주에서는 ‘방장대, 상장대’ 따위의 이름으로 불린다.

- ㉠고견
- ㉡궤견
- ㉢고렴
- ㉣고애

‘고견’은 동북 지역인 구좌(舊左)와 우도(牛島), 동남 지역의 성산(城山)·남원(南元)·서귀(西歸)에 분포하며, ‘궤견’은 동남 지역의 표선(表善)에서 나타난다. 한편 ‘고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동북 지역의 조천(朝天)에서는 ‘고견’과 ‘고렴’이 함께 조사되어 혼효된 모습을 보인다. ‘고애’는 한경(翰京)에서만 조사되었다. 이웃에 조문하러 갔다고 할 때는 “고애가다, 고렴가다, 고견가다” 또는 “고견흐레 가다, 고렴흐레 가다” 따위로 표현한다.

③ 상여꾼(언어지도 056)

‘상여꾼’의 방언형은 ‘상뒤꾼, 상뒤, 상두꾼, 상예꾼, 행상꾼, 운상꾼, 동네꾼, 역스꾼, 제꾼, 유대근, 역부’로 나타난다.

- ㉠상뒤꾼
- ㉡상뒤
- ㉢상두꾼
- ㉣상예꾼
- ㉤행상꾼
- ㉥운상꾼
- ㉦동네꾼
- ㉧역스꾼
- ㉨제꾼
- ㉩유대근
- ㉪역부

‘상여꾼’의 방언형은 ‘상뒤꾼’계열(상뒤꾼, 상뒤, 상두꾼, 상예꾼)과 ‘행상꾼’을 비롯한 기타계열(운상꾼, 동네꾼, 역스꾼, 제꾼, 유대근, 역부)로 나뉜다. ‘상뒤꾼’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동북 지역의 조천(朝天)과 서남 지역의 대정(大靜)·안덕(安德), 그리고 동남 지역인 서귀(西歸)와 남원(南元)에 나타난다. ‘상뒤’는 대정(大靜)과 서귀(西歸), ‘상두꾼’은 ‘유대근’이 나타나는 비양도(飛揚島)에서 조사되었고, ‘상여꾼’은 성산(城山)에 분포한다. ‘동네꾼’은 동북 지역의 조천(朝天)과 구좌(舊左), ‘행상꾼’과 ‘역

스꾼'은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 분포한다. '운상꾼'은 남서 지역의 중문(中文), '제꾼'은 조천(朝天)에 분포한다. '동네꾼'은 상여꾼으로 참여한 동네 사람이란 뜻이며, '역스꾼'은 한자어 '역사'(役事)에서 유래한 방언형이다. '제꾼' 또한 한자어 '契'에서 온 방언형이다. 한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역부'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한자어 '역부'(役夫)를 이르는 말이다.

## 7) 인체 관련 어휘

### ① 자위(언어지도 057)

'자위'는 눈알에서 빛깔에 따라 구분된 부분 곧 검은자위와 흰자위를 물어본 것이다. 방언형으로 '공즈, 공제, 공자, 눈공자, 동즈, 동자, 눈알'이 나타난다.

- ㉠공즈
- ㉡공제
- ㉢공자
- ㉣눈공자
- ㉤동즈
- ㉥동자
- ㉦눈알

'자위'의 방언형은 '공즈'계열(공즈, 공제, 공자, 눈공자)과 '동즈'계열(동즈, 동자), '눈알'로 나뉘는데, 이들은 어두음 'ㄱ'과 'ㄷ'이 교체됨으로써 등어선을 형성하고 있다. '공즈' 계열은 산북(山北) 지역의 한림(翰林)과 한경(翰京)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하며, 산남(山南)에서는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 등 서쪽 지역에 나타난다. '동즈' 계열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남 지역인 표선(表善)과 성산(城山)에 분포한다. 남원(南元)에서는 '눈알'이 조사되었는데, 눈 안에 박힌 공 모양의 부분을 뜻한다. '공즈'계열은 눈알이 공 모양에서 연유한 이름이고, '동즈'는 한자어 '瞳子'에서 온 이름이다. 『마경언해』(上 6)의 “눈의 동지 들히 이시면 가비아아 녀겨 보디 말라.”에서 '자위'의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다. '흰동자'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은 '흰공즈, 흰동즈'라 하고, '검은자위'는 '검은공즈, 검은동즈'로 나타난다.

### ② 겨드랑이(언어지도 058)

'겨드랑이'의 방언형은 '즈쟁이, 즈깁이, 저쟁이'로 나타난다.

- ㉠즈깁이
- ㉡즈깁이
- ㉢저깁이

이 방언형들 ‘즈깁이’계열(즈깁이, 즈깁이)과 ‘저깁이’로 나뉘는데, ‘즈깁이’계열은 산북(山北) 지역과 산남(山南) 맨 서쪽인 대정(大靜)에 분포한다. ‘·>·’로 변화 과정을 거친 ‘저깁이’는 대정(大靜) 인근 도서인 가파도(加波島)와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한다. 제주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에서는 ‘저깁이’가 출현해 산남지역과 언어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팔꿈치(언어지도 059)

‘팔꿈치’의 방언형은 ‘폴고비, 폴곱지, 폴곱은지, 폴곱은제기, 폴곡지, 폴꿈치, 폴꿈지’로 나타난다.

- ㉠폴고비
- ㉡폴곱지
- ㉢폴곱은지
- ㉣폴곱은제기
- ㉤폴곡지
- ㉥폴꿈치
- ㉦폴꿈지

이 방언형들은 ‘폴고비’계열(폴고비, 폴곱지, 폴곱은지, 폴곱은제기, 폴곡지)과 개신형인 ‘폴꿈치’계열(폴꿈치, 폴꿈지)로 나뉜다. ‘폴고비’계열은 합성어 {팔+굽다(曲)}에서 유래한 방언형이고, ‘폴곡지’는 자음 교체에 의한 방언형이다. ‘폴고비’는 『유합』(上 21)의 “肘 폴구비 듀”, 『가례언해』(1:39)의 “듀는 폴구비라”에서 보이는 ‘폴구비’와 관련된 어형이다. 문헌어는 ‘폴구비’와 함께 ‘폴구미’, ‘폴구부령’도 보인다. ‘폴고비’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의 한림(翰林)과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 나타나며, ‘폴곱지’는 동북 지역의 구좌(舊左)와 동남 지역의 남원(南元)에 분포한다. ‘폴곱은지’는 남서 지역의 안덕(安德), ‘폴곱은제기’는 남서 끝 지역인 대정(大靜)에서 나타난다. ‘폴곡지’는 애월(涯月)·조천(朝天)·중문(中文)·서귀(西歸)·성산(城山)에 나타난다. 개신형인 ‘폴꿈치’와 ‘폴꿈지’는 서귀(西歸)와 서북 지역의 한경(翰京)과 대정(大靜)에 분포한다.

④ 옆구리(언어지도 060)

‘옆구리’는 ‘가슴과 등 사이의 갈빗대가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방언형으로 ‘을

갈리, 옆갈리, 읍뎡이, 옥갈리, 역가리'가 나타난다.

- ㉠ 읍갈리
- ㉡ 옆갈리
- ㉢ 읍뎡이
- ㉣ 옥갈리
- ㉤ 역가리

이 방언형은 ‘읍갈리’계열(읍갈리, 옆갈리)과 읍뎡이, ‘옥갈리’계열(옥갈리, 역가리)로 나뉜다. ‘읍갈리’계열의 ‘읍갈리’는 서부 지역인 한경(翰京)과 대정(大靜), 그리고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와 가파도(加波島)에 나타나고, ‘으>어’ 변화 과정을 거친 ‘옆갈리’는 동북 지역의 조천(朝天)·구좌(舊左)와 서남 지역의 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에 분포한다. 어형을 달리하는 ‘읍뎡이’는 중앙인 제주시(濟州市)와 애월(涯月)에서 조사되었다. ‘옥갈리’계열은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과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 분포한다. ‘읍갈리, 옥갈리, 역가리’의 ‘갈리, 가리’는 갈비의 방언으로 『마경언해』(상 64b)의 “폐유혈은 뒤로 조차 츠데로 아홉재 가리 안 등물너 뜨기 혼 자 닷 촌의 이시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쓸개(언어지도 061)

‘쓸개’의 방언형은 ‘슬게’와 ‘실게’로 나타난다.

- ㉠ 슬게
- ㉡ 실게

‘ㅡ>ㅣ’ 변화 과정을 거친 ‘쓸개’의 방언형 가운데 ‘슬게’는 동북 지역의 구좌(舊左)와 성산(城山), 서북 지역의 애월(涯月), 서남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 나타나서 산발적인 분포를 보인다. 전설모음화된 ‘실게’는 전 지역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⑥ 오좁통(언어지도 062)

‘오좁통’은 ‘오좁을 보관해 두는 배설기관.’을 말한다. 즉 ‘방광(膀胱)’의 다른 이름으로, 이에 대한 방언형은 ‘오좁부게, 오좁푸게, 오좁푸게, 오좁게, 오좁통’으로 나타난다.

- ㉠오좁부게
- ㉡오좁푸게
- ㉢오좁푸케
- ㉣오좁께
- ㉤오좁통

이 방언형은 ‘오좁부게’계열(오좁부게, 오좁푸게, 오좁푸케)과 ‘오좁께’, ‘오좁통’ 세 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오좁부게’계열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비양도(飛揚島)·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과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과 구좌(舊左)에 분포하며, ‘오좁께’는 중앙부인 제주시(濟州市)와 중문(中文)에 분포한다. 개신형에 가까운 ‘오좁통’은 서남 지역의 도서인 가파도(加波島)와 서귀(西歸)등 동남 전 지역, 그리고 동북 맨 끝인 도서 우도(牛島)에서 나타난다.

‘오좁부게’와 ‘오좁푸게(케)’는 {오좁+부게, 오좁+푸게(푸케)} 구성으로, ‘오좁’은 ‘오좁’, ‘부게(푸게, 푸케)’는 그 모양이 ‘부게’<sup>64)</sup> 또는 ‘푸게’(파리)와 비슷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좁께’는 문헌어 ‘오좁빠>오좁깨>오좁께’의 변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진 경우다. 문헌어는 “오좁빠 뷔트러 저근물 몬 보거든”(『구급간 이방언해』 3:86), “오좁깨 포: 脬 或胞 作, 오좁깨 방: 勝, 오좁깨 광: 胱”(『훈몽자회』 上 28), “오좁개: 脬”(『물보』(음식))에서 ‘오좁께’가 보이고, 『역어유해』(上 35)의 “오좁통: 水脬”, 『동문유해』(17)의 “오좁통: 尿管”에서 ‘오좁통’이 확인된다. 즉 ‘오좁께’와 ‘오좁통’의 문헌어들이 제주도방언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⑦자개미(언어지도 063)

‘자개미’는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을 물어본 것이다. 이에 대한 방언형은 ‘삿툼, 삿툼이, 삿괭이, 즈기예미, 즈게기, 저기예기, 즈곰테기, 즈금테기, 저금테기, 즈드렝이, 오곰테기’로 나타난다.

- ㉠삿툼
- ㉡삿툼이
- ㉢삿괭이
- ㉣즈기예미
- ㉤즈게기
- ㉥저기예기
- ㉦즈곰테기

64) ‘부게’는 ‘짚으로 낱을 촘촘이 속에 넣고 둥그스름하게 엮어 올리되 아가리를 손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좁히고 목이 있게 만든 아주 작은 떡둥구미.’를 말한다. 작은 허벅인 ‘대배기’ 모양이며, 찌앗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용기다.



- ㉠즈곰테기
- ㉡저곰테기
- ㉢즈드랭이
- ㉣오곰테기

이 방언형은 ‘삿툼’계열(삿툼, 삿툼이, 삿괘이)과 ‘즈기예미’계열(즈기예미, 즈게기, 저기예기) 그리고 ‘즈곰테기’계열(즈곰테기, 즈곰테기, 저곰테기)로 나뉜다. 서부 지역은 ‘즈곰테기’계열이 분포하며, 동부 지역은 다시 남북으로 나누어 동북 지역은 문헌어에서 유래한 ‘즈기예미’계열이, 동남 지역은 ‘삿툼’계열이 분포한다.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는 ‘즈드랭이’가,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오곰테기’가 조사되었다.

- 膈 자개얌 각 俗呼肱子凹 腋 자개얌 익(훈몽자회 上 25)
- 자괴야미: 腿上脇下 속칭 자괴야미(무원록언해 1:63)

⑧중지뼈(언어지도 064)

‘중지뼈’는 ‘무릎 앞 한가운데 있는 작은 중지 모양의 오목한 뼈.’를 말한다. ‘중비뼈’의 방언형은 ‘독머리짱, 독머리짱, 독머릅짱, 절벵짱, 독새기짱, 쟁반짱, 뭇근뼈’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독머리짱
- ㉡독머리짱
- ㉢독머릅짱
- ㉣절벵짱
- ㉤독새기짱
- ㉥쟁반짱
- ㉦뭇근뼈

이 방언형들은 크게 ‘독머리짱’계열(독머리짱, 독머리짱, 독머릅짱)과 ‘절벵짱’, ‘독새기짱’·‘쟁반짱’·‘뭇근뼈’ 어형으로 나뉜다. ‘독머리짱’계열의 방언형은 제주 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과 서남 지역의 대정(大靜)에 분포한다. ‘독머리짱’은 {독+머리[宗]+짱}으로 분석된다. ‘독머리’는 무릎이며, ‘짱’은 ‘뼈’의 제주도방언이다. 즉 ‘독머리짱’은 ‘무릎에 있는 뼈’를 말한다.

한편 어원을 달리하는 ‘절벵짱’은 대정(大靜)을 제외한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하며, 산북(山北) 지역에서는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에 분포한다. ‘절벵짱’은 {절벵+짱}으로 분석되는데, 중지뼈 모양이 ‘절벵65’(절편)이

라는 떡 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독새기짱’은 조천(朝天)에, ‘쟁반짱’은 우도(牛島)에, ‘물근빼’는 한경(翰京)에서 산발적으로 조사되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방언형들은 그 모양과 성질에서 온 것으로, ‘독새기짱’은 ‘종지빼’가 달걀 모양이어서, ‘쟁반짱’은 쟁반 모양, 그리고 ‘물근빼’는 무릎빼가 물렁빼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⑨ 무릎(언어지도 065)

‘무릎’의 방언형은 ‘독므릅, 독므립, 독머릅, 독무릅, 독무립, 독므리, 독머리, 독, 무립’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 독므릅
- ㉡ 독므립
- ㉢ 독머릅
- ㉣ 독무릅
- ㉤ 독무립
- ㉥ 독머리(독므리)
- ㉦ 독
- ㉧ 무립

이 방언형들은 ‘독므릅’계열(독므릅, 독므립, 독머릅, 독무릅, 독무립)과 ‘독머리’로 나뉜다. ‘독므릅’계열은 ‘독[膝]+므릅[膝]’ 합성어이며, ‘독머리’는 {독[膝]+머리[宗]} 구성이다. ‘독므릅’계열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를 비롯하여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하며, ‘독머리’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산남 중앙인 서귀(西歸)에 분포한다. 개신형인 ‘무립’은 애월(涯月)·비양도(飛揚島)·안덕(安德)·구좌(舊左)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애월(涯月)에서는 ‘독’, 한경(翰京)에서는 ‘독므립’도 분화되어 나타나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⑩ 발목(언어지도 066)

‘발목’은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관절 부위.’를 말한다. ‘발목’의 방언형은 ‘귀마리, 구마리, 구머리, 발목’으로 나타난다.

65) ‘절편’은 ‘절편, 절편’ 등으로 불리는데,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게 떡을 만들어 삶아낸 후 암반에 놓아서 얇게 밀어 둥글게 만든 떡 두 개를 붙여 떡살로 찍어낸 떡을 말한다. 김순자(2006), 위의 논문, 74쪽 참조.

- ㉠귀마리
- ㉡구마리
- ㉢구머리
- ㉣발목

이 방언은 ‘귀마리’계열(귀마리, 구마리)과 ‘구머리’로 나뉜다. ‘귀마리’계열의 ‘귀마리’는 제주시(濟州市)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과 동부 지역에 넓게 분포하며, ‘구마리’는 서부 일부 지역인 한경(翰京)과 안덕(安德)과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에 나타난다. 한림(翰林)에는 ‘구머리’가 분포한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귀마리’와 함께 어원을 달리하는 ‘발목’도 조사되었다.

한편 한경(翰京)에서는 발목의 안쪽을 ‘안구마리’, 바깥쪽을 ‘밖구마리’라 하여 구분하였다. ‘귀마리>구마리’는 단모음화 과정을 거친 어형들이며, 각각의 계열에서는 모음교체를 보이고 있다.

‘귀마리, 구마리, 구머리’는 복사뼈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귀마리, 구마리, 구머리’에 ‘뼈’의 방언형인 ‘뻬’와 ‘짱’이 합성된 ‘귀마리짱, 구머리짱, 장귀뻬’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법화경언해』(2:14)의 “두 밧귀머리 다 수므샤 난디 아니흐샤미”, 『금강경삼가해』(2:8)의 “밧귀머리는: 脚跟”, 『번역박통사』(上 38)의 “밧밧귀머리에: 脚内踝”, 『훈몽자회』(上 15)의 “귀머리 과: 俗呼内踝外踝”, 『사성통해』(下 32)의 “밧귀머리: 踝”에서 ‘귀머리’의 문헌어를 확인할 수 있다. 『법화경언해』와 『금강경삼가해』에서는 ‘귀머리’가 발뒤꿈치를 의미하고, 『번역박통사』와 『훈몽자회』, 『사성통해』에서는 제주에서처럼 ‘발목’ 또는 ‘복숭아뼈’의 의미로 쓰인게 아닌가 한다. 한경(翰京)에서 확인되는 ‘안구마리’와 ‘밖구마리’는 곧 『훈몽자회』의 ‘内踝外踝’의 의미다. 한편 애월(涯月)에서는 ‘복숭아뼈’의 의미로 ‘장구뻬’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한편 ‘팔꿈치’의 문헌어로 ‘폴스구머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 8) 사람 관련 어휘

### ①방귀쟁이(언어지도 067)

‘방귀쟁이’는 ‘방귀를 자주 꺾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방귀쟁이’의 방언형은 ‘똥푸대, 똥푸기, 똥피기, 똥폭세기, 똥복쟁이, 똥복자귀, 똥복제기, 방귀쟁이’<sup>66)</sup>로 나타난다.

66) 현평효의 자료집에는 ‘방귀쟁이’의 방언형이 ‘똥복쟁이, 똥복제기, 똥복세기’처럼 아래아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똥복쟁이’ 등이 똥을 많이 꺾는 사람을 놀림조로 쓰이는 말이어서, ‘복쟁이’를 ‘-꾸러기’의 의미로 보고 ‘복쟁이’로 고쳐 조사하였다. ‘복쟁이’가 접미사로 쓰인 제주도방언으로 ‘매복쟁이’(매꾸러기)도 있기 때문이다.

- ㉠똥푸대
- ㉡똥푸기
- ㉢똥피기
- ㉣똥폭세기
- ㉤똥복쟁이
- ㉥똥복자귀
- ㉦똥복제기
- ㉧방구쟁이

이 방언형들은 ‘똥푸대’계열(똥푸대, 똥푸기, 똥피기)과 ‘똥복쟁이’계열(똥복쟁이, 똥복자귀, 똥복제기)로 나눌 수 있다. ‘똥푸대’계열은 또 ‘똥푸대’와 ‘똥푸기’계열로 나눌 수 있다. ‘똥푸대’는 {똥+푸대} 구성으로, 여기에서 ‘푸대’는 한자어 ‘負袋’에 비유하여 ‘몹시 ~를 잘하거나 많이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일컬을 때 사용한다. ‘술부대’<sup>67)</sup>, ‘밥자루’<sup>68)</sup>와 맥락을 같이하는 어휘다. ‘똥푸기’는 제주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에서 나타난다. ‘똥푸기’계열의 ‘똥푸기, 똥피기’는 제주시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여기에서 ‘푸기, 피기’는 ‘세상사에 어둡고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하는 ‘부기’에서 온 말이 아닌가 한다.

‘똥복쟁이’계열은 중앙을 비롯하여 동부 지역에 분포한다. ‘똥복쟁이’는 {똥+복쟁이} 구성으로, ‘매복쟁이’(매꾸러기)처럼 ‘복쟁이’가 ‘꾸러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접미사로 쓰였다. ‘복쟁이’는 ‘복자귀, 복제기’ 형태로도 나타난다.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조천(朝天)·우도(牛島)·성산(城山)에서 ‘똥복제기’, 성산 인근 지역인 표선(表善)에서 ‘똥복자귀’, 서귀(西歸)·남원(南元)에서 ‘똥복쟁이’가 조사되었다. 반면 애월(涯月)은 ‘똥폭세기’, 한경(翰京)에서는 개신형인 ‘방구쟁이’, 조천(朝天)에서는 서부 지역에 분포하는 ‘똥푸대’가 나타난다.

## ②병어리(언어지도 068)

‘병어리’는 ‘언어 장애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 방언형은 ‘말 모레기, 말몰레기, 모레기, 말모르기, 말몰르기, 모르기, 모로기, 버버리’로 나타난다.

67) 『조선말 대사전』에 보면, ‘술부대’는 ‘술을 몹시 많이 마시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술고래’의 잘못으로 올라 있다. 『우리말 큰사전』에는 ‘술고래’와 동의어로 되어 있다. 제주도방언으로는 ‘술푸대’라고 말한다.

68) ‘밥자루’는 ‘제구실은 하지 못하고 밥이나 축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제주도방언으로는 ‘밥푸대’라고 말한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빗대어서는 ‘잠푸대’라고도 표현한다.

- ㉠말모레기
- ㉡말몰레기
- ㉢모레기
- ㉣말모르기
- ㉤말몰르기
- ㉥모르기
- ㉦모로기
- ㉧버버리

이 방언형들은 ‘말모레기’계열(말모레기, 말몰레기, 모레기)과 ‘말모르기’계열(말모르기, 말몰르기, 모르기, 모로기), 그리고 ‘버버리’로 나뉜다. ‘말모레기’계열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에 분포하며, ‘말모르기’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모르기’ 지역인 대정(大靜)과 가파도(加波島)에서는 ‘말모레기’가 조사되어 혼효 양상을 보인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말몰레기’와 함께 ‘버버리’도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언중들은 ‘버버리’와 ‘모르기·모레기’는 의미 차이가 있는 어휘로 인식하고 있다. ‘말모르기·말모레기’가 ‘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버버리’는 ‘발성 기관에 이상이 있어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하는 사람.’, 즉 표준어 ‘반병어리’에 해당한다.

③ 원손잡이(언어지도 069)

‘원손잡이’의 방언형은 ‘웬쟁이, 웬광이, 웬쟁이, 웬둥이, 웬자치, 웬착둥이’로 나타난다.

- ㉠웬쟁이
- ㉡웬광이
- ㉢웬쟁이
- ㉣웬둥이
- ㉤웬자치
- ㉥웬착둥이

이 방언형들은 ‘웬쟁이’계열(웬쟁이, 웬광이)과 ‘웬쟁이’, ‘웬둥이’, ‘웬자치’, ‘웬착둥이’로 나뉜다. 이 방언형은 ‘원쪽’을 뜻하는 {웬-}에 접미사 {-쟁이, -광이, -쟁이, -둥이, -자치}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형들이다. ‘웬쟁이’계열은 산북(山北)의

모든 지역과 산남(山南) 동쪽 끝인 성산(城山)에 분포한다. ‘웬쟁이’는 서귀(西歸)를 비롯한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에, ‘웬자치’는 서남 지역인 중문(中文)과 안덕(安德)에 나타난다. ‘웬둥이’는 대정(大靜)과 가파도(加波島)에 나타나고,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웬착둥이’도 조사되었다.

④ **줍제기**(언어지도 070)

‘줍제기’<sup>69)</sup>는 ‘꼬집기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방언형은 ‘줍제기, 접제기, 국제베기’로 나타난다.

- ㉠줍제기
- ㉡접제기
- ㉢국제베기

이 방언형은 ‘줍제기’와 ‘·>ㅈ’의 음운 변화 과정을 거친 ‘접제기’로 나뉜다. ‘줍제기’는 동서부 지역에 분포하고, ‘접제기’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그 남쪽에 이웃한 서귀(西歸)와 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어원을 달리하는 ‘국제베기’는 표선(表善)에 나타나며, 중앙에 분포하는 ‘접제기’가 성산(城山)에 나타나기도 한다.

⑤ **코맹맹이**(언어지도 071)

‘코맹맹이’는 ‘코가 막혀서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코맹맹이’의 방언형은 ‘코마구리, 코막쟁이, 코막쟁이, 코막은쟁이, 코막사니, 코막세기, 코막쉬, 코맹쟁이, 코메기’로 나타난다.

- ㉠코마구리
- ㉡코막쟁이
- ㉢코막쟁이
- ㉣코막은쟁이
- ㉤코막사니
- ㉥코막세기
- ㉦코막쉬
- ㉧코맹쟁이
- ㉨코메기

69) ‘줍제기’에 대응하는 표준어가 없어서 ‘줍제기’를 대표 어형으로 삼아 논의한다.



이 방언형들은 ‘코마구리’와 ‘코막쟁이’계열(코막쟁이, 코막쟁이, 코막은쟁이), ‘코막사니’계열(코막사니, 코막세기, 코막쉬)로 나뉜다. ‘코마구리’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조천(朝天)과 우도(牛島)에 분포하며, ‘코막쟁이’계열은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중문(中文)·서귀(西歸)에 분포한다. 한편 ‘코막사니’계열은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과 성산(城山)에 분포한다. 이 방언형들은 {코막+-우리(어리), -쟁이, -쟁이, -은쟁이, -사니, -세기, -쉬} 구성으로, ‘-우리(어리), -쟁이, -쟁이, -은쟁이, -사니, -세기, -쉬’는 ‘귀머거리’, ‘병어리’의 ‘-어리’처럼 ‘그런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는 특이어형인 ‘코멩쟁이’,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코메기’가 조사되었는데, 이들 어형은 이번에 처음 조사된 어휘다.

⑥코흘리개(언어지도 072)

‘코흘리개’의 방언형은 ‘코흘체기, 코흘찌기, 코흘레기, 코풀레기, 코필레기, 코플레’로 나타난다.

- ㉠코흘체기
- ㉡코흘찌기
- ㉢코흘레기
- ㉣코풀레기
- ㉤코필레기
- ㉥코플레

이 방언형들은 ‘코흘체기’계열(코흘체기, 코흘찌기, 코흘레기)과 ‘코풀레기’(계열코풀레기, 코필레기, 코플레)로 나뉜다. ‘코흘체기’계열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과 서북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에 분포한다. 어원을 달리하는 ‘코풀레기’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애월(涯月)과 서귀(西歸), 그리고 서남 지역인 중문(中文)·안덕(安德)·대정(大靜)에 분포한다. 비양도(飛揚島)에서는 ‘코플레’가 조사되었다. ‘코흘체기, 코흘찌기’는 {코흘치(찌)+아기}, ‘코흘레기’는 {코흘리+아기}, ‘코풀레기’는 {코풀(필)르+에기} 구성으로, ‘코흘치-’는 ‘코흘리-’의 의미이고, ‘코풀(르)-’는 ‘코풀다’의 어간, 또는 ‘코흘쩍-’의 의미로 보인다. ‘-아기/-에기’는 ‘그런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였다. ‘흘치다’는 표준어 ‘흘리다’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코흘레기는 부자된다.”(朝天)는 속설도 전한다.

9) 질병 관련 어휘

①땀띠(언어지도 073)

‘땀띠’의 방언형은 ‘땀뚜두레기, 땀뚜기, 땀뚜데기, 땀떼기, 땀띠, 땀띠기’로 나타난다.

- ㉠땀뚜두레기
- ㉡땀뚜기
- ㉢땀뚜데기
- ㉣땀떼기
- ㉤땀띠
- ㉥땀띠기

이 방언형들은 ‘땀뚜두레기’계열(땀뚜두레기, 땀뚜기, 땀뚜데기)과 ‘땀떼기’와 개신형인 ‘땀띠’계열(땀띠, 땀띠기)로 나뉜다. ‘땀뚜두레기’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그 인접 지역인 애월(涯月)과 비양도(飛揚島), 그리고 대정(大靜)·중문(中文)에 나타난다. ‘땀떼기’는 앞에 제시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한다. 개신형인 ‘땀띠’계열은 표선(表善)과 가파도(加波島)에서 조사되었다. ‘땀띠’가 합성어 ‘땀+되야기(두드러기)>땀되>땀띠’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면 ‘땀뚜기’와 ‘땀떼기’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방언형임을 알 수 있다.

문헌어로는 ‘땀도야기’(『사성통해』(上 17), ‘땀되야기’(『훈몽자회』(中 33), ‘땀도역이, 땀도약기’(언해두창집요(上 15), ‘땀또야기’(『역어유해』(上 62), ‘땀되’(『동문유해』(下 8), ‘땀도약이’(『물보』)가 보인다.

②흉역(언어지도 074)

‘흉역’의 방언형은 ‘마누라, 한집, 구슬, 구실, 제구실, 역시, 소님, 향긋’으로 나타난다.

- ㉠마누라
- ㉡한집
- ㉢구슬
- ㉣구실
- ㉤제구실
- ㉥역시
- ㉦소님
- ㉧향긋

이 방언형들은 ‘마누라’와 ‘한집’으로 대별된다. ‘마누라’는 대체적으로 산북(山北) 지역에 분포하며, ‘한집’은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한다. 산북 지역의 맨 서쪽인 한경(翰京)에서는 ‘구실’, 비양도(飛揚島)에서는 ‘구슬’, 구좌(舊左)에서는 ‘제구실’이 나타난다. 인근 성산(城山)에서는 ‘한집’과 함께 ‘구실’도 조사되었다. 제주시(濟州市)에서는 ‘마누라’와 함께 ‘소님’이 나타난다. 한편 도서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어원을 달리하는 ‘항긋’이 조사되었다.

‘홍역’의 방언형인 ‘마누라’, ‘한집’, ‘구실’, ‘소님’, ‘항긋’은 모두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어휘들이다. ‘한집’은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수호신.’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구실’은 ‘벼슬’의 의미이고, ‘소님’은 어려운 사람을 나타낸다. 또 ‘항긋’은 ‘항것’의 변이형으로, ‘항것’은 ‘주인, 상전, 가장’을 의미하는 문헌어다. 그러고보면, 언중들은 “홍역은 평생에 안 걸리면 무덤에서라도 앓는다.”는 속설에서 보듯이 “홍역은 누구나 한 번은 치러야 하는 병으로서 홍역을 아주 무섭게 인식하여, 병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신’이나 ‘소님’, ‘상전’ 등에 비유해서 조심스럽게 불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방언형에는 ‘큰’ 또는 ‘죽은’이 연결되는데, ‘큰’이 붙은 것은 ‘마마’를 일컫는 말이고, ‘죽은’이 붙은 것은 ‘홍역’을 말하는 것이다.

### ③ 부스럼(언어지도 075)

‘부스럼’의 방언형은 ‘부스럼, 부스럼지, 부스레미, 부시럼, 부으레미’로 나타난다.

- ㉠ 부스럼
- ㉡ 부스럼지
- ㉢ 부스레미
- ㉣ 부시럼
- ㉤ 부으레미

이 ‘부스럼’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남원(南元)에 분포하며, ‘부스럼지’는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서부 지역에 분포하는 ‘부스럼지’가 표선(表善)에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는 ‘부으레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부스레미’가 나타난다. ‘부스럼>부시럼’은 ‘一’가 ‘丨’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부스럼’의 문헌어로는, 『원각경언해』(上二之一 51)와 『금강경삼가해』(5:31), 『훈몽자회』(33, 34) 등에 ‘부스럼’이 보이고, 『속삼강행실도』(효 5)에 ‘부스럼’과 ‘부스름’이 혼효되어 나타난다. ≪귀감언해≫(下 55)에는 ‘부스름’이, 『마경언해』(下

106)에는 ‘브으름’, 『역어유해』(上 61)에는 ‘브으름’이 보여 제주도방언에 문헌어가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여 준다.

④ 비루(언어지도 076)

‘비루’는 ‘개나 말 따위의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병.’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대한 방언형은 ‘도롱이, 도롱이, 도렁이’로 나타난다.

- ㉠도롱이
- ㉡도롱이
- ㉢도렁이

‘도롱이’계열(도롱이, 도롱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분포하며, ‘도렁이’는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이 방언은 ‘비루’가 ‘떡다’와 연어 관계를 이루어 ‘비루떡다’가 되는 것처럼, ‘-울르다’와 연어 관계를 이룬다. 즉 ‘도롱이울르다, 도렁이울르다’처럼 쓰인다. 또 ‘도롱이 일다’라고도 표현한다. ‘도롱이, 도렁이’는 바다 상어의 일종인 ‘웁이상어’(도롱이, 도렁이)가 뜨거운 물에 닿으면 껍데기가 흘러당 벗겨지는 것처럼, ‘비루’의 증상이 털이 문둥 빠지기 때문에 ‘도롱이’에 비유한 것이 재미있다.(南元) 그런가하면 “강아지가 조명석<sup>70)</sup>에 올라 동으리든 도롱이 울른다.”<sup>71)</sup>는 인식 아래, 강아지가 조를 낀 명석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였다.

⑤ 재채기(언어지도 077)

‘재채기’의 방언형은 ‘햇쟁이’와 ‘헛쟁이’, ‘할쟁이’로 나타난다.

- ㉠햇쟁이
- ㉡헛쟁이
- ㉢할쟁이

‘햇쟁이’는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과 서귀(西歸)에 분포하며, ‘헛쟁이’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나타난다.

70) ‘조명석’은 ‘조를 낀 명석’이라는 의미다.

71) 김성욱 구술.

구좌(舊左)에서는 서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헛쟁이’와 어형을 달리하는 ‘할쟁이’가 조사되었다. 방언형 ‘헛쟁이’와 ‘할쟁이’는 모음 ‘ㅏ’와 ‘ㅑ’의 교체에 따라 등어선을 형성하는 경우다.

⑥주근깨(언어지도 078)

‘주근깨’는 ‘얼굴의 군데군데에 생기는 잘고 검은 점.’을 말한다. 이 방언형은 ‘프리똥, 프리침, 프리짬, 프리춤, 죽은깨’로 나타난다.

- ㉠프리똥
- ㉡프리침
- ㉢프리짬
- ㉣프리춤
- ㉤죽은깨

이 방언형은 ‘프리똥’, ‘프리침’계열(프리침, 프리짬, 프리춤), ‘죽은깨’로 구분된다. {프리+똥} 구성의 ‘프리똥’은 파리가 똥을 싸놓은 모양에 기인한 이름으로,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에 분포하며, ‘프리침’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경(翰京)에 분포한다. ‘프리침, 프리춤’은 {프리+침(춤)} 구성으로 ‘죽은깨’를 파리의 침으로 생각해서 명명한 어휘다. 한편 ‘프리짬’은 산남(山南) 지역인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대정(大靜)·중문(中文)·남원(南元)·표선(表善)에 나타난다. 개신형인 ‘죽은깨’는 애월(涯月)에서 조사되었다.

10) 육아 관련 어휘

①깃저고리(언어지도 079)

‘깃저고리’는 ‘갓난아이에게 입히는, 깃을 달지 아니한 저고리.’를 말한다. ‘깃저고리’의 방언형은 ‘봣디창옷, 봣디저고리, 봣디적삼, 봣데창옷, 봣뎃옷, 뱃넛저고리, 야기베옷, 야기적삼, 베적삼’으로 나타난다.

- ㉠봣디창옷
- ㉡봣디저고리
- ㉢봣디적삼
- ㉣봣데창옷
- ㉤봣뎃옷

- ㉠뱃넛저고리
- ㉡아기베옷
- ㉢아기적삼
- ㉣베적삼



<사진 14> 깃저고리

이 방언형들은 ‘봣뉘창웃’계열(봣뉘창웃, 봣뉘저고리, 봣뉘적삼)과 ‘봣뉘창웃’계열(봣뉘창웃, 봣뉘적삼), 그리고 기타계열(뱃넛저고리, 아기베옷, 아기적삼, 베적삼)로 나뉜다. ‘봣뉘창웃’계열은 산북 지역의 구좌(舊左)를 제외한 전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봣뉘저고리’는 구좌(舊左)와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 분포한다. ‘봣뉘적삼’계열은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에 분포한다. 어형을 달리하는 ‘뱃넛저고리’는 애월(涯月)과 한경(翰京)에서 조사되었고, ‘아기베옷’과 ‘아기적삼’은 비양도(飛揚島), ‘베적삼’은 가파도(加波島)에 분포한다.

‘봣뉘창웃’은 ‘봣+-뉘+창웃’ 구성으로, ‘봣’은 ‘태(胎)’, ‘-뉘’는 처소격조사, ‘창웃’은 소창웃을 말한다. ‘봣뉘창웃’은 즉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입히는 소창웃’, ‘봣뉘저고리’는 {봣+-뉘+저고리} 구성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입는 저고리’를 말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봣뉘창웃’은 ‘봣뉘저고리’보다는 길이가 긴 옷이다. 어형을 달리하는 ‘뱃넛저고리’는 {뱃+넛+저고리}로 ‘배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입히는 저고리’라는 의미이고, ‘아기베옷’과 ‘아기적삼’은 ‘아기에게 입히는 베옷, 또는 저고리’, ‘베적삼’은 ‘베로 만든 적삼’을 말한다. 즉 ‘깃저고리’는 삼베로 만들어 입히는 옷으로, 저고리처럼 길이를 짧게 하기도 하고, 소창웃처럼 길이를 길게 해서 입히기도 한다. ‘봣뉘창웃을 입혀야 아기가 등이 가렵지 않는다.’는 속설이 전한다.

## ②섬마(언어지도 080)

이 ‘섬마’는 ‘어린아이가 따로 서는 법을 익힐 때, 어른이 붙들었던 손을 떼면서 내는 소리.’를 말한다. 방언형으로는 ‘섬마, 섬메, 섬베, 선메, 선달, 선데’로 나타난다.

- ㉠섬마
- ㉡섬메
- ㉢섬베
- ㉣선메
- ㉤선달
- ㉥선데



이 방언형들은 ‘섬마’계열(섬마, 섬메, 선메, 섬베)과 ‘선달’계열(선달, 선테)로 나뉜다. ‘섬마’계열은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를 제외한 산북(山北) 지역에 분포하며, ‘선메’계열은 우도(牛島)를 포함하여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한다. 애월(涯月)에서는 산남(山南)에 분포하는 ‘선테’가 나타난다. 특히 방언형 ‘섬베’는 안덕(安德)에서 나타난다. 이들 방언형은 ‘섬마섬마’, ‘섬메섬메’, ‘섬베섬베’, ‘선메선메’, ‘선달선달’, ‘선테선테’처럼 첩어 형태로 나타난다.

③ 트림(언어지도 081)

‘트림’의 방언형은 ‘게트레기, 게틀레기, 게트름, 게트림, 게트러미, 제트름, 트러미’로 나타난다.

- ㉠ 게트레기
- ㉡ 게틀레기
- ㉢ 게트름
- ㉣ 게트림
- ㉤ 게트러미
- ㉥ 제트름
- ㉦ 트러미

이 방언형들은 ‘게트레기’계열(게트레기, 게틀레기)과 ‘게트름’계열(게트름, 게트림, 게트러미, 제트름)로 나뉜다. ‘게트레기’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한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에 분포하며, ‘게트름’계열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게트름’에서 구개음화한 ‘제트름’은 가파도(加波島)에서 나타난다. 개신형인 ‘트러미’는 한경(翰京)에서 조사되었다.

11) 놀이 관련 어휘

① 그네(언어지도 082)

‘그네’의 방언형은 ‘굴메, 줄레, 주천, 굽메, 그네’로 나타난다.

- ㉠ 굴메
- ㉡ 줄레
- ㉢ 주천
- ㉣ 굽메

㉞그네

‘굴메’는 산남(山南) 지역인 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중문(中文)·대정(大靜)과 동북 지역인 구좌(舊左)에 분포하며, 한자어 추천(鞦韆)에서 유래하는 ‘주천’은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에 분포한다. ‘줄레’는 제주시(濟州市)에서 나타나며, ‘굴베’는 조천(朝天)에서 조사되었다. 개신형인 ‘그네’는 서남 지역의 안덕(安德)과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 조사되었다.

“그네’의 고행은 ‘글위’로서 “글위 추 鞦, 訓蒙字會 中 10), ‘글위 뜨긴 習俗’(鞦韆習俗, 朴通事諺解 11:15), ‘紅글위 띠요이다’(樂章) 등이 있으며, ‘그네’는 『漢清文鑑』(261)에 보이며, ‘그네뛰기’(物譜)로도 나타난다.”<sup>72)</sup>

②숨바꼭질(언어지도 083)

‘숨바꼭질’의 방언형은 ‘곱음제기<sup>73)</sup>, 곱음제끼, 곱을내기, 곱을락’으로 나타난다.

- ㉠곱음제기
- ㉡곱음제끼
- ㉢곱을내기
- ㉣곱을락

‘곱음제기’계열(곱음제기, 곱음제끼)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과 비양도(飛揚島)에 분포하며, ‘곱을내기’는 한경(翰京)을 비롯하여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과 동부 지역 8트머리인 우도(牛島)와 성산(城山)에 분포한다. ‘곱을락’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와 동남 지역인 서귀(西歸)·남원(南元)·표선(表善)에 분포한다.

‘곱음제기(제끼), 곱을내기, 곱을락’은 {곱음+제기(제끼), 곱을+내기, 곱을+락} 구성으로, ‘-제기, -내기, -락’은 놀이를 나타내는 어휘 뒤에 붙는 접미사다. ‘달음제기’(달리기)의 ‘-제기’, ‘방칠내기(사방치기)’의 ‘-내기’, ‘공칠락’(공놀이)의 ‘-락’ 등에서 이런 접미사를 확인할 수 있다. ‘곱다’는 ‘숨다’의 뜻을 지닌 제주도방언으로, ‘곱음제기’는 즉 ‘숨은 사람을 찾아 내는 아이들의 놀이.’를 일컫는다.

③양감질(언어지도 084)

‘양감질’은 ‘한 발은 들고 한 발로만 뛰는 행동.’을 말하는데, 방언형은 ‘청게, 청

72) 이익섭 외, 앞의 책, 191쪽.

73) 현평호의 자료집에는 ‘고봄제기’로 되어 있으나 ‘곱다’에서 온 어휘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곱음제기’, ‘곱음제끼’ 등으로 표기한다.

에, 정계, 정계고개, 정기'로 나타난다.

- ㉠청계
- ㉡청에
- ㉢정계
- ㉣정계고개
- ㉤정기

이 방언형들은 '청계'계열(청계, 청에)과 '정계'계열(정계, 정계고개, 정기)로 구분된다. '청계'계열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과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비양도(飛揚島)·가파도(加波島)에 분포하며, '정계'계열은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분포한다. 양감질하는 것을 제주에서는 '청에죽다, 청계죽다, 정계고개죽다'로 표현하고, 양감질하는 놀이를 '정계죽을락'(朝天)이라고 말한다.

④연싸움(언어지도 085)

'연싸움'의 방언형은 '연타발, 연싸움, 굴리싸움'으로 나타난다.

- ㉠연타발
- ㉡연싸움
- ㉢굴리싸움

'연타발'은 꽤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곧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남원(南元)·표선(表善)에 분포한다. 개신형인 '연싸움'은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와 성산(城山)에 나타난다. 한편 어원이 다른 '굴리싸움'은 조천(朝天)에 분포한다. '굴리싸움'의 '굴리'는 '연줄을 질기고 세게 만들기 위하여 연줄에 먹이는 물질'인 '개미'를 말한다. '연타발'은 "연싸움을 하다가 '연술'(연줄)끼리 얽어지는 것"(翰林), "연을 띄우다가 나뭇가지 등에 연줄이 걸린 것을 두고 하는 말"(大靜)이다. '연싸움'을 달리 '연걸릴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연날리기'를 '연 올린다', '연싸움'을 '연타발 부찌다'라고 말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보리밧기'를 위해서도 연을 많이 띄웠다.

⑤들돌(언어지도 086)

'들돌'<sup>74)</sup>은 '힘자랑을 하기 위하여 마을 어귀에 있는, 미끄럽고 무거운 둥그스레

한 돌.’을 말한다. 방언형은 ‘등돌, 똥돌, 드름돌, 듬돌, 먹돌’로 나타난다.

- ㉠ 등돌
- ㉡ 똥돌
- ㉢ 드름돌
- ㉣ 듬돌
- ㉤ 먹돌



<사진 15> 들돌

이 방언형은 ‘등돌’계열(등돌, 똥돌)과 ‘드름돌’·‘듬돌’ 그리고 어원을 달리하는 ‘먹돌’로 나뉜다. ‘등돌’계열은 ‘등돌’[등똥]과 ‘등똥’[똥똥]로 나뉘는데, ‘등돌’은 애월(涯月)·한림(翰林)·대정(大靜)에 나타나고, ‘똥돌’[똥똥]은 제주시(濟州市)·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들+음+돌} 구성의 ‘드름돌’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서귀(西歸)에 분포하고, {듬+돌} 구성의 ‘듬돌’은 가파도(加波島)에서 조사되었다. 조천(朝天)과 남원(南元)은 ‘드름돌’ 지역이지만 ‘등돌’도 나타난다.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는 어원을 달리하는 ‘먹돌’이 조사되었는데, ‘들돌’이 ‘단단한 먹돌<sup>75)</sup>’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12) 자연 관련 어휘

### ㉠ 안개(언어도 087)

‘안개’의 방언형은 ‘으납, 으남, 의납, 이남, 어남, 안개’로 나타난다.

- ㉠ 으납
- ㉡ 으남
- ㉢ 의납
- ㉣ 이남
- ㉤ 어남
- ㉥ 안개

이 방언형들은 ‘으납’과 ‘으남’계열(으납, 의납, 이남, 어남), ‘안개’ 셋으로 나뉜다.

74) 『표준 국어 대사전』의 ‘들돌’은 몸의 단련을 위하여 들었다 놓았다 하는, 돌이나 쇠로 만든 운동 기구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들돌’은 사전의 의미와는 달리, ‘힘자랑’할 때 사용하는 둥그스레한 돌을 가리킨다.

75) ‘먹돌’은 ‘바닷가 근처 등 물이 있는 곳에 있는 돌로, 거무스레하면서도 단단한 돌’을 가리키는 제주도방언이다.

‘으남’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에 분포하며, 그 나머지 지역은 ‘으남’계열이 분포한다. 애월(涯月)에서는 ‘으남’과 함께 ‘어남’이 분포하고, 한림(翰林)에서는 ‘의남’과 ‘이남’이 혼효 양상을 보인다. 개신형인 ‘안개’는 애월(涯月)·한경(翰京)·표선(表善)·남원(南元)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② 무지개(언어지도 088)

‘무지개’의 방언형은 ‘상고지, 향고지, 향구지, 황고지, 황구지’로 나타난다.

- ㉠ 상고지
- ㉡ 향고지
- ㉢ 향구지
- ㉣ 황고지
- ㉤ 황구지

이 방언형들은 ‘상고지’와 ‘향고지’계열(향고지, 향구지, 황고지, 황구지)로 나뉜다. ‘상고지’는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동북 지역인 구좌(舊左)에 분포한다. ‘향고지’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조천(朝天)과 산남(山南)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에 분포한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향고지’와 ‘상고지’가 혼효되어 나타난다. 산북 지역에 위치한 비양도(飛揚島)는 ‘상고지’, 산남 지역에 위치한 가파도(加波島)에서는 ‘황고지’가 분포한다.

③ 짜라기눈(언어지도 089)

‘짜라기눈’은 ‘빗방울이 갑자기 찬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을 말한다. ‘짜라기눈’의 방언형은 ‘스레기눈, 쫄레기눈, 슨락눈, 쫄락눈, 사락눈, 짜락눈’으로 나타난다.

- ㉠ 슨레기눈
- ㉡ 쫄레기눈
- ㉢ 슨락눈
- ㉣ 쫄락눈
- ㉤ 사락눈
- ㉥ 짜락눈

이 방언형들은 ‘스레기눈’계열(스레기눈, 쫄레기눈)과 ‘스낙눈’계열(스낙눈, 쫄락눈), ‘사락눈’계열(사락눈, 짜락눈)로 나뉜다. ‘스레기눈’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구좌(舊左), 산남(山南) 지역인 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중문(中文)·안덕(安德)·대정(大靜)에 분포한다. ‘스락눈’계열은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에 분포한다. 개신형인 ‘사락눈’은 비양도(飛揚島)에서 조사되었고, ‘짜락눈’은 조천(朝天)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스레기눈, 쓰레기눈’은 {술+아기+눈, 쓸+아기+눈}, ‘스락눈, 쓰락눈’은 {쓸+악+눈, 쓸+악+눈}, ‘사락눈, 짜락눈’은 {살+악+눈, 짤+악+눈} 구성으로, ‘스레기’는 ‘스라기’와 함께 ‘부스러진 쌀알’을 의미하는 싸라기를 말한다. 이 방언형들은 모두 눈 모양이 부서진 쌀알같이 내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④ 회오리바람(언어지도 090)

‘회오리바람’의 방언형은 ‘돛궁이, 돛공이, 돛쟁이, 돛공이주제, 돛쟁이주제, 돛쟁이주제, 돛쟁이벼름’으로 나타난다.

- ㉠ 돛궁이
- ㉡ 돛공이
- ㉢ 돛쟁이
- ㉣ 돛공이주제
- ㉤ 돛쟁이주제
- ㉥ 돛쟁이주제
- ㉦ 돛쟁이벼름

이 방언형들은 ‘돛궁이’계열(돛궁이, 돛공이, 돛쟁이)과 ‘돛공이주제’계열(돛공이주제, 돛쟁이주제, 돛쟁이주제)로 나뉜다. ‘돛궁이’계열은 우도(牛島)를 제외한 산북(山北) 전 지역에 분포하며, {돛공이+주제} 구성의 ‘돛공이주제’계열은 우도(牛島)를 비롯하여 산남(山南) 전 지역에 분포한다.

‘돛공이, 돛쟁이’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주제’는 ‘비나 바람이 지나가는 횃수를 세는 단위’를 말한다. 즉 비가 잠깐 내렸다 그친 것을 두고 ‘비 흔 주제 헛저’, 바람이 한바탕 불고 지나가면 ‘벼름 흔 주제 헛저’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돛쟁이주제’는 회오리바람이 한바탕 불고 갔기에 붙여진 이름인 셈이다.<sup>76)</sup>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회오리바람을 ‘돛공이주제’라고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을 두고는 ‘ㅎ>ㅅ’으로 구개음화한 ‘세오리벼름’이라고 구분한다.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와 가파도(加波島)에서는 ‘돛쟁이벼름’이 조사되었다.

76) “돛공이주제는 비 오면 회오리벼름 부는 거. 비 오는 것ㄷ라 주제에 허는 거주제.”(김봉효·제주시 한림읍 한림2리, 2010. 7. 16.)라는 구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돛공이’와 ‘돛공이주제’를 구분한다는 점이다. 구술자는 ‘돛공이주제’는 비를 동반한 회오리바람으로, ‘주제’는 비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⑤(물)거품(언어지도 091)

‘(물)거품’의 방언형은 ‘부글레기, 부끌레기, 푸글레기, 푸끌레기, 버글레기, 버끌레기, 뺨글레기, 함블레기, 붕글레기, 물푸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물)거품’은 비가 올 때 물위에 동동 뜨는 거품의 모양을 물어본 것이다.

- ㉠부글레기
- ㉡부끌레기
- ㉢푸글레기
- ㉣푸끌레기
- ㉤버글레기
- ㉥버끌레기
- ㉦뺨글레기
- ㉧함블레기
- ㉨붕글레기
- ㉩물푸케

이 방언형들은 ‘부글레기’계열(부글레기, 부끌레기), ‘푸글레기’계열(푸글레기, 푸끌레기), ‘버글레기’계열(버글레기, 버끌레기, 뺨글레기), 그리고 ‘함블레기’·‘붕글레기’·‘물푸케’로 나뉜다. 이 방언형들은 {부글(부끌)+레기, 푸글(푸끌)+레기, 버글(버끌(뺨글)+레기, 붕글+레기} 구성으로 ‘부글, 푸글, 버끌, 붕글’ 등은 물거품이 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며, ‘함블레기’의 ‘함’은 ‘한[大]-’에서 온 말로, 거품 모양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푸케’는 {물+푸케} 구성으로, 물거품 모양이 ‘푸케’ 즉 짜리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부글레기’계열과 ‘푸글레기’계열은 산북(山北)과 산남(山南) 서쪽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하고, ‘버글레기’계열은 정의(旌義)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과 산북 지역의 조천(朝天)에 분포한다. 이 방언형들은 ‘물거품’처럼 앞에 ‘물-’이 붙어 ‘물부글레기, 물버글레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시(濟州市)와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부끌레기’가, 제주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에서는 ‘뺨글레기’가 조사되었다. 한편 어원을 달리하는 ‘함블레기’는 서귀(西歸)와 중문(中文)·표선(表善)에 분포한다. 중문(中文)에서는 ‘부글레기’와 함께 ‘붕글레기’·‘물푸케’도 혼용되어 나타난다.<sup>77)</sup>

77) ‘물거품’에 대한 방언형으로는 언중들은 비올 때 이는 ‘물거품’은 모양에 따라 ‘물푸케’(翰林), ‘왕부글레기’(大靜), ‘숫부글레기’(安德)라고 거품 모양을 ‘푸케’(짜리)·‘숫’(술)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다. 또 거품이 이는 모양을 보고는 ‘중트다’(滙月, 翰林, 翰京, 中文, 細花), ‘장수 트다’(細花), ‘숫덕 앓앗지’(滙月)라고 표현한다. ‘작은섬’인 비양도(飛揚島)에서는 ‘땅바닥 갈라졌지’라고 말하고, 물거품이 크게 이는 것을 보고 제주 사람들은 ‘숫부글레기 일언 비 크게 오켜.’, “중트멍 비오는 것보난 큰 비 오켜.”라고 인식한다.

⑥ 돌생기(언어지도 092)

‘돌생기’<sup>78)</sup>는 ‘돌멩이보다 작은 돌로 손 안에 들만한 크기의 돌’을 가리킨다. 이 방언형은 ‘돌생기, 돌생이, 돌새기’로 나타나는데, {돌+-생기, -생이, -새기} 구성이다. 여기에서 ‘-생기, -생이, -새기’는 작다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 ㉠ 돌생기
- ㉡ 돌생이
- ㉢ 돌새기

‘돌생기’는 동남 지역인 표선(表善)과 성산(城山)에 분포하며, ‘돌생기>돌새기’로 ‘ㅇ’이 탈락한 ‘돌새기’는 중심부인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 서쪽 전 지역과 구좌(舊左)에 넓게 분포한다. ‘돌생기’에서 말음 ‘ㄱ’이 탈락한 ‘돌생이’ 어형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우도(牛島)와 남원(南元)에 분포한다. 언중들은 ‘돌생기’는 “주먹 안에 드는 크기의 돌”<sup>79)</sup>로 인식하고 있다. 크기에 따라 ‘왕돌-돌멩이-돌생기’<sup>80)</sup>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⑦ 찰흙(언어지도 093)

‘찰흙’의 방언형은 ‘촌흙, 촌흑, 촌혁, 촌학, 촌역, 촌낙’으로 나타난다.

- ㉠ 촌흙
- ㉡ 촌흑
- ㉢ 촌혁
- ㉣ 촌학
- ㉤ 촌역
- ㉥ 촌낙

‘촌흑’은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과 서남 지역인 안덕(安德)·대정(大靜)에 분포하고, ‘촌흑’은 산북(山北) 지역과 서귀(西歸)에서 나타난다. 한편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는 ‘촌혁’,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촌학’이 조사되었다. 조천(朝天)에서는 ‘촌흑’이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롭게 ‘촌낙’이 한경(翰京)에서 조사되었으며, ‘촌혁’(飛揚島)과 ‘촌학’(加波島)도 혼효 양상을 보인다. 구좌(舊左)에 분포한다는 ‘촌역’이 도서 지

78) ‘돌생기’에 대응하는 표준어가 없어서 ‘돌생기’를 표제어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79) 한희규((1935년생·남·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구술(2010. 7. 8.).

80) 오국현(1935년생·남·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구술(2010. 6. 23.).

역인 우도(牛島)에서 조사되어 ‘촌역’이 동북 지역에 분포하는 방언형임을 알 수 있다.

⑧저녁(언어지도 094)

‘저녁’은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 또는 저녁밥.’을 말한다. ‘저녁’의 방언형은 ‘즈녁, 즈낙, 저녁, 저낙’으로 나타난다.

- ㉠즈녁
- ㉡즈낙
- ㉢저녁
- ㉣저낙

이 방언형은 ‘즈녁’계열(즈녁, 즈낙)과 ‘저녁’계열(저녁, 저낙)로 나뉘는데, ‘· > ㅏ’의 변화 과정이 들어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즈녁’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에 속하는 대정(大靜)과 가파도(加波島)에 분포한다. 한편 ‘저낙’계열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와 산남(山南) 지역에서 대정(大靜)을 제외한 전 지역에 나타난다. ‘즈녁’계열이 나타나는 서북 지역의 도서 지역 비양도(飛揚島)에서는 ‘저녁’이 나타난다. 『산성일기』(81)의 “저녁의 다시 나가”, 『벽은신방』(17)의 “서로 읊디 아니흐느니 아츰 저녁으로 보르라”, 『동문유해』(上 5)의 “저녁: 晚上”에서처럼 문헌어에는 ‘저녁’이 나타난다.

13) 동물 관련 어휘

①개구리(언어지도 095)

‘개구리’의 방언형은 ‘굴개비, ㄴ개비, 개개비, 가가비, 가개비’로 나타난다.

- ㉠굴개비
- ㉡ㄴ개비
- ㉢개개비
- ㉣가가비
- ㉤가개비

이 방언형들은 ‘굴개비’계열(굴개비, ㄴ개비)과 ‘개개비’계열(개개비, 가가비, 가개비)로 나뉜다. ‘굴개비’형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에서 나타난다. 또한 한경(翰京)

에서는 ‘르’이 탈락한 ‘ㄹ개비’형이 나타나며, 한림(翰林)에서는 ‘글개비’와 함께 ‘가가비’가 혼효 양상을 보인다. ‘개개비’계열은 산남(山南) 지역의 대정(大靜)을 제외한 전 지역과 동북 지역의 구좌(舊左)에 분포한다. 조천(朝天)에서는 ‘개개비’와 제주 서북 지역에 나타나는 ‘글개비’가 함께 나타난다.

② 울챙이(언어지도 096)

‘울챙이’의 방언형은 ‘멘주기, 멘주에기, 강베룩, 쟁베룩, 쟁베리, 쟁베림, 고노리, 울챙이’로 나타난다.

- ㉠멘주기
- ㉡멘주에기
- ㉢강베룩
- ㉣쟁베룩
- ㉤쟁베리
- ㉥쟁베림
- ㉦고노리
- ㉧울챙이

이 방언형들은 ‘멘주기’계열(멘주기, 멘주에기)과 ‘강베룩’계열(강베룩, 쟁베룩, 쟁베리, 쟁베림) 그리고 ‘고노리’로 나뉜다. ‘멘주기’계열의 ‘멘주기’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안덕(安德)·중문(中文)에 나타나고, 대정(大靜)에서는 ‘멘주에기’가 조사되었다. ‘강베룩’계열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분포한다. 조천(朝天)·우도(牛島)에서는 ‘쟁베리’가, 성산(城山)에서는 ‘쟁베룩’, 구좌(舊左)에서는 구개음화 과정을 거친 ‘쟁베림’이 조사되었다. 서귀(西歸)에서 조사된 ‘고노리’는 대개 ‘장구벌레’의 방언형인데, ‘울챙이’의 방언형으로 조사된 것이 특이하다. 가파도(加波島)에서는 개신형인 ‘울챙이’가 조사되었다.<sup>81)</sup>

③ 개똥벌레(언어지도 097)

‘개똥벌레’는 ‘반딧불잇과의 딱정벌레.’를 말한다. 달리 ‘반딧불이’라고도 하는데, 방언형은 ‘불한디, 불란디, 불란지’로 나타난다.

- ㉠불한디

81) 도서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울챙이’를 ‘쟁베리’라고 부르는 반면 자라서 ‘말이 달린 울챙이’는 ‘개굴래비’라 하여 이름을 구분하여 불렀다. ‘개구리’는 ‘개개비’라고 하였다. 채성기(1928년생·남·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구술(2010. 7. 17.).

- ㉠ 불란디
- ㉡ 불란지

이 방언형들은 ‘불한디’와 ‘불란디’계열(불란디, 불란지)로 나뉜다. ‘불란디’계열은 또 ‘불란디’와 ‘불란지’로 나뉜다. ‘불한디’는 제주시(濟州市)와 제주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과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과 성산(城山), 서귀(西歸) 지역에 넓게 나타나고, ‘불란디’는 산남(山南) 지역인 안덕(安德)·중문(中文)·남원(南元)에 나타난다. 구개음화 과정을 거친 ‘불란지’는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우도(牛島)·표선(表善)에 분포한다.

④ 귀뚜라미(언어지도 098)

‘귀뚜라미’의 방언형은 ‘공중이, 공쟁이, 똥복자기, 귀뚜라미’로 나타난다.

- ㉠ 공중이
- ㉡ 공쟁이
- ㉢ 똥복자기
- ㉣ 귀뚜라미

이 방언형들은 ‘공중이’와 ‘공쟁이’로 대별된다. ‘공중이’는 ‘공쟁이’가 나타나는 서귀(西歸)와 남원(南元)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한다. ‘똥복자기’는 ‘공중이’와 함께 표선(表善)에서 조사되었다. 성산(城山)에서는 개신형인 ‘귀뚜라미’가 출현한다.

⑤ 잠자리(언어지도 099)

‘잠자리’<sup>82)</sup>의 방언형은 ‘밥주리, 밥주어리, 밤부리, 존자리, 물자리, 잘, 산태, 왕놈’으로 나타난다.

- ㉠ 밥주리
- ㉡ 밥주어리
- ㉢ 밤부리
- ㉣ 존자리
- ㉤ 물자리

82) 현용준의 「濟州方言의 「잠자리(蜻蛉)」 이름 考」에서 ‘잠자리 이름’이 상세하게 고찰된 바 있다. 현용준은 이 논문에서 잠자리의 총칭으로 14개의 어형을 조사하고, 잠자리 이름을 ‘별’계(밤부리, 밤부리, 한단부리), ‘주월’(등에)계(밥주리, 밥우어리 밥주얼), ‘매미’계(잘)(잘, 물자리, 물젤, 웅잘, 용잘), 기타계(망이, 산태, 왕놈)로 나눠 분류한 후 ‘잠자리 이름’의 분포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등어선이 그어지고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현용준의 등어선과 마찬가지로 동서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㉞잘
- ㉟산태
- ㊱왕놈

이 방언형들은 현용준의 분리법에 따라 ‘주리’계열(밥주리, 밥주어리)과 ‘부리’(밤부리), ‘자리’계열(즌자리, 물자리, 잘)로 나뉜다. ‘주리’계열의 ‘밥주리’는 제주시(濟州市)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제주 서남 지역인 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에 ‘밥주리’가 분포한다. 애월(涯月)에서는 ‘밥주리’에서 ‘어’가 첨가된 ‘밥주어리’도 나타난다. 어원을 달리하는 ‘밤부리’는 제주시(濟州市)·조천(朝天)·대정(大靜)에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밤부리’는 {밤+부리}로, 여기에서 ‘부리’는 ‘벌’[蜂]에서 파생한 어형이다. ‘밥주리’는 {밥+주리} 구성인데, ‘주리’는 ‘밥+주어리’로 “<밥주어리>의 <-우어-> hiatus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母音이 脫落한 것”<sup>83)</sup>으로, ‘주얼’(등에)에서 파생한 어형이다.

‘자리’계열은 ‘즌자리’, ‘물자리’, ‘잘’ 형태가 나타난다.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는 ‘물자리’가 나타나며, 동북 지역인 구좌(舊左)·우도(牛島)에서는 각각 ‘즌자리’와 ‘잘’이 분포한다. ‘자리’계열은 “매미의 이름과 동일한 기어에다 접두어만을 달리하고 있다.”<sup>84)</sup>

한편 ‘주리’계열의 ‘밥주리’가 조사된 한경(翰京)에서는 어형을 달리하는 ‘산태’와 ‘왕놈’도 조사되었는데, ‘산태’와 ‘왕놈’은 잠자리 가운데 크기가 큰 ‘참잠자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 확인된 ‘즌자리’는 『두시언해』, 『사성통해』, 『훈몽자회』 등에서 확인되는 어형으로, 오늘날 잠자리는 ‘즌자리>잠자리’의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

- 數업슨 존자리는 ㄹ즈기 오르느리거늘(두시언해 7:2)
- 존자리: 蜻蜓(사성통해 下 49)
- 존자리 령: 蛉, 존자리 열: 蜩, 존자리 청: 蜻, 존자리 덩: 蜓(훈몽자회 上 21)

한편 『물보』에선 ‘즌즈리’, 『유씨물명고』에서는 ‘잔즈리’가 나타난다.

#### ⑥매미(언어지도 100)

‘매미’의 방언형은 ‘재열, 자열, 재일, 켈, 재, 자리, 매미’로 나타난다.

83) 위의 논문, 46쪽.

84) 위의 논문, 47쪽. 현용준은 이 논문에서 ‘잠자리’가 ‘매미’와 동종의 어형임을 매미의 어형이 ‘왕잘, 꽃잘’ 등을 예를 들어 밝히고 있다.



- ㉠재열
- ㉡자열
- ㉢재일
- ㉣젤
- ㉤재
- ㉥자리
- ㉦매미

이 방언형들은 ‘재열’계열(재열, 자열, 재일)과 ‘젤’, 그리고 ‘재’와 ‘자리’로 나뉜다. ‘재열’계열은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 그리고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 등 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는 ‘재열’의 변이음인 ‘자열, 재일’이 나타나고,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재열’이 조사되었다. ‘젤’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에 분포하는데, 조천(朝天)에서는 ‘재열’도 혼재되어 나타나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좌(舊左)에서는 ‘젤’이 나타나고, 서귀(西歸)에서는 ‘재열’과 함께 ‘젤’도 혼재되어 나타난다. 동남 끝 지역인 성산(城山)에서는 ‘자리’가, 표선(表善)과 남원(南元)에서는 ‘재’가 조사되었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개신형인 ‘매미’가 조사되었다.

한편 ‘잠자리’ 방언형에 ‘-자리’가 붙은 것과 ‘매미’의 방언형으로 ‘자리’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 언중들은 ‘잠자리’와 ‘매미’를 같은 계열의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⑦ **메뚜기**(언어지도 101)

‘메뚜기’의 방언형은 ‘말축’과 ‘만축’으로 나타난다.

- ㉠말축
- ㉡만축

방언형 ‘말축’은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와 중문(中文)을 비롯하여 동부 지역에 분포하며, ‘만축’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분포한다.

⑧ **장구벌레**(언어지도 102)

‘장구벌레’는 ‘모기의 애벌레.’를 말한다. ‘장구벌레’의 방언형은 ‘장굴레비, 장쿨레비, 고노리, 고누리, 경베리, 물즙썩’으로 나타난다.

- ㉠장굴레비
- ㉡장쿨레비
- ㉢고노리
- ㉣고누리
- ㉤경베리
- ㉥물즙성

이 방언형들은 ‘장굴레비’계열(장굴레비, 장쿨레비)과 ‘고노리’계열(고노리, 고누리)로 나뉜다. ‘장굴레비’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과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하며, ‘고노리’계열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서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에 나타난다. ‘경베리’는 앞에서 살핀 ‘올챙이’의 방언형 ‘정베림’ 또는 ‘쟁베리’의 다른 발음형으로 보인다. 우도(牛島)에서 조사된 ‘물즙성’은 ‘장구벌레’가 물에 사는 곤충이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한편 ‘장쿨레비’는 ‘도마뱀’의 방언형으로도 출현한다.

⑨바구미(언어지도 103)

‘바구미’는 ‘바구밧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쌀·보리 같은 곡류의 알맹이를 파 먹는 해로운 벌레다. ‘바구미’의 방언형은 ‘돛보리, 돛부리, 남쇄, 남쉬, 남송애기’로 나타난다.

- ㉠돛보리
- ㉡돛부리
- ㉢남쇄
- ㉣남쉬
- ㉤남송애기

이 방언형들은 ‘돛보리’계열(돛보리, 돛부리)과 ‘남쇄’계열(남쇄, 남쉬, 남송애기)로 나뉜다. ‘돛보리’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에 분포하며, ‘남쇄’계열은 그 나머지 지역에서 나타난다. ‘남쇄’계열 가운데서 ‘남송애기’는 동남 지역인 표선(表善)·성산(城山)과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 분포하며, ‘남쇄’는 산남(山南) 중심부인 중문(中文)·서귀(西歸)·남원(南元)에 나타난다. ‘남쉬’는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과 안덕(安德),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과 구좌(舊左)에서 조사되었다. ‘돛보리, 돛부리’의 ‘돛-’은 ‘검은’이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인 동시에 ‘바구미’가 ‘돼지’(돛) 모양에서 기인한 이름으로 보인다. ‘보리, 부리’는 ‘보리’(麥)에 연원한 이름으로, ‘바구미’가 습기가 많

은 보리와 보리쌀 따위에 기생하여 사는 곤충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남췌, 남취, 남송애기’의 ‘남’은 한자어 ‘남(藍)’에 연유해 ‘뚝’과 함께 ‘짙은 남색’의 뜻을 지닌 접두사, 또는 곡식벌레를 뜻하는 한자어 ‘남(蝻)’에서 연유한 이름이 아닌가 한다. ‘췌, 취, 송애기’는 ‘바구미’의 모양이 ‘소’와 ‘송아지’의 모양과 비슷하여 붙은 이름이다. ‘췌’는 ‘소’, ‘송애기’는 송아지의 제주도방언이다.

⑩방아깨비(언어지도 104)

‘방아깨비’의 방언형은 ‘심방말축, 심방만축, 산딴말축, 산뒤말축, 상동말축, 소곰바치, 소곰바치’로 나타난다.

- ㉠심방말축
- ㉡심방만축
- ㉢산딴말축
- ㉣산뒤말축
- ㉤상동말축
- ㉥소곰바치
- ㉦소곰바치



<사진 16> 방아깨비

이 방언형들은 ‘심방말축’계열(심방말축, 심방만축), ‘산딴말축’계열(산딴말축, 산뒤말축) 그리고 ‘소곰바치’계열(소곰바치, 소곰바치)로 나뉜다. ‘심방말축’은 제주 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과 동남 지역의 성산(城山)에 분포하며, ‘산딴말축’계열은 서귀(西歸)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인 중문(中文)과 남원(南元)에 분포한다. ‘소곰바치’계열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에 나타나며, 표선(表善)에서는 ‘상동말축’이 조사되었다. ‘심방말축’은 {심방+말축}, ‘산딴말축’은 {산딴+말축}, ‘소곰바치’는 {소곰+바치} 구성으로, ‘심방’<sup>85)</sup>은 ‘방아깨비 날개가 화려하고, 날개를 펼치며 심방처럼 팔짝팔짝 뛰는’ 모양에서 연유한 이름이고, ‘산딴’은 방아깨비가 ‘산딴’ 즉 ‘밭벼’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소곰’은 ‘소곰[鹽]’을 말하고, ‘상동말축’의 ‘상동’은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⑪버마재비(언어지도 105)

‘버마재비’(=사마귀)의 방언형은 ‘궁주베기, 궁쥐에기, 궁췌기, 당의앵이, 당녕이, 득도득놈’으로 나타난다.

85) ‘심방’은 표준어 ‘무당’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 ㉠국주베기
- ㉡국취에기
- ㉢국취기
- ㉣당의앵이
- ㉤당넝이(당헝이)
- ㉥독도독놈



<사진 17> 벼마재비

이 방언형들은 ‘국주베기’계열(국주베기, 국취에기, 국취기)과 ‘당의앵이’계열(당의앵이, 당넝이)로 나뉜다. ‘국주베기’계열은 산북(山北) 전 지역과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나타나며, ‘당의앵이’계열은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분포한다. 제주시(濟州市)와 조천(朝天) 그리고 남원(南元)에서는 두 계열의 방언형이 혼재해 나타나기도 한다. ‘국주베기’계열은 ‘국주다’<sup>86)</sup>의 어간 {국주, 국취}에 접미사 {-베기, -에기}가 합쳐져 만들어진 어휘로 ‘벼마재비’가 앞발로 잘 할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당의앵이’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어원을 달리하는 ‘독도독놈’은 한경(翰京)에서 조사되었는데, ‘벼마재비’가 닭이 좋아하는 곤충이라는데서 연유한 별칭이 아닌가 한다.

⑫취(언어지도 106)

‘취’의 방언형은 ‘중이’와 ‘쟁이’로 나타난다.

- ㉠중이
- ㉡쟁이

방언형 ‘중이’는 산북(山北)의 전 지역과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 서남 지역의 대정(大靜)·안덕(安德)에 나타난다. ‘쟁이’는 산남(山南)의 대정(大靜)과 안덕(安德)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한다.

⑬참새(언어지도 107)

‘참새’의 방언형은 ‘춤새, 춤생이, 생이, 밥주리생이, 밥주리’로 나타난다.

- ㉠춤생이
- ㉡춤새
- ㉢생이

86) ‘국주다’는 표준어 ‘할퀴다’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㉔ 밥주리생이

㉕ 밥주리

이 방언형들은 ‘츄생이’계열(츄생이, 츄새, 생이)과 ‘밥주리생이’계열(밥주리생이, 밥주리)로 나뉜다. ‘츄생이’계열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 등에 분포하며, ‘밥주리생이’계열은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나타난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조류를 총칭하는 ‘생이’가 조사되었다. 한편 ‘밥주리’는 ‘잠자리’[蜉]의 방언형으로도 나타난다.

⑭ 모이주머니(언어지도 108)

‘모이주머니’(=떨떠구니)는 조류의 소화기관의 하나로, 이에 대한 방언형은 ‘떨터, 떨터거니, 떨터갱이, 몰터거니, 몰테강이, 명텅구리, 명터거리, 떡통’으로 나타난다.

㉑ 떨터

㉒ 떨터거니

㉓ 떨터갱이

㉔ 몰터거니

㉕ 몰테강이

㉖ 명텅구리

㉗ 명터거리

㉘ 떡통

이 방언형들은 ‘떨터’계열(떨터, 떨터거니, 떨터갱이)과 ‘몰터거니’계열(몰터거니, 몰테강이), ‘명텅구리’계열(명텅구리, 명터거리), 그리고 ‘떡통’으로 나뉜다. ‘떨터’계열은 조천(朝天)과 구좌(舊左), 서북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에 분포한다. 또한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과 서남 지역인 중문(中文)에 분포한다. ‘몰터거니’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애월(涯月)·대정(大靜)·안덕(安德)에 나타난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명텅구리’, 비양도(飛揚島)에서는 ‘떡통’, 가파도(加波島)에서는 ‘명터거리’가 조사되었다.

『훈몽자회』(하: 6)의 “臍 떨터건 둔 臍 떨터건 비”, 『사성통해』(상: 68 臍字註)의 “臍 面顛 又 鳥臍 떨터건”, 『유씨물명고』의 “臍脰 떨터구니”(물명고 羽蟲)에서 보이듯이, 문헌어에서는 ‘떨터건’과 ‘떨터구니’가 확인된다. 제주도방언으로는 문헌



어가 거센소리화한 ‘멀틱, 멀터거니, 멀터깡이’가 나타난다.

⑮도마뱀(언어지도 109)

‘도마뱀’의 방언형은 ‘독다귀, 독다구리, 독달기, 장쿨레비, 장갈레비, 장쿨레비’로 나타난다.

- ㉠독다귀
- ㉡독다구리
- ㉢독달기
- ㉣장쿨레비
- ㉤장갈레비
- ㉥장쿨레비

이 방언형들은 ‘독다귀’계열(독다귀, 독다구리, 독달기)과 ‘장쿨레비’계열(장쿨레비, 장갈레비, 장쿨레비)로 나뉜다. ‘독다귀’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하며, ‘장쿨레비’계열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나타나는데, ‘장갈레비’와 ‘장쿨레비’가 다시 남북으로 등어선을 형성한다.

⑯민달팽이(언어지도 110)

‘민달팽이’의 방언형은 ‘집웃인들뻥이, 집엇인들뻥이, 집엇인들팽이, 옷벗인들뻥이, 옷벗은들뻥이, 붓벗인들뻥이, 민들뻥이, 들뻥이’로 나타난다.

- ㉠집웃인들뻥이
- ㉡집엇인들뻥이
- ㉢집엇인들팽이
- ㉣옷벗인들뻥이
- ㉤옷벗은들뻥이
- ㉥붓벗인들뻥이
- ㉦민들뻥이
- ㉧들뻥이



<사진 18> 민달팽이

‘민달팽이’의 방언형들은 ‘집웃인들뻥이’계열(집웃인들뻥이, 집엇인들뻥이, 집엇인들팽이)과 ‘옷벗인들뻥이’계열(옷벗인들뻥이, 옷벗은들뻥이)로 대별된다. ‘집웃인들뻥이’계열은 서부 지역인



에월(涯月)·한림(翰林)·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하며, ‘옷벗인들뽕이’는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나타난다. ‘벗벗인들뽕이’는 성산(城山)에 나타난다. 개신형인 ‘민들뽕이’는 조천(朝天)에 나타나며, 그 밖 ‘들뽕이’는 제주시(濟州市)와 한경(翰京)에 분포한다. 한편 도서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집엇인들뽕이’가 조사되었다.

‘집옷인들뽕이’는 {집+옷인+들뽕이}, ‘옷벗인들뽕이’는 {옷+벗인+들뽕이}, ‘벗벗인들뽕이’는 {벗+벗인+들뽕이} 구성으로, 달뽕이의 껍데기를 ‘집’ 또는 ‘옷’·‘벗’에 비유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 특이하다. ‘벗’은 표준어 ‘껍질’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민들뽕이’는 {민[禿]+들뽕이} 구성으로, ‘껍질이 없는 달뽕이.’란 의미다.

반면 껍질이 있는 달뽕이는 ‘집들뽕이·집쓴들뽕이’(濟州市), ‘집신들뽕이’(涯月·翰林·安德), ‘집짓인들뽕이’(翰京), ‘집잇인들뽕이’(大靜), ‘집잇은들뽕이’(中文·舊左·朝天), ‘옷잇은들뽕이’(表善), ‘벗잇은들뽕이’(城山), ‘들뽕이’(大靜·朝天) 형태로 나타난다. ‘집’의 유무와 관련한 이름으로는 문헌어 『동의보감』(湯液二 蟲部)의 “집 업슨 들광이: 蛞蝓”, “집 진 들광이: 蝸牛”에서도 확인된다. 문헌어 ‘들광이’의 예삿소리인 ‘들뽕이’가 제주도방언에 남아 있는 경우다.

⑩소라게(언어지도 111)

‘소라게’(=집게)는 ‘고동 껍질 따위의 속에 들어가 사는 게.’를 말한다. 방언형은 ‘거드레기, 기드레기, 그드레기, 게드레기, 게들레기, 게들메기, 늪의집살이’로 나타난다.

- ㉠거드레기
- ㉡기드레기
- ㉢그드레기
- ㉣게드레기
- ㉤게들레기
- ㉥게들메기
- ㉦늪의집살이

이 방언형들은 ‘거드레기’계열(거드레기, 기드레기, 그드레기)과 ‘게드레기’계열(게드레기, 게들레기, 게들메기)로 나뉜다. ‘거드레기’계열은 서부 지역의 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분포하며, 그 나머지 지역은 ‘게드레기’계열이 분포한다. ‘거들레기, 게드레기, 그드레기’의 ‘거들-, 게들-, 그들-’은 ‘다른 물건 안에 기어드는’의 의미가 담겨 있어 ‘소라게’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이런 특징은 “구쟁기 똥누레 가부난 게들레기가 움짱 들어가부러져.”(朝天)라는 속

설이 뒷받침하여 준다. 어원을 달리하는 ‘늪의집살이’도 ‘소라게’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어형인데, 제주시(濟州市)와 애월(涯月)·표선(表善)에서 나타난다.

⑱게(언어지도 112)

‘게’는 ‘몸은 딱딱한 딱지로 싸여 있으며 다섯 쌍의 다리를 가지고 옆으로 기어 다니는 동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방언형은 ‘깡이, 갱이, 궁이’로 나타난다.

- ㉠깡이
- ㉡갱이
- ㉢궁이

이 방언형들은 ‘깡이’·‘갱이’·‘궁이’로 나뉜다. 이 방언형은 ‘깡이>갱이’ 과정과 ‘궁이’는 ‘게+-엉이>깡이>궁이’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보인다.

‘갱이’는 산북(山北) 지역 전 지역을 비롯하여 산남(山南)의 서쪽 지역인 대정(大靜)과 안덕(安德)·가파도(加波島)에 분포한다. ‘깡이’는 산남(山南) 지역인 중문(中文)·서귀(西歸)·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에 나타나고, ‘궁이’는 애월(涯月)과 한림(翰林)에서 ‘갱이’와 혼효 상태를 보인다.

⑲거북손(언어지도 113)

‘거북손’은 ‘바닷가 바위에 떼를 지어 사는, 거북의 다리처럼 생긴 동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방언형은 ‘베체기, 대수왈, 대우살, 대오살, 적’으로 나타난다.

- ㉠베체기
- ㉡대수왈
- ㉢대우살
- ㉣대오살
- ㉤적



<사진 19> 거북손

이 방언형들은 ‘베체기’와 ‘대수왈’계열(대수왈, 대우살, 대오살)로 나뉜다. ‘베체기’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안덕(安德)에 분포하며, ‘대수왈’계열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표선(表善)·남원(南元)에 나타난다. 어원을 달리하는 ‘적’은 중문(中文)과 서귀(西歸)에서 조사되었다. 이 방언형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베체기’는 그 모양이 한 뿌리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한 뿌리에서 여러 갈래로 잎이 갈라져 있는 식물 이름 ‘질경이’의 방언형도 ‘베체기’여서 더욱 그렇다.

㉔ 눈알고둥(언어지도 114)

‘눈알고둥’의 방언형은 ‘문다두리, 문데기, 문다닥지, 문다드레기, 문더깨, 돌보말, 돌포말, 남뎡이보말, 찌데기’<sup>87)</sup> 등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어형이 나타난다.

- ㉔ 문다두리
- ㉔ 문데기
- ㉔ 문다닥지
- ㉔ 문다드레기
- ㉔ 문다기
- ㉔ 문더깨
- ㉔ 돌보말
- ㉔ 돌포말
- ㉔ 남뎡이보말
- ㉔ 찌데기



<사진 20> 눈알고둥

‘눈알고둥’의 방언형들은 ‘문다두리’계열(문다두리, 문데기, 문다닥지, 문다드레기, 문더깨)과 ‘돌보말’계열(돌보말, 돌포말)로 나뉜다. 또 ‘남뎡이보말’과 ‘찌데기’처럼 어형이 다른 방언형도 출현한다.

‘문다두리’계열은 ‘문다두리’, ‘문데기’, ‘문다닥지’, ‘문다드레기’, ‘문더깨’ 어형이 나타나는데, ‘문이 닫혀 있다’는 의미인 {문(門)+닫(閉)}과 관련 있는 이름이다. ‘문다두리’는 {문(門)+닫(閉)+우리}, ‘문데기’는 {문+데기}, ‘문다닥지’는 {문+닫+악지}, ‘문다드레기’는 {문+닫+으레기}, ‘문더깨’는 {문+더끄+에} 구성의 어휘다. ‘돌포말’은 {돌ㅎ+보말}, ‘찌데기’는 {찌+데기}, ‘남뎡이보말’은 {남+뎡이+보말}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문(門)”은 고둥의 입구에 ‘눈알’처럼 둥근 뚜껑(문)이 있다는 뜻이고, ‘닫-’은 ‘닫다’의 어간으로 ‘문이 닫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 -으레기, -악지, -에’는 접미사다. ‘돌포말’과 ‘돌보말’은 고둥의 모양이 돌처럼 단단하고 크기가 ‘고둥’처럼 작아서 ‘보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찌데기’는 고둥 맛이 쓰다는 데서 연유한 이름으로, ‘찌-’은 ‘찌부루’, ‘찌느물’에서 보이듯이 ‘찌다’(쓰다)[苦]의 어간에 관형형어미 ‘-ㄴ’이 연결된 ‘찌-’에 접미사 ‘-데기’가 결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남뎡이보말’은 {남(藍)+뎡이+보말} 구성으로, ‘남(藍)-’은 남색의 의미이고, ‘-뎡이’는 접미사로, 고둥의 표면과 ‘뎡’ 색깔이 파란 빛을 띠는 데다 고둥의 크기가 자잘한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따라서

87) ‘눈알고둥’의 명칭에 대해서는 김순자(2008)의 「제주 바다의 소라·고둥·전복 이름」, 『영주어문』 제15집, 영주어문학회, 2008, 63~100쪽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눈알고둥’에 대한 논의는 위의 글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문다드리’계열은 ‘뚜껍’을 문(門)에 비유하여 그 역할과 관련한 이름이고, ‘돌포말’은 고둥의 성질과 크기, ‘써데기’는 맛과 크기, ‘남덩이보말’은 색깔과 크기에 따른 이름이다.”<sup>88)</sup> 한 사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명명법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 재미있다.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에는 ‘문다드리’ 어형이 나타나고, 한림(翰林) 인근인 한경(翰京)과 대정(大靜)·안덕(安德)은 ‘문데기’가 조사되었다. 산남 지역 중앙인 중문(中文)과 서귀(西歸)·표선(表善)에서는 ‘문다드레기’가 출현하였다. 한경(漢京)에서는 ‘써데기’와 ‘돌포말’이 함께 조사되었고, 대정(大靜)에서는 ‘문다드레기’가 나타나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西歸)와 표선(表善)에서는 ‘문더개’도 조사되었다. 남원(南元)에서는 인근 지역 서귀(西歸)와 표선(表善)과는 어형이 다른 ‘문다닥지’가 나타났다.

한편 ‘돌보말’계열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와 산북(山北) 맨 서쪽 지역인 한경(翰京)에 분포한다. 어원을 달리하는 ‘남덩이보말’은 성산(城山)에서 조사되었다.

㉑ 남방울타리고둥(언어지도 115)

‘남방울타리고둥’<sup>89)</sup>의 방언형은 ‘ㄱ메기, 춤ㄱ메기, 코트데기, 코타드레기, 코트드레기, 곱쟁이, 눈곱쟁이’로 나타난다.



<사진 21> 남방울타리고둥

- ㉠ ㄱ메기
- ㉡ 춤ㄱ메기
- ㉢ 코트데기
- ㉣ 코타드레기
- ㉤ 코트드레기
- ㉥ 곱쟁이
- ㉦ 눈곱쟁이

이 방언형들은 ‘ㄱ메기’계열(ㄱ메기, 춤ㄱ메기)과 ‘코트데기’계열(코트데기, 코타드레기, 코트드레기), 그리고 ‘곱쟁이’계열(곱쟁이, 눈곱쟁이)로 나뉜다. ‘ㄱ메기’계열은 산남(山南) 전 지역과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에

88) 김순자, 위의 논문, 69~70쪽, 부분 인용.

89) ‘남방울타리고둥’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이다. 제주방언의 ‘ㄱ메기, 춤ㄱ메기, 코트데기, 곱쟁이, 눈곱쟁이’ 따위로 부르는 고둥을 권오길·박갑남·이준상 공저 『원색 한국패류도감』, 아카데미서적, 1993.에서 찾아보면 ‘남방울타리고둥’ 또는 ‘개울타리고둥’과 비슷하다. ‘남방울타리고둥’과 ‘개울타리고둥’은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할 수 없어 여기에서는 ‘남방울타리고둥’을 표준어형으로 생각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남방울타리고둥’의 방언명에 대해서는 김순자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분포하며, ‘코트데기’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애월(涯月)·한경(翰京)에 분포한다. 어원을 달리하는 ‘곰생이’는 제주시(濟州市)·한경(翰京), ‘눈곰생이’는 한림(翰林)에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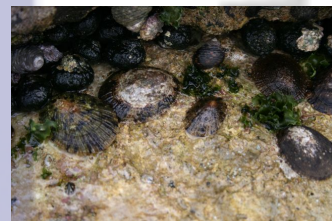
‘ㄱ메기’는 {곰+에기}로 분석되는데, {곰-}은 바닷가 경계가 되는 곳을 말하고, {-에기}는 축소사로서, ‘바닷가에 사는 작은 고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춤ㄱ메기’의 ‘춤’은 ‘진짜의’ 뜻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접두사로, ‘춤프레’, ‘춤뭍’ 따위에서 확인된다.

‘코트데기’는 {코+트(틀)+데기(에기)} 구성으로, {코}는 ‘그릇 따위의 입구에 달린 코, 또는 부리의 일부분’을 말하고, {트(틀-)}은 표준어 ‘따다’의 어근 ‘따-’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 ‘트다(틀다)’의 어근이다. 여기에 동물 따위에 붙는 접미사 {-데기(에기)}가 붙어 형성된 어휘다. “보말’ 깔 때 잘 까지지 아녕 ‘닥지’가 잘 틀아 지난 코트데기렌 허는 생이라.”는 언중들의 인식은 ‘코트데기’ 이름이 생긴 배경을 생각하게 한다. ‘곰생이’는 {곰+생이} 구성으로, 앞의 ‘ㄱ메기’의 ‘곰’의 뜻과 같고, 여기에 축소사 ‘생이’가 붙어서 형성된 어형이다.<sup>90)</sup>

㉒애기삿삿조개(언어지도 116)

‘애기삿삿조개’의 방언형은 ‘베말, 베멸, 비말, 베망, 벨망, 쟁베름’으로 나타난다.

- ㉠베말
- ㉡베멸
- ㉢비말
- ㉣베망
- ㉤벨망
- ㉥쟁베름



<사진 22> 애기삿삿조개

이 방언형들은 ‘베말’계열(베말, 베멸, 비말)과 ‘베망’계열(베망, 벨망) 그리고 ‘쟁베름’으로 나뉜다. ‘베말’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분포하며, ‘베망’계열은 중문(中文)·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과 남서부에 위치한 가파도(加波島)에서 나타난다. ‘쟁베름’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에서 조사되었다.

배에 삿삿 모양으로 나는 종기를 제주도에서는 ‘베말, 비말, 벨망’ 등으로 부르는데, 민간에서는 그 종기 위에 ‘애기삿삿조개’를 붙여두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

90) 김순자, 위의 논문, 74쪽 부분 인용.



㉓ 소라(언어지도 117)

‘소라’는 소라과의 연체동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10종이 알려져 있다. 껍질은 원뿔 모양이고 뿔이나 늑이 껍질 표면에 있으며 각구는 둥글고 크다. 가장 큰 특징은 뚜껑이 석회질이고 소선형이다.”<sup>91)</sup> 이들 10종의 소라 가운데 제주 사람들은 ‘소라’를 ‘소라’라는 이름이 붙은 해산패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소라’와는 구별하고 있다. ‘소라’의 방언형은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 고동’으로 나타난다.

- ㉠ 구쟁기
- ㉡ 구쟁이
- ㉢ 구제기
- ㉣ 고동



<사진 23> 소라

이 방언형들은 ‘구쟁기’계열(구쟁기, 구쟁이)과 ‘구제기’로 나뉜다. ‘구쟁기’계열은 ‘구쟁기’와 ‘구쟁이’ 어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북(山北) 지역 전 지역과 산남(山南)의 동부 지역에 분포한다. ‘구쟁이’는 제주 동부 조천(朝天)과 한림(翰林)에서 조사되었다. 반면 ‘구제기’는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나타난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고동’이 분포한다. ‘고동’은 구좌(舊左)와 성산(城山)에서도 ‘구쟁기’와 함께 조사되었다.

한편 ‘소라’는 또 크기와 껍데기에 붙은 돌기인 ‘살’의 유무에 따라 이름이 달리 나타나는데, 크기가 작은 것은 ‘조구쟁기(구쟁이, 구제기), 좁쌀구쟁기’, 크기가 크고 살이 왕성하게 나 있는 것은 ‘쌀(살)구쟁기(쌀구쟁이, 쌀구제기)’, 돌기가 사라지고 뾰족한 것은 ‘민둥(문둥)구쟁기(민둥구쟁이, 민둥구제기)’라고 한다.

㉔ 문어(언어지도 118)

‘문어’의 방언형은 ‘몽게, 물꾸럭, 무꾸럭’으로 나타난다.

- ㉠ 몽게
- ㉡ 물꾸럭
- ㉢ 무꾸럭

이 방언형들은 ‘몽게’와 ‘물꾸럭’계열(물꾸럭, 무꾸럭)로 나뉜다. ‘몽게’는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분포하며, ‘물꾸럭’계열은 제주시(濟州市)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

91) 권오길 외, 앞의 책, 248쪽.



· 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에 나타난다. ‘물꾸럭’에서 ‘ㄹ’이 탈락한 ‘무꾸럭’은 한림(翰林)과 한경(翰京)에 분포한다. 구좌(舊左)에서는 ‘문어’ 새끼를 지칭하는 어형 ‘돈대’도 조사되었다.

㉕ **베도라치**(언어지도 119)

‘베도라치’는 ‘황줄베도라치과의 바닷물고기.’를 말한다. 방언형은 ‘빗들레기, 빗들락, 베들레기’로 나타난다.

- ㉑ 빗들레기
- ㉒ 빗들락
- ㉓ 베들레기

이 방언형은 {빗들+-에기}, {빗들+-락}, {베들+-에기} 구성으로, ‘빗들에기’는 제주(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비양도(飛揚島)·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한편 ‘빗들락’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나타난다. 도서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베들레기’가 조사되었다.

㉖ **옥돔**(언어지도 120)

‘옥돔’의 방언형은 ‘생선, 쟁선, 솔라니, 솔래기, 솔아리, 오트미, 오툼쟁선, 오투미’로 나타난다.

- ㉑ 생선
- ㉒ 쟁선
- ㉓ 솔라니
- ㉔ 솔래기
- ㉕ 솔아리
- ㉖ 오트미
- ㉗ 오투미
- ㉘ 오툼쟁선



<사진 24> 옥돔

이 방언형들은 ‘쟁선’계열(쟁선, 쟁선)과 ‘솔라니’계열(솔라리, 솔래기, 솔아리), 그리고 ‘오트미’계열(오트미, 오투미, 오툼쟁선)로 나뉜다. ‘쟁선’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과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에 분포하며, ‘솔라니’계열은 가파

도(加波島)와 서귀(西歸)·중문(中文)·성산(城山)에 나타난다. ‘오트미’계열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표선(表善)·남원(南元)·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중문(中文)에서는 ‘오트미, 생선, 솔라니’ 세 방언형이 공존하고 있다. ‘생성’계열은 ‘생선, 생성’형으로 나타나는데, 제주도에서 유독 ‘옥돔’만을 가리켜 ‘생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특이하다.<sup>92)</sup>

㉗ 해파리(언어지도 121)

‘해파리’의 방언형은 ‘물이슬, 물방석, 물쿠쟁이, 물췌기, 물미쟁이, 물망테, 수박망테, 우박망테, 미우설, 미설, 미실’로 나타난다.

- ㉠ 물이슬
- ㉡ 물방석
- ㉢ 물쿠쟁이
- ㉣ 물췌기
- ㉤ 물미쟁이
- ㉥ 물망테
- ㉦ 수박망테
- ㉧ 우박망테
- ㉨ 미우설
- ㉩ 미설
- ㉪ 미실

다양한 어형이 출현하는 ‘해파리’의 방언형 가운데 ‘물이슬’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북 지역의 조천(朝天)에 분포하며, 산남(山南) 지역에서는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표선(表善)·성산(城山)에 나타나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반면 ‘물방석’은 구좌(舊左), ‘물미쟁이’는 애월(涯月), ‘미우설’은 한경(翰京), ‘미설’은 한림(翰林), ‘미실’은 비양도(飛揚島)에서 조사되었다. ‘망테’계열의 ‘물망테’는 구좌(舊左), ‘수박망테’와 ‘우박망테’는 우도(牛島) 등 주로 동부 지역에 나타나며, ‘물쿠쟁이’는 남원(南元), ‘물췌기’는 대정(大靜)에서 조사되었다. 우도(牛島)에서 조사된 ‘우박망테’는 ‘수박망테’의 어두음 ‘ㅅ’이 약화된 결과로 보인다. ‘물방석’을 비롯하여 ‘물망테, 수박망테, 우박망테’는 해파리의 모양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이며, ‘물췌기’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이들 방언형

92) 『표준 국어 대사전』의 ‘생선’은 말리거나 절이지 아니한, 물에서 잡아낸 그대로의 물고기를 칭하는 어휘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불리는 ‘생선’은 ‘옥돔’만을 칭한다. ‘옥돔’이 생선을 대표하는 데서 온 명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술’의 대표격으로 ‘약주’라 칭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나머지 바닷물고기는 물고기의 명칭을 붙여서 ‘각제기, 고등에’ 따위로 부른다. 옥돔을 넣어서 끓인 국을 ‘생선국’이라고 하고, ‘각제기’를 넣어서 끓인 국은 ‘각제기국’이라고 하여 구별한다.

가운데 ‘물쿠쟁이, 물췌기, 물망테, 수박망테, 우박망테’는 이번에 새롭게 조사된 어형이다.

㉘ 오분자기(언어지도 122)

‘오분자기’<sup>93)</sup>는 전복보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7~9개의 숨구멍을 갖고 있어 전복과는 구분되는 연체동물이다. 『원색 한국패류도감』<sup>94)</sup>이나 『수산동식물명사전』<sup>95)</sup>에는 ‘오분자기’가 표제어로 올라 있는 반면, 국어사전에는 ‘오분자기’ 또는 ‘오분제기’를 표제어로 해서 ‘작은 전복’이라는 뜻의 ‘떡조개’로 설명하고 있다.<sup>96)</sup>

‘오분자기’의 방언형은 ‘오분제기, 오분작, 조개, 조게기, 바르’로 나타난다.

- ㉠ 오분제기
- ㉡ 오분작
- ㉢ 조개
- ㉣ 조게기
- ㉤ 바르



<사진 25> 오분자기

이 방언형들은 ‘오분제기’계열(오분제기, 오분작)과 ‘조개’계열(조개, 조게기) 그리고 ‘바르’로 구분된다. ‘오분제기’는 산북(山北) 전 지역에 분포하며, ‘조개’계열은 산남(山南) 지역의 서쪽인 대정(大靜)과 안덕(安德)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한다. 한편 어원을 달리하는 ‘바르’는 ‘오분제기’계열 분포 지역과 ‘조개’계열 분포 지역을 제외한 대정(大靜)·안덕(安德)에 나타난다. 대정과 인접한 한경(翰京)에서는 ‘오분제기’와 함께 ‘바르’가 혼재되어 언어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식물 관련 어휘

㉠ 개똥참외(언어지도 123)

‘개똥참외’는 ‘길가나 들 같은 곳에 저절로 생겨난 참외.’다. ‘개똥참외’의 방언형

93) 본 연구자가 ‘제주 바다의 소라·고동·전복 이름’을 위하여 2007·2008년 조사할 당시에는 한경(翰京) 板浦·龍唐·新昌에서 ‘오분자기’가 조사되어 현평호의 자료집의 어휘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오분제기’가 조사된 것은 인접한 동쪽 지역 한림(翰林)의 ‘오분제기’와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한경(翰京)은 서쪽으로는 대정(大靜)에서 조사된 ‘바르’도 함께 조사되어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94) 권오길 외, 위의 책, 227쪽 참조.

95) 현대해양출판국사전편찬위원회편, 『수산동식물명사전』, 현대해양사, 1991, 135쪽 참조.

96)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오분자기’, 『우리말큰사전』에는 ‘오분자기, 오분제기’, 『금성국어대사전』에는 ‘오분제기’가 표제어로 올라 있고, 그 각각을 ‘떡조개’의 방언으로 풀이하고 있다. ‘떡조개’는 ‘썩 작은 전복’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권오길 외, 『원색 한국패류도감』의 명칭을 따랐다.

은 ‘갈자구, 갈자귀, 갈제기, 갈장귀, 간절귀, 간잘귀, 간절기, 간절미, 간잘미, 간절레기, 반잘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갈자구
- ㉡갈자귀
- ㉢갈제기
- ㉣갈장귀
- ㉤간절귀
- ㉥간잘귀
- ㉦간절기
- ㉧간절미
- ㉨간잘미
- ㉩간절레기
- ㉪반잘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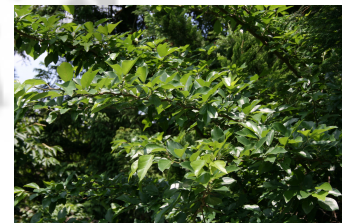
<사진 26> 개똥참외

이 방언형들은 ‘갈자귀’계열(갈자구, 갈자귀, 갈제귀, 갈장귀)과 ‘간절귀’계열(간절귀, 간잘귀, 간절기, 간절미, 간잘미, 간절레기)로 나뉜다. ‘갈자귀’계열은 서북 지역의 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안덕(安德)에 분포하며, ‘간절귀’계열은 제주시(濟州市)와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과 제주 동북 지역 전체, 그리고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과 서귀(西歸), 그리고 남동 지역에 분포한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반잘귀’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② 구지뽕나무(언어지도 124)

‘구지뽕나무’의 방언형은 ‘콧낭, 콧가시낭, 굿가시낭, 췌낭, 췌가시낭, 췌가시낭’으로 나타난다.

- ㉠콧낭
- ㉡콧가시낭
- ㉢굿가시낭
- ㉣췌낭
- ㉤췌가시낭
- ㉥췌가시낭



<사진 27> 구지뽕나무

이 방언형은 ‘콧낭’계열(콧낭, 콧가시낭, 굿가시낭)과 ‘췌낭’계열(췌낭, 췌가시낭, 췌가시낭)로 나뉜다. ‘콧낭’계열의 ‘콧낭’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인 안덕(安德)에서 조사되었

다. 서남 지역인 안덕(安德)에서는 서남 지역에 출현하는 ‘꿋냥’도 조사되어 혼효 양상을 보인다. 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에서는 ‘꿋가시냥’이 분포한다. 한경(翰京)에서는 또 ‘꿋가시냥’도 조사되었다. 어형을 달리하는 ‘꿋냥’은 남원(南元)·표선(表善)에 분포하며, ‘꿋가시냥’은 제주시(濟州市)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와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 그리고 동남 지역인 표선(表善)에서 출현한다. ‘꿋가시냥’은 중문(中文)과 서귀(西歸)·성산(城山)에서 나타난다.

③ **짜리**(언어지도 125)

‘짜리’의 방언형은 ‘푸께, 푸께기, 풀치귀, 푼칠귀’로 나타난다.

- ㉠ 푸께
- ㉡ 푸께기
- ㉢ 풀치귀
- ㉣ 푼칠귀



<사진 28> 짜리

이 방언형들은 ‘푸께’계열(푸께, 푸께기)과 ‘풀치귀’계열(풀치귀, 푼칠귀)로 나뉜다. ‘푸께’계열은 ‘풀치귀’계열이 분포하는 제주시(濟州市)를 제외한 진 지역에 분포한다. 애월(涯月)은 ‘푸께·푸께기’와 함께 제주시(濟州市)에서 조사된 ‘푼칠귀’도 혼재되어 나타나 언어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냉이**(언어지도 126)

‘냉이’의 방언형은 ‘난시, 난쟁이, 난지, 난쟁이, 난쟁이늑물, 난쟁이늑물’로 나타난다.

- ㉠ 난시
- ㉡ 난쟁이
- ㉢ 난지
- ㉣ 난쟁이
- ㉤ 난쟁이늑물
- ㉥ 난쟁이늑물



<사진 29> 냉이

이 방언형들은 ‘난시’계열(난시, 난쟁이)과 ‘난지’계열(난지, 난쟁이, 난쟁이늑물, 난쟁이늑물)로 나뉘는데, 이는 문헌어 ‘나시’와 ‘나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난쟁이’는 ‘난시+영이’, ‘난쟁이’는 ‘난지+영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난쟁이 늑물(늑물)’의 ‘늑물’과 ‘늑물’은 ‘나물’을 의미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나시

- 뉘 옛귀를 쓰다 니르느뇨 드로미 나시 곧도다.(초간두시언해 8:18)
- 나시(사정통해 上 27 齋字註)
- 나시 제(훈몽자회 上 14)

나시

- 두루미나시 께: 葶藶(두창경험방)

‘난시’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한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에 분포하며, ‘난지’계열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을 비롯하여 서귀(西歸)·남원(南元)에서 나타난다. ‘난시’계열 지역인 성산(城山)에서는 ‘난지’계열의 ‘난쟁이’가 조사되었다.

⑤ 파(언어지도 127)

‘파’(=쪽파)의 방언형은 ‘괘마농, 뽕이마농’으로 나타난다.

- ㉠괘마농
- ㉡뽕이마농



<사진 30> 파

‘괘마농’은 ‘뽕이마농’이 분포하는 서북 지역인 한림(翰林)과 한경(翰京)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한다. ‘뽕이마농’의 ‘뽕이’는 표준어 ‘빨기’에 해당하는 방언으로, 그 모양에서 따온 명칭이다. ‘괘마농’은 {괘+마농} 구성으로, ‘파’에 ‘ㅣ’모음이 첨가된 형태다.

⑥ 새품(언어지도 128)

‘새품’97)은 ‘억새의 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방언형은 ‘미삐쟁이, 미뿌쟁이, 미구쟁이, 미우쟁이, 어욱뽕이, 어욱고장, 어욱꽃’으로 나타난다.



<사진 31> 새품

- ㉠미삐쟁이
- ㉡미뿌쟁이
- ㉢미구쟁이

97)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새품’은 ① 억새의 꽃, ② 도깨비바늘의 옛말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억새의 꽃’의 의미다.



- ㉔미우쟁이
- ㉕어욱뽕이
- ㉖어욱고장
- ㉗어욱꽃

이 방언형들은 ‘미뽕쟁이’계열(미뽕쟁이, 미뽕쟁이)과 ‘미구쟁이’계열(미구쟁이, 미우쟁이)로 나뉘는데, 둘째 음절의 ‘ㅁ’(ㅁ)과 ‘ㄱ’, ‘ㄱ’과 ‘ㅇ’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등어선을 형성하고 있다. ‘미’가 ‘참역새의 꽃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고 보면, ‘-뽕쟁이·-뽕쟁이’, ‘-구쟁이·-우쟁이’로 나뉘고 있는 셈이다. ‘미뽕쟁이’계열은 ‘ㅏ>ㅣ’로 음운변화가 일어난 경우고, ‘미구쟁이’계열에서는 ‘ㄱ’ 약화라는 과정을 거친 ‘미우쟁이’형이 나타나고 있다.

‘미뽕쟁이’계열은 ‘미구쟁이’계열이 나타나는 한림(翰林)·한경(翰京)·서귀(西歸)·남원(南元)·표선(表善)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한다. {어욱+뽕이} 구조로 이루어진 ‘어욱뽕이’는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와 가파도(加波島)에서 나타나며, ‘어욱고장’은 애월(涯月)에서 조사되었다. 또 비양도(飛揚島)에서는 ‘어욱꽃’이 나타나 도서 지역 세 곳에서 모두 ‘어욱’계열이 조사된 것이 특이하다. 여기에서 ‘어욱’은 ‘역새’를 가리키고, ‘뽕이’는 ‘뽕기’, ‘고장’과 ‘꽃’은 ‘꽃’의 제주도방언이다. 도서 지역인 비양도에서는 ‘새뽕’을 ‘어욱꽃’, ‘띠의 꽃’을 ‘미뽕쟁이’라고 하여 그 의미가 다르다.

⑦바랭이(언어지도 129)

‘바랭이’는 ‘벗과에 딸린 한해살이풀.’을 말한다. 방언형은 ‘제환지, 제완지, 절좌니, 절환지’로 나타난다.

- ㉘제환지
- ㉙제완지
- ㉚절좌니
- ㉛절환지

이 방언형들은 ‘제환지’계열(제환지, 제완지)과 ‘절좌니’계열(절좌니, 절환지)로 나뉜다. ‘제환지’계열은 ‘절좌니’<sup>98)</sup>계열의 어형이 나타나는 서부 지역의 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한다.

98) ‘바랭이’의 방언형으로 현평효의 자료집에는 ‘절완이, 절완지’로 표기되었지만, 본 연구자는 음운이 동화된 어형을 표준어형으로 잡고 ‘절좌니, 절환지’로 표기하였다.

⑧ 반하(언어지도 130)

‘반하’는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을 말한다. 그 덩이줄기를 한방에서 이를 때 ‘반하(半夏)’라고 한다. ‘반하’의 방언형은 ‘산마, 삼마, 살마, 살메, 반아’로 나타난다.

- ㉠산마
- ㉡삼마
- ㉢살마
- ㉣살메
- ㉤반아



<사진 32> 반하

‘산마’는 산남(山南) 지역의 양쪽 끝인 대정(大靜)과 성산(城山)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하며, ‘삼마’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에 나타난다. 한편 ‘살마’는 서부 지역의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에 분포한다. 제주 남서쪽에 위치한 도서 지역인 가파도에는 개신형에 가까운 ‘반아’가 조사되었다.

⑨ 뱀딸기(언어지도 131)

‘뱀딸기’는 장미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들이나 길가에서 나는데 열매는 딸기와 비슷한 삭과(蒴果)로 붉게 익는다. 방언형은 ‘게미탈, 게염지탈, 게여미탈, 거미탈, 배염탈, 배염유리, 아야머리탈, 아여머리탈, 꿩탈’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게미탈
- ㉡게염지탈
- ㉢게여미탈
- ㉣거미탈
- ㉤배염탈
- ㉥배염유리
- ㉦아야머리탈
- ㉧아여머리탈
- ㉨꿩탈



<사진 33> 뱀딸기

이 방언형들은 ‘게미탈’계열(게미탈, 게염지탈, 게여미탈, 거미탈)과 ‘배염탈’계열(배염탈, 배염유리)로 대별된다. ‘배염탈’계열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아야머리탈’ 또는 ‘아여머리탈’이 나타나며, ‘게미탈’계열의 지역에서는 ‘아야머리탈, 아여머리탈’이 나타나지 않는다. ‘게미탈’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한 동부 지역인 조

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분포하며, ‘베염탈’계열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의 한림(翰林)·대정(大靜)·중문(中文)에 나타난다. 한림(翰林)·대정(大靜)·중문(中文)에서는 ‘게염지탈’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야머리탈, 아여머리탈’은 애월(涯月)·한경(翰京)·안덕(安德)에서 나타난다. ‘거미탈’은 구좌(舊左), ‘꿩탈’은 남원(南元)에서 조사되었다.

문헌어로는 ‘비얌빨기’·‘비얌빨기’·‘비얌쌀기’ 세 어형이 나타난다. 『구급간이방언해』(1:108)의 “비얌빨기: 蛇莓”, 『벽은신서』(9)의 “비얌빨기 너출은 시병의 열이 만하”, 『유씨물명고』(三 草)의 “비얌쌀기”가 그것이다.

‘베염탈’의 ‘베염’은 문헌어 ‘비염’(뱀)이며, ‘탈’은 문헌어 ‘빨기’의 제주도방언으로, 문헌어의 잔형임을 알 수 있다. ‘게미탈’계열은 ‘뱀빨기’에 개미들이 많이 다닌다는 속설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며, ‘아야머리탈’은 “그냥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허멸(종기)이 난다(머리가 벗어진다, 머리가 아프다.)”는 속설이 있어 먹을 때는 ‘뱀빨기’를 머리에 대고 “느 머리 벗어지고 나 머리 벗어지지 말라.”라고 말해두고 먹는다. ‘아야머리탈’과 ‘아여머리탈’은 이런 속성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다.

#### ⑩메밀(언어지도 132)

‘메밀’의 방언형은 ‘모물, 모멸, 모몰’로 나타난다.

- ㉠모물
- ㉡모멸
- ㉢모몰

방언형 가운데 ‘모물’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에 분포하며, ‘모멸’은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나타난다. 제주시(濟州市)에서는 ‘모몰’이 조사되었다. 한편 문헌어로는 ‘모밀’이 확인된다.

- 모밀: 蕎麥(사성통해 下 13)
- 모밀: 蕎(훈몽자회 上 12, 왜어유해 下 4)
- 이듬희에 모밀히 묻 니거 민가니 가난흔 적괴 당니 주고 흔 말도 더 받디 아나흐니(정속언해 28)

#### ⑪으름(언어지도 133)

‘으름’은 ‘으름덩굴의 열매’를 말한다. ‘으름’의 방언형은 ‘졸갱이, 유름’으로 나타난다.

㉠줄갱이

㉡유름

‘줄갱이’는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에 분포하며, ‘유름’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나타난다. 남원(南元)에서는 열매를 유름, 줄기를 ‘존갱이’라고 구분하여 불렀고, 표선(表善)에서는 열매를 ‘유름’, 줄기를 ‘쨌갱이’, 땅으로 뺏어나가는 종류의 으름덩굴을 ‘줄’이라고 하여 구분하였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제비꽃(언어지도 134)

‘제비꽃’의 방언형은 ‘말싸움고장, 말코장, 아진베기, 아진베기꽃, 아진베기쿨, 쓸게풀, 쓸게꽃’으로 나타난다.

㉠말싸움고장

㉡말코장

㉢아진베기

㉣아진베기꽃

㉤아진베기쿨

㉥쓸게풀

㉦쓸게꽃

이 방언형은 ‘말싸움고장’계열(말싸움고장, 말코장)과 ‘아진베기’계열(아진베기, 아진베기꽃, 아진베기쿨) 그리고 도서 지역에 나타나는 ‘쓸게풀’계열(쓸게풀, 쓸게꽃)로 나뉜다. ‘말싸움고장’계열은 서부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곧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하며, ‘아진베기’계열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성산(城山)과 가파도(加波島)에서 나타난다.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와 성산(城山)에서는 ‘쓸게꽃’이 조사되었고, 표선(表善)에서는 ‘쓸게풀’이 나타났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쓸게꽃’과 ‘쓸게풀’이 함께 조사되었다. ‘말싸움고장’과 ‘말코장’은 꽃의 모양이 ‘말’의 갈기 형상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은 표준어 ‘말’에, ‘고장’은 ‘꽃’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제비꽃을 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데서 ‘말싸움고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아진베기’는 ‘제비꽃’의 생태가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어서, ‘쓸게꽃’은 ‘제비꽃’ 씨앗이 ‘쓸’ 즉, ‘쌀알’처럼 박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⑬박(언어지도 135)

‘박[匏]’의 방언형은 ‘궁’과 ‘쿨락’으로 나타난다.

- ㉠궁
- ㉡쿨락



<사진 34> 박

‘박’의 방언형인 ‘궁’은 제주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과 제주시(濟州市), 그리고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에 분포한다. ‘쿨락’은 {쿨<sup>99</sup>+박} 구성으로 ‘쿨박>쿨박>쿨악>쿨락>쿨락’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 서부 지역인 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나타난다.

⑭청미래덩굴(언어지도 136)

‘청미래덩굴’은 백합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관목을 말한다. 어린 순은 먹고, 5월에 노란색을 띤 녹색의 단성화가 산형(繖形)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둥근 장과(漿果)로 9~10월에 빨갭게 익는다. 이 방언형은 ‘멩게낭, 멜레기낭, 벨레기낭, 벨랑귀낭’으로 나타난다.



<사진 35> 청미래덩굴

- ㉠멩게낭
- ㉡멜레기낭
- ㉢벨레기낭
- ㉣벨랑귀낭

이 방언형들은 ‘멩게낭’과 ‘멜레기낭’ 그리고 ‘벨레기낭’계열(벨레기낭, 벨랑귀낭)로 나뉜다. ‘멩게낭’은 동남 지역의 성산(城山)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골고루 나타난다. ‘멜레기낭’은 성산(城山)에 나타나며, ‘벨레기낭’계열은 서북 지역의 한경(翰京)과 서남 지역의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청미래덩굴’은 ‘절레나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서 나무와 줄기·열매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다. 제주시(濟州市)의 경우, 나무는 ‘멩게낭’이라 하는 반면 열매는 ‘멩게구슬’이라 하고, 한림(翰林)인 경우는 나무는 ‘멩게낭’이지만 열매는 ‘벨랑귀’라고 하는 식이다. 표선(表善)에서 순 이름으로 조사된 ‘멜레기’가 성

99) 이 ‘쿨’은 줄기를 뜻하는 ‘꿀, 쿨’과 관련있는 듯하나 단언할 수는 없다.



산(城山)에서 열매 이름으로 조사된 게 특이하다. 이를 표로 보이면 <표 3><sup>100)</sup>과 같다.

<표 3> 청미래덩굴의 분화 양상

구분	翰京	翰林	涯月	濟州市	朝天	舊左	牛島
나무	벨랑귀낭 멧게낭	멧게낭	멧게낭	멧게낭	멧게낭	멧게낭	멧게낭
순	멧게	멧게순	멧게순	멧게순 멧게	멧게순		
열매	벨랑귀	벨랑귀	멧게으름	멧게으름 멧게구슬	멧게	멧게	
구분	大靜	安德	中文	西歸	南元	表善	城山
나무	멧게낭 벨레기낭	멧게낭 벨레기낭	멧게낭 벨레기낭	멧게낭	멧게낭	멧게낭	멜레기낭
순	멧게순		멧게	멧게낭순	멧게낭순	멜레기	멜순
열매	벨레기	벨레기	벨레기	벨레기	메옹이	멧게으름	멜레기

위의 <표 3>을 보면, 나무 이름과 순 이름은 ‘멧게낭’이 우세한 편이고, 열매인 ‘멧감’은 ‘벨랑귀, 벨레기’로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멧게+낭} 구성의 ‘멧게낭’은 순에 기인한 이름이고, {벨랑귀+낭} 구성의 ‘벨랑귀낭’은 열매가 식물이름에 기인한 경우다.

⑮ **절레나무**(언어지도 137)

‘절레나무’는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들장미, 야장미, 절레 등으로 부르는 식물 이름이다. 이 방언형은 ‘새비낭, 도꼬리낭, 또꼬리낭, ㄱ방귀낭, 질레낭, 해병줄, 까시낭’으로 나타난다.

- ㉠ 새비낭
- ㉡ 도꼬리낭
- ㉢ 또꼬리낭
- ㉣ ㄱ방귀낭
- ㉤ 질레낭
- ㉥ 해병줄
- ㉦ 가시낭
- ㉧ 슬레비낭



<사진 36> 절레나무 순

100) <표 3>의 구분에 있는 지명들은 행정구역 위치에 따른 이름 순으로 배열하였다. 곧 위쪽의 제주시는 한라산 북쪽인 ‘산북’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그 동쪽으로 조천·구좌·우도, 서쪽으로는 애월·한림·한경이 위치함을 표시한 것이다. 한라산 남쪽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표 4>에서도 적용된다.





㉠고련목

㉡마주목



<사진 37> 멸구슬나무

‘멸구슬나무’의 방언형은 ‘믈쿠실낭’계열(믈쿠실낭, 믈쿠지낭, 믈쿠실낭)과 ‘뭉쿠실낭’계열(뭉쿠실낭, 뭉쿠슬낭, 뭉쿠실낭), ‘고련목’, ‘마주목’으로 나뉜다. ‘믈쿠실낭’계열은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

(牛島)와 산남(山南) 동부 지역인 성산(城山)·남원(南元)·서귀(西歸)·중문(中文)에 분포한다. ‘뭉쿠실낭’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나타난다. ‘멸구슬나무’는 위의 방언형과 함께 어형이 다른 ‘고련목’과 ‘마주목’이 조사되었다. ‘고련목’은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중문(中文)·서귀(西歸)·조천(朝天)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마주목’은 성산(城山)에서 조사되었다. “‘멸구슬나무’의 뿌리를 ‘고련근101’이라 하고, ‘멸구슬나무’ 뿌리 껍질을 ‘고련피’라 하여 약재로 사용하였다.”(翰京)

이들 방언형인 ‘믈쿠실, 믈쿠지, 믈쿠실, 뭉쿠실, 뭉쿠슬, 뭉쿠실’ 등은 뭉구슬나무의 열매를 말한다. 『조선말대사전』에 “열매는 고령자라 하여 배앓이에 쓴다.”는 설명이 보이는데, 제주도방언에서 조사된 ‘고련목’과 관련 있는 어휘가 아닌가 한다. 특히 ‘멸구슬나무’는 나무 질이 단단하고 나뭇결이 고와 ‘궤’ 등 가구재로 많이 활용되었다.

⑰실거리나무(언어지도 139)

‘실거리나무’의 방언형은 ‘실거리낭, 썰거리낭, 수꾸리낭, 범주리낭, 범주리가시’로 나타난다.

㉠실거리낭

㉡썰거리낭

㉢수꾸리낭

㉣범주리낭

㉤범주리가시

이 방언형들은 ‘실거리낭’계열(실거리낭, 썰거리낭)과 ‘수꾸리낭’, ‘범주리낭’계열

101) 『조선말대사전』에 보면, ‘고련근’을 “동약에서, ‘멸구슬나무뿌리껍질’을 약재로 이르는 말. 벌레떼기약, 피멧이약, 위병약 등에 쓴다. 苦楝根”고 되어 있어 제주방언과 같이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소테나무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구충제, 지혈제, 위장약 따위로 쓴다.”고 설명되었고, ‘소테나무’=고련(苦楝)이라고 되어 있다. ‘苦楝’의 ‘楝’은 멸구슬나무를 말한다.

(범주리낭, 범주리가시)로 나뉜다. ‘실거리낭’계열은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에 분포하며, ‘수꾸리낭’은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과 표선(表善)에 나타나고, ‘범주리낭’계열은 동북 지역의 조천(朝天)과 구좌(舊左)에 분포한다.



<사진 38> 실거리나무

“봄즙은 실거리낭에 걸어져도 잔다(봄즙은 실거리나무에 걸리어도 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실거리나무’의 가시가 드세다. ‘범주리가시’는 가시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⑱ 예덕나무(언어지도 140)

‘예덕나무’의 방언형은 ‘다간죽낭, 다근작낭, 다건죽이, 대간죽이, 북닥낭, 북닥낭, 닥낭’으로 나타난다.

- ㉠ 다간죽낭
- ㉡ 다근작낭
- ㉢ 다건죽이
- ㉣ 대간죽낭
- ㉤ 북닥낭
- ㉥ 북닥낭
- ㉦ 닥낭



<사진 39> 예덕나무

이 방언형들은 ‘다간죽낭’계열(다간죽낭, 다근작낭, 다건죽이, 대간죽낭)과 ‘북닥낭’계열(북닥낭, 북닥낭, 닥낭)로 나뉜다. ‘다간죽낭’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하며, ‘북닥낭’계열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나타난다.

⑲ 탕자나무(언어지도 141)

‘탕자나무’의 방언형은 ‘개탕쥐낭, 개탕쉬낭, 개탕지낭, 텃지낭, 탕쥐낭’으로 나타난다.

- ㉠ 개탕쥐낭
- ㉡ 개탕쉬낭
- ㉢ 개탕지낭
- ㉣ 텃지낭
- ㉤ 탕쥐낭

이 방언형들은 ‘개탕쥐낭’계열(개탕쥐낭, 개탕쉬낭, 개탕지낭)과 ‘텡지낭’계열(텡지낭, 탕쥐낭)로 나뉜다. 접두사 ‘개-’가 붙은 ‘개탕쥐낭’계열은 산북(山北) 지역의 맨 오른쪽인 구좌(舊左)를 제외한 전 지역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한다. 한편 ‘텡지낭’ 계열은 서귀(西歸)·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 등 정의(旌義) 지역에 나타난다. 이는 문헌어 ‘텡즈’가 ‘텡즈>텡즈>텡지’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 텡지 드외오(금강경삼가해 2:43)
- 선텡즈 더운 프레 시서 사흐라 붓그니(구급간이방언해 1:115)
- 텡즈: 醜橙(사성통해 上 18)
- 텡즈: 橙(사성통해 下 61)
- 텡즈 기: 枳(훈몽자회 上 10)
- 텡지 곳다운 橘에 눌러 노햇도다(중간두시언해 2:36)

㉔ 모자반(언어지도 142)

‘모자반’은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海藻).’를 말한다. 이 방언형은 ‘뭍망, 뭍음, 뭍’으로 나타나는데, 모자반의 총칭이다. 모자반의 종류에 따라 ‘쥐뭍, 감썰뭍’ 따위로 그 이름이 다양하게 분화한다.

- ㉔ 뭍망
- ㉔ 뭍음
- ㉔ 뭍

‘모자반’의 방언형 ‘뭍망, 뭍음, 뭍’은 문헌어 ‘뭍[藻]’에서 ‘뭍+망> 뭍망, 뭍음>뭍’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뭍망’이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남 지역에 분포하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뭍’은 서귀(西歸)와 동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하며,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뭍, 뭍음’이 함께 나타난다. 이 모자반을 한자어로는 ‘마미조’(馬尾藻)라 한다.

㉕ 툷(언어지도 143)

‘툷’은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를 말한다. ‘툷’의 방언형은 ‘툷, 툷’으로 나타난다.

- ㉕ 툷
- ㉕ 툷

‘툷’은 한자어로 녹미채(鹿尾菜)라 하는데, 서귀(西歸)를 비롯한 동부 지역인 조

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에 나타나며, ‘툇’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 나타난다. 곧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분포하는 방언형이다. 남원(南元)에서는 ‘툇’과 ‘툇’이 함께 조사되었다. ‘툇’은 음절 발음이 교체됨으로써 등어선을 이루는 경우다.



<사진 40> 툇

## 15) 동사

### ①가져오다(언어지도 144)

‘가져오다’의 방언형은 ‘아상오다, 아저오다, 아정오다, 으저오다, ㄴ저오다, ㄴ정오다, 거저오다, 가져오다’로 다양하게 나타난다.<sup>102)</sup>

- ㉠아상오다
- ㉡아저오다
- ㉢아정오다
- ㉣으저오다
- ㉤ㄴ저오다
- ㉥ㄴ정오다
- ㉦거저오다
- ㉧가져오다

이 방언형들은 문헌어 ‘앗다’와 ‘아지다’와 ‘ㄴ지다’ 그리고 ‘거지다’와 ‘가지다’로 나뉜다. ‘아상오다’는 ‘앗다’에서 온 어형이고, ‘아저오다, 아정오다, 으저오다’는 ‘으지다’계열이며, ‘ㄴ저오다, ㄴ정오다, 거저오다, 가져오다’는 ‘ㄴ지다’계열이다. ‘앗다’와 ‘으지다’계열의 방언형들은 대체적으로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동부 지역에 분포하며, ‘ㄴ지다’계열의 방언형들은 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앗다’계열의 으저오다’는 {옷--+어 오다} 구성으로, ‘옷다’를 얻게 되는데, 이 어형은 ‘앗다’보다 더 오래된 형태로 보인다.

◦앗다: 그 서르 줄 단댄 겨집이 籠로써 받고 籠 업거든 다 안자셔 노흔 후에 아슬 디니라(소학언해 2:51)

102) 석주명도 “가져오다’가 제주도 내에서도 지방마다 표현이 다”를 것에 주목했다. 즉 “제주: ㄴ저오다. 정의: 아사오다., 대정: 거저오다., 서귀포부근: 아정오다(보이는 것을), 아저오다(안보이는 것을).”라는 것이다. 석주명, 앞의 책, 139쪽.



◦ ㄹ지다: 모로매 生死 두 字를 ㄹ저 니마해 두워(범어 5)

②도사리다(언어지도 145)

‘도사리다’의 방언형은 ‘복쉬뒤우다, 사리다, 뒤사리다, 스리다, 스려앗다, 사려앗다, 양반치다, 양반청앗다, 양반다리흐다’로 나타난다.

- ㉠복쉬뒤우다
- ㉡사리다
- ㉢뒤사리다
- ㉣스리다
- ㉤스려앗다
- ㉥사려앗다
- ㉦양반치다
- ㉧양반청앗다
- ㉨양반다리흐다

이 방언형들은 ‘복쉬뒤우다’와 ‘사리다’계열(사리다, 뒤사리다, 스리다, 스려앗다)로 나뉜다. ‘복쉬뒤우다’는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하고, ‘사리다’계열은 산북(山北)과 가파도(加波島)에서 나타난다.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하는 ‘복쉬뒤우다’는 {복쉬+뒤우다}는 구조로, ‘복사빠를 비틀다’, 또는 ‘복사빠를 꼬다’는 의미다. 청산(淸山)에서는 ‘복쉬뒤와 앓는 다리’를 ‘복쉬다리’라고 표현한다.

‘사리다’계열의 ‘뒤사리다’는 ‘도사리다’의 제주도방언형이다. 한편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양반치다, 양반청앗다’, 비양도(飛揚島)에서는 ‘양반다리흐다’는 특이한 방언형이 조사되었다. 이는 양반들이 책상다리를 많이 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한편 ‘사리다’의 어형이 나타나는 지역은 ‘복쉬뒤우다’와 ‘사리다’, ‘뒤사리다’와 ‘사리다’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리다’가 책상다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복쉬뒤우다, 복쉬뒤와앗다’(大靜 仁城·加波島)와 ‘뒤사리다’(翰京 造水)는 ‘한쪽 다리를 꼬아서 앓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동문유해』(상: 25)의 “盤腿坐 발사리고 안사.”는 ‘사리다’의 의미를 확고하게 해주고 있다.

③들이켜다(언어지도 146)

‘들이켜다’의 방언형은 ‘드리씨다, 드르씨다, 드리씨다, 드르쓰다, 드르싸다, 드리치다’로 나타난다.

- ㉠드리씨다
- ㉡드르씨다
- ㉢드리쓰다
- ㉣드르쓰다
- ㉤드르싸다
- ㉥드리치다

이 방언형들은 ‘드리씨다’계열(드리씨다, 드르씨다)과 ‘드리쓰다’계열(드리쓰다, 드르쓰다)과 ‘드르싸다’, ‘드리치다’로 나뉜다. 문헌어 ‘드리히려’에서 연유한 것으로, ‘드리히려’의 ‘히려’가 원래는 쌍아래아 ‘**ㄷ**다’임을 보여주는 어형<sup>103)</sup>으로 보인다. 곧 ‘**ㄷ**다>쓰다>싸다>싸다, 쓰다’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ㅎ**’이 구개음화 과정을 거쳐 ‘**ㅅ**’으로 변하고, ‘**ㅅ**’는 활음(j) 탈락에 의해 ‘**·**’로 변하여 결국은 ‘싸다’가 된다. 이 ‘싸다’는 어두에서는 ‘싸다’로, 비어두에서는 ‘쓰다’로 변한 결과 ‘드리쓰다’, ‘드리씨다’가 된 것이다. ‘드리씨다’계열은 동부 지역의 구좌(舊左)와 성산(城山)과 서북 지역의 한림(翰林)과 한경(翰京)에 나타나며, 그 외 지역은 ‘드리쓰다’계열의 방언형이 분포한다.

④**뛰다**(언어지도 147)

‘뛰다’의 방언형은 ‘튀다, 쀼다’로 나타난다.

- ㉠튀다
- ㉡쀼다

‘튀다’는 문헌어 ‘뛰다’의 어두자음군 ‘**ㅌ**’이 거센소리 ‘**ㅋ**’으로 바뀐 어형으로,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한다. 반면 ‘쀼다’는 제주도(濟州市)와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과 표선(表善)에 분포한다. 문헌어 ‘뛰다’가 거센소리화하여 ‘튀다’ 또는 ‘쀼다’로 변화<sup>104)</sup>하였다. 첫음절의 자음 교체로 들어선을 이루고 있다.

⑤**(담)무너지다**(언어지도 148)

‘(담)무너지다’는 ‘담이 허물어져 내려앉다.’는 뜻으로, ‘너러지다, 녕크러지다, 머호러지다, 멀어지다, 머러지다, 몰아지다, 덩크라지다, 무너지다, 물러지다, 땠라지다, 커지다, 혈어지다, 헤싸지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103) 정승철, 앞의 책, 71쪽.

104) ‘**ㅌ**다’가 ‘타다, 카다’처럼 변화하는 것은 ‘생선을 말리기 위하여 배를 가르다’는 의미의 ‘베타다, 베카다’에서 확인된다.

- ㉠(담)너러지다
- ㉡(담)녕크러지다
- ㉢(담)머흐러지다
- ㉣(담)떨어지다
- ㉤(담)머려지다
- ㉥(담)몰아지다
- ㉦(담)몽크라지다
- ㉧(담)무너지다
- ㉨(담)물러지다
- ㉩(담)멜라지다
- ㉪(담)커지다
- ㉫(담)헐어지다
- ㉬(담)헤싸지다

이 방언형들은 크게 ‘너러지다’계열(너러지다, 녁크러지다), ‘머흐러지다’계열(머흐러지다, 떨어지다, 머려지다), ‘몰아지다’계열(몰아지다, 몽크라지다) 그리고 ‘무너지다’계열(무너지다, 물러지다)로 나뉜다. ‘너러지다’는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가파도(加波島)·중문(中文)에 분포하며, ‘머흐러지다’계열은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에 나타난다. ‘몰아지다’계열은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에 분포하며, ‘무너지다’계열은 중앙부인 제주시(濟州市)와 서귀(西歸) 등에 나타난다.

⑥ 배따다(언어지도 149)

‘배따다’는 ‘생선 따위의 배를 가르다.’는 뜻을 지니는 어휘다. 방언형은 ‘베카다, 베칼르다, 베브르다, 베볼르다, 베르싸다, 페쓰다, 베벨르다, 등타다, 등탕 페쓰다’로 나타난다.

- ㉠베카다
- ㉡베칼르다
- ㉢베브르다
- ㉣베볼르다
- ㉤베르싸다
- ㉥페쓰다
- ㉦베벨르다
- ㉧등타다
- ㉨등탕페쓰다

이 방언형들은 ‘베카다’계열(베카다, 베칼르다)과 ‘베브르다’계열(베브르다, 베블르다)과 ‘베르싸다’계열(베르싸다, 베벨르다, 페쓰다)로 나뉜다. ‘베카다’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도적이 밭 버히고 비 뺏고 가니라.”(烈 2:13)의 ‘뺏다’가 ‘뜨다’로 변하고 다시 ‘크다>카다’의 과정을 거친 어형이다. ‘베브르다’는 문헌어 ‘브르다’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능엄경언해』(1:33)의 “膾는 브릴 씨라.”에서 확인된다. ‘베블르다’는 ‘베브르다’에 ‘르’이 첨가된 어형이다. ‘베르싸다’와 ‘페쓰다’는 ‘벌리다’는 의미이고, ‘베벨르다’는 {베+벨르다} 구성으로 ‘베를 벌리다’는 뜻을 지닌다.

‘베따다’에 해당하는 방언형인 ‘베카다’계열은 서북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에 분포하며, ‘베브르다’는 ‘베 바르다’는 의미로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동북 지역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에 나타난다. 한편 ‘페쓰다’는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정의(旌義) 지역에 분포한다.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서는 ‘등타다, 등탕페쓰다’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등타다’는 {등[背]+타다}, ‘등탕페쓰다’는 {등+탕+페쓰다} 구성으로, 각각 ‘등따다’, ‘등을 따서 벌리다’는 의미다. 즉, ‘등타다, 등탕페쓰다’는 생선의 내장을 배로 갈라서 빼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가른 다음에 내장을 꺼낸다는 의미다.<sup>105)</sup>

⑦끼이다(언어지도 150)

‘끼이다’는 ‘틈새에 박히다.’는 의미다. 방언형으로 ‘줍지다, 접지다, 쥘지다’가 나타난다.

- ㉠줍지다
- ㉡접지다
- ㉢쥘지다

이 방언형은 ‘줍지다’와 ‘접지다’계열(줍지다, 쥘지다)로 나뉘는데, ‘줍지다’는 산북(山北) 지역의 한림(翰林)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분포한다. ‘·>ㅈ’ 음운변화 과정을 거친 ‘접지다’계열은 산남(山南) 지역에 나타나고, ‘쥘지다’는 서북 지역인 한림(翰林)과 서남 지역인 대정(大靜)과 안덕(安德)·가파도(加波島)에 분포한다.

⑧쨍그리다(언어지도 151)

‘쨍그리다’는 ‘얼굴의 근육이나 눈살을 몹시 찌그리다.’는 뜻이다. ‘쨍그리다’의 방언형은 ‘징그리다, 주그리다, 싱키리다, 싱그리다, 성그리다, 성으리다, 상으리다’로 나타난다.

105) 체보자들에 따르면, 배를 따서 말린 생선보다 등을 따서 말린 생선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한다.

- ㉠징그리다
- ㉡주그리다
- ㉢싱그리다
- ㉣싱키리다
- ㉤성그리다
- ㉥성으리다
- ㉦상으리다

이 방언형들은 문헌어 ‘징그리다’에서 온 ‘징그리다’와 문헌어 ‘뽕그리다>뽕의다>뽕그다>싱그리다’에서 온 ‘싱그리다’계열(싱키리다, 성그리다, 성으리다, 상으리다)로 나뉜다. ‘싱크리다, 성그리다, 성으리다, 상으리다’는 각각 격음화, 모음 교체, ‘ㄱ’ 탈락의 과정을 거친 방언형들이다. ‘징그리다’는 동북 지역인 조천(朝天)과 구좌(舊左),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 분포하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싱그리다’계열이 나타난다. 구좌(舊左)에서는 ‘주그리다’가 조사되었다.

- 징그리다: 嘖 징길 빈(일본 궁내성 천자문 30)
- 뽕그리다: 繡 혼 노옷 고외 暮春에 비취엿느니 金孔雀과 銀麒麟과 뽕긔엿도다(초간두 시언해 11:17)』
- 뽕의다: 눈섭 뽕의며 눈 부르쁘며(귀감언해 下 59)
- 뽕그다: 셴 머리 뽕건 양즈 보니 다 주거만 햏야라(고시조 ‘사람이 늘근 후의’ 仙石遺稿)
- 싱그리다: 嘖 싱길 빈(왜어유해 상 20)

⑨ 팔짱끼다(언어지도 152)

‘팔짱끼다’는 ‘두 손을 각각 다른 쪽 소매 속에 마주 넣거나, 두 팔을 마주 끼어 손을 두 겨드랑이 밑으로 각각 두는 일. 두 팔을 마주 끼어 손을 겨드랑이 안으로 지르다.’는 뜻을 지닌 어휘다. 이 방언형은 ‘폴똥찌다, 폴똥찌다, 폴짱찌다, 폴짱찌다, 폴짹찌다, 손짹찌다, 폴찌다, 독안다, 휘독안다’로 나타난다.

- ㉠폴똥찌다
- ㉡폴똥찌다
- ㉢폴짱찌다
- ㉣폴짹찌다
- ㉤폴짹찌다
- ㉥손짹찌다
- ㉦폴찌다



- ◎독안다
- ⊗훼독안다

이 방언형들은 ‘폴똥찌다’계열(폴똥찌다, 폴똥찌다)과 ‘폴짱찌다’계열(폴짱찌다, 폴짱찌다, 폴짱찌다)로 나뉜다. ‘폴똥찌다’계열은 ‘팔뚝’의 문헌어 ‘폴뚝’에서 유래한 ‘폴똥’이 ‘끼다’의 방언형 ‘찌다’와 연결된 형태이며, ‘폴짱찌다’계열은 ‘팔짱’의 문헌어 ‘폴똥’이 구개음화와 된소리 과정을 거친 ‘폴짱’과 ‘끼다’의 방언형 ‘찌다’가 결합한 형태다. ‘폴똥찌다’계열은 대체적으로 동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폴짱찌다’계열은 서부 지역에 나타난다.

- 폴뚝/膊 폴뚝 박 俗呼肱膊(훈몽자회 상 13)  
/肱 今俗肱膊 폴뚝 又曰肱肘(사성통해 상 61)
- 폴뚝/ 폴뚝: 肱膊(역어유해 상 34, 동문유해 상 15)
- 폴똥/폴똥곳다/拱 폴똥고줄 공(신증유합 하 16)  
폴똥디르다/폴똥디르느 거시 브습 법고(어록해 39)  
폴장 지르다/拱手 폴장 지르다(동문유해 상 51)  
抄手 폴장 지르다(한청문감 7:28)

한편 ‘손짱찌다’는 제주시(濟州市)와 한림(翰林)·한경(翰京)에 분포하는데 파생법({손[手] 짱--+口})과 합성법({손짱+찌다})에 의해 형성되는 형태이며, ‘폴찌다’는 남원(南元)과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에 나타나는데 이 역시 합성법에 의한 방언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평효(玄平孝) 자료집에는 없는 ‘독안다, 훼독안다’가 조사되었다. 이들 방언형은 각각 ‘답을 안다, 훼에 앓은 답을 안다’는 뜻으로, 제주시(濟州市)와 표선(表善)에 분포한다.

## 16)형용사

### ①가지런하다(언어지도 153)

‘가지런하다’의 방언형은 ‘크짱하다, 크짱하다, 크똥하다’로 나타난다.

- ㉠크짱하다
- ㉡크짱하다
- ㉢크똥하다

이 방언형들은 어근에 따라 ‘크짱-’계열(크짱-, 크짱-)과 ‘크똥-’으로 나뉜다. ‘크짱하다’는 ‘·>’ 변화 과정을 거친 방언형이다. 대체적으로 ‘크짱하다’는 산북

(山北) 지역에 분포하며, ‘크똥ㅎ다’는 산남(山南) 지역에 나타난다.

②간지럽다(언어지도 154)

‘간지럽다’의 방언형은 ‘즈급다, 즈곱다, 즈골로다, 즈골롭다, 즈금타다, 저금타다, 저급다, 제급다’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즈급다
- ㉡즈곱다
- ㉢즈골로다
- ㉣즈골롭다
- ㉤즈금타다
- ㉥저금타다
- ㉦저급다
- ㉧제급다

이 방언형들은 어두음이 ‘아래아(·)’형이 나타나는 ‘즈급다’계열(즈급다, 즈곱다, 즈골로다, 즈골롭다, 즈금타다)과 ‘· > ㅏ’ 음운 변화 과정을 거친 ‘저급다’계열(저금타다, 저급다, 제급다)로 나뉜다. ‘즈급다’ 계열은 산북(山北) 지역과 산남(山南) 지역의 서쪽인 대정(大靜)·안덕(安德)에 분포한다. ‘저급다’계열은 중문(中文)을 비롯하여 서귀(西歸)·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 등 정의(旌義) 지역에서 나타난다. 대정(大靜) 인근 도서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동남 지역에서 보이는 ‘저급다’ 계열의 ‘제급다’가 조사되어 언어접촉이 일어나고 있다.

③눈부시다(언어지도 155)

‘눈부시다’의 방언형은 ‘눈즈급다, 눈즈곱다, 눈즈골로다, 눈저급다, 눈제급다’로 나타난다.

- ㉠눈즈급다
- ㉡눈즈곱다
- ㉢눈즈골로다
- ㉣눈저급다
- ㉤눈제급다

이 방언형들은 ‘눈즈급다’계열(눈즈급다, 눈즈곱다, 눈즈골로다)과 ‘· > ㅏ’ 음운 변화 과정을 거친 ‘눈저급다’계열(눈저급다, 눈제급다)로 나뉜다. ‘눈즈급다’계열은 산북(山北) 지역과 산남(山南) 지역의 서쪽에 분포하며, ‘눈저급다’계열은 가파도

(加波島), 중문(中文)을 비롯하여 정의(旌義) 지역에 나타난다. 앞에서 본 ‘간지럽다’와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④ 재수좋다(언어지도 156)

‘재수좋다’의 방언형은 ‘머의좋다, 머으좋다, 머세좋다, 머생이좋다, 머정좋다’로 나타난다.

- ㉠머의좋다
- ㉡머으좋다
- ㉢머세좋다
- ㉣머생이좋다
- ㉤머정좋다

이 방언형들은 ‘머의좋다’계열(머의좋다, 머으좋다)과 ‘머세좋다’계열(머세좋다, 머생이좋다), ‘머정좋다’로 나뉜다. ‘머의좋다’계열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서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조천(朝天)·애월(涯月)·한경(翰京)·성산(城山)·표선(表善)에 나타나기도 한다. ‘머세좋다’계열은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에 분포하며, ‘머정좋다’는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에 나타난다.

17) 감탄사

① 떠바(언어지도 157)

‘떠바’는 감탄사로, ‘어린아이가 불이나 뜨거운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경계하여 내는 소리.’를 말한다. 이 어휘에 대한 방언형은 ‘떠바, 떠블라, 떼블라’로 나타난다. 뜨거움을 느꼈을 때는 감탄사 ‘아!/어!’가 붙어서 ‘아(어)! 떠바, 아(어)! 떠블라, 아(어)! 떼블라’ 형태로 나타난다.

- ㉠떠바
- ㉡떠블라
- ㉢떼블라

이 방언형들은 ‘덥다[熱]의 어간에 붙는 어미에 따라 나뉜다. 방언형 ‘떠바’는 {덥--+아>더바}, ‘떠블라’는 {덥--+-(으)르라>더블라>떠블라} 구성으로, 된소리화한 방언형들이다. 여기에서 ‘덥다’는 ‘더운밥’에서 확인되듯이 ‘뜨겁다’는 의미다.

제주도방언 “밥은 더울 때 먹어사 맛 좋나,”(밥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 좋다.)에서 ‘덥다’가 확인된다.

‘떠바’는 구좌(舊左)와 우도(牛島)를 제외한 산북(山北) 지역과 산남(山南) 지역의 맨 서쪽 대정(大靜)에 나타나며, ‘떠불라’계열은 ‘떠바’가 나타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한다.

## 18) 부사

### ① 빨리(언어지도 158)

‘빨리’는 ‘걸리는 시간이 짧게.’라는 의미다. 제주도방언형 ‘빨리’를 유도했는데, ‘매우 재게’의 의미인 ‘재우’의 방언형으로 답변한 경우다. ‘재우’의 방언형은 ‘재기, 재게, 자게’로 나타난다.

㉠재기

㉡재게

㉢자게

이 방언형들은 ‘재다[速]의 어간에 접미사 ‘-기, -게’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들로, 접미사에 따라 ‘재기’와 ‘재게’계열(재게, 자게)로 나뉜다. ‘재기’는 동부 지역에 분포하며, ‘재게’계열은 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재우’의 방언형은 ‘자게>재게>재기’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형들이다. 동서를 가르는 전형적인 등어선이다.

## 19) 보조동사

### ① 먹어버리다(언어지도 159)

이 ‘먹어버리다’는 보조동사 ‘버리다’를 물어본 것이다. 이에 대한 방언형은 ‘먹어불다, 먹어비다’로 나타난다.

㉠먹어불다

㉡먹어비다

‘먹어불다’는 제주시(濟州市)와 조천(朝天),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서부 지역에 분포하며, ‘먹어비다’는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와 도서 지역인 우도(牛島), 동남 지역인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에 나타난다. 동서를 가르는 등어선이다.<sup>106)</sup>

② **헤머리다**(언어지도 160)

앞 항목과 마찬가지로 보조동사 ‘머리다’를 물어본 것이다. 이에 대한 방언형은 ‘헤불다, 허여불다, 헤비다’로 나타난다.

- ㉠ 헤불다
- ㉡ 허여불다
- ㉢ 헤비다

이 방언형들은 ‘헤불다’계열(헤불다, 허여불다)과 ‘헤비다’로 나뉘는데, 앞에서 본 ‘떡어버리다’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106) 강정희도 ‘-아/어 불다’에 대하여 “-아/-어 불다’는 제주도 안의 각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어미활용상을 보인다.”면서 “어미 활용의 차이에 따라서 제주방언을 다시 하위 방언권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정희,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8, 17쪽. 강정희는 또 「제주방언 혼성형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방언학』 10호, 2009, 한국방언학회)을 통하여 보조동사 ‘-불다’를 생태학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 Ⅲ 방언 구획과 방언 분화

#### 1. 방언 구획

방언 구획이란 어떤 지역을 몇 개의 방언권으로 나누는 일을 말한다. 최학근이 국어 방언을 경기도방언·강원도방언·황해도방언·충청도방언·평안도방언·경상도방언·전라도방언·함경도방언·제주도방언<sup>107)</sup> 등으로 나누는 것이라든지, 강원도방언을 영동·영서방언권으로 나누고 다시 영동방언권을 북단영동방언권·강릉방언권·삼척방언권·서남영동방언권<sup>108)</sup>으로 구획한 것이 곧 방언 구획이다.

이런 방언 구획은 ①등어선 다발의 두께, ②등어선의 등급, ③분포의 유형, ④언어적 거리 측정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①은 등어선 다발의 두께로, 곧 등어선의 수로 방언을 구획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사 지점이 많지 않거나 등어선 흐름이 단순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②는 등어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등급을 부여하여 방언을 구획하는 방법이다. 어휘·발음·음성·음운·형태·통사·의미 등 등어선에 따라 차등 등급을 부여하고 등어선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①과 ②는 등어선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같으나 균일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다른 등급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른 방법이다.

③은 방언형들의 분포 양상에 의해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다. 분포의 유형을 a/b, ab/a, ab/ac, a/∅으로 나누고 방언을 구획하는 일이다. ④는 이웃하는 지점과 차이는 항목의 수를 헤아려 조사 항목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방언 구획을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성낙수(1992)가 제주도방언에 이용한 방법이 ④의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①의 방법으로 小倉進平(1924) 이래로 河野六朗(1945), 최학근(1959), 이송녕(1967), 김공철(1977), 김형규(1982), 김영황(1982), 김병제(1988) 등이 ‘제주도방언’으로 구획한 제주도방언을 몇 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하려고 한다.

#### 1) 방언 분화의 지리적 유형

제주도방언 분화의 지리적 유형은 동서형·남북형·복합형으로 나뉜다. 동서형

107) 최학근, 『국어방언학서설』, 정연사, 1959, 179~180쪽.

108) 이익섭,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209쪽.



은 등어선이 남북으로 흘러 동서를 가르는 등어선이 있는 유형이며, 남북형은 등어선이 동서로 흘러 남북을 가르는 등어선이 있는 유형을 말한다. 곧 동서형은 아래 지도의 산북 지역의 ㉠~㉡와 산남 지역의 ㉢~㉣이 이어지는 등어선을 말하며, 남북형은 지도의 왼쪽에 위치하는 ㉤와 오른쪽의 ㉥중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 등어선을 말한다. 동서형의 등어선은 산북 지역에서만 남북으로 흐르거나, 산남 지역에서만 남북으로 흐르기도 한다. 복합형은 동서형과 남북형이 겹쳐진 유형이다.



<지도 4> 제주도방언 등어선

(1) 동서형(70개 항목)

동서형은 등어선이 남북으로 흘러서 방언 분화형이 동서 차이를 보이는 유형이다. 어휘 언어지도 155개 중 70개 조사 항목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는 하나의 등어선이 동서를 가르는 경우가 42개 항목으로 가장 많다. 동서를 가르는 하나의 등어선은 고려시대부터 대촌현(大村縣)이었던 제주시 경계의 좌우, 즉 ㉠과 ㉡를 끼고 흐르는 것이 많다. 이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 이동하거나 서쪽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 동서형 분화 항목(괄호 안의 숫자는 언어 지도 번호임.)

산북	산남	조 사 항 목(지도번호)	비고
①	㉠	시루떡(020), 대님(034), 조문(055), 채채기(077), 들들(086), 베도라치(119), 툫(143), 빨리(158)	8개
	㉡	죽젓개(026), 잠방이(031), 비루(076), 구지뽕나무(124)	4개
	㉢	밥주걱(025), 망사리(046)	2개
	㉣	옹달술(027), 콩계(044), 고무래(045)	3개
	㉤	장아찌(024)	1개
	㉥	밭땀기(009), 저녁(094), 개구리(095)	3개
②	㉦	큰구덕(053), 방귀쟁이(067), 트림(081), 양감질(084), 참새(107), 으름(133)	6개
	㉧	옷감(029), 메뚜기(101)	2개
	㉨	부스럼(075)	1개
	㉩	냉이(126)	1개
③	㉪	갱(017), 대장간(039), 박(135)	3개
④	㉫	이랑(012), 탕자나무(141)	2개
	㉬	먹어버리다(159)	1개
	㉭	쓸개(061)	1개
	㉮	떠바(157)	1개
⑤	㉯	고방(038)	1개
	㉺	마루(040)	1개

동서형 가운데는 둘 이상의 동서형 등어선으로 분화 양상을 보이는 항목도 있다. ‘골무(030), 도롱이(032), 매듭단추(035), 썰기(050), 코흘리개(072), 예덕나무(140), 헤버리다(160)’ 등 7개 항목이 그것들이다.

또 동서형 유형 가운데는 산북 지역만 동서로 가르거나 산남 지역만 동서로 가르는 등어선도 존재한다. 산북 지역에서는 ‘가루(015), 밭목(066), 땀띠(073)’가 그 경우이고, 산남 지역에서는 ‘수제비(019), 원손잡이(069), 귀뚜라미(098), 모자반(142)’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원손잡이’는 산남 지역에서만 세 개의 등어선으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북은 하나의 등어선, 산남은 두 개의 등어선으로 가르는 어휘는 ‘재(010), 종다래끼(052), 울챙이(096), 거북손(113)’ 등이며, 그 반대로 산북은 두 개의 등어선, 산남은 하나의 등어선을 형성하는 어휘는 ‘연싸움(085), 소라게(111), 메밀(132), 제비꽃(134), 멀구슬나무(138)’ 등이다. 보다 복잡한 동서 등어선은 ‘새끼(011), 멜빵(036), 파리(125), 반하(130), 가져오다(144), 팔짱끼다(152)’ 등이다.

(2) 남북형(29개 항목)

남북형은 등어선이 동서로 흐름으로써 방언 분화를 남북으로 보이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동쪽과 서쪽에 자리하는 ㉠, ㉡ 지점을 통과하거나 ㉠ ㉡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이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등어선이 동서로 흘러 남북의 분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북형의 항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 남북형 분화 항목

좌우	남북	조 사 항 목(지도번호)	비고
㉠-㉡		마갈이(007), 콩나물(023), 깃저고리(079), 섬마(080), 도사리다(145), 끼이다(150)	6개
㉠	①	경그레(022), 남방울타리고등(115)	2개
	②	매끼(008)	1개
	③	파(127)	1개
	④	회오리바람(090)	1개
	⑤	허수아비(014), 종지뻬(064)	2개
㉡	㉢	바랭이(129)	1개
	㉣	김치(018)	1개
㉢	①	안개(087)	1개
㉡	㉣	벽장(041)	1개
	㉤	짚동(054), 흥역(074), 쥐(106), 게(112)	4개
	㉥	버마재비(105)	1개
	㉦	겨드랑이(058)	1개

이 남북형 가운데는 ㉠과 ㉡ 2개의 남북형의 등어선이 겹쳐 흐르는 항목도 있다. ‘빙떡(021), 화승(051), 자위(057), 무지개(088), 바구미(103), 청미래덩굴(136)’ 등이다. 이 가운데 ‘화승’과 ‘무지개’는 산북 지역을 셋으로 나누며, ‘청미래덩굴’은 산남을 셋으로 나누는 등어선을 형성하고 있다. ‘빙떡, 자위, 바구미’ 등은 등어선이 산북 지역과 산남 지역을 고루 흐르고 있는 경우다.

(3) 복합형(56개 항목)

이 복합형은 동서형과 남북형이 합쳐진 유형이다. 남북형의 ㉠과 동서형이 겹치는 경우와 남북형의 ㉡와 동서형이 겹치는 경우 그리고 ㉠, ㉡와 동서형이 겹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과 동서형이 겹치는 유형은 ‘농사(006), 품삯(013), 부젓가락(028), 물감(037), 장독대(042), 솔박(049), 무릎(065), 병어리(068), 그네(082), 잠자리(099), 모이주머니(108), 소라(117), 문어(118), 개똥참외(123), 새품(128), 뱀딸기(131), 들이켜다(146), (담)무너지다(148), 배따다(149), 가지런하다(153), 채수 좋다(156)’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㉔와 동서형이 겹치는 경우다. ‘간장(016), 두루마기(033), 정낭(043), 메호미(047), 부시(048), 상여꾼(056), 팔꿈치(059), 옆구리(060), 자개미(063), 좁제기(070), 코맹맹이(071), 숨바꼭질(086), 거품(091), 돌생기(092), 개똥벌레(097), 오줌통(099), 매미(100), 장구벌레(102), 방아깨비(104), 도마뱀(109), 민달팽이(110), 애기삿갓조개(116), 옥돔(120), 오분자기(122), 실거리나무(139), 뛰다(147), 쟁그리다(151), 눈부시다(155)’ 등이 그 어휘들이다.

셋째 유형인 ㉕, ㉖와 동서형이 겹치는 경우는 ‘간지럽다(054), 주근깨(078), 싸라기눈(089), 찰흙(093), 눈알고둥(114), 해파리(121), 짙레나무(137)’ 등의 어휘가 여기에 속한다.

이 복합형 가운데는 ‘팔꿈치, 해파리’처럼 아주 복잡한 등어선을 형성하는 어휘도 있다.

## 2) 방언 분화의 양상

제주도방언의 분화 양상은 등어선을 보여주고, 그 등어선으로 하여금 방언 구획을 하는 준거를 보이기 위함이다. 분화 양상은 동서 분화형과 남북 분화형이 있다.

동서형 70개 항목과 복합형 56개 항목의 동서 분화형의 등어선 묶음을 통계 수치로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표 7> 동서 분화형 등어선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등어선	79	40	28	33	24	
구분	㉗	㉘	㉙	㉚	㉛	㉜
등어선	49	47	41	29	32	24

<표 7>에 따르면 산북 지역에서는 ①번 등어선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이 ②번 등어선이다. 이는 제주시의 좌우 경계를 끼고 흐르는 등어선이다. 한편 산남 지역에서는 ㉗등어선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이 ㉘등어선이다. 이는 중문의 좌우 경계를 끼고 흐르는 등어선이다. 이로 볼 때 동서의 대표적인 등어선속은 산북 지역의 ①등어선과 산남 지역의 ㉗등어선이 동서를 가르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고려 시대 동서도현(東西道縣) 설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 ‘건치연혁’에 따르면, ‘동서도현’ 설치는 충렬왕 26년(1300)의 일이다. 그 당시 설치된 현촌은 귀일, 고내 애월, 광지, 귀덕, 명월, 신촌, 함덕, 김녕, 호촌, 홍로, 예래, 산방, 차귀 등지였다.<sup>109)</sup> 동서도현은 태종 16년

(1416)까지 이어지는데, 『태종실록』 태종 16년 5월 6일 丁酉 기사에 삼읍을 건의하는 내용이 보인다.

“원컨대 이제부터 본읍에는 동도의 신촌현 함덕현 김녕현과 서도의 귀일현 고내현 애월현 광지현 귀덕현 명월현을 소속시키고 동도의 현감은 정의현으로서 본읍을 삼아 토산현 호아현 홍로현 등 3현을 소속시키고, 서도의 현감은 대정현으로서 본읍을 삼아 예래현 차귀현 등 2현을 소속시키되……”110)

위의 기사로 볼 때 ‘동서도현’은 <제주도 언어지도 003 동서도현도>와 같다. 116년 동안의 동서도현 행정 체제가 동서를 가르는 등어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또 남북 분화형 29개 항목과 복합형 56개 항목의 남북 등어선 묶음을 통계 수치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표 8> 남북 분화형 등어선속

구분	㉠-㉡	㉠-㉢	㉠-㉣	㉠-㉤	㉠-㉥	㉠-㉦
등어선	6	2	1	1	1	2
구분	㉡-㉢	㉡-㉣	㉡-㉤	㉡-㉥	㉡-㉦	
등어선	-	1	-	-	1	-
구분	㉢-㉣	㉢-㉤	㉢-㉥	㉢-㉦		
등어선	1	-	-	-	-	-
구분	㉣-㉤	㉣-㉥	㉣-㉦			
등어선	1	4	1	-	-	1

이를 바탕으로 동서로 흐르는 등어선을 측정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동서 구간별 등어선속

구간	㉠-㉡	㉡-㉢	㉢-㉣	㉣-㉤	㉤-㉥	㉥-㉦	㉦-㉧	㉧-㉨	㉨-㉩	㉩-㉪
등어선	43	36	32	38	38	34	37	39	45	56

109) 이원진, 『탐라지』 건치 연혁 참조. 庚子設東西道縣-縣村卽貴日高內涯月郭支歸德明月新村威德金寧狐村洪爐猓來山房遮歸等地也.

110) 『태종실록』 태종 16년 5월 6일 丁酉 기사 내용 중 ‘願自今本邑則屬以東道新村縣 威德縣 金寧縣 西道貴日縣 高內縣 涯月縣 郭支縣 歸德縣 明月縣 東道縣監以旌義縣爲本邑 屬以免山縣 狐兒縣 洪爐縣等三縣 西道縣監以大靜縣爲本邑 屬以猓來縣 遮歸縣等二縣’ 참조.

동서로 흐르는 ㉗-㉙ 등어선은 32부터 56까지 있으며, 그 평균값은 40.5로, ㉑ 등어선과 ㉗ 등어선 다음으로 두껍다. 이는 동서를 가르는 등어선 다음으로 남북을 가르는 등어선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태종 16년(1416)부터 시행된 제주목·대정현·정의현 삼읍 행정 체제가 1914년 행정 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498년 동안 지속되어 그 영향이 남북 분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산남 지역의 대정현과 정의현은 동서도현 당시 산남 지역을 가르는 경계와 일치한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토대로 동서를 가르는 등어선과 남북을 가르는 등어선을 포개어 보면 결국 제주도방언은 <제주도 언어지도 005 하위 방언 구획도>와 같이, 제주도 동북방언·제주도 동남방언·제주도 서북방언·제주도 서남방언 등 4개의 하위 방언 권으로 구획할 수 있다. 그 지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주도 동북방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
- ② 제주도 서북방언: 제주시(濟州市)·애월(涯月)·한림(翰林)·비양도(飛揚島)·한경(翰京)
- ③ 제주도 동남방언: 서귀포(西歸浦)·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
- ④ 제주도 서남방언: 중문(中文)·안덕(安德)·대정(大靜)·가파도(加波島)·마라도(馬羅島)

## 2. '큰섬'과 '작은섬'의 방언 분화

여기서 '큰섬'은 제주도를 가리키며, '작은섬'은 유인도인 우도(牛島)를 비롯하여 비양도(飛揚島)·마라도(馬羅島)·가파도(加波島)를 말한다. 마라도(馬羅島)는 가파도(加波島)와 바로 이웃한 곳에 있어서 조사 결과도 같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조사 지점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작은섬'의 언어는 <제주도 언어지도 001 제주도 행정구역과 도서>에서 보듯이 마라도(馬羅島)를 제외한 우도(牛島)·비양도(飛揚島)·가파도(加波島)의 언어를 말한다.

우도(牛島)는 동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성산포항에서 3.8km 떨어져 있다. 도항선으로 15분이면 들어갈 수 있다. 북향사면에 곰솔 군락이 형성된 것 이외에는 숲이 없고 섬 전체가 목야지 또는 경작지로 되어 있다.<sup>111)</sup> 반농반어 생활을 하고 있다. 1986년 구좌읍(舊左邑) 연평리(演坪里)에서 우도면(牛島面)으로 승격하였다.

비양도(飛揚島)는 한림항에서 도항선으로 15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은 한림읍 협재리에 속한다. 예전에는 반농반어 생활을 하였으나 지금은

111) 우도지편찬위원회, 『우도지』, 1996, 57~58쪽.



농사를 짓지 않고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다. 비양나무자생지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가파도(加波島)는 모슬포항에서 5.5km 떨어진 섬으로, 도항선으로 30분 소요된다. 행정 구역상 대정읍 가파리에 속한다.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경작지가 있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다.

김석익(金錫翼)의 『耽羅紀年』에 따르면, 우도(牛島)와 가파도(加波島)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42년의 일이다. “백성들이 우도와 가파도에 들어가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보다 먼저 우도에 말을 풀어놓고 가파도에는 소를 방목하여 공진에 대비할 것을 계청하였다. 마소를 인근 목장으로 내몰고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짓고 사복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다.”<sup>112)</sup>는 기사는 우도와 가파도에 사람이 살기 이전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160여 년 전에 ‘큰섬’인 제주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작은섬’에서 농경사회를 이루어 생활을 시작했다면 ‘작은섬’의 언어가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섬’의 언어는 바다라는 자연 조건을 사이에 두고 ‘큰섬’과는 다른 방언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언어지도를 작성한 155개 어휘 가운데 ‘큰섬’과 ‘작은섬’의 다른 분화를 보여주는 예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큰섬’과 ‘작은섬’의 분화 양상(조사 항목 숫자는 언어지도 번호임)

조사 항목	큰섬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매끼(008)	깨, 무생이	깨	깨미, 꿩미	무생이
골무(030)	골미, 손골미, 골매, 손골매, 골무	골미	손도매	손꼬매
대님(034)	다님, 다림, 대림	다름	다림	독다림
매듭단추(035)	별ㅁ작, ㅁ작단추, 못인단추, 돌마기, 돌매기	별ㅁ작	돌매기	속곶궤 속곶ㅁ작
꿩계(044)	섬비, 섬피, 슬피, 꼬실퀴, 꼬서퀴, 꼬설퀴	꾸지계	섬비	솔기 꼬슴솔기
췌기(050)	세, 세기, 세간, 세역, 세감, 췌기	세기	고지	세감
상여꾼(056)	상뒤꾼, 상예꾼, 행상꾼, 운상꾼, 동네꾼, 역스꾼, 제꾼	행상꾼 역스꾼	유대근 상두꾼	운상꾼 역부
팔꿈치(059)	폴고비, 폴꿈치	폴고비	폴꼭지	폴꿈치
코맹맹이(071)	코마구리, 코막쟁이, 코막사니, 코막세기, 코막쉬	코마구리	코맹맹이	코매기

112) 『耽羅紀年』 卷之四, 106쪽 참조. 許民入耕于牛島及加波島先是放馬于牛島放牛于加波島以備進貢至是啓請竝驅出之放于附近牧場令民墾納稅于司僕寺.

코흘리개(072)	코흘제기, 코흘제기, 코흘레기, 코폴레기, 코필레기	코흘제기	코폴레	코흘레기
부스럼(075)	부스럼, 부시럼, 부스럼지	부시럼	부으레미	부스레미
찰흙(093)	촌혹, 촌혹, 촌낙	촌역	촌혁	촌학
잠자리(099)	밥주리, 밥주어리, 밤부리, 존자리, 물자리, 산태	찰	밤부리	밥주리
장구벌레(102)	장쿨레비, 장쿨레비, 고노리, 고누리, 경베리	물증성	장쿨레비	장쿨레비
모래주머니(108)	멀떡, 멀터거니, 멀터쟁이, 몰터거니, 몰태강이	명팅구리	먹통	명팅거리
도마뱀(109)	독다귀, 독다구리, 장쿨레비, 장갈레비, 장쿨레비	장쿨레비	독달귀	독달기
소라(117)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	고동	구쟁기	구제기
개똥찰외(123)	갈자귀, 갈제귀, 갈장귀, 간질귀, 간잘귀, 간질기, 간질미, 간잘미, 간질레기	반갈귀 간잘귀	갈자귀 갈가구	간잘귀
새품(128)	미뻬쟁이, 미뻬쟁이, 미구쟁이, 미우쟁이, 어욱고장	어욱뻬이	어욱꽃	어욱뻬이
제비꽃(134)	물싸움고장, 물코장, 아진베기, 아진베기꽃	쫄게풀 쫄게꽃		아진베기쿨
도사리다(145)	복쉬데우다, 사리다, 웨사리다, 스리다, 스려앗다	양반청앗다 양반치다	양반다리흐다	사려앗다 복쉬데우다
배따다(149)	베카다, 베갈르다, 베브르다, 베블르다, 베르싸다, 페쓰다, 베벨르다	등타다 등탕페쓰다	베카다	베카다

위의 표에서 살핀 바와 같이, ‘큰섬’과 다른 분화형을 보여주는 어휘는 <제주도 언어지도>가 그려진 155개 항목 가운데 14.2%인 2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14.2%는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큰섬’과 ‘작은섬’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큰섬’의 언어와 다른 분화형 가운데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113)가 있어 더욱 그렇게 판단된다.

다른 하나는, ‘작은섬’ 지역의 제보자들이 조사 항목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다. 이 점도 ‘작은섬’의 언어를 다르게 취급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 항목은 주로 동·식물에 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우도(牛島)에서는 ‘으름, 찢레나무, 실거리나무, 예덕나무, 탕자나무’ 등을 조사할 수 없었고, 가파도(加波島)에서는 ‘뱀딸기, 찢레나무, 으름, 청미래덩굴, 멀구슬나무, 탕자나무, 예덕나무’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 또 비양도(飛揚島)에서는 ‘구실жат나무, 반하, 제비꽃, 예덕나무’ 등을 조사할 수

113) 도표 안의 붉은 글씨 참고.

없었다. 반대로 ‘큰섬’ 가운데 중산간<sup>114)</sup> 지역인 애월(涯月) 봉성(鳳城)과 표선(表善) 가지(加時) 등지에서는 바다 동물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생활 환경이 다른 데서 오는 현상이다.

한편 언어지도를 작성한 어휘 가운데 ‘작은섬’의 특이한 어형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끼’의 분화형으로 나타난 비양도(飛揚島)의 ‘께미, 궤미’는 ‘께’와 ‘무생이’의 합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물건을 궤는 데 쓰는 끈’에 해당하는 ‘궤미’의 방언형으로 보인다. 끈 ‘궤미’가 ‘매끼’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골무’의 방언형 ‘손도매’(飛揚島)와 ‘손꼬매’(加波島)도 특이한 어형인데, ‘손도매’는 일본어가 결합한 형태다. ‘대님’의 분화형 ‘독다림’(加波島)은 그 형태가 지닌 의미로 본다면 ‘행전’(行纏)의 방언으로 보인다. ‘독다림’의 ‘독’이 무릎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꽁게’의 분화형 ‘푸지게’는 문헌어 ‘푸지게’(새 사냥꾼이 풀이나 나무로 엮어 제 몸을 감추는 기구)와 같은데, 이는 꽁게의 모양에서 연유한 이름으로 보이나(제2장 ‘꽁게’항 참조), 가파도의 ‘술기’나 ‘끄슴술기’의 ‘술기’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끄슴술기’의 ‘끄슴’은 ‘끗다’의 명사형어미가 연결된 것이다.

‘풀꼭지’(팔꿈치)는 {풀+꼭지} 구성으로, ‘꼭지’는 ‘꼭지’의 방언형이며, ‘코매기’는 ‘코막다’에서, ‘코풀레’는 ‘코풀다’에서 파생한 분화형들이다.

‘촌역’은 ‘ㅎ’이 탈락된 어형이며, ‘잘’은 ‘자리’의 말음모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물즙싱·떡통’은 각각 조사 항목의 의미를 구체화한 이름들이며, ‘고동’은 ‘고둥’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소라’에 적용된 명칭으로 보인다. 이 ‘고동’은 동북 지역에만 분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잘귀’는 ‘갈자귀, 갈자구, 간잘귀’ 등과는 다른 어형이다.

‘어욱뽕이, 어욱끗’, ‘쓸게풀, 쓸게끗, 아진베기쿨’은 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사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며, ‘양반경앗다, 양반치다, 양반다리흐다’ 등은 ‘양반다리’에서 유래한 어휘다.

‘배따다’의 분화형 ‘등타다, 등탕페쓰다’는 생선의 내장을 배를 가르지 않고 등을 따서 꺼내다는 의미다. 제보자에 따르면, 생선의 내장을 꺼낼 때는 배쪽보다는 등쪽으로 따야 생선이 크게 보인다고 한다.

이밖에도 언어지도가 그려지지 않은 조사 어휘 가운데서도 특이 어형이 나타나 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장’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큰섬’에서는 ‘장물’과 ‘물장’이 나타나는데 반해 우도(牛島)에서는 ‘근장’이 나타나고, ‘찌꺼기’에 해당하는

114) 중산간은 ‘중간 지대’와 ‘산간 지대’가 합쳐서 만들어진 造語로서 독립적으로 완전한 용어가 아니다. 일반 인에게는 낯 것 그대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란 의미로도 받아들여지지만, 행정에서는 대체로 ‘개발 용어’로 바꿔 쓰고 있다. 대개 표고 200~600m 사이의 지역으로, 그곳에 위치한 마을을 ‘중산간 마을’이라고 부른다. 김순자(2004), 앞의 논문, 52~53쪽 참조.

‘큰섬’의 방언형은 ‘주시, 주생이, 주생기’가 나타나는데, 가파도(加波島)에서는 ‘무께’가 출현한다. 분화형 ‘주생이’는 {주시+-앵이}, ‘무께’(加波島)는 {목(久)-+-께} 구성으로 보인다. ‘호미’에 해당하는 방언을 ‘큰섬’에서는 ‘굴갱이’가 나타나는데 반하여 ‘작은섬’인 우도(牛島)와 가파도(加波島)에서는 ‘굴각지’가 출현한다. ‘호미’의 분화형 ‘굴각지’는 그 모양이 ‘굴갱이’와 비슷하나 그 기능은 다르다. 곧 ‘굴갱이’가 김매는 도구라고 한다면 ‘굴각지’는 바위 틈에 있는 성계나 소라, 오분자기를 끄집어 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즉 호미의 스텔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긴 도구를 말한다. ‘궂-+-앵이’에서 ‘굴갱이’가, ‘궂-+-악지’에서 ‘굴각지’가 파생하여 접미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결국 ‘굴갱이’는 육지에서 김매는 도구이고, ‘굴각지’는 바다에서 성계나 소라를 끄집어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비양도에서는 육지에서 김매는 호미를 ‘웨굴갱이’, 바다에서 해초 따위를 썰 때 사용하는 도구를 ‘바룻굴갱이’라고 구분하였다.

또 ‘잠보’에 해당하는 방언은 ‘큰섬’에서 ‘좁푸대, 좁꾸레기, 좁무챙이, 좁충이’ 등 ‘잠’에 대응하는 ‘좁’이 합성된 어형으로 나타나는데, 가파도(加波島)에서는 특이 어형인 ‘굴꾸리’가 조사되었다. ‘굴꾸리’는 ‘올빼미’에 대응하는 가파도(加波島)의 방언으로, ‘올빼미’가 잠자는 모습을 잠꾸러기에 비유하여 사용하는 어휘이다. ‘풍덩이’의 방언형은 ‘두메기, 두무에기, 두미에기, 둠베기, 둠비에기’가 출현하는데, 우도(牛島)에서는 ‘새각시’라는 특이 어형이 나타났다. ‘새각시’는 표준어 ‘신부’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으로, ‘풍덩이’의 등 색깔이 반짝거리고 화려해서 ‘새각시’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큰섬’과 ‘작은섬’의 언어 분화가 다른 경우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다른 데서 생기는 언어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분화는 물론이고 인지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 3. 인상적 방언 분화

인상적 방언 분화는 언중 의식 속의 방언 구획과 방언 경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sup>115)</sup> 이 연구는 김덕호의 “제보자의 심리 속에

115) 토착 화자의 언어 의식을 토대로 방언을 연구한 선행 업적으로는 프레스톤(D. R. Preton)이 있다. 그리고 재외 한국인의 모국어에 대한 언어 의식을 연구한 任榮哲(1992)이 있고, 이상규(1995:133)에서 이미지 지도(image map)지도라는 용어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책, 238쪽 재인용. 여기에 김덕호(1992)가 『경북방언의 언어지리학』에서 토박이 화자의 직관에 의해 인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방언 경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상적 등어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한편 인상적 등어선의 실재를 확인해 보여주면서 인상적 등어선들의 설정은 방언 구획을 시도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증명하여 보여주었다.

내재된 방언권 인지 능력, 즉, 방언 경계를 인식하는 방언권 인지 능력, 즉 방언 경계를 인식하는 능력에 착안하여 새로운 등어선을 설정하고자 한다.”<sup>116)</sup>는 입장을 원용한다.

여기에서는 언중들의 직관을 통하여 그어진 ‘인상적 방언 분화’와 실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방언 분화가 어떻게 그어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언어지리학적 연구에 인상적 방언 구획이 왜 필요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인상적 등어선의 설정은 방언 구획을 시도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sup>117)</sup>할 수 있어 중요하다.

언중들의 인상적 방언 분화는 ‘우리 고장말은 어디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방언 구획)와 ‘이 고장의 방언 경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방언 경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실제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1)언중 심리 속에 내재된 방언 구획을 알아본 후 2)경계 지점의 언중들의 방언 구획과 3)언중들의 심리 속에 내재된 방언 경계를 알아볼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4)언중 의식 속의 방언 구획과 실제 조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언중들의 심리 속에 내재된 인상적 방언 분화가 실제 조사에 의해서 확정되는 방언 구획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상적 방언 구획이 왜 중요한 지를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 도서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와 가파도(加波島)를 제외한 14개 조사 지점의 언중들은 제주도방언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등어선을 확정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 삼읍 체제의 제주목(濟州牧)·대정현(大靜縣)·정의현(旌義縣)을 방언 경계로 인식하고 있다.

14개 조사 지점을 삼읍 체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 제주시, 조천, 구좌, 우도, 애월, 한림, 한경

정의현: 서귀포, 남원, 표선, 성산

대정현: 대정, 안덕, 중문

#### 1) 언중 심리 속에 내재된 방언 구획

먼저 제주목 관내 언중들의 심리 속에 내재된 방언 구획을 보자. 제주목의 중심지인 제주시(濟州市)에서는 “정의 말<sup>118)</sup>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

116) 김덕호, 『경북 방언의 언어지리학』, 월인, 2001, 237쪽.

117) 위의 책, 243쪽.



에서 ‘정의’는 서귀포, 남원, 표선, 성산 지역을 말한다. 또 조천(朝天)에서는 서쪽 말과 대정(大靜)말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쪽 말’은 제주 서부 지역인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을 일컫는 말이고, 대정(大靜)은 삼읍 당시의 대정현 지역을 말한다. 구좌(舊左)에서는 정의(旌義)와 대정(大靜)말과 다르고, 우도(牛島)는 “북군 말광 남군 말광 땀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제주군<sup>119)</sup> 지역에 속해 있는우도(牛島)의 말은 옛 제주목 지역으로 옛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 지역에 해당하는 남제주군<sup>120)</sup> 말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제주시 서쪽인 애월(涯月)과 한림(翰林)·한경(翰京)에서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제주시 인접 지역인 애월(涯月)은 자신들의 말은 “남군(南郡) 말 즉, 대정(大靜) 말과 정의(旌義) 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주 서북부 지역의 가장 끝에 위치한 한경(翰京)은 “정의(旌義)말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춘하고 서춘 말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춘’은 동쪽 지역으로 제주시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구좌(舊左) 지역을 가리켜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 지역으로 나뉘 언어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현(旌義縣)은 한라산 남쪽 중앙인 서귀(西歸)와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 언중들은 대체적으로 “모관과 대정(大靜) 말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모관[牧內]은 제주목이 있던 제주시를 가리키는 말이고, 대정(大靜)은 한라산 남서부 지역인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을 말한다. 남원(南元)은 대정(大靜)과 제주목(濟州牧)의 맨 끝 지역인 한경(翰京)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고, 제주목과 정의현의 경계인 성산(城山)에서는 제주목과 대정(大靜)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라산 남서부 지역인 대정현(大靜縣) 지역의 안덕(安德)·중문(中文)은 “정의(旌義)와 모관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제주목과 접경 지대인 대정(大靜)에서는 정의(旌義)와는 다르나 모관과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2) 경계 지점의 언중들의 방언 구획

14개 조사 지점 가운데 삼읍 체제 안에서의 경계 지점은 제주목과 정의현 경계인구좌(舊左)와 성산(城山), 정의현과 대정현 경계인 서귀(西歸)와 중문(中文),

118) 여기에서 ‘정의 말’은 조선시대 삼읍 체제인 정의현이 소속된 성산(城山)·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다.

119) 북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의 행정 체제의 하나. 북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제주시에 편입되었다.

120) 남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의 행정 체제의 하나. 북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제주시에 편입되었다.



대정현과 제주목 경계인 대정(大靜)과 한경(翰京) 등 6개 지점이다. 이들 6개 지점의 언중들의 의식이야말로 언중들의 방언 구획을 삼음 체제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제주목 소속인 구좌(舊左)는 정의현 시작점인 성산(城山) 서쪽부터 대정(大靜)까지 말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대정(大靜)과는 언어 차이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좌(舊左) 지역의 세화(細和)에서는 ‘여자’라는 의미로 ‘예펜’이 쓰이는데, 인근 성산(城山)에서는 ‘여청’을 쓴다는 것이다. 이는 구좌(舊左)는 제주목(濟州牧)이며, 성산(城山)은 정의현(旌義縣)으로, 제주목(濟州牧)과 정의현(旌義縣)이 언어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다.

성산(城山)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주목(濟州牧)과 정의현(旌義縣)의 경계 지점인 성산(城山)은 경계 지점에 위치한 제주목(濟州牧)의 말과는 다르지만 대정(大靜)과 경계 지점인 서귀(西歸)의 말과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대정(大靜)의 말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의현과 대정현 경계 지역인 서귀(西歸)와 중문(中文), 대정현(大靜)과 제주목(濟州牧) 경계 지점인 대정(大靜)과 한경(翰京)에서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의 소속인 서귀(西歸)는 인근 지역인 대정현(大靜縣)에 속한 중문면(中文面) 하원(河源)·중문(中文)·예래(猊禮)와 말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예로, ‘조문(弔問)가다’는 서귀(西歸) 서흥(西烘)에서는 ‘고견(顧見)가다’라고 하는데, 중문(中文) 예래(猊禮)에서는 ‘고의(顧-)가다’<sup>121)</sup>라고 한다는 것이다.

대정현 소속의 중문은 인접한 정의 지역의 서귀포와 말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중문(中文)에서는 ‘이랑’을 ‘고지’라고 하는 반면 서귀(西歸)에서는 ‘파니’라고 하고, ‘(담) 무너지다’를 중문(中文)에서 ‘(담)넝크러지다’라고 하는데 서귀(西歸)에서는 ‘(담)커지다’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정현(大靜縣) 소속인 대정(大靜)은 “모관하고 비슷하고 정의(旌義) 말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제주목(濟州牧) 소속 한경(翰京)에서는 경계 지점인 대정과는 언어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경(翰京)에서는 밭의 이랑을 ‘고지’라고 부르지만 대정(大靜)에서는 ‘파니’라고 불러 언어 차이를 느끼고 있다. 지역별로 본 언중들의 방언 구획 의식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1) 여기에서 ‘고견(顧見)’, ‘고의(顧-)’는 한자어에서 온 말로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가에 가서 상주(喪主)를 위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지역별로 본 언중 심리 속의 방언 구획

구분	조사지점	언중 심리 속의 방언 구획(어디와 다른가)
제주목	제주시	대정 말 <sup>122</sup> 과 정의 말도 다르다. 남군 말과 다르다.
	조천	대정 말과 다르다. 서쪽 말과도 다르다.
	구좌	정의 말과 다르다. 대정 말과도 다르다.
	우도	남군 말과 다르다.
	애월	대정 말과 다르다. 정의 말과도 다르다. 남군 말과 다르다.
	한림	대정 말과 다르다. 정의 말과도 다르다.
	한경	정의 말하고 다르다.
정의	서귀포	대정 말하고 다르다.
	남원	대정 말하고 다르다.
	표선	대정 말하고 다르다.
	성산	모관 <sup>123</sup> 하고 다르다.
대정	중문	정의하고 다르다. 모관하고도 다르다.
	안덕	정의 말하고 다르다. 모관 말 <sup>124</sup> 도 다르다.
	대정	정의 말하고 다르다. 모관하고는 비슷하다.

### 3) 언중들의 심리 속에 내재된 방언 경계

여기에서 ‘방언 경계’라 함은 같은 권역 안에서 언중들이 방언 차를 느끼는 그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방언 구획과는 다른 의미로 쓴다. 즉 언중들은 방언의 차를 삼읍 체제로 구획하면서도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언어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는 말이다. 제주목(濟州牧)은 한라산 북쪽 지역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북에는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가, 서북에는 애월(涯月)·한림(翰林)·한경(翰京)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언중들은 크게는 언어가 비슷하면서도 읍면에 따라 언어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濟州市)에서는 동쪽으로는 인접한 조천(朝天)부터, 서쪽으로는 애월(涯月)·한림(翰林)과 언어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언어 분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조천(朝天)에서도 동쪽으로는 구좌(舊左), 서쪽으로는 제주시(濟州市)로 넘어가면서 언어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중문(中文)에서는 같은 대정현(大靜縣) 지역인 중문(中文)과 대정(大靜)의 말도

122) 여기에서 ‘대정 말’은 조선시대 삼읍 체제인 대정현(大靜縣)이 소속된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다.

123) 여기에서 ‘모관’은 언중들이 제주목(濟州牧)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다.

124) 여기에서 ‘모관 말’은 조선시대 삼읍 체제인 제주목(濟州牧)에서 사용하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다.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고 있고, 정의(旌義) 지역인 표선(表善)에서는 제주목 구좌(舊左)와 서쪽으로 정의 지역인 남원(南元)까지는 말이 같지만 그 이후인 서귀포의 말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읍면에 따라서도 언어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목 맨 서쪽 지역인 한경(翰京)에서는 “동춘하고 서춘 말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춘’은 조천(朝天)·구좌(舊左)·성산(城山) 지역으로, 제주목의 언어도 제주시(濟州市) 동북쪽인 조천(朝天) 이후부터는 언어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하면 한 지역 안에서도 언어 분화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 제주목 지역의 하나인 한림(翰林)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동쪽에 이웃한 애월(涯月)과는 언어가 같지만, 같은 읍 지역이면서도 서쪽에 이웃한 협재(狹才)와는 언어차이가 느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리돔’을 한림(翰林)에서는 ‘자리’라고 부르는데 반해 인근 협재(狹才)에서는 ‘재리’라고 부르고, ‘바늘’을 뜻하는 ‘바농’은 ‘베농’, ‘마농’은 ‘메농’이라고 불러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림(翰林)에서의 언중들의 인식은 협재(狹才)를 포함한 한림(翰林) 서쪽 지역 언어가 제주목 가운데서도 분화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표로 보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지역별로 본 언중 심리 속의 방언 경계

구분	조사지점	언중 심리 속의 방언 경계
제주목	제주시	동쪽으로 조천, 서쪽으로는 애월
	조천	구좌, 제주시
	구좌	성산
	우도	성산
	애월	대정, 정의
	한림	협재
	한경	동춘(조천), 대정
정의	서귀포	중문
	남원	대정, 한경
	표선	조천, 서귀
	성산	제주, 대정
대정	중문	서귀, 대정
	안덕	애월, 서귀포
	대정	서귀

이와함께 언중들은 또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는 언중들의 곧 자연 환경과 문화적인 특성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다.<sup>125)</sup>

#### 4) 언중 의식 속의 방언 구획과 실제 조사와의 비교

그렇다면 언중들의 심리 속에 내재된 방언 구획과 실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언어지도를 작성한 155개의 어휘를 통해 그 결과를 보면, 가장 말이 다른 경우는 대정(大靜) 말과 정의(旌義) 말이다. 전체 155개 어휘 가운데 54개의 어휘가 다르게 나타나 34.8%가 언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은 모관[牧內] 말과 정의(旌義) 말로 30.9%인 48개의 어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관 말과 대정말인 경우는 10.9%인 17개가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가장 어휘 차가 많은 곳은 대정과 정의이고, 그 다음은 모관과 정의이다. 모관과 대정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언중 의식 속의 방언 구획과 실제 조사와는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언중들의 심리 속에 내재된 인상적 방언 구획이 실제 조사 때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 주는 결과인 셈이다. 다음은 언어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다. (\*)는 이웃하는 지점과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는 어휘다.

##### (1) 모관 말과 정의 말이 다른 경우(48개)(괄호 안의 숫자는 언어지도 번호임)

마간이(007), 이랑(012), 김치(\*018), 수제비(\*019), 빙떡(021), 콩나물(023), 부젓가락(028), 잠방이(031), 벽장(041), 메호미(047), 화승(051), 짚동(054), 자위(\*057), 겨드랑이(\*058), 옆구리(060), 오줌통(062), 자개미(063), 왼손잡이(\*069), 코맹맹이(071), 마누라(074), 재채기(\*077), 주근깨(078), 깃저고리(079), 섬마(\*080), 그네(\*082), 무지개(\*088), 물거품(\*091), 찰흙(093), 잠자리(099), 매미(100), 장구벌레(102), 바구미(\*103), 방아깨비(\*104), 쥐(106), 도마뱀(\*109), 소라게(\*111), 눈알고둥(114), 애기삿갓조개(116), 오분자기(122), 찢레나무(\*137), 실거리나무(\*139), 탕자나무(\*141), 모자반(\*142), 도사리다(145), 배따다(149), 끼이다(150), 쟁그리다(151), 팔짱끼다(152)

##### (2) 모관 말과 대정 말이 다른 경우(17개)(괄호 안의 숫자는 언어지도 번호임)

마간이(007), 김치(\*018), 콩나물(\*023), 부젓가락(028), 도롱이(\*032), 화승(051), 왼손잡이(069), 깃저고리(079), 소라(117), 오분자기(\*122), 청미래덩굴(\*136), 찢레나무(\*137), 실거리나무(139), 도사리다(145), 배따다(\*149), 끼이다(\*150), 가지런하다(153)

##### (3) 정의말과 대정말이 다른 경우(54개)(괄호 안의 숫자는 언어지도 번호임)

125) 한경(翰京)의 제보자 이옥춘은 “동춘은 해 뜨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말이 괄고 으망지고, 해지는 곳에 사는 서쪽사람들은 말이 늘어지고 어질다. 한라산이 곱게 보이는 곳의 사람들은 어질고 산이 곱지 않고 강한 곳은 사람도 으망지다. 예월은 산이 곱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으망지다”<sup>1)</sup>고 생각하고 있다. ‘구좌 사름 앓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 속담은 서쪽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가 잘 반영된 결과다. 언중들은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는 지역민들의 성격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우도(牛島) 제보자의 “제주목(濟州牧) 사람은 뒤편지고(야무지고), 대정(大靜)·정의(旌義) 사람은 말이 느리고 늘어진다.”에서 확인된다.

이랑(012), 갯(017), 시루떡(020), 빙떡(021), 콩나물(\*023), 밥주걱(\*025), 골무(\*030), 도롱이(032), 대넙(\*034), 벽장(041), 장독대(\*042), 망사리(\*046), 뽕구덕(053), 주문(055), 자위(057), 오줌통(062), 자개미(063), 방귀쟁이(067), 병어리(\*068), 코맹맹이(\*071), 재채기(077), 트림(081), 숨바꼭질(\*083), 양감질(084), 들생기(\*092), 울챙이(096), 잠자리(\*099), 매미(\*100), 장구벌레(\*102), 버마재비(\*105), 참새(107), 도마뱀(109), 민달팽이(110), 소라게(\*111), 거북손(\*113), 소라(117), 문어(\*118), 베도라치(119), 오분자기(\*122), 개똥참외(123), 새품(128), 바랭이(\*129), 메밀(132), 으름(\*133), 박(135), 실거리나무(\*139), 예덕나무(140), 탕자나무(141), 모자반(142), 톳(143), (담)무너지다(148), 배따다(149), 찡그리다(151), 팔짱끼다(\*15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4개 지점의 언중들은 방언 구획을 제주목(濟州牧)·정의현(旌義縣)·대정현(大靜縣) 삼읍 체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언중 의식은 498년동안 이어온 조선시대 삼읍 체제가 언중들의 언어 구획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더욱이 실제 조사 결과에서 보듯, 정의 말과 대정 말이 가장 많은 언어 차이를 보이고, 모관 말과 정의 말이 그 다음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반면 모관 말과 대정 말은 그다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삼읍 체제 이전에 동서로 나뉜 동서도현도(언어지도 003 참조)로 나뉘었던 116년 간의 고려시대 행정 체제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 IV. 실제 시간에 따른 방언 변화

### 1. 실제 시간

‘실제 시간’(real time)이란 특정 방언의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비교하여 방언형의 변화 양상을 살필 때,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의 시간적 거리를 말한다. 이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세대간의 변화를 관찰하는 ‘현장 시간’(apparent time)과는 대조되는 방법이다. 여기서 과거 자료는 현평효(玄平孝)의 『제주도방언연구』(1962)를 말하며, 현재 자료는 필자가 이 연구를 위하여 조사한 자료(2010)이니 실제 시간은 50년에 가깝다. 이 50년 동안의 실제 시간의 거리를 두고 방언형의 변화를 살피는 게 된다.

현평효의 메모<sup>126)</sup>에 따르면 당시 현지 조사는 1956년 1월부터 1957년 12월까지와 1958년 12월에는 5일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1차 조사는 노형(老衡)·조천(朝天)·세화(細花)·수산(水山)·표선(表善)·태흥(泰興)·서흥(西烘)·하원(河源)·화순(和順)·인성(仁城)·조수(造水)·어도(於道) 등 12개 지점<sup>127)</sup>이며, 2차에서 5차까지의 조사는 노형(老衡)·김녕(金寧)·수산(水山)·가시(加時)·서흥(西烘)·인성(仁城)·조수(造水) 등 7개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언어지도가 그려진 155개 어휘 가운데 자료집에 제시되는 않은 ‘멜빵·화승·자위·밭목·바구미·민달팽이·거북손·눈알고둥·구지뽕나무·반하’와 ‘떡어버리다·해버리다·떠바’는 제외된다.

### 2. 변화의 양상과 유형: 현평효(玄平孝) 자료집과의 비교

• 농사(언어지도 00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sup>128)</sup>	2010년 출현 지점
용시	전 지역 <sup>129)</sup>	노형 조천 세화 수산 가시 태흥 하원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sup>130)</sup>
농스	전 지역	서흥 하원 인성 조수
농시	전 지역(회귀어)	태흥 조수

126) 여기에서 ‘메모’는 조사자인 현평효 선생님이 이용하던 자료집 메모를 말한다.

127) 조사 지점은 제주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이하 모두 같다.



자료집에서는 ‘용시, 농스, 농시’가 전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농스’를 제외한 ‘농시’는 남원(南元)과 한경(翰京)에 나타나고, ‘용시’는 제주시(濟州市)를 비롯하여 산북 지역과 동남 지역인 성산(城山), 표선(表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매끼(언어지도 00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깨	김녕 수산 가시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한경
깨미	-	비양도
깨미	-	비양도
무생이	노형 김녕 서흥 인성 조수	조수 한림 가파도 봉성
무세	노형 조수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깨’가 동부 지역인 구좌(舊左) 김녕(金寧)·성산(城山) 수산(水山)·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 점점 그 분포가 넓어지고 있으나, ‘무생이’는 그 출현 지역이 좁아지고 있다.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과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 조사된 ‘무세’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양도(飛揚島)에서는 ‘깨미, 깨미’가 조사되었다.

• 발땀기(언어지도 00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드르	노형 조수 어도	노형 조수 봉성
드르	-	봉성
드르갱이	노형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어도	노형 인성 조수 봉성
드르갱이	서흥 하원	비양도 가파도
들랭이	조천 세화 수산 태흥 어도	조천 세화 수산 태흥 서흥
들랭이	가시	우도 하원
드랭이	-	화순
토갱이	노형 수산 표선	가시
토강지	표선	-

128) 실제 조사는 195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으나 자료집은 1962년에 발간되었다. 여기서는 자료집의 발간 연도에 따라 1960년대에 출현하는 것으로 하였다.

129) 자료집에서는 ‘전역’으로 표시되었으나 여기서는 ‘전 지역’으로 표기한다.

130) 자료집의 조사 지점에서는 ‘어도’(於道)이나, 그 지명은 현재 봉성(鳳城)으로 바뀌었다. 자료집의 ‘어도’나 이번 조사 지점인 ‘봉성’은 같은 조사 지점이 된다.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드르갱이’ 또는 ‘드르갱이’로 나타나는 안덕(安德) 화순(和順), 중문(中文) 하원(河源), 서귀(西歸) 서흥(西烘)에서는 ‘들랭이 · 드랭이 · 들랭이’로 조사되었고, ‘토갱이’로 조사되었던 성산(城山) 수산(水山)과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은 각각 ‘들랭이’ ‘드르갱이’와 ‘드르’로 나타나고 있다.

• 재(언어지도 01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불치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하원 화순 인성 한림 봉성
불체	-	화순 인성 조수 가파도 한림 비양도
불청	-	한림
불깁	전 지역	가시 서흥 중문 가파도 한림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불치’와 ‘불깁’이 전 지역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그 분포 지역이 좁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체’와 ‘불청’이 새로 출현되었다.

• 새끼(언어지도 01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새끼	-	노형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봉성 비양도
스끼	전 지역	노형 조천 우도 서흥 하원 한림
숫	김녕	세화 수산 태흥
사끼	-	가시
새노	-	가시
숫노끼	전 지역	조천 우도 가파도
노	-	우도 태흥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노끈	-	인성
찹스끼	수산 서흥 인성	-
숫매끼	서흥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는 ‘스끼’와 ‘숫노끼’는 각각 중문(中文) 하원(河源) · 서귀(西歸) 서흥(西烘) · 조천(朝天) · 우도(牛島)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좌(舊左) 김녕(金寧)에서만 조사된 ‘숫’은 성산(城山) 수산(水山), 남원(南元) 태흥(泰興)에서 조사되었다. 자료집의 ‘찹스끼’와 ‘숫매끼’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새로이 ‘새노’와 개선형인 ‘새끼’가 조사되었다.

• 이량(언어지도 01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파니	표선 태흥 서흥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뱃파니	-	우도 수산
고지	노형 김녕 하원 화순 인성 조수 노형	노형 조천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봉성
뱃고지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구좌(舊左) 김녕(金寧)의 ‘고지’가 동남 지역의 ‘파니’에 밀려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지’ 지역은 대체로 일치한다. 섬 지역에서는 ‘파니’와 ‘고지’에 ‘뱃’이 연결된 ‘뱃파니’와 ‘뱃고지’ 형태가 출현하기도 한다.

• 가루(언어지도 01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ㄱㄹ	김녕 수산 가시 서흥	인성
ㄱ르	가사 인성 조수	제주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서흥 하원 화순 조수 비양도
ㄱ루	-	태흥 가파도
ㄱ로	김녕 수산 서흥 가시	-
ㄱ레	-	하원
ㄱ를	전 지역	한림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던 ‘ㄱ를’이 애월(涯月) 어도(於道)·한림(翰林)에 분포하며, ‘ㄱ로’로 나타나던 서귀(西歸) 서흥(西烘)·성산(城山) 수산(水山), 구좌(舊左) 김녕(金寧)에서는 ‘ㄱ르’로 조사되었다. 중문(中文) 하원(河源)에서 ‘ㄱ레’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 간장(언어지도 01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간장	전 지역(회귀어)	우도
장물	-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가파도 봉성
물장	전 지역	수산 가시 서흥 하원 한림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물장’이 애월(涯月) 어도(於道)·한림(翰林)·서귀(西歸) 서흥(西烘)·표선(表善) 가시(加時)·성산(城山) 수산(水山)에 나타나며, ‘장물’은 ‘간장 치다’ 항목에서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 조사와 대체로 일치한다. 자료집의 희귀어로 조사된 ‘곤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우도(牛島)에서만 출현되었다.

• 갱(언어지도 01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갱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가파도 조수 봉성
갱국	세화 어도	조수
게영	서흥	하원 화순 인성 한림
게영국	-	비양도
거영	노형 조수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서귀(西歸) 서흥(西烘)에서 조사된 ‘게영’이 그 세력을 서쪽으로 뻗쳐 중문(中文)·안덕(安德)·대정(大靜)·한림(翰林)까지 확장하였다. 구좌(舊左) 세화(細花)와 애월(涯月) 어도(於道)에서 조사된 ‘갱국’은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만 조사되었다.

• 김치(언어지도 01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김치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화순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김끼	수산 서흥 인성 조수 어도	세화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징귀	-	가시 태흥
짐귀	김녕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던 ‘김치’가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나타나며, ‘김끼’가 분포한 성산(城山) 수산(水山)·애월(涯月) 어도(於道)·한경(翰京) 조수(造水)는 다같이 ‘김치’로 조사되었다. ‘짐귀’가 분포하던 구좌(舊左)에서는 ‘김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징귀’가 남원(南元) 태흥(泰興)과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 새롭게 조사되었다.

• 수제비(언어지도 01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즈베기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저베기	-	가시 태흥 서흥
즈마기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의 ‘즈베기’가 정의(旌義) 지역을 중심으로 ‘저베기’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집의 ‘즈바기’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시루떡(언어지도 02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시리떡	전 지역	전 지역
친떡	김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침떡	노형 수산 가시 서흥 인성 조수	노형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서귀(西歸) 서흥(西烘)·표선(表善) 가시(加時)·성산(城山) 수산(水山)의 ‘침떡’이 이번 조사에서는 ‘친떡’으로 조사되어 그 분포가 좁아졌다.

• 빙떡(언어지도 02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빙	-	세화 우도 가파도
빙떡	전 지역	노형 조천 화순 인성 봉성
빈	-	비양도
빈떡	-	하원 화순 조수 한림 비양도
정기	-	수산
정기떡	수산 가시 서흥	수산 서흥
쟁기떡	-	가시
명석떡	-	한림
영빈	-	중문(색달)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빙·빈·빈떡·명석떡·영빈’ 등이 새롭게 출현되었다.

• 정그레(언어지도 02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징	어도	조천 조수 한림 비양도
떡징	노형 김녕 조수	한림
시리징	-	노형
바드랭이	-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떡바드랭이	-	하원 인성 가파도
ㄱ살	-	태흥 서흥
ㄱ소왓	-	가시
ㄷ들	수산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징’과 ‘떡징’의 분포는 차이가 없으나, 자료집의 성산(城山) 수산(水山)에서 조사된 ‘ㄷ들’은 조사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떡)바드랭이’와 임시로 사용하는 경그레로 ‘ㄱ살’과 ‘ㄱ소왓’이 새로 조사되었다.

• 밥주걱(언어지도 02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밥자	전 지역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밥죽	-	수산
우굼	노형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노형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울굼	조수	노형 봉성
밥우굼	노형 서흥 인성 조수	서흥 하원 화순
밥주걱	세화 수산 가시	-
밥오곰	태흥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동남 지역에 나타나는 ‘밥주걱’이 ‘밥자’ 또는 ‘밥죽’으로 조사되었다. 서귀(西歸) 서흥(西烘)에서는 ‘우굼, 밥우굼’이 제시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 두 어형과 더불어 ‘밥자’도 조사되어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옹달숯(언어지도 02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옹조리	전역	노형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한림 봉성
옹졸레기	-	태흥 조수
옹지리	인성	화순
동숯	-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족은숯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옹조리’가 전 지역에 분포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옹지리’ 또한 자료집에서 처



림 대정(大靜)에서는 조사되지 않고 그 인근인 안덕(安德)에서 나타났다. 또 ‘옹졸레기·동숯’이 새롭게 조사되었으며, 비양도에서는 ‘옹달숯’이 지닌 의미 그대로인 ‘죽은숯’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 부젓가락(언어지도 02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불즈뵈	-	조천 우도 비양도 봉성
불즈뵈	-	세화 한림
불저뵈	-	수산 태흥
불즙게	-	노형
불접게	노형	가시 서흥 하원
불접	-	가과도
불집게	전 지역	화순 인성
불제(부제)	조수	조수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는 ‘불집게’는 산남(山南) 지역에서만 분포하며,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의 ‘불접게’가 이번 조사에서는 ‘불즙게’로 조사되었다. 한경(翰京) 조수(造水)의 ‘불제’는 ‘근’이 탈락한 ‘부제’로 조사되었다. ‘불즈뵈·불즈뵈·불저뵈·불즙게’ 등은 새롭게 조사되었다.

• 옷감(언어지도 02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옷ㄱ슴	김녕	노형 조천 세화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비양도
옷ㄱ심	전 지역	인성 한림
옷ㄱ음	전 지역	우도 화순 인성 조수 비양도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구좌(舊左) 김녕(金寧)에서 조사된 ‘옷ㄱ슴’이 서쪽의 제주시(濟州市)와 산남(山南)의 중문(中文)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전 지역에 분포하던 ‘옷ㄱ심’과 ‘옷ㄱ음’은 그 분포 지역이 좁아졌다.

• 골무(언어지도 03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골미	노형 김녕 서흥	노형 조천 우도 서흥
손골미	-	조천
골매	전 지역	세화 하원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봉성

손골매	-	가시 하원 인성
손도매	-	비양도
손꼬매	-	가파도
골무	-	태흥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골매’가 그 지역이 좁아졌으며, 구좌(舊左) 김녕(金寧)의 ‘골미’가 이번 조사에서는 ‘골매’로 조사되었다. 섬 지역에서는 ‘손도매·손꼬매’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 잠방이(언어지도 03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좁방이	조수	노형 세화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봉성
좁방이	조수	-
정방이	김녕 수산 가시 서흥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점방(방)이	노형 김녕 서흥 인성	조천 화순
반중의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좁방이’ 분포 지역이 넓어진 점이 특이하다. ‘점방이·점방이’는 대체로 일치하며, 섬 지역인 비양도에서 ‘반중의’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 도롱이(언어지도 03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좁세기	화순 인성 조수 어도	한림 봉성
접세기	-	하원 화순 인성
츄쟁이	서흥 인성 조수 어도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비양도
츄광이	어도	-
츄쟁이	어도 화순	-
츄개	조수	-
츄쟁이	조수	-
츄개	인성	-
우장	어도 조수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자료집에는 ‘츄쟁이’계열만 제시되었다. 애월(涯月) 어도(於道)에서는 ‘츄쟁이, 츄광이, 츄쟁이’,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는 ‘츄쟁이, 츄개, 츄쟁이’, 대정(大靜) 인성(仁城)에서는 ‘츄쟁이, 츄개’, 안덕(安

德) 화순(和順)에서는 ‘츄괥이’가 보고되었다. ‘츄괥이’가 애월(涯月)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츄세기’ 지역과 ‘츄괥이’ 지역이 겹치고 있다.

조사 항목을 달리한 자료집의 ‘우장’은 한경(翰京) 조수(造水)와 애월(涯月) 어도(於道)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동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차이를 보인다.

한편 다른 항목으로 처리한 ‘츄세기(츄세기-띠로 엮어 만든 우비의 한 가지.)’는 애월(涯月)·한경(翰京)·대정(大靜)·안덕(安德)에 분포하여 이번 조사와 일치한다.

• 두루마기(언어지도 03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후리메	전 지역	노형 세화 가파도 한림 봉성
후루메	-	조천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두루막	전 지역	조천 세화 우도 하원 화순 인성 조수 봉성
두루마기	전 지역	노형
두루매기	-	서흥 인성 비양도

현평효(玄平孝) 자료집에서는 방언형 ‘두루마기, 두루막, 후리메’가 전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분포가 좁아졌다.

• 매듭단추(언어지도 03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벌ㅁ작	-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ㅁ작단추	전 지역	노형 조천 서흥 인성 봉성
못인단추	전 지역	하원
들마기	-	화순 한림
들매기	-	조수 비양도
속곶괥	-	가파도
속곶ㅁ작	-	가파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ㅁ작단추’와 ‘못인단추’가 그 지역이 좁아져 각각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조천(朝天) 조천(朝天)·서귀(西歸) 서흥(西烘)·대정(大靜) 인성(仁城)·애월(涯月) 봉성(鳳城)과 중문(中文) 하원(河源)에서 조사되었다. ‘벌ㅁ작’의 문헌어형인 ‘들마기·들매기’가 새롭게 출현되었으며, 도서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특이 어형으로 ‘속곶괥’와 ‘속곶ㅁ작’이 조사되었다.

• 물감(언어지도 03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물감	노형 조수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물ㄱ음	전 지역	조수 화순
물헤	조수	서흥
물웨	김녕 수산 가시 서흥	가과도 봉성 비양도
물레	노형 인성 조수	가시 태흥 하원 인성 한림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물웨’로 조사된 구좌(舊左), 성산(城山) 수산(水山)이 ‘물감’으로,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는 ‘물레’, 서귀(西歸) 서흥(西興)에서는 ‘물헤’로 조사되었다. ‘물감·물레·물헤’로 조사된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는 ‘물ㄱ음’으로 조사되어 이번 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물헤’가 자료집에서는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 조사되었는데 이번에는 서귀(西歸) 서흥(西興)에서 출현되어 차이를 보인다.

• 고평(언어지도 03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고평	전 지역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인성 조수
케평	노형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어도	노형 한림 봉성
안방	노형 하원 화순 인성 조수	하원 화순 가과도 조수 비양도
양평	표선 태흥	서흥
암평	수산	-
안평	조천 표선 태흥 서흥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고평’은 전 지역에서 그 분포가 좁아졌으며, ‘케평’을 비롯하여 ‘안방’과 ‘양평’ 또한 그 지역이 좁아졌고 섬 지역에서도 조사되었다. ‘양평·암평·안평’으로 나타나는 조천(朝天)과 정의(旌義) 지역이 이번 조사에서는 ‘고평’으로 조사되었다.

• 대장간(언어지도 03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불밧간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수산 태흥 가과도 조수 봉성
불땃간	-	서흥 비양도

불미왕	전 지역	노형 우도 가시 화순 한림
불매왕	-	인성
불매황	-	하원
불미칩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불밋간’과 ‘불미왕’이 분포 지역이 좁아져서 각각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조천(朝天), 구좌(舊左) 세화(細花), 성산(城山) 수산(水山), 남원(南元) 태흥(泰興), 한경(翰京) 조수(造水)·애월(涯月) 봉성(鳳城)에,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우도(牛島)·표선(表善) 가시(加時), 안덕(安德) 화순(和順), 한림(翰林)에서 조사되었다.

• 마루(언어지도 04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마리	전 지역	노형 조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비양도
마레	-	가파도
상방	전 지역	서흥 화순
삼방	조수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한림 비양도 봉성
상방마리	-	노형
대청마리	-	조천
한간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에는 ‘마루’와 ‘대청’이 각각 다른 조사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마루’의 방언형으로 ‘마리’(전 지역)가, ‘대청’의 방언형으로 ‘상방’(전 지역), ‘삼방’(한경 조수), ‘한간’(전 지역)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6개의 방언형이 출현되었다.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마리’와 ‘상방’이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이 좁아졌으며,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 조사된 ‘삼방’이 산북(山北) 지역과 정의(旌義) 지역으로 넓어졌다. ‘마레’가 섬 지역인 가파도에서, 복합어를 형성한 ‘상방마리’와 ‘대청마리’가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과 조천(朝天)에서 조사되었다.

• 백장(언어지도 04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백장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한경 한림 가파도 봉성
시렁	서흥	수산 태흥 서흥
스렁	수산	가시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백장’은 전 지역에 분포하며, ‘시령’은 서귀(西歸) 서흥(西烘)에, ‘스렁’은 성산(城山) 수산(水山)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백장’이 정의(旌義)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조사되었으며, 서귀(西歸) 서흥(西烘)에서 조사된 ‘시령’이 성산(城山) 수산(水山), 남원(南元) 태흥(泰興), 서귀(西歸) 서흥(西烘)에서 출현하여 좀더 넓은 지역으로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 성산(城山) 수산(水山)에서 조사된 ‘스렁’이 이번 조사에서는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 출현하여 차이를 보인다.

• 장독대(언어지도 04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장항뒤	전 지역	세화 수산 태흥 조수 비양도
장항뒤	전 지역	-
장항놓는디	-	노형 가시
장항두에	-	조수
장광	-	가과도
장광뒤	서흥 인성 조수	서흥 하원 화순 인성 한림 봉성
장독간	-	우도 조수
안뒤	-	조천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장항뒤’와 ‘장항뒤’는 그 분포 지역이 좁아져 구좌(舊左) 세화(細花), 성산(城山) 수산(水山), 남원(南元) 태흥(泰興),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출현하는 한편 ‘장광뒤’는 분포 지역이 넓어져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 한림(翰林),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다.

‘장항놓는디 · 장항두에 · 장광 · 장독간 · 안뒤’ 방언형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 정낭(언어지도 04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정낭	전 지역	수산 가시 화순 인성 가과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징낭	-	노형 봉성
정살	노형 조천 세화 조수 어도	조천 세화 우도 태흥
정살낭	세화 수산 표선 태흥 서흥	조천
정술낭	세화 인성	서흥 하원
정	전 지역	-
정남	세화 수산 가시 표선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정낭’이 이번 조사에서는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가시(加時), 안덕(安德) 화순(和順), 한경(翰京) 조수(造水), 한림(翰林), 애월(涯月) 봉성(鳳城)에 나타나며, 구좌(舊左) 세화(細花),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남원(南元) 태흥(泰興), 서귀(西歸) 서흥(西烘)에서 조사된 ‘정살낭’은 조천(朝天)에서만 출현한다. 구좌(舊左) 세화(細花), 대정(大靜) 인성(仁城)의 ‘정술낭’이 이번 조사에서는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에 나타났다. ‘정’과 ‘정낭’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 끄게(언어지도 044)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섬비	가시 조수	서흥 인성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섬피	노형 김녕 가시 서흥 인성 조수	노형 하원 화순
솔피	-	태흥
끄실퀴	김녕 가시	조천
끄슬피	김녕	-
끄설퀴	-	가시
끄서귀	수산	조천 세화 수산
푸지게	-	우도
솔기	-	가파도
끄슴솔기	-	가파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섬피’가 구좌(舊左) 김녕(金寧)과 표선(表善) 가시(加時)에 분포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번 조사와 일치한다. ‘솔피’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 출현하였으며, 섬 지역에서는 특히 어형인 ‘푸지게’와 ‘솔기·끄슴솔기’가 조사되었다.

• 메호미(언어지도 04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메호미	노형 조천 세화 수산 표선 태흥 서흥 하원 어도	수산 가시 서흥 하원
미호미	화순 인성 조수 어도	인성 조수 한림 봉성
장호미	-	조천 세화
나다	-	세화 우도 가파도 비양도
나대	수산 가시	노형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던 ‘메호미’가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가시(加時),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 등 주로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하여 그 지역이 좁아진 반면, ‘나대’는 그 분포 지역이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표선(表善) 가시(加時), 남원(南元) 태흥(泰興),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 한경(翰京) 조수(造水), 애월(涯月) 봉성(鳳城)에 나타나 그 분포 지역이 더 넓게 확산되었다. 조천(朝天)과 구좌(舊左) 세화(細花)에서는 새롭게 ‘장호미’가 조사되었다.

• 부시(언어지도 04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부시	-	노형 수산 가시 서흥 하원
부세	-	봉성
부쇄	노형 수산 가시 서흥	조천 세화 우도 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푸쇄	-	가파도
부쉬	김녕 서흥	-
부수	인성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부쇄’는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조천(朝天), 구좌(舊左) 세화(細花), 우도(牛島), 남원(南元) 태흥(泰興), 중문(中文) 하원(河源),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 한경(翰京) 조수(造水),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다. 자료집의 ‘부쉬’(구좌 김녕·서귀 서흥)와 ‘부수’(대정 인성)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 썰기(언어지도 05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세	-	세화 수산 태흥
세기	-	우도
썰기	-	조천
세간	-	화순
세감	서흥 인성 조수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세역	전 지역	노형 가시 서흥 하원 인성 봉성
뜸	-	조천
고지	-	비양도
소용	조수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세역’이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표선(表善) 가시(加時), 서귀(西歸) 서흥(西興), 중문(中文) 하원(河源), 대정(大靜) 인성(仁城),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출현하였다. 자료집에 제시된 ‘소용’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는 반면 ‘세·세기·췌기·세간·고지’ 등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 종다래끼(언어지도 05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들랭이	노형 서흥 인성 조수	노형 인성 한림 봉성
들랑지	-	조수 비양도
조레기	김녕 수산 서흥 인성	태흥 서흥 하원 화순 가파도
송둥이	-	우도
송둥이	-	수산
송동바구리	전 지역	가시
송동바굼지	전 지역	-
웅동바구리	-	세화
바구니	-	노형
바구리	-	조천
조락	세화 서흥	-
조락바구리	김녕 수산 서흥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에는 조사 항목이 다르게 나타난다. 곧 ‘들랭이’는 ‘아주 자그마한 바구리’로, ‘송동바구리·송동바굼지’는 ‘아주 작은 대바구리’ 그리고 ‘종다래끼’의 방언형으로 ‘조레기·조락·조락바구리’를 제시하고 있다.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들랭이’(들랑지)와 ‘조레기’는 대체로 일치한다. 전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제시된 ‘송동바구리·송동바굼지’는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만 출현하며, ‘송둥이·송둥이’는 우도(牛島)나 성산(城山) 수산(水山)에 출현하며, ‘송동바구리’의 변이형으로 보이는 ‘웅동바구리’가 구좌(舊左) 세화(細花)에서 조사되었다. 자료집의 ‘조락’과 ‘조락바구리’는 이번에 조사되지 않았다.

• 뽕구덕(언어지도 05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뽕구덕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태흥
뽕바구리	전 지역	가시 서흥
풀뽕구덕	전 지역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봉성

풀벼른바구리	전 지역	노형 한림 비양도 봉성
풀구덕	-	인성
풀벼른들랑지	-	조수
풀벼른조레기	-	하원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벼른구덕, 풀벼른구덕, 벼른바구리, 풀벼른바구리’는 전 지역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그 분포 지역이 좁아졌다. 이번에 조사된 ‘풀벼른들랑지’와 ‘풀벼른조레기’는 자료집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 조문(언어지도 05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고견	-	조천 세화 우도 수산 태흥 서흥
케견	-	가시
고렴	어도	노형 조천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고애	-	조수
조문	전 지역	(전 지역)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에는 ‘조문하다’의 방언으로, 전 지역에 나타나는 ‘조문하다’와 애월(涯月)에 나타나는 ‘고렴하다’가 제시되었다. 자료집에는 이번 조사에 나타나는 ‘고견’과 ‘고애’는 제시되지 않았다.

• 상여꾼(언어지도 05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상뒤꾼	-	노형 조천 태흥 서흥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비양도 애월
상뒤	전 지역	서흥 화순
상예꾼	-	수산
행상꾼	전 지역	우도
운상꾼	전 지역	하원
담상꾼	전 지역	-
동네꾼	-	조천 세화
역스꾼	-	우도
제꾼	-	조천
유대꾼	-	비양도
역부	-	가파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에는 ‘향도’의 방언형으로 ‘상뒤’(전 지역)가 제시되었고, ‘행상꾼’의 방언형으로 ‘행상꾼, 운상꾼, 답상꾼’이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었다. ‘동네꾼·역스꾼·제꾼·유대꾼·역부’ 등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 겨드랑이(언어지도 05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즈깁이	전 지역	노형 세화 우도 인성 한림 비양도 봉성
즈깁이	전 지역	조수
저깁이		조천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가파도
즈깁이	전 지역	-
즈드렁이	김녕	-
저깁이	전 지역	-
저드렁이	전 지역	-
저드랑이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즈깁이(즈깁이), 즈깁이’ 등이 전 지역에서 그 분포가 축소되어 출현하며, 자료집의 ‘즈드렁이·저깁이·저드렁이·저드랑이’ 등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 팔꿈치(언어지도 05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폴고비	전 지역	노형 우도 한림
폴곰지	전 지역	세화 태흥
폴곰은지	-	화순
폴곰은제기	-	인성
폴꼭지	-	조천 수산 가시 서흥 화순 봉성 비양도
폴꿈치	-	서흥 가파도 조수
폴꿈지	-	인성
폴곰지	조수 어도	-

현평효(玄平孝)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폴고비, 폴곰지’가 각각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우도(牛島)·한림(翰林)과 구좌(舊左) 세화(細花), 남원(南元) 태흥(泰興)에서 조사되었다. 한경(翰京) 조수(造水)과 애월(涯月) 어도(於道)에서 나타나는 ‘폴곰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는 반면 ‘폴곰은지·폴곰은제기·폴꼭지·폴꿈치·폴꿈지’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 옆구리(언어지도 06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옴갈리	노형 조천 서흥 인성 조수 어도	인성 가파도 조수 비양도
옆갈리	수산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천 세화 서흥 하원 화순 한림
옴덩이	-	노형 봉성
옥갈리	김녕 수산 인성	우도
역갈리	세화 수산 표선 태흥	수산 가시 태흥
옴구레	노형 서흥 인성 조수	-
옥구레	김녕 수산 가시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옴갈리’는 조천(朝天)·제주시(濟州市)·애월(涯月)·한경(翰京)·대정(大靜)·서귀(西歸)에, ‘옥갈리’는 구좌(舊左)·대정(大靜)·성산(城山)에, ‘옆갈리’는 대정(大靜)·안덕(安德)·중문(中文)·서귀(西歸)·성산(城山)에, ‘역갈리’는 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구좌(舊左)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 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자료집에 제시된 ‘옴구레’와 ‘옥구레’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옴덩이’는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과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새롭게 조사되었다.

• 쓸개(언어지도 06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슬개	전 지역	세화 수산 가파도 봉성
실개	전 지역	노형 조천 우도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비양도
실개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는 ‘슬개·실개(실개)’는 그 분포가 축소되어 조사되었다. ‘실개’는 주로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을 비롯하여 성산(城山)을 제외한 산남(山南) 지역에 분포하는 반면, ‘슬개’는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오좁통(언어지도 06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오좁부개	-	세화
오좁푸개	인성 조수	조천 화순 인성 조수 한림
오좁푸개	-	봉성
오좁개	노형 인성 조수	노형 하원
오좁통	수산 가시 서흥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오좁푸께’와 ‘오좁통’의 분포 지역은 일치하나 ‘오좁께’가 대정(大靜) 인성(仁城)과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분포하여 이번 조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정(大靜) 인성(仁城)과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분포하는 ‘오좁푸께’는 조천(朝天)과 안덕(安德) 화순(和順), 한림(翰林), 애월(涯月) 봉성(鳳城)으로 그 분포 지역이 넓게 확산되었다. ‘오좁통’ 역시 우도(牛島)를 비롯하여 정의(旌義) 지역으로 확산되어 조사되었다.

• 자개미(언어지도 06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삿툼	-	수산 가시
삿툼이	-	태흥
삿랭이	-	가시
살갱이	수산	-
즈기예미	조수	우도
저기예미	가시	-
즈계기	-	세화
즈기예기	노형	-
저기예기	노형	조천
즈곰테기	인성 어도	봉성
저곰테기	서흥 인성	-
즈곰테기	-	노형 서흥 인성 조수 한림
저곰테기	-	하원 화순
즈드랭이	-	비양도
오곰테기	-	가과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저곰테기’(大靜·西歸), ‘즈곰테기’(大靜·涯月)와 ‘살갱이’(城山) 분포 지역은 이번 조사와 일치하나, ‘즈기예기’(濟州市), ‘즈기예미’(翰京), ‘저기예기’(濟州市), ‘저기예미’(表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삿툼·삿툼이·즈곰테기·저곰테기’와 섬 지역에서는 ‘즈드랭이·오곰테기’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 종지뻬(언어지도 064)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독머리짱	화순 인성 조수 어도	노형 가시 한림 비양도 봉성
독머리짱	-	가시
독머리짱		인성 가과도

독므릅짱	전 지역	-
독짱	서흥 화순 어도	-
질벵짱	전 지역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지 서흥 하원 화순
독새기짱	조수	조천 수산 태흥
쟁만짱		우도
믈근뻬		조수
학슬뻬	노형 조수	-
학설뻬	노형	-
학사니뻬	인성	-
학산짱	조수	-
괵산뻬	김녕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독므리짱’이 안덕(安德)에 나타나는 점이 다르고, 조천(朝天)에서 조사된 ‘독새기짱’이 자료집에는 한경(翰京)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므릅짱’과 ‘질벵짱’은 전 지역에 분포하는 것 또한 다른 점이다. 자료집에 제시된 ‘학슬뻬, 학설뻬, 학사니뻬, 학산짱, 괵산뻬’는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반면 ‘쟁만짱·믈근뻬’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 무릍(언어지도 06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독므릅	-	조천 우도 하원 인성 가파도 비양도
독므릅	전 지역	-
독므리	노형 수산 조수	-
독므립	노형 인성	조수
독머릅	-	가지 화순
독무릅	-	수산 태흥
독무립	노형 수산 조수	-
독무립	-	세화
독머리	조수 어도	노형 서흥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독	어도	-
무립	전 지역	세화 화순 비양도 봉성
도갓믈리	노형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던 ‘독므릅’은 ‘독므릅’으로 변하여 조천(朝天)을 비롯하여 섬 지역에서 조사되었고, ‘무립’은 구좌(舊左) 세화(細花), 안덕(安德) 화순(和順), 애월(涯月) 봉성(鳳城)과 도서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 조사되었다. 자료집의 ‘독므릅·독므리·독무립·독·도갓믈리’는

조사되지 않은 반면 ‘독머름·독무름·독무럽’ 등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 방귀쟁이(언어지도 06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똥푸대	인성 조수	세화
똥푸기	-	화순 한림
똥피기	-	하원 인성 가파도 비양도
똥폭세기	-	봉성
똥북쟁이	김녕 서흥 조수	태흥 서흥
똥북자귀	가시	가시
똥북제기	노형 수산 조수	노형 조천 우도 수산
똥북새기	인성	-
똥픽새기	노형 수산 조수 어도	-
방구쟁이	-	조수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똥북제기’(濟州市·涯月·城山)와 ‘똥북자귀’(表善), ‘똥푸대’(大靜·翰京)의 분포는 대체로 일치하나, ‘똥북쟁이’가 한경(翰京)에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자료집의 ‘똥북새기’, ‘똥픽새기’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똥푸기·똥피기·똥폭세기’ 등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 병어리(언어지도 06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말모레기	-	서흥 인성
말몰레기	김녕 가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가파도
모레기	-	서흥 비양도
말모르기	전 지역	노형 조수 봉성
모르기	-	노형 하원 화순 조수 봉성
모로기	전 지역	한림
몰레기	-	조천
버버리	전 지역	우도 가파도
병어리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는 ‘말모르기·모로기·버버리’가 각각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한경(翰京) 조수(造水), 애월(涯月) 봉성(鳳城), 한림(翰林), 우도(牛島), 가파도(加波島)에서 조사되어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었다. 반면 ‘말몰레기’는 구좌(舊左) 김녕(金寧)과 표선(表善) 가시(加時)에

서 그 지역이 확산되어 우도(牛島), 성산(城山) 수산(水山), 남원(南元) 태흥(泰興), 가파도(加波島) 등으로 그 지역이 확산되었다.

• 왼손잡이(언어지도 06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웬쟁이	인성 어도	조천 세화 우도 수산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웬광이	노형 김녕 조수	노형
웬괭이	노형 김녕 수산 가시 조수	-
웬쟁이	서흥	노형 태흥 서흥 하원
웬둥이	-	인성 가파도
웬자치	서흥 인성	하원 화순
웬착둥이	-	가파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웬쟁이·웬괭이’는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나타나며, ‘웬광이·웬괭이’는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조사되었다. 서귀(西歸) 서흥(西烘)과 대정(大靜) 인성(仁城)에 분포하던 ‘웬자치’가 중문(中文) 하원(河源)과 안덕(安德) 화순(和順)에서 조사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섬인 가파도(加波島)에서는 ‘웬착둥이’가 새로 조사되었다.

• 줍제기(언어지도 07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줍제기	전 지역	조천 세화 우도 태흥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접제기	수산 가시	노형 수산 서흥 하원
국제베기	-	가시
줍주와기	노형 조수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던 ‘줍제기’가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 조사되었으며, 성산(城山) 수산(水山)과 표선(表善) 가시(加時)에 분포하던 ‘접제기’는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을 비롯하여 성산(城山) 수산(水山),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으로 그 지역이 확산되었다.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과 한경(翰京) 조수(造水)의 ‘줍주와기’는 조사되지 않는 반면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 ‘국제베기’가 새로 조사되었다.

• 코맹맹이(언어지도 07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코마구리	-	노형 조천 우도 화순
코막쟁이	전 지역	한림 봉성
코막쟁이	김녕	세화 인성
코막은쟁이	수산 가시	서흥 하원 조수
코막사니	노형 서흥 인성 조수	인성
코막세기	-	태흥
코막쉬	김녕 어도	수산 한림
코맹쟁이	-	비양도
코메기	-	가과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던 ‘코막쟁이’가 한림(翰林),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고,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서귀(西歸) 서흥(西烘), 대정(大靜) 인성(仁城),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분포하던 ‘코막사니’는 대정(大靜) 인성(仁城)에서만 조사되어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었다.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조천(朝天), 우도(牛島), 안덕(安德) 화순(和順)에서 ‘코마구리’와 남원(南元) 태흥(泰興)에서 ‘코막세기’ 그리고 섬 지역에서 ‘코맹쟁이·코메기’가 새로 조사되었다.

• 코흘리개(언어지도 07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코흘채기	전 지역	조천 세화 수산 가시 하원 가과도 한림
코흘찌기	-	우도
콜흘레기	전 지역	조천 태흥 인성 조수
코풀레기	-	노형 서흥 하원 인성
코필레기	-	화순 봉성
코풀레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코흘채기·코흘레기’가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조사되었고,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 대정(大靜) 인성(仁城)에서 ‘코풀레기’가, 안덕(安德) 화순(和順),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코필레기’ 그리고 섬 지역인 우도(牛島)에서 ‘코흘찌기’, 비양도(飛揚島)에서 ‘코풀레’가 새로 조사되었다.

• 땀띠(언어지도 07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땀뚜두레기	노형 조수 어도	노형 봉성
땀뚜기	노형 인성 조수 어도	하원 인성
땀뚜데기	-	비양도
땀떼기	전 지역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화순 조수 한림
땀띠	-	가시
땀띠기	-	가파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땀떼기’가 산발적으로 출현하며, ‘땀뚜기·땀뚜두레기’가 나타나던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는 ‘땀떼기’만 조사되었다. ‘땀뚜두레기’는 분포 지역이 일치하며, ‘땀뚜기’는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과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섬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 ‘땀뚜데기’, 가파도(加波島)에서 ‘땀띠기’가 조사되었다.

• 흥역(언어지도 074)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마누라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태흥 화순 한림 봉성
큰마누라	노형 조천 조수 어도	-
한집	전 지역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큰한집	세화 수산 표선 서흥 하원 화순 인성	-
구슬	-	비양도
구실	-	수산 조수 비양도
제구실	-	세화
역시	-	인성
소님	-	노형
향긋	노형 김녕 서흥 인성 조수	가파도
향것	조수 어도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는 ‘마누라’와 ‘한집’은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나타나며,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조천(朝天), 한경(翰京) 조수(造水), 애월(涯月) 어도(於道)에 분포하던 ‘큰마누라’, 구좌(舊左) 세화(細花),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의 ‘큰한집’, 한경(翰京) 조수(造水),



에월(涯月) 어도(於道)의 ‘항것’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대신 은유적으로 쓰이는 ‘구슬·구실·제구실·역시·소님’ 등이 조사되었다.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구좌(舊左) 김녕(金寧), 서귀(西歸) 서홍(西烘), 대정(大靜) 인성(仁城),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분포하던 ‘항곳’은 가파도(加波島)에서 조사되었다.

• 부스럼(언어지도 07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부스럼	노형 조천 세화 조수	노형 세화 수산 태흥 인성
부스럼지	서홍 하원 화순 인성 조수	가시 서홍 하원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봉성
부스레미	전 지역	가파도
부시럼	-	조천 우도
부으레미	전 지역	비양도
부으럼	세화 수산 어도	-
부으럼지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던 ‘부스레미·부으레미·부으럼지’는 ‘부으레미’가 비양도(飛揚島)에서, ‘부스레미’가 가파도(加波島)에서만 조사되었다.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조천(朝天), 구좌(舊左) 세화(細花),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나타나던 ‘부스럼’은 좀더 넓은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부스럼지’ 또한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었다. 섬 지역에서 ‘부시럼·부으레미’가 조사되었다. 자료집에 제시된 ‘부으럼, 부으럼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비루(언어지도 07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도롱이	전 지역	노형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도롱이	-	화순
도랭이	전 지역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홍 하원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던 ‘도롱이·도랭이’는 각각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서 조사되어 그 분포가 축소되었다.

• 깃저고리(언어지도 07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벗디창옷 <sup>131)</sup>	노형 인성 조수	노형 조천 조수 한림 봉성
벗디저고리	-	세화 우도
벗디적삼	김녕	우도
벗데창옷	수산 가시 서흥	서흥 하원 화순
벗데옷	수산 서흥	수산 가시 태흥 인성
벳넛저고리	-	조수
아기베옷	-	비양도
아기적삼	-	비양도
베적삼	-	가과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벗디창옷’은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나타나며, 표선(表善) 가시(加時)와 서귀(西歸) 서흥(西烘)에 분포하는 ‘벗데옷’이 정의(旌義)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벗디저고리(細花·牛島)·벳넛저고리(造水·鳳城)’와 섬 지역에서 ‘아기베옷·아기적삼·베적삼’ 등이 조사되었다.

• 섬매(언어지도 08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섬매	-	노형 조수
섬매	노형 김녕 인성 조수	조천 세화 가과도 한림
섬베	-	화순
선매	-	가시
선달	수산 가시 서흥	수산 가시 태흥
선데	서흥 조수	우도 서흥 하원 인성 비양도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섬매’가 분포하던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에서는 ‘섬매’가 조사되어 차이를 보이며, ‘선달’은 그 분포가 확산되어 정의(旌義)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서귀(西歸) 서흥(西烘),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분포하던 ‘선데’(선대)는 우도(牛島)를 비롯하여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 대정(大靜) 인성(仁城), 비양도(飛揚島),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어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섬베’(和順)·‘선매’(加時)가 새로 출현하였다.

131) 현평효의 자료집에는 ‘벗딛창옷·벗딛적삼’이 조사되었는데 각각의 ‘벗딛’은 ‘벗딛’으로 통일하였다.

• 트림(언어지도 08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게트레기	가시	우도 수산 가시 서흥
게틀레기	수산 가시 서흥	노형 조천 세화 태흥
게트름	노형 김녕 서흥 인성 조수	조천 하원 화순 한림 비양도 봉성
게트럼	-	인성
게트러미	-	조수
제트름	-	가과도
트리미	-	조수
게트라기	노형 조수 어도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게트레기’(加時), ‘게틀레기’(西烘·水山·加時), ‘게트름’(老衡·造水·仁城·西烘·金寧)은 그 분포가 확산되어 조사되었다.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한경(翰京) 조수(造水), 애월(涯月) 어도(於道)에 분포하던 ‘게트라기’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게트러미·제트름·트리미’가 새로 조사되었다.

• 그네(언어지도 08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굴메	세화 수산 가시 서흥 인성	세화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인성
줄레	노형	노형 태흥
주천	-	조수 한림 봉성
굽메	태흥	조천
그네	-	우도 화순 한림 비양도 가과도
궁글	조천	-
개동개	조수	-
동개	화순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굴메’의 분포 지역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에 나타나던 ‘줄레’가 남원(南元) 태흥(泰興)에서도 조사되었으며, 남원(南元) 태흥(泰興)에 출현하던 ‘굽메’는 이번 조사에서는 조천(朝天)에서 조사되었다. 자료집에 제시된 ‘궁글·개동개·동개’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그네’가 넓은 지역에서 조사되었고, 한자어와 관련된 ‘주천’이 한경(翰京) 조수(造水), 한림(翰林),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다.

• 숨바꼭질(언어지도 08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곱음제기 <sup>132)</sup>	노형 인성 조수	노형 봉성
곱음제끼	-	한림
곱을내기	전 지역	우도 수산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비양도
곱을락	-	조천 세화 가시 태흥 서흥 인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곱을내기’는 우도(牛島)를 비롯하여 한경(翰京) 조수(造水)와 산남(山南)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곱음제기’가 분포하던 대정(大靜) 인성(仁城)에서는 ‘곱을내기·곱을락’이 조사되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림(翰林)에서 ‘곱음제끼’, 조천(朝天), 구좌(舊左) 세화(細花), 표선(表善) 가시(加時), 남원(南元) 태흥(泰興), 서귀(西歸) 서흥(西烘), 대정(大靜) 인성(仁城)에서 ‘곱을락’이 새로 조사되었다.

• 양감질(언어지도 084)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청계	-	봉성
청에	노형 하원 화순 인성 조수 어도	우도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정계	노형 세화 수산 표선 태흥	노형 조천 세화 가시 서흥
정계고개	노형	수산
정기	-	태흥
정애	서흥	-
종애	김녕	-
살레	조천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청에’와 ‘정개’는 그 분포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자료집의 ‘정애(西歸), 종애(金寧), 살레(朝天)’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청계’와 남원(南元) 태흥(泰興)에서 ‘정기’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 연싸움(언어지도 08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연타발	노형 수산 가시 서흥 인성 조수	노형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sup>132)</sup> 자료집에는 방언형 ‘고봄제기’(노형·인성·조수)가 제시되었으나 논문에서는 ‘곱음제기’로 하였다.

연싸움	-	세화 수산
굴리싸움	-	조천
연타발	김녕	-
연탐별	김녕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연타발’의 분포가 넓어졌다. 자료집의 ‘연타발·연탐별’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는 반면, 조천(朝天)에서 ‘굴리싸움’이 새로 조사되었다.

• 들돌(언어지도 08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등돌	노형 김녕 인성 조수	조천 태흥 인성 한림 봉성
똥돌	-	노형 하원 화순 조수
드름돌	김녕 수산 가시 서흥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서흥
듬돌	-	가파도
떡돌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등돌’과 ‘드름돌’의 분포 지역이 확산되었다. 섬 지역에서 ‘듬돌’(加波島), ‘떡돌’(飛揚島)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 안개(언어지도 08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으남	-	조천 세화 우도
우남	김녕	-
으남	전 지역	노형 조천 수산 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봉성
의남	-	가시 서흥 하원 한림 비양도 봉성
이남	-	한림
어남	-	봉성
안개	전 지역	가시 봉성
으네	하원 화순 인성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으남’과 ‘안개’는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었다. 특히 ‘안개’는 표선(表善) 가시(加時)와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만 조사되었다. 구좌(舊左) 김녕(金寧)의 ‘우남’과 중문(中文) 하원(河源),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 등 대정(大靜) 지역에 분포하

던 ‘으네’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대신 ‘으남·의남·이남·어남’ 등이 새로 조사되었다.

• 싸라기눈(언어지도 08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스레기눈	전 지역	세화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비양도
스라기눈	노형 서흥 어도	-
쓰레기눈	-	노형 가시
스락눈	김녕 수산 인성 조수	수산 조수 한림 봉성
쓰락눈	-	우도
싸락눈	-	조천
사락눈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스레기눈’은 대체적으로 산남(山南) 지역에서 조사되었으며, ‘스락눈’은 성산(城山) 수산(水山)과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는 일치하나, 구좌(舊左) 김녕(金寧)과 대정(大靜) 인성(仁城)에서는 ‘스락눈’ 대신에 ‘스레기눈’이 출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회오리바람(언어지도 09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돛공이	-	조수
돛공이	서흥 화순 인성 어도	한림 봉성
돛쟁이	노형 조천 세화 수산 표선 태흥 서흥 하원	노형 조천 수산 인성 비양도
돛공이주제	-	우도
돛쟁이주제	-	세화 수산 태흥
돛쟁이주제	-	조천 가시 서흥 하원 화순 인성
돛쟁이벼름	-	가파도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돛공이’는 산북(山北) 지역에서는 그 분포가 확산된 반면, 산남(山南)에서는 ‘돛쟁이주제’로 출현하고 있다.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조천(朝天), 구좌(舊左) 세화(細花),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남원(南元) 태흥(泰興),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에서 출현하던 ‘돛쟁이’도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과 조천(朝天)에서는 그대로 조사되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돛쟁이주제’로 조사되었다. 섬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와 비양도(飛揚島)에서는 ‘돛쟁이벼름’이 조사되었다.



• (물)거품(언어지도 09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부글레기	화순 인성 조수	세화 가시 하원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봉성
부끌레기	노형 조천 세화 표선	노형 우도
푸글레기	-	비양도
푸끌레기	-	가파도
버글레기	태흥	조천 가시 태흥
벌글레기	수산	-
버끌레기	-	수산
삐글레기	-	조천
함블레기	서흥	서흥 하원
봉글레기	-	하원
물푸케	-	한림
굼블레기	서흥	-
숫덕	-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분포하던 ‘부글레기’는 그 지역이 확산되어 출현 하는데 구좌(舊左) 세화(細花), 표선(表善) 가시(加時), 중문(中文) 하원(河源),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 한경(翰京) 조수(造水), 한림(翰林),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다. 남원(南元) 태흥(泰興)에 분포하는 ‘버글레기’도 표선(表善) 가시(加時), 조천(朝天)으로 분포 지역이 확산되었으며, 서귀(西歸) 서흥(西興)의 ‘함블레기’도 중문(中文) 하원(河源)에까지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었다. 자료집의 ‘굼블레기’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섬 지역에서 ‘푸글레기’(飛揚島), ‘푸끌레기’(加波島), ‘버끌레기’(水山), ‘삐글레기’(朝天)와 중문(中文) 하원(河源)에서 ‘봉글레기’, 한림(翰林)에서 ‘물푸케’,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숫덕’이 특이 어형으로 조사되었다.

• 돌생기(언어지도 09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돌생기	노형 조천 세화 수산 조수	수산 가시
돌생이	조천 어도	조천 우도 태흥
돌새기	전 지역	노형 세화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독상귀	표선	-
독새기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돌새기’는 대체적으로 서부 지역에서 조사되었으며, ‘돌새기’가 분포하던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구좌(舊左) 세화(細花), 한경(翰京) 조수(造水),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는 ‘돌새기’로 조사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상귀’가 출현하던 표선(表善)에서는 ‘돌새기’가 조사되었다. 자료집에 제시된 방언형 ‘독상귀’(表善), ‘독새기’(전 지역)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찰흙(언어지도 09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촌혹	노형 태흥 서흥	조천 수산 가시 태흥 화순 인성
촌혹	전 지역	노형 세화 서흥 하원 한림 봉성
촌혁	-	비양도
촌학	-	가파도
촌역	세화	우도
촌낙	-	조수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던 ‘촌혹’은 산발적으로 출현하며, ‘촌혹’은 남원(南元) 태흥(泰興)에서만 출현하며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과 서귀(西歸) 서흥(西烘)에서는 ‘촌혹’으로 나타난다. 조천(朝天),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가시(加時),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에서도 ‘촌혹’이 조사되어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촌역’이 분포하던 구좌(舊左) 세화(細花)에서는 ‘촌혹’이 조사되었으며, 우도(牛島)에서 ‘촌역’이 조사되었다. 섬 지역인 비양도(飛揚島)에서 ‘촌혁’, 가파도(加波島)에서 ‘촌학’이 새로 출현하였다.

• 저녁(언어지도 094)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즈녁	-	가파도
즈낙	전 지역	노형 인성 한림 봉성
즈낙	노형 김녕 수산 조수	-
저낙	전 지역	조천 세화 우도 가시 서흥 하원 화순
저녁	전 지역	수산 태흥 비양도
저낙	전 지역	-
저뭇	전 지역	-
즈뭇	노형 인성 조수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즈낙·저낙·저녁’은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나타나며, 자료집의 ‘즈낙·저낙·저뭇·즈뭇’은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개구리(언어지도 09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굴개비	노형 인성 조수	노형 조천 인성 가파도 한림 봉성
ㄱ개비	-	조수 비양도
개개비	조수	조천 우도 서흥 하원 화순
가가비	-	태흥 서흥 한림
가개비	김녕 수산 가시 서흥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굴개비’와 ‘개개비’, ‘가개비’는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조사되었다. ‘ㄱ개비’와 ‘가가비’가 새로 조사되었다.

• 울챙이(언어지도 09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멘주기	하원 화순 인성 조수 어도	노형 하원 화순 조수 한림 가파도 봉성
멘주에기	-	인성
강베룩	하원 화순	수산 태흥
깁베룩	-	수산
깁베리	조천 세화 수산	조천 우도
깁베림	-	세화
고노리	-	서흥
울챙이	-	가파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멘주기’는 이번 조사에서 확산되어 분포하며, 중문(中文) 하원(河源)과 안덕(安德) 화순(和順)에 분포하던 ‘강베룩’이 정의(旌義) 지역에서 조사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깁베리’는 조천(朝天)에서는 일치하나 구좌(舊左) 세화(細花)와 성산(城山) 수산(水山)에서는 각각 ‘깁베림’과 ‘깁베룩’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으며, 우도(牛島)에서 ‘깁베리’가 조사되었다. ‘멘주에기·깁베룩·깁베림·고노리·울챙이’ 등이 새로 조사되었다.

• 개똥벌레(언어지도 09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불한뒤	어도	노형 조천 수산 서흥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불한지	김녕 수산	-
불란디	-	태흥 하원 화순
불란지	-	세화 우도 가시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애월(涯月) 어도(於道)에 나타나는 ‘불한지’가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나타나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의 ‘불한지’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불란디’와 ‘불란지’가 새로 조사되었다.

• 귀뚜라미(언어지도 09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공중이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가시 하원 화순 인성 가과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공쟁이	서흥	태흥 서흥
똥복자기	-	가시
귀뚜라기	-	수산
공쟁이말축	수산 표선	-
공쟁이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공중이’는 정의(旌義)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치하며, 서귀(西歸) 서흥(西烘)에 나타나는 ‘공쟁이’는 남원(南元) 태흥(泰興)까지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었다. 자료집에 제시된 ‘공쟁이말축’과 ‘공쟁이’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반면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 ‘똥복자기’와 성산(城山) 수산(水山)에서 ‘귀뚜라기’가 새로 조사되었다.

• 잠자리(언어지도 09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밥주리	세화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어도	노형 서흥 하원 화순 가과도 조수 한림 봉성
밥주어리	-	봉성
밥부리	노형 인성	노형 조천 인성 비양도
준자리	-	세화
물자리	수산 표선 태흥	수산 가시 태흥
물짚	조천	-
잘	-	우도
산태	-	조수
왕놈	-	조수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밥주리’(涯月·翰京·大靜·安德·中文·西歸), ‘밤부리’(濟州市·大靜), ‘물자리’(南元·表善·城山)의 분포 지역은 이번 조사와 일치한다. 구좌(舊左) 세화(細花)에서는 ‘밥주리’ 대신에 ‘즌자리’로 조사되었다. 자료집의 ‘물젤’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잘’이 우도(牛島), ‘산태’와 ‘왕놈’이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 새로 조사되었다.

• 장구벌레(언어지도 10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장굴레비	하원 화순 인성	노형 조천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장쿨레비	노형 인성 조수	하원 한림 비양도 봉성
고노리	조천 세화 수산 표선 태흥	수산 태흥 서흥
고누리	-	가시
깡베리	-	세화
물즙싱	-	우도
장칼레비	서흥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장쿨레비’(濟州市·大靜·翰京), ‘장굴레비’(中文·安德)·大靜)는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조사되었으며, ‘고노리’(城山·表善·南元)는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출현하고 있다. 자료집의 ‘장칼레비’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고누리’(加時), ‘깡베리’(細花), ‘물즙싱’(牛島)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 방아깨비(언어지도 104)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심방말축	수산 태흥 서흥	노형 수산 화순 인성 조수 한림
심방만축	수산 가시 하원 화순 인성 어도	가파도 비양도 봉성
산뒤말축	수산 태흥	서흥 하원
산뒤말축	노형 조천 수산	태흥
상동말축	표선	가시
소곰바치	-	조천
소곰바치	-	세화 우도
산전블락	노형 하원	-
산전블라기	세화 태흥 서흥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심방말축’은 서귀(西歸), 남원(南元), 성산(城山)에 나타나 이번 조사와 차이를 보이며, ‘심방만축’은 애월(涯月), 대정(大靜), 안덕(安德), 중문(中文)과 성산(城山), 표선(表善)에 분포하여 또한 약간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산퇴말축’은 남원(南元)과 성산(城山), ‘산뒤말축’은 제주시(濟州市), 조천(朝天), 성산(城山)에 분포하여 이번 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자료집의 ‘상등말축’(表善)은 이번 조사에서는 ‘상동말축’(表善)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집에 제시된 ‘산전블락’과 ‘산전블라기’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신 ‘소금바치’와 ‘소금바치’가 새로 조사되었다.

• 버마재비(언어지도 10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국주베기	-	세화 태흥
국쥐에기	전 지역	노형 조천 우도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한림 비양도 봉성
국쥐기	-	조수
당의앵이	노형 조수	노형
당녕이(당행이)	-	조천 수산 가시 태흥
독도독눔	-	조수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국쥐에기’가 정의(旌義) 지역인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가시(加時), 남원(南元) 태흥(泰興)에서는 ‘당녕이’로 조사되어 차이가 있다. ‘당의앵이’는 그 분포가 축소되어 출현 하며, ‘국주베기·국쥐기·당녕이(당행이)·독도독눔’의 방언형들은 새로 조사되었다.

• 쥐(언어지도 10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중이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쟁이	전 지역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쥐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나타나는 ‘중이’는 산북(山北) 지역과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에, ‘쟁이’는 정의(旌義) 지역을 비롯하여 중문(中文) 하원(河源)에 분포하여 그 지역이 축소되었다.

• 참새(언어지도 10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참새	노형 수산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가파도 비양도



춤생이	인성 조수 어도	하원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봉성
생이	-	우도
밥주리생이	노형 조천 세화 표선	노형 서흥
밥주리	-	노형 조천 세화 수산 가시 태흥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춤새’는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섬 지역(加波島·飛揚島)에만 출현하며, ‘춤생이’는 그 분포가 확산되어 조사되었다. 반면 ‘밥주리생이’는 분포가 축소되어 나타난다. ‘밥주리생이’를 줄인 ‘밥주리’는 대체적으로 동부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 모이주머니(언어지도 10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멀떡	수산 표선 태흥	수산 가시 태흥 서흥
멀터거니	노형 조천 서흥 어도	조천 세화 조수 한림
멀터쟁이	화순	하원
물터거니	노형 어도	노형 화순
물테강이	-	인성 봉성
명텅구리	-	우도
명터거리	-	가파도
떡통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멀떡’은 남원(南元), 표선(表善), 성산(城山)의 방언형에서 서귀(西歸)까지 그 분포를 확산하였다.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조천(朝天), 서귀(西歸) 서흥(西烘), 애월(涯月) 어도(於道)에 분포하는 ‘멀터거니’도 그 세력을 넓혀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물테강이·명텅구리·명터거리·떡통’ 등의 방언형은 새로 조사되었다.

• 도마뱀(언어지도 10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독다귀	노형 인성 조수	노형 봉성
독다구리	하원 화순 인성	하원 화순 인성 한림
독달기	-	가파도 조수 비양도
장쿨레비	표선 서흥	조천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장갈레비	조천 세화 수산 태흥	세화
장쿨레비	수산 서흥	조천
독다귀	노형 인성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독다귀’(濟州市·大靜·翰京), ‘독다구리’(中文·安德·大靜)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분포한다. ‘장쿨레비’(表善·西歸), ‘장갈레비’(朝天·舊左·城山·南元), ‘장쿨레비’(城山·西歸)의 분포 지역과 이번 조사는 일치한다. 자료집에 제시된 ‘독다귀’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새로 ‘독달기’가 조사되었다.

• 소라개(언어지도 11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거드레기	-	조수 한림 비양도
거들레기	노형	-
기드레기	화순 인성	화순 인성
그드레기	-	가과도
게드레기	수산 표선 태흥 서흥 하원 조수	서흥 하원 봉성
게들레기	세화 조천 표선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게들메기	-	태흥
늪의집살이	-	노형 가시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기드레기’와 ‘게드레기·게들레기’의 분포 지역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게드레기’가 분포하는 것에 차이를 보인다. 자료집의 ‘거들레기’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거드레기·그드레기·게들메기’를 비롯하여 특히 어형인 ‘늪의집살이’가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표선(表善) 가시(加時),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다.

• 게(언어지도 11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깡이	노형 김녕 인성 조수	노형 조천 세화 우도 화순 인성 가과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궁이	-	봉성
갱이	수산 표선 태흥 서흥 하원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경이	노형	-
기	조수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깡이’는 제주시(濟州市), 구좌(舊左), 대정(大靜), 한경(翰京)에 분포하고, ‘갱이’는 성산(城山), 표선(表善)남원(南元), 서귀(西歸), 중문(中文) 지역의 방언형으로 제시되어 이번 조사와 일치한다. 자료집에 제시된 ‘깡이’(濟州市)와 ‘기’(翰京)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자료집의 ‘심방궁이’(두점박이민꽃게), ‘춤궁이’(참게), ‘터럭궁이’(털게), ‘듬북궁이’(털다리물맞이게) 등 합성어에 나타나는 ‘궁이’가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다.

• 남방울타리고동(언어지도 11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ㄱ메기	수산 가시 서흥 인성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화순 인성 가파도
춤ㄱ메기	-	서흥
코트데기	-	노형 인성 조수 비양도
코타드레기	-	봉성
코트드레기	-	노형
곱쟁이	조수	노형 조수 비양도
눈곱쟁이	-	한림
ㄱ메기보말	노형 김녕 인성 조수	-
곱세기	김녕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ㄱ메기’는 대정(大靜), 서귀(西歸), 표선(表善), 성산(城山)에 분포하여 이번 조사와 일치하고, ‘곱쟁이’가 한경(翰京)에서 조사된 것도 일치한다. 자료집에 제시된 ‘ㄱ메기보말’(濟州市·舊左·翰京·大靜)과 ‘곱세기’(舊左)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으며, ‘춤ㄱ메기·코트데기·코타드레기·코트드레기’ 등은 새로 조사되었다.

• 애기삿갓조개(언어지도 11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베말	-	화순 인성 조수 봉성
베덜	-	한림 비양도
비말	-	노형
베망	-	수산 하원 가파도
벨망	-	가시 태흥 서흥
쟁베름	-	조천 세화 우도
춤베말	서흥 인성 조수	-
춤비말	노형	-
쟁베리	김녕	-
쟁베리	김녕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다. 자료

집에서는 ‘춤-’계열의 ‘춤베말·춤비말’과 ‘깡베리·쟁베리’라는 방언형이 제시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춤-’이 없는 ‘베말·베말·비말·베망·벨말·쟁베름’이 조사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소라(언어지도 11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구쟁기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수산 가시 태흥 서흥 조수 비양도 봉성
구쟁이	전 지역	조천 한림
구제기	-	하원 화순 가파도
고동	-	우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구쟁기·구쟁이’는 ‘구제기’가 분포하는 대정(大靜)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출현한다. ‘구쟁이’는 조천(朝天)과 한림(翰林)에 분포하며, 우도(牛島)에서는 ‘고동’이 조사되었다.

• 문어(언어지도 11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문게	세화 수산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문게	전 지역	-
물꾸럭	전 지역	노형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한림 봉성
무꾸럭	조수	조수 한림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구좌(舊左) 세화(細花), 성산(城山) 수산(水山)의 방언형 ‘문게’는 그 분포 지역을 확산하여 나타나며, 전 지역에 분포하는 ‘물꾸럭’은 중앙부인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 가파도(加波島),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다. ‘무꾸럭’도 지역이 확산되어 한경(翰京) 조수(造水)는 물론 인접 지역인 한림(翰林)과 비양도(飛揚島)에서도 출현한다.

• 배도라치(언어지도 11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벼들레기	-	노형 하원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벼드레기	인성	-

벼들락	가시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베들레기	김녕 조수	가파도
베드레기	노형 김녕 수산 서흥 인성	-
벼드라기	어도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표선(表善) 가시(加時)에 분포하는 ‘벼들락’은 그 인근 지역인 조천(朝天), 구좌(舊左) 세화(細花), 성산(城山) 수산(水山), 남원(南元) 태흥(泰興), 서귀(西歸) 서흥(西烘)으로 그 분포 지역을 확산하여 출현하며, 구좌(舊左) 김녕(金寧)과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분포하는 ‘베들레기’는 섬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 조사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집에 제시된 ‘벼드레기·베드레기·벼드라기’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지만 ‘벼드레기’가 노형(老衡) 등에서 출현하였다.

• 옥돔(언어지도 12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생선	-	태흥 하원 조수 한림
생성	-	노형 가시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비양도 봉성
솔라니	-	서흥 하원
솔래기	-	수산
솔아리	-	가파도
오트미	-	우도 태흥 하원
오투미	-	세화
오톨생선	조수	조천 가시
오토미	전 지역	-
오편미	노형 인성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오토미’는 전 지역에 나타나는 방언형으로 제시된 반면 ‘오편미’는 제주시(濟州市)와 대정(大靜)에, ‘오톨생선’은 한경(翰京)의 방언형으로 제시되어 이번 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솔라니·솔래기·솔아리’가 새로 조사되었다.

• 해파리(언어지도 12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물이실	수산 서흥 인성	-
물이실맹이	김녕	-
물이슬	수산 조수	노형 조천 화순 인성

물어음	가시	-
물우슬	노형	-
물방석	-	세화
물쿠쟁이	-	태홍
물췌기	-	인성 가파도
물미쟁이	-	봉성
물망테	-	세화
수박망테	-	우도
우박망테	-	우도
미우설	조수	조수
미설	-	한림
미실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 자료집과 비교할 때,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 조사된 ‘미우설’을 제외하고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다. 자료집의 ‘물이실·물이실맹이·물어음·물우슬’이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물방석·물쿠쟁이·물췌기·물미쟁이·물망테·수박망테·우박망테·미설·미실’ 등이 새로 조사되었다.

• 오분자기(언어지도 122)<sup>133)</sup>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오분제기	노형 김녕 서흥 인성 조수	노형 조천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오분자기	노형 조천 조수	-
오분작	수산 가시	세화 우도
조계	-	수산 가시 태홍 서흥
조계기	-	하원
바르	-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자료집의 ‘오분제기’가 구좌(舊左) 세화(細花)와 대정(大靜) 인성(仁城), 서귀(西歸) 서흥(西烘)을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오분작’이가 분포하는 성산(城山) 수산(水山)과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는 ‘조계’로 출현하며 ‘오분작’은 구좌(舊左) 세화(細花)와 우도(牛島)에서 조사되었다. ‘조계·조계기·바르’가 새로 조사되었다.

133) 자료집에서는 ‘떡조계’의 방언형으로 언급하고 있다.



• 개똥참외(언어지도 12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갈자귀	-	비양도
갈자귀	-	조수 한림
갈제기	-	한림
갈장귀	-	화순 인성
간질귀	수산	노형 조천 세화
간잘귀	서흥 인성 조수	우도 하원 인성 가파도
간잘귀	노형	-
간질기	-	조천 가시 태흥 하원 봉성
간질미	-	수산
간잘미	김녕	세화
간질레기	-	서흥
반잘귀	-	우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구좌(舊左)에서의 ‘간잘미’, 대정(大靜)에서 ‘간잘귀’가 일치하고, 나머지 방언형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곧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에서 ‘간잘귀’가 ‘간질귀’로 조사되었고, 성산(城山) 수산(水山)에서는 ‘간질귀’가 ‘간질미’로 조사되었다. 서귀(西歸) 서흥(西興)에서는 ‘간잘귀’가 ‘간질레기’로,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는 ‘간잘귀’가 ‘갈자귀’로 출현하고 있다. ‘갈자귀·갈자귀·갈제기·갈장귀·간질기·간질미·간질레기·반잘귀’ 등은 새로 조사된 방언형이다.

• 짜리(언어지도 12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푸께	조천 세화 수산 표선 태흥 하원 화순 어도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푸께기	서흥 하원 조수	화순 한림
풀처귀	-	노형
푼철귀	노형 인성 어도	노형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푸께’는 그 분포가 확산되어 제주시(濟州市)를 제외한 전 지역에 출현하고 있다. ‘푸께기’가 출현하는 서귀(西歸) 서흥(西興), 중문(中文) 하원(河源),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는 모두 ‘푸께’로 나타나며, ‘푼철귀’도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에서만 일치한다. ‘풀처귀’는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에서 새로 조사된 방언형이다.

• 냉이(언어지도 12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난시	-	노형 조천
나시	조천 세화 수산 표선 가시 태흥 서흥	-
난쟁이	김녕 수산 가시 서흥	조천 세화 우도 가시 서흥
난지	인성	하원
난쟁이	인성 조수	수산 태흥 서흥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봉성
난쟁이늑물	-	비양도
난쟁이늑물	-	가파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난쟁이’는 구좌(舊左), 표선(表善), 서귀(西歸)에서는 일치하나 성산(城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정(大靜) 인성(仁城)에 분포하는 ‘난지’는 중문(中文) 하원(河源)에 나타나며, 대정(大靜) 인성(仁城),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나타나는 ‘난쟁이’는 그 분포 지역을 확산하여 한림(翰林), 애월(涯月)과 성산(城山)으로 확산되어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료집의 ‘나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난시·난쟁이늑물·난쟁이늑물’ 등이 새로 조사되었다.

• 파(언어지도 12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패마농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봉성
마농	전 지역	-
뽕이마농	-	조수 한림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뽕이마농’이 조사된 한경(翰京) 조수(造水)와 한림(翰林) 그리고 비양도(飛揚島)를 제외하고는 ‘패마농’이 분포하여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었다.

• 새 품(언어지도 12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미뽕쟁이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하원 화순 인성 봉성
미뽕쟁이	-	수산 가시
미구쟁이	노형	태흥
미우쟁이	노형 태흥 조수 어도	가시 서흥 조수 한림
어욱뽕이	-	우도 가파도
어욱고장	-	봉성
어욱꽃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미뻬쟁이’가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 조천(朝天), 구좌(舊左) 세화(細花), 중문(中文) 하원(河源), 안덕(安德) 화순(和順), 대정(大靜) 인성(仁城), 애월(涯月) 봉성(鳳城) 등에 산발적으로 출현하며, ‘미우쟁이’는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만 일치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미뿌쟁이·어욱뽕이·어욱고장·어욱꽃’ 등이 새로 조사되었다.

• 바랭이(언어지도 12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제환지	수산 가시 조수	봉성
제완지	노형 김녕 서흥 조수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조수 한림 비양도
절좌니	-	화순 조수
절완지	-	인성 가파도
제와니	노형 서흥 조수	-
절와니	인성	-
절완지	인성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가시(加時),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분포하던 ‘제환지’는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으며, ‘제완지’는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나타난다. 자료집의 ‘제와니’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

• 뱀딸기(언어지도 13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게미탈	-	조천 수산
게염지탈	전 지역	우도 수산 가시 태흥 하원 인성 한림
게여미탈	김녕 가시	-
게예미탈	수산	노형
거미탈	-	세화
베염탈	-	서흥 하원 인성
베염유리	-	한림
아야머리탈	-	조수 봉성
아여머리탈	-	화순 비양도
꿩탈	-	태흥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게염지탈’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구좌(舊左) 세화(細花)와 표선(表善) 가시(加時)의 ‘게여미탈’이 각각 ‘거미탈’과 ‘게염지탈’로 조사되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성산(城山) 수산(水山)의 ‘게여미탈’은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에서 조사되었다. ‘게미탈·거미탈·베염탈·베염유리·아야머리탈·아여머리탈·핑탈’ 등은 새로 출현한 방언형들이다.

• 으름(언어지도 13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졸갱이	노형 하원 화순 인성 조수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봉성
유름	조천 서흥 인성	노형 조천 세화 수산 가시 태흥 서흥
존갱이	조천 세화 수산 표선 태흥	-
유림	수산	-
유으름	노형 조천 세화 수산 표선 태흥 서흥 하원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에는 방언형으로 ‘졸갱이·존갱이·유름·유으름·유림’ 등이 제시되었다. ‘졸갱이’는 제주시(濟州市), 한경(翰京), 대정(大靜), 안덕(安德), 중문(中文)에 분포하여 이번 조사와 일치하며, ‘유름’(朝天·西歸·大靜)이 서귀(西歸), 대정(大靜)에 나타나는 점과 ‘유으름’(濟州市·朝天·舊左·城山·表善·南元·西歸·中文)이 서귀(西歸), 중문(中文)에 분포하는 점이 이번 조사와 차이난다. 자료집의 ‘존갱이’는 이번 조사에서는 줄기의 이름으로 제시되었고, ‘유림, 유으름’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 제비꽃(언어지도 134)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뭇싸움고장	노형 서흥 인성 조수	노형 가시 태흥 하원 화순 한림 봉성
뭇코장	-	서흥 하원 화순
아진베기	-	수산
아진베기꽃	-	조천
아진베기쿨	-	가파도
아진베기고장	서흥	-
쓸게풀	가시	가시 우도
쓸게꽃	김녕 수산	세화 우도 수산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뭇싸움고장’은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나타나며, ‘쓸게풀’과 ‘쓸게꽃’ 또한 그 분포가 우도(牛島)까지 확산되어 출현한다.

자료집에서는 서귀(西歸)에서 ‘아진베기고장’이 분포하며, 이번 조사에서는 ‘아진베기·아진베기꽃·아진베기쿨’로 조사되었고, 서귀(西歸) 서흥(西烘), 중문(中文) 하원(河源), 안덕(安德) 화순(和順)에서 ‘물코장’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 박(언어지도 10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꼭	전 지역	노형 조천 구좌 우도 수산 가시 태흥 서흥 봉성
쿨락	인성 조수	하원 화순 인성 조수 가파도 한림 비양도
쿨왓	조수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꼭’은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동부 지역에 나타나며, 대정(大靜) 인성(仁城), 한경(翰京) 조수(造水)에 분포하던 ‘쿨락’은 인근 지역인 중문(中文) 하원(河源), 안덕(安德) 화순(和順)과 한림(翰林)까지 확산되어 출현한다.

• 청미래덩굴(언어지도 13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멩게낭	노형 수산 가시 서흥 인성 조수	노형 조천 세화 우도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한림 봉성
멩과낭	수산	-
멩궤낭	김녕	-
멜레기낭	수산	수산 가시
벨레기낭	서흥	하원 화순 인성
벨랑궤낭	조수	조수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멩게낭’은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출현하며, ‘멜레기낭’과 ‘벨레기낭’, ‘벨랑궤낭’ 또한 그 분포가 확산되어 나타난다. 자료집의 ‘멩과낭·멩궤낭’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 쫄레나무(언어지도 13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새비낭	김녕 조수	노형 조천 세화 조수 한림
새베낭	노형 수산 가시 서흥 인성	-
새비낭순	-	비양도
도꼬리낭	-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봉성
또꼬리낭	-	수산

ㄱ방귀낭	-	가시
질레낭	-	화순
해병줄	-	세화
가시낭	-	조천
슬래비낭	-	조천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새비낭’은 그 분포가 확산되어 출현한다. ‘새배낭’이 나타나는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에서는 ‘새비낭’으로, 성산(城山) 수산(水山)에서는 ‘또꼬리낭’으로,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는 ‘ㄱ방귀낭’으로, 서귀(西歸) 서흥(西興)과 대정(大靜) 인성(仁城)에서는 ‘또꼬리낭’으로 출현하여 차이를 보인다.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새비낭순·또꼬리낭·또꼬리낭·ㄱ방귀낭·질레낭·해병줄·가시낭·슬래비낭’ 등이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출현한다.

• 딸구슬나무(언어지도 13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물쿠실낭	김녕 수산 가시 서흥 인성	조천 세화 우도 가시 태흥 서흥
물쿠지낭	-	수산
ㄴ쿠실낭	-	하원
몽쿠실낭	-	화순 인성 조수
몽쿠슬낭	-	봉성
떡쿠슬낭	-	노형 비양도
멍쿠실낭	-	한림 봉성
고련목	-	조천 수산 서흥 하원 인성 조수 한림 봉성
마주목	-	성산
머쿠슬낭	노형 조수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물쿠실낭’이 확산되어 출현하며, ‘머쿠슬낭’이 나타나는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에서는 ‘떡쿠슬낭’으로, 한경(翰京) 조수(造水)에서는 ‘몽쿠실낭’으로 출현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물쿠지낭·ㄴ쿠실낭·몽쿠실낭·몽쿠슬낭·떡쿠슬낭·멍쿠실낭·고련목·마주목’ 등이 출현한다.

• 실거리나무(언어지도 13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실거리낭	노형 어도	노형 조수 한림 봉성
썰거리낭	서흥 인성 조수	조천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비양도



수꾸리낭	수산 가시	수산 가시
범주리낭	김녕	조천
범주리가시	-	세화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실거리낭’과 ‘썰거리낭’은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출현함을 알 수 있으며, ‘수꾸리낭’의 분포는 일치한다. 구좌(舊左) 김녕(金寧)에서 조사된 ‘범주리낭’은 조천(朝天)에 분포한다는 것과 ‘범주리가시’가 새로 출현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 모자반(언어지도 14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믈망	-	가시 태흥 서흥
믈음	-	우도 수산
믈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믈망	김녕 수산 서흥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믈’이 산북(山北) 지역과 산남(山南) 서쪽 지역에 분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구좌(舊左) 김녕(金寧), 성산(城山) 수산(水山), 서귀(西歸) 서흥(西烘)에 분포하는 ‘믈망’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믈망’과 ‘믈음’이 새로 출현하였다.

• 가져오다(언어지도 144)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아상오다	-	조천 우도
아사오다	노형 조천 세화 수산 조수 어도	-
아저오다	노형 조천 세화 수산 표선 태흥 조수 어도	노형 세화 가시
아정오다	-	서흥
으저오다	하원 화순 인성 조수 어도	화순
ㄱ저오다	하원 화순 인성 조수 어도	태흥 인성 가파도 비양도 봉성
ㄱ정오다	-	하원
거저오다	-	조수 한림 비양도
가저오다	-	수산 하원 조수
가저오다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가저오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가저오다’ 형태로 성산(城山)·중문(中文)·한경(翰京)에서 조사되었

다. 자료집의 ‘아사오다’도 ‘아상오다’ 형태로 조천(朝天)과 섬 지역인 우도(牛島)에서 출현하여 그 분포 지역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濟州市)에서 ‘아저오다’, 구좌(舊左)에서 ‘아저오다’, 표선(表善)에서 ‘아저오다’, 안덕(安德)에서 ‘으저오다’, 대정(大靜)에서 ‘ㄱ저오다’, 애월(涯月)에서 ‘ㄱ저오다’는 그 분포가 일치하고 있다. 전 지역에 분포하던 ‘가저오다’는 성산(城山), 중문(中文), 한경(翰京)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아사오다’는 조천(朝天)에서는 ‘아상오다’, 구좌(舊左)에서는 ‘아저오다’, 성산(城山)에서는 ‘가저오다’로 교체되어 나타나며, ‘으저오다’도 중문(中文)에서 ‘가저오다’, 한경(翰京)에서는 ‘거저오다’로 조사되었다.

• 도사리다(언어지도 14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복쉬똥우다	서흥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복쉬똥우다	수산	-
사리다	-	조천 세화 조수 봉성
똥사리다	노형 김녕 조수 인성	노형 봉성
스리다	-	-
스려앗다	-	한림
사려앗다	-	인성 가파도
양반치다	-	우도
양반청앗다	-	우도
양반다리흐다	-	비양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서귀(西歸) 서흥(西烘)에 분포하는 ‘복쉬똥우다’가 서귀(西歸)를 비롯하여 표선(表善), 중문(中文), 안덕(安德), 대정(大靜)으로 확산되어 출현하며, 성산(城山) 수산(水山)에 출현하는 ‘복쉬똥우다’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산발적으로 출현하던 ‘똥사리다’는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과 애월(涯月) 봉성(鳳城)에서 조사되었다.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방언형인 ‘스려앗다·사려앗다’를 비롯하여 특이 어형인 ‘양반치다·양방청앗다·양반다리흐다’가 새로 조사되었다.

• 들이켜다(언어지도 14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드리씨다	전 지역	수산 조수
드르씨다	-	세화 한림
드르쓰다	전 지역	조천 우도 수산 서흥 하원 화순 인성 비양도
드리씨다	전 지역	노형 봉성
드르싸다	-	가파도
드리치다	-	태흥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서 출현하던 ‘드리씨다, 드르쓰다, 드리씨다’ 등은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출현하고 있다. 섬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에서 ‘드르쓰다’가, 남원(南元) 태흥(泰興)에서 ‘드리치다’가 새로 조사되었다.

• 뛰다(언어지도 147)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뛰다	전 지역	조천 세화 우도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가파도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퀴다	노형 김녕 수산 서흥 인성	노형 수산 가시
뛰다	전 지역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뛰다’는 그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출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던 ‘퀴다’도 제주시(濟州市) 노형(老衡)과 성산(城山) 수산(水山), 표선(表善) 가시(加時)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 (담)무너지다(언어지도 148)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너지다	-	인성 가파도
넝크러지다	-	하원
머흐러지다	-	조천 우도 수산
머으러지다	조천 세화 수산 표선	-
멀어지다	-	우도
머려지다	-	세화
물아지다	노형 하원 인성 조수 어도	화순 조수 한림 비양도 봉성
몽크러지다	-	태흥
무너지다	조천 어도	서흥
물러지다	노형 조수	노형 조천
멜라지다	-	하원
헤싸지다	-	가시 하원
헐어지다	-	태흥
커지다	김녕 수산 표선 서흥 인성	가시 서흥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제주시(濟州市)에서 ‘물러지다’, 표선(表善)과 서귀(西歸)에서 ‘커지다’, 한경(翰京)과 애월(涯月)에서 ‘물아지다’가 같은 지역에 분포하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조천(朝天), 구좌(舊左), 성산(城山), 표선(表

善)의 ‘머으러지다’는 ‘머호러지다’로 교체되어 조천(朝天), 우도(牛島), 성산(城山)에 출현하고 있다.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방언형인 ‘너러지다·녕크러지다·떨어지다·머러지다·몽크러지다·멜라지다·헤싸지다·헐어지다’ 등이 새로 조사되었다.

• 배따다(언어지도 149)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베카다	수산 서흥 조수	가파도 한림 비양도 봉성
베크다	노형 어도	-
베갈르다	-	조수
베브르다	전 지역	노형
베블르다	-	인성
베르싸다	-	세화
페쓰다	-	수산 가지 태흥 서흥 하원
베벨르다	-	조천 하원 화순
등타다	-	우도
등탕페쓰다	-	우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베브르다’가 제주시(濟州市)에서 조사되었으며, 성산(城山), 서귀(西歸), 한경(翰京)에 출현하던 ‘베카다’는 한림(翰林)과 애월(涯月), 섬 지역인 가파도(加波島)와 비양도(飛揚島)에서 조사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베블르다·베르싸다·페쓰다·베벨르다’와 우도(牛島)에서 ‘등타다·등탕페쓰다’가 새로 조사되었다.

• 끼이다(언어지도 150)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줍지다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조수 비양도 봉성
접지다	수산 조수	수산 가지 태흥 서흥 하원
젹지다	어도	화순 인성 가파도 한림
젹히다	노형 조수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줍지다’가 산북(山北) 지역에서만 출현하여 차이를 보인다. ‘접지다’는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나타나며, ‘접지다’와 ‘젹지다’ 또한 그 분포 지역이 확산되어 분포한다. 자료집의 ‘젹히다’(濟州市·翰京)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 쨩그리다(언어지도 151)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징그리다	수산 서흥 인성	조천 우도
쨩그리다	노형 김녕 수산 서흥 조수	-
주그리다	-	세화
싱그리다	노형 김녕 수산 서흥 조수	인성
싱크리다	노형 조수	-
싱키리다	-	노형
성그리다	-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한림
성으리다	-	하원 화순 가파도 조수 비양도
상으리다	-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모든 방언형에서 출현하는 그 분포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집의 ‘쨩그리다·싱크리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싱키리다·성그리다·성으리다·상으리다’가 새로 조사되었다.

• 팔짱끼다(언어지도 152)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폴똥찌다	김녕	조천 세화
폴똥찌다	-	수산
폴짱찌다	-	한림
폴쨩찌다	서흥	서흥 화순
폴쨩찌다	진 지역	하원 인성 가파도 조수 비양도 봉성
손쨩찌다	노형 인성 조수	노형 조수 한림
폴찌다	-	우도 태흥
폴똥찌다	수산 서흥	-
폴쨩찌다	수산	-
독안다	-	노형 비양도
훤독안다	-	가시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진 지역에 분포하던 ‘폴쨩찌다’가 서부 지역에 한정하여 분포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濟州市)와 한경(翰京)에서 ‘손쨩찌다’, 구좌(舊左)에서 ‘폴똥찌다’, 서귀(西歸)에서 ‘폴쨩찌다’가 일치할 뿐 다른 방언형에서는 그 분포 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집의 ‘폴똥찌다·폴쨩찌다’는 이번 조사에서 출현하지 않았으며, ‘독안다·훤독안다’라는 특이 어형이 새로 조사되었다.

• 가지런하다(언어지도 153)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크짱하다	전 지역	노형 조천 세화 우도 수산 인성 한림 가파도
크짱하다	-	조수 비양도
크똥하다	전 지역	가시 태흥 서흥 하원 화순 인성 봉성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크짱하다’가 산북(山北)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반면, ‘크똥하다’는 산남(山南)에 집중적으로 출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집에서 제시되지 않은 ‘크짱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 간지럽다(언어지도 154)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즈급다	전 지역	화순 봉성
즈꿍다	전 지역	한림
즈꼴로다	-	노형 조천 우도 인성 비양도
즈꼴롭다	-	세화
즈급타다	-	조수
저급타다	-	우도 수산
저급다	전 지역	가시 태흥 서흥 하원
제급다	-	가파도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던 ‘즈급다·즈꿍다·저급다’는 각각 제주시(濟州市)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며, ‘즈꿍다’는 산북(山北)에서 동부 지역인 조천(朝天), 구좌(舊左)에 출현한다. 한편 ‘저급다’는 정의(旌義) 지역을 비롯하여 중문(中文)에서 조사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즈꼴로다·즈꼴롭다·저급타다·저급타다’와 ‘제급다’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출현하였다.

• 눈부시다(언어지도 155)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눈즈급다	-	화순 인성 조수 봉성
눈즈꿍다	노형 조수	우도 한림
눈즈꿍다	김녕	-
눈즈급다	인성	노형
눈즈꼴로다	-	조천 세화 비양도



눈저굽다	조수	수산 가시 태흥 서흥 하원
눈저굽다	수산	-
눈제굽다	-	가과도
눈제겹다	서흥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각 방언형의 분포 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집에 제시된 ‘눈즈굽다·눈저굽다·눈제겹다’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눈저굽다·눈즈골로다·눈제굽다’가 새로 조사되었다.

• 재수좋다(언어지도 156)

방언형	1960년대 출현 지점	2010년 출현 지점
머의좋다	전 지역	수산 가시 서흥 하원 화순 인성 조수 봉성
머으좋다	-	가과도
머희좋다	전 지역	-
머세좋다	-	조수 비양도
머쟁이좋다	수산 어도	노형 한림 봉성
머정좋다	-	조천 세화 우도 수산 가시 태흥
머쟁이좋다	김녕 수산 어도	-

현평효(玄平孝)의 자료집과 비교할 때, 전 지역에 분포하는 ‘머의좋다’는 대정(大靜) 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출현하는데 반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출현하여 차이를 보이며, ‘머희좋다’는 이번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머쟁이좋다’는 구좌(舊左)와 성산(城山)에서 ‘머정좋다’로 교체되어 출현한다. 한편 ‘머쟁이좋다’는 애월(涯月)에서는 일치하나 성산(城山)에서는 ‘머의좋다’로 조사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머으좋다·머세좋다·머정좋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 출현한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제 시간에 따른 변화 유형은 대체적으로 방언형과 분포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방언형은 같으나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출현하는 경우와 확산하여 출현하는 경우, 둘 이상의 새로운 방언형이 조사된 경우이다. 이 각각을 일치형(一致型)·축소형(縮小型)·확산형(擴散型)·신출형(新出型)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에게 해당하는 어휘를 제시<sup>134)</sup>하면 다음과 같다.

134) 제시하는 어휘들은 어느 한 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어휘만을 제시한다.

<표 13> 유형별 어휘 목록

유형	해당 어휘	비고
일치형	마간이(007), 품삯(013), 허수아비(014), 콩나물(023), 장아찌(024), 죽젓개(026), 대님(034), 고무래(045), 망시리(046), 솔박(049), 짚동(054), 재채기(077), 무지개(088), 매미(100), 메뚜기(101), 예덕나무(140), 탕자나무(141), 툇(143)	18개
축소형	매끼(008), 시루떡(020), 부젓가락(028), 옷감(029), 골무(030), 두루마기(033), 매듭단추(035), 고방(038), 대장간(039), 마루(040), 벽장(041), 장독대(042), 정낭(043), 메호미(047), 썰기(050), 종다래끼(052), 겨드랑이(058), 팔꿈치(059), 쓸개(061), 중지뼈(064), 무릎(065), 병어리(068), 좁제기(070), 코맹맹이(071), 코흘리개(072), 홍역(074), 부스럼(075), 비루(076), 그네(082), 숯바꼭질(083), 안개(087), 양감질(084), 돌생기(092), 저녁(094), 귀뚜라미(098), 게(112), 문어(118), 배도라치(119), 바랭이(129), 으름(133), 들이켜다(146), 간지럽다(154), 재수 좋다(156)	43개
확산형	갱(017), 옷감(029), 잠방이(031), 마루(040), 벽장(041), 장독대(042), 메호미(047), 부시(048), 브른구덕(053), 오줌통(062), 깃저고리(079), 들들(086), 개똥벌레(097)	13개
신출형	매끼(008), 재(010), 빙떡(021), 경그레(022), 웅달술(027), 골무(030), 매듭단추(035), 대장간(039), 장독대(042), 썩게(044), 썰기(050), 상여꾼(056), 자개미(063), 방귀쟁이(067), 코맹맹이(071), 코흘리개(072), 홍역(074), 깃저고리(079), 트림(081), 거품(091), 찰흙(093), 올챙이(096), 잠자리(099), 장구벌레(102), 버마재비(105), 모이주머니(108), 소라게(111), 남방울타리고둥(115), 애기삿갓조개(116), 옥돔(120), 해파리(121), 오분자기(122), 새품(128), 뱀딸기(131), 짚레나무(137), 털구슬나무(138), 도사리다(145), (담)무너지다(148), 배따다(149), 쟁그리다(151), 팔짱끼다(152), 간지럽다(154)	42개

## V. 결 론

이 연구는 제주도 언어지도를 작성하고 실제 시간에 따른 방언형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 있다. 방언 구획은 읍면의 분계선에 따라 등어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제주도의 14개 읍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읍면’은 현평효의 조사 지점에 따른 읍면 지역을 말한다. 조사 지점은 현평효의 지점 가운데 2개 지점이 있는 구좌(舊左)와 표선(表善)은 1개 지점씩을, 조사 지점이 빠진 한림(翰林)은 추가하였다. 여기에 1986년 구좌읍에서 분리된 우도면을 포함시키고, 본섬과 도서 지역의 방언 분화상을 살켜보기 위하여 ‘작은섬’인 한림(翰林) 비양도(飛揚島)와 대정(大靜) 가파도(加波島)를 조사 지점에 추가하여 모두 16개 지점에서 방언 조사가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분화상이 예상되는 어휘 305개와 제보자의 견해를 듣는 문항 5개 등 3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농사 관련 어휘 10개, 음식 관련 어휘 25개, 의복 관련 어휘 15개, 집 관련 어휘 21개, 도구 관련 어휘 22개, 민속 관련 어휘 5개, 인체 관련 어휘 27개, 사람 관련 어휘 13개, 질병 관련 어휘 9개, 육아 관련 어휘 7개, 놀이 관련 어휘 8개, 친족 관련 어휘 3개, 자연 관련 어휘 18개, 동물 관련 어휘 38개, 식물 관련 어휘 32개, 동사 29개, 형용사 8개, 감탄사 4개, 부사 12개, 문법소 6개 항목이다. 여기에 “우리 마을의 말은 ~하고는 다르다.” 하는 언중들에게 내재된 인상적인 질문 2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310개의 문항 가운데 어휘 언어지도 155장과 동서도현도, 방언구획도, 인상적 방언 구획도 등 총 161장의 <제주도 언어지도>가 작성되었다. 작성된 <제주도 언어지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도방언의 동서를 가르는 등어선은 산북(山北) 지역에서는 제주시(濟州市)와 조천(朝天)의 분계선이며, 산남(山南) 지역에서는 서귀(西歸)와 중문(中文)의 분계선이다. 이 등어선이 가장 두꺼운 등어선으로, 이 등어선이 제주도방언을 동서로 양분하고 있다.

이 등어선은 1300년부터 1416년까지 116년 동안 유지된 고려 시대의 동서도현(東西道縣) 설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 동서도현 경계가 곧 제주도를 동서로 가르는 분계선인 동시에 제주도방언을 동서로 구획하는 가장 두꺼운 등어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등어선은 제주도방언을 남북으로 가르고 있다. 이는 한라산의 완만한 산발이 동서로 받아 있고, 1416년에 설치된 제주읍·대정현·정의현이라는 삼읍행정 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주도 산북 지역이 제주목이며, 산남 지역은

다시 동서로 나누어 동쪽은 정의현, 서쪽은 대정현이 되어 하위 방언권 구획에 기여하고 있다. 곧 산북 지역이 고려시대의 동서도현이 하나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산남 지역은 고려시대 동서로 구획된 경계가 조선시대 정의현(旌義縣)·대정현(大靜縣)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산남’, ‘산북’이라는 용어는 언중들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등어선 의식이 내재된 결과로 보인다.

결국 제주도방언 구획은 <동서도현도>와 <제주삼읍도>를 포개어 놓은 것과 같고, 그 결과 제주도방언은 아래와 같이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할 수 있다.

- ① 제주도 동북방언: 조천(朝天)·구좌(舊左)·우도(牛島)
- ② 제주도 서북방언: 제주시(濟州市)·애월(涯月)·한림(翰林)·비양도(飛揚島)·한경(翰京)
- ③ 제주도 동남방언: 서귀포(西歸浦)·남원(南元)·표선(表善)·성산(城山)
- ④ 제주도 서남방언: 중문(中文)·안덕(安德)·대정(大靜)·가파도(加波島)·마라도(馬羅島)

2. ‘우도·비양도·가파도’는 각각 그 섬이 위치한 하위 방언권에 속한다. 곧 ‘우도’는 제주도 동북방언권에, ‘비양도’는 제주도 서북방언권에, ‘가파도’는 제주도 서남방언권에 속한다. 그러나 1842년부터 집단적으로 농경 사회를 이루어 생활했으니 ‘작은섬’의 언어가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바다’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큰섬’과 ‘작은섬’의 방언 분화를 보이고 있다. ‘큰섬’과 다른 분화형을 보여주는 어휘는 <제주도 언어지도>가 그려진 155개 항목 가운데 14.2%인 2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14.2%는 그리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큰섬’과 ‘작은섬’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큰섬’과는 다른 특이한 어형들이 보이는 한편 ‘큰섬’의 언어를 ‘작은섬’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도 ‘작은섬’의 언어를 다르게 취급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이 다른 데서 오는 현상이다.

조사 항목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특이한 방언형을 보이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우도-‘반잘귀’(개똥참외), ‘어욱뽕이’(새뽕), ‘푸지게’(꾸게), ‘쟁반짱’(종지뼈), ‘춘역’(찰흙), ‘물즙성’(장구벌레), ‘멍텅구리’(모이주머니), ‘수박망테·우박망테’(해파리), ‘쓸게풀·쓸게꽃’(제비꽃), ‘양반치다·양반경앗다’(도사리다), ‘등타다·등탕페쓰다’(배따다)

- 비양도-‘난쟁이늑몰’(냉이), ‘반중의’(잠방이), ‘부으레미’(부스럼) ‘손도매’(골)

무), ‘깨미·깨미’(매끼), ‘허세미’(허수아비), ‘죽은숯’(옹달숯), ‘고지’(썰기), ‘유대곤’(상여꾼), ‘즈드랭이’(자개미), ‘코맹맹이’(코맹맹이), ‘아기베옷·아기적삼’(깃저고리), ‘떡돌’(떡돌), ‘촌혁’(찰흙), ‘떡통’(모이주머니)

•가파도-‘난쟁이늬물’(냉이), ‘불집’(부젓가락), ‘푸쇄’(부시), ‘손꼬매’(골무), ‘베들레기’(베도라치), ‘웬착둥이’(왼손잡이), ‘속곶궤·속곶궤작’(매듭단추), ‘마레’(마루), ‘솔기·끄슴솔기’(꾸게), ‘역부’(상여꾼), ‘오곰테기’(자개미), ‘코메기’(코맹맹이), ‘베적삼’(깃저고리), ‘제트림’(트립), ‘촌학’(찰흙), ‘울챙이’(울챙이)

따라서 각각 ‘작은섬’ 언어를 지칭할 때는 ‘우도방언, 비양도방언, 가파도방언’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 언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위 방언 구획은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이라는 삼읍 행정 체제와 일치한다. 이는 498년 이상 이어져온 조선시대 행정 구획이 언중들의 의식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언중들의 이런 인식은 실제 조사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언어지도를 작성한 155개의 어휘 분포 결과를 보면, 삼읍 체제 가운데 가장 언어 차이가 많은 지역은 대정(大靜) 말과 정의(旌義) 말로 155개의 어휘 가운데 34.8%인 54개 어휘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모관[牧內] 말과 정의(旌義) 말로 30.9% 48개 어휘가 다르고, 모관[牧內] 말과 대정(大靜) 말은 10.9%인 17개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언중들은 같은 권역 안에서도 언어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언중들의 심리 속에 내재된 인지적인 방언 구획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한편, 실제 조사에서 같은 권역 안에서도 언어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결과다.

4. 현평효(玄平孝) 자료집의 방언형과 이번 조사된 방언형은 50여 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시간적 거리를 두고 분포의 일치를 보이는 방언형이 있는가 하면(예: 마간이, 품삯 등) 이 시간적 거리로 말미암아 그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도 있다. 자료집에 제시된 방언형이 출현하지 않거나 그 반대로 자료집에 제시되지 않은 방언형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방언형과 분포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를 ‘일치형’(예: 마간이, 품삯 등), 방언형이 같으나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출현하는 경우를 ‘축소형’(예: 부젓가락, 벽장 등), 그 분포 지역이 확산하여 출현하는 경우를 ‘확산형’(예: 갯, 잠방이 등), 둘 이상 새로운 방언형이 조사된 경우를 ‘신출형’(매끼, 재 등)이라고 하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어휘를 제시하였다. ‘축소형’과 ‘확산형’은 상대적으로 작용하지만 지역적 분포의 변화와 더불어 방언형의 교체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언어지도를 그린 어휘 가운데는 훈민정음 당시 어형은 물론 ‘아래아(·)’를 유지하고 있는 어휘와 고형의 어형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류의 어휘가 <제주도 언어지도>를 작성한 155개 어휘 가운데 36개로, 2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래아(·)형이 있는 방언들은 제외된 숫자로, 제주도방언이 국어학자는 물론이고 방언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해 주고 있다.

언어 지도를 작성한 155개 가운데 문헌어가 확인되는 36개의 어휘를 표로 보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제주도 언어지도 속에 나타나는 문헌어

언어지도 번호	표제어	제주도방언	문헌어
006	농사	농스, 농시, 용시,	농스
010	채	불치, 불채, 불깁, 불청	불치
011	새끼	스끼, 슷, 사끼, 새노, 슷노끼, 노, 노끈	스, 슷
015	가루	ㄹ, ㄹ, ㄹ, ㄹ, ㄹ	꺄, ㄹ, ㄹ, ㄹ
016	간장	곤장, 장물, 물장	곤장, 곤당
017	깅	깅, 게영	깅
018	김치	김치, 김끼, 징귀	딤치, 김치
023	콩나물	콩지름, 콩주름, 콩질름	콩기름
034	장아찌	지시, 지히, 지이, 지	장앳디히, 장앳지이, 장앳찌이
025	밥주걱	밥자, 밥죽, 우굼, 울굼, 밥우 굼	밥죽
027	옹달술	옹조리, 옹졸레기, 옹지리, 동 숯, 죽은숯	옹즈, 동숯
034	대님	다님, 다림, 다름, 대림, 독다 림	다님
035	매듭단추	벌ㅁ작, ㅁ작단추, 못인단추, 돌마기, 돌메기, 속곶게, 속곶 ㅁ작	돌마기, 돌막이
036	멜빵	메친, 미친, 미천, 메끈, 메큰	멜썸, 멜슨
038	고방	고팡, 꺄팡, 안방, 양팡	고방
044	꾸게	섬비, 섬피, 슬피, 꺄실퀴, 꺄 서퀴, 꺄설퀴, 푸지게, 솔기, 꺄슴솔기	푸지게
048	부시	부시, 부세, 부쇄, 푸쇄	부쇠
054	짚동	짚동, 짚뎡이, 짚뎡, 북심, 북 시미, 부짚	딤동



057	자위	공즈, 공제, 공자, 눈공자, 동즈, 동자, 눈알	동지
059	팔꿈치	폴고비, 폴꿈지, 폴꿈은지, 폴꿈은제기, 폴꼭지, 폴꿈치, 폴꿈지	폴구비, 폴구미, 폴구브링, 폴스구머리
062	오줌통	오줌부게, 오줌푸게, 오줌푸케, 오줌께, 오줌통	오줌빠, 오줌개, 오줌통
063	자개미	삿툼, 삿툼이, 삿쟁이, 즈기예미, 즈게기, 저기예기, 즈곰테기, 즈곰테기, 저곰테기, 즈드렝이, 오곰테기	자개얌, 자괴야미
066	발목, 복사뼈	귀마리, 구마리, 구머리, 발목	귀머리, 밧귀머리, 밧귀머리, 밧얏귀머리
073	땀띠	땀뚜두레기, 땀뚜기, 땀뚜데기, 땀떼기, 땀띠, 땀띠기	쌌도야기, 쌌되야기, 쌌도역이, 쌌도약기, 쌌또야기, 쌌되, 쌌도약이
076	부스럼	부스럼, 부스럼지, 부스레미, 부시럼, 부으레미	브스럼, 브스름, 브스름, 브으름
089	싸라기눈	스레기눈, 쓰레기눈, 슨락눈, 쓰락눈, 사락눈, 싸락눈	싼눈, 쓰눈
094	저녁	즈녁, 즈낙, 저낙, 저녁	저녁
099	잠자리	밥주리, 밥주어리, 밥부리, 존자리, 물자리, 잘, 산태, 왕놈	즌자리, 잔자리
108	모이주머니	멀터, 멀터거니, 멀터쟁이, 멀터거니, 멀테강이, 멩터구리, 멩터거리, 떡통	멀터건, 멀터구니
110	민달팽이	집엇인들뻥이, 집엇인들뻥이, 집엇인들뻥이, 옷벗인들뻥이, 옷벗은들뻥이, 붓벗인들뻥이, 민들뻥이, 들뻥이	집업슨들뻥이
126	냉이	난시, 난쟁이, 난지, 난쟁이, 난쟁이느물, 난쟁이느물	나시, 나시
131	뱀딸기	게미탈, 게염지탈, 게여미탈, 거미탈, 배염탈, 배염유리, 아야머리탈, 아여머리탈, 쨍탈	비암딸기, 비암딸기, 비암딸기
132	메밀	모물, 모멸, 모물	모밀
146	들이켜다	드리씨다, 드리쓰다, 드르씨다, 드르쓰다, 드르씨다, 드리치다	드리혀다
151	쟁그리다	징그리다, 주그리다, 싱키리다, 싱그리다, 성그리다, 성으리다, 상으리다	징기다, 빙기다, 빙의다, 싱기다
152	팔짱끼다	폴똥찌다, 폴똥찌다, 폴짱찌다, 폴짱찌다, 폴짱찌다, 손짱찌다, 폴찌다, 득안다, 휘득안다	폴똥끗다, 폴똥디르다, 폴짱지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첫째는 <제주도 언어지도> 작성이라는 목적 때문에, 또 14개 읍면 지역 가운데 1개 지점씩만 조사 지점으로 정함으로써 조사 지점의 분화상을 다 아울러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는 어휘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문법 사항이나 음운사항이 소홀하게 다뤄짐으로써 전체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으로 보강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들은 제주도방언보다는 표준어를 먼저 떠올렸고, 바로 방언형을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조사자가 유사한 방언형을 제시함으로써 “맞아.”, 또는 “그게 아니고 ~야.” 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제주도방언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사 내지는 방언학적으로도 중요한 제주도방언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화급한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기록, 정리가 필요하다. 유네스코가 2010년 12월 제주도방언(제주어)을 ‘소멸 위기의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4단계)로 등록한 것은 제주도방언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화급함을 반증하는 결과다.

## <참고 문헌>

- 강영봉, 「제주어의 주거 생활 어휘」,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연구회, 3~12쪽.
- \_\_\_\_\_, 「제주도방언의 식물이름 연구」,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6, 1~20쪽.
- \_\_\_\_\_,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경기대학교, 1993.
- \_\_\_\_\_, 「제주어 몇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 제2집, 영주어문연구회, 2000, 3~9쪽.
- \_\_\_\_\_, 『제주의 언어』(1·2), 제주문화, 1994·1997.
- 강정희,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8.
- \_\_\_\_\_, 「제주방언 혼성형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방언학』 10호, 한국방언학회, 2009, 5~28쪽.
- \_\_\_\_\_, 「제주방언의 보조동사 ‘불다’에 관한 형태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8집, 5~29쪽.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국어국문학회 편,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1990.
- 권오길·박갑남·이준상 공저, 『원색 한국패류도감』, 아카데미서적, 1993.
- 김공철, 『방언학』, 정향출판사, 1977.
- 김덕호,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 월인, 2001.
- 김병제, 『조선언어지리학시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김석익, 『탐라기년』, 보성사, 1918.
- 김세택,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말』, 기파랑, 2010.
- 김순자, 「제주학 정립을 위한 기본 용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_\_\_\_\_, 「제주의 떡 이름」, 『영주어문』 제12집, 영주어문학회, 2006, 61~96쪽.
- \_\_\_\_\_, 「제주도 ‘구덕’과 ‘차룻’ 이름」, 『영주어문』 제18집, 2009, 5~34쪽.
- \_\_\_\_\_, 「제주 바다의 소라·고둥·전복 이름(1)」, 『영주어문』 제15집, 2008, 63~100쪽.
- 김영환, 『조선어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82.
- 김완진,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1971.
- \_\_\_\_\_,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제14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8, 127~139쪽.
- 김이협,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김충희, 『충청북도의 언어지리학』, 인하대학교출판부, 1992.
- 김태곤,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2008.
- 김태곤,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출판부, 1986.
- 김택구, 『경상남도의 언어지리』, 박이정, 2000.
- 김형규,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남광우 편저, 『고어사전』, 교학사, 1997(2009).
- 대한민국 학술원, 『한국 언어지도첩』, 성지문화사, 1993.
- 문순덕, 「제주방언 ‘불다’의 문법화 과정」, 『영주어문』 12집, 2006, 47~58.
- 박용후,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1960.
- 박정수, 『경남방언 분화연구』, 한국문화사, 1999.
- 방언연구회, 『방언학 사전』, 태학사, 2001.
- 석주명,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 \_\_\_\_\_, 『제주도자료집』, 보진재, 1971.
- 성낙수, 『우리말 방언학』, 한국문화사, 1993.
- \_\_\_\_\_,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992.
- 소강춘,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1989.
- 송상조, 「‘ㅎ’ 개입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2.
- \_\_\_\_\_,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2007.
- 오창명, 「북제주군의 언어지도」, 『북제주군지』(하권), 북제주군, 2006, 959~971쪽.
- 우도지편찬위원회, 『우도지』, 1996.
-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 \_\_\_\_\_, 『어휘사연구』, 1974, 선명문화사.
- 이기갑,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국어학회, 1986(1994).
- 이기문, 『국어음운사연구』, 국어학회, 탑출판사, 1977.
- \_\_\_\_\_, 『국어사개설』(신정판), 태학사, 1998.
- \_\_\_\_\_, 「‘딤치’와 ‘디히」,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봄, 국립국어연구원, 1999, 127~133쪽.
- 이익섭,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 이상규 옮김, 『방언연구방법론』, 형설출판사, 1988.
- 이상규 등, 『내일을 위한 방언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6.
- 이상규, 『국어방언학』, 학연사, 2004.
- 이승녕,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V),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7, 323~411쪽.
- \_\_\_\_\_,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1985.
- 이익섭, 『방언학』, 1984, 민음사.

- 이익섭 외,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2008.
- 이익섭·장소원, 『국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4(2010).
- 전광현, 「현대국어의 방언권」, 『국어생활』 5, 국어연구소, 1986, 38~55쪽.
- 전재호, 『국어어휘사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87.
- 정승철,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1995.
- \_\_\_\_\_, 「제주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8권 제4호 겨울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133~152쪽.
- 정연찬, 『한국어음운론』, 개문사, 1983.
- 정철, 『경북 중부 지역어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 제주대학국어국문학회, 『국문학보』 제4집, 1972.
- \_\_\_\_\_, 『국문학보』 제5집, 1973.
- \_\_\_\_\_, 『국문학보』 제6집, 1974.
- \_\_\_\_\_, 『국문학보』 제7집, 1975.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가파도 학술조사 보고서』, 2001.
- \_\_\_\_\_,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2003.
- 최명옥, 『경북 동해안방언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 \_\_\_\_\_,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출판부, 1982.
- \_\_\_\_\_, 「국어의 방언 구획」, 『새국어생활』 제8권 제4호·겨울, 국립국어연구원, 1998, 5~29쪽.
- \_\_\_\_\_, 「방언 조사와 연구의 의의」, 『새국어생활』 제13권 제4호·겨울, 국립국어연구원, 2003, 5~21쪽.
- 최태영,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1983.
- 최학근, 『국어방언학서설』, 정연사, 1959.
- \_\_\_\_\_, 『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제주도편), 1991.
-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4(옛말과 이두), 어문각, 1992.
- 한복려, 『떡과 과자』, 대원사, 1989.
- 한영균, 「방언의 지리학적 연구와 언어지도에 대하여」, 『국어생활』 5, 국어연구소, 1986, 56~78쪽.
- 한영목, 『충남 금산 지역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0.
- \_\_\_\_\_, 『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1999.
- 허웅, 『국어음운론』(개정신판), 정음사, 1982.
- 현대해양출판국사전편찬위원회편, 『수산동식물명사전』, 현대해양사, 1991.
- 현용준, 「ㅎ 삼요음에 대하여-제주방언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試考」, 『제주 문화』 제1호, 문충제주지부, 1957, 86~103쪽.
- \_\_\_\_\_, 「제주방언의 「잠자리(청령)」 이름 고」, 『제대학보』 제13집, 제주 대

- 학, 1972, 42~53쪽.
- 현평효,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1962.
- \_\_\_\_\_,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1985.
- 현평효 외,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 황인권, 『한국 방언 연구』-충남편-, 국학자료원, 1999.
- 황희영, 『한국어 음운론』, 이우출판사, 1979.
-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上卷), 岩波書店, 1944.
- Simpei Ogura, Demarcations of the Korean Dialects, 『국어학논문선』6, 민중서관, 1977.
-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籍, 1945.
- B. Newton, *The Generative Interpretation of Dial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J. K. Chambers · P. Trudgill,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이상규 · 서보월 · 백두현 옮김, 방언학개설)
- L. M. Davis, *An Introduction to English Dialectology*,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3.
- W. G. Moulton, “Geographical Linguistics”, *Current Trends in Linguistic* 9-1, The Hague: Mouton, 1972.
- W. N. Francic, *An Introduction to Dialectology*, London: Longman, 1983.



Abstract

## A Geolinguistic Study on the Jeju Dialect

Kim Soon-Ja

The present study is twofold: 1) to present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Jeju dialect and 2) to investigate the changing status of different dialects. Traditionally, the division of Jeju dialect is made according to physical geography by which 14 places are considered for the present study including *Biyangdo* and *Gapado*. These two islands are investigated to see the linguistic aspects of islands.

Questionnaire consists of 310 items which are a list of 305 words and 5 questions which ask the opinion of informants. Productive 155 words out of 310 are used for a lexical distribution which is considered for <the map of the Jeju dialect>, producing a total of 161 map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made from the map:

### 1.

An isogloss east to west in the northern Jeju is made from *Jeju* to *Jocheon*. The one in the southern Jeju is drawn from *Seogwi* to *Jungmun*. These are two representative isoglosses dividing the eastern and western Jeju dialect.

This isogloss has something to do with *Dongseodohyeon* which was found in the *Goryeo* dynasty lasting for 116 years from 1300 to 1416. The *Dongseodohyeon* has been considered as a geographical line which divide Jeju into two parts, east and west. It is used for the isogloss for the Jeju dialect.

Another isogloss flows north to south. This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administrative units such as *Jeju*, *Daejeong-Hyeon*, and *Jeongui-Hyeon* all of which were established in 1416. The northern part of Jeju is called *Jeju-Mok* and the southern part of *Jeju* is divided into the two: *Jeongui-Hyeon* east and *Daejeong-Hyeon* west. These kind of division mad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sub-dialectal area. *Dongseodohyeon* found in *Goryeo* become the single unit in the *Joseon* dynasty, while the eastern and western units introduced in the *Goryeo* dynasty remain the same with the different names: *Jeongui-Hyeon* and

*Daejeong-Hyeon* This is still true of the present day. The terms *south of the mountain* and *north of mountain* is a reflection of an isogloss subconsciously existing in the Jeju people's mind.

As a result, the division of the Jeju dialect seems to be overlapping *Dongseodohyeon* and the map of Jeju with three cities. Accordingly, the Jeju dialect can be divided into four sub-dialectal areas below.

- ① North-eastern Jeju dialect: *Jocheon · Gijwa · Udo*
- ② North-western Jeju dialect: Jeju, Aewol, Hallim(Biyangdo), Hangeong.
- ③ South-eastern Jeju dialect: *Seogwipo, Namwon, Pyoseon, Seongsan.*
- ④ South-western Jeju dialect: *Jungmun, Andeok, Daejeong, Gapado, Marado.*

## 2.

The three islands *Udo*, *Biyangdo* and *Gapado* represent the sub-dialectal area respectively. *Udo* belongs to the area of north-eastern Jeju dialect, *Biyangdo* to the area of north-western Jeju dialect, and *Gapado* to the area of south-western dialect. A farming in groups just started in 1842. This means that it is not that far to use its own language in Jeju. However,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in the use of language in Jeju and its affiliated islets which is mainly separated by ocean. This difference is evident in the use of 22 lexical items(14.2%) out of 155 used for the language map. 14.2% is not a big number, but it is enough to make a linguistic distinction between Jeju and its affiliated islets. The difference is due to both living environment and natural surroundings.

## 3.

The sub-dialectal division recognized by the public generally goes with the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ree *Hyeon*. This can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that people have this system lasted more than 500 from the *Joseon* dynasty. The recognition of people regarding use of language is closely tied with the division of administrative system. Among 155 lexical items, the clearest distinction is found in the use of language between *Daejeong* and *Jeongui*. Of 155, 54(34.8%) lexical items are different between these two areas. Next, 48(30.9%) different between Jeju and *Jeongui* followed by 17(10.9%) between *Jeju* and *Daejeong*. Also, there exists the difference in the use of language in the same area, which represents the psychological

importance leading to the cognitive distinction of the dialect. This difference proves that the linguistic change takes places among people in a certain community.

#### 4.

There is 50-year difference between *Hyun Pyeong-Hyo's* works and the present research. In spite of time difference, there still exist the same forms of dialect. Of course, there is different forms of dialect. That is, some linguistic items collected in *Hyun's* work disappear for the present study and vice versa.

#### 5.

The map based on the lexical items shows that there are a lot of old forms which originate from the time of *Hunminjeongeum* as well as some forms which keep the form of (·) not existing in modern Korean. Of 155, 36(23.2%) (excluding the words with (·)) is responsible for this. That's why Korean linguists and dialectologist put a keen interest in the study of the Jeju language.

The present study has some limitations. First, because of the main purpose of making a linguistic map of the Jeju dialec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only one place from 14 major places, respectively. Thus, the present study is limited not covering the various places. Second, focusing on the lexical distribution, the present study does not deal with grammatical and phonological aspects of the Jeju dialect. This kind of imbalance should be made up in the future research.

In the process of data-collection, it is noticed that informants come up with the standard Korean lexicon over the Jeju dialect. Many times, they do not make the immediate response with the Jeju dialect. Instead, they respond with the expressions such as "that's right," "That is not ~ Uh" to the items the surveyor presents. This is an evidence that the Jeju dialect disappear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serve the Jeju dialect with the proper data-recording and systematic language management.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preserving language in an urgent way, UNESCO registers the Jeju dialect as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Dec. of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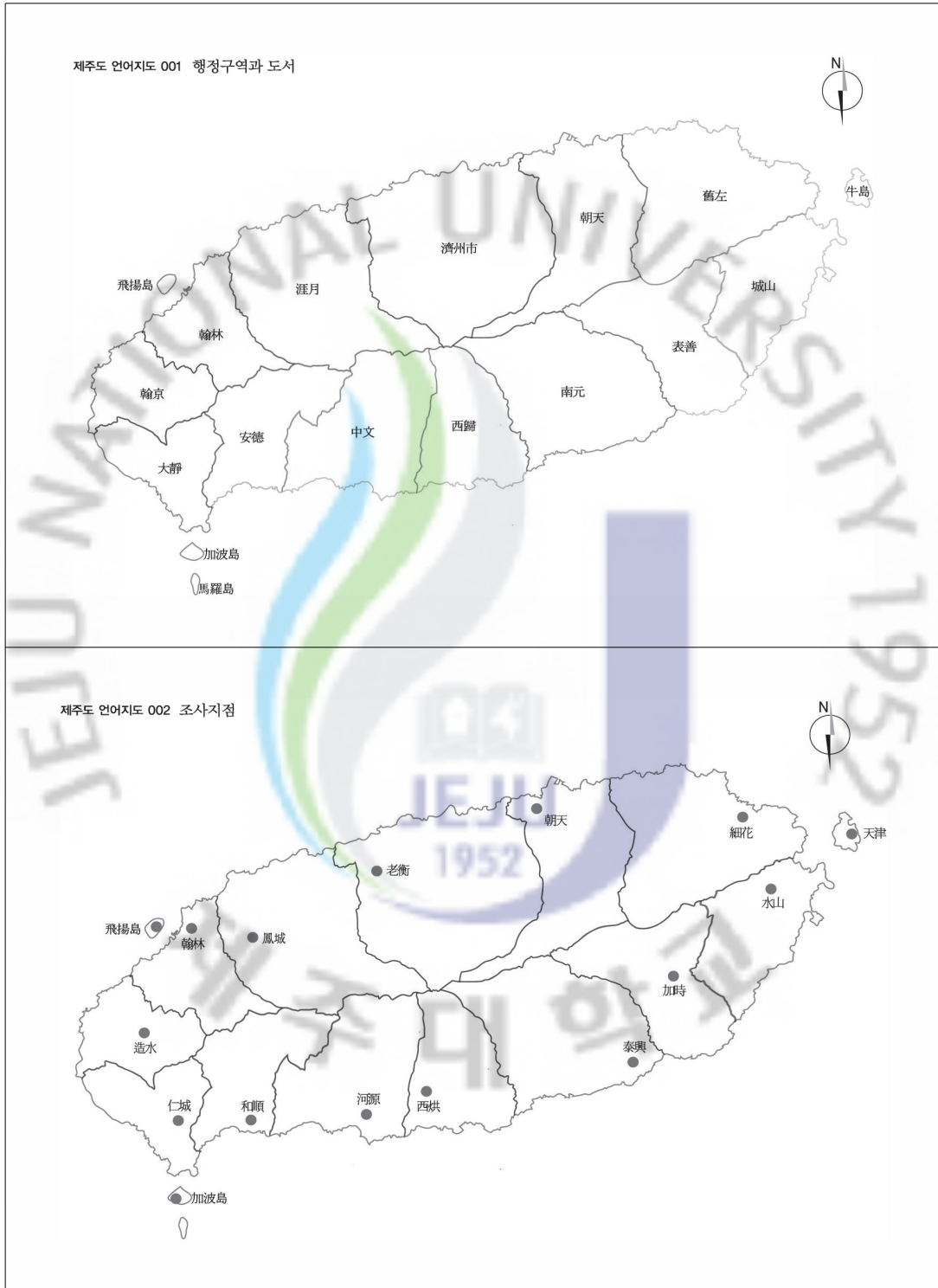
<부록 1> 제주도 언어지도 목록

001 행정구역과 도서	002 조사 지점	003 동서도현도(1300년)
004 제주삼읍도(1416년)	005 하위 방언 구획도	006 농사
007 마감이	008 매끼	009 밭뽕기
010 재	011 새끼	012 이랑
013 품삯	014 허수아비	015 가루
016 간장	017 갯	018 김치
019 수제비	020 시루떡	021 빙떡
022 경그레	023 콩나물	024 장아찌
025 밥주걱	026 죽젓개	027 옹달술
028 부젓가락	029 옷감	030 골무
031 잠방이	032 도롱이	033 두루마기
034 대님	035 매듭단추	036 멜빵
037 물감	038 고방	039 대장간
040 마루	041 벽장	042 장독대
043 정낭	044 끄개	045 고무래
046 망사리	047 메호미	048 부시
049 솔박	050 썰기	051 화승
052 종다래끼	053 비른구덕	054 짚동
055 조문	056 상여꾼	057 자위
058 거드랑이	059 팔꿈치	060 옆구리
061 쓸개	062 오줌통	063 자개미
064 종지뼈	065 무릎	066 발목
067 방귀쟁이	068 병어리	069 왼손잡이
070 좁제기	071 코맹맹이	072 코흘리개
073 팍띠	074 홍역	075 부스럼
076 비루	077 재채기	078 주근깨
079 깃저고리	080 섬마	081 트립
082 그네	083 숨바꼭질	084 양감질
085 연싸움	086 들돌	087 안개
088 무지개	089 싸라기눈	090 회오리바람
091 (물)거품	092 돌생기	093 찰흙
094 저녁	095 개구리	096 올챙이
097 개똥벌레	098 귀뚜라미	099 잠자리
100 매미	101 메뚜기	102 장구벌레
103 바구미	104 방아깨비	105 버마재비
106 쥐	107 참새	108 모이주머니
109 도마뱀	110 민달팽이	111 소라개

112 계	113 거북손	114 눈알고동
115 남방울타리고동	116 애기삿갓조개	117 소라
118 문어	119 베도라치	120 옥돔
121 해파리	122 오분자기	123 개똥참외
124 구지뽕나무	125 파리	126 냉이
127 파	128 새뽕	129 바랭이
130 반하	131 뱀딸기	132 메밀
133 으름	134 제비꽃	135 박
136 청미래덩굴	137 짚레나무	138 멸구슬나무
139 실거리나무	140 예덕나무	141 탕자나무
142 모자반	143 톳	144 가져오다
145 (다리) 도사리다	146 들이켜다	147 뛰다
148 (담) 무너지다	149 배따다	150 끼이다
151 (얼굴) 찡그리다	152 팔짱끼다	153 가지런하다
154 간지럽다	155 눈부시다	156 재수 좋다
157 떠바	158 빨리	159 먹어버리다
160 해버리다	161 인상적 방언 구획	



<부록 2> 제주도 언어지도





제주도 언어지도 003 동서도현도(13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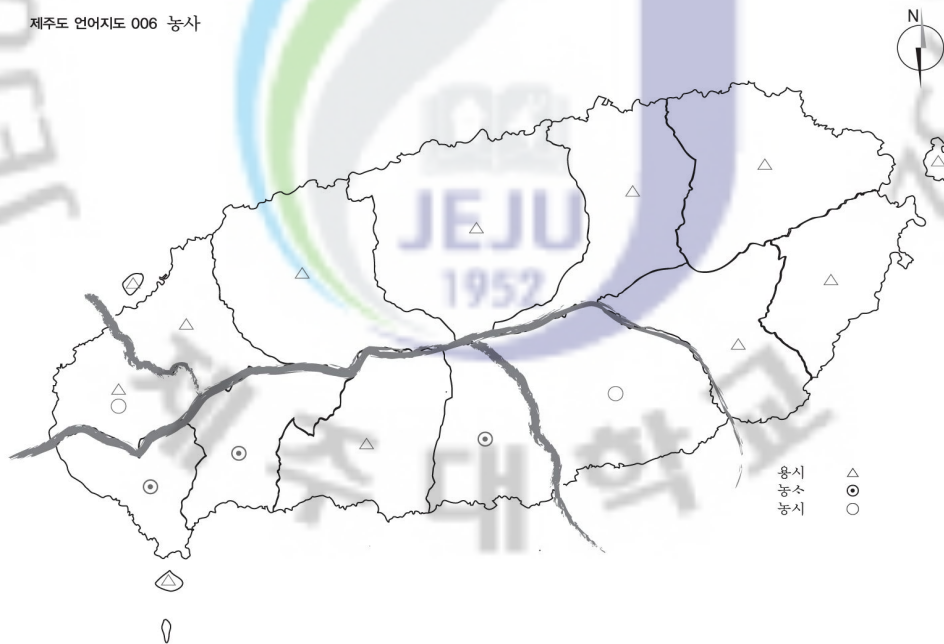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04 제주삼읍도(14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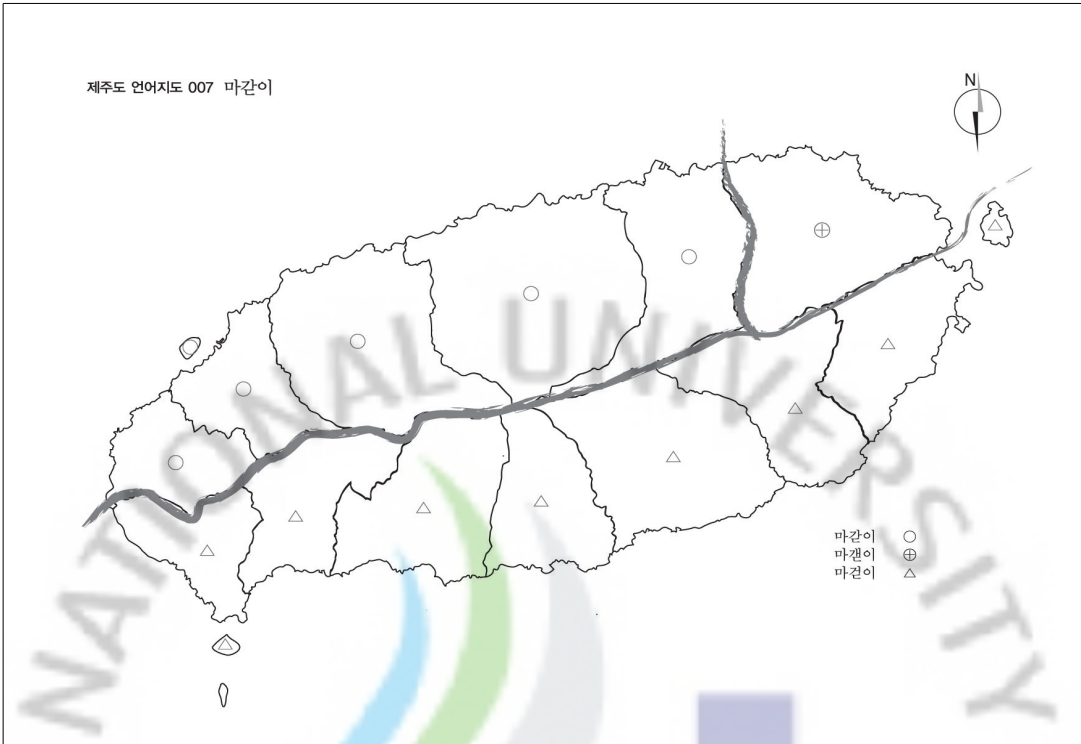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05 하위 방언 구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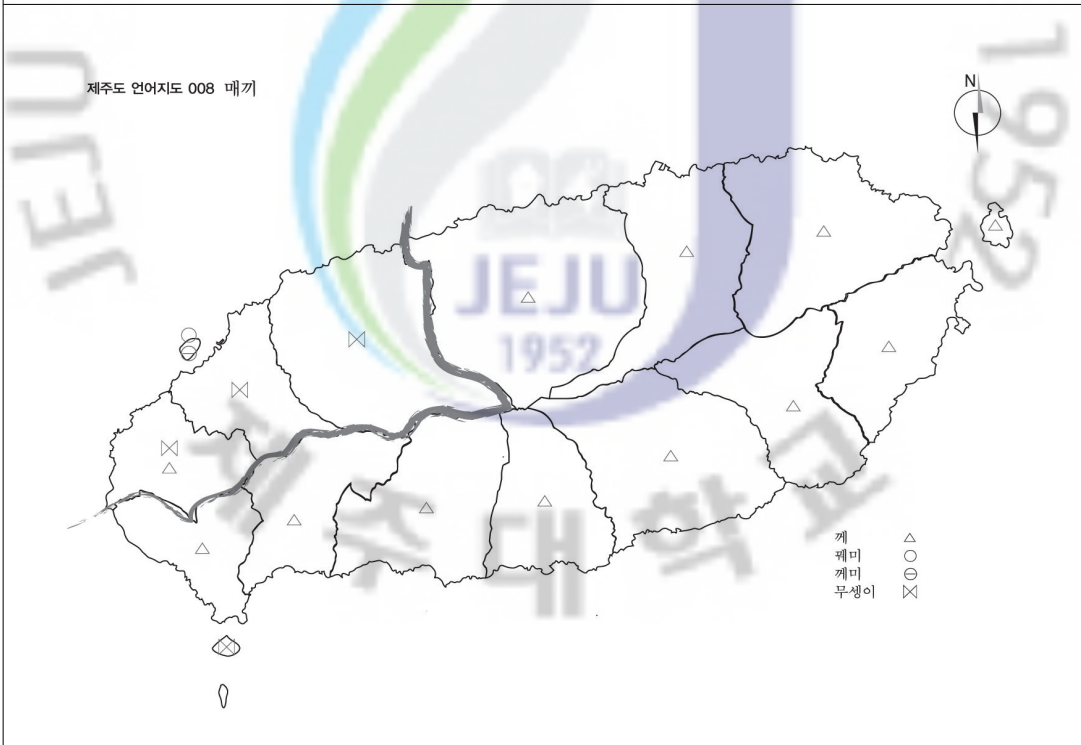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06 농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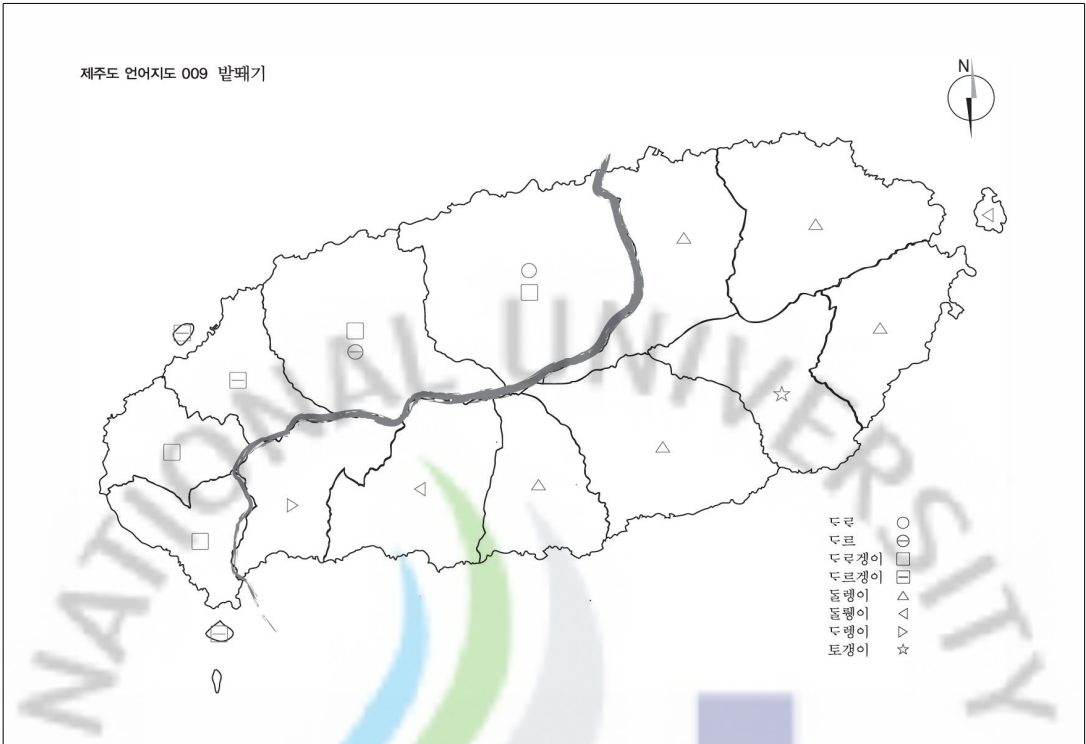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07 마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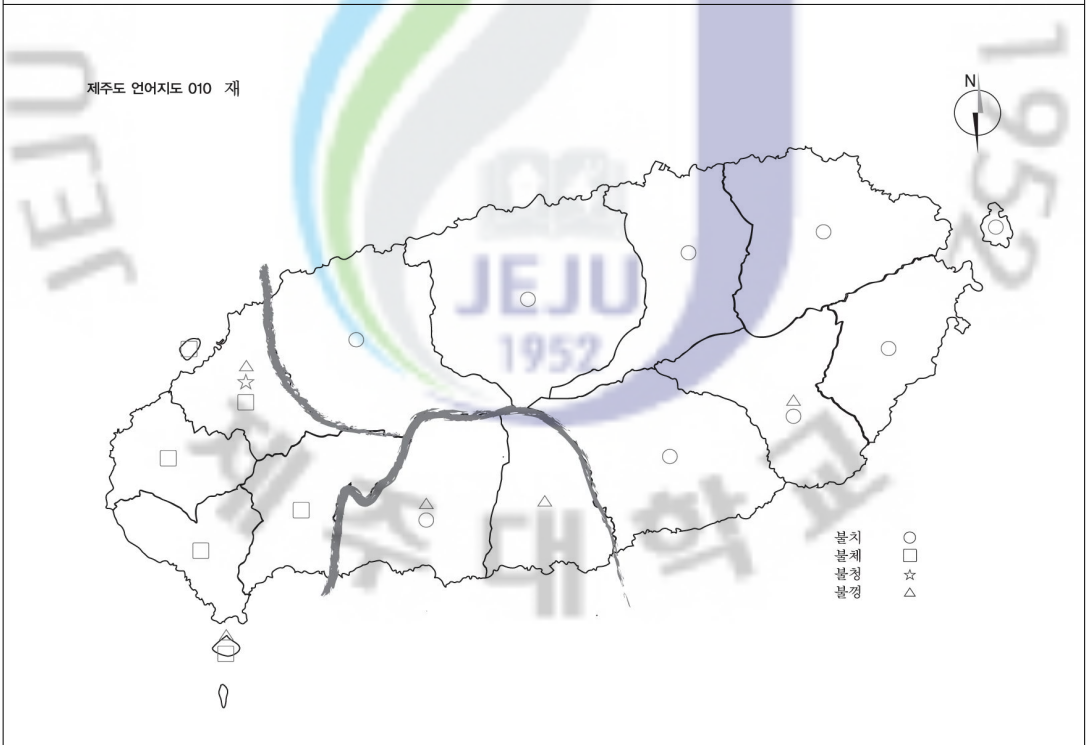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08 매끼



제주도 언어지도 009 발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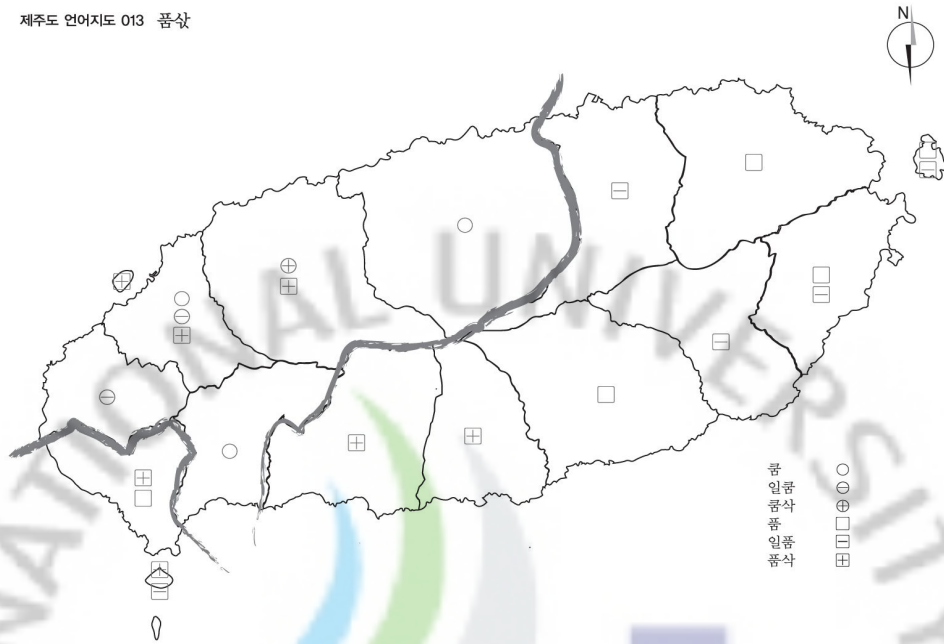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10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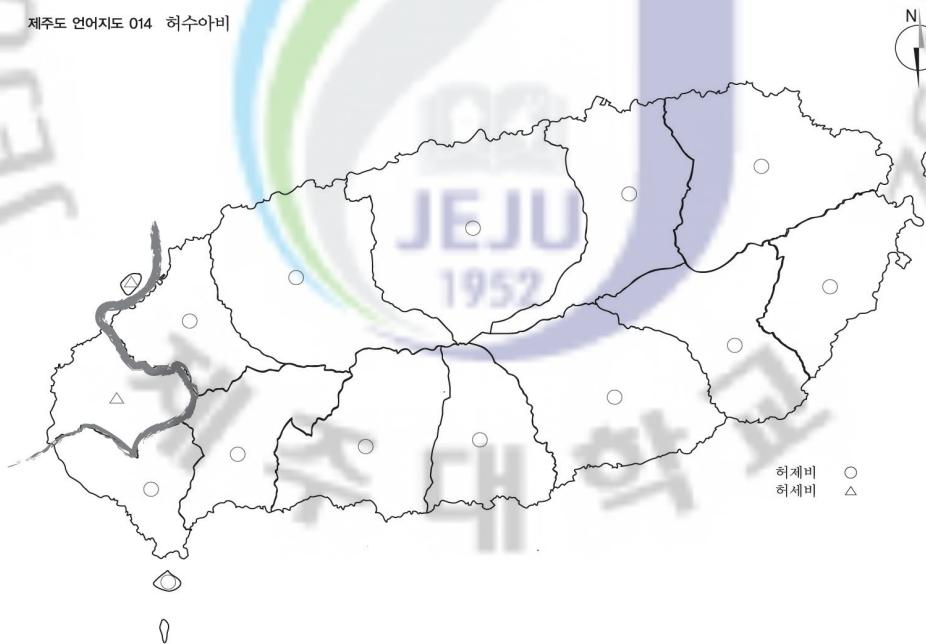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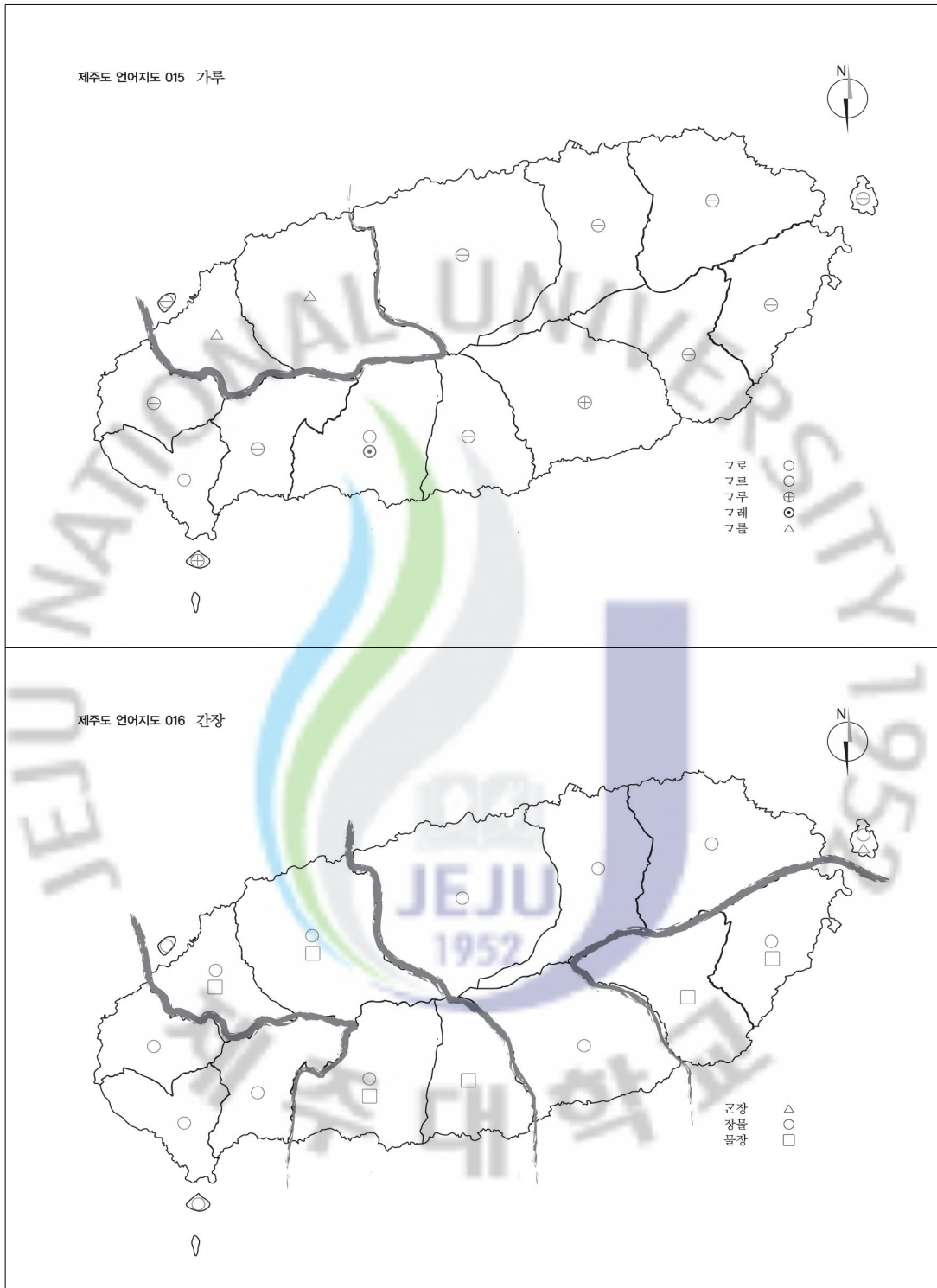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13 품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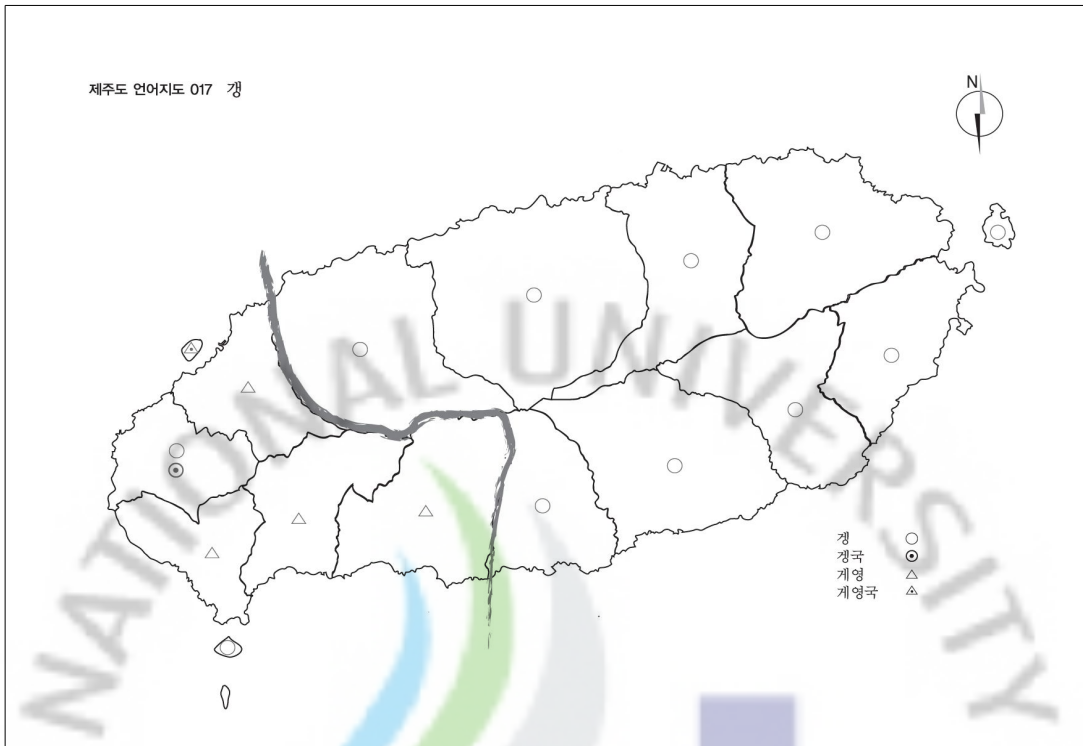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14 허수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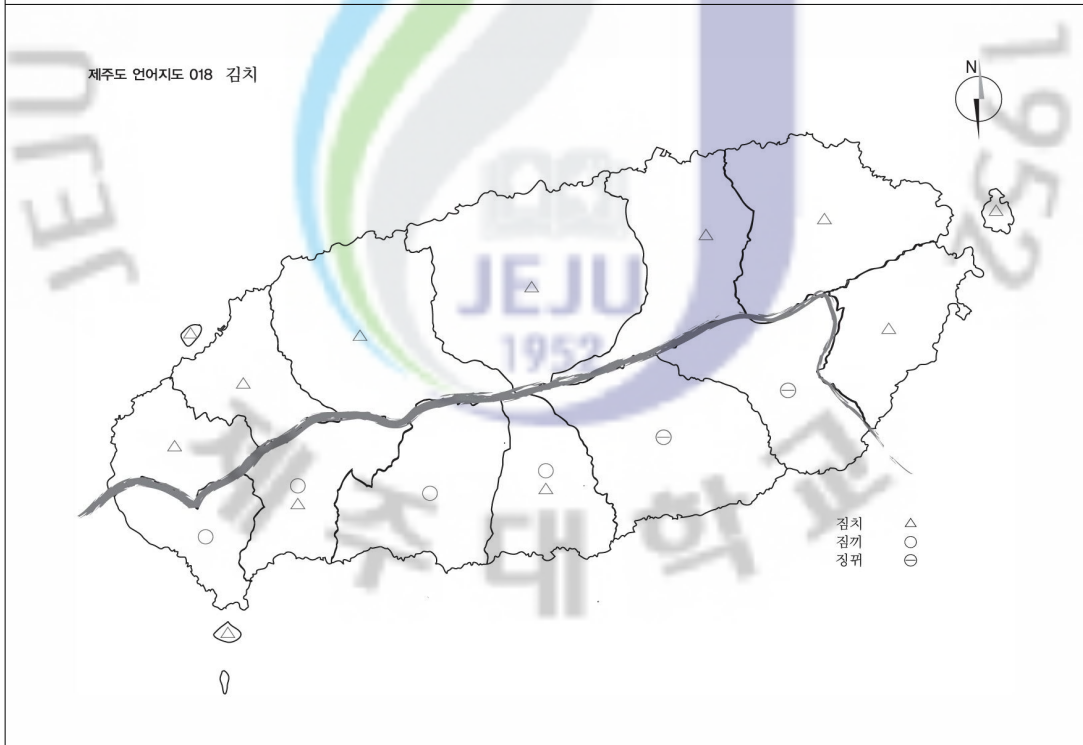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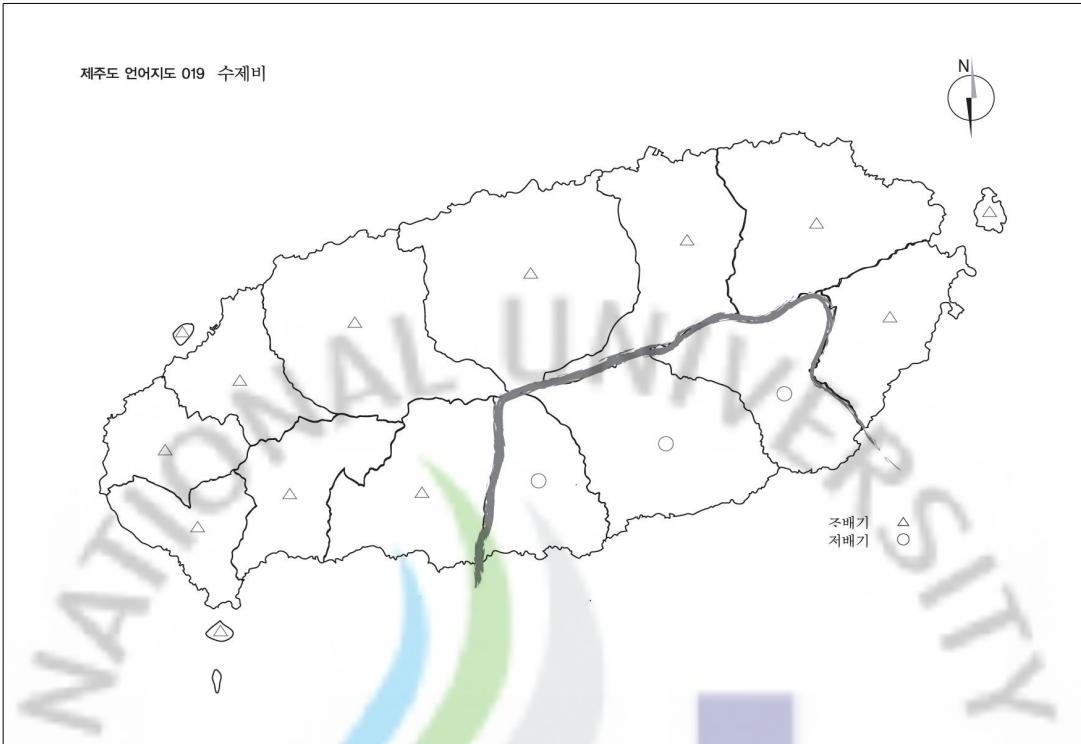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17 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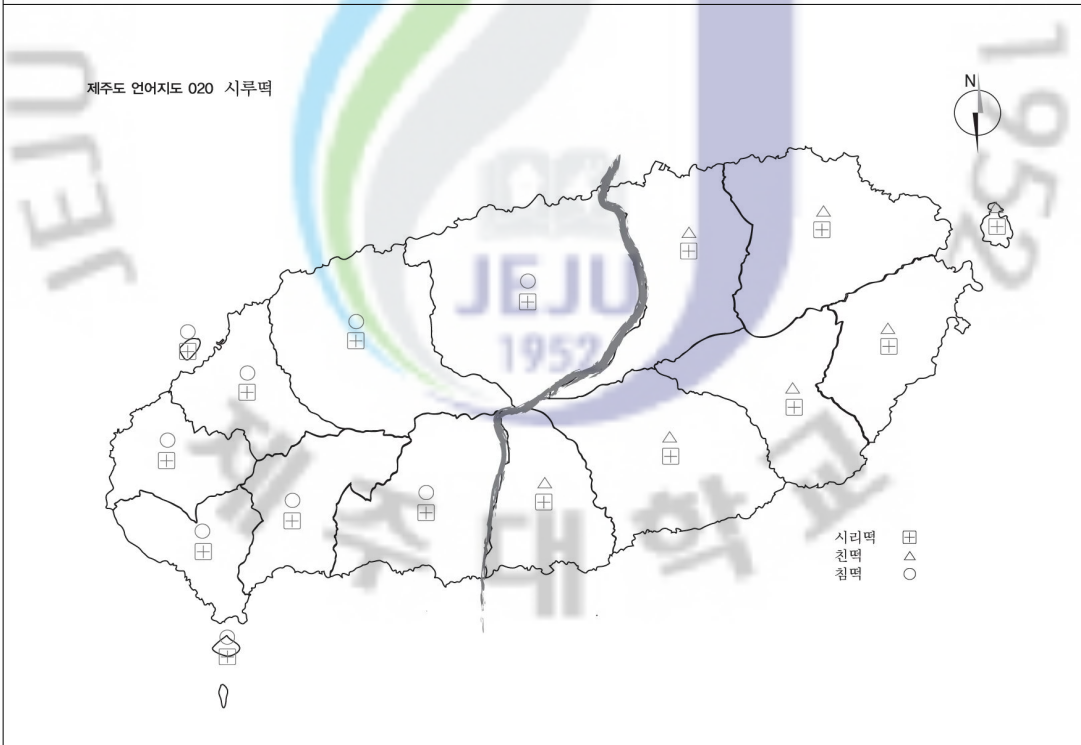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18 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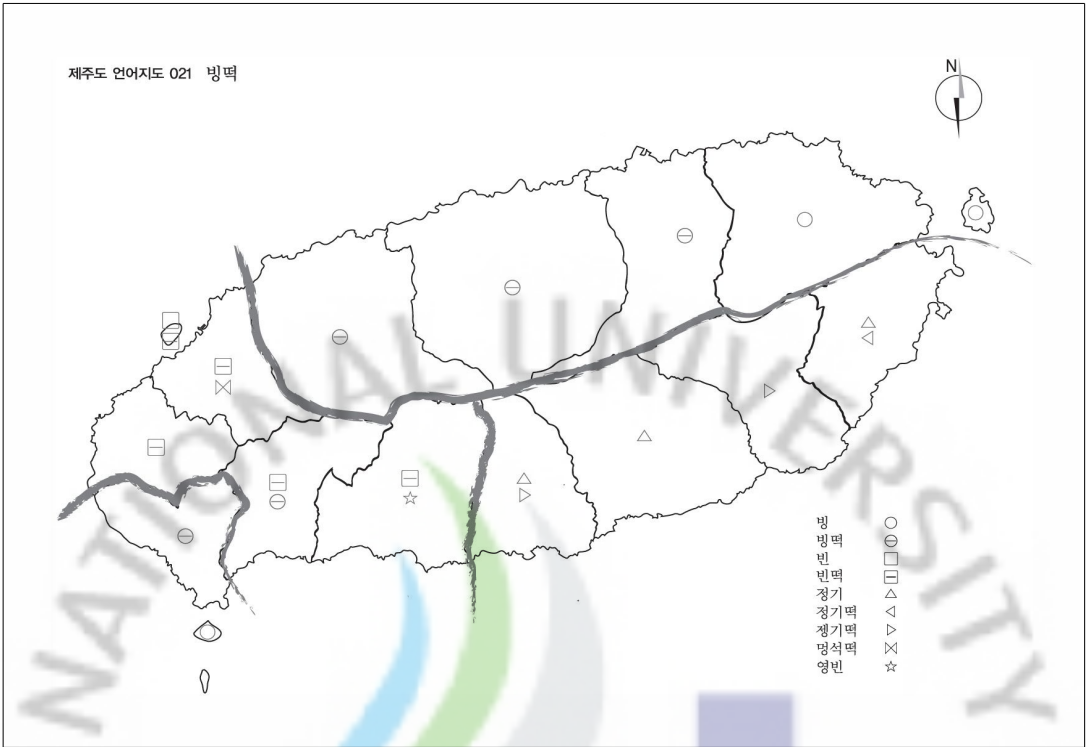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19 수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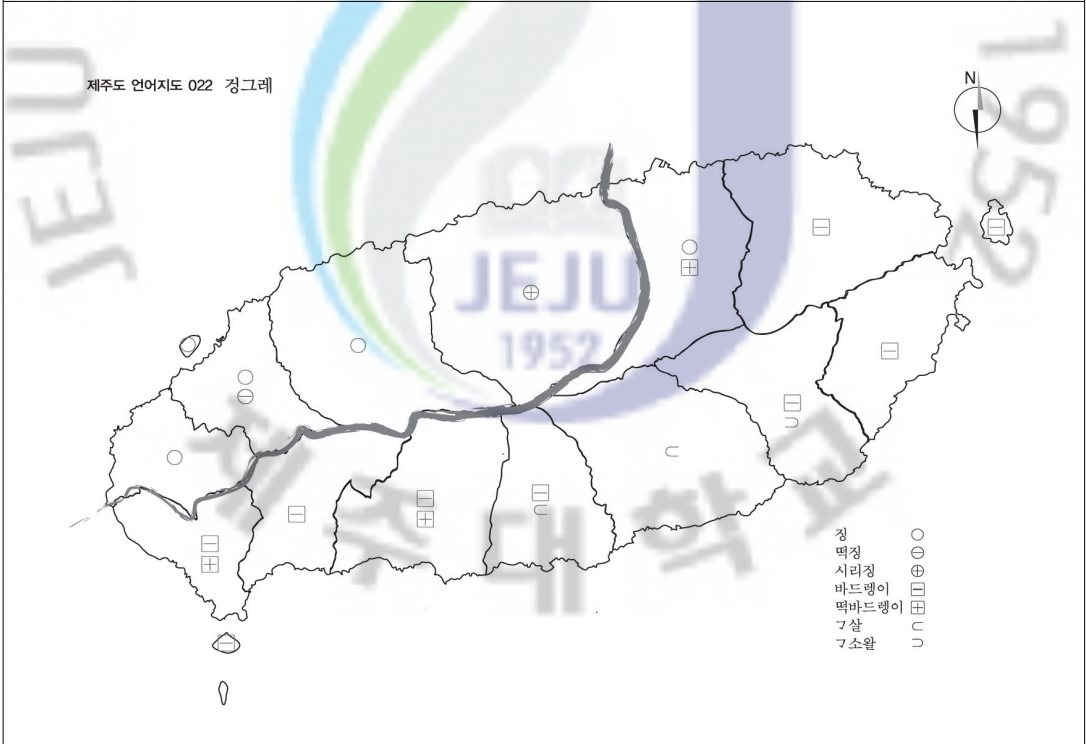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20 시루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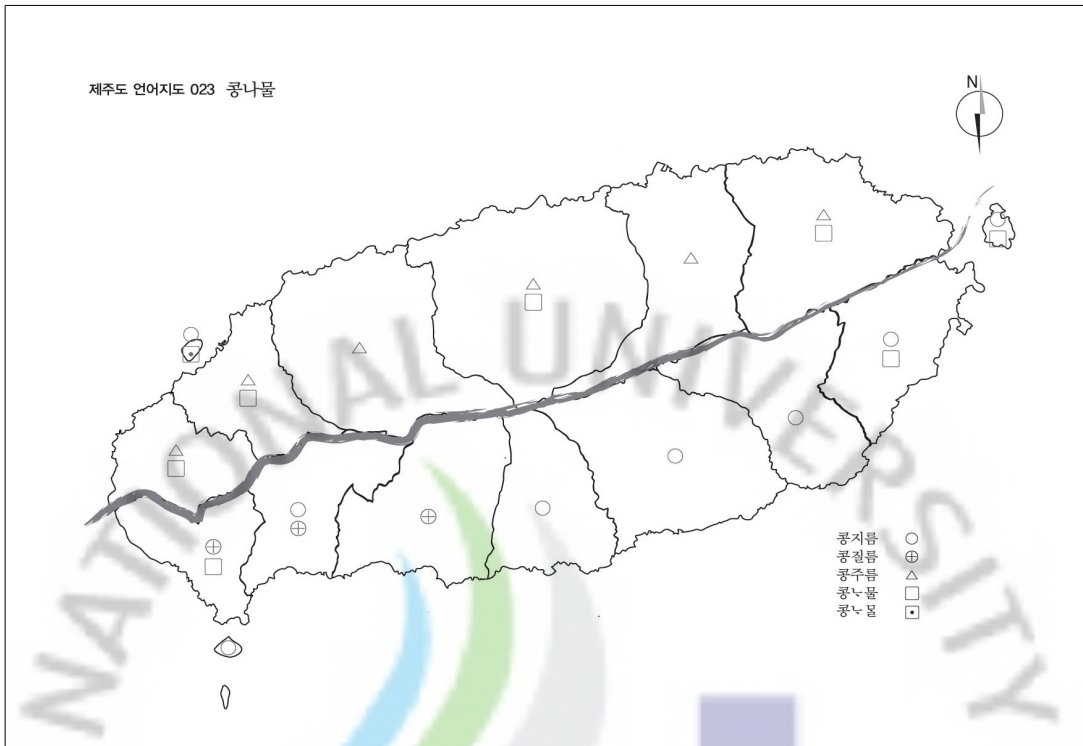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21 빙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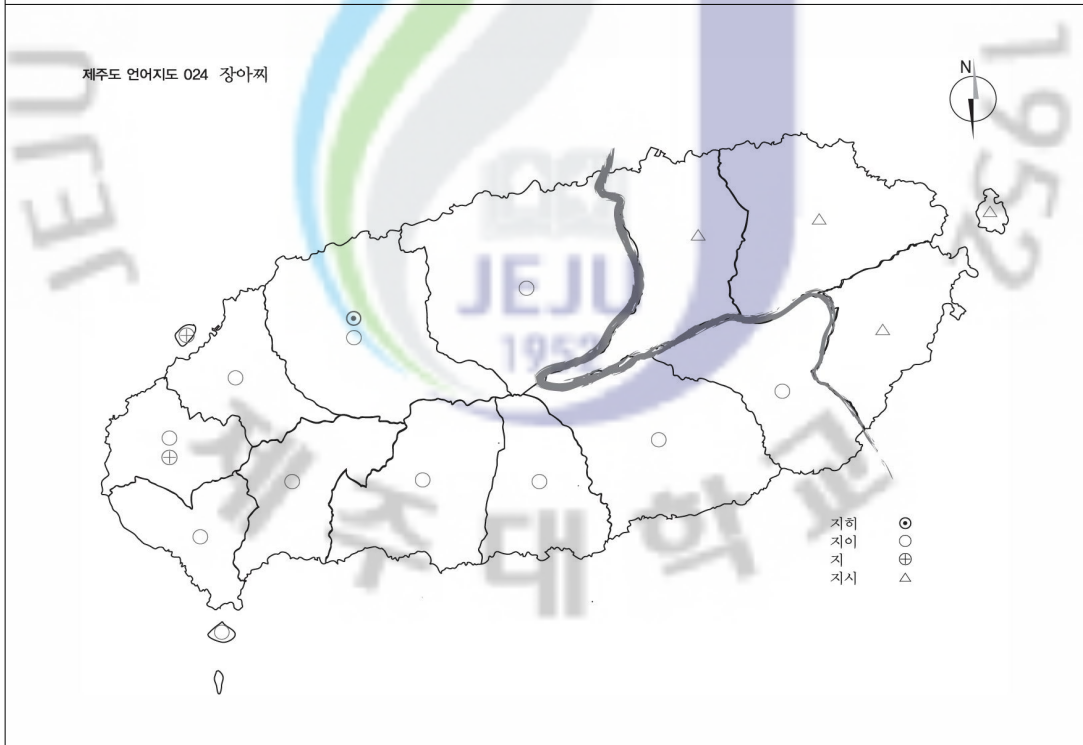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22 경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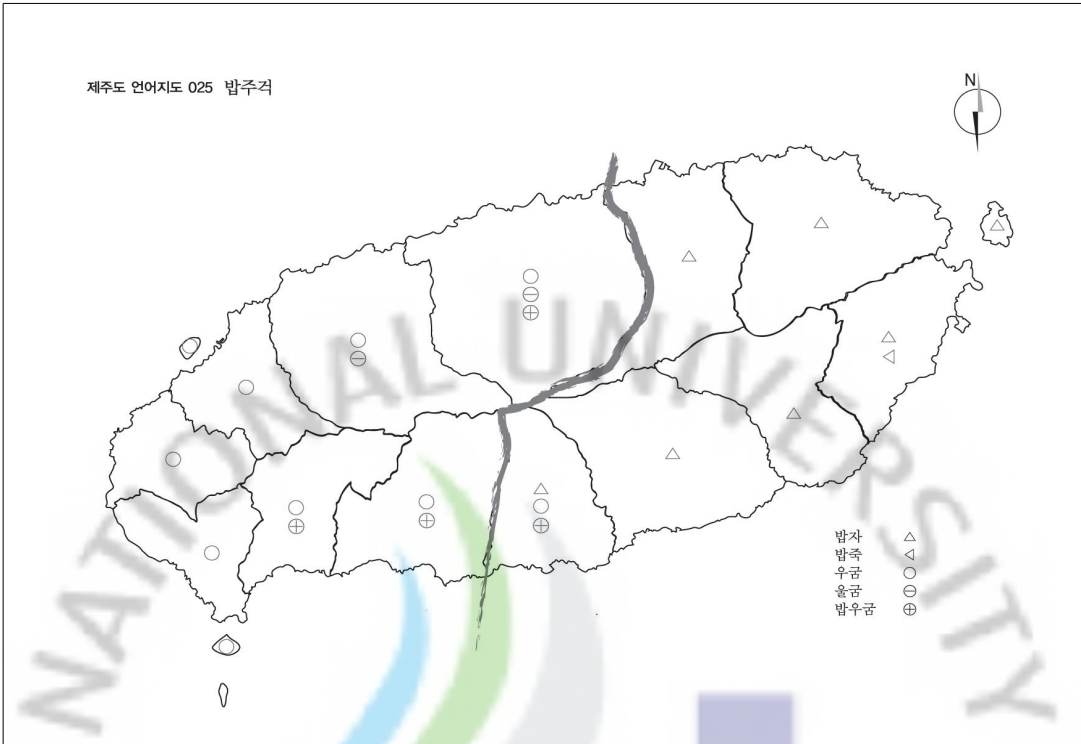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23 콩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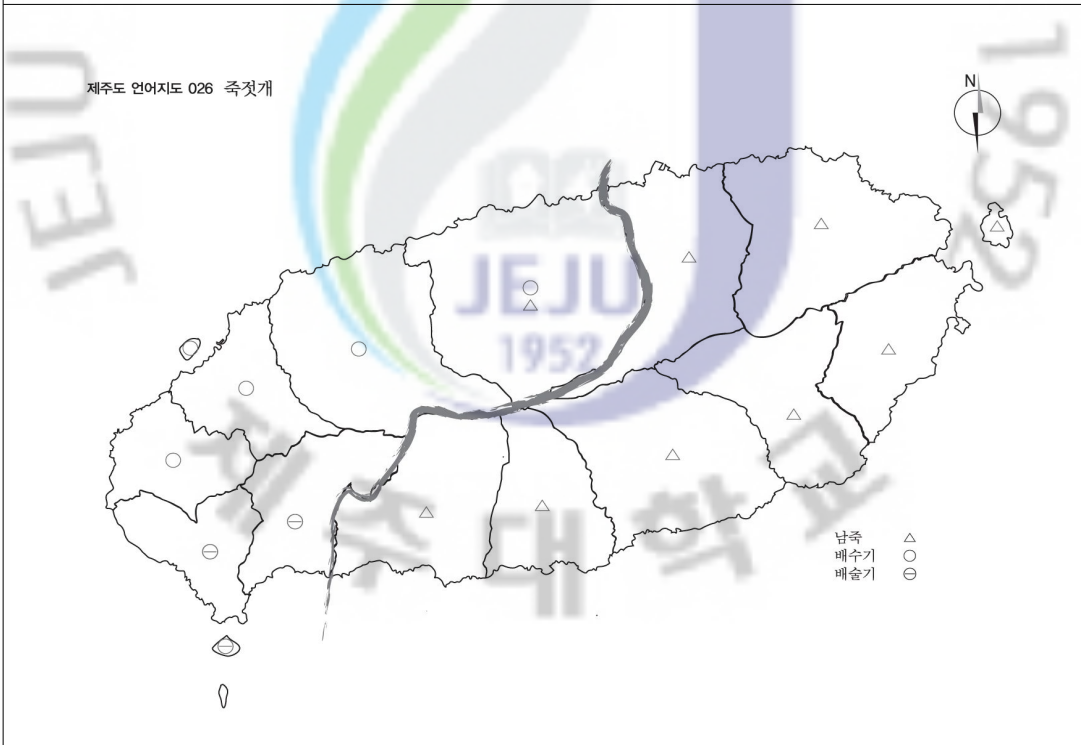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24 장아찌



제주도 언어지도 025 밥주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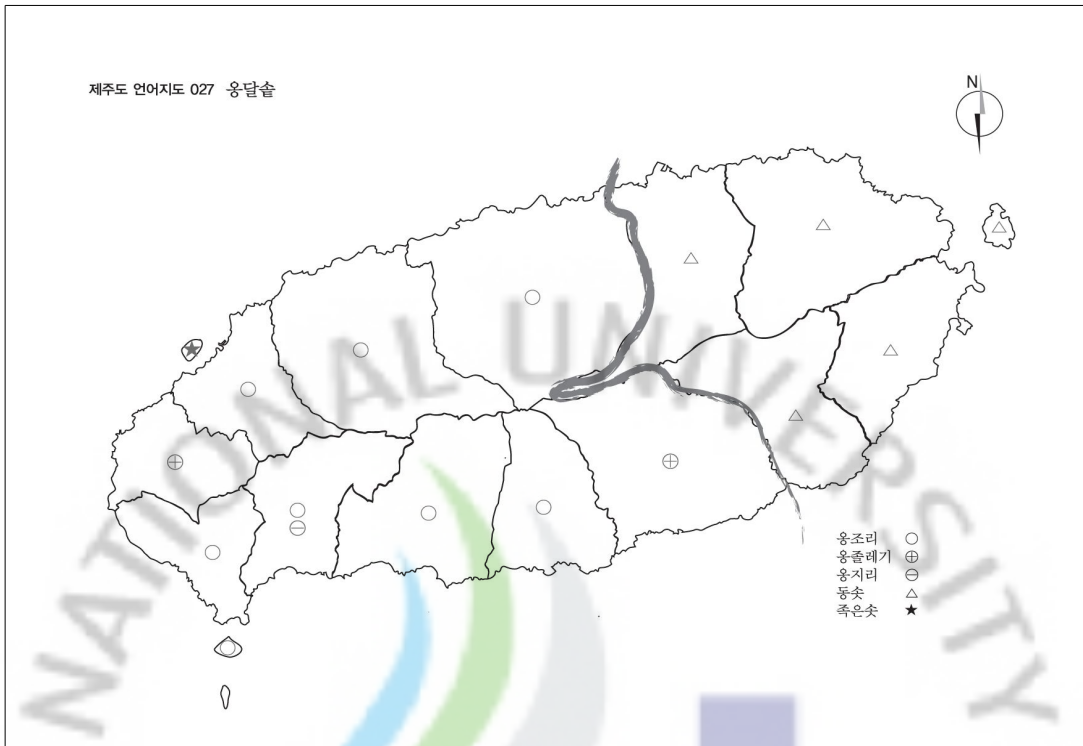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26 죽젓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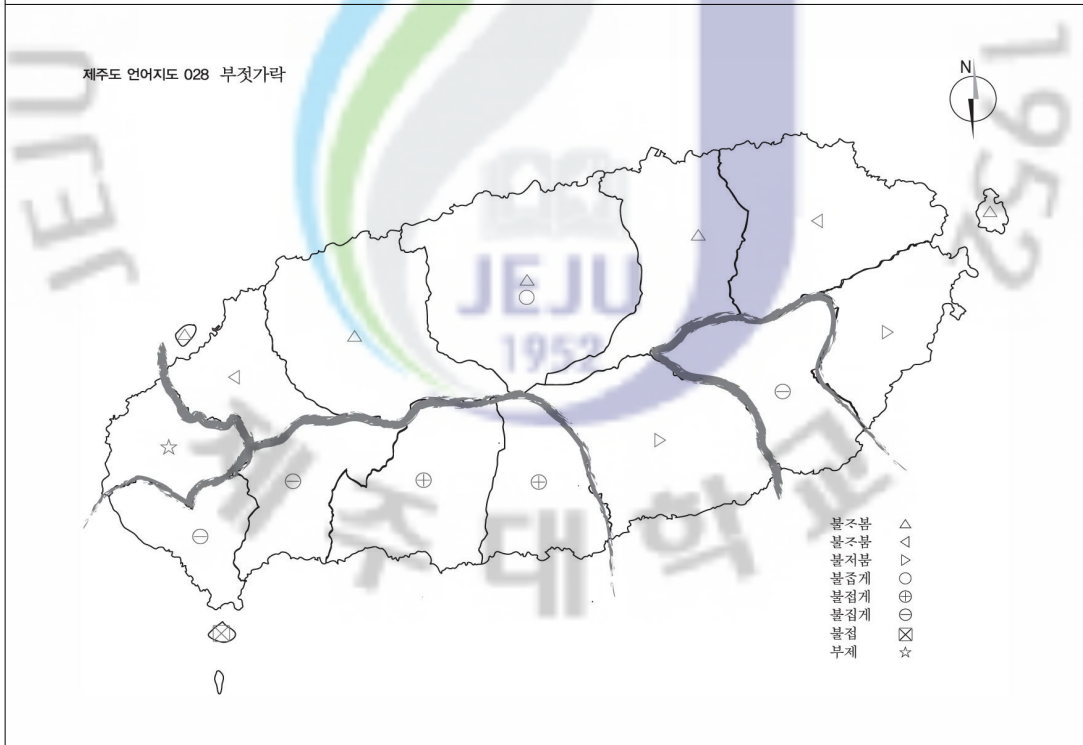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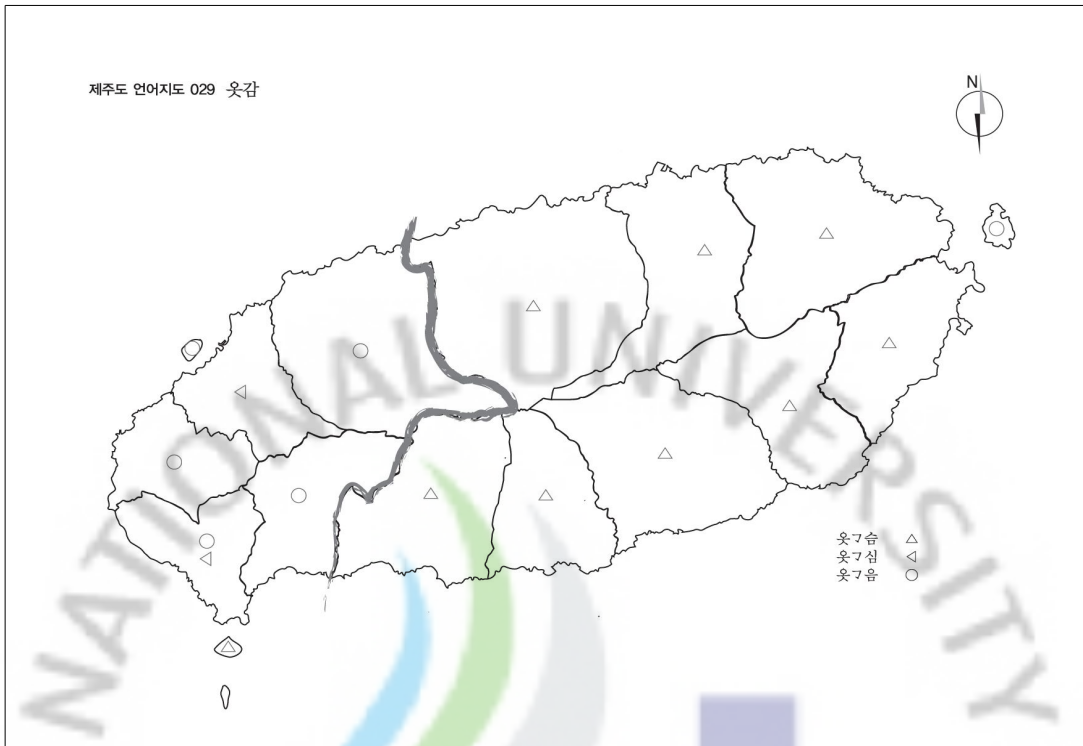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27 용달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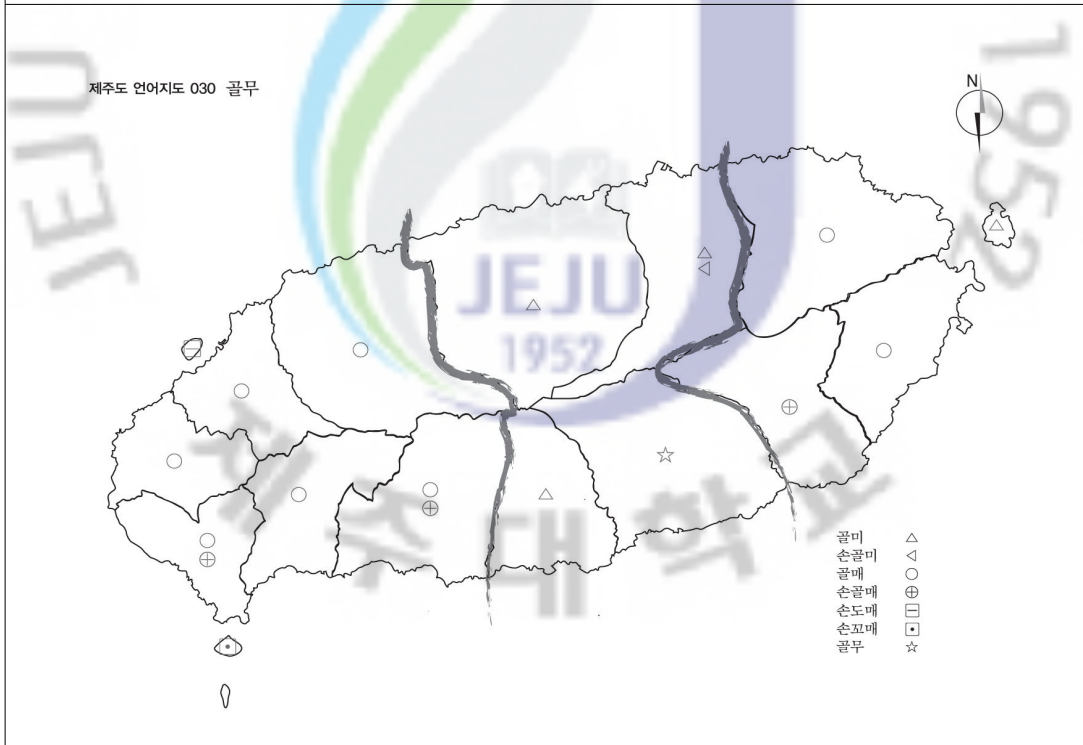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28 부젓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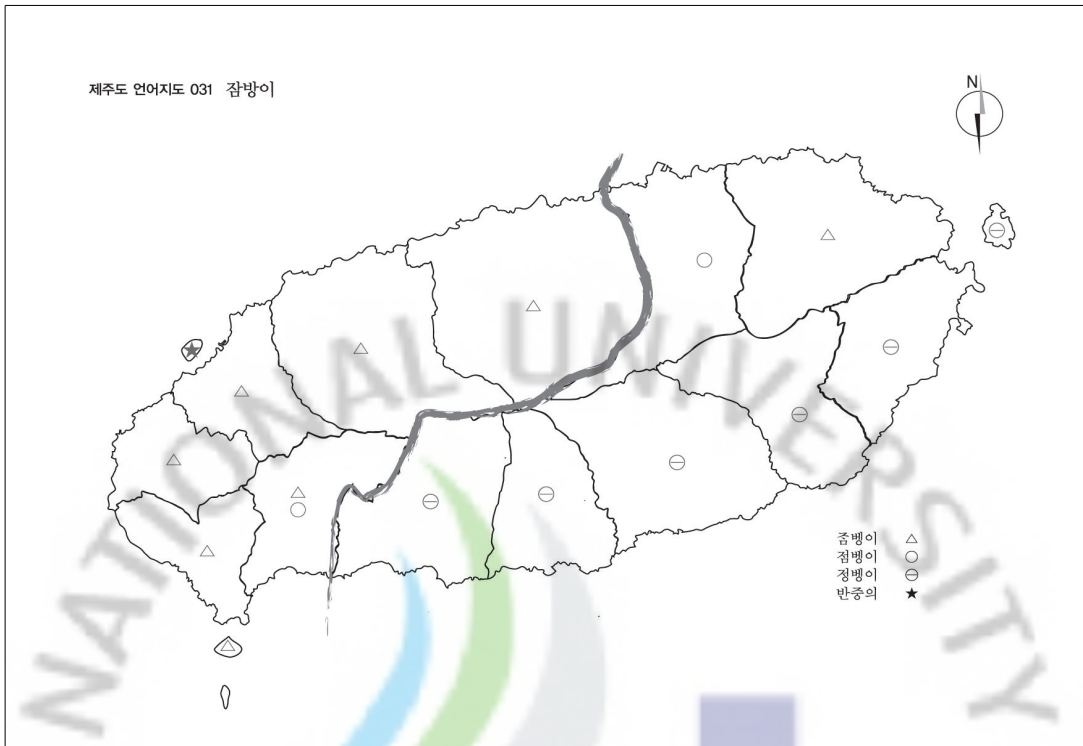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29 옷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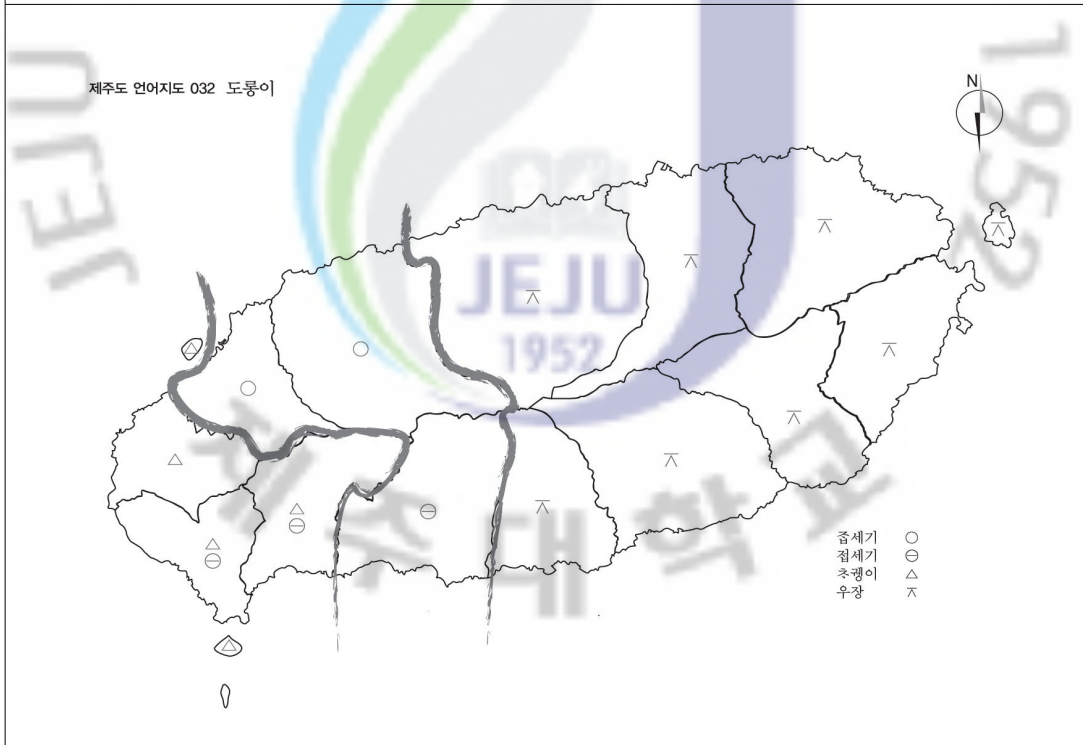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30 꿀무



제주도 언어지도 031 잠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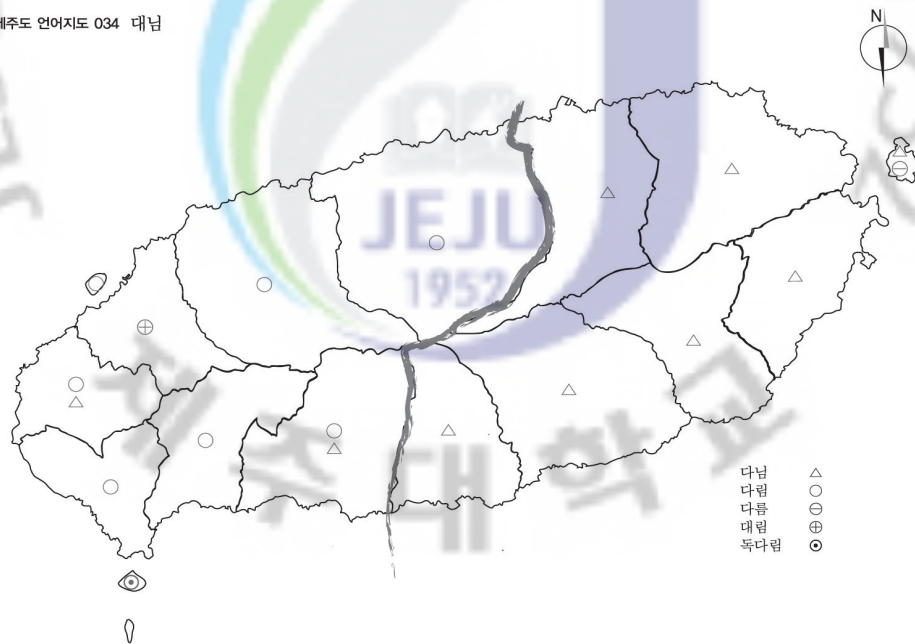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32 도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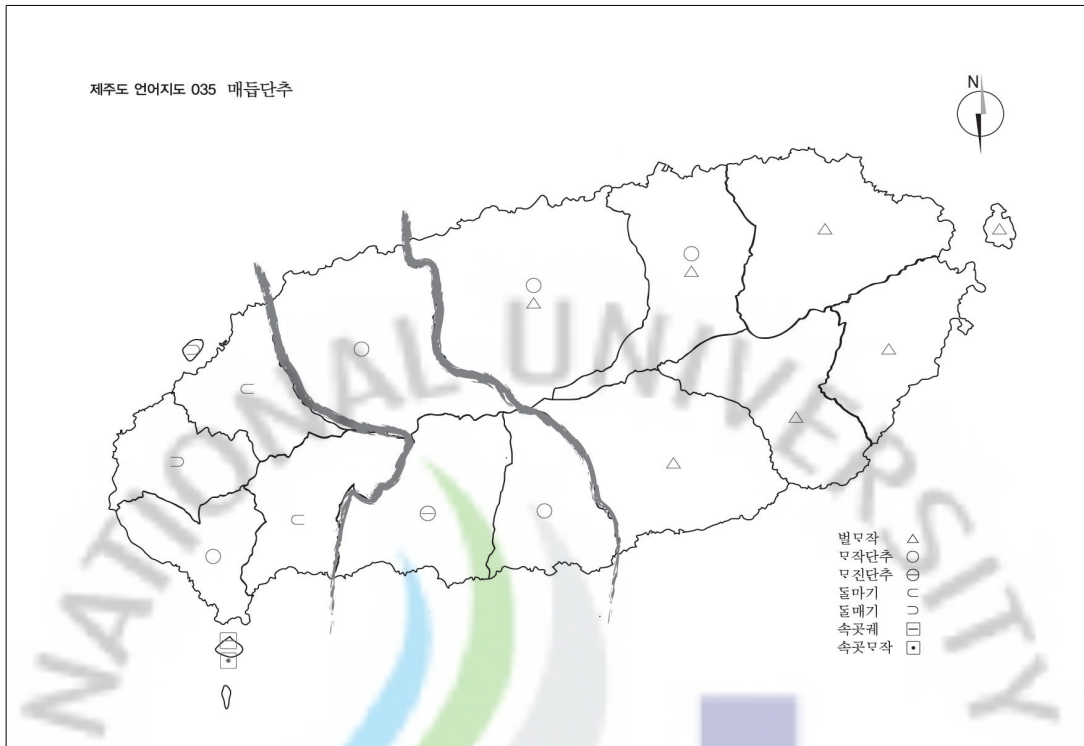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33 두루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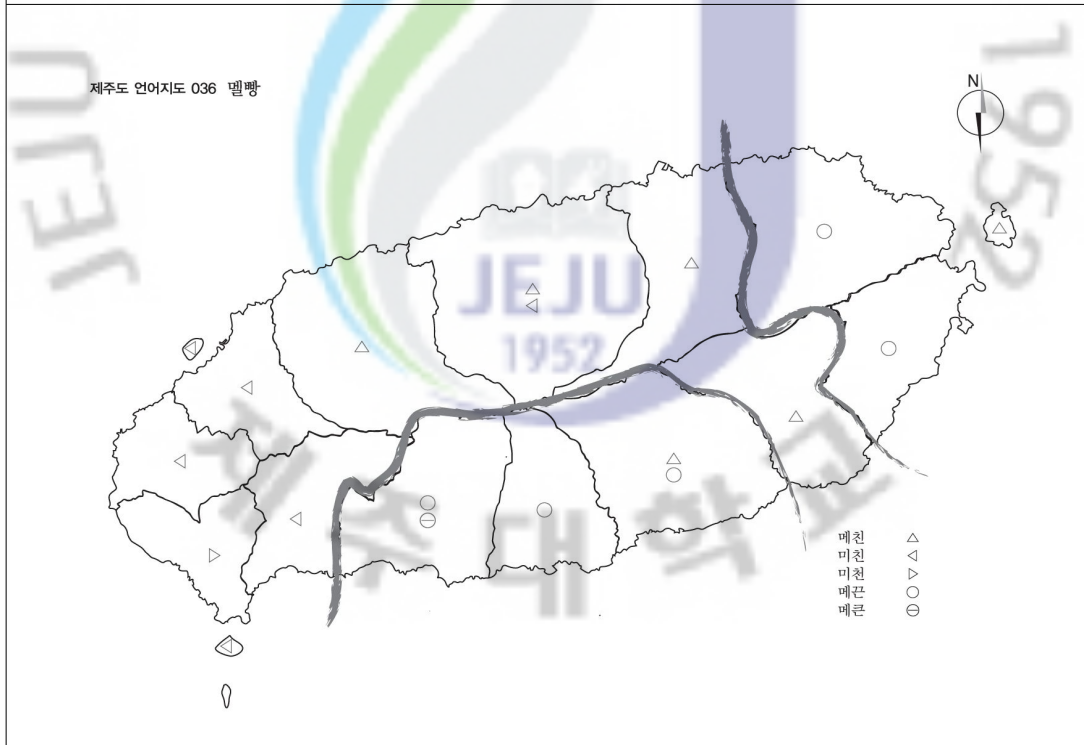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34 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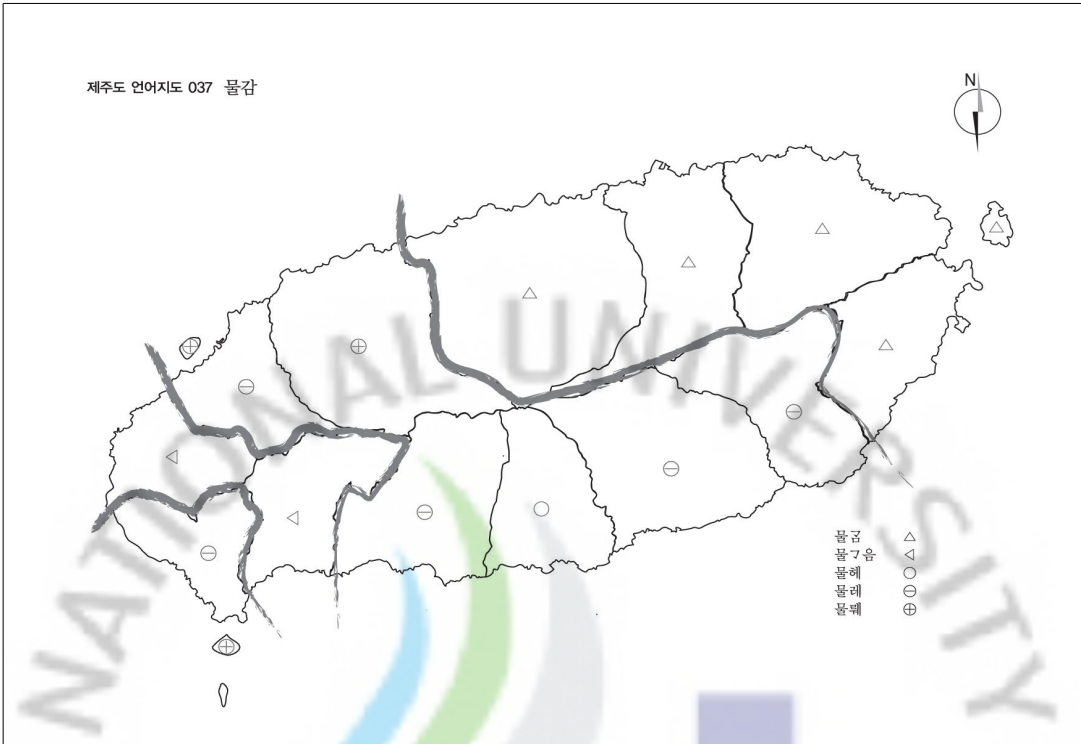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35 매듭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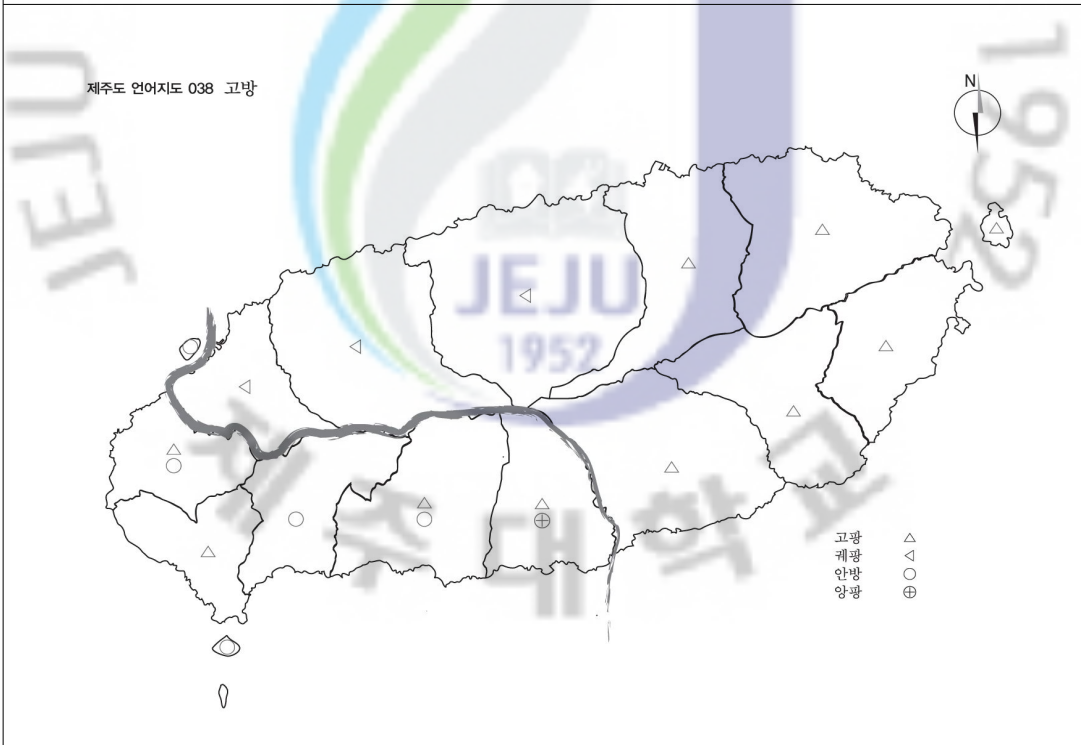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36 밀빵



제주도 언어지도 037 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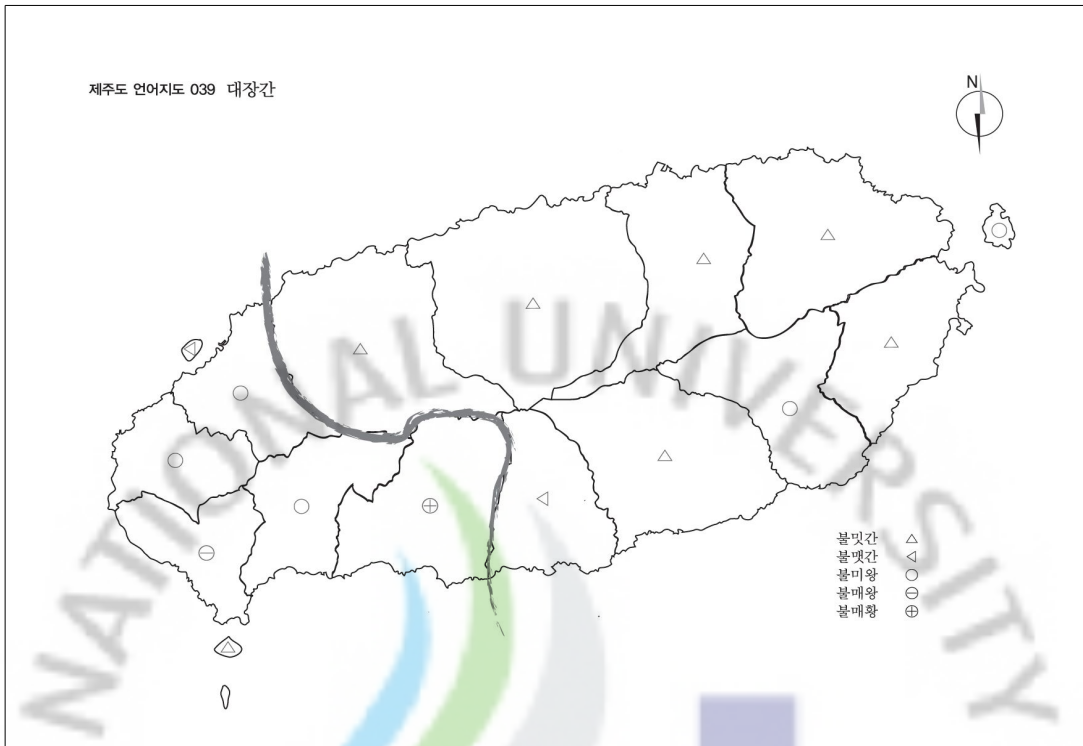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38 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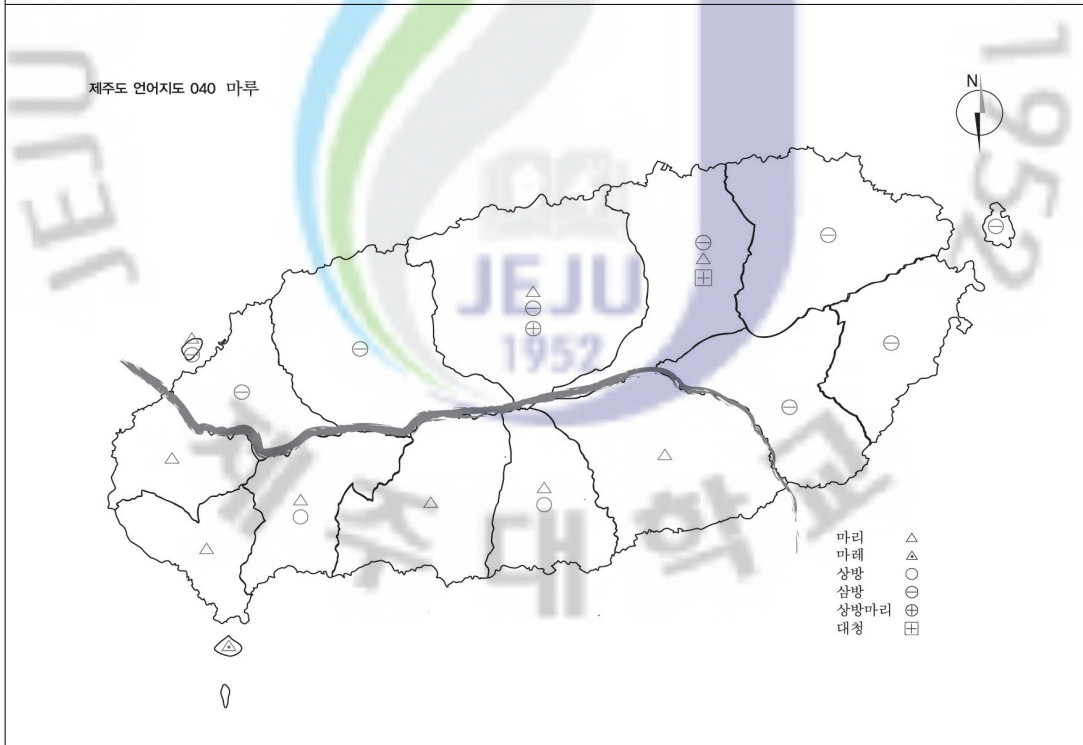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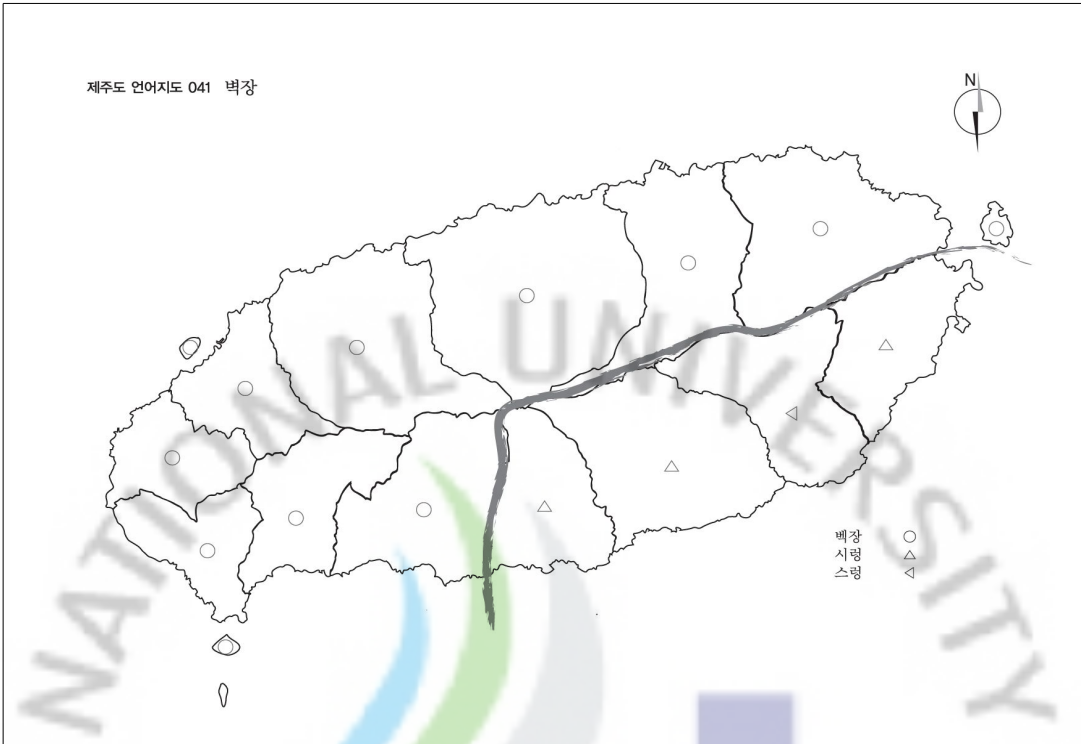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39 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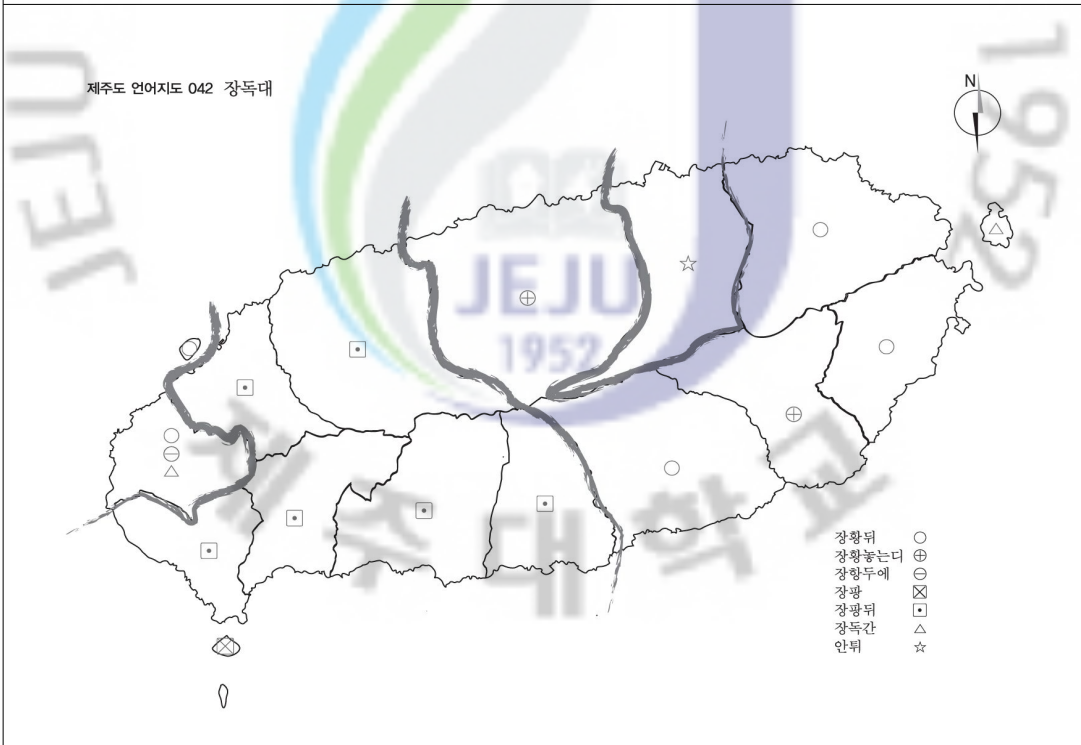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40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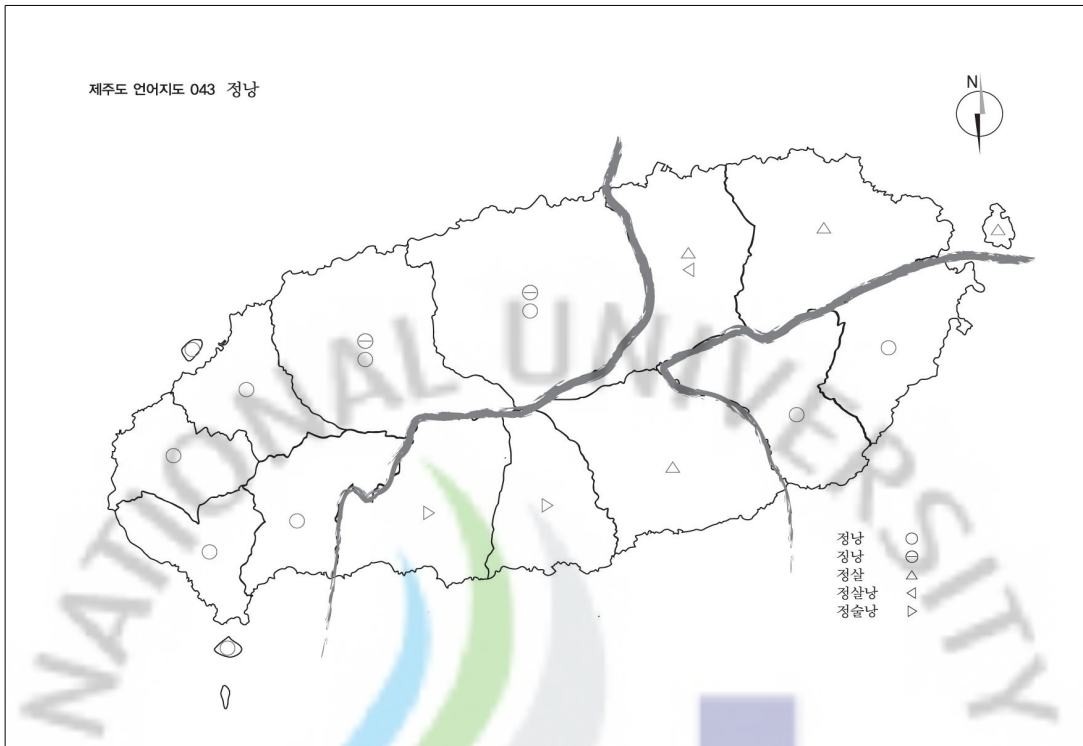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41 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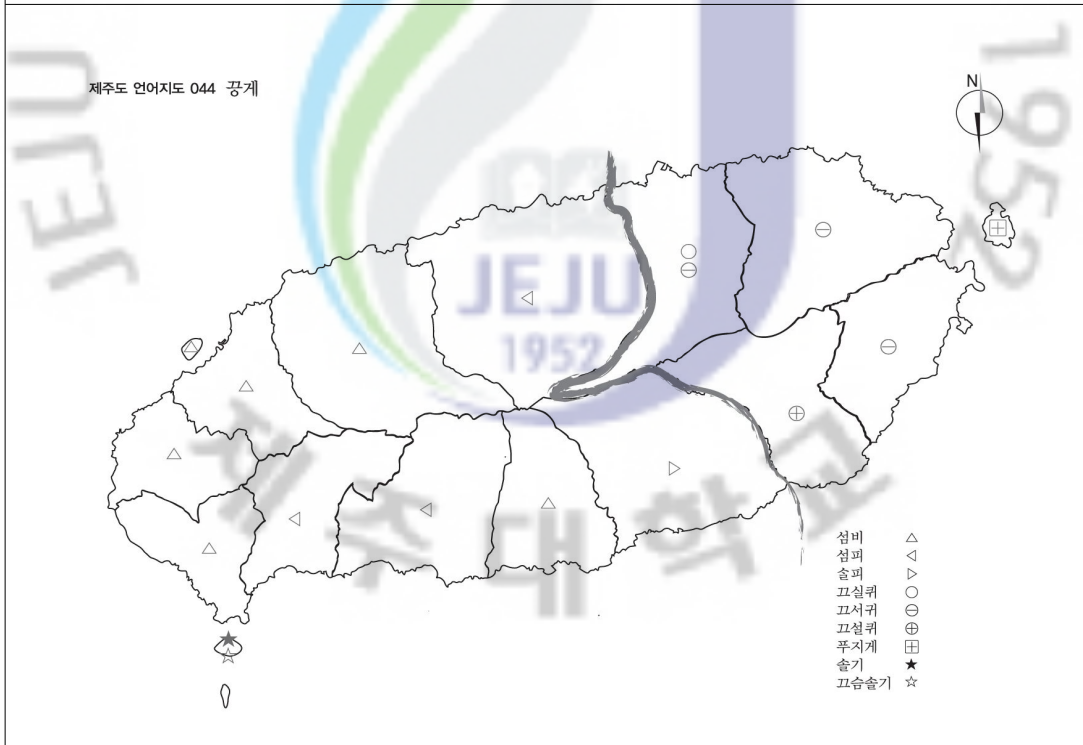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42 장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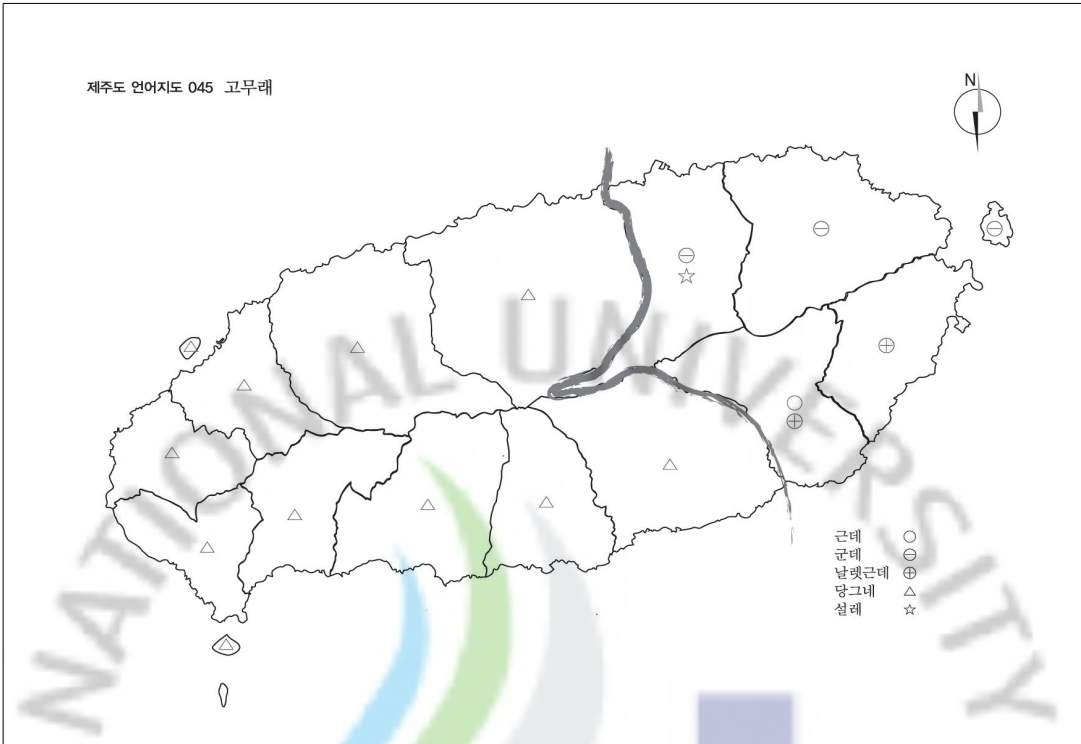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43 정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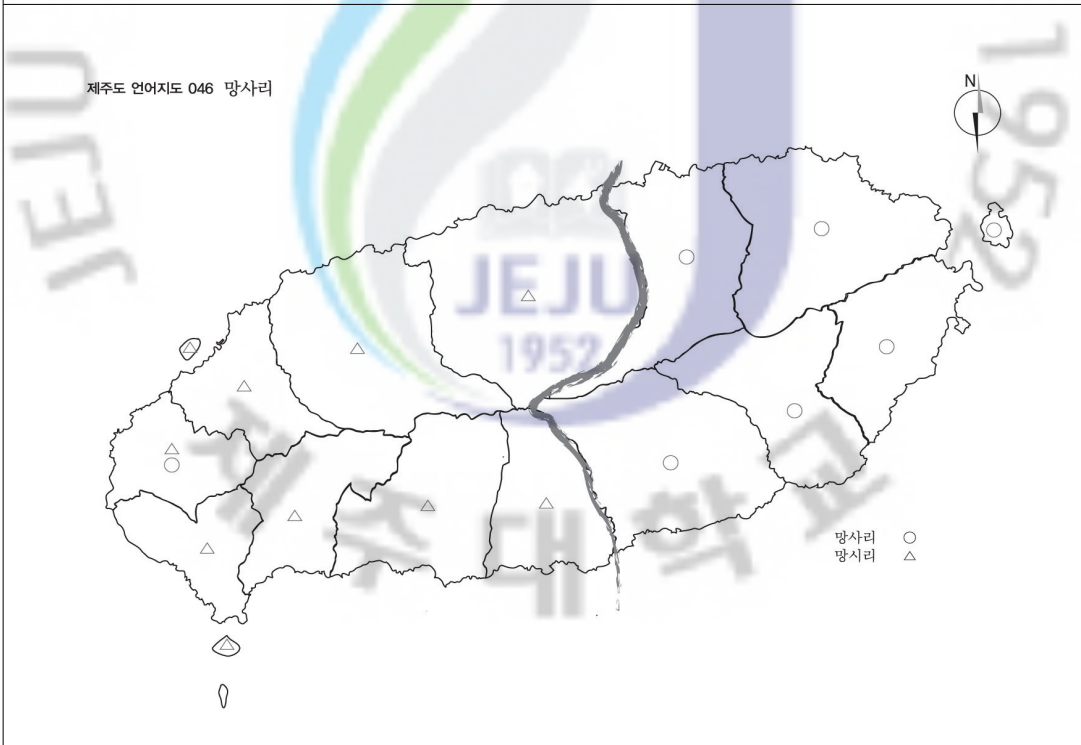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44 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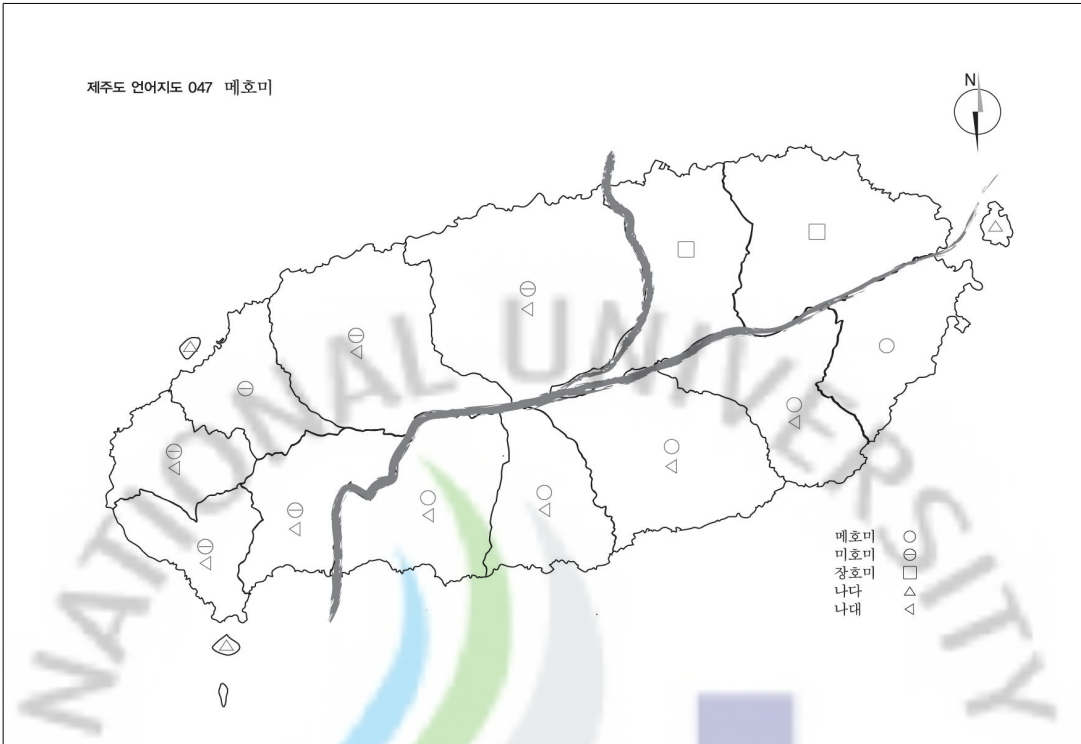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45 고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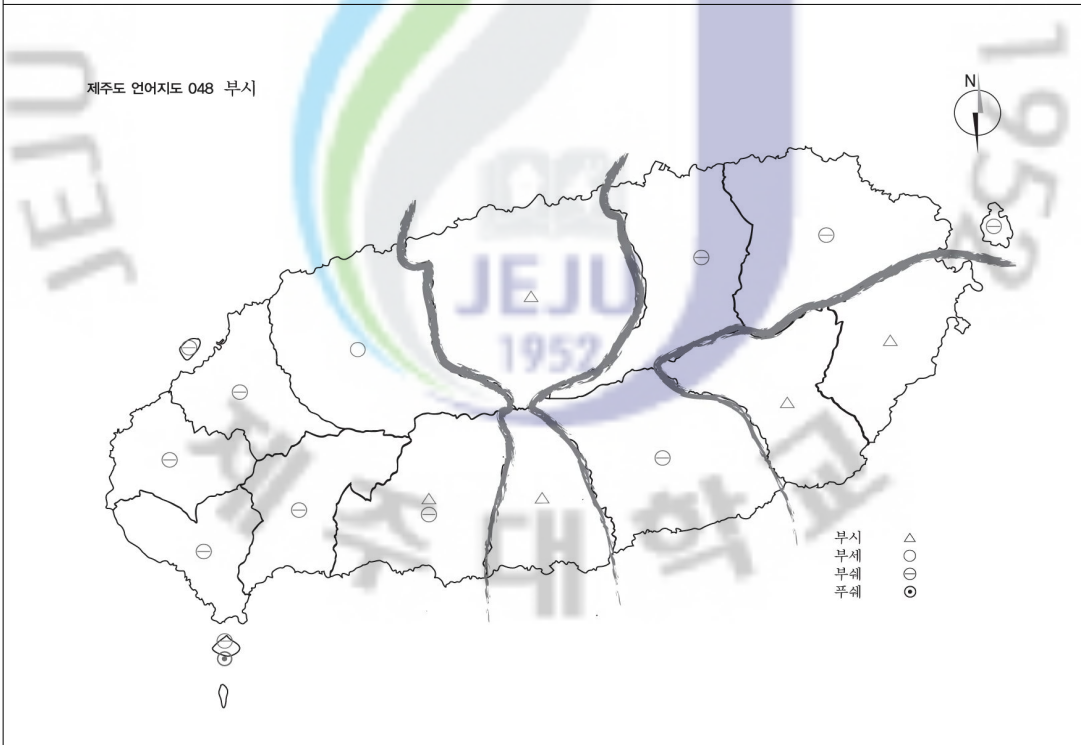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46 망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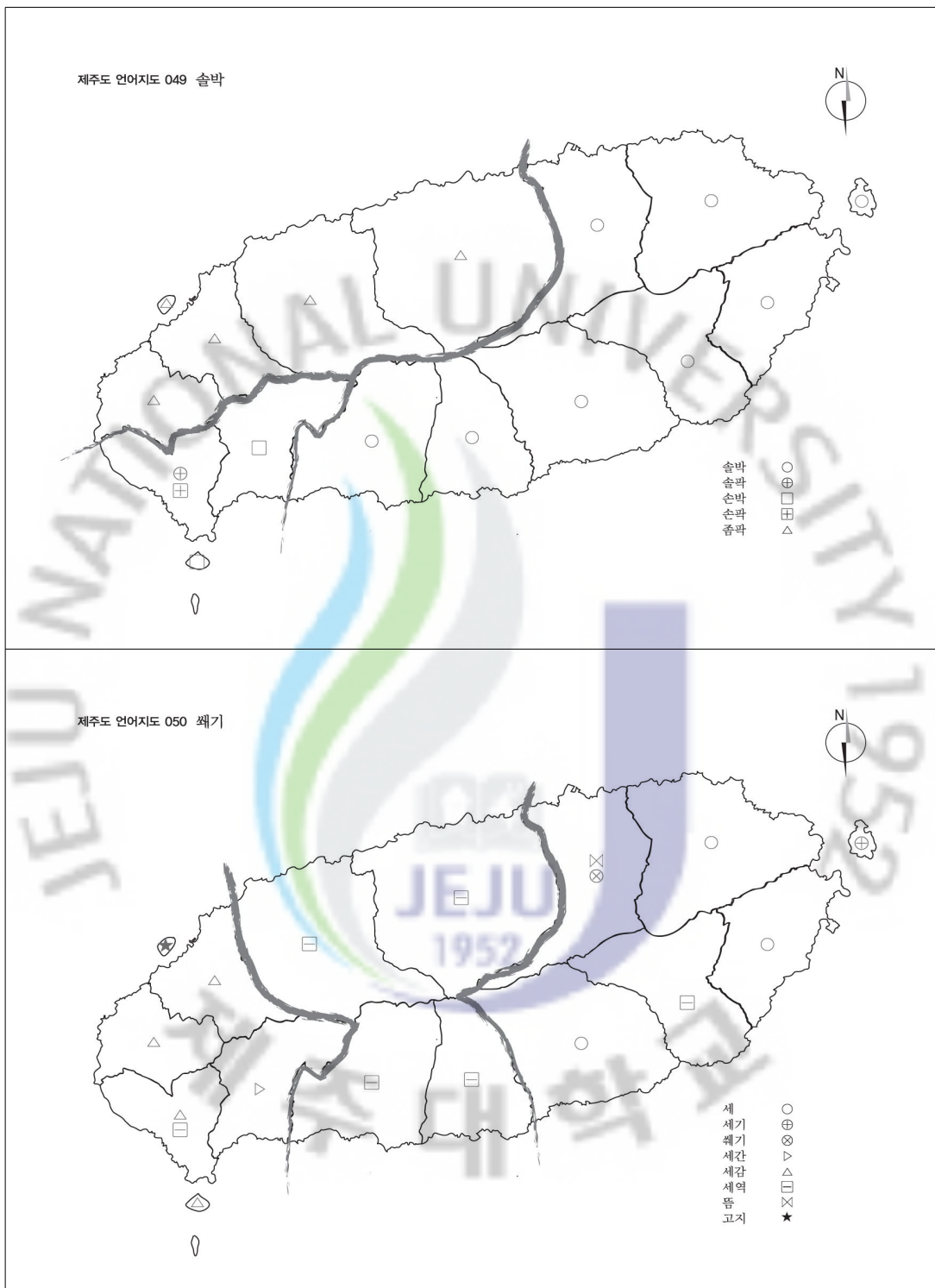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47 메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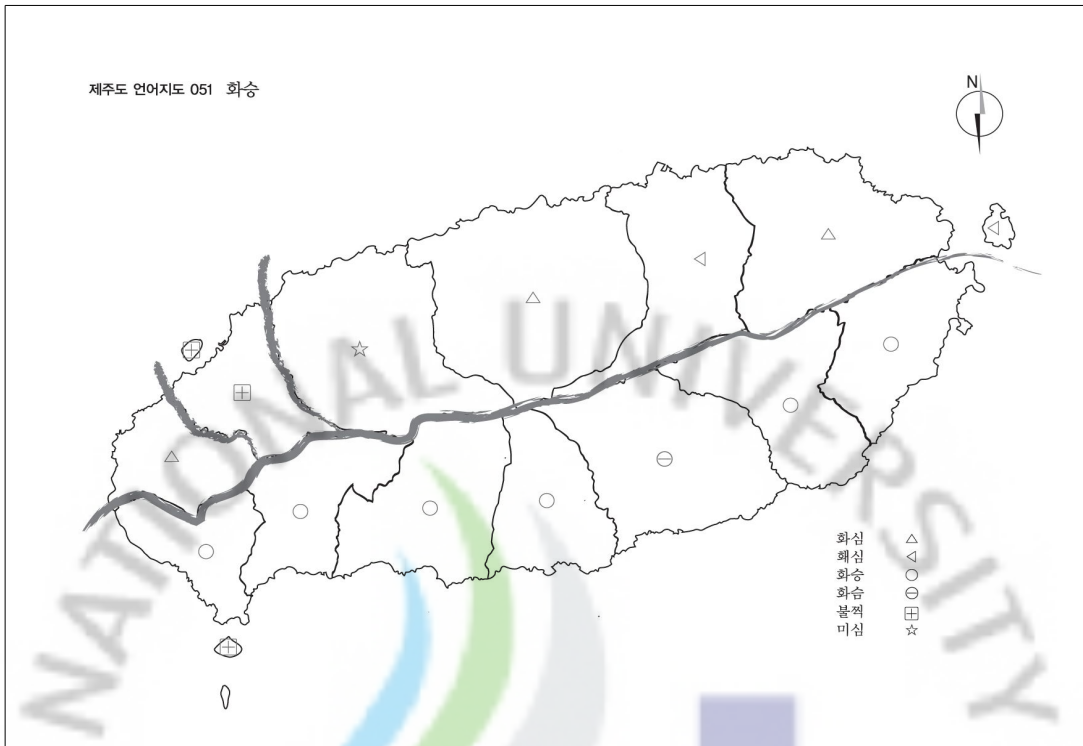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48 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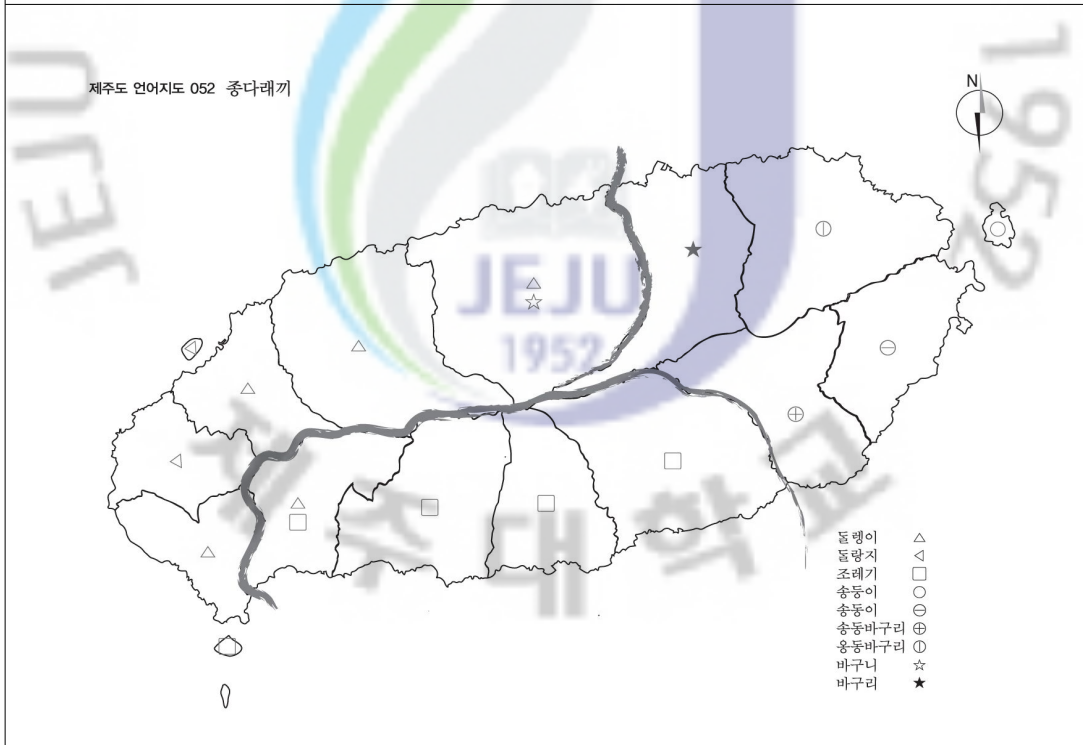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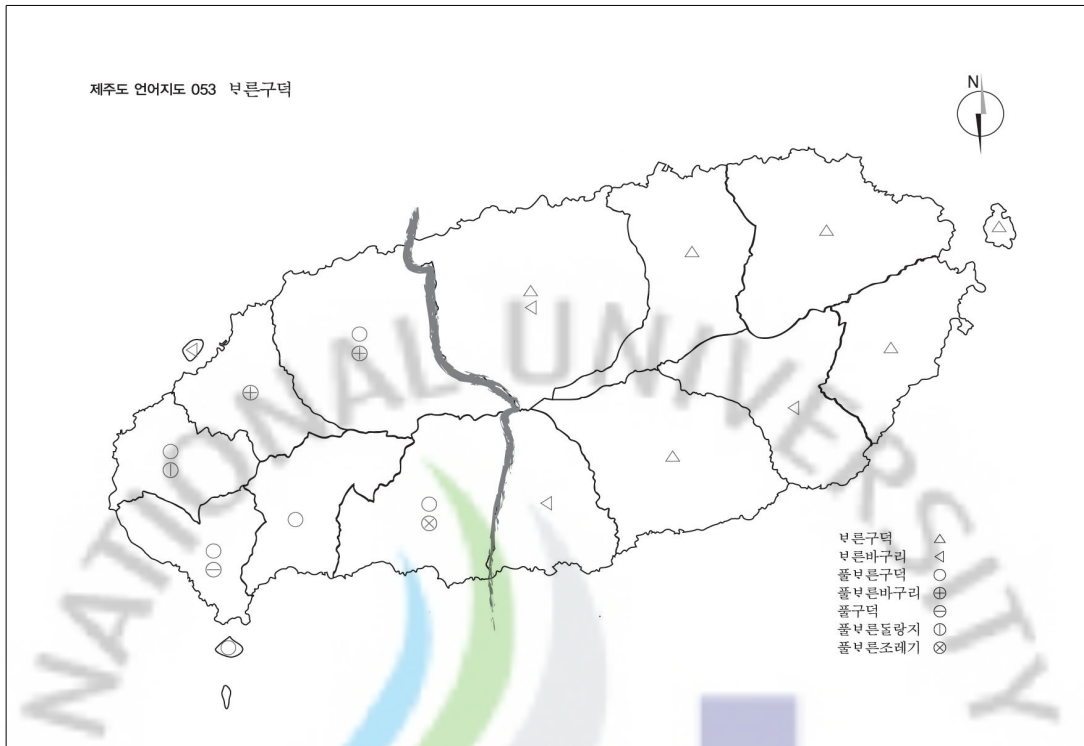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51 화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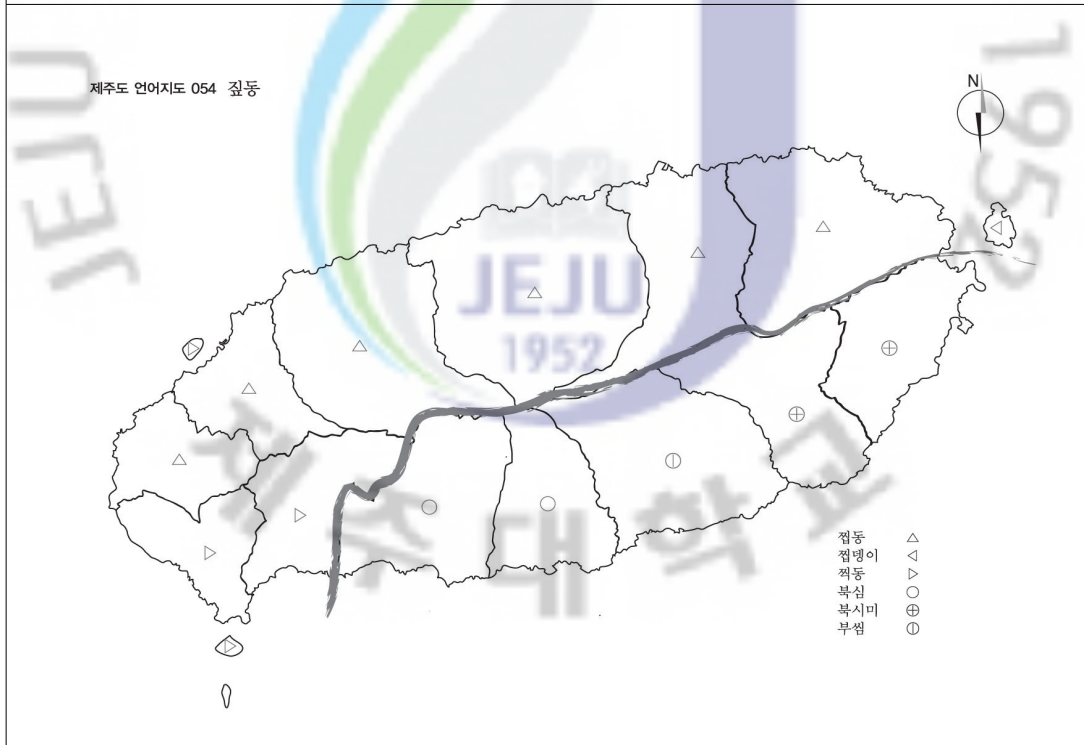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52 종다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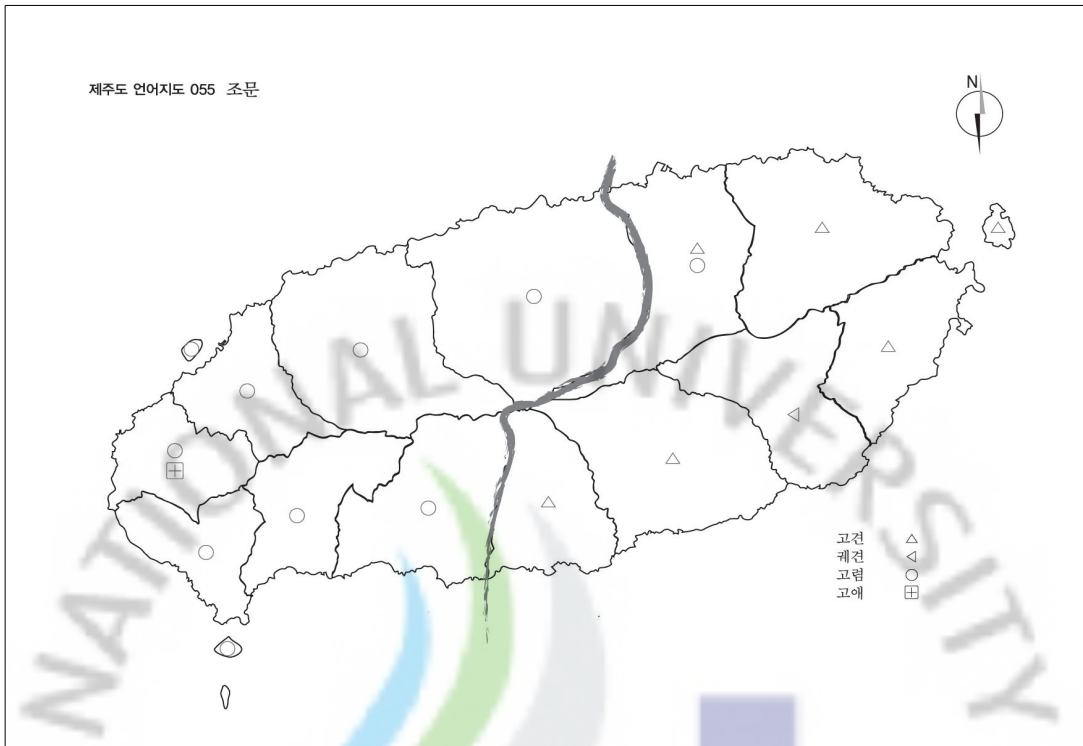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53 북른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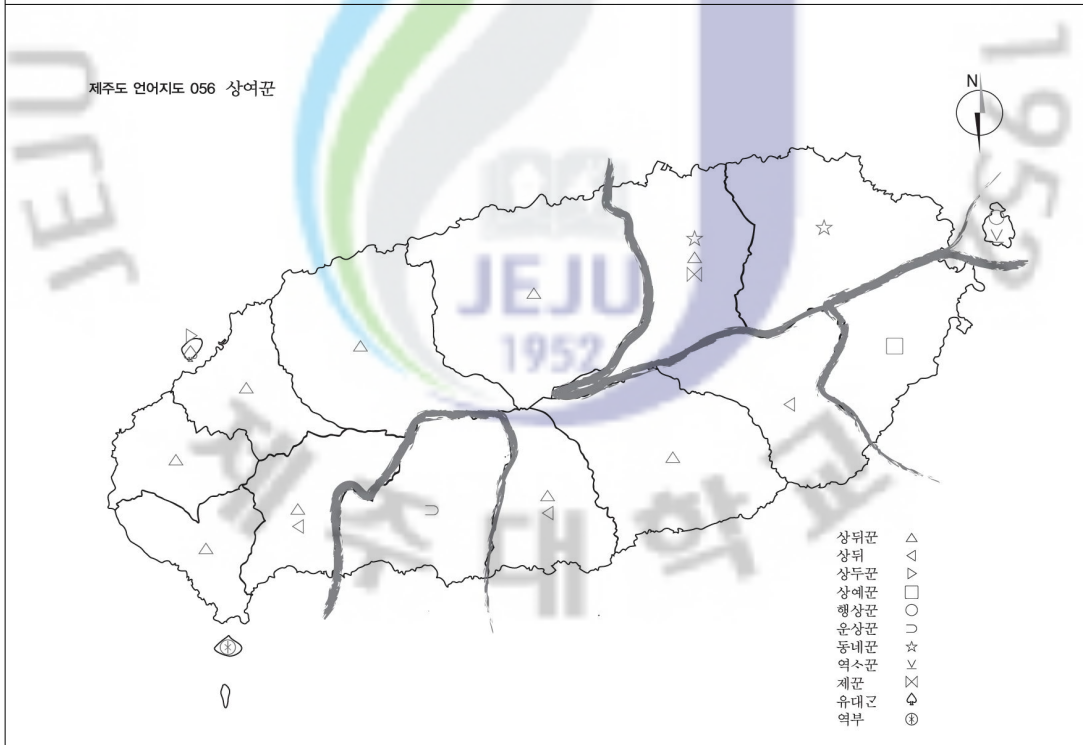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54 짚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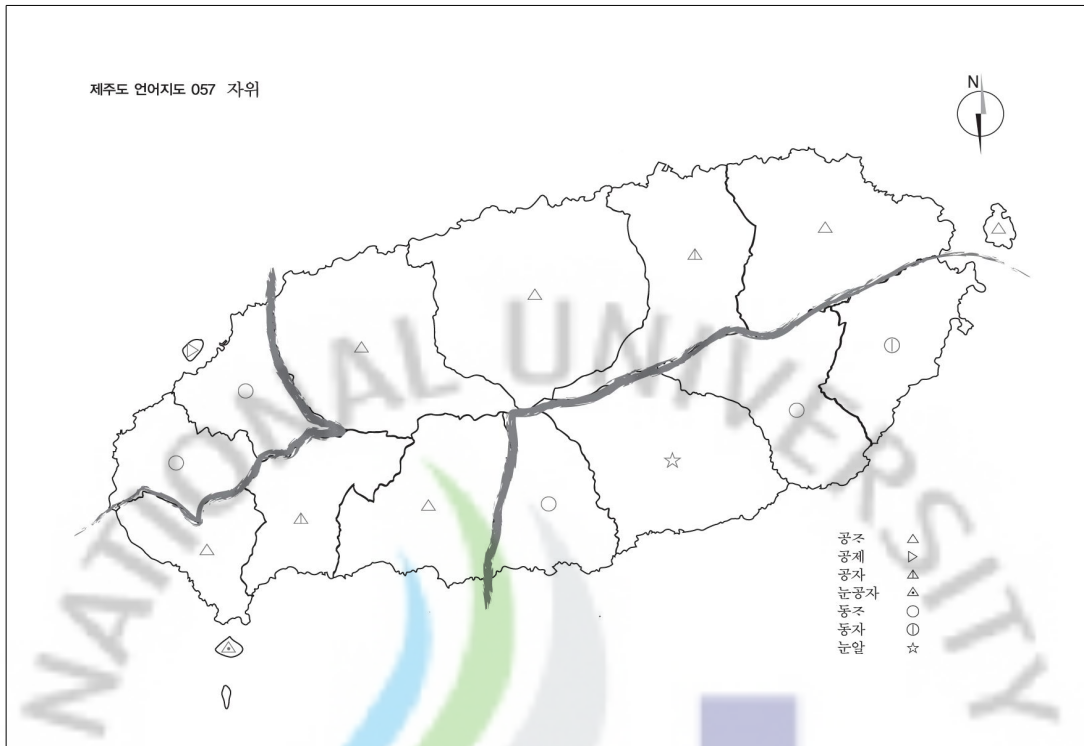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55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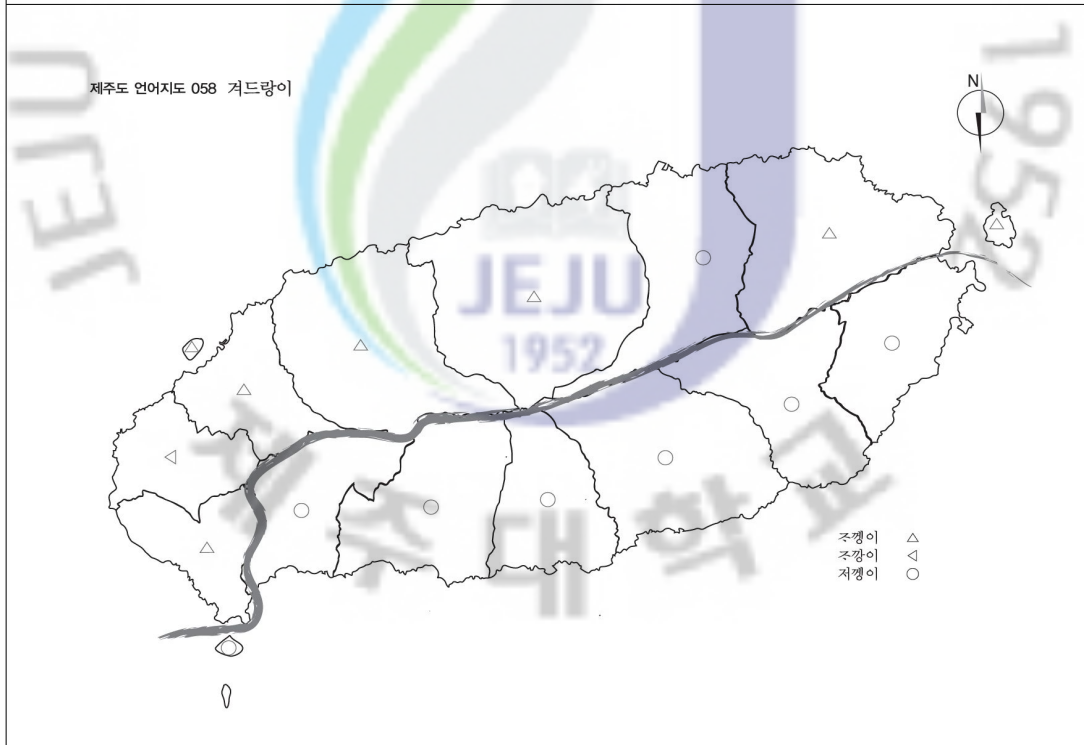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56 상여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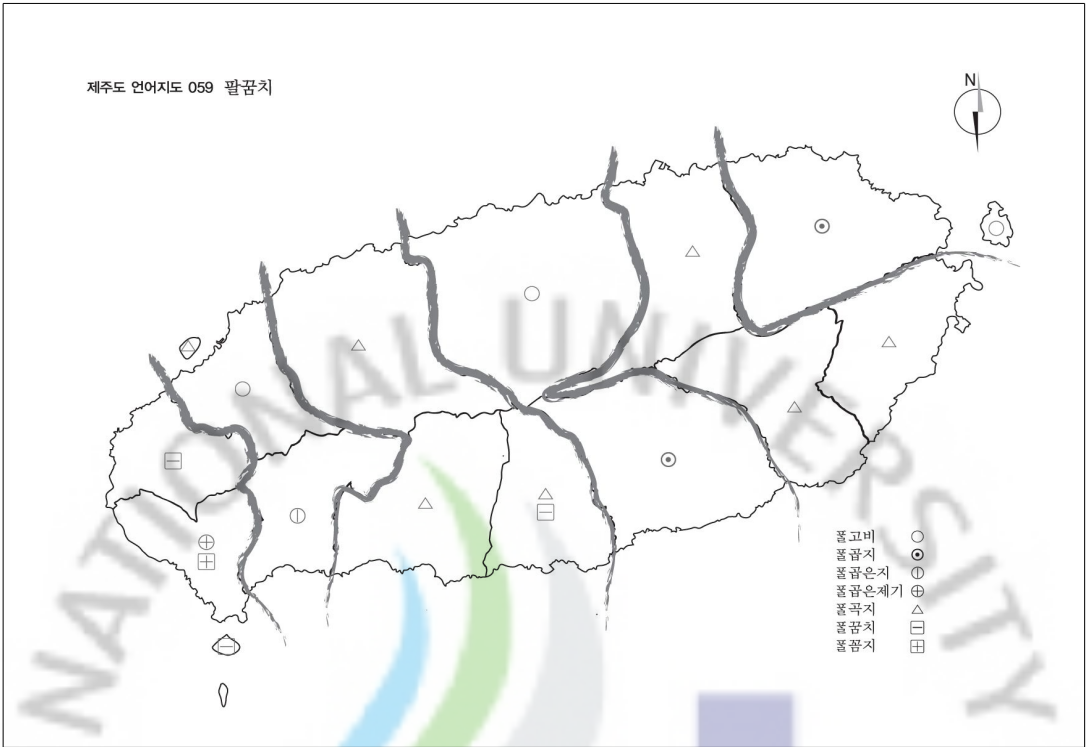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57 자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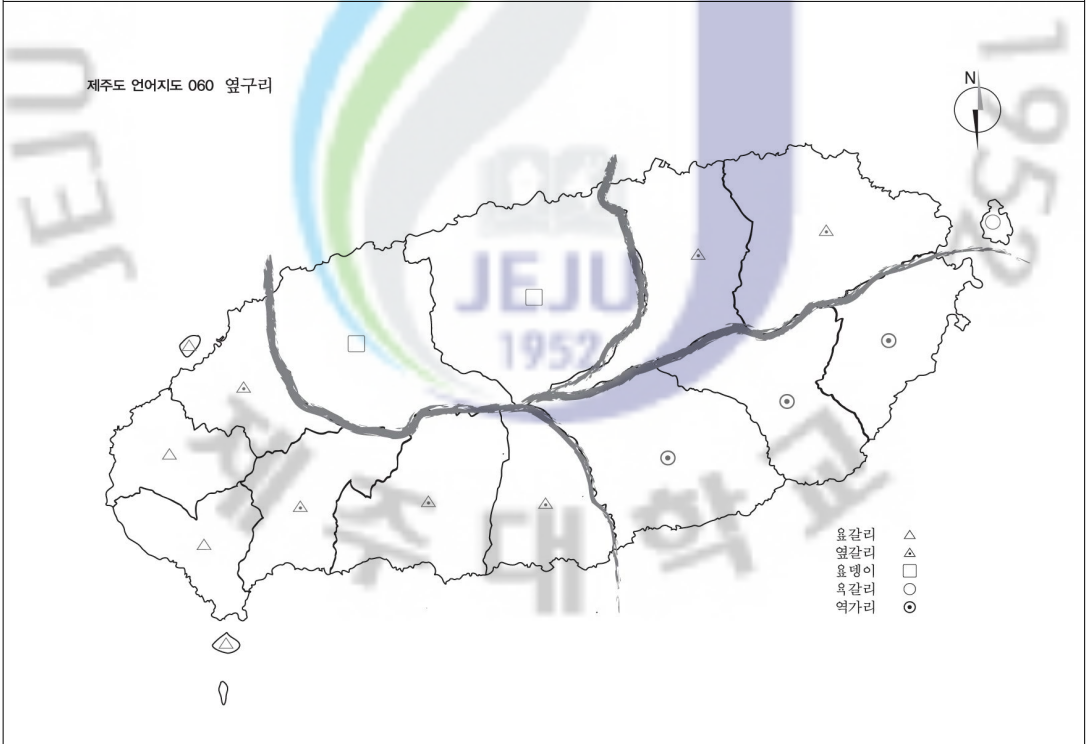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58 거드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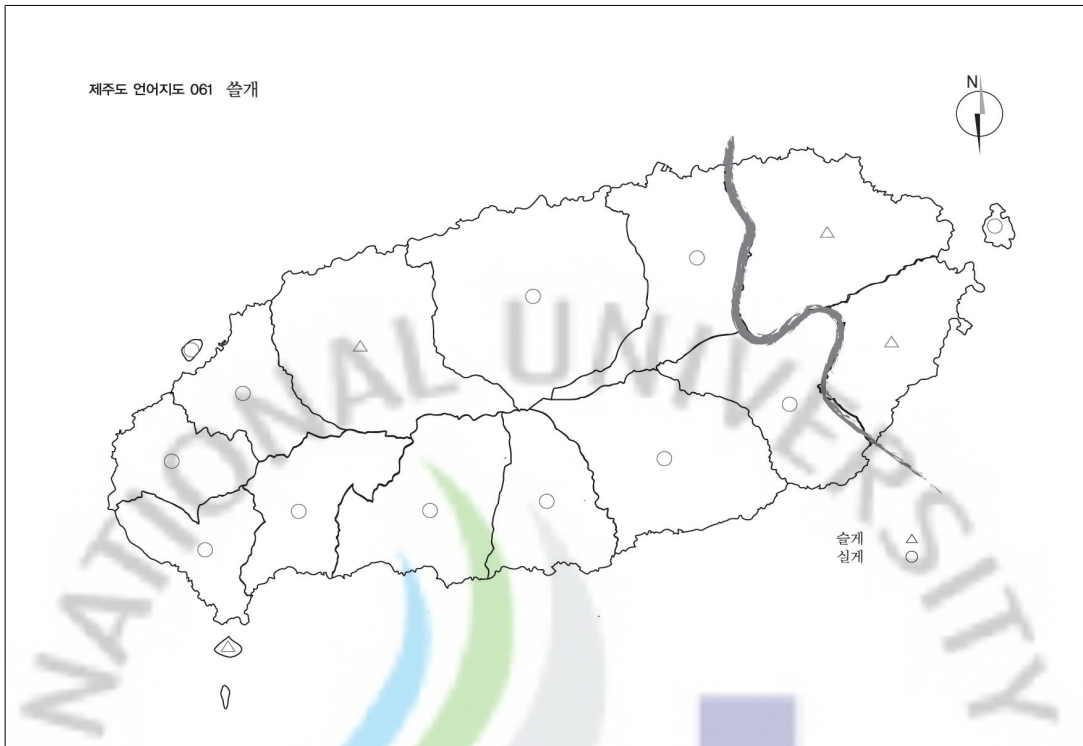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59 팔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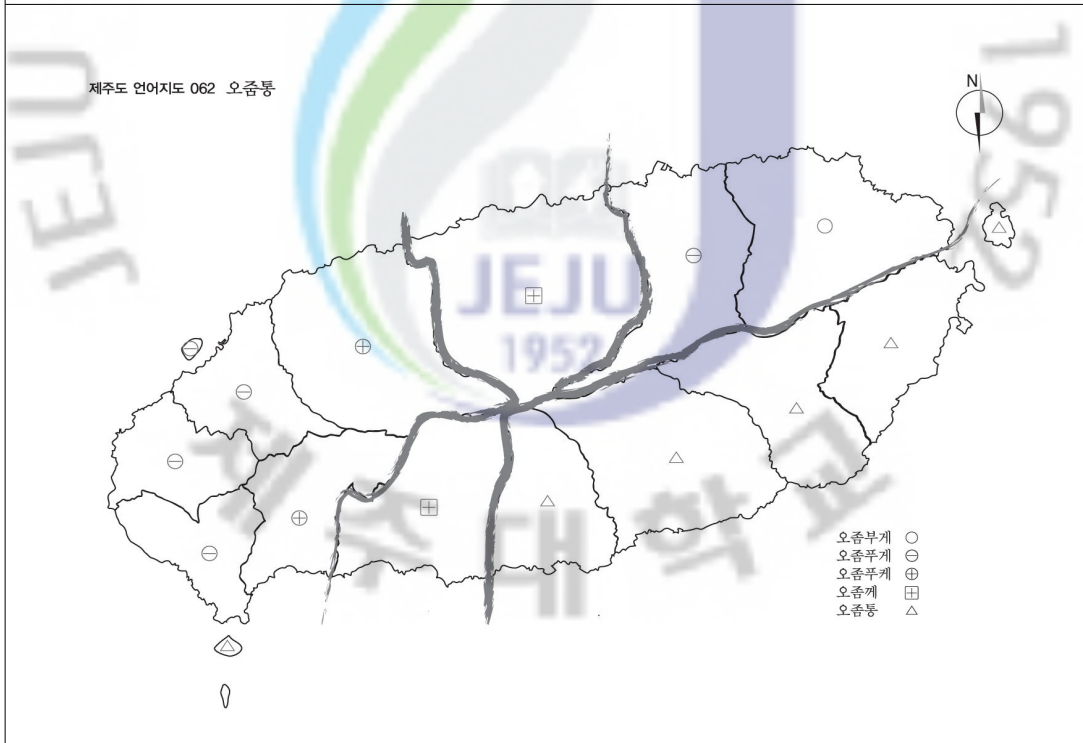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60 옆구리



제주도 언어지도 061 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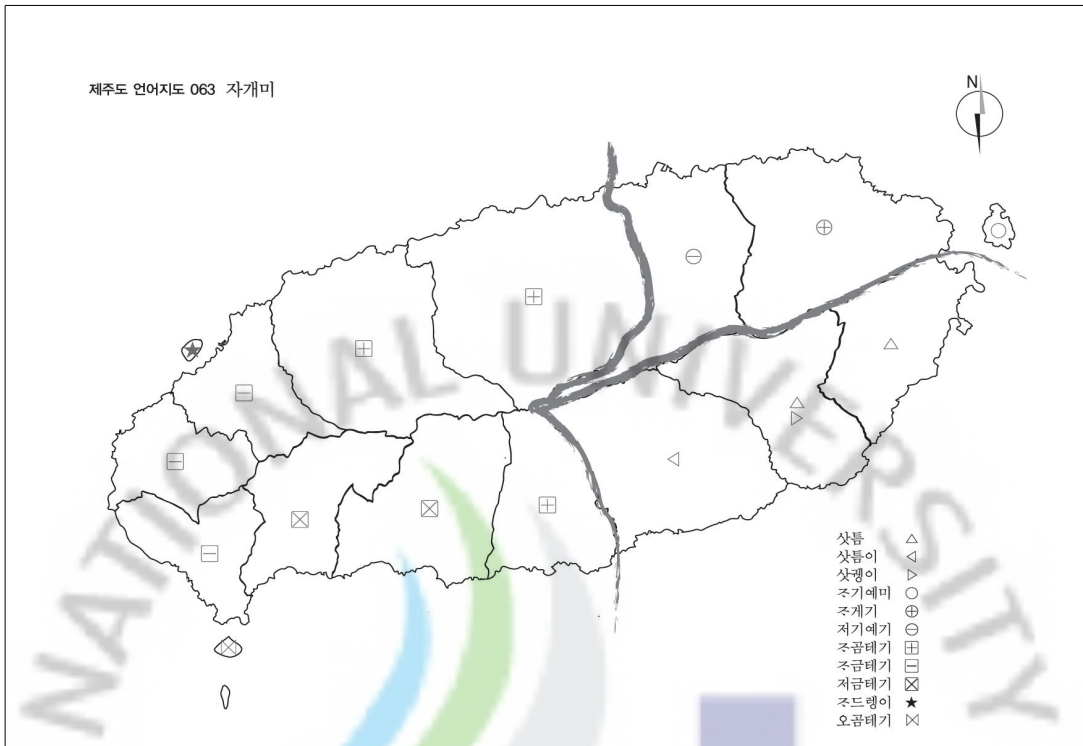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62 오즘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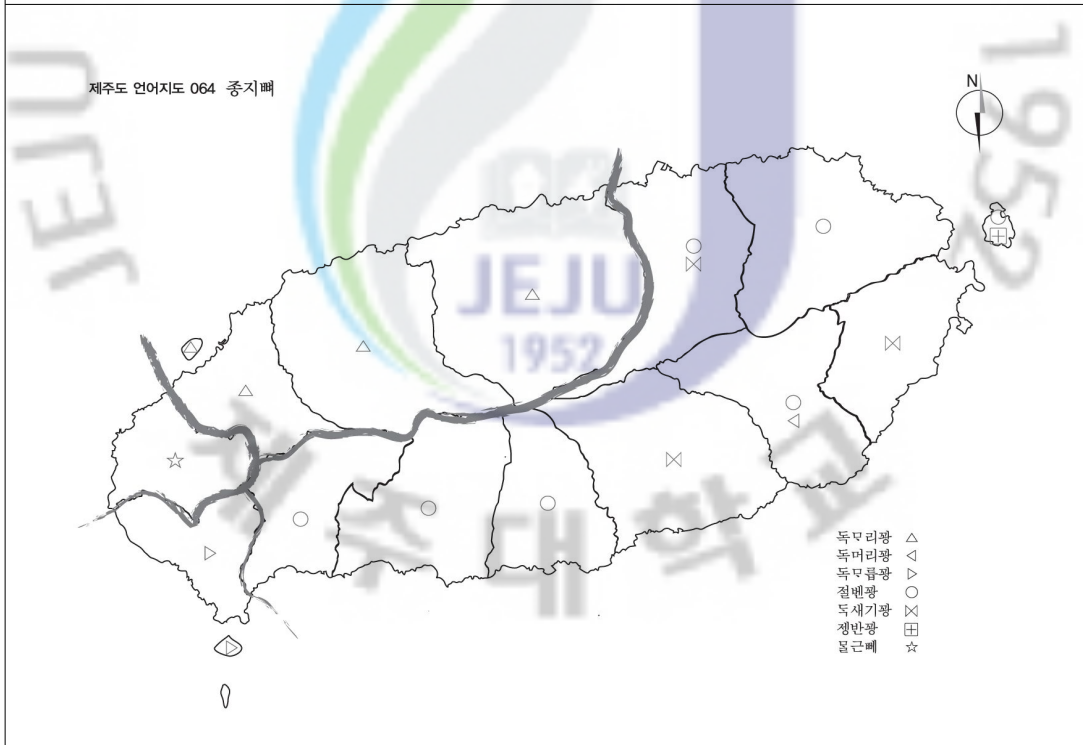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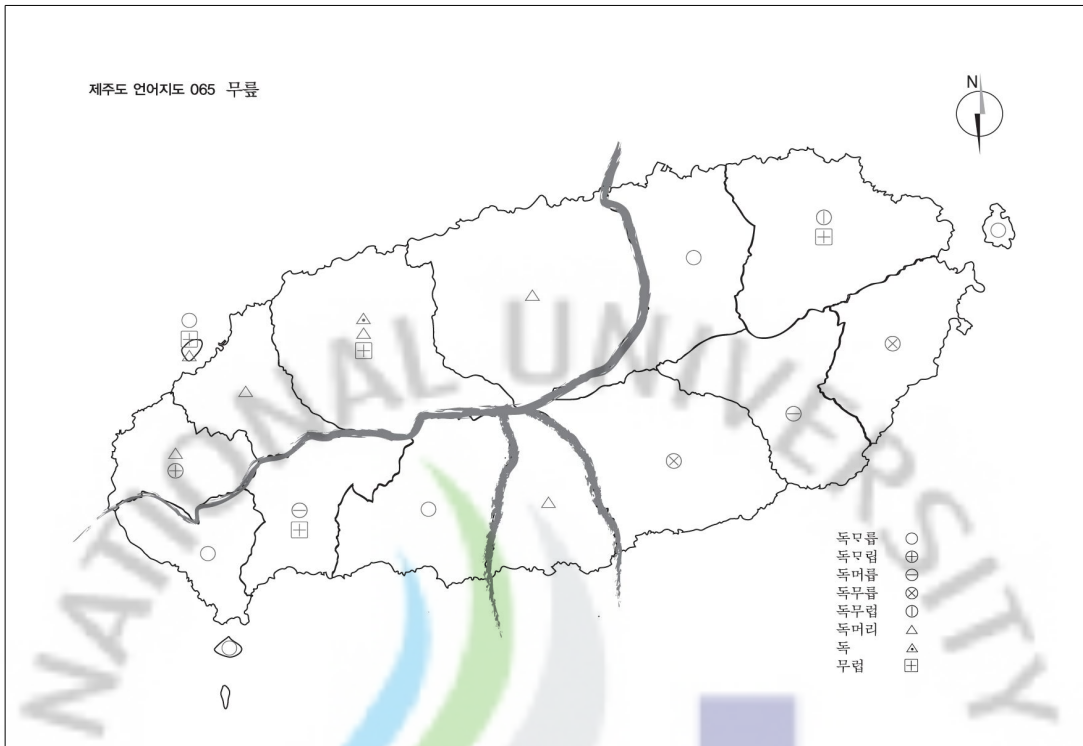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63 자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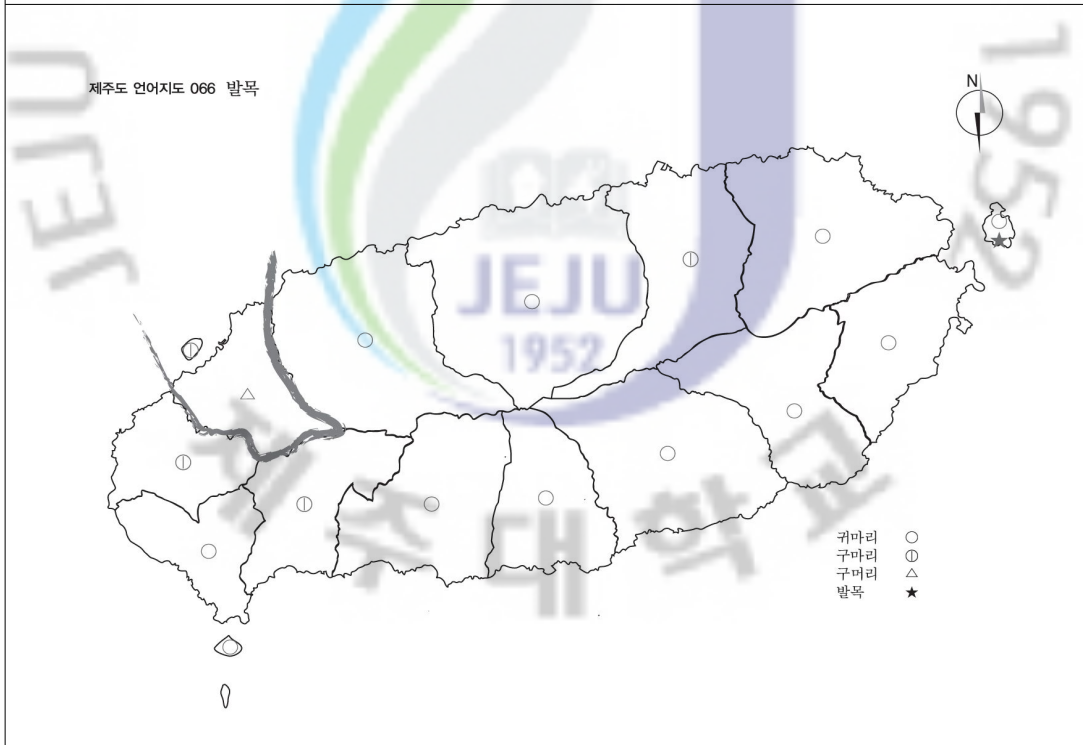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64 종지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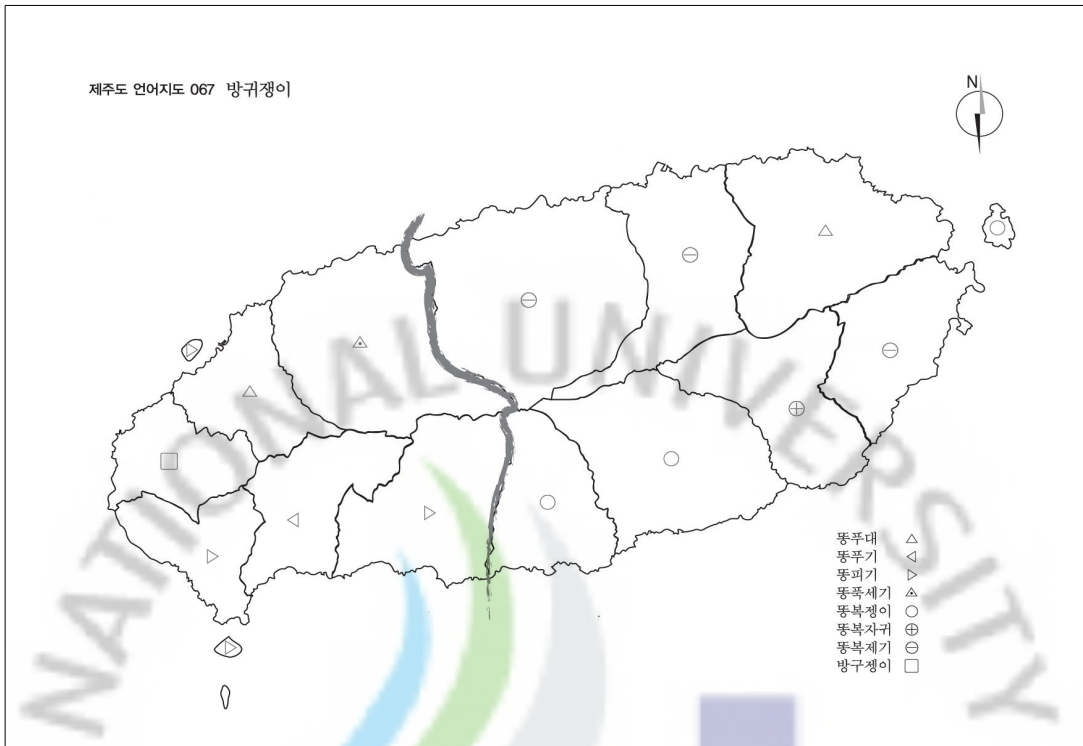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65 무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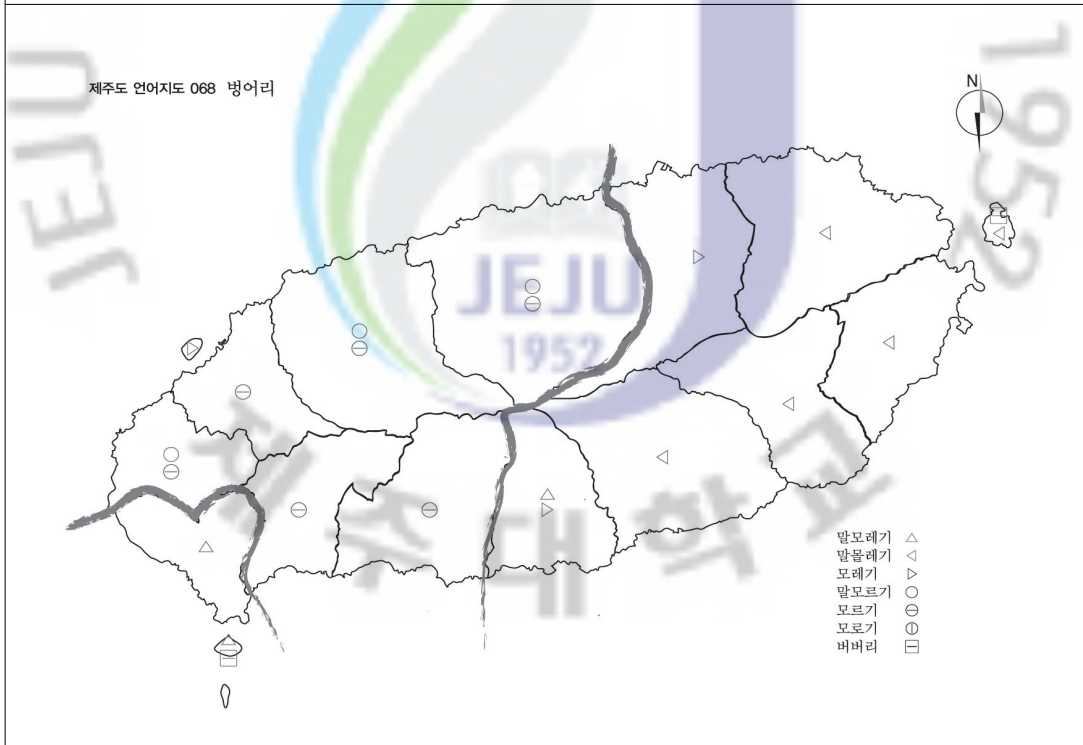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66 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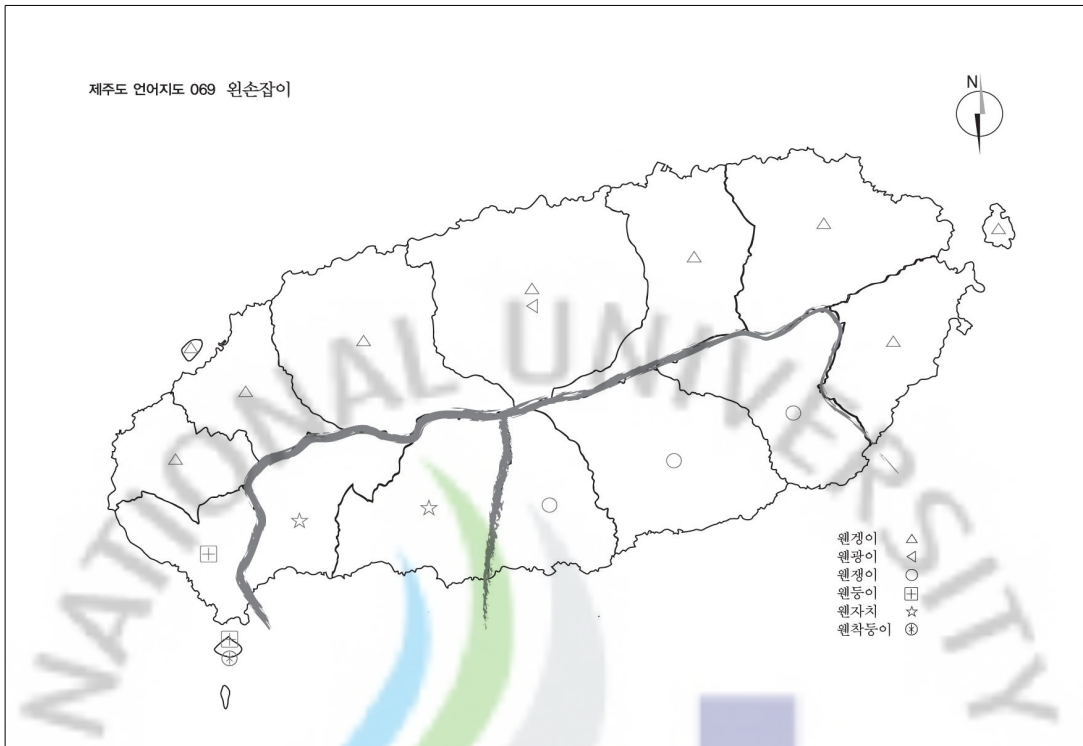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67 방귀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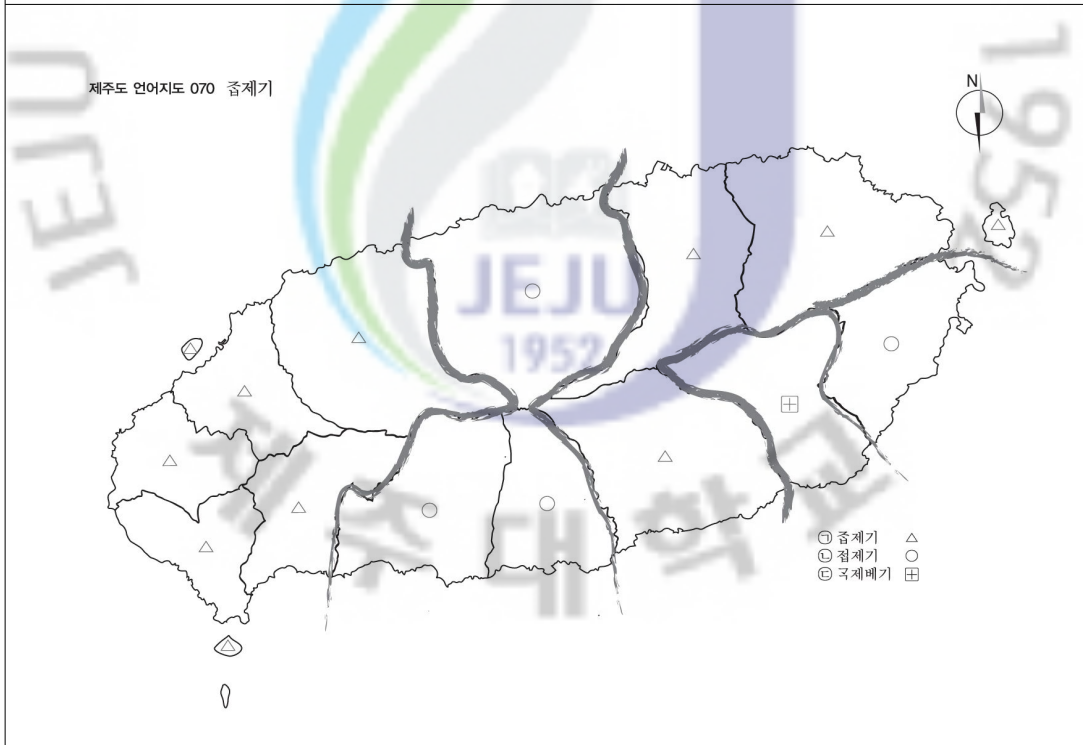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68 병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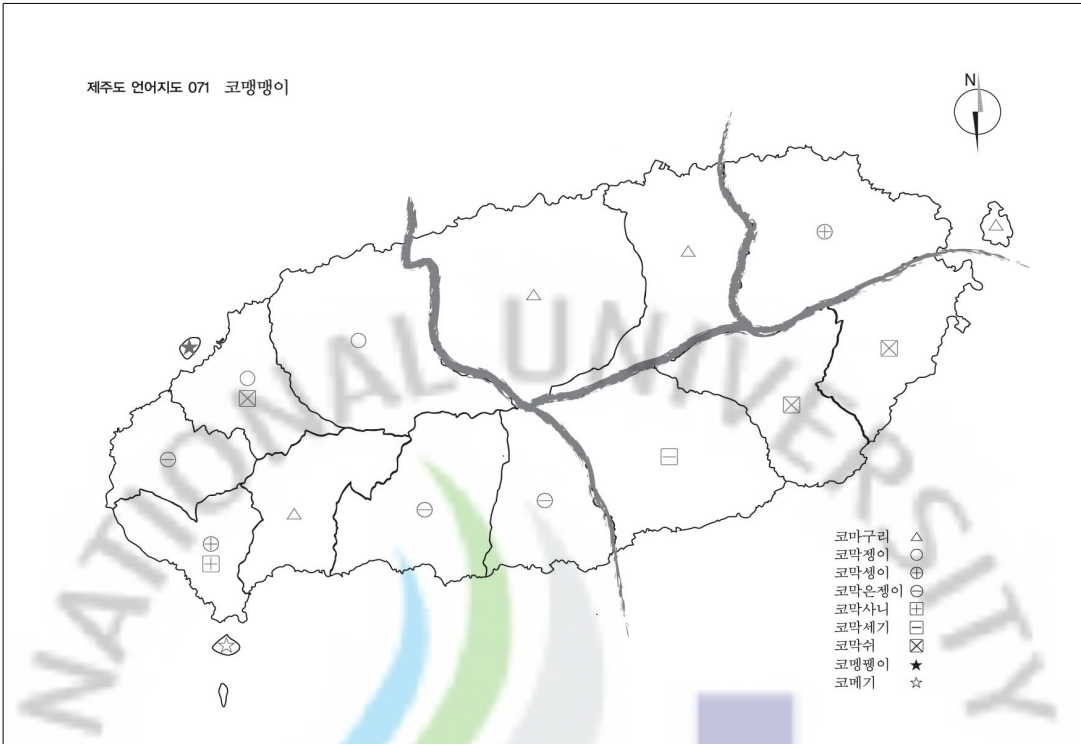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69 왼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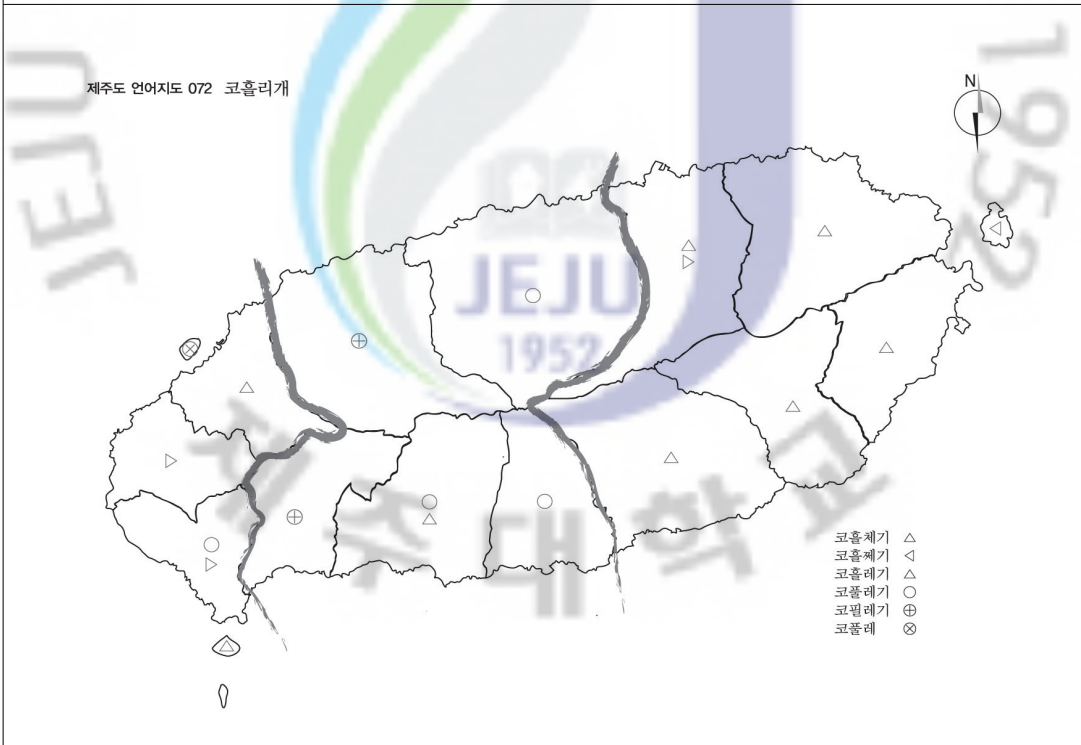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70 좁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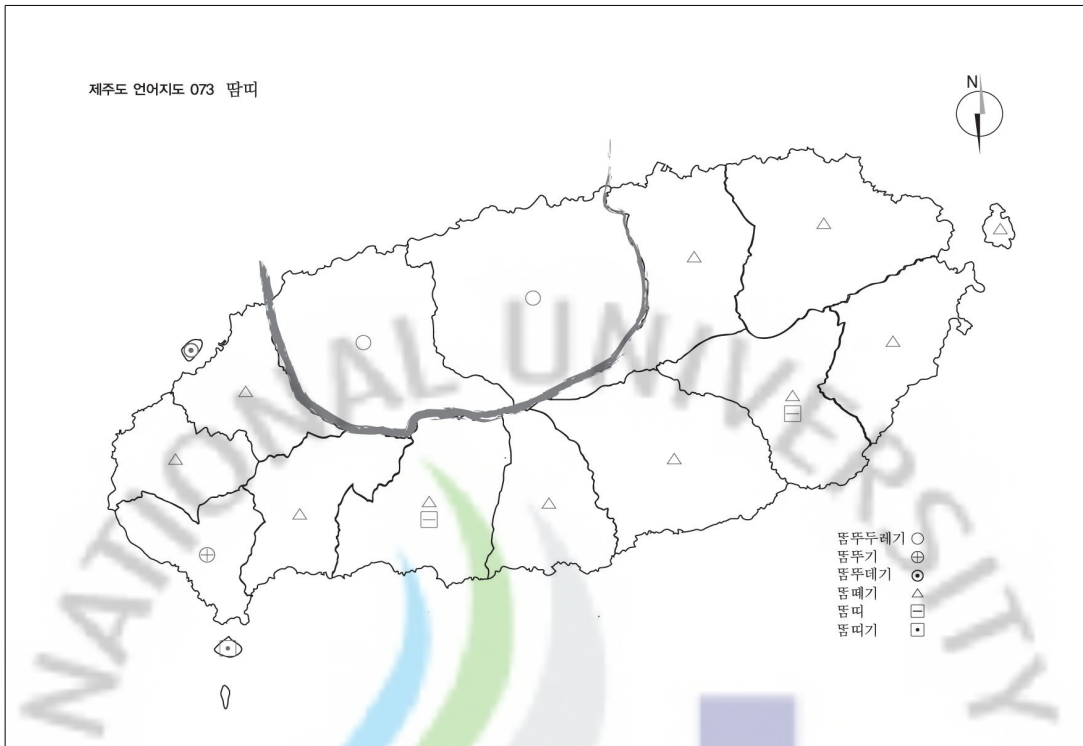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71 코맹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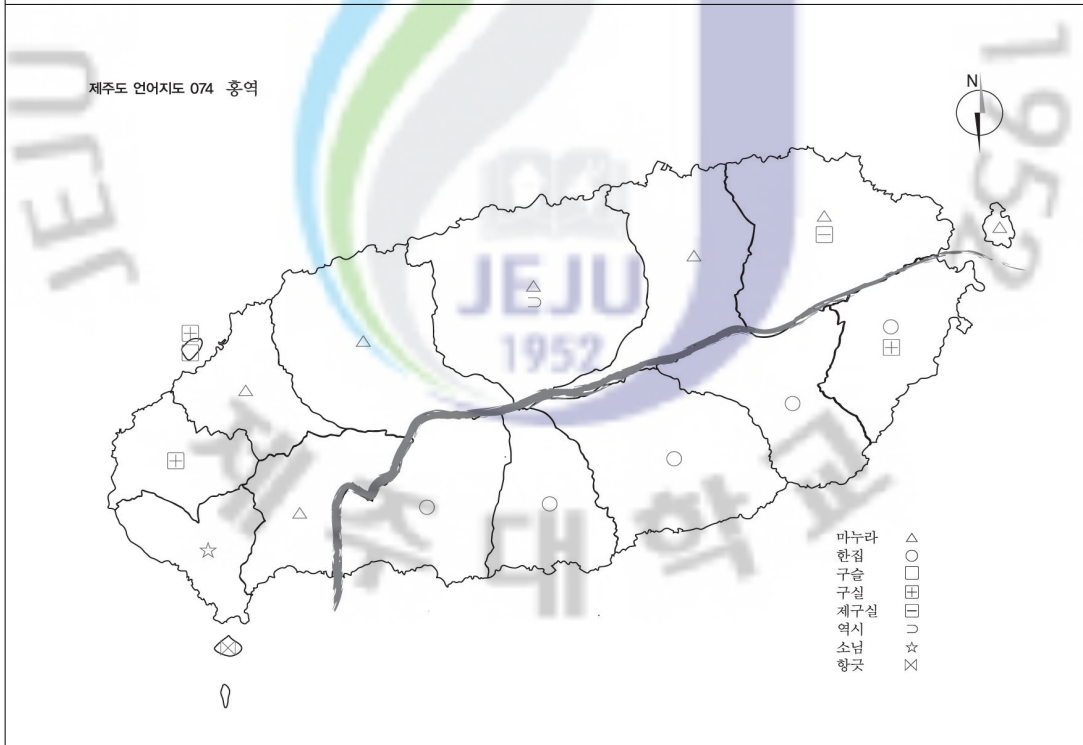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72 코흘리개



제주도 언어지도 073 팜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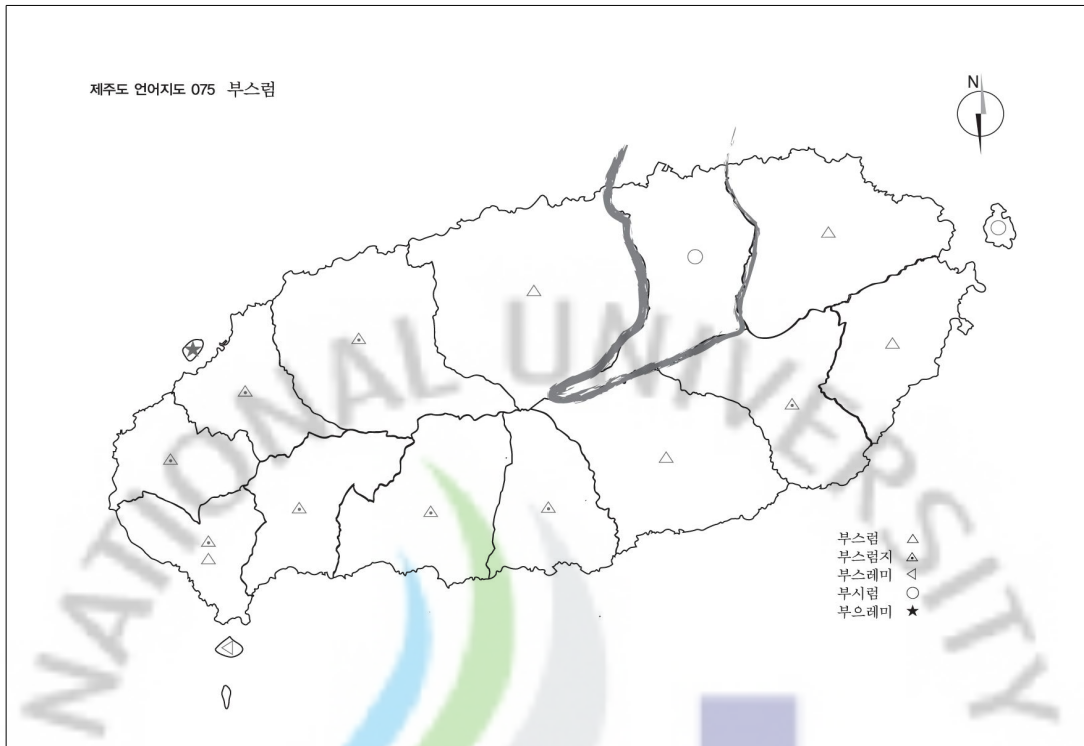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74 흥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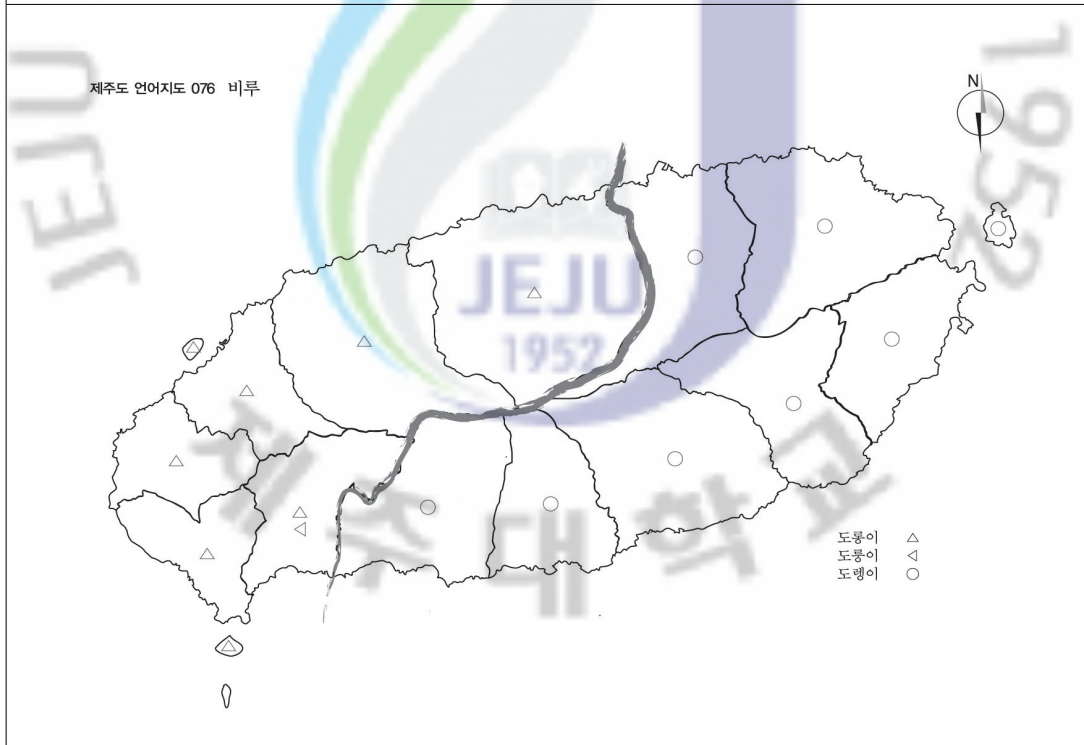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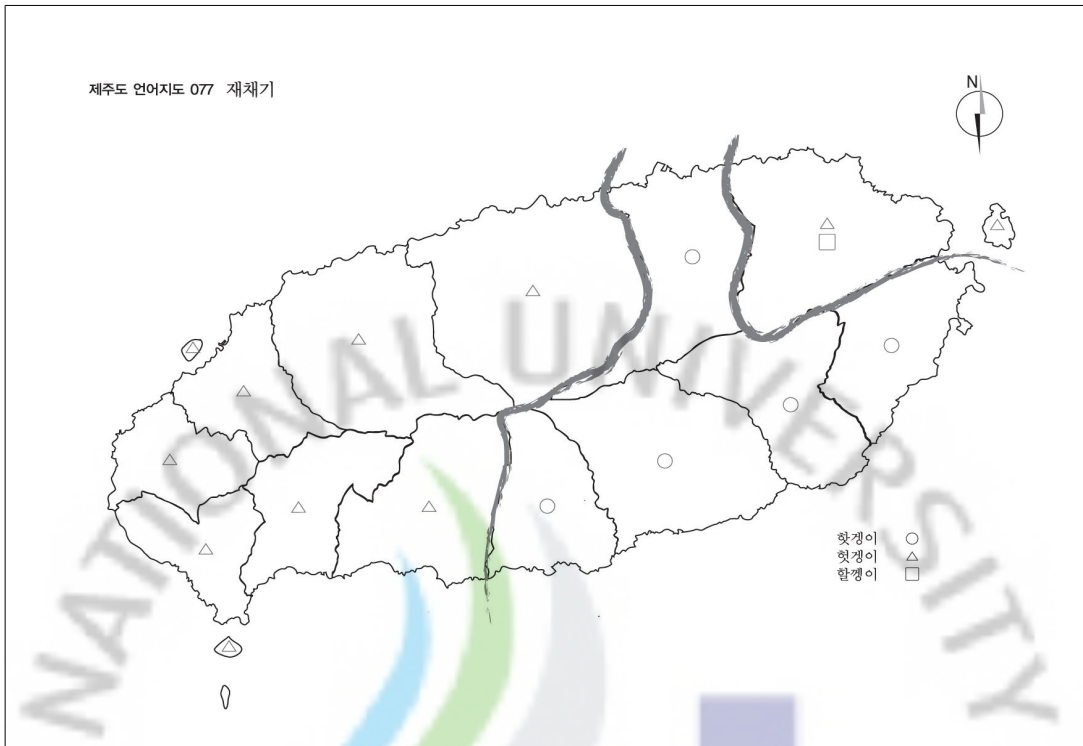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75 부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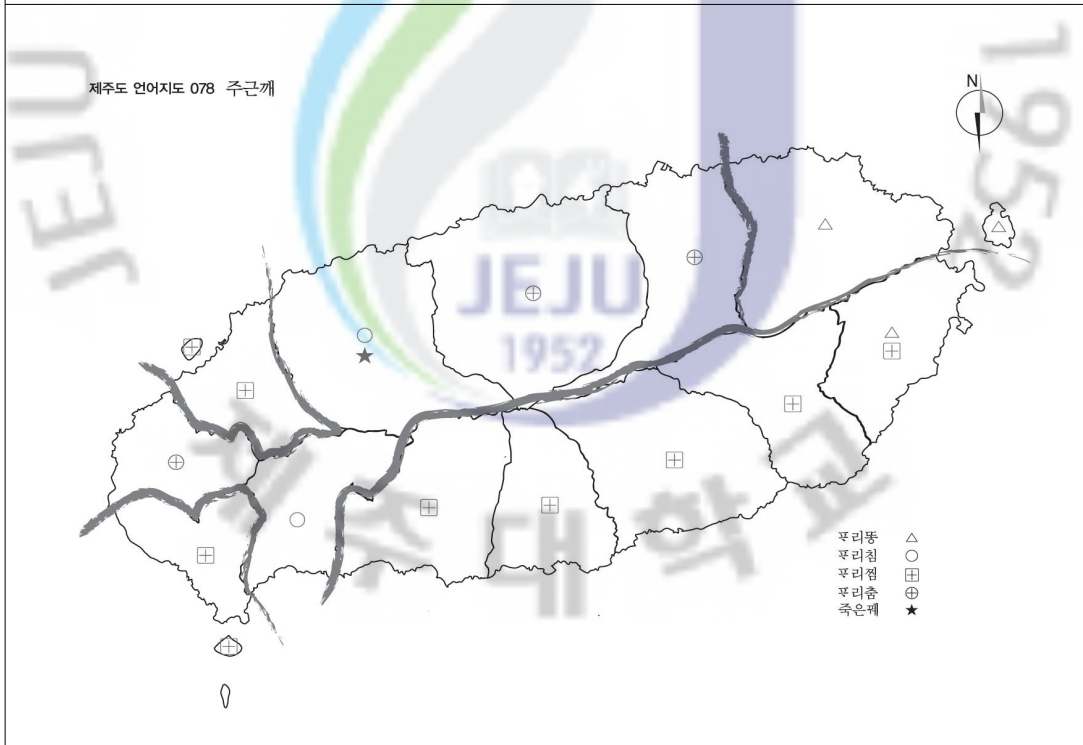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76 비루



제주도 언어지도 077 재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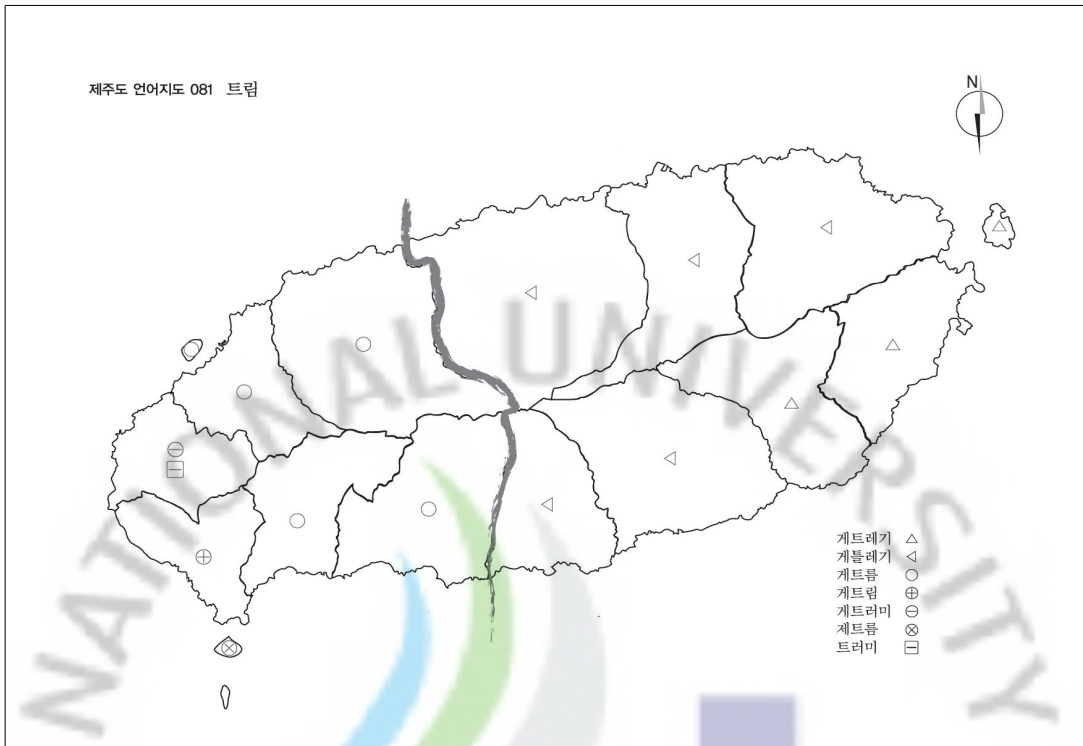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78 주근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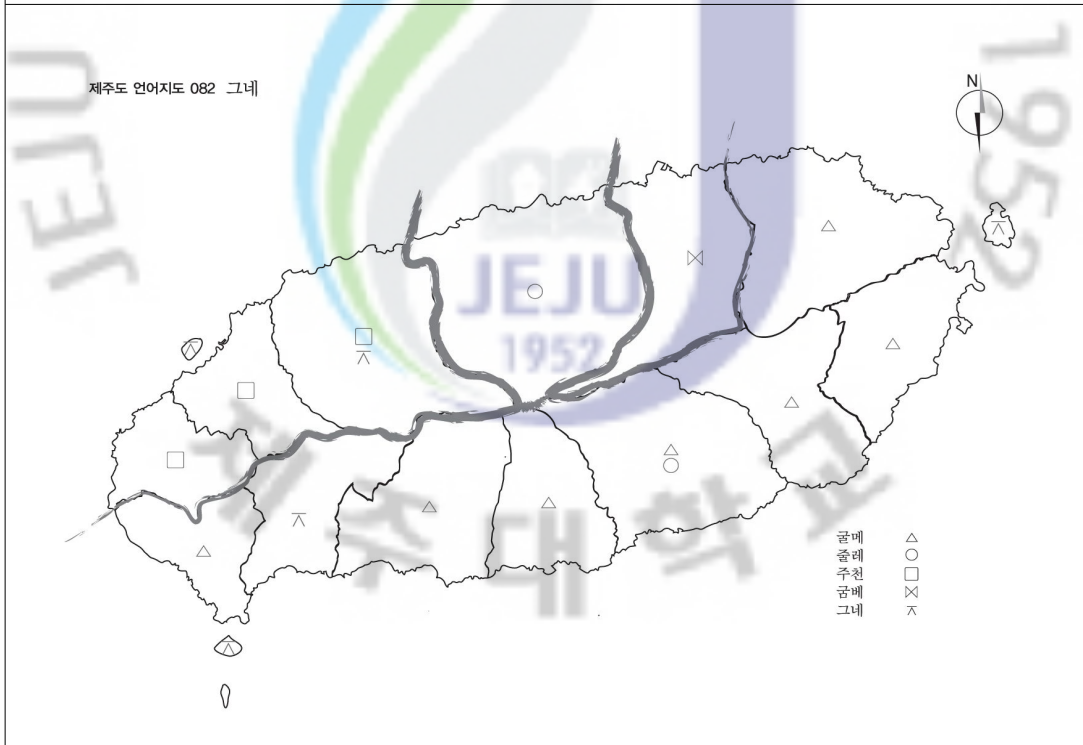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81 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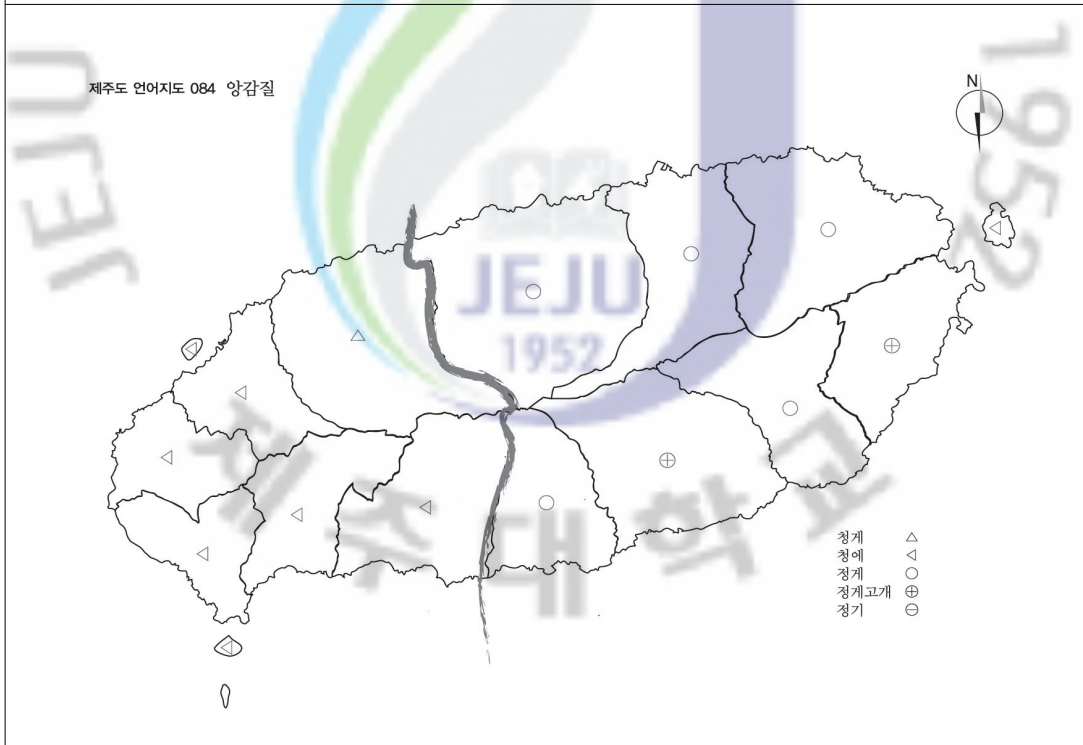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82 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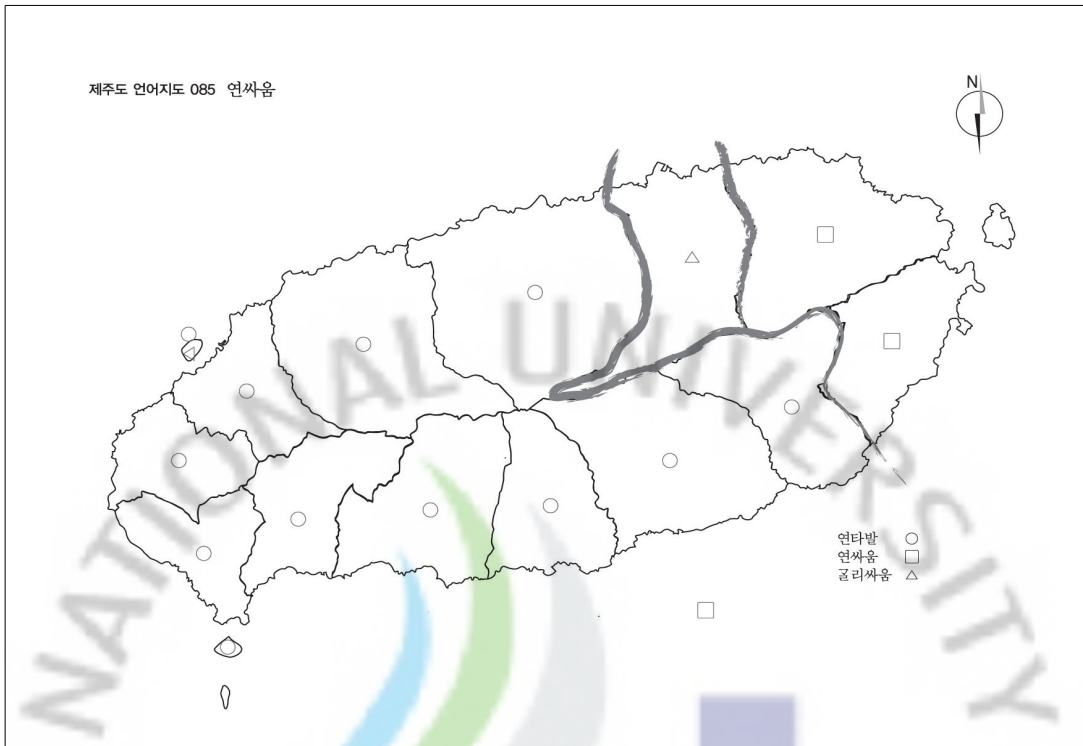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83 숨바꼭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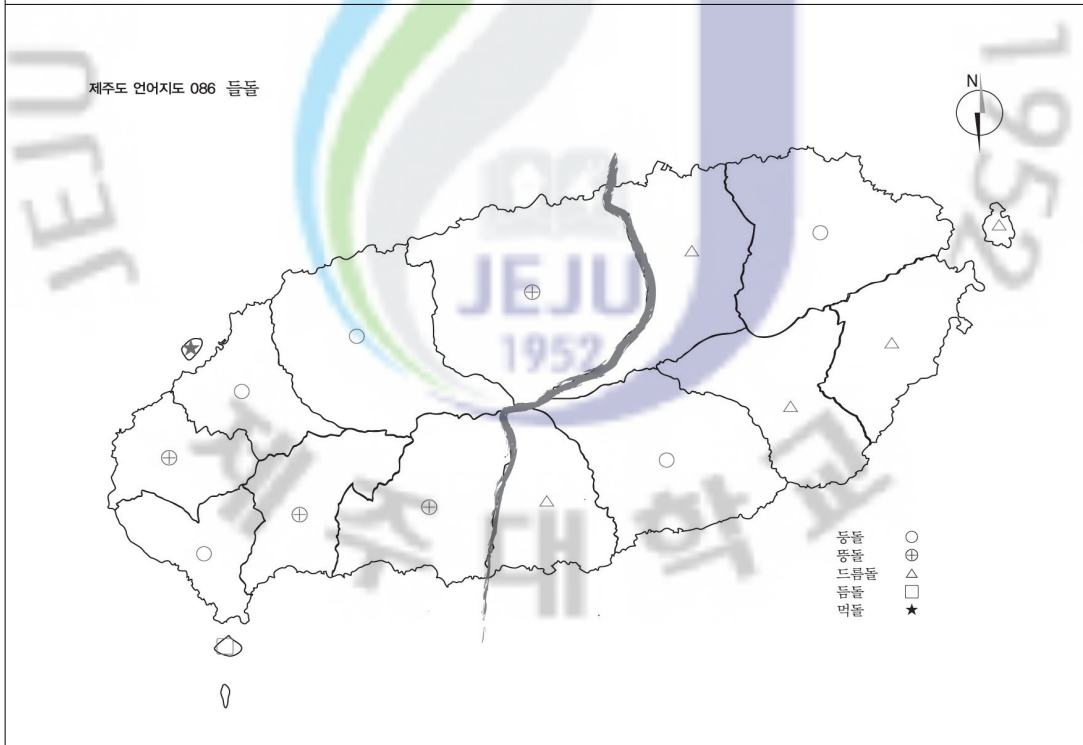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84 양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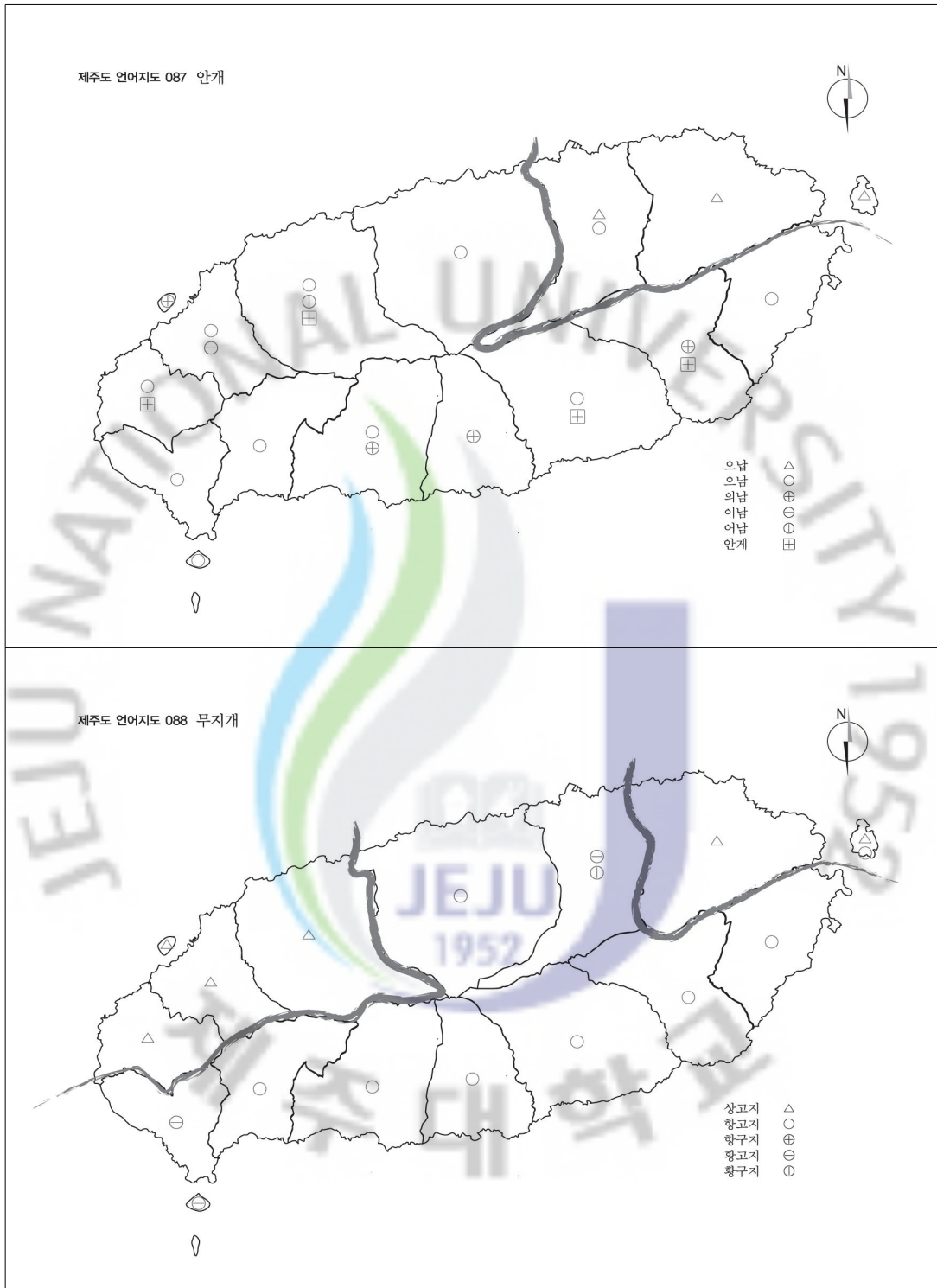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85 연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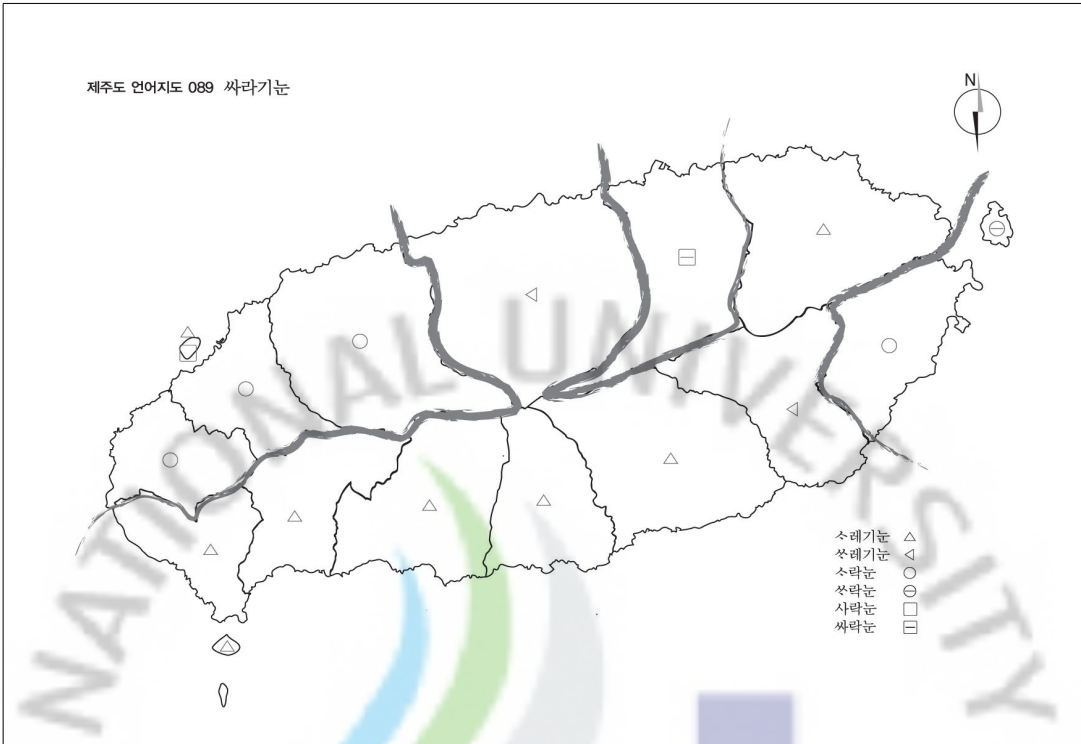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86 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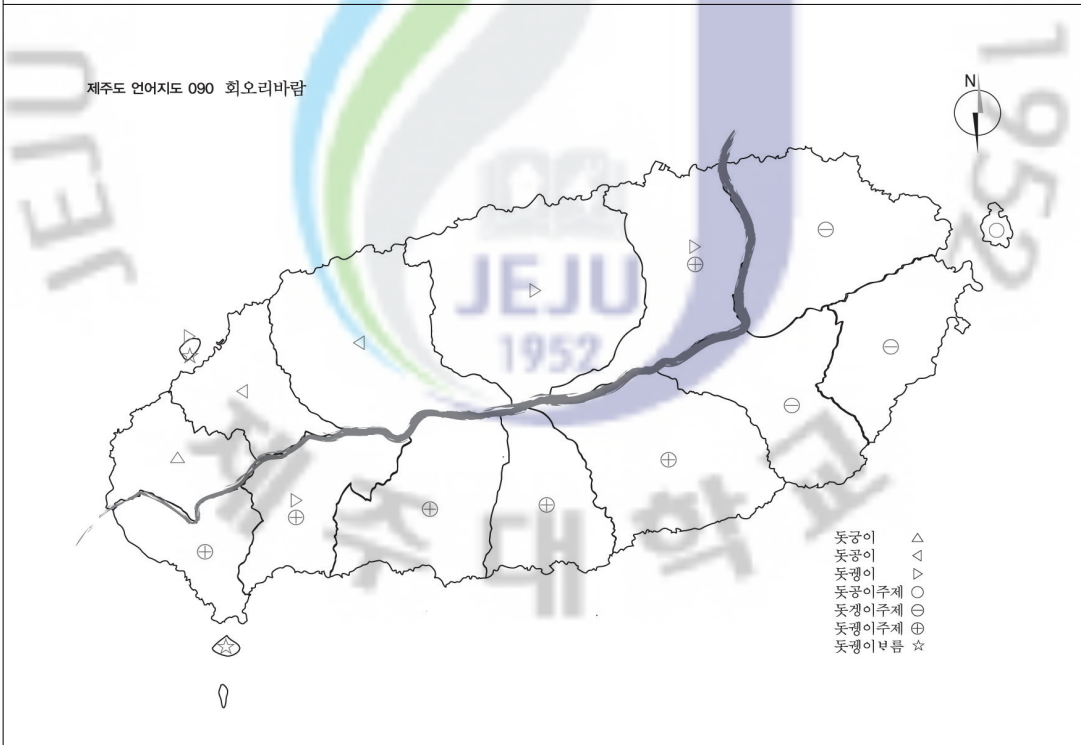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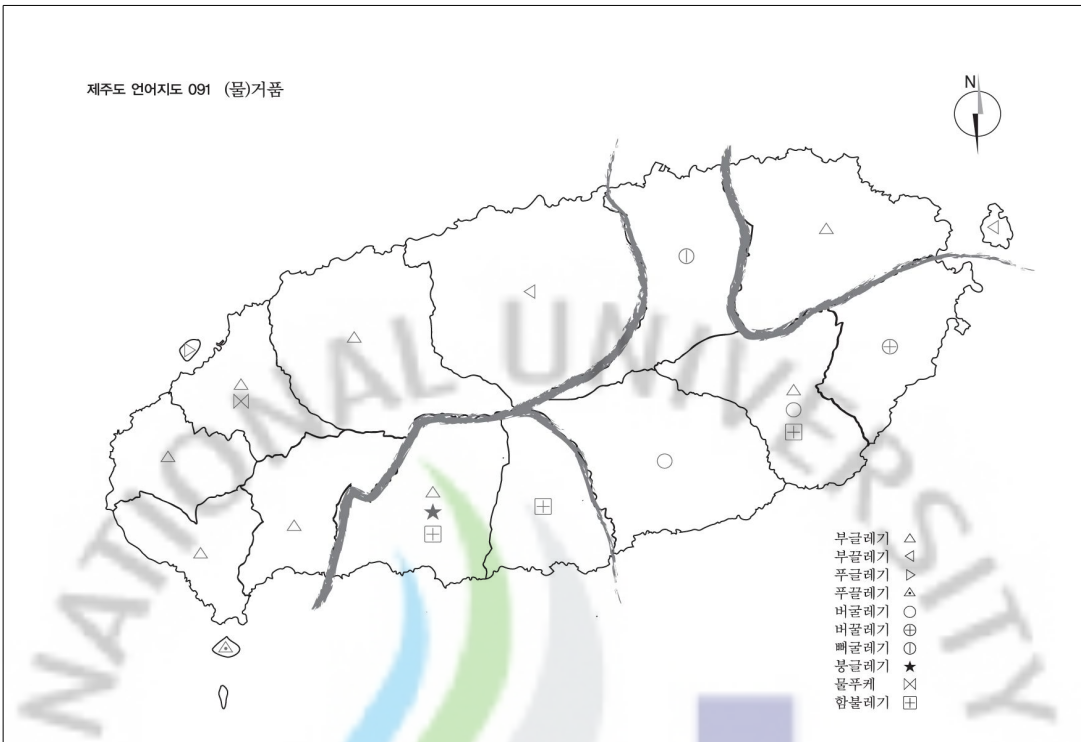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89 싸라기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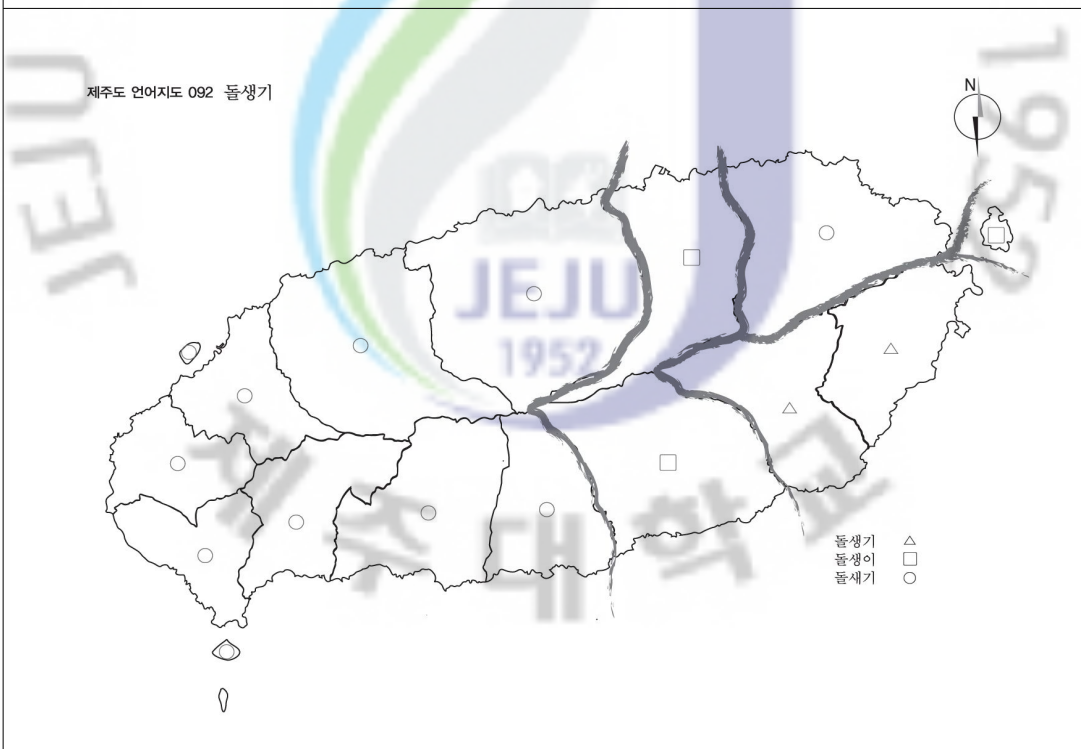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90 회오리바람



제주도 언어지도 091 (물)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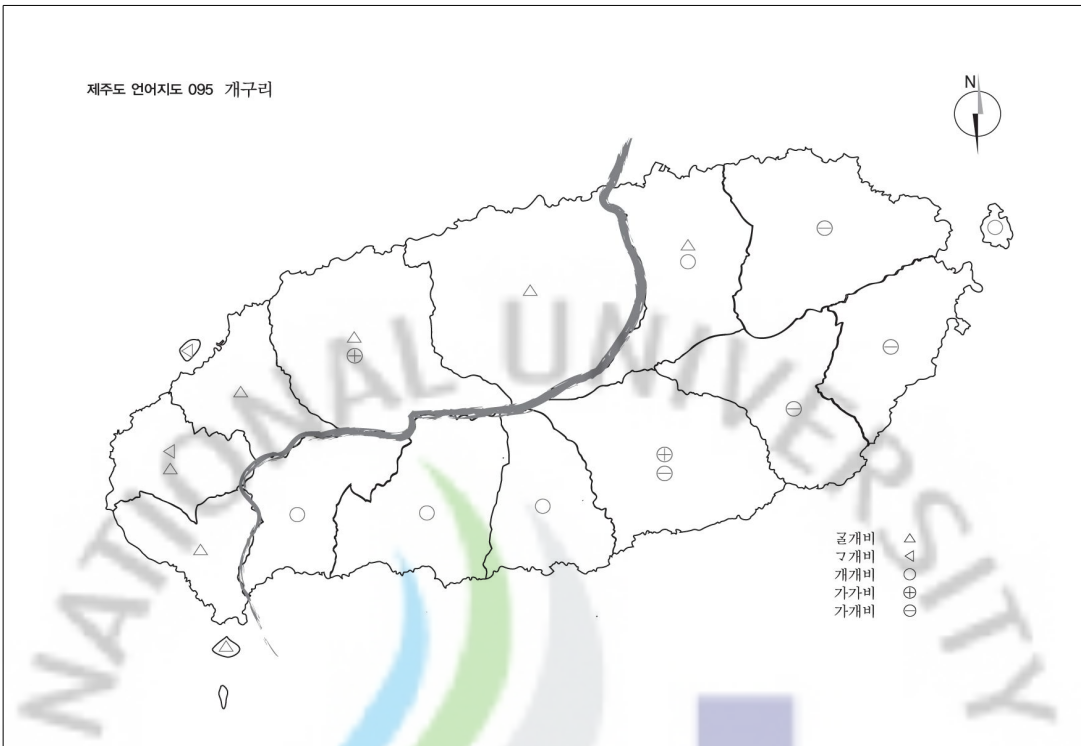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92 돌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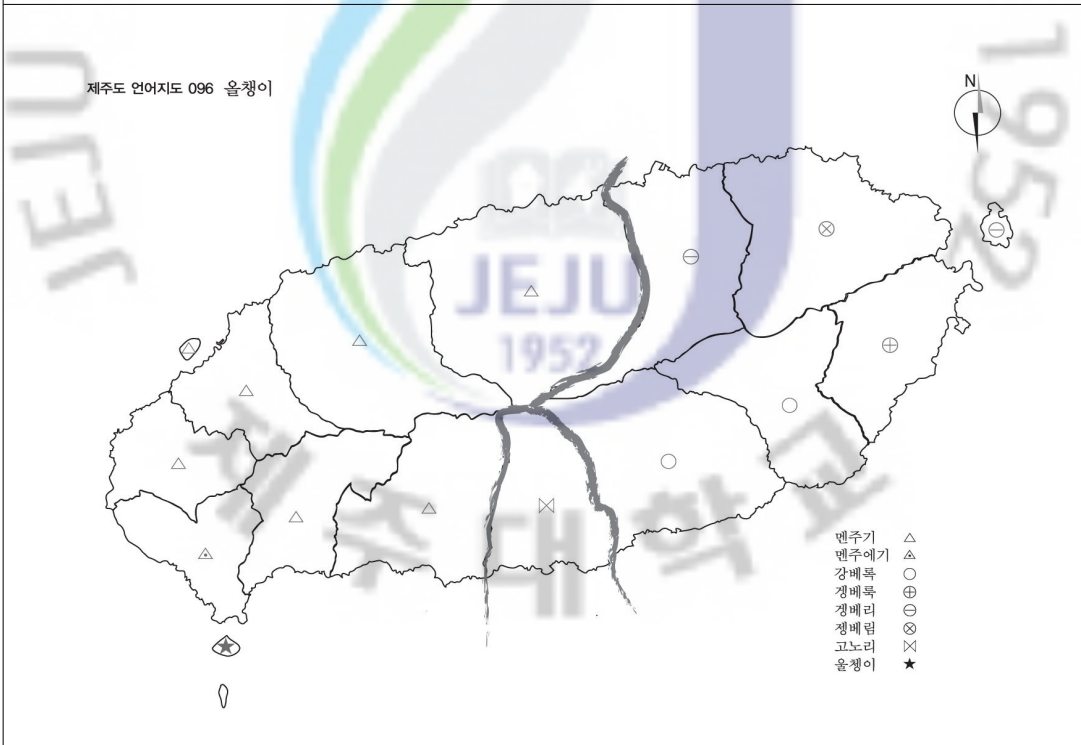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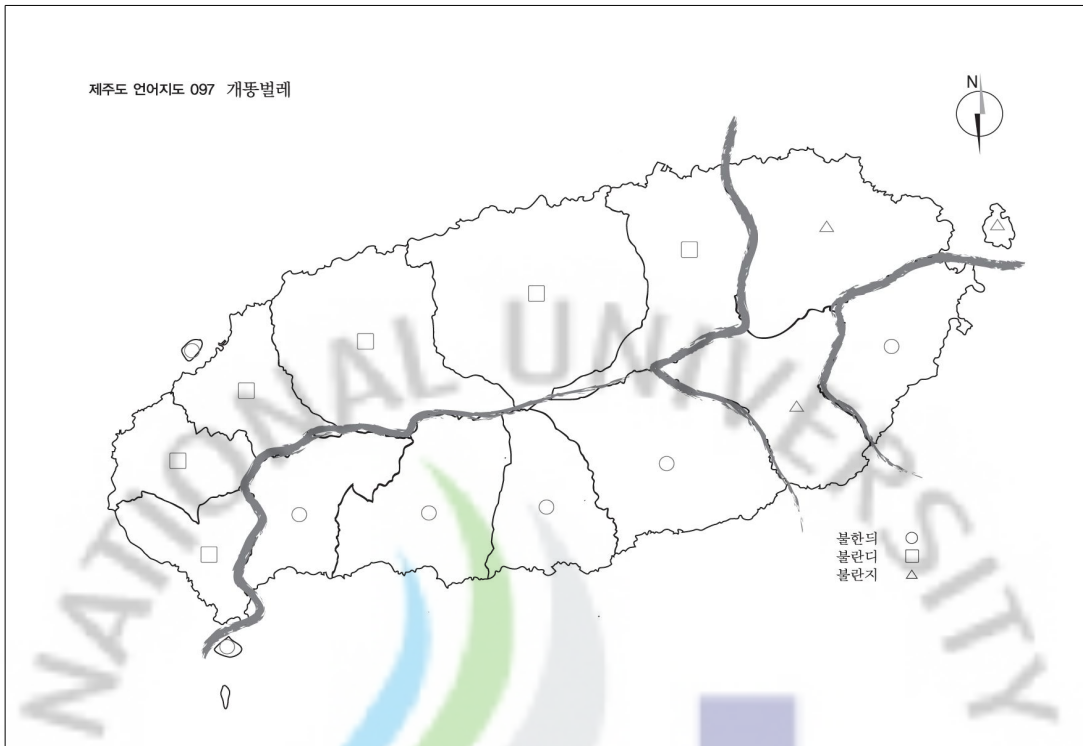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95 개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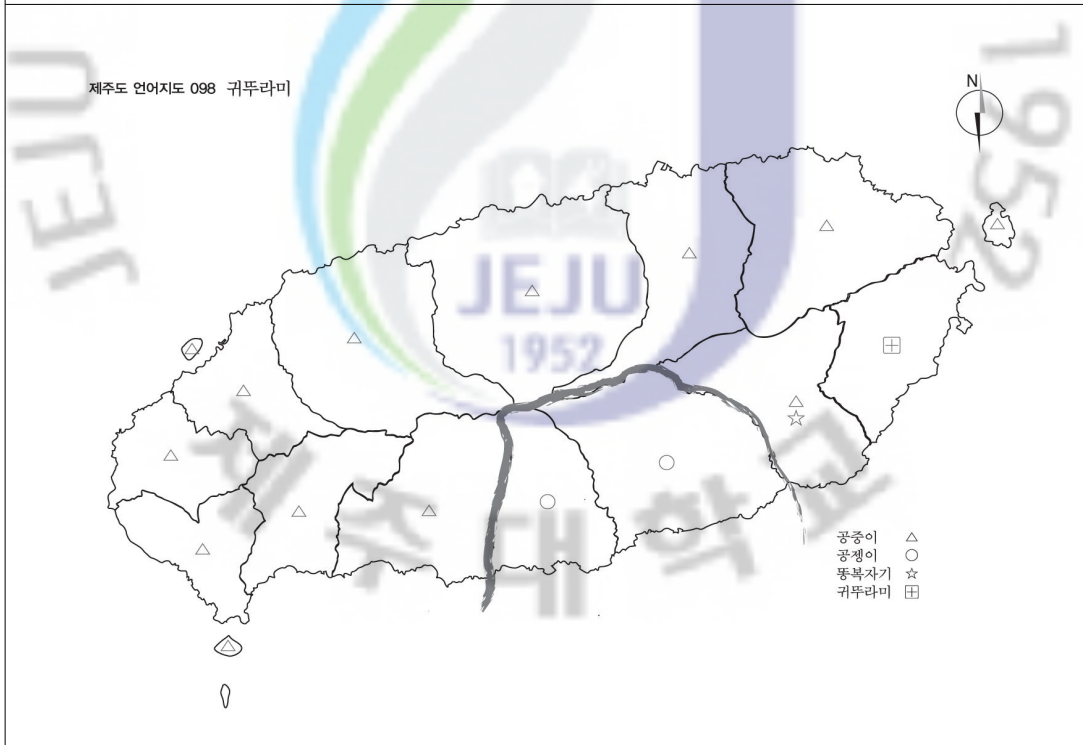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96 올챙이



제주도 언어지도 097 개통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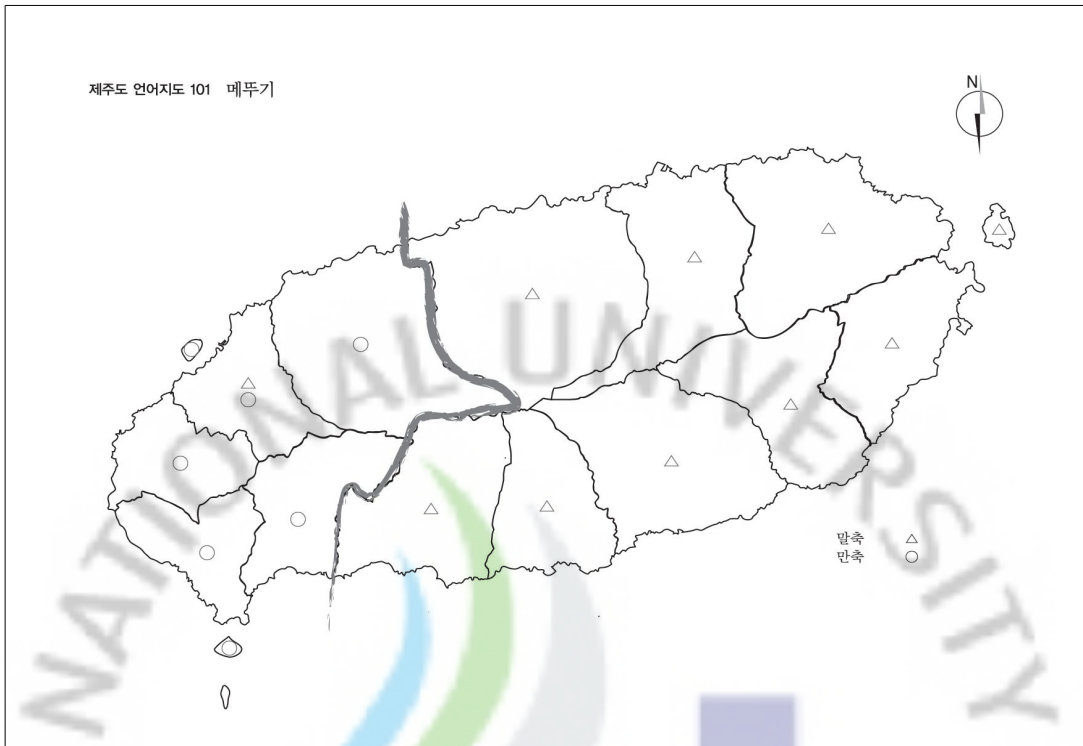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098 귀뚜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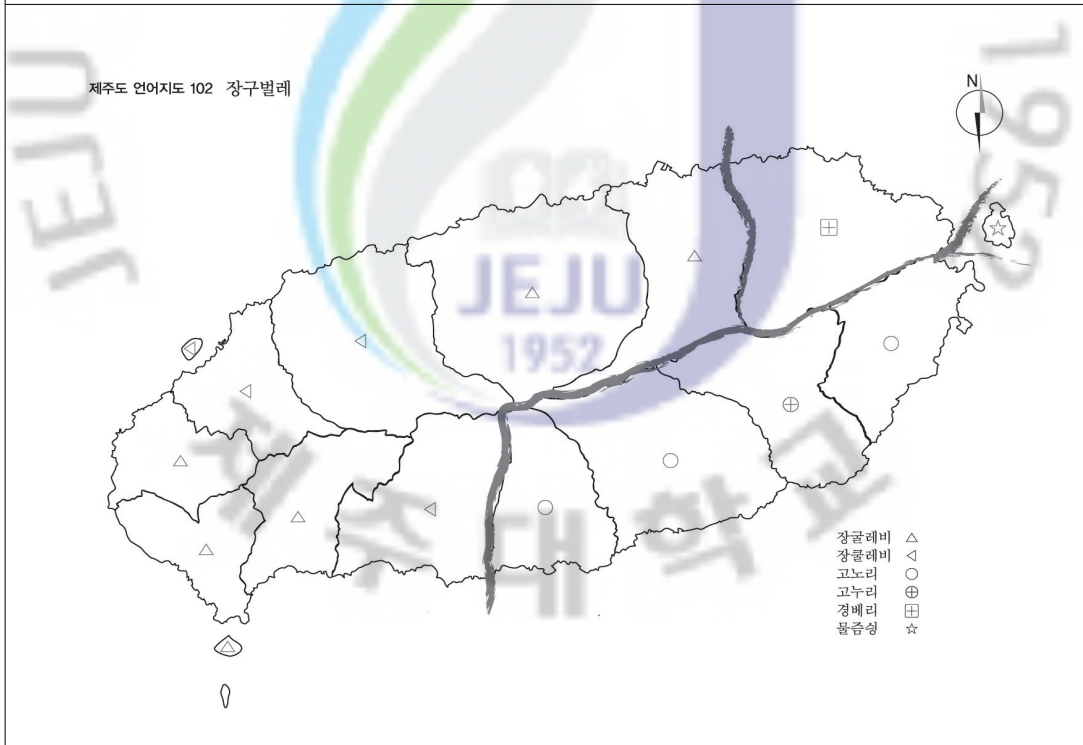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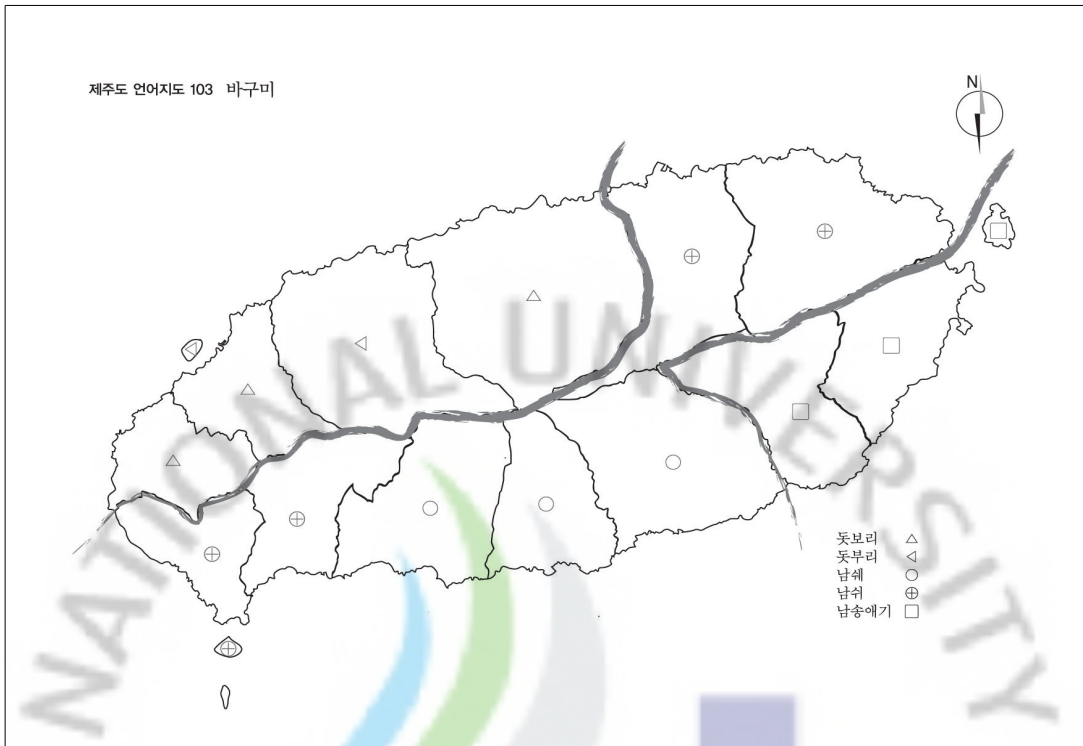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01 메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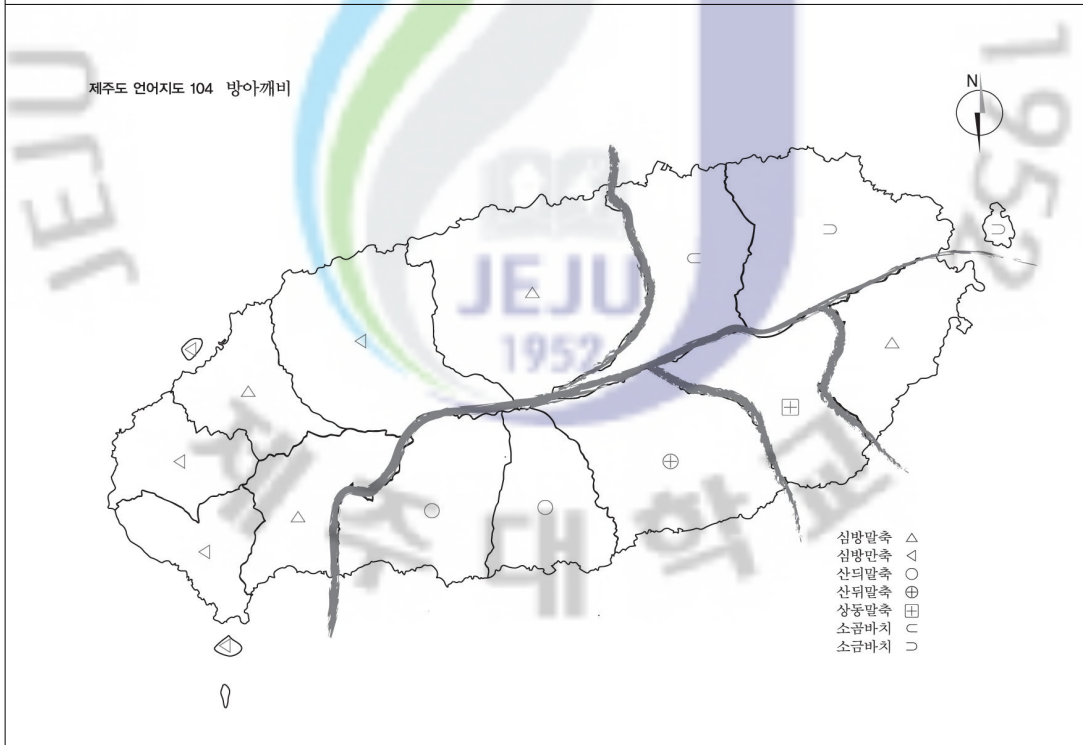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02 장구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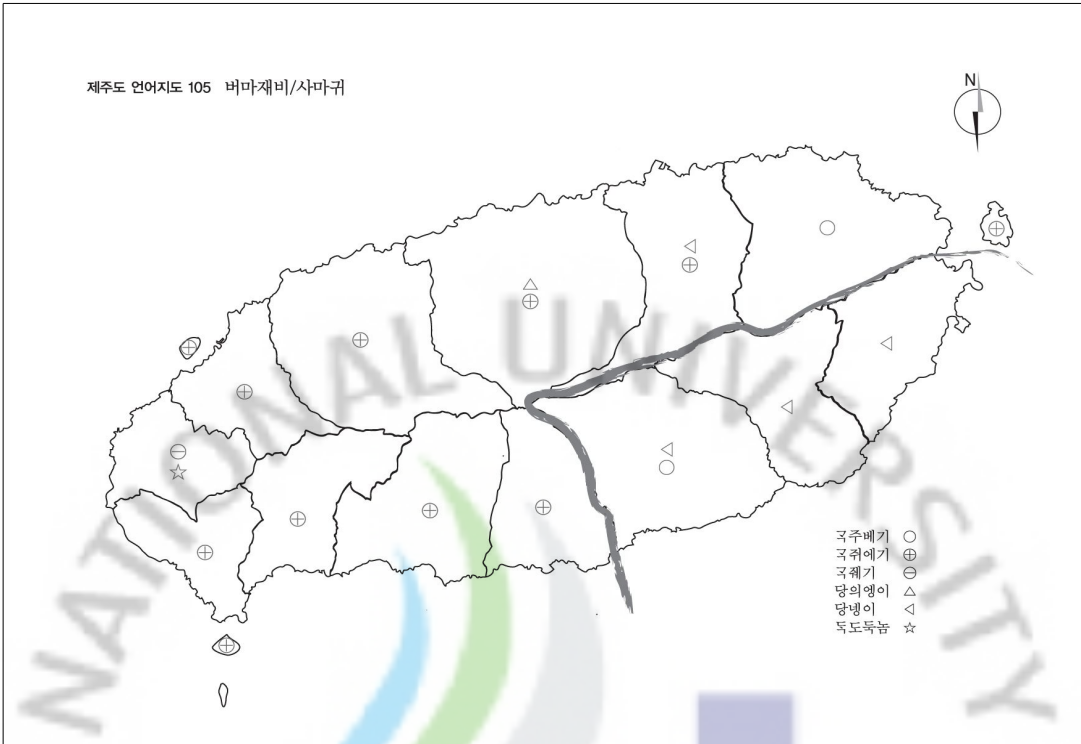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03 바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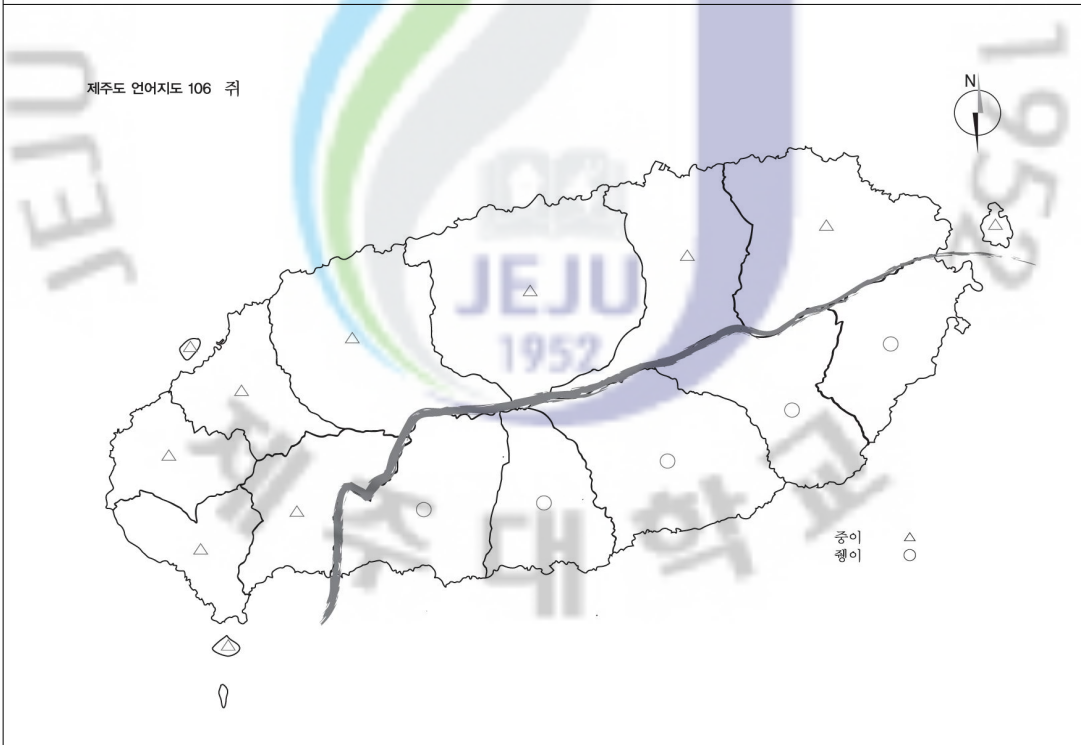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04 방아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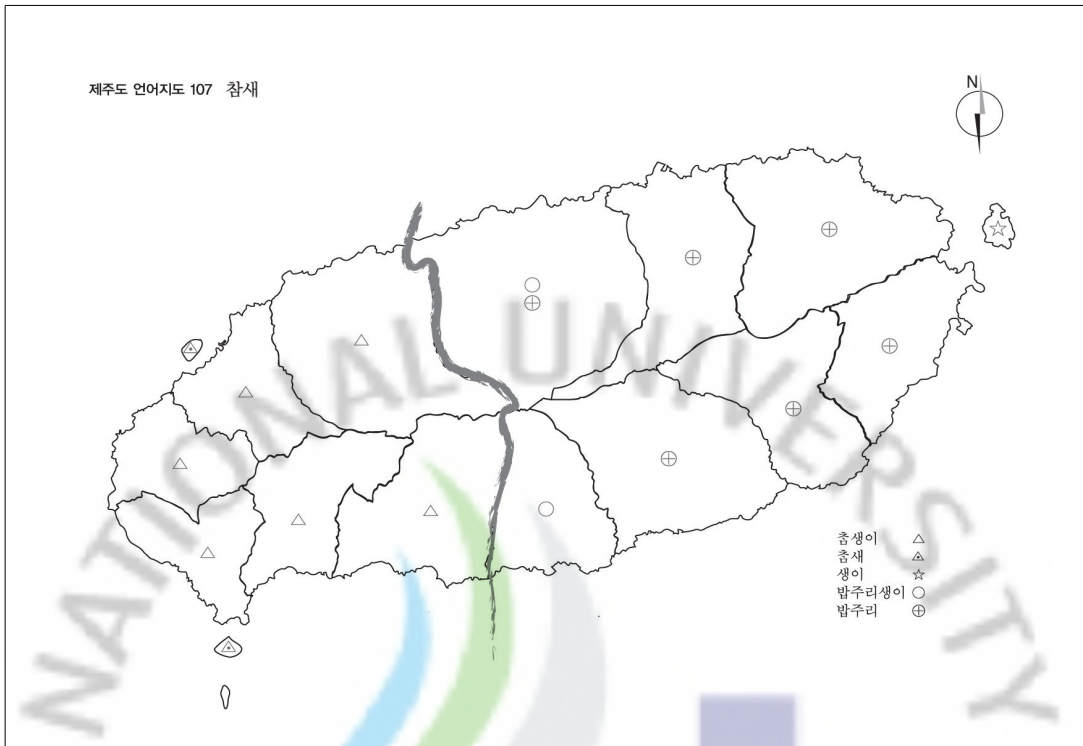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05 버마재비/사마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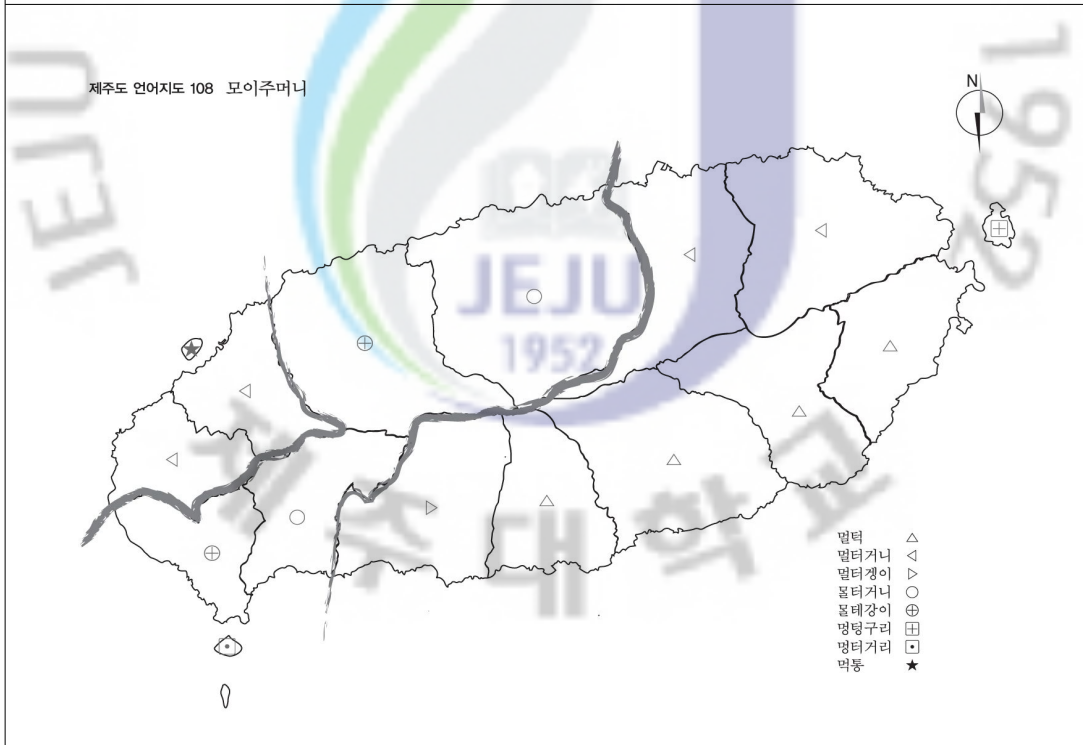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06 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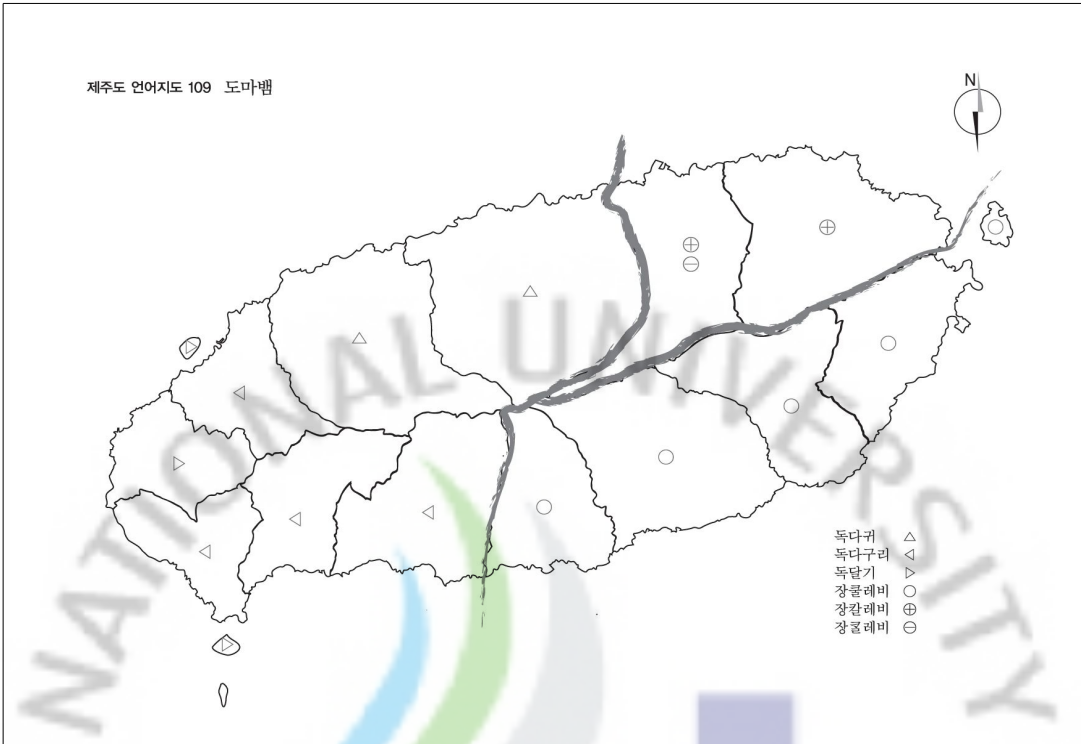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07 참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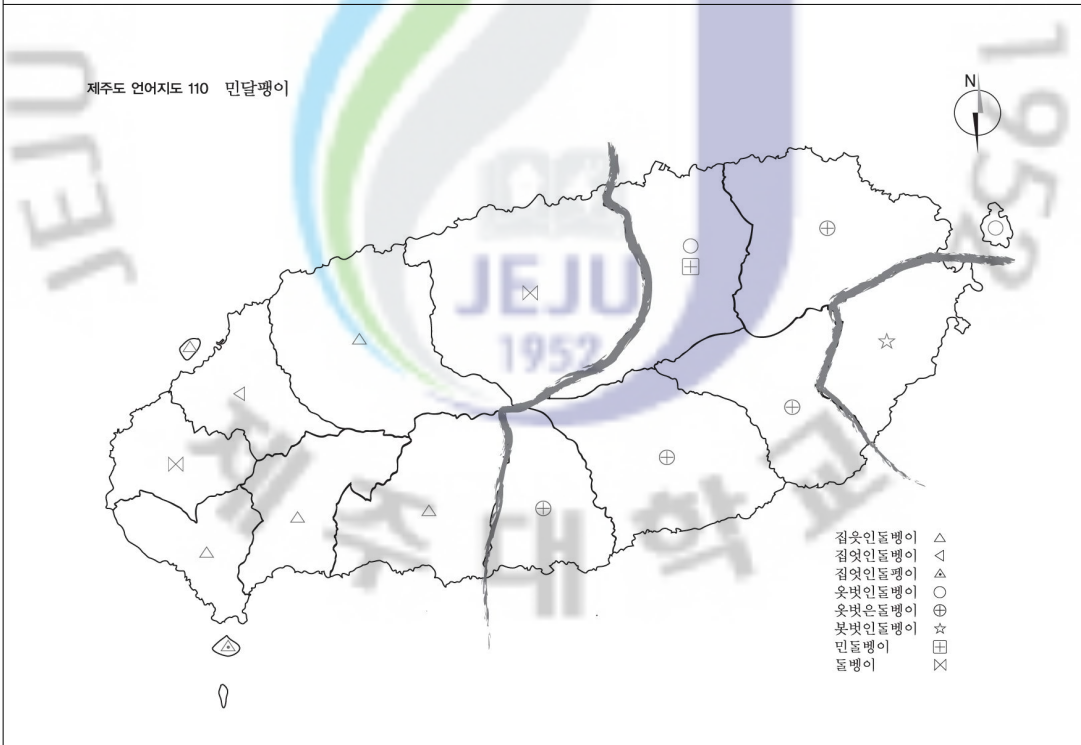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08 모이주머니



제주도 언어지도 109 도마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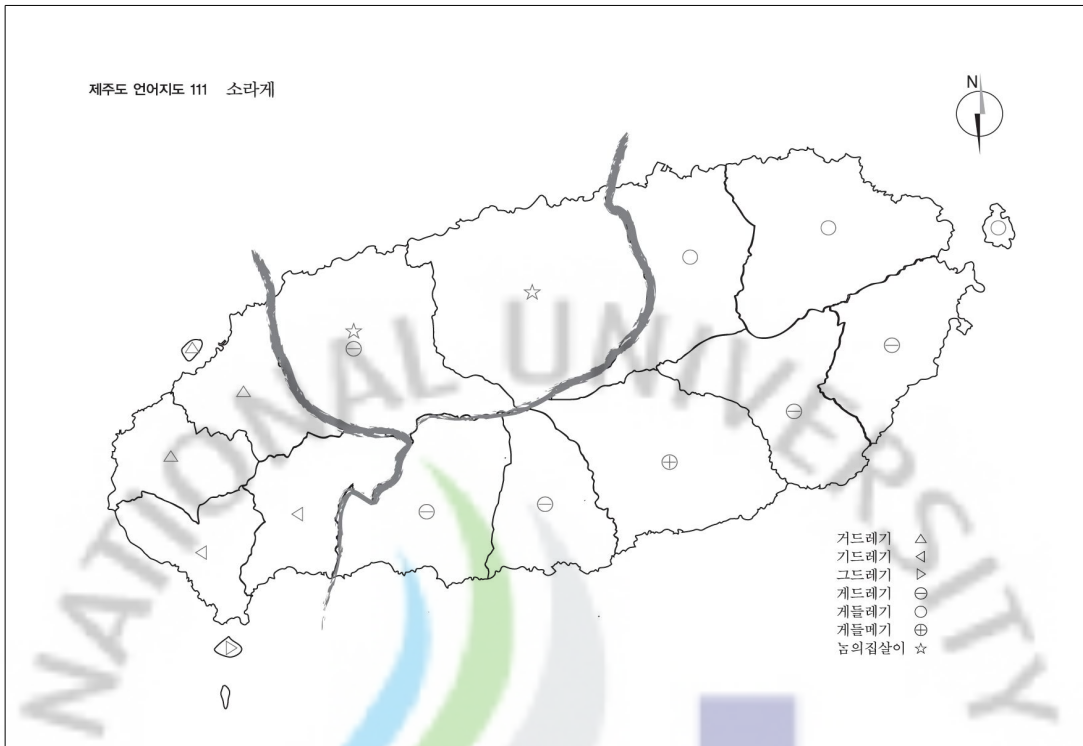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10 민달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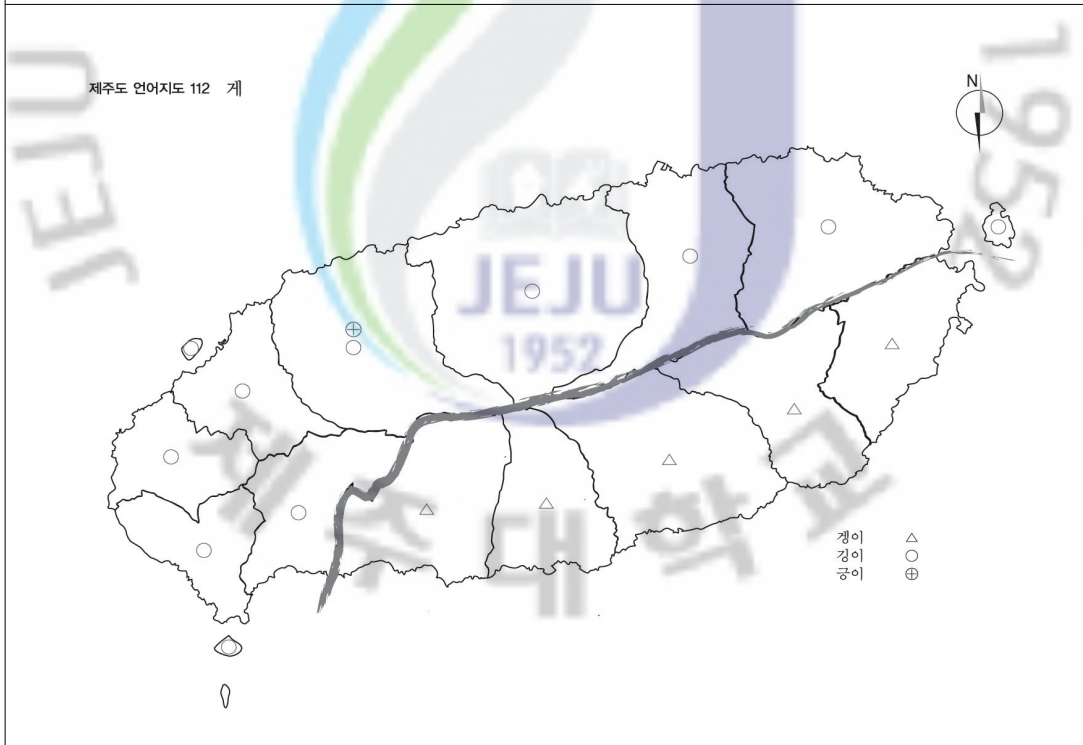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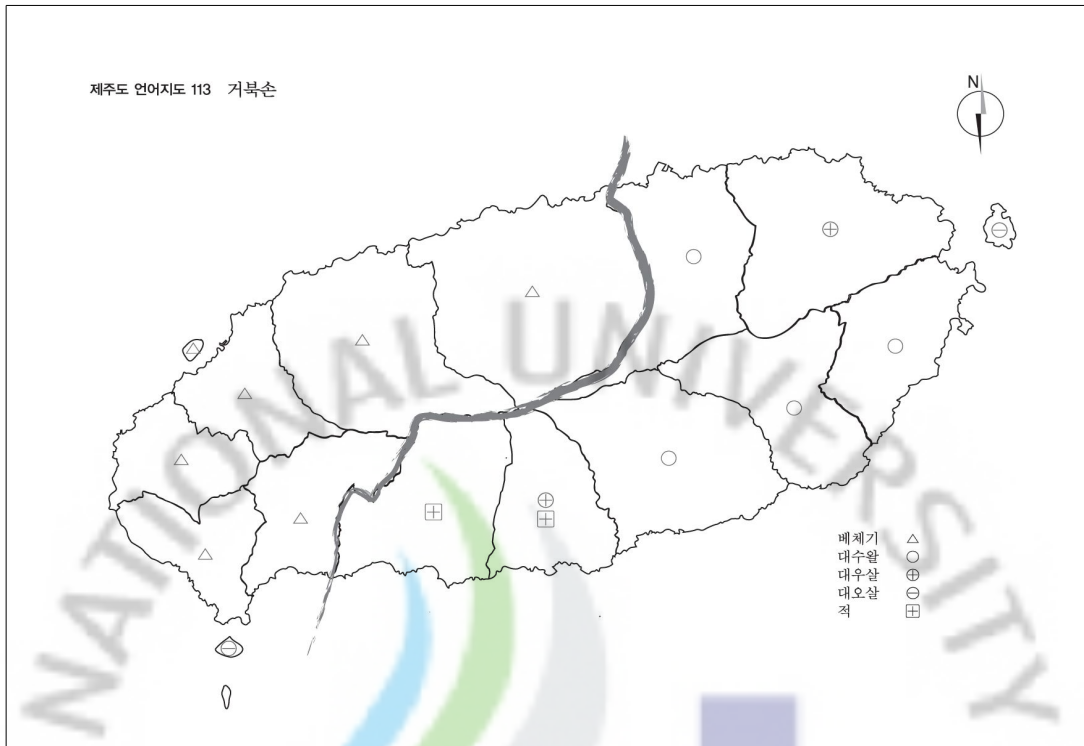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11 소라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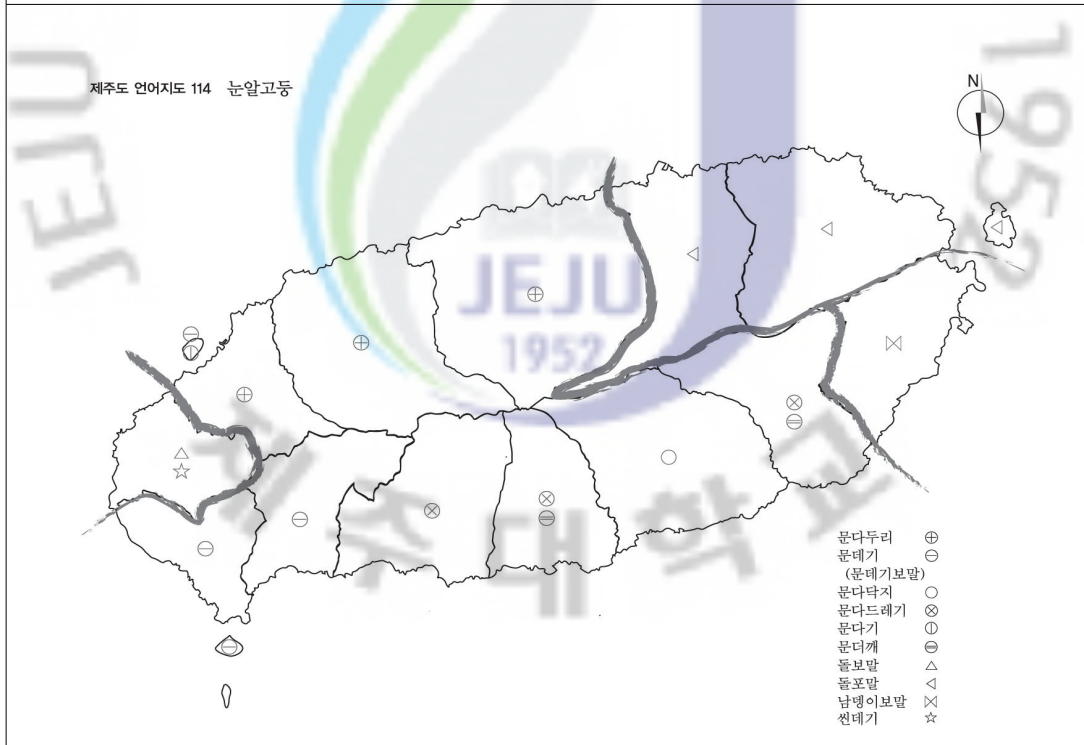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12 계



제주도 언어지도 113 거북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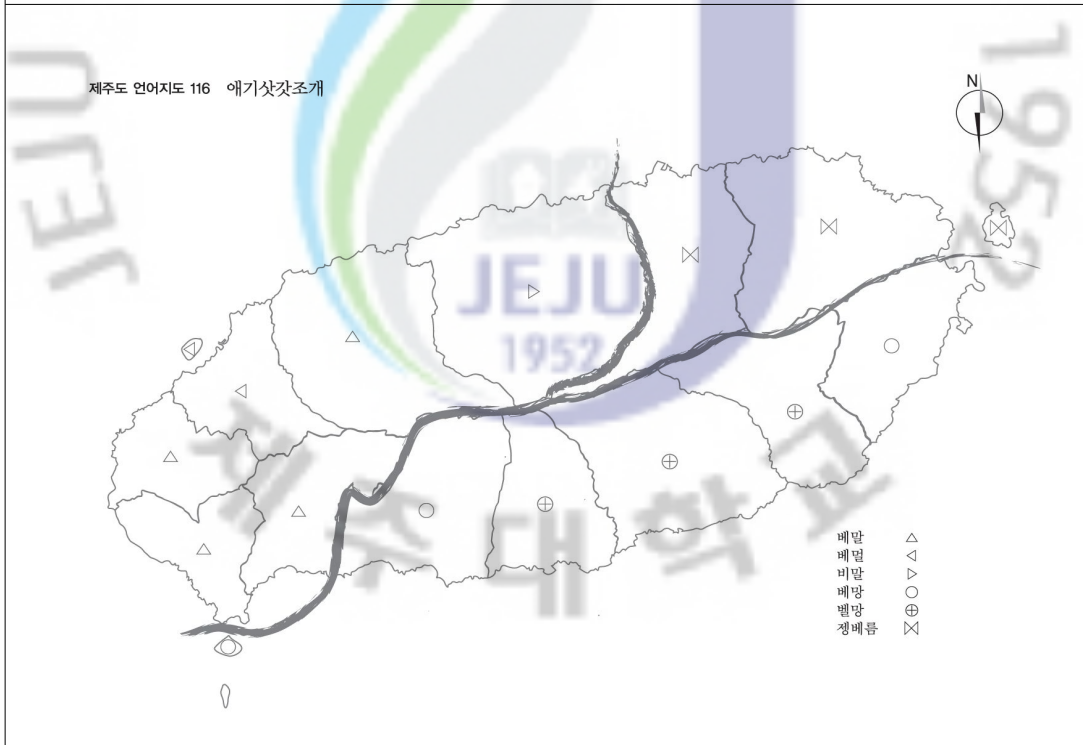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14 눈알고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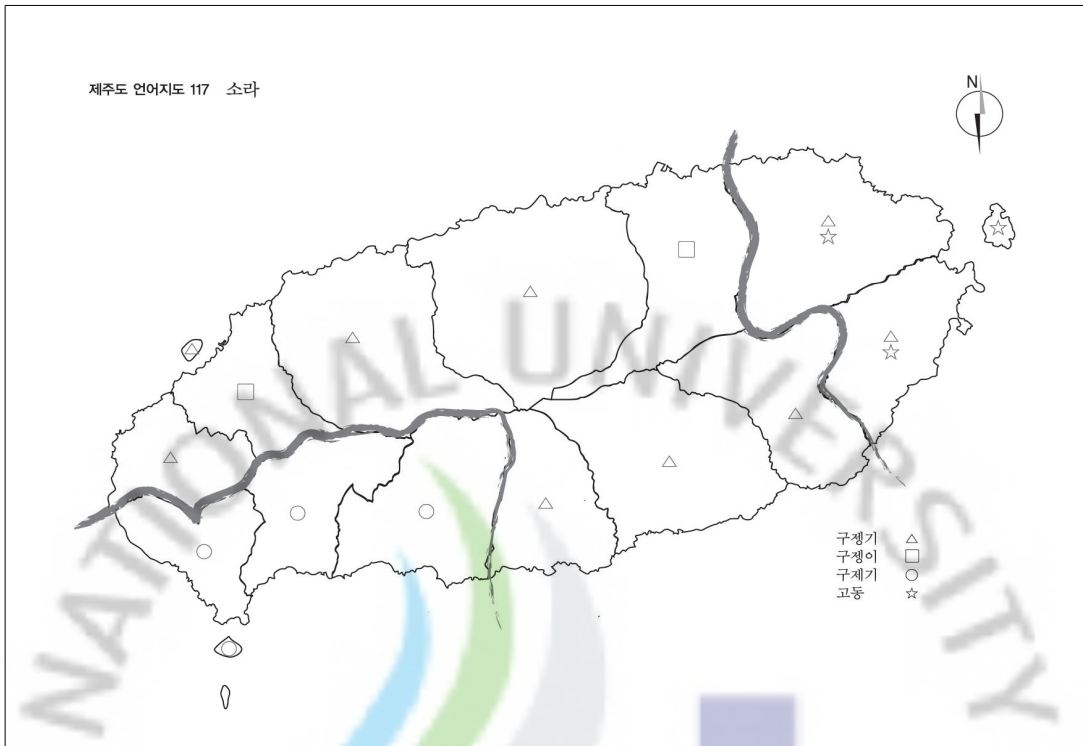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15 남방올타리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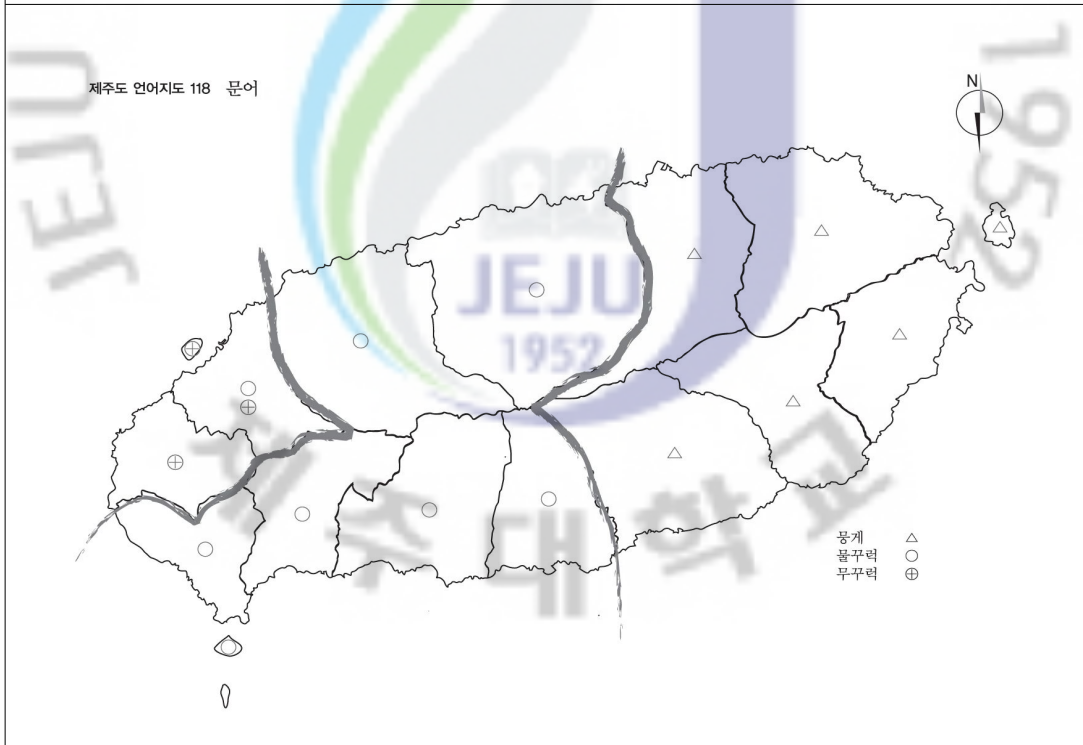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16 애기삿갓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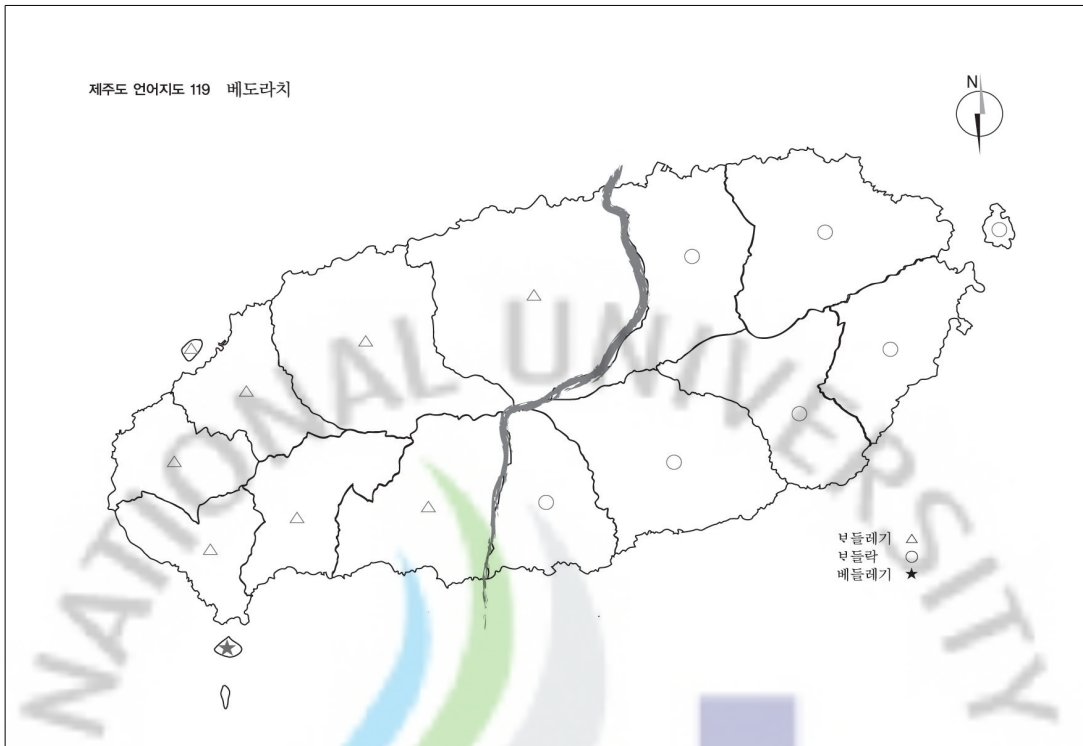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17 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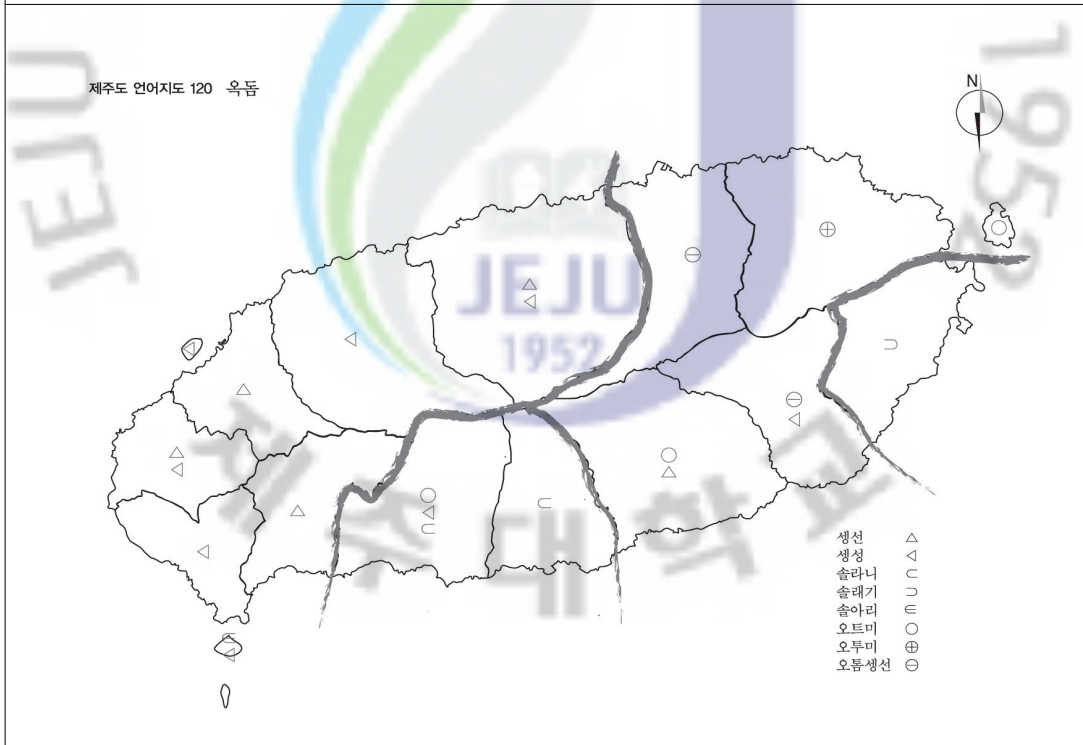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18 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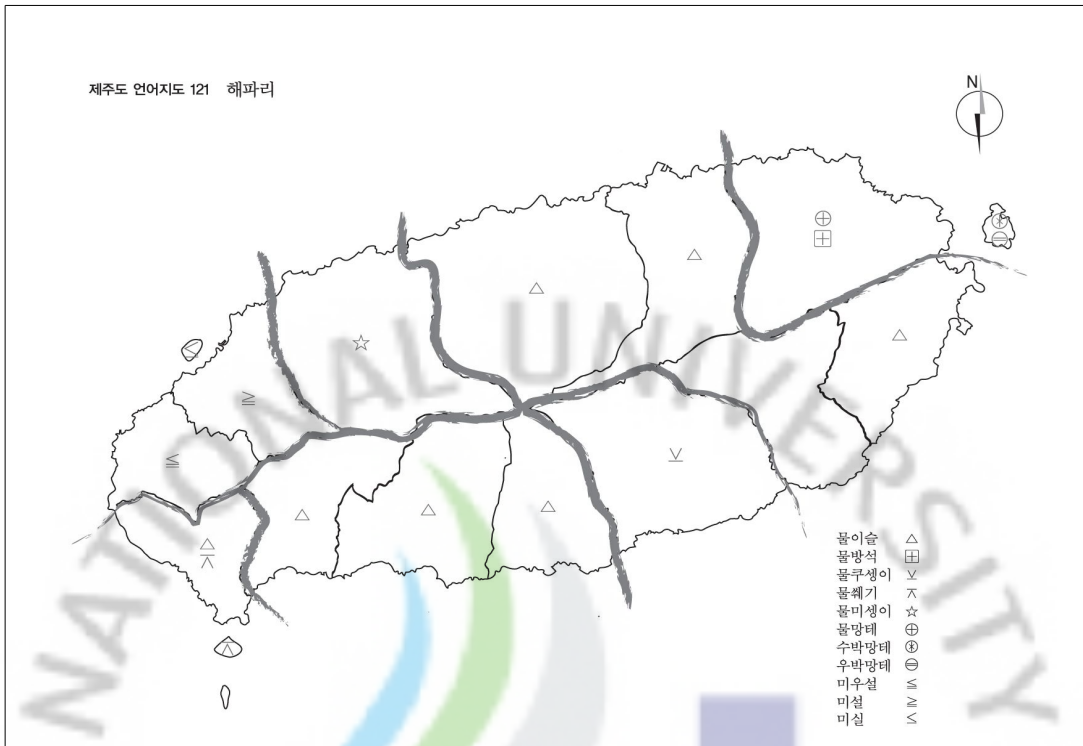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19 베도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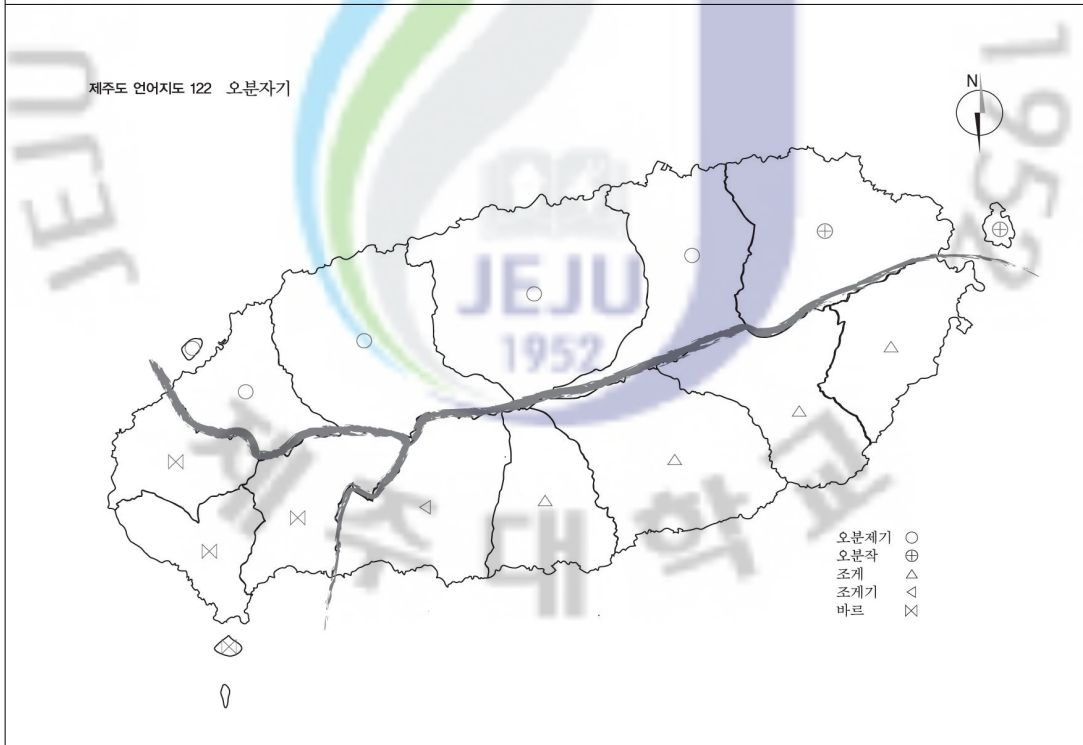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20 옥둠



제주도 언어지도 121 해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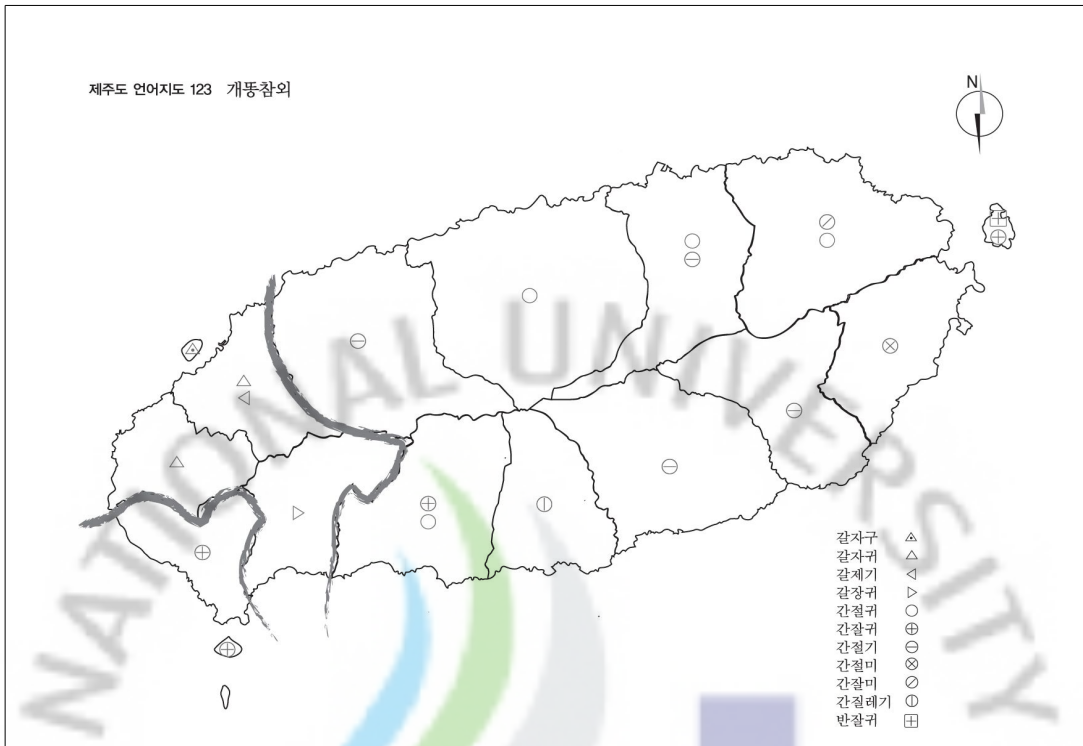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22 오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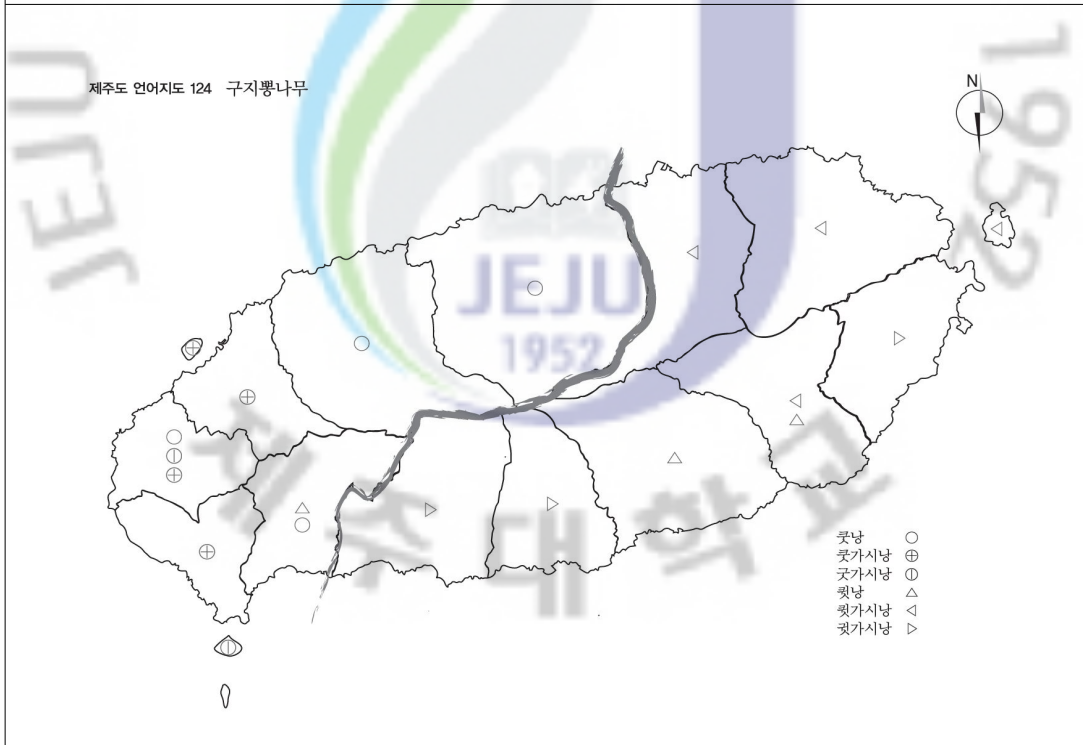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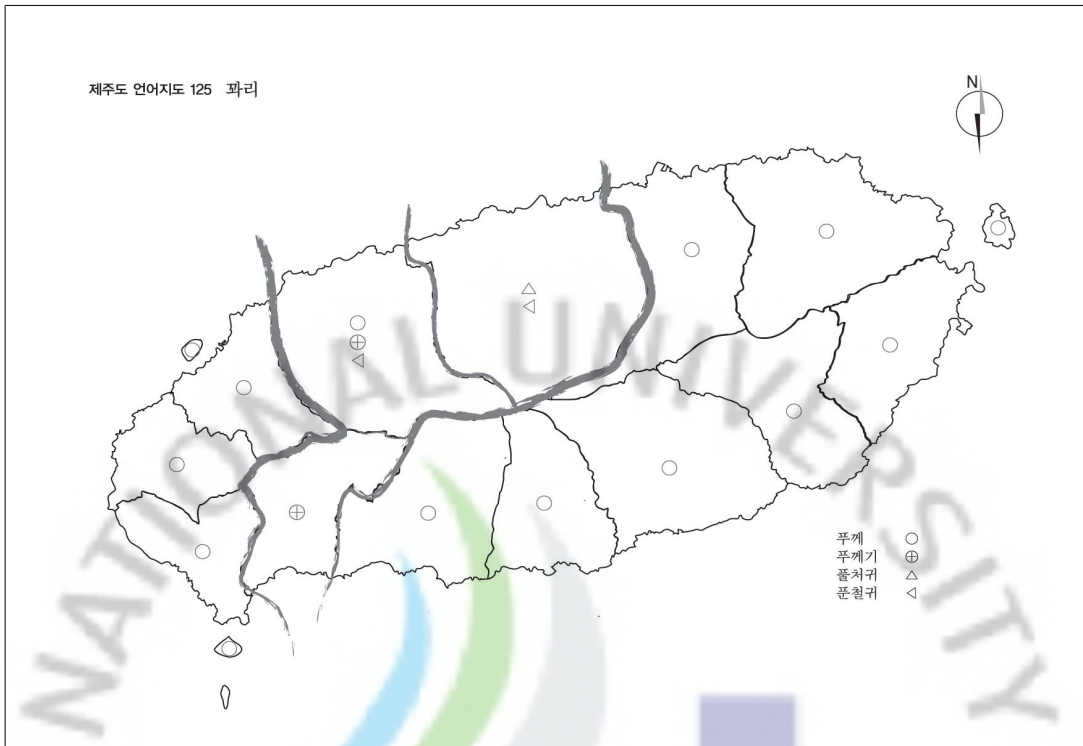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23 개통참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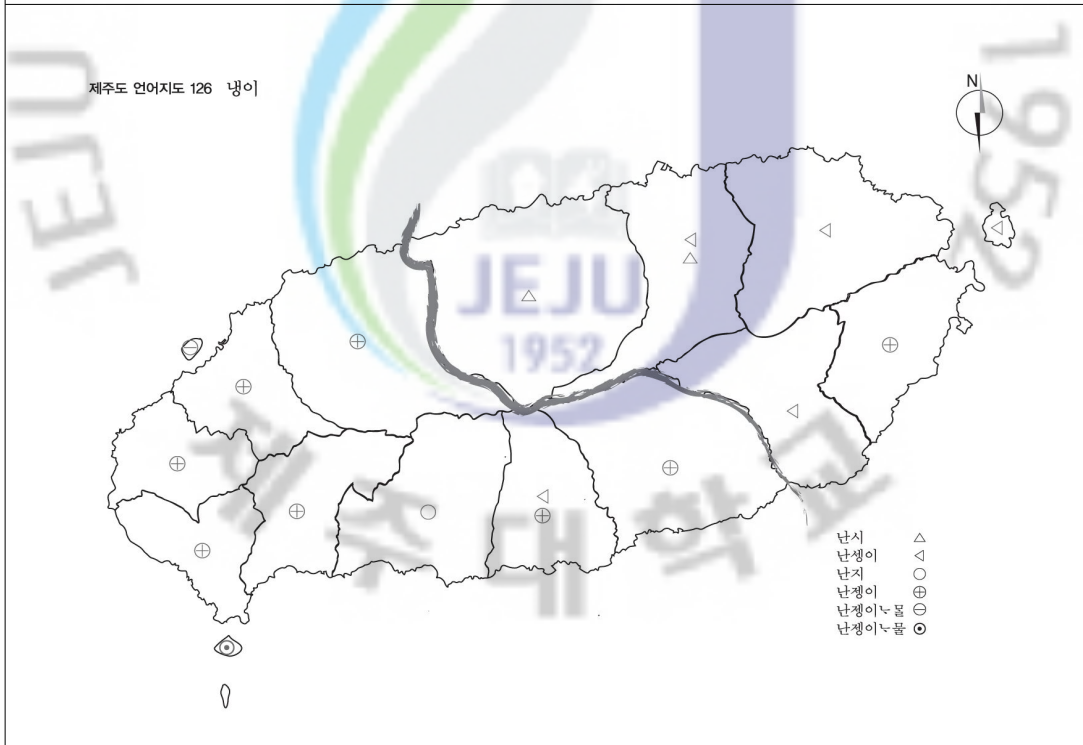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24 구지뽕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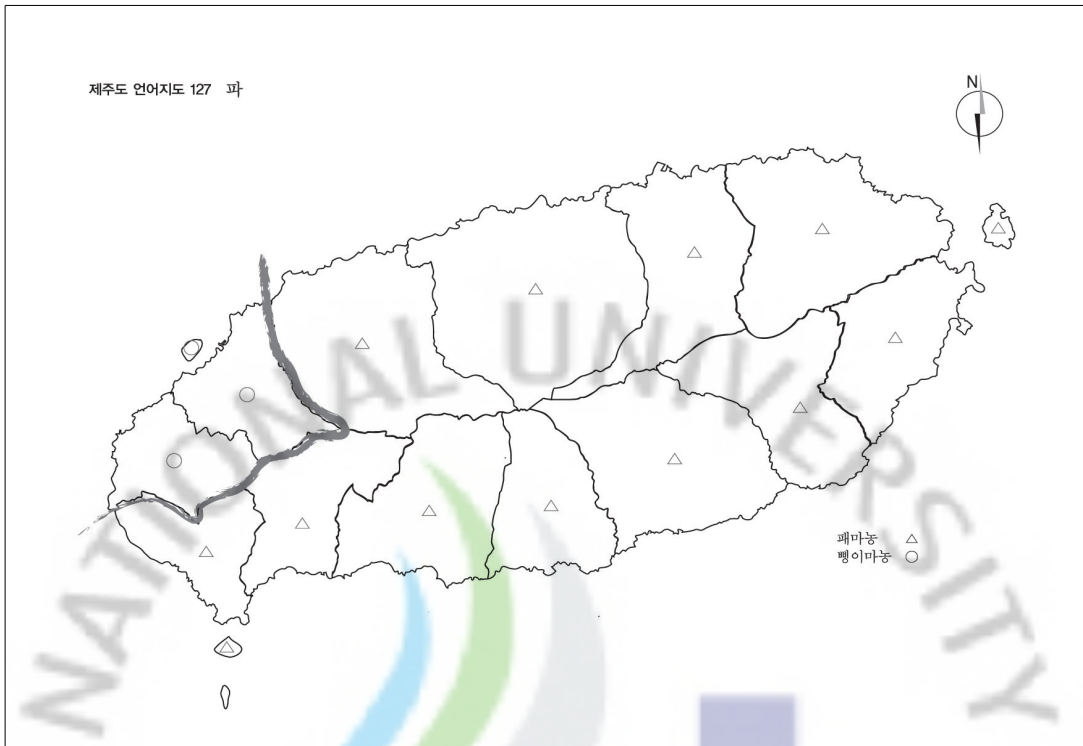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25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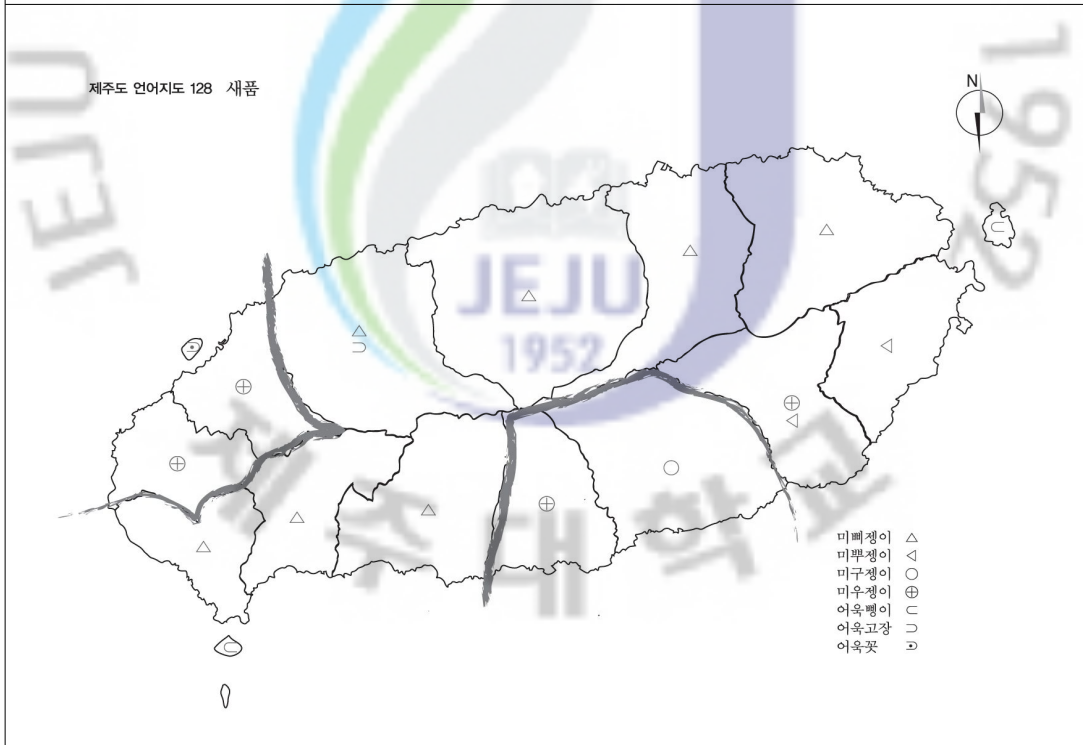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26 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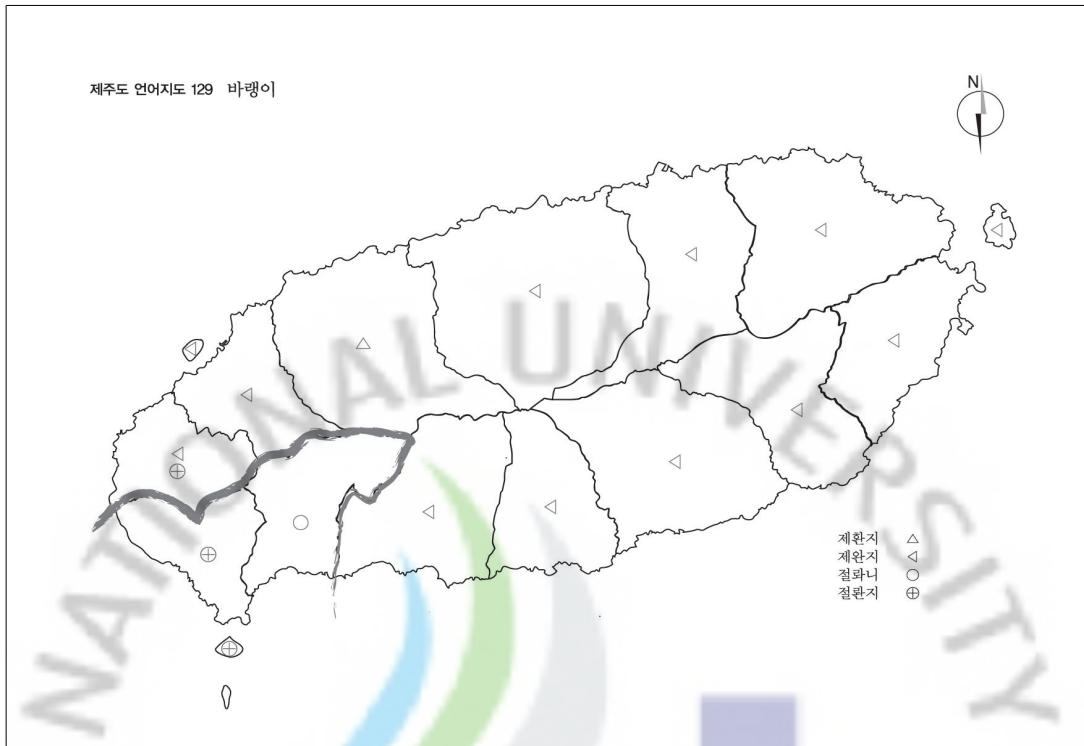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27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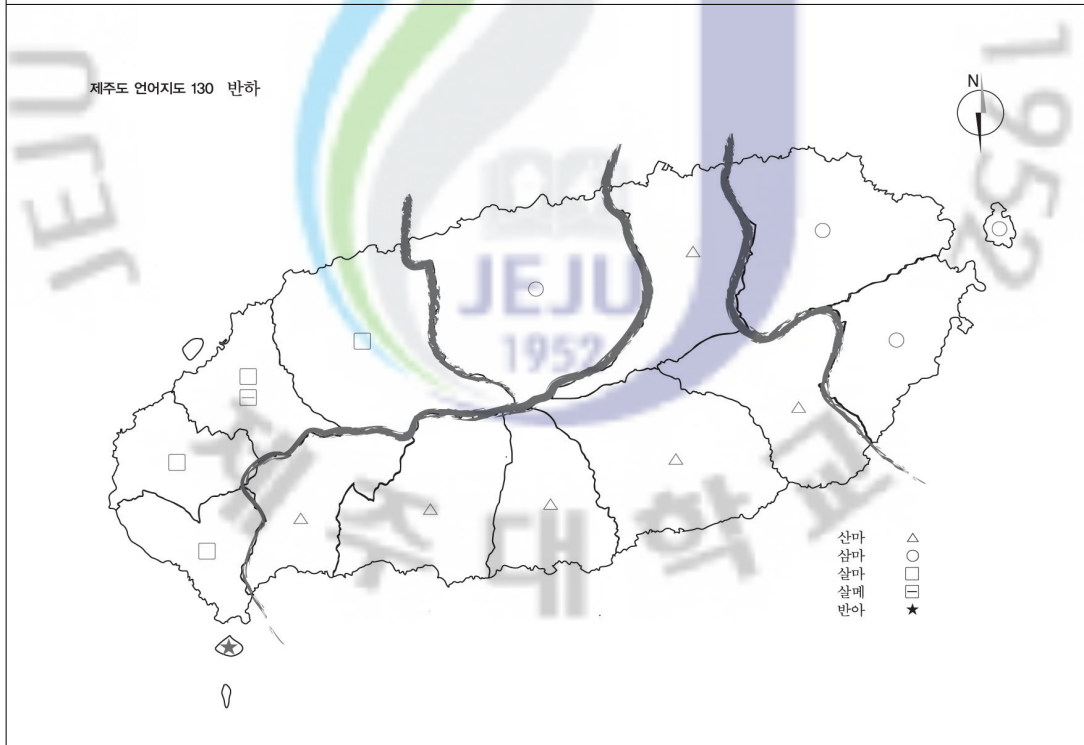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28 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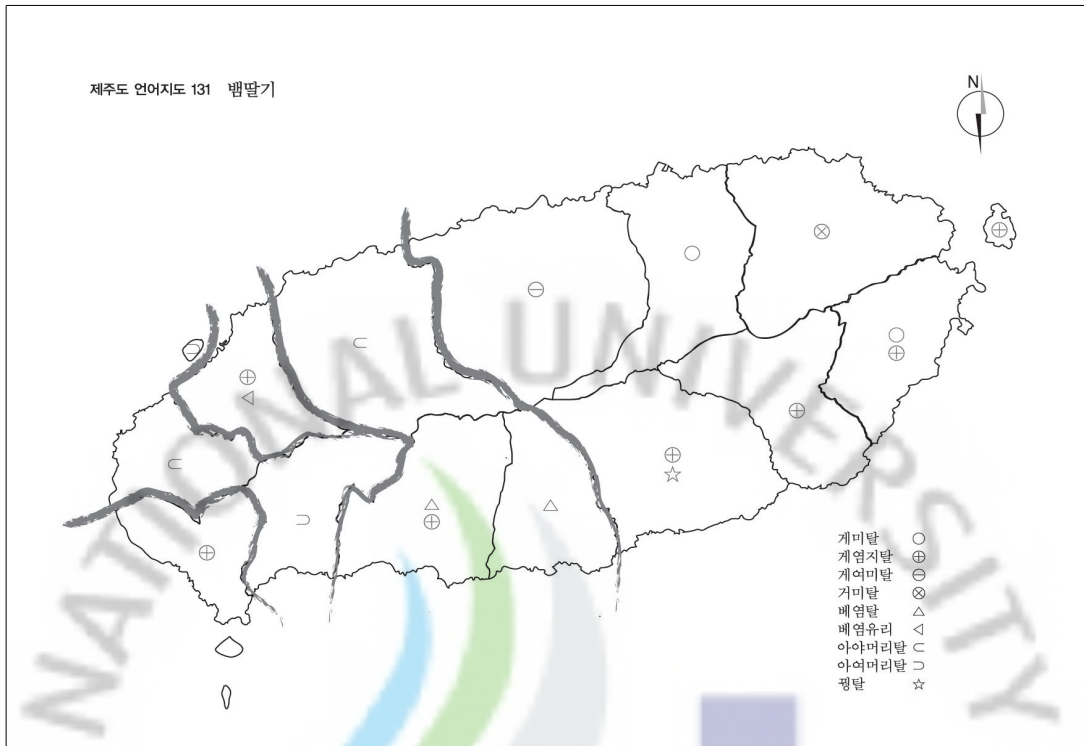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29 바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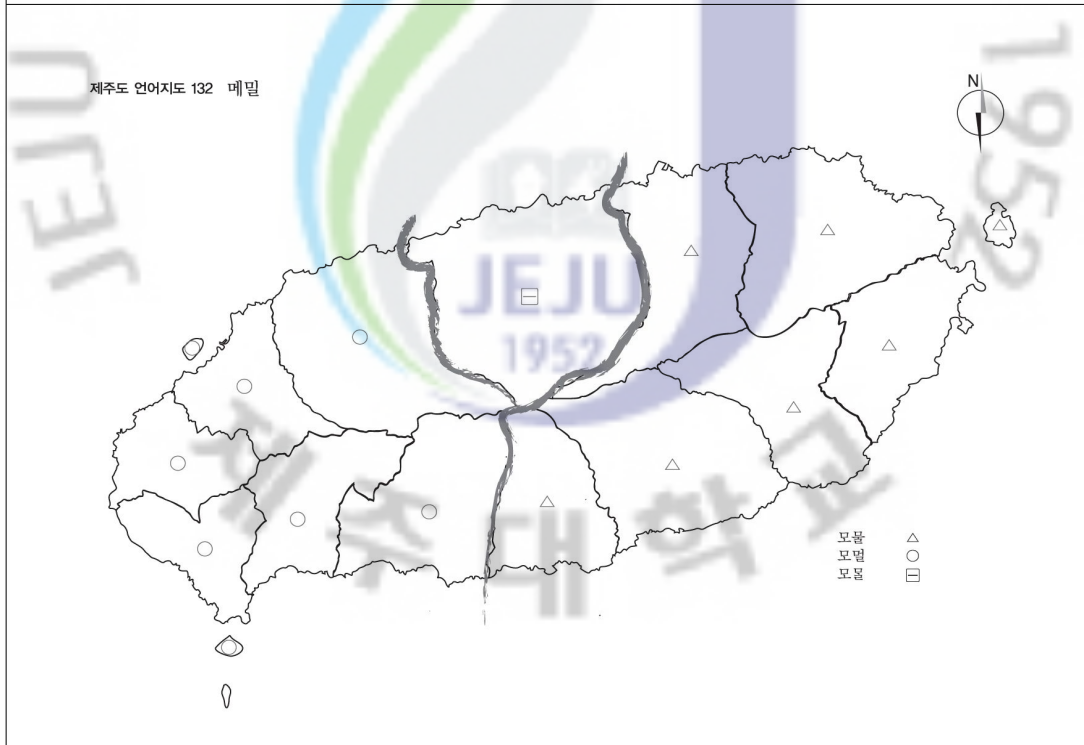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30 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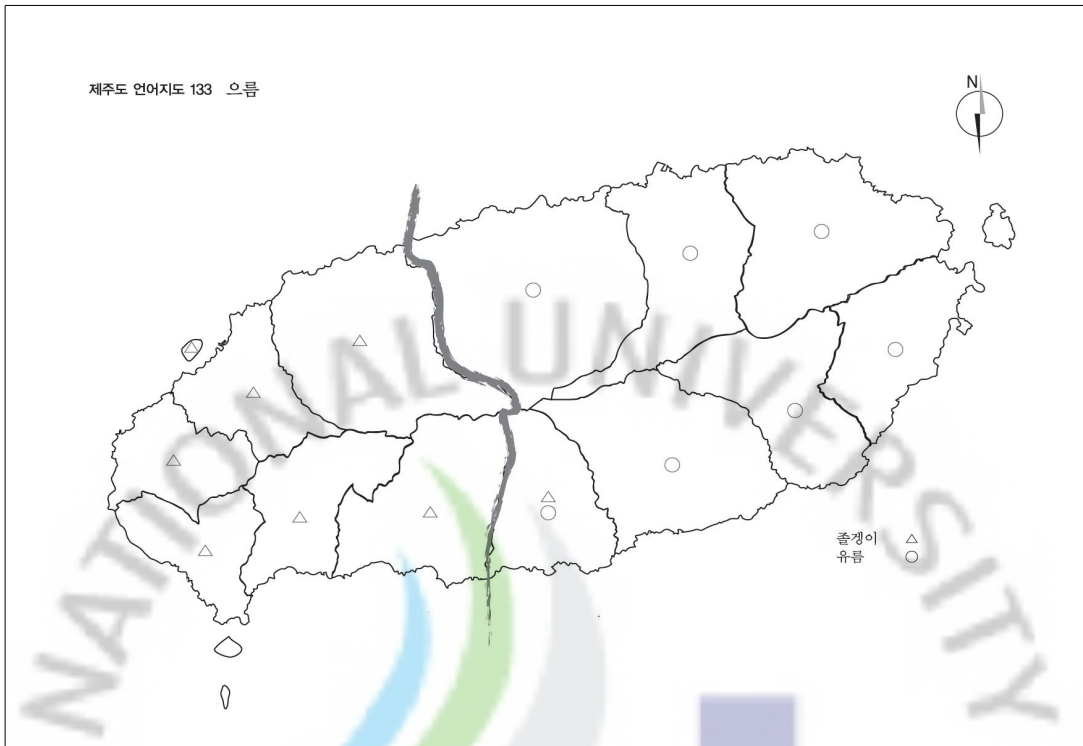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31 뱀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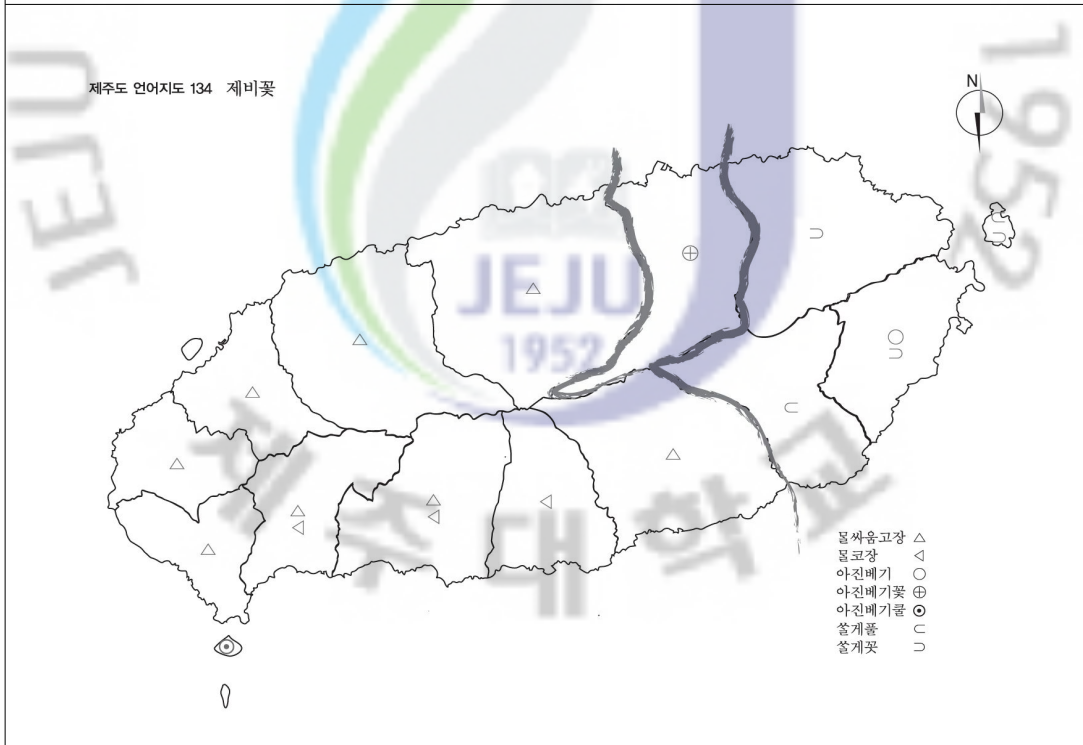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32 메밀



제주도 언어지도 133 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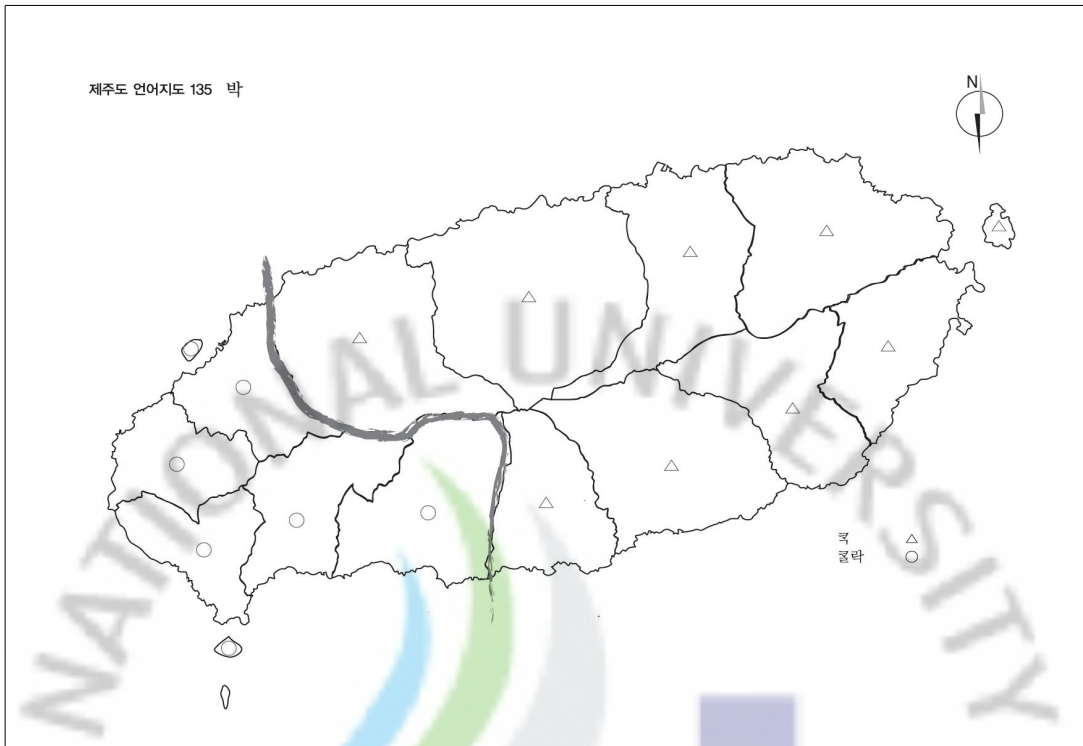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34 계비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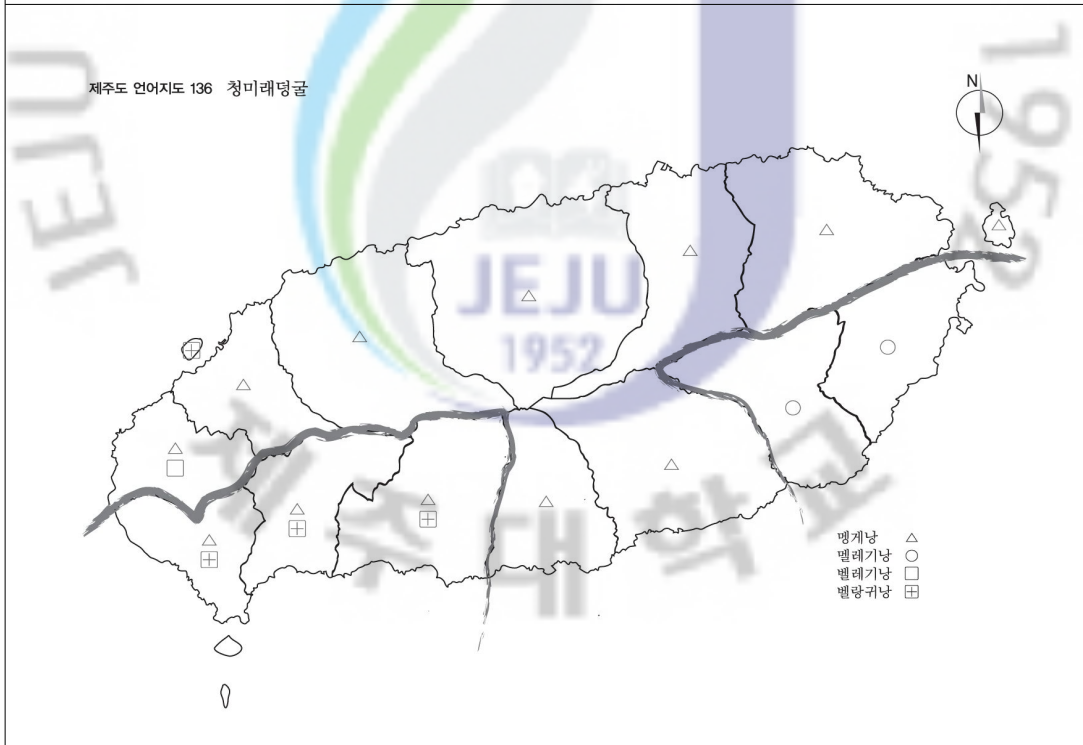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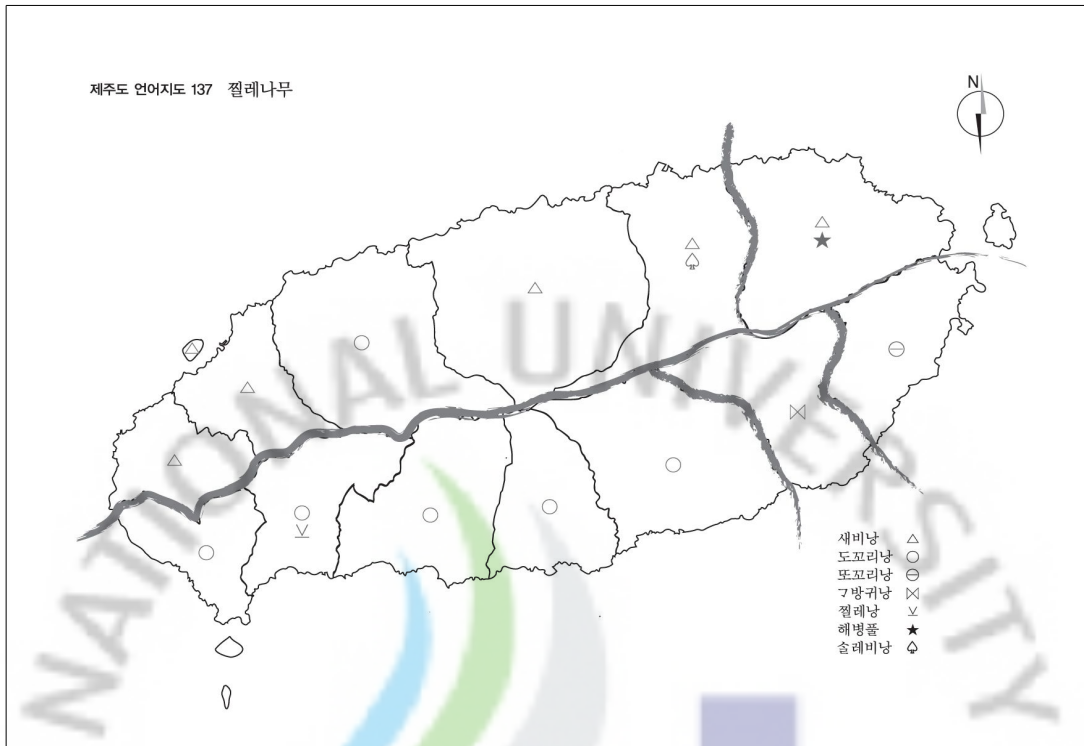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35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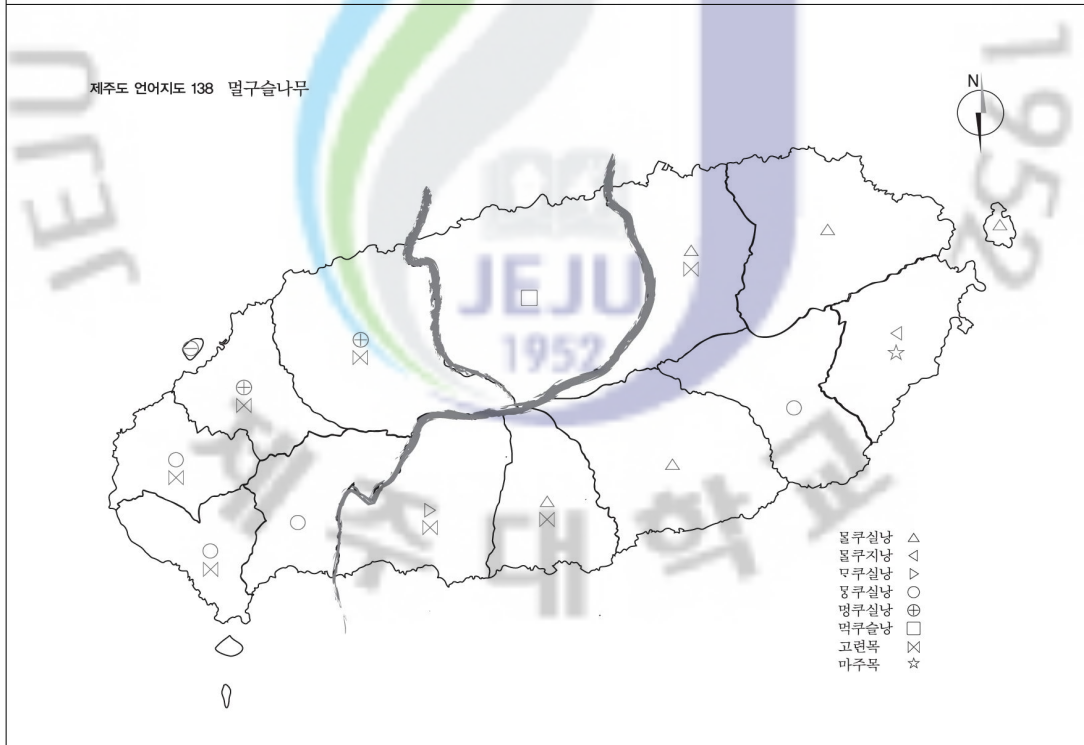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36 청미래명굴



제주도 언어지도 137 짚레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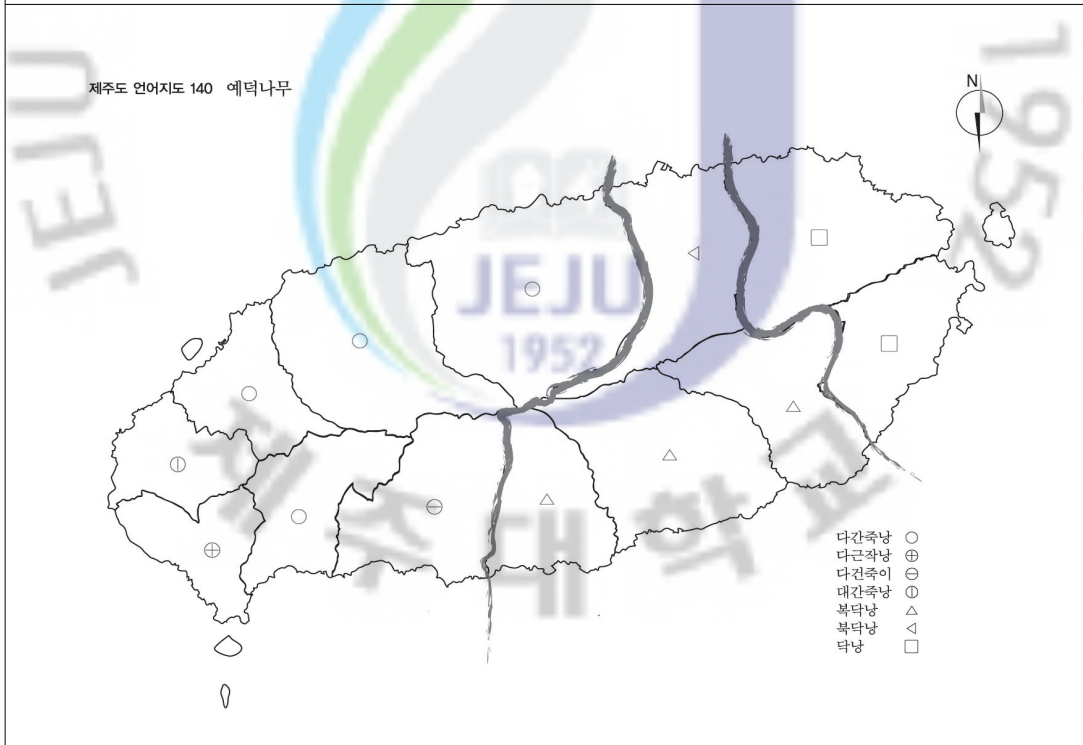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38 멀구슬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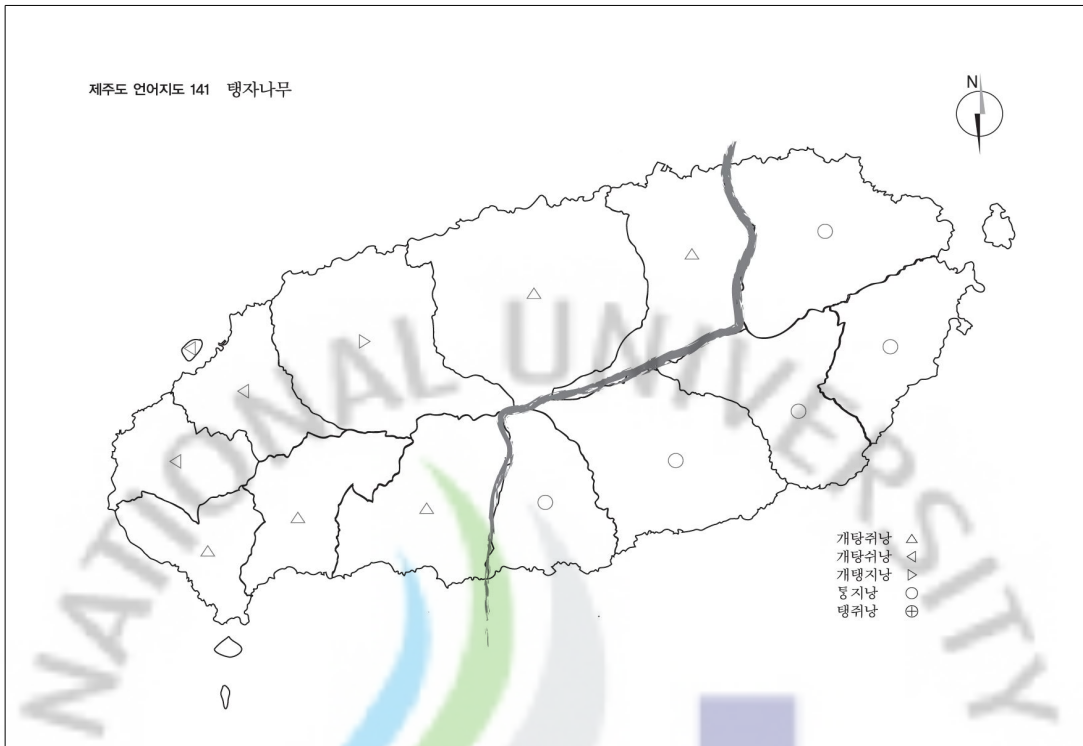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39 실거리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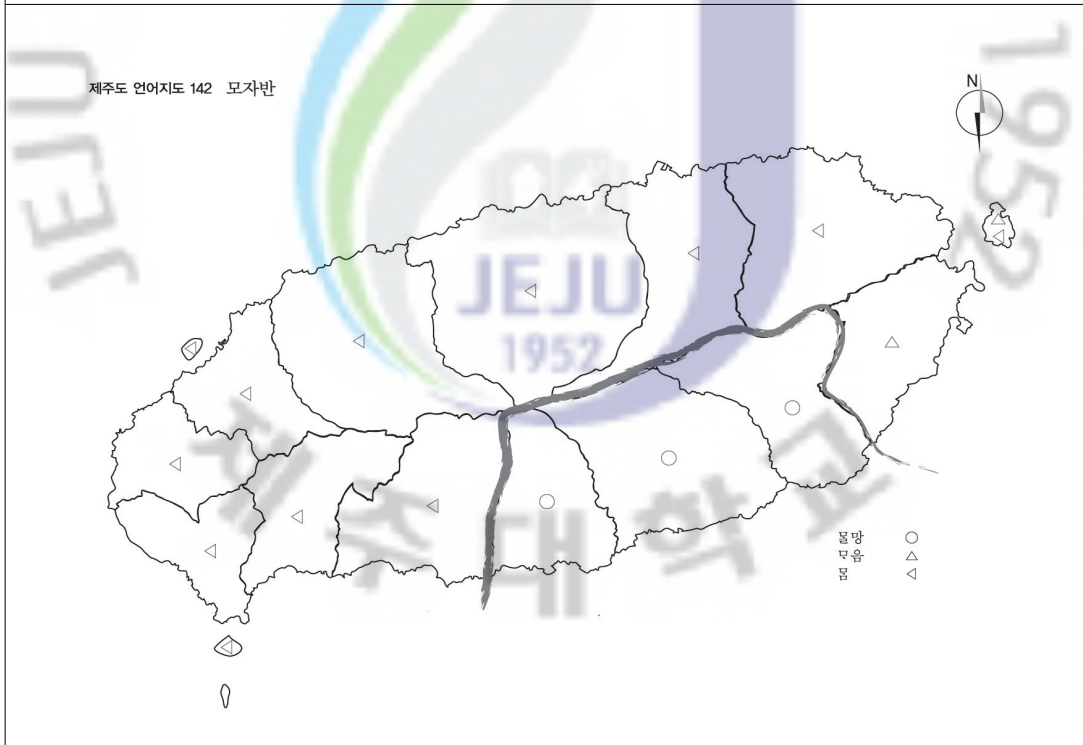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40 예탁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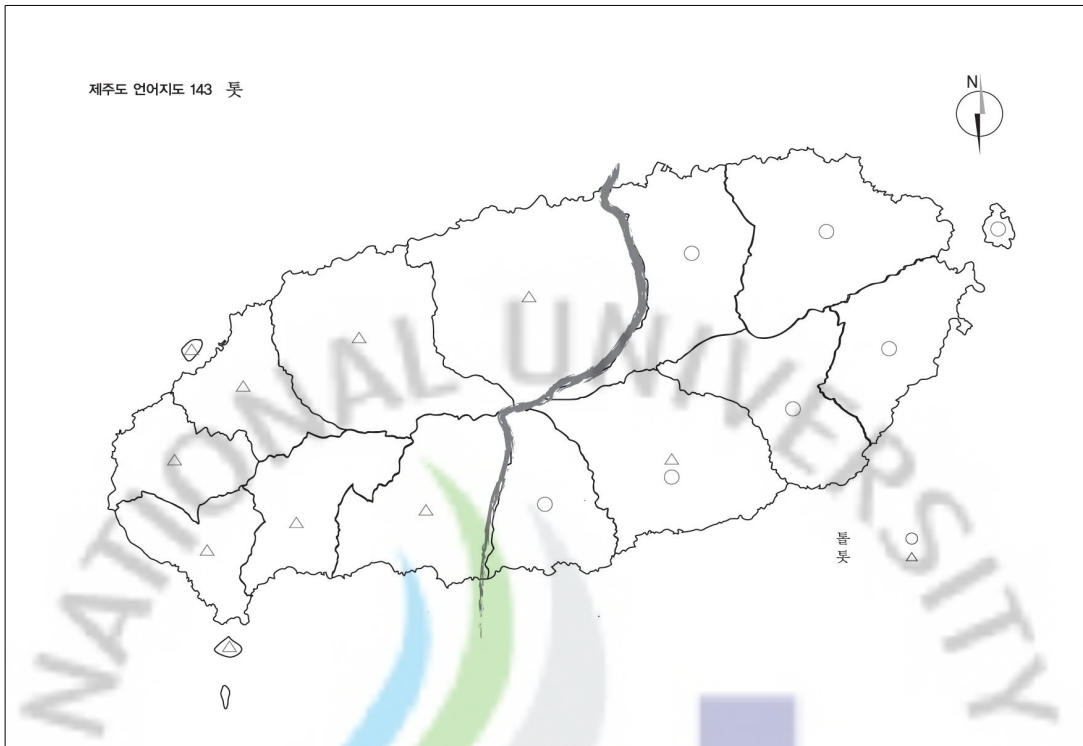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41 땡자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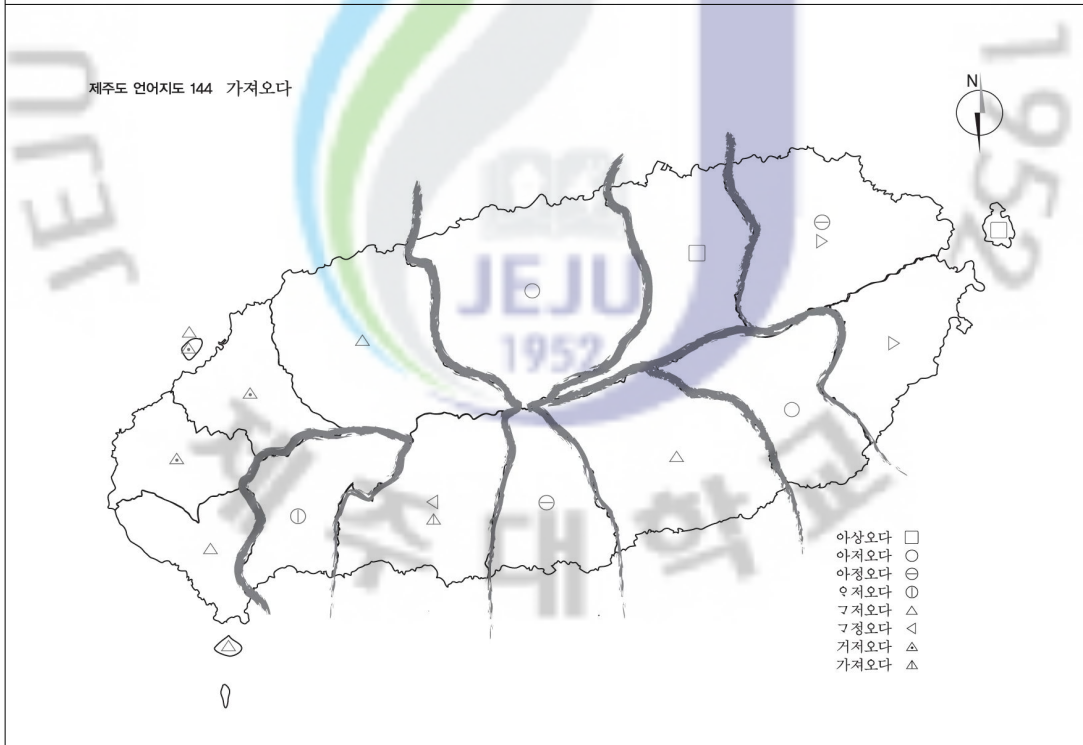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42 모자반



제주도 언어지도 143 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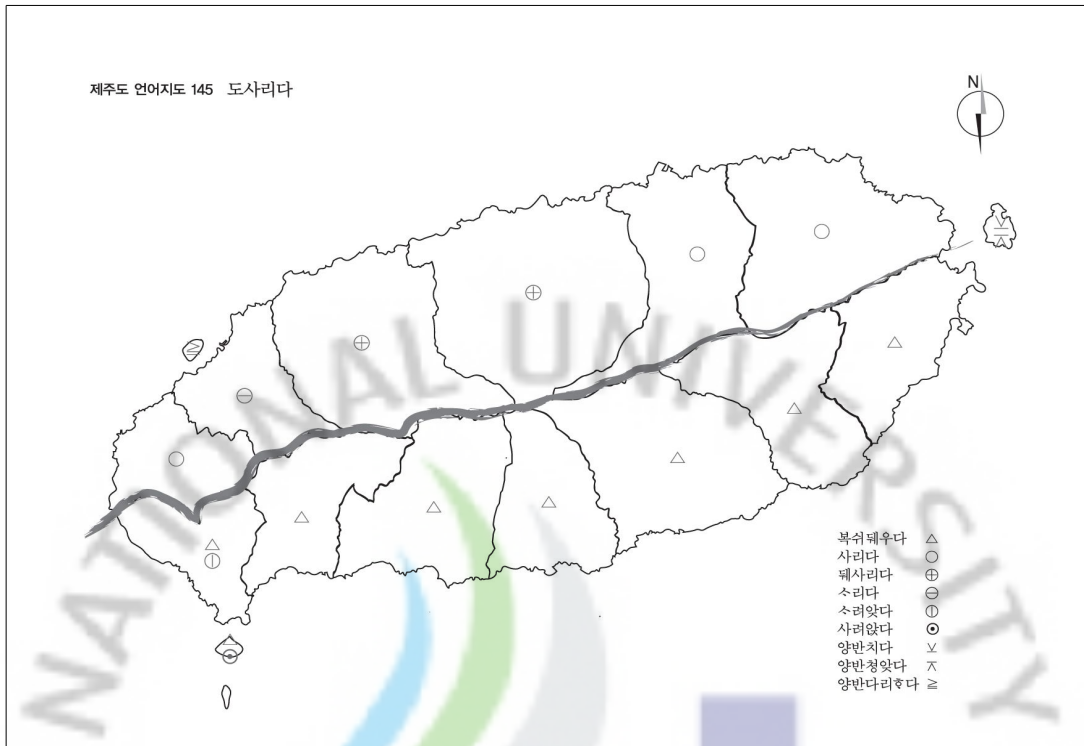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44 가저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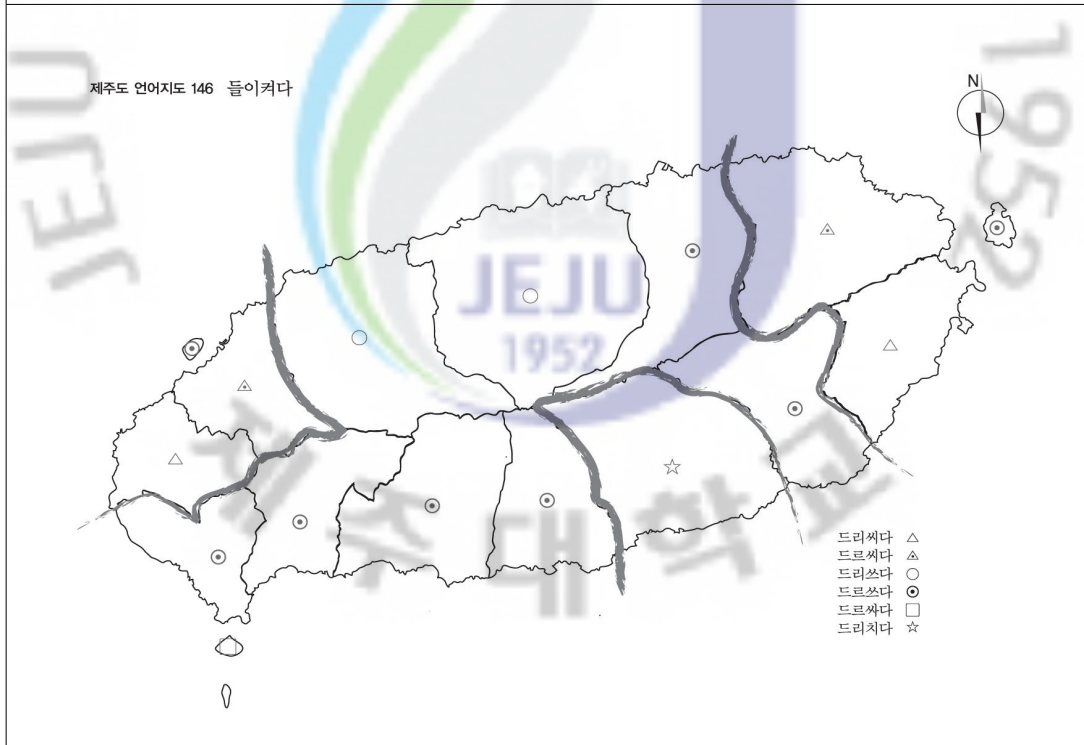


- 아상오다
- 아저오다
- 아정오다
- ⊖ 오저오다
- ▽ 구저오다
- △ 구정오다
- ▲ 거저오다
- ▲ 가저오다

제주도 언어지도 145 도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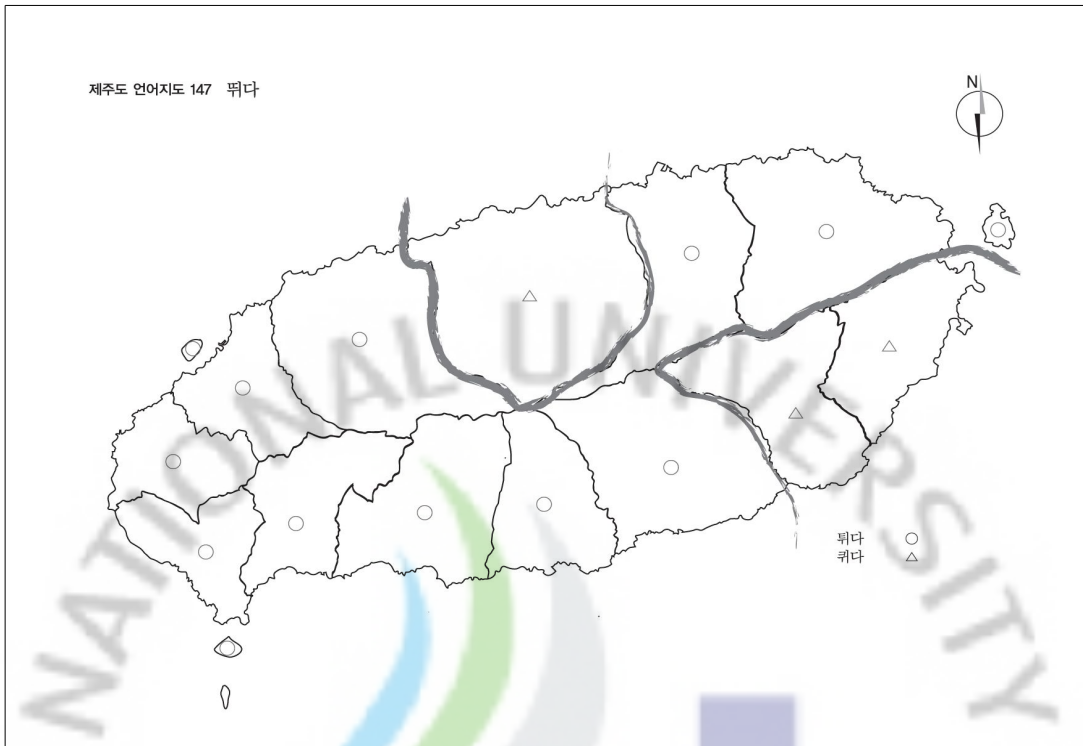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46 들이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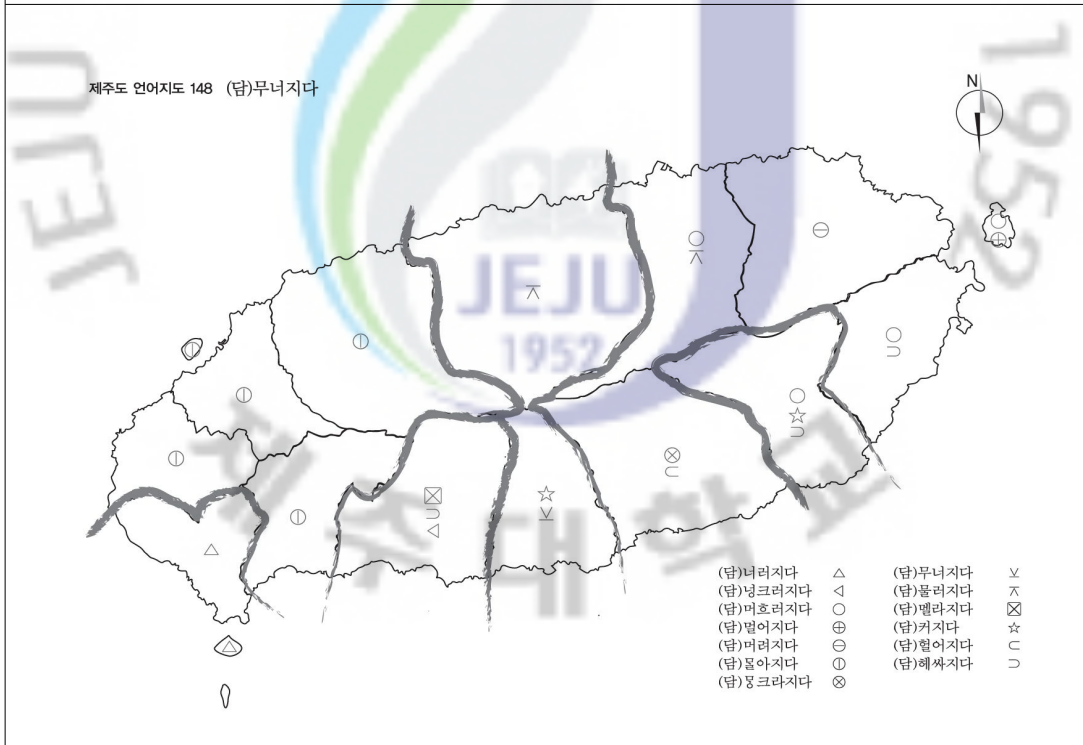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47 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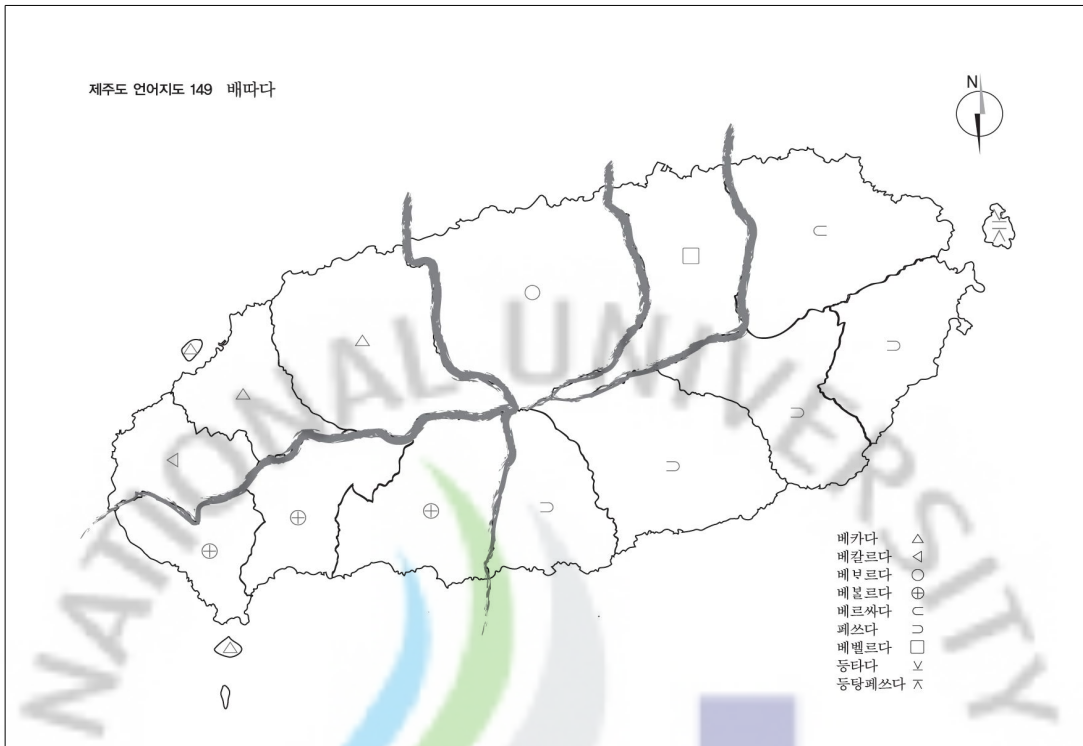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48 (담)무너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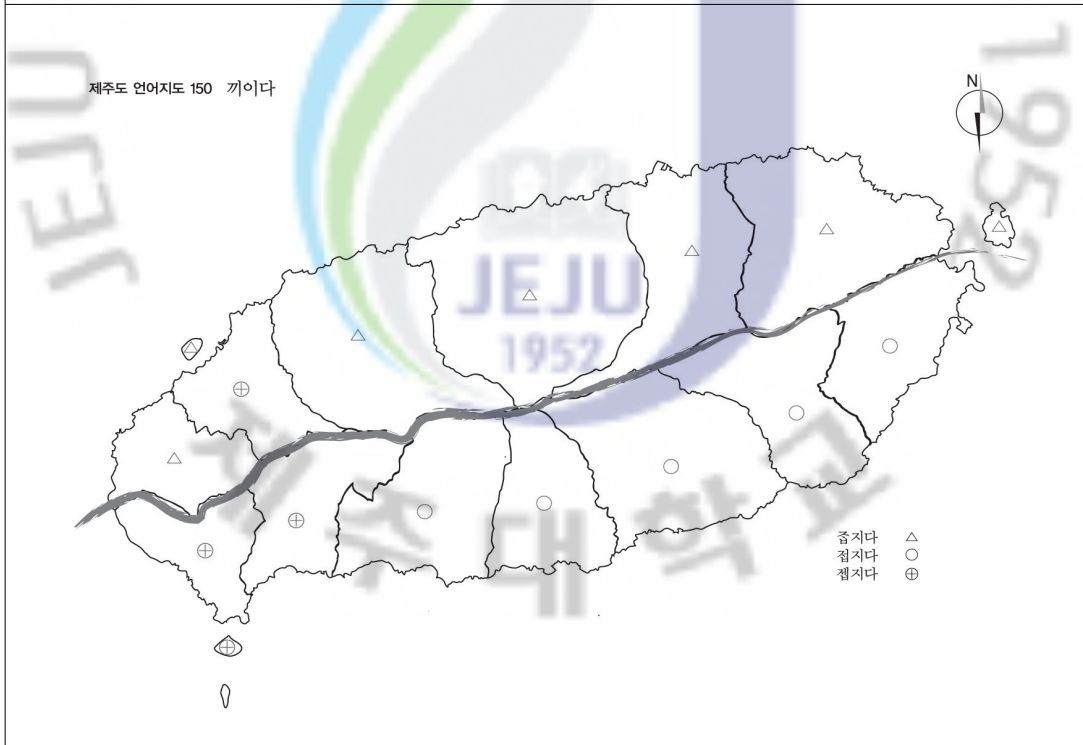


- |          |   |         |   |
|----------|---|---------|---|
| (담)너리자다  | △ | (담)무너지다 | ∞ |
| (담)녕크리자다 | △ | (담)물리자다 | ∞ |
| (담)미호리자다 | ○ | (담)멜라자다 | ∞ |
| (담)말어자다  | ⊕ | (담)키자다  | ☆ |
| (담)머리자다  | ⊕ | (담)할어자다 | U |
| (담)몰아자다  | ⊕ | (담)해씨자다 | U |
| (담)몽크라자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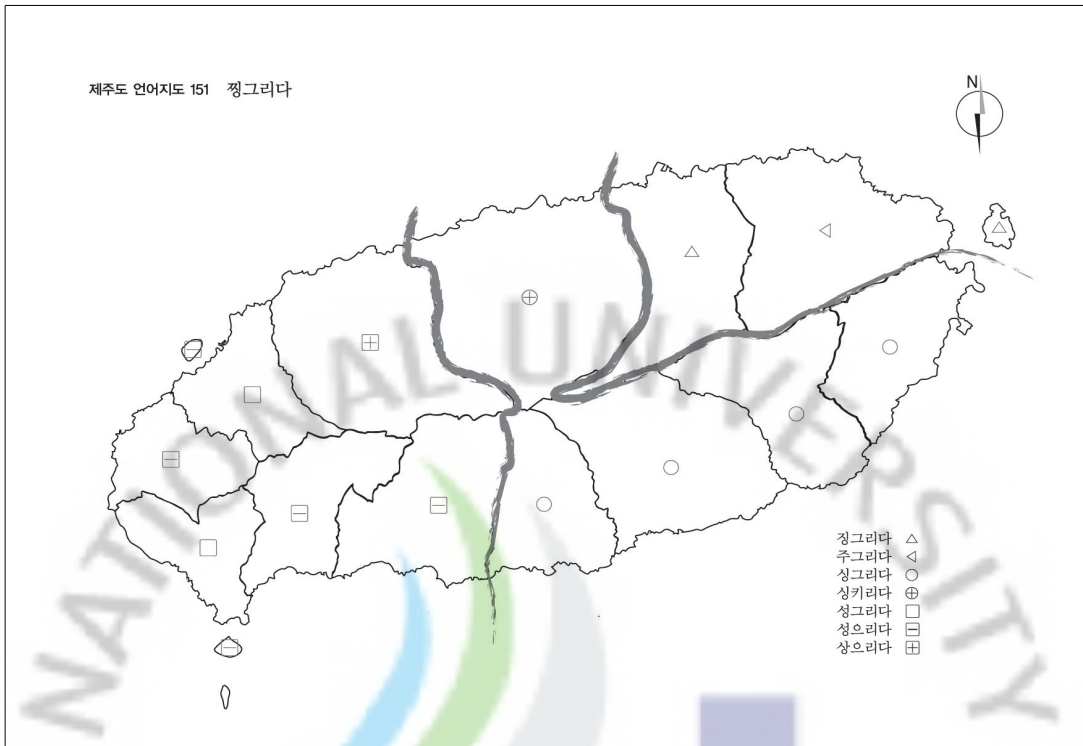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49 배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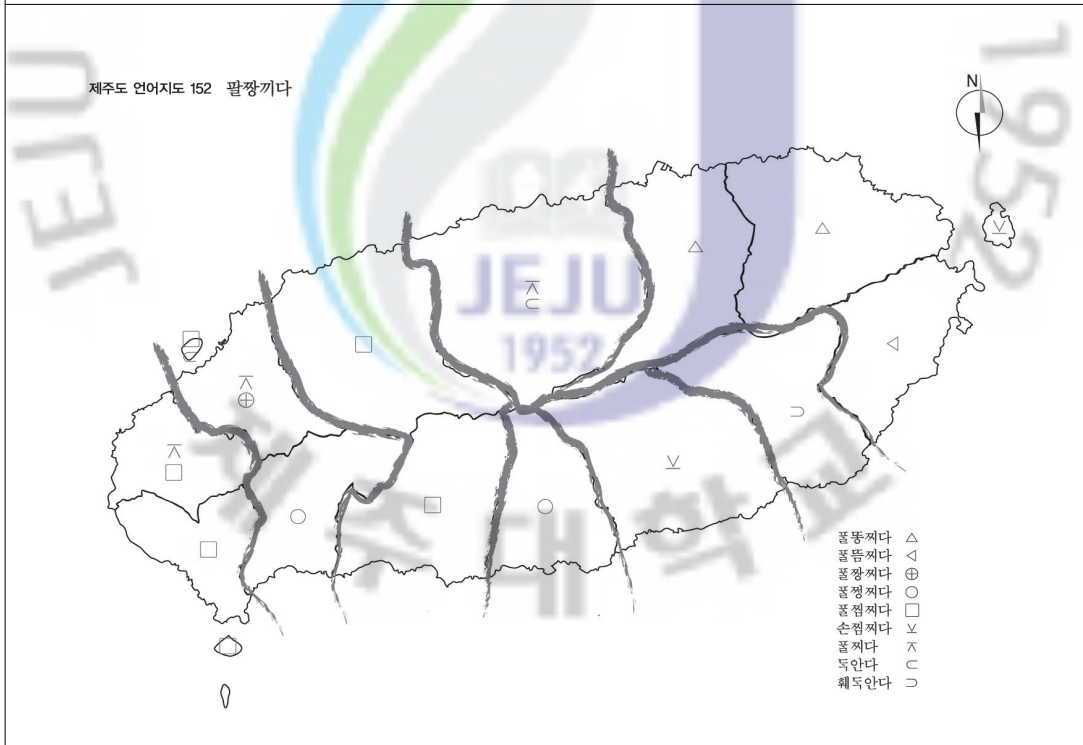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50 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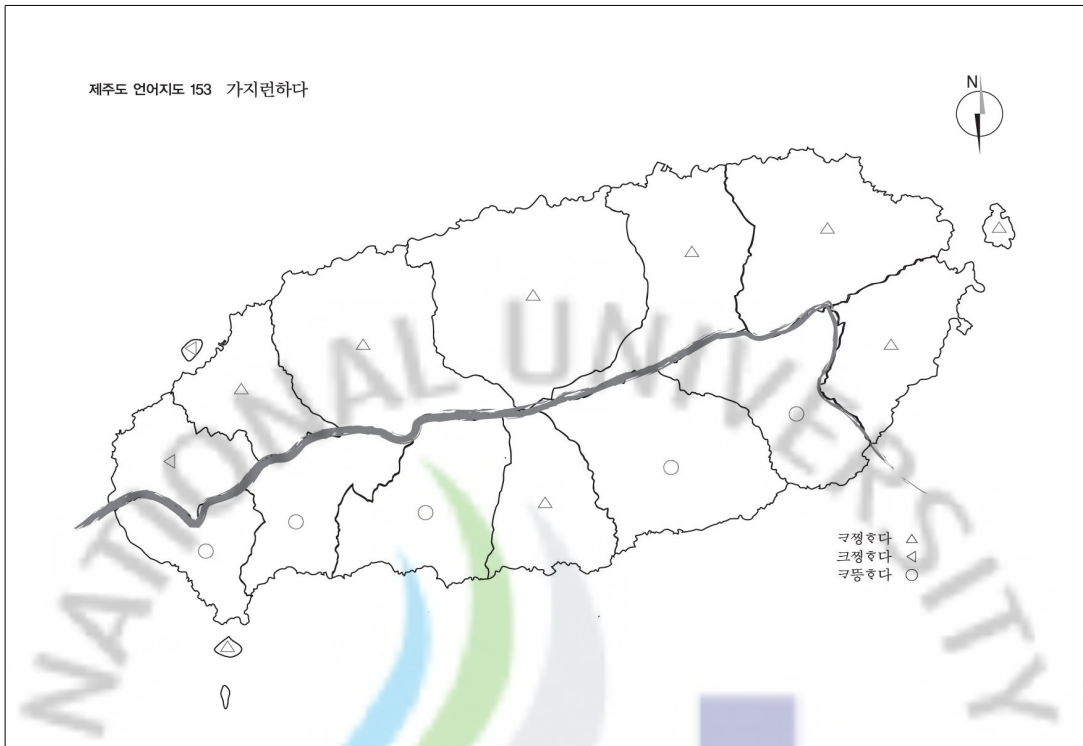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51 징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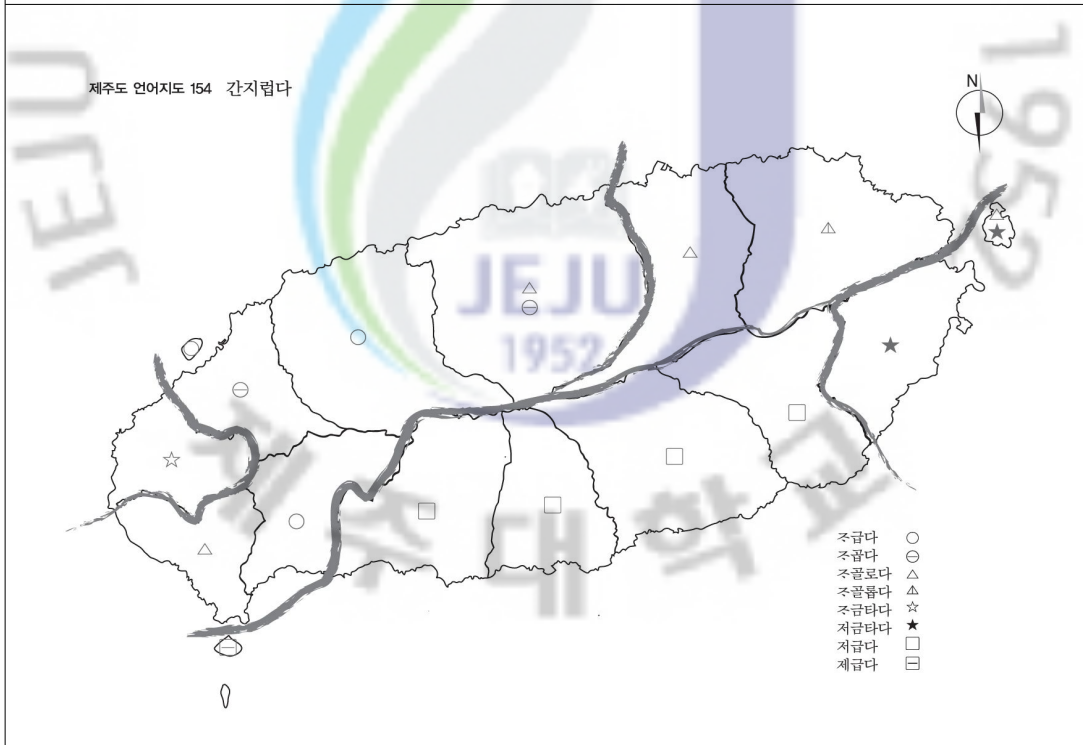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52 팔짱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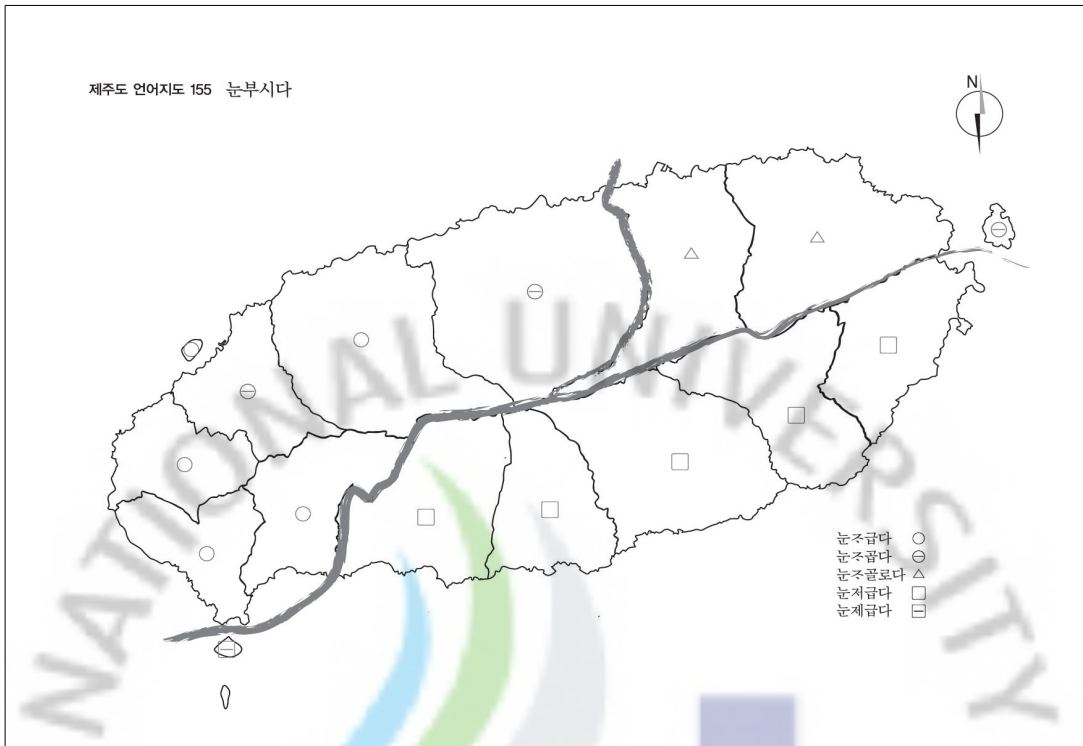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53 가지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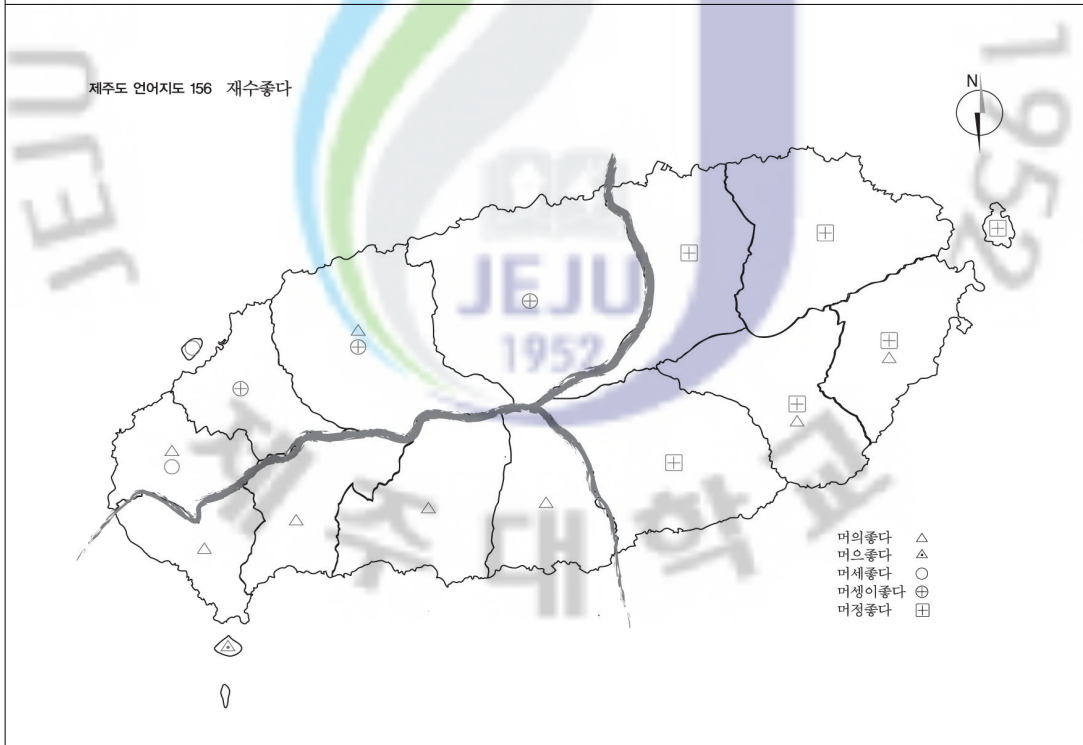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54 간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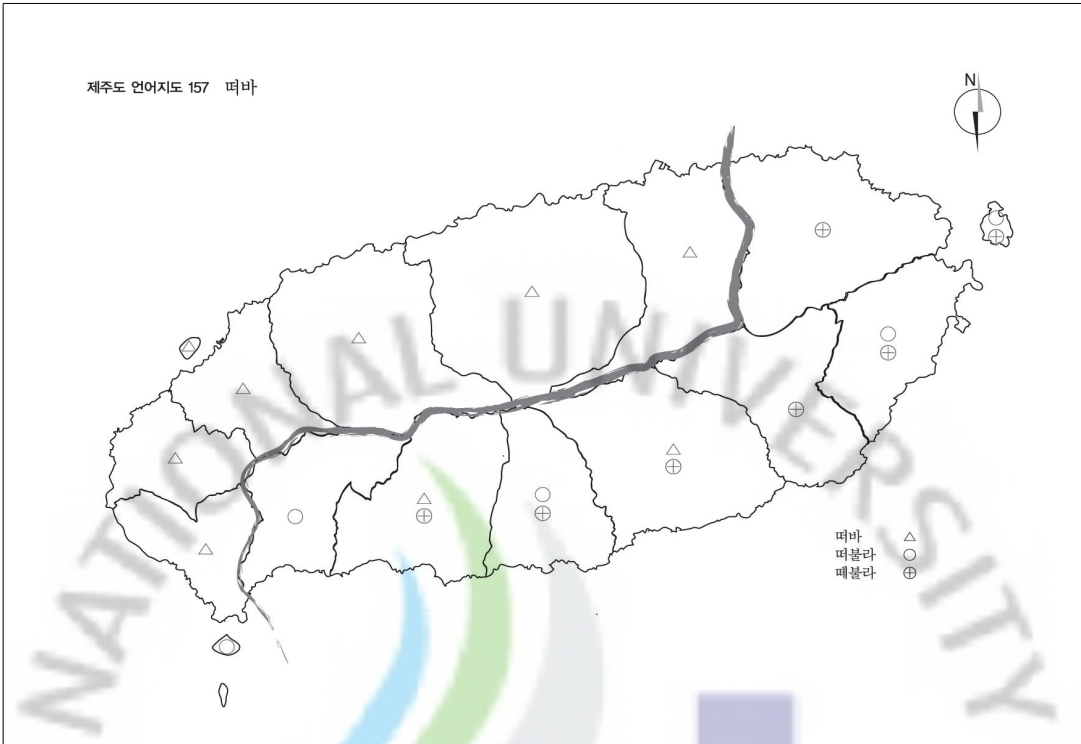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55 눈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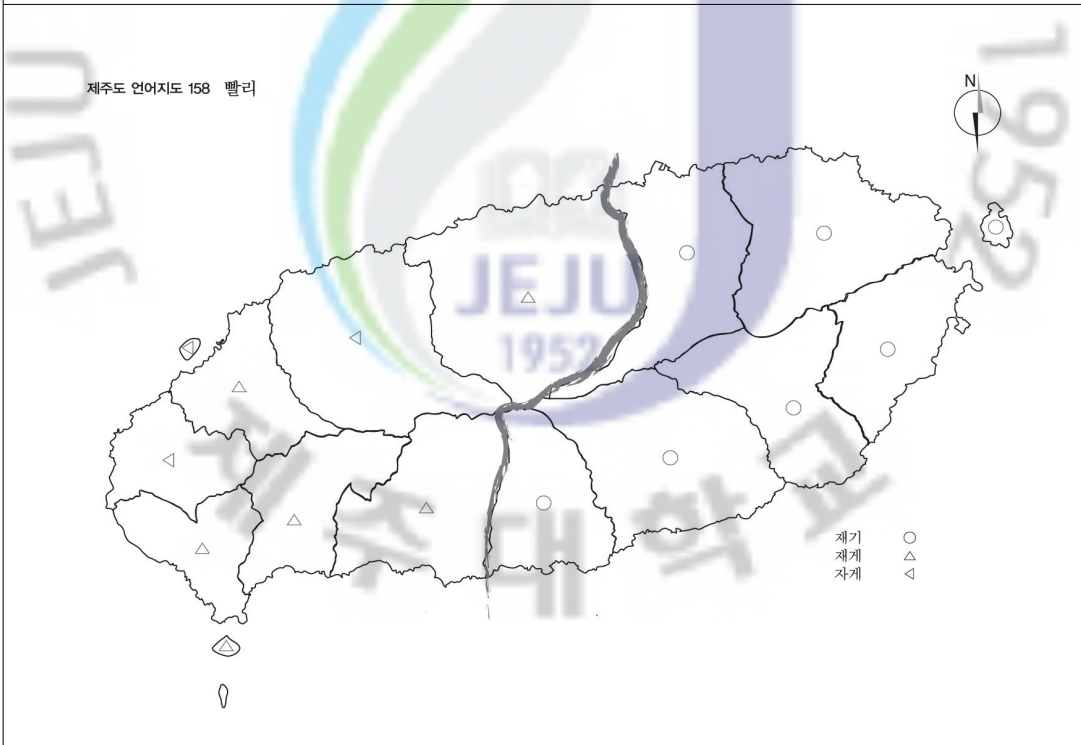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56 재수좋다



제주도 언어지도 157 떠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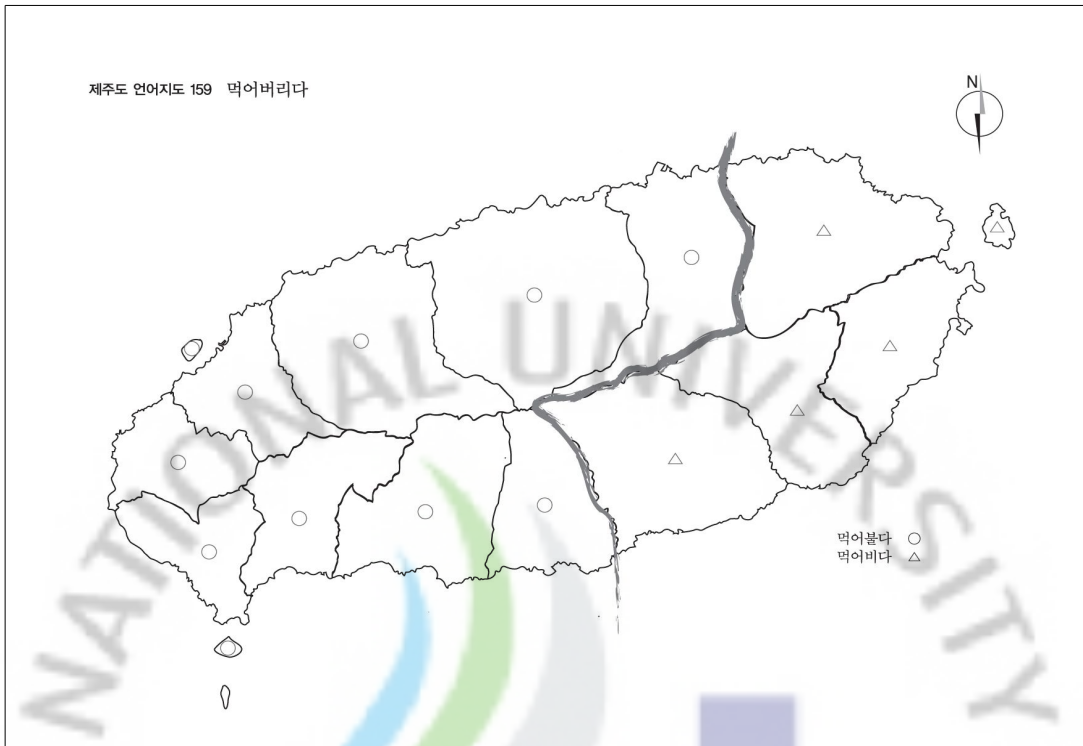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58 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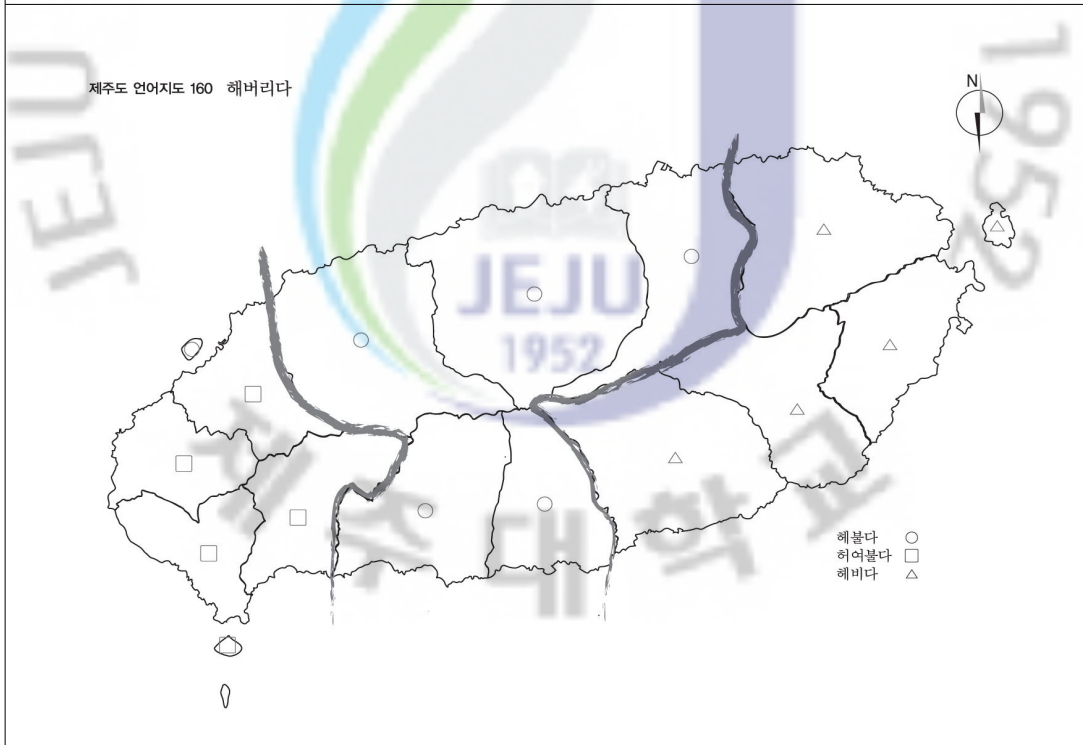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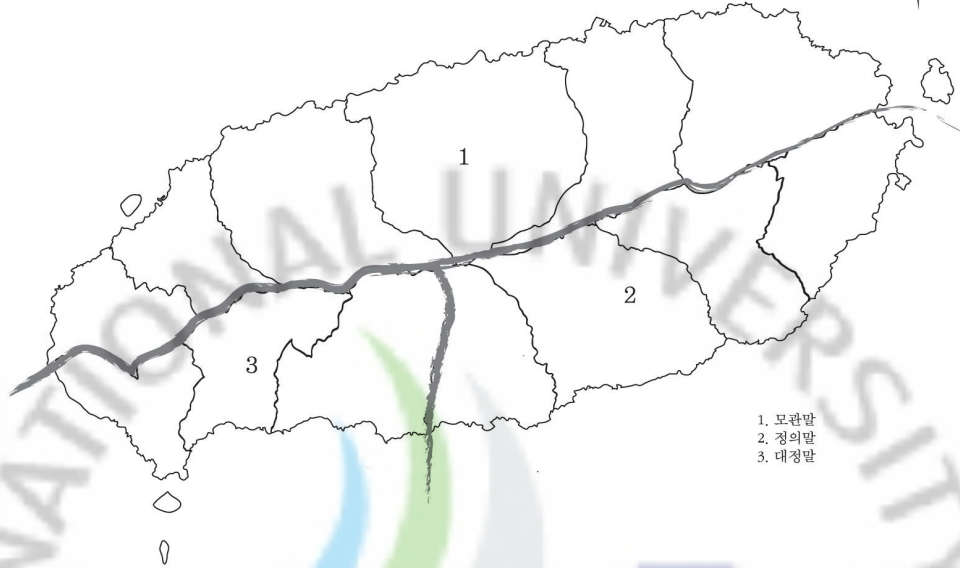
제주도 언어지도 159 먹어버리다



제주도 언어지도 160 해버리다



제주도 언어지도 161 인상적 방언구획



- 1. 모관말
- 2. 정의말
- 3. 대정말





<부록 3> 질문지

제주도방언 조사 질문지

※이 질문지는 제주도방언 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사 일시: 2010. . . .

조사 지역: \_\_\_\_\_

조사자: 김순자

01. 농사 관련 어휘

001 농사    농스\_\_\_\_\_용시\_\_\_\_\_농시\_\_\_\_\_  
          기타\_\_\_\_\_

002 돼지거름    뚫거름\_\_\_\_\_뚫걸름\_\_\_\_\_뚫가래\_\_\_\_\_  
                  뚫갈래\_\_\_\_\_기타\_\_\_\_\_

003 마간이    마가지\_\_\_\_\_마거지\_\_\_\_\_기타\_\_\_\_\_

004 메끼    무생이\_\_\_\_\_무세\_\_\_\_\_끼\_\_\_\_\_  
          메끼\_\_\_\_\_물렛줄\_\_\_\_\_기타\_\_\_\_\_

005 밭뽕기    드르갱이\_\_\_\_\_드로\_\_\_\_\_드르갱이\_\_\_\_\_  
              드르갱이\_\_\_\_\_들랭이\_\_\_\_\_들랭이\_\_\_\_\_  
              토강지\_\_\_\_\_토갱이\_\_\_\_\_기타\_\_\_\_\_

006 불티    불치\_\_\_\_\_불경\_\_\_\_\_불체\_\_\_\_\_  
          기타\_\_\_\_\_

007 새끼    슝끼\_\_\_\_\_슝\_\_\_\_\_슝늑끼\_\_\_\_\_  
          슝메끼\_\_\_\_\_찹스끼\_\_\_\_\_기타\_\_\_\_\_

008 이랑    파니\_\_\_\_\_고지\_\_\_\_\_기타\_\_\_\_\_

(※파니/고지 뜻: \_\_\_\_\_)

009 품삯    품삭\_\_\_\_\_일콍\_\_\_\_\_일품\_\_\_\_\_  
          콍깍\_\_\_\_\_품깍\_\_\_\_\_기타\_\_\_\_\_

010 허수아비    허멍이\_\_\_\_\_허제비\_\_\_\_\_기타\_\_\_\_\_

02. 음식 관련 어휘

011 가루	ㄱ르_____	ㄱ를_____	ㄱ르_____
	ㄱ로_____	ㄱ루_____	기타_____
012 간장	물장_____	근장_____	장물_____
	기타_____		
013 갱	거영_____	게영_____	갱_____
	갱국_____	기타_____	
014 김치	짐치_____	짐끼_____	징퀴_____
	기타_____		
015 눌은밥	누녕이_____	누령밥_____	누릉이_____
	누령이_____	밥누녕이_____	밥누령이_____
	기타_____		
016 수제비	즈바기_____	즈배기_____	즈배기_____
	저배기_____	기타_____	
017 시루떡	시리떡_____	친떡_____	침떡_____
	기타_____		
018 절편	절벤_____	절변_____	절편_____
	동고랑곤떡_____	기타_____	
019 징부찜떡	고달논떡_____	고달떡_____	고달부찜떡_____
	고달여진떡_____	등입진떡_____	웃징_____
	징들은떡_____	징부찜떡_____	징부찌_____
	기타_____		
020 빙떡	빙떡_____	전기떡_____	전기_____
	정기떡_____	정기_____	영빈_____
	기타_____		
021 경그레	드들_____	떡징_____	떡바드랭이_____
	바드랭이_____	징_____	기타_____
022 찌꺼기	주생이_____	주시_____	찌갱이_____
	기타_____		
023 콩나물	콩주름_____	콩지름_____	콩질름_____
	콩늑물_____	콩늑물_____	기타_____
024 장아찌	지이_____	지시_____	지히_____
	지_____	기타_____	
025 밥주걱	밥자_____	밥오곰_____	밥우곰_____
	밥주걱_____	우곰_____	울곰_____
	기타_____		
026 죽젓개	남죽_____	남술_____	배수기_____
	배술기_____	기타_____	

- 027 뚜껑 두께\_\_\_\_\_ 두껍\_\_\_\_\_ 두껍이\_\_\_\_\_  
두엇\_\_\_\_\_ 두엇이\_\_\_\_\_ 기타\_\_\_\_\_
- 028 숟가락 수까락\_\_\_\_\_ 수제\_\_\_\_\_ 수갈\_\_\_\_\_  
술\_\_\_\_\_ 기타\_\_\_\_\_
- 029 보시기 보시\_\_\_\_\_ 보세기\_\_\_\_\_ 보시기\_\_\_\_\_  
기타\_\_\_\_\_
- 030 용달술 용줄레기\_\_\_\_\_ 용조리\_\_\_\_\_ 용지리\_\_\_\_\_  
기타\_\_\_\_\_
- 031 부젓가락 불집게\_\_\_\_\_ 불집게\_\_\_\_\_ 불제\_\_\_\_\_  
불조름\_\_\_\_\_ 기타\_\_\_\_\_
- 032 부지깥이 부지뎡이\_\_\_\_\_ 불이뎡이\_\_\_\_\_ 부르뎡이\_\_\_\_\_  
기타\_\_\_\_\_
- 033 불쏘시개 불쏘시개\_\_\_\_\_ 고소에\_\_\_\_\_ 케수웨\_\_\_\_\_  
불케수웨\_\_\_\_\_ 불소슬게\_\_\_\_\_ 불소시개\_\_\_\_\_  
소시개\_\_\_\_\_ 기타\_\_\_\_\_
- 034 소뎡 솟두껍\_\_\_\_\_ 소두깥이\_\_\_\_\_ 솟두께\_\_\_\_\_  
솟두깥이\_\_\_\_\_ 솟두엇\_\_\_\_\_ 기타\_\_\_\_\_
- 035 출레의 의미  
( )

### 03. 의복 관련 어휘

- 036 옷감 옷ᄃ슴\_\_\_\_\_ 옷ᄃ심\_\_\_\_\_ 옷ᄃ음\_\_\_\_\_  
기타\_\_\_\_\_
- 037 가위 가위\_\_\_\_\_ ᄃ세\_\_\_\_\_ 기타\_\_\_\_\_
- 038 골무 골무\_\_\_\_\_ 골매\_\_\_\_\_ 골미\_\_\_\_\_  
기타\_\_\_\_\_
- 039 속곳 소중기\_\_\_\_\_ 소중의\_\_\_\_\_ 속곳\_\_\_\_\_  
기타\_\_\_\_\_
- 040 잠방이 점뎡이\_\_\_\_\_ 점뎡이\_\_\_\_\_ 징뎡이\_\_\_\_\_  
즂방이\_\_\_\_\_ 즂뎡이\_\_\_\_\_ 기타\_\_\_\_\_
- 041 도롱이 츄뎡이\_\_\_\_\_ 츄광이\_\_\_\_\_ 츄뎡이\_\_\_\_\_  
츄게\_\_\_\_\_ 츄깡이\_\_\_\_\_ 츄궈\_\_\_\_\_  
즂세기\_\_\_\_\_ 우장\_\_\_\_\_ 기타\_\_\_\_\_
- 042 두루마기 후리매\_\_\_\_\_ 두루막\_\_\_\_\_ 두루마기\_\_\_\_\_  
기타\_\_\_\_\_
- 043 대님 다님\_\_\_\_\_ 다림\_\_\_\_\_ 뎡김\_\_\_\_\_  
기타\_\_\_\_\_



- 044 매듭단추 돌마기\_\_\_\_\_ 돌매기\_\_\_\_\_ 벌모작\_\_\_\_\_  
모작단추\_\_\_\_\_ 기타\_\_\_\_\_
- 045 멜빵 밧친\_\_\_\_\_ 메친\_\_\_\_\_ 메끈\_\_\_\_\_  
메큰\_\_\_\_\_ 미친\_\_\_\_\_ 기타\_\_\_\_\_
- 046 보자기 포\_\_\_\_\_ 포다리\_\_\_\_\_ 포제기\_\_\_\_\_  
포데기\_\_\_\_\_ 기타\_\_\_\_\_
- 047 빨랫방망이 서답마깨\_\_\_\_\_ 물마깨\_\_\_\_\_ 스답마깨\_\_\_\_\_  
기타\_\_\_\_\_
- 048 흥두깨 흥깃대\_\_\_\_\_ 바깃대\_\_\_\_\_ 방깃대\_\_\_\_\_  
뱅깃대\_\_\_\_\_ 흥질대\_\_\_\_\_ 기타\_\_\_\_\_
- 049 짚신 짚신\_\_\_\_\_ 짚세기\_\_\_\_\_ 짚신\_\_\_\_\_  
초신\_\_\_\_\_ 기타\_\_\_\_\_
- 050 물감 물감\_\_\_\_\_ 물뿔\_\_\_\_\_ 물혜\_\_\_\_\_  
기타\_\_\_\_\_

#### 04. 집 관련 어휘

- 051 고팡 고팡\_\_\_\_\_ 양팡\_\_\_\_\_ 안팡\_\_\_\_\_  
괘팡\_\_\_\_\_ 기타\_\_\_\_\_
- 052 기와 지애\_\_\_\_\_ 지세\_\_\_\_\_ 지에\_\_\_\_\_  
기와\_\_\_\_\_ 기타\_\_\_\_\_
- 053 대장간 불미간\_\_\_\_\_ 불미왕\_\_\_\_\_ 불미칩\_\_\_\_\_  
기타\_\_\_\_\_
- 054 도래방석 돌래방석\_\_\_\_\_ 도리방석\_\_\_\_\_ 동고랑방석\_\_\_\_\_  
줄방석\_\_\_\_\_ 기타\_\_\_\_\_
- 055 돼지우리 돛통\_\_\_\_\_ 통시\_\_\_\_\_ 돛통시\_\_\_\_\_  
통지\_\_\_\_\_ 기타\_\_\_\_\_
- 056 마루 마리\_\_\_\_\_ 마래\_\_\_\_\_ 상방\_\_\_\_\_  
기타\_\_\_\_\_
- 057 문동개 지도리고망\_\_\_\_\_ 지두리고망\_\_\_\_\_ 주두리고망\_\_\_\_\_  
지두리굽기\_\_\_\_\_ 기타\_\_\_\_\_
- 058 문밧장 문결귀\_\_\_\_\_ 문결장\_\_\_\_\_ 문행경\_\_\_\_\_  
문행경\_\_\_\_\_ 기타\_\_\_\_\_
- 059 문지도리 문지도리\_\_\_\_\_ 문주두리\_\_\_\_\_ 주도리\_\_\_\_\_  
쥐도리\_\_\_\_\_ 지도리\_\_\_\_\_ 지두리\_\_\_\_\_  
기타\_\_\_\_\_
- 060 문지방 문지방\_\_\_\_\_ 문지방\_\_\_\_\_ 지방\_\_\_\_\_  
지방\_\_\_\_\_ 기타\_\_\_\_\_

- 061 **백장**      백장 \_\_\_\_\_ 스렁 \_\_\_\_\_ 시렁 \_\_\_\_\_  
                  기타 \_\_\_\_\_
- 062 **부출돌**    드들광 \_\_\_\_\_ 드덜광 \_\_\_\_\_ 디덜광 \_\_\_\_\_  
                  디들광 \_\_\_\_\_ 기타 \_\_\_\_\_
- 063 **얏은검정**    솫검멩이 \_\_\_\_\_ 솫검거미 \_\_\_\_\_ 솫검게미 \_\_\_\_\_  
                  솫검비역 \_\_\_\_\_ 솫거멩이 \_\_\_\_\_ 기타 \_\_\_\_\_
- 064 **외양간**      쉼왕 \_\_\_\_\_ 쉼마귀 \_\_\_\_\_ 쉼막 \_\_\_\_\_  
                  쉼막사리 \_\_\_\_\_ 기타 \_\_\_\_\_
- 065 **장독대**      장광뒤 \_\_\_\_\_ 장항뒤 \_\_\_\_\_ 장황뒤 \_\_\_\_\_  
                  두에 \_\_\_\_\_ 기타 \_\_\_\_\_
- 066 **정낭**        정낭 \_\_\_\_\_ 정 \_\_\_\_\_ 정남 \_\_\_\_\_  
                  정살 \_\_\_\_\_ 정살낭 \_\_\_\_\_ 정술낭 \_\_\_\_\_  
                  징낭 \_\_\_\_\_ 징 \_\_\_\_\_ 기타 \_\_\_\_\_
- 067 **주춧돌**      주툃돌 \_\_\_\_\_ 지툃돌 \_\_\_\_\_ 주춧돌 \_\_\_\_\_  
                  지춧돌 \_\_\_\_\_ 기타 \_\_\_\_\_
- 068 **천장**        천아반 \_\_\_\_\_ 처나반 \_\_\_\_\_ 천나반 \_\_\_\_\_  
                  천장 \_\_\_\_\_ 청장 \_\_\_\_\_ 기타 \_\_\_\_\_
- 069 **추년**        추년 \_\_\_\_\_ 추년서리 \_\_\_\_\_ 춘서리 \_\_\_\_\_  
                  기타 \_\_\_\_\_
- 070 **터알**        우영 \_\_\_\_\_ 우연 \_\_\_\_\_ 우연팻 \_\_\_\_\_  
                  우영팻 \_\_\_\_\_ 위연 \_\_\_\_\_ 기타 \_\_\_\_\_

**05. 도구 관련 어휘**

- 071 **꿈계**        섬피 \_\_\_\_\_ 섬비 \_\_\_\_\_ 끄슬귀 \_\_\_\_\_  
                  끄슬피 \_\_\_\_\_ 그슬귀 \_\_\_\_\_ 끄슬귀 \_\_\_\_\_  
                  끄서귀 \_\_\_\_\_ 기타 \_\_\_\_\_
- 072 **고무래**      당그네 \_\_\_\_\_ 근대 \_\_\_\_\_ 날렛근대 \_\_\_\_\_  
                  군데 \_\_\_\_\_ 기타 \_\_\_\_\_
- 073 **닭의어리**    독수룽이 \_\_\_\_\_ 독수랭이 \_\_\_\_\_ 독시렁 \_\_\_\_\_  
                  독등수리 \_\_\_\_\_ 기타 \_\_\_\_\_
- 074 **바구니**      바곶지 \_\_\_\_\_ 바곶지 \_\_\_\_\_ 바구리 \_\_\_\_\_  
                  구덕 \_\_\_\_\_ 기타 \_\_\_\_\_
- 075 **곡쟁이**      못광이 \_\_\_\_\_ 못쟁이 \_\_\_\_\_ 곡쟁이 \_\_\_\_\_  
                  기타 \_\_\_\_\_
- 076 **망사리**      망사리 \_\_\_\_\_ 망시리 \_\_\_\_\_ 망아리 \_\_\_\_\_  
                  흥사리 \_\_\_\_\_ 흥아리 \_\_\_\_\_ 기타 \_\_\_\_\_
- 077 **망태기**      망텡이 \_\_\_\_\_ 멩텡이 \_\_\_\_\_ 망태기 \_\_\_\_\_

- 기타\_\_\_\_\_
- 078 메호미 메호미\_\_\_\_\_ 미호미\_\_\_\_\_ 나대\_\_\_\_\_
- 기타\_\_\_\_\_
- 079 모탕 몽탕\_\_\_\_\_ 모탕\_\_\_\_\_ 목탕\_\_\_\_\_
- 기타\_\_\_\_\_
- 080 물부리 물부리\_\_\_\_\_ 물줄리\_\_\_\_\_ 물초리\_\_\_\_\_
- 물출리\_\_\_\_\_ 뿔치\_\_\_\_\_ 뿔죽\_\_\_\_\_
- 기타\_\_\_\_\_
- 081 물안경 족쇄눈\_\_\_\_\_ 족은눈\_\_\_\_\_ 종짓눈\_\_\_\_\_
- 기타\_\_\_\_\_
- (2개의 작은 알)
- 082 부시 부쇄\_\_\_\_\_ 부수\_\_\_\_\_ 부쉬\_\_\_\_\_
- 부시\_\_\_\_\_ 부시쇄\_\_\_\_\_ 기타\_\_\_\_\_
- 083 솔박 속박\_\_\_\_\_ 손박\_\_\_\_\_ 솔박\_\_\_\_\_
- 좁박\_\_\_\_\_ 좁박세기\_\_\_\_\_ 기타\_\_\_\_\_
- 084 췌기 세\_\_\_\_\_ 세감\_\_\_\_\_ 세\_\_\_\_\_
- 소용\_\_\_\_\_ 기타\_\_\_\_\_
- 085 솟들 췌들\_\_\_\_\_ 신들\_\_\_\_\_ 쓸들\_\_\_\_\_
- 췌들\_\_\_\_\_ 기타\_\_\_\_\_
- 086 얼레빗 얼레기\_\_\_\_\_ 얼럭지\_\_\_\_\_ 어레빗\_\_\_\_\_
- 얼레빗\_\_\_\_\_ 기타\_\_\_\_\_
- 087 이영 느래미\_\_\_\_\_ 느람지\_\_\_\_\_ 느라미\_\_\_\_\_
- 놀래\_\_\_\_\_ 기타\_\_\_\_\_
- 088 자루 즈룩\_\_\_\_\_ 즈룩\_\_\_\_\_ 줄리\_\_\_\_\_
- 기타\_\_\_\_\_
- 089 호미 굴쟁이\_\_\_\_\_ 굴각지\_\_\_\_\_ 호명이\_\_\_\_\_
- 기타\_\_\_\_\_
- 090 화승 새심\_\_\_\_\_ 해심\_\_\_\_\_ 미심\_\_\_\_\_
- 기타\_\_\_\_\_
- 091 종다래끼 들랑지\_\_\_\_\_ 들랭이\_\_\_\_\_ 조락\_\_\_\_\_
- 조레기\_\_\_\_\_ 기타\_\_\_\_\_
- 092 뽕큰구덕 뽕큰바구리\_\_\_\_\_ 풀뽕큰구덕\_\_\_\_\_ 기타\_\_\_\_\_

#### 06. 민속 관련 어휘

- 093 상장 방장대\_\_\_\_\_ 방장대기\_\_\_\_\_ 상죽대\_\_\_\_\_
- 기타\_\_\_\_\_
- 094 찻동 찻동\_\_\_\_\_ 북세미\_\_\_\_\_ 북시미\_\_\_\_\_

- 095 조문      꺾동이\_\_\_\_\_ 기타\_\_\_\_\_  
 조문\_\_\_\_\_ 고견\_\_\_\_\_ 고렴\_\_\_\_\_  
 기타\_\_\_\_\_
- 096 상여      상예\_\_\_\_\_ 상여\_\_\_\_\_ 생예\_\_\_\_\_  
 생이\_\_\_\_\_ 상기\_\_\_\_\_ 화단\_\_\_\_\_  
 기타\_\_\_\_\_
- 097 상여꾼      운상꾼\_\_\_\_\_ 행상꾼\_\_\_\_\_ 담상꾼\_\_\_\_\_  
 기타\_\_\_\_\_

07. 인체 관련 어휘

- 098 털      터럭\_\_\_\_\_ 꺼럭\_\_\_\_\_ 털\_\_\_\_\_  
 곁\_\_\_\_\_ 기타\_\_\_\_\_
- 099 대가리      대가리\_\_\_\_\_ 대강이\_\_\_\_\_ 대구리\_\_\_\_\_  
 대망이\_\_\_\_\_ 더멍이\_\_\_\_\_ 대멍이\_\_\_\_\_  
 더망세기\_\_\_\_\_ 대망세기\_\_\_\_\_ 드가리\_\_\_\_\_  
 드멍이\_\_\_\_\_ 기타\_\_\_\_\_
- 100 이마      이멍이\_\_\_\_\_ 임멍이\_\_\_\_\_ 기타\_\_\_\_\_
- 101 이마빼기      이멍세기\_\_\_\_\_ 이마빡\_\_\_\_\_ 이망세기\_\_\_\_\_  
 이멍세기\_\_\_\_\_ 이멍팍\_\_\_\_\_ 이멍패기\_\_\_\_\_  
 임성배기\_\_\_\_\_ 임수와기\_\_\_\_\_ 기타\_\_\_\_\_
- 102 뺨따귀      빼얌따귀\_\_\_\_\_ 빼야망데기\_\_\_\_\_ 빼얌데기\_\_\_\_\_  
 기타\_\_\_\_\_
- 103 볼때기      볼태기\_\_\_\_\_ 볼망데기\_\_\_\_\_ 볼치\_\_\_\_\_  
 볼타구니\_\_\_\_\_ 볼탁서니\_\_\_\_\_ 볼튼가리\_\_\_\_\_  
 기타\_\_\_\_\_
- 104 거적눈      더께눈\_\_\_\_\_ 더걱눈\_\_\_\_\_ 풍채눈\_\_\_\_\_  
 기타\_\_\_\_\_
- 105 눈꺼풀      눈두에\_\_\_\_\_ 눈두께\_\_\_\_\_ 기타\_\_\_\_\_
- 106 자위      동즈\_\_\_\_\_ 공즈\_\_\_\_\_ 기타\_\_\_\_\_
- 107 콧마루      콧므르\_\_\_\_\_ 콧물리\_\_\_\_\_ 콧물렝이\_\_\_\_\_  
 기타\_\_\_\_\_
- 108 떡      모감지\_\_\_\_\_ 목고디\_\_\_\_\_ 목다리\_\_\_\_\_  
 목설매\_\_\_\_\_ 질목다리\_\_\_\_\_ 기타\_\_\_\_\_
- 109 겨드랑이      즈깁이\_\_\_\_\_ 저깁이\_\_\_\_\_ 저드랑이\_\_\_\_\_  
 저드랭이\_\_\_\_\_ 즈깁이\_\_\_\_\_ 즈깁이\_\_\_\_\_  
 즈드랭이\_\_\_\_\_ 좇깁이\_\_\_\_\_ 기타\_\_\_\_\_
- 110 가슴      가슴\_\_\_\_\_ 가슴\_\_\_\_\_ 기타\_\_\_\_\_

- 111 짓가슴    짓가슴\_\_\_\_\_    짓가심\_\_\_\_\_    짓가슴\_\_\_\_\_  
               짓가심\_\_\_\_\_    젓가슴\_\_\_\_\_    젓가심\_\_\_\_\_  
               기타\_\_\_\_\_
- 112 팔꿈치    풀고비\_\_\_\_\_    풀꿈지\_\_\_\_\_    풀굽지\_\_\_\_\_  
               기타\_\_\_\_\_
- 113 등마루    등몰리\_\_\_\_\_    등므르\_\_\_\_\_    등므를\_\_\_\_\_  
               등모르\_\_\_\_\_    기타\_\_\_\_\_
- 114 옆구리    역갈리\_\_\_\_\_    옆갈리\_\_\_\_\_    ㅇㄴ갈리\_\_\_\_\_  
               ㅇㄴ구레\_\_\_\_\_    ㅇㄴ갈리\_\_\_\_\_    기타\_\_\_\_\_
- 115 쓸개    실게\_\_\_\_\_    슬게\_\_\_\_\_    썰게\_\_\_\_\_  
               쓸게\_\_\_\_\_    기타\_\_\_\_\_
- 116 약손가락    노니웨기\_\_\_\_\_    노니예기\_\_\_\_\_    노닐웨기\_\_\_\_\_  
               노내기손가락\_\_\_\_\_    기타\_\_\_\_\_
- 117 오줌통    오죤께\_\_\_\_\_    오죤통\_\_\_\_\_    오죤푸께\_\_\_\_\_  
               기타\_\_\_\_\_
- 118 지렁내    지렁내\_\_\_\_\_    지른내\_\_\_\_\_    지런내\_\_\_\_\_  
               찌렁내\_\_\_\_\_    기타\_\_\_\_\_
- 119 자개미    저곰태기\_\_\_\_\_    살갱이\_\_\_\_\_    저기예기\_\_\_\_\_  
               저기예미\_\_\_\_\_    즌곰태기\_\_\_\_\_    즌기예기\_\_\_\_\_  
               즌기예미\_\_\_\_\_    기타\_\_\_\_\_
- 120 종지뻬    광산뻬\_\_\_\_\_    독팡\_\_\_\_\_    독므리팡\_\_\_\_\_  
               독새기팡\_\_\_\_\_    절뻬팡\_\_\_\_\_    학사니뻬\_\_\_\_\_  
               학산팡\_\_\_\_\_    학설뻬\_\_\_\_\_    학슬뻬\_\_\_\_\_  
               기타\_\_\_\_\_
- 121 정강이    정강이\_\_\_\_\_    정갱이\_\_\_\_\_    성문이\_\_\_\_\_  
               기타\_\_\_\_\_
- 122 정강이뻬    정강팡\_\_\_\_\_    정강뻬\_\_\_\_\_    정문이팡\_\_\_\_\_  
               성문팡\_\_\_\_\_    기타\_\_\_\_\_
- 123 무릎    무릅\_\_\_\_\_    독\_\_\_\_\_    독머리\_\_\_\_\_  
               독무릅\_\_\_\_\_    독므릅\_\_\_\_\_    독몰리\_\_\_\_\_  
               독므릅\_\_\_\_\_    독므릅\_\_\_\_\_    도갓몰리\_\_\_\_\_  
               기타\_\_\_\_\_
- 124 발목    발목\_\_\_\_\_    귀마리\_\_\_\_\_    구마리\_\_\_\_\_  
               기타\_\_\_\_\_

08. 사람 관련 어휘

- 125 가납사니    자자기\_\_\_\_\_    자자귀\_\_\_\_\_    자제기\_\_\_\_\_

- 기타\_\_\_\_\_
- 126 겹쟁이 겹쟁이\_\_\_\_\_ 겹재\_\_\_\_\_ 겹쉬\_\_\_\_\_
- 기타\_\_\_\_\_
- 127 곱사등이 곱새\_\_\_\_\_ 등곱새\_\_\_\_\_ 등곱쟁이\_\_\_\_\_
- 등곱쟁이\_\_\_\_\_ 등곱새\_\_\_\_\_ 기타\_\_\_\_\_
- 128 방귀쟁이 똥복재기\_\_\_\_\_ 똥복새기\_\_\_\_\_ 똥복자귀\_\_\_\_\_
- 똥복쟁이\_\_\_\_\_ 똥푸기\_\_\_\_\_ 똥풀레기\_\_\_\_\_
- 똥퍽새기\_\_\_\_\_ 기타\_\_\_\_\_
- 129 병어리 말모로기\_\_\_\_\_ 말모레기\_\_\_\_\_ 말몰레기\_\_\_\_\_
- 모래기\_\_\_\_\_ 모로기\_\_\_\_\_ 기타\_\_\_\_\_
- 130 솟보기 솟봉태\_\_\_\_\_ 솟다리\_\_\_\_\_ 솟봉이\_\_\_\_\_
- 솟봉제\_\_\_\_\_ 기타\_\_\_\_\_
- 131 애꾸눈이 웨눈박이\_\_\_\_\_ 웨눈뱅이\_\_\_\_\_ 기타\_\_\_\_\_
- 132 왼손잡이 웬갱이\_\_\_\_\_ 웬랭이\_\_\_\_\_ 웬광이\_\_\_\_\_
- 웬자치\_\_\_\_\_ 웬쟁이\_\_\_\_\_ 기타\_\_\_\_\_
- 133 자주와기 자주와리\_\_\_\_\_ 자추와리\_\_\_\_\_ 기타\_\_\_\_\_
- 134 잠보 줌무층이\_\_\_\_\_ 줌무챙이\_\_\_\_\_ 줌묵층이\_\_\_\_\_
- 줌몽층이\_\_\_\_\_ 줌꾸레기\_\_\_\_\_ 줌층이\_\_\_\_\_
- 줌푸데\_\_\_\_\_ 기타\_\_\_\_\_
- 135 줍제기 접제기\_\_\_\_\_ 접주와기\_\_\_\_\_ 쥼주와기\_\_\_\_\_
- 줍주와기\_\_\_\_\_ 기타\_\_\_\_\_
- 136 코맹맹이 코막쟁이\_\_\_\_\_ 코막사니\_\_\_\_\_ 코막쟁이\_\_\_\_\_
- 코막쉬\_\_\_\_\_ 코막은쟁이\_\_\_\_\_ 기타\_\_\_\_\_
- 137 코흘리개 코풀레기\_\_\_\_\_ 코흘레기\_\_\_\_\_ 코흘채기\_\_\_\_\_
- 기타\_\_\_\_\_

#### 09. 질병 관련 어휘

- 138 독창 독짓\_\_\_\_\_ 독지시\_\_\_\_\_ 기타\_\_\_\_\_
- 139 땀띠 땀떼기\_\_\_\_\_ 땀뚜드레기\_\_\_\_\_ 땀뚜기\_\_\_\_\_
- 기타\_\_\_\_\_
- 140 흥역 큰마누라\_\_\_\_\_ 큰한집\_\_\_\_\_ 항것\_\_\_\_\_
- 항긋\_\_\_\_\_ 한집\_\_\_\_\_ 기타\_\_\_\_\_
- 141 버즘 버즘\_\_\_\_\_ 버짐\_\_\_\_\_ 버즘\_\_\_\_\_
- 기타\_\_\_\_\_
- 142 부스럼 부스레미\_\_\_\_\_ 부스럼\_\_\_\_\_ 부스럼지\_\_\_\_\_
- 부으럼\_\_\_\_\_ 부으림지\_\_\_\_\_ 부으레미\_\_\_\_\_
- 기타\_\_\_\_\_



- 143 비루      도랭이\_\_\_\_\_도롱이\_\_\_\_\_기타\_\_\_\_\_
- 144 재채기    헛갱이\_\_\_\_\_헛강이\_\_\_\_\_헛갱이\_\_\_\_\_
- 허갱이\_\_\_\_\_헛갱이\_\_\_\_\_기타\_\_\_\_\_
- 145 주근깨    푼리침\_\_\_\_\_푼리똥\_\_\_\_\_푼리춤\_\_\_\_\_
- 푼리찜\_\_\_\_\_기타\_\_\_\_\_
- 146 기미      기미\_\_\_\_\_지미\_\_\_\_\_기타\_\_\_\_\_

10. 육아 관련 어휘

- 147 태(胎)    테\_\_\_\_\_붓\_\_\_\_\_아깃방석\_\_\_\_\_
- 아깃붓\_\_\_\_\_기타\_\_\_\_\_
- 148 깃저고리    붓디창옷\_\_\_\_\_붓데창옷\_\_\_\_\_붓뒤창옷\_\_\_\_\_
- 붓뒤옷\_\_\_\_\_붓뎃옷\_\_\_\_\_붓뎃창옷\_\_\_\_\_
- 붓뎃적삼\_\_\_\_\_붓뎃옷\_\_\_\_\_붓뎃창옷\_\_\_\_\_
- 붓뎃적삼\_\_\_\_\_붓뎃창옷\_\_\_\_\_배창옷\_\_\_\_\_
- 베넛저고리\_\_\_\_\_기타\_\_\_\_\_
- 149 기저귀    지성귀\_\_\_\_\_지성기\_\_\_\_\_지생이\_\_\_\_\_
- 기타\_\_\_\_\_
- 150 섬마      섬메\_\_\_\_\_섬매\_\_\_\_\_선메\_\_\_\_\_
- 선데\_\_\_\_\_선달\_\_\_\_\_선네\_\_\_\_\_
- 기타\_\_\_\_\_
- 151 도리도리    마니마니\_\_\_\_\_망이망이\_\_\_\_\_기타\_\_\_\_\_
- 152 트림      게트름\_\_\_\_\_게트레기\_\_\_\_\_게트라기\_\_\_\_\_
- 게틀레기\_\_\_\_\_기타\_\_\_\_\_
- 153 하품      하위염\_\_\_\_\_하우염\_\_\_\_\_하위욘\_\_\_\_\_
- 하욘\_\_\_\_\_기타\_\_\_\_\_

11. 놀이 관련 어휘

- 154 개미      게미\_\_\_\_\_굴리\_\_\_\_\_굴이\_\_\_\_\_
- 기타\_\_\_\_\_
- 155 그네      굴메\_\_\_\_\_궁글\_\_\_\_\_줄레\_\_\_\_\_
- 굽베\_\_\_\_\_개동개\_\_\_\_\_동개\_\_\_\_\_
- 기타\_\_\_\_\_
- 156 솜바꼭질    곱을내기\_\_\_\_\_곱음제기\_\_\_\_\_곱음제기\_\_\_\_\_
- 곱을락\_\_\_\_\_기타\_\_\_\_\_
- 157 소꿉장난    흑밥장난\_\_\_\_\_고방갈락\_\_\_\_\_고방갈레\_\_\_\_\_

- 158 양감질      흑밥 \_\_\_\_\_ 혁밥 \_\_\_\_\_ 기타 \_\_\_\_\_  
 청에 \_\_\_\_\_ 살레 \_\_\_\_\_ 정개 \_\_\_\_\_  
 정애 \_\_\_\_\_ 종애 \_\_\_\_\_ 정개고개 \_\_\_\_\_  
 청개고개 \_\_\_\_\_ 기타 \_\_\_\_\_
- 159 연싸움      연타발 \_\_\_\_\_ 연타불 \_\_\_\_\_ 연탐벌 \_\_\_\_\_  
 기타 \_\_\_\_\_
- 160 들들      등들 \_\_\_\_\_ 드름들 \_\_\_\_\_ 들들 \_\_\_\_\_  
 기타 \_\_\_\_\_
- 161 팔매걸      데낄락 \_\_\_\_\_ 네낄락 \_\_\_\_\_ 기타 \_\_\_\_\_

## 12. 친족 관련 어휘

- 162 녃할머니      녃할망 \_\_\_\_\_ 녃할망 \_\_\_\_\_ 기타 \_\_\_\_\_  
 (녀할망 뜻: \_\_\_\_\_ )
- 163 셋째아들      말젧아덜 \_\_\_\_\_ 말갓아덜 \_\_\_\_\_ 말젧아덜 \_\_\_\_\_  
 말챗아덜 \_\_\_\_\_ 기타 \_\_\_\_\_  
 (말젧아덜의 뜻: \_\_\_\_\_ )
- 164 작은아들      죽은아덜의 뜻 \_\_\_\_\_  
 ( \_\_\_\_\_ )

## 13. 자연 관련 어휘

- 165 안개      안개 \_\_\_\_\_ 으남 \_\_\_\_\_ 으남 \_\_\_\_\_  
 으네 \_\_\_\_\_ 기타 \_\_\_\_\_
- 166 안개비      은암비 \_\_\_\_\_ 안개비 \_\_\_\_\_ 줌방비 \_\_\_\_\_  
 줌병이 \_\_\_\_\_ 줌벙이 \_\_\_\_\_ 짐벙이 \_\_\_\_\_  
 기타 \_\_\_\_\_
- 167 무지개      황고지 \_\_\_\_\_ 향고지 \_\_\_\_\_ 상고지 \_\_\_\_\_  
 향구지 \_\_\_\_\_ 향오지 \_\_\_\_\_ 기타 \_\_\_\_\_
- 168 싸라기눈      스레기눈 \_\_\_\_\_ 스라기눈 \_\_\_\_\_ 스락눈 \_\_\_\_\_  
 기타 \_\_\_\_\_
- 169 회오리바람      돛쟁이 \_\_\_\_\_ 도쟁이 \_\_\_\_\_ 돌쟁이 \_\_\_\_\_  
 돛공이 \_\_\_\_\_ 뤼오리 \_\_\_\_\_ 기타 \_\_\_\_\_
- 170 (물)거품      (물)부글레기 \_\_\_\_\_ (물)거꿈 \_\_\_\_\_ (물)계꿈 \_\_\_\_\_  
 기타 \_\_\_\_\_
- 171 햇무리      햇갓 \_\_\_\_\_ 해머리 \_\_\_\_\_ 해머리 \_\_\_\_\_  
 기타 \_\_\_\_\_



- 191 풍뎡이 두미에기\_\_\_\_\_두메기\_\_\_\_\_두무에기\_\_\_\_\_  
두무역\_\_\_\_\_기타\_\_\_\_\_
- 192 바구미 남쉬\_\_\_\_\_남췌\_\_\_\_\_뚝보리\_\_\_\_\_  
뚝부리\_\_\_\_\_기타\_\_\_\_\_
- 193 말벌 사상벌\_\_\_\_\_새당벌\_\_\_\_\_소왕벌\_\_\_\_\_  
기타\_\_\_\_\_
- 194 망아깨비 심방만축\_\_\_\_\_심방말축\_\_\_\_\_산뒤말축\_\_\_\_\_  
산뒤말축\_\_\_\_\_산전불라기\_\_\_\_\_산전불락\_\_\_\_\_  
상동말축\_\_\_\_\_기타\_\_\_\_\_
- 195 사마귀 국쥐애기\_\_\_\_\_당의앵이\_\_\_\_\_기타\_\_\_\_\_
- 196 쥐 쥘이\_\_\_\_\_중이\_\_\_\_\_췌이\_\_\_\_\_  
쥐\_\_\_\_\_기타\_\_\_\_\_
- 197 참새 춤새\_\_\_\_\_밥주리\_\_\_\_\_밥주리생이\_\_\_\_\_  
춤생이\_\_\_\_\_기타\_\_\_\_\_
- 198 모이주머니 멀터거니\_\_\_\_\_멀터쟁이\_\_\_\_\_멀터거리\_\_\_\_\_  
물터거니\_\_\_\_\_멀터\_\_\_\_\_기타\_\_\_\_\_
- 199 지렁이 지렁이\_\_\_\_\_게우리\_\_\_\_\_지룡\_\_\_\_\_  
지룡이\_\_\_\_\_기타\_\_\_\_\_
- 200 도마뱀 독다귀\_\_\_\_\_독다구리\_\_\_\_\_독다귀\_\_\_\_\_  
장칼레비\_\_\_\_\_장쿨레기\_\_\_\_\_장쿨레비\_\_\_\_\_  
장쿨레비\_\_\_\_\_기타\_\_\_\_\_
- 201 거머리 거멀\_\_\_\_\_거머리\_\_\_\_\_거말\_\_\_\_\_  
거마리\_\_\_\_\_기타\_\_\_\_\_
- 202 돼지 도새기\_\_\_\_\_도야지\_\_\_\_\_뚝\_\_\_\_\_  
뚝야지\_\_\_\_\_뚝지\_\_\_\_\_기타\_\_\_\_\_
- 203 병아리 병애기\_\_\_\_\_비애기\_\_\_\_\_비에기\_\_\_\_\_  
병아리\_\_\_\_\_기타\_\_\_\_\_
- 204 박쥐 드라미\_\_\_\_\_드람지\_\_\_\_\_기타\_\_\_\_\_  
(※드람지의 뜻?)
- 205 민달팽이 옷벗은들팽이\_\_\_\_\_집웃인들팽이\_\_\_\_\_기타\_\_\_\_\_
- 206 소라게 게들레기\_\_\_\_\_게드레기\_\_\_\_\_거드레기\_\_\_\_\_  
기타\_\_\_\_\_
- 207 게 강이\_\_\_\_\_궁이\_\_\_\_\_쟁이\_\_\_\_\_  
기타\_\_\_\_\_
- 208 거북손 베체기\_\_\_\_\_대수왈\_\_\_\_\_대오살\_\_\_\_\_  
대우살\_\_\_\_\_기타\_\_\_\_\_
- 209 눈알고동 남생이\_\_\_\_\_문다닥지\_\_\_\_\_문다두리\_\_\_\_\_  
문데기\_\_\_\_\_썩데기\_\_\_\_\_썩보말\_\_\_\_\_  
기타\_\_\_\_\_

- 210 남방울타리고동 꺾매기\_\_\_\_\_좁쟁이\_\_\_\_\_좁새기\_\_\_\_\_  
코트데기\_\_\_\_\_기타\_\_\_\_\_
- 211 두드럭고동 매옹이\_\_\_\_\_메홍이\_\_\_\_\_매훈이\_\_\_\_\_  
맹꽁\_\_\_\_\_메옹이\_\_\_\_\_기타\_\_\_\_\_
- 212 애기삿갓조개 비말\_\_\_\_\_베말\_\_\_\_\_베망\_\_\_\_\_  
벨망\_\_\_\_\_쟁베름\_\_\_\_\_기타\_\_\_\_\_
- 213 소라 구쟁이\_\_\_\_\_구제기\_\_\_\_\_구쟁기\_\_\_\_\_  
고동\_\_\_\_\_기타\_\_\_\_\_
- 214 문어 문계\_\_\_\_\_문계\_\_\_\_\_무꾸럭\_\_\_\_\_  
물꾸럭\_\_\_\_\_문어\_\_\_\_\_문\_\_\_\_\_  
기타\_\_\_\_\_
- 215 베도라치 베드레기\_\_\_\_\_베들레기\_\_\_\_\_벗드레기\_\_\_\_\_  
벗들라기\_\_\_\_\_벗들락\_\_\_\_\_기타\_\_\_\_\_
- 216 갑오징어 민마구리오징어\_\_\_\_\_민마구리\_\_\_\_\_메마구리오징어\_\_\_\_\_  
멩마구리\_\_\_\_\_멩마구리오징어\_\_\_\_\_기타\_\_\_\_\_
- 217 옥돔 생선\_\_\_\_\_생선\_\_\_\_\_오토미\_\_\_\_\_  
오테미\_\_\_\_\_오희미\_\_\_\_\_오톨생선\_\_\_\_\_  
솔나니\_\_\_\_\_솔내기\_\_\_\_\_솔라니\_\_\_\_\_  
솔래기\_\_\_\_\_기타\_\_\_\_\_
- 218 해삼 해삼\_\_\_\_\_미\_\_\_\_\_기타\_\_\_\_\_
- 219 해파리 물룻\_\_\_\_\_물췌\_\_\_\_\_물어음\_\_\_\_\_  
물우슬\_\_\_\_\_물이슬\_\_\_\_\_물이시랭이\_\_\_\_\_  
물이실\_\_\_\_\_물이실멩이\_\_\_\_\_미우설\_\_\_\_\_  
기타\_\_\_\_\_
- 220 오분자기 오분재기\_\_\_\_\_오분작\_\_\_\_\_떡조쟁이\_\_\_\_\_  
조쟁이\_\_\_\_\_바르\_\_\_\_\_기타\_\_\_\_\_  
(※오분재기의 뜻 )

#### 15. 식물 관련 어휘

- 221 나무 낭\_\_\_\_\_남\_\_\_\_\_나모\_\_\_\_\_  
나무\_\_\_\_\_기타\_\_\_\_\_
- 222 나물 낙물\_\_\_\_\_낙물\_\_\_\_\_기타\_\_\_\_\_
- 223 등치 덩체기\_\_\_\_\_덩치\_\_\_\_\_덩케기\_\_\_\_\_  
등케기\_\_\_\_\_등체기\_\_\_\_\_등치\_\_\_\_\_  
덩설맥이\_\_\_\_\_기타\_\_\_\_\_
- 224 뿌리 불희\_\_\_\_\_불히\_\_\_\_\_불휘\_\_\_\_\_  
불리\_\_\_\_\_

	뿔희_____	뿌랭이_____	뿔이_____
	뿌리_____	기타_____	
225 개똥참외	간잘귀_____	간잘미_____	간잘귀_____
	간질기_____	갈제기_____	기타_____
226 구슬잣밤나무	즈베낭_____	저밤낭_____	제밤낭_____
	즈밤낭_____	즈베남_____	기타_____
227 구지뽕나무	긱가시낭_____	귀낭_____	긱가시낭_____
	긱가시_____	긱가시낭_____	긱낭_____
	기타_____		
228 짜리	푸께_____	푸께기_____	푼칠귀_____
	불처귀_____	폴처귀_____	폴체기_____
	기타_____		
229 냥이	난쟁이_____	난쟁이_____	난지_____
	난상이_____	나시_____	난시_____
	기타_____		
230 달래	드르마농_____	드룻마농_____	평마농_____
	평메농_____	평발_____	기타_____
231 마늘	콧대사니_____	대사니_____	송개마농_____
	송개마농_____	송개비_____	기타_____
232 파	패마농_____	뽕이마농_____	쪽파_____
	마농_____		
233 새 품	미뽕쟁이_____	미우쟁이_____	미꾸쟁이_____
	어욱뽕이_____	기타_____	
234 바랭이	제와니_____	절와니_____	절완지_____
	제완지_____	제환지_____	기타_____
235 반하	살마_____	산마_____	삼마_____
	기타_____		
236 뽕딸기	아이머리탈_____	아야머리탈_____	계엄지탈_____
	계여미탈_____	계예미탈_____	기타_____
237 메밀	모물_____	모를_____	메밀_____
	모뎀_____	믄뎀_____	믄물_____
	기타_____		
238 찢레	똥고리_____	동고리_____	도꼬리_____
	기타_____		
239 으름	존갱이_____	유름_____	유름_____
	유으름_____	줄갱이_____	중갱이_____
	기타_____		
240 인동덩굴	인동줄_____	연동줄_____	윤동줄_____
	은동줄_____	인동출_____	기타_____



- 241 제비꽃 물고장\_\_\_\_\_물싸움고장\_\_\_\_\_물코장\_\_\_\_\_  
 습쿨\_\_\_\_\_솔게풀\_\_\_\_\_아진베기꽃\_\_\_\_\_  
 아즌베기꽃\_\_\_\_\_아진베기고장\_\_\_\_\_기타\_\_\_\_\_
- 242 박 꼭\_\_\_\_\_쿨락\_\_\_\_\_쿨왁\_\_\_\_\_  
 기타\_\_\_\_\_
- 243 파초 반치\_\_\_\_\_반추\_\_\_\_\_반초\_\_\_\_\_  
 기타\_\_\_\_\_
- 244 하늘타리 하늘레기\_\_\_\_\_간질레기\_\_\_\_\_천두레기\_\_\_\_\_  
 하늘웨이\_\_\_\_\_하늘웨이\_\_\_\_\_기타\_\_\_\_\_
- 245 청미래덩굴 멧게낭\_\_\_\_\_멜레기낭\_\_\_\_\_멧광낭\_\_\_\_\_  
 멧괘낭\_\_\_\_\_멧기낭\_\_\_\_\_벨랑귀낭\_\_\_\_\_  
 벨레기낭\_\_\_\_\_기타\_\_\_\_\_
- 246 썰레나무 새비낭\_\_\_\_\_도꼬리낭\_\_\_\_\_똥고리낭\_\_\_\_\_  
 기타\_\_\_\_\_
- 247 멸구슬나무 머쿠슬낭\_\_\_\_\_물쿠슬낭\_\_\_\_\_물쿠실낭\_\_\_\_\_  
 물쿠지낭\_\_\_\_\_몽쿠실낭\_\_\_\_\_기타\_\_\_\_\_
- 248 실거리나무 썰거리낭\_\_\_\_\_실거리낭\_\_\_\_\_가풀낭\_\_\_\_\_  
 갑풀낭\_\_\_\_\_범주리가시\_\_\_\_\_범주리낭\_\_\_\_\_  
 수꾸리낭\_\_\_\_\_쑥고리낭\_\_\_\_\_기타\_\_\_\_\_
- 249 예덕나무 복닥낭\_\_\_\_\_다간죽낭\_\_\_\_\_다근죽낭\_\_\_\_\_  
 쉼닥낭\_\_\_\_\_딱낭\_\_\_\_\_기타\_\_\_\_\_
- 250 탕자나무 탕즈낭\_\_\_\_\_개탕쥐낭\_\_\_\_\_탱기낭\_\_\_\_\_  
 통지낭\_\_\_\_\_통지낭\_\_\_\_\_기타\_\_\_\_\_
- 251 모자만 몸\_\_\_\_\_몰망\_\_\_\_\_므망\_\_\_\_\_  
 기타\_\_\_\_\_
- 252 툷 툷\_\_\_\_\_툷\_\_\_\_\_기타\_\_\_\_\_

## 16. 동사

- 253 가두다 가두다\_\_\_\_\_가도다\_\_\_\_\_가치다\_\_\_\_\_  
 가둡다\_\_\_\_\_기타\_\_\_\_\_
- 254 가렵다 ㄹ렵다\_\_\_\_\_ㄹ릅다\_\_\_\_\_ㄹ릅다\_\_\_\_\_  
 기타\_\_\_\_\_
- 255 가져오다 ㄹ저오다\_\_\_\_\_으저오다\_\_\_\_\_거저오다\_\_\_\_\_  
 아저오다\_\_\_\_\_기타\_\_\_\_\_
- 256 기울이다 주올이다\_\_\_\_\_기올이다\_\_\_\_\_중올이다\_\_\_\_\_  
 지올이다\_\_\_\_\_기타\_\_\_\_\_
- 257 기웃하다 지웃하다\_\_\_\_\_주웃하다\_\_\_\_\_주웃하다\_\_\_\_\_

- 기타\_\_\_\_\_
- 258 **넘기다**    뉅기다\_\_\_\_\_    넘기다\_\_\_\_\_    기타\_\_\_\_\_
- 259 **다니다**    뉅기다\_\_\_\_\_    드니다\_\_\_\_\_    뉅이다\_\_\_\_\_
- 기타\_\_\_\_\_
- 260 **던지다**    테끼다\_\_\_\_\_    네끼다\_\_\_\_\_    던지다\_\_\_\_\_
- 기타\_\_\_\_\_
- 261 (다리) **도사리다**    웨사리다\_\_\_\_\_    복쉬웨우다\_\_\_\_\_    복쉬테우다기타\_\_\_\_\_
- 기타\_\_\_\_\_
- 262 **뒤집다**    뒤집다\_\_\_\_\_    웨쓰다\_\_\_\_\_    웨집다\_\_\_\_\_
- 기타\_\_\_\_\_
- 263 **들이켜다**    들이쓰다\_\_\_\_\_    들이씨다\_\_\_\_\_    들으쓰다\_\_\_\_\_
- 들으씨다\_\_\_\_\_    기타\_\_\_\_\_
- 264 (얼매) **따다**    타다\_\_\_\_\_    따다\_\_\_\_\_    툃다\_\_\_\_\_
- 따다\_\_\_\_\_    기타\_\_\_\_\_
- 265 (술) **따르다**    따르다\_\_\_\_\_    들로다\_\_\_\_\_    들루다\_\_\_\_\_
- 들오다\_\_\_\_\_    기타\_\_\_\_\_
- 266 **똥다**    똥·똥다\_\_\_\_\_    딸르다\_\_\_\_\_    딸우다\_\_\_\_\_
- 기타\_\_\_\_\_
- 267 **뛰다**    튀다\_\_\_\_\_    퀴다\_\_\_\_\_    뛰다\_\_\_\_\_
- 기타\_\_\_\_\_
- 268 (담) **무너지다**    너리지다\_\_\_\_\_    머흐리지다\_\_\_\_\_    멀어지다\_\_\_\_\_
- 몰아지다\_\_\_\_\_    내려지다\_\_\_\_\_    머으리지다\_\_\_\_\_
- 커지다\_\_\_\_\_    터지다\_\_\_\_\_    히여지다\_\_\_\_\_
- 기타\_\_\_\_\_
- 269 **반기 도르다**    반테우다\_\_\_\_\_    반놓다\_\_\_\_\_    반느누다\_\_\_\_\_
- 반페우다\_\_\_\_\_    반흐다\_\_\_\_\_    기타\_\_\_\_\_
- 270 **베따다**    베르싸다\_\_\_\_\_    베브르다\_\_\_\_\_    베카다\_\_\_\_\_
- 베크다\_\_\_\_\_    베타다\_\_\_\_\_    페싸다\_\_\_\_\_
- 페싸다\_\_\_\_\_    기타\_\_\_\_\_
- 271 **벨다**    바끄다\_\_\_\_\_    바트다\_\_\_\_\_    기타\_\_\_\_\_
- 272 **쉬다**    서끄다\_\_\_\_\_    서트다\_\_\_\_\_    기타\_\_\_\_\_
- 273 **숨기다**    숨기다\_\_\_\_\_    곱지다\_\_\_\_\_    숨키다\_\_\_\_\_
- 기타\_\_\_\_\_
- 274 **실다**    시끄다\_\_\_\_\_    시르다\_\_\_\_\_    실르다\_\_\_\_\_
- 기타\_\_\_\_\_
- 275 **옴파다**    옴파다\_\_\_\_\_    옴푸다\_\_\_\_\_    옴핀다\_\_\_\_\_
- 옴파다\_\_\_\_\_    옴핀다\_\_\_\_\_    옴푸다\_\_\_\_\_
- 기타\_\_\_\_\_
- 276 **월식하다**    월식흐다\_\_\_\_\_    둘개들러먹다\_\_\_\_\_    둘개먹다\_\_\_\_\_

- 기타\_\_\_\_\_
- 277 이올다 유올다\_\_\_\_\_ 여올다\_\_\_\_\_ 유올다\_\_\_\_\_
- 올다\_\_\_\_\_ 이올다\_\_\_\_\_ 기타\_\_\_\_\_
- 278 짓다 주끄다\_\_\_\_\_ 주치다\_\_\_\_\_ 지꾸다\_\_\_\_\_
- 기타\_\_\_\_\_
- 279 끼이다 줍지다\_\_\_\_\_ 접지다\_\_\_\_\_ 쥼지다\_\_\_\_\_
- 쥼히다\_\_\_\_\_ 기타\_\_\_\_\_
- 280 (얼굴) 쨍그리다 (꼴)싱으리다\_\_\_\_\_ (꼴)싱그리다\_\_\_\_\_
- (꼴)싱크리다\_\_\_\_\_ (꼴)징으리다\_\_\_\_\_ 기타\_\_\_\_\_
- 281 팔짱끼다 풀째지다\_\_\_\_\_ 손째찌다\_\_\_\_\_ 풀뚝찌다\_\_\_\_\_
- 풀뚱찌다\_\_\_\_\_ 풀쨍찌다\_\_\_\_\_ 풀쑤찌다\_\_\_\_\_
- 기타\_\_\_\_\_

### 17. 형용사

- 282 가득하다 소빱흐다\_\_\_\_\_ 수빱흐다\_\_\_\_\_ 숨빱흐다\_\_\_\_\_
- 숨빱흐다\_\_\_\_\_ 그득흐다\_\_\_\_\_ 그뚝흐다\_\_\_\_\_
- 기타\_\_\_\_\_
- 283 가지런하다 크짱흐다\_\_\_\_\_ 크똥흐다\_\_\_\_\_ 크칭흐다\_\_\_\_\_
- 크짱흐다\_\_\_\_\_ 기타\_\_\_\_\_
- 284 간지럽다 즈곱다\_\_\_\_\_ 즈급다\_\_\_\_\_ 즈꼴로다\_\_\_\_\_
- 저급다\_\_\_\_\_ 근지럽다\_\_\_\_\_ 근지럽다\_\_\_\_\_
- 기타\_\_\_\_\_
- 285 눈부시다 눈저급다\_\_\_\_\_ 눈즈급다\_\_\_\_\_ 눈즈급다\_\_\_\_\_
- 눈제겹다\_\_\_\_\_ 눈저급다\_\_\_\_\_ 기타\_\_\_\_\_
- 286 되알지다 웨알지다\_\_\_\_\_ 웨양지다\_\_\_\_\_ 웨영지다\_\_\_\_\_
- 뒤영지다\_\_\_\_\_ 두렁지다\_\_\_\_\_ 기타\_\_\_\_\_
- 287 두깍다 두깍다\_\_\_\_\_ 두땀다\_\_\_\_\_ 두땀다\_\_\_\_\_
- 기타\_\_\_\_\_
- 288 매옴하다 맵지룽흐다\_\_\_\_\_ 맵지근흐다\_\_\_\_\_ 맵지랑흐다\_\_\_\_\_
- 매우룽흐다\_\_\_\_\_ 매옴흐다\_\_\_\_\_ 매주랑흐다\_\_\_\_\_
- 기타\_\_\_\_\_
- 289 재수 좋다 머의 좋다\_\_\_\_\_ 머셈이 좋다\_\_\_\_\_ 머쟁이 좋다\_\_\_\_\_
- 머희 좋다\_\_\_\_\_ 기타\_\_\_\_\_

### 18. 감탄사

- 290 떠바      떠바 \_\_\_\_\_ 떠볼라 \_\_\_\_\_ 기타 \_\_\_\_\_
- 291 개치네췌      허췌 \_\_\_\_\_ 어치나 \_\_\_\_\_ 어취나 \_\_\_\_\_  
기타 \_\_\_\_\_
- 292 아마팅어리      아마티어리 \_\_\_\_\_ 아마팅어리 \_\_\_\_\_ 기타 \_\_\_\_\_
- 293 췌췌      어마넉덜라 \_\_\_\_\_ 어마넉들라 \_\_\_\_\_ 아마넉덜라 \_\_\_\_\_  
아마넉들라 \_\_\_\_\_ 기타 \_\_\_\_\_

## 19. 부사

- 294 나중      나중 \_\_\_\_\_ 낭중 \_\_\_\_\_ 내중 \_\_\_\_\_  
냉중 \_\_\_\_\_ 기타 \_\_\_\_\_
- 295 늘      느랑 \_\_\_\_\_ 녀랑 \_\_\_\_\_ 늘랑 \_\_\_\_\_  
늘 \_\_\_\_\_ 느리 \_\_\_\_\_ 기타 \_\_\_\_\_
- 396 두령청이      거령청이 \_\_\_\_\_ 두령청이 \_\_\_\_\_ 두령성이 \_\_\_\_\_  
기타 \_\_\_\_\_
- 297 빨리      자게 \_\_\_\_\_ 재기 \_\_\_\_\_ 재계 \_\_\_\_\_  
빨리 \_\_\_\_\_ 기타 \_\_\_\_\_
- 298 얼마      얼마 \_\_\_\_\_ 얼마나 \_\_\_\_\_ 얼마 \_\_\_\_\_  
언매 \_\_\_\_\_ 언마 \_\_\_\_\_ 은매 \_\_\_\_\_  
을마 \_\_\_\_\_ 을매 \_\_\_\_\_ 기타 \_\_\_\_\_
- 299 이따가      이땅 \_\_\_\_\_ 이따그네 \_\_\_\_\_ 이따가 \_\_\_\_\_  
기타 \_\_\_\_\_
- 300 제만큼      제만씩 \_\_\_\_\_ 제금만씩 \_\_\_\_\_ 제네만씩 \_\_\_\_\_  
제만큼 \_\_\_\_\_ 지네만씩 \_\_\_\_\_ 지네만큼 \_\_\_\_\_  
지만씩 \_\_\_\_\_ 지만씩 \_\_\_\_\_ 기타 \_\_\_\_\_
- 301 줄곧      죽장 \_\_\_\_\_ 줄곧 \_\_\_\_\_ 혼진네 \_\_\_\_\_  
장호레로 \_\_\_\_\_ 장희로 \_\_\_\_\_ 기타 \_\_\_\_\_
- 302 처음      처음 \_\_\_\_\_ 처엄 \_\_\_\_\_ 체암 \_\_\_\_\_  
초담 \_\_\_\_\_ 기타 \_\_\_\_\_
- 303 함께      혼뒤 \_\_\_\_\_ ㄱ찌 \_\_\_\_\_ ㄱ치 \_\_\_\_\_  
기타 \_\_\_\_\_
- 304 헤피      헤피 \_\_\_\_\_ 허피 \_\_\_\_\_ 호피 \_\_\_\_\_  
희피 \_\_\_\_\_ 기타 \_\_\_\_\_
- 305 혼자      혼차 \_\_\_\_\_ 혼체 \_\_\_\_\_ 혼자 \_\_\_\_\_  
기타 \_\_\_\_\_

## 20. 문법소와 음운 사항

- 306 떡이 버리다 떡이 부러져\_\_떡이 비었져\_\_\_\_\_떡이 버러져\_\_\_\_\_  
기타\_\_\_\_\_
- 307 헤버리다 헤비언\_\_\_\_\_헤부런\_\_\_\_\_기타\_\_\_\_\_
- 308 저 아이 자의\_\_\_\_\_자이\_\_\_\_\_절미\_\_\_\_\_  
기타\_\_\_\_\_
- 309 이 아이 야의\_\_\_\_\_야이\_\_\_\_\_일미\_\_\_\_\_  
기타\_\_\_\_\_
- 310 -면 -른\_\_\_\_\_면\_\_\_\_\_기타\_\_\_\_\_

21 기타

311 우리 고장말은 어디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까?(대정 정의 모관)

312 이 고장의 방언 경계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보자 정보			
이름:	나이: (남 / 여)	직업:	학력:
출생지:	군(시)	면(읍)	리(동)
거주지:	군(시)	면(읍)	리(동)
타지방거주:	군(시)	면(읍)	리(동)
:	년간 거주		
부모의 고향: (부)	군(시)	면(읍)	리(동)
생장지 : (모)	군(시)	면(읍)	리(동)
배우자 고향:	군(시)	면(읍)	리(동)